東北亞細亞文化學會 第21次 國際學術大會 2010·10·23 東北亞細亞文化學會

東北亞細亞文化學會
第21次 國際學術大會

The 2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 日時 : 2010年 10月 23日

▶ 場所 : 釜山 釜慶大學校 大淵캠퍼스

▶ 主催 : 東北亞細亞文化學會

東亞細亞日本學會

釜慶大學校 海洋文化研究所

▶ 後援 : 韓國研究財團

釜慶大學校

東北亞細亞文化學會
第21次國際學術大會
The 2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모시는 글

전세계적으로 "近代" 혹은 "近代化"로의 변화는 "바다"라는 공간이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는 Wallerstein의 **"근대세계체제"**라는 구조에서 볼 때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바다는 어떤 국가에게는 진출의 장이 되기도 했고, 어떤 국가에게는 침략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이 공간을 통해 **"근대"**라 일컫는 세계적인 질서 구조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양에서 특히 두드러지기는 했으나, 동아시아에서도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질서 체제가 **바다를 통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바다"는 활동의 장 혹은 진출의 장으로 인식되고 연구되기 보다는 단지 침탈이나 전쟁의 수단이 되는 "장소"로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회의에서는 바다의 생명력에 주목하여 "활동"과 "진출"의 장으로서 바라봄과 동시에, **"주체"이며 "목적"이자 "결과"**로 인식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관련 학회와 연구소들은 동아시아 근대와 관련한 이런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서양에서와는 달리 소홀이 다루어져 왔던 공간, "바다"를 재조망하려는데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연합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원님과 김채수 회장님, 공동주최자인 해양문화연구소 신명호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류 청 로

Letter of Invitation

Space "Sea" has become the medium of change into "Modernity" or "Modernization" worldwide. It is obviously seen in the "Modern World System" written by Wallerstein. It is true that sea in this book plays a role of advancement in the side of some countries, or field of invasion in the other side. However, it is a fact that the structure of world order, which is referred to be 'Modernization," has changed through this space. Even though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West, the previous order system in East Asia has been also changed under the name of "Modernization" through sea. However, "sea" in East Asia has a tendency to be recognized only as a place of war or invasion instead of the field of activity or the field of advancement.

In this regard, we will try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sea as both "Subject and Objective" as well as "Consequence" along with seeing it as the field of activity and advancement by focusing on the vitality of the sea in this academic conference. Societies and Institutes of this conference put the primary purpose in shedding light on the sea, which has been neglected, in association with the modernization in East Asia in comparison with the West for the change of recognition.

We send our appreciation to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and president, Kim Chae-Soo, and the head of the Maritime Culture Institute, Shin Myung-Ho who is the co-host of this conference for making efforts for the opening of this United International Conference.

Ryu, Cheong-Ro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Cultures

10月23日 東北亜細亜文化学会　第21次国際学術大会

(釜山　釜慶大学 大淵캠퍼스)

主題 ： **동아시아의 바다 -고대에서 근대로-**

10:00~10:30	登 録		
10:30~11:00	開 会 式 [場所：未来館 소민홀]	開会辞：柳青魯（東北亜細亜文化学会長） 祝辞 ： 許勇勲（釜慶大 人文社会科学大学長） 論文賞　授与式：申明鎬（釜慶大）	司会 尹 一 （釜慶大）
11:00~12:00	基調講演 [場所：上同]	演士：李成戊（前 国史編纂委員長） 題目：아시아 지역의 통합 전망	
12:00~13:00	中　食		
13:00~17:00	分科発表 [場所：総合講義棟(13호관)]		
17:30~18:00	閉会式 [場所：東北亜細亜文化学会☞ 未来館 소민홀 東亜細亜日本学会☞ 未来館 3F 宴会場]		
18:00~20:00	懇談会 일파가야금 합주단(한국 전통문화 공연) [場所：未来館 3F 宴会場]		

場所：総合206

特別企画分科		“근대적 바다의 발견”		座長 신명호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강재순 (부산대)	1920~30년대 제주도해녀조합의 활동과 분쟁 양상	심민정 (부경대)
			討論 : 이예지	
2	13:30~14:00	이예지 (부경대)	『韓国水産誌』의 통계자료와 문제점	
			討論 : 신보배	
3	14:00~14:30	신명호 (부경대)	『한국수산지』의 航路와 조선후기의 海路	
			討論 : 강재순	
休息				
4	14:40~15:10	신보배 (부경대)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경남 지역의 어업 현황 -『경상남도도세요람』과 비교하여-	이예지 (부경대)
			討論 : 심민정	
5	15:10~15:40	심민정 (부경대)	근대 부산 지역 일본인 해양수산사업	
			討論 : 신명호	
6	15:40~16:10	한임선 (부경대)	근대 조선의 수산조직 정비와 어업제도에 대한 고찰 -1908년『한국수산지』의 편찬과 어업법의 반포를 중심으로-	
			討論 : 전지혜	
休息				
7	16:20~16:50	전지혜 (부경대)	『한국수산지』를 통해서 본 조선의 근대적 수산물	이예지 (부경대)
			討論 : 한임선	

場所：総合101

第 1 分科		語学		座長 손동주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김종완 (중앙대)	한중일 의뢰행동의 설명부 발화패턴의 대조분석 -인터뷰조사의 무브사용실태 분석를 중심으로-	이윤호 (神戸大学)
			討論：이병훈	
2	13:30~14:00	이병훈 (전남대)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 최적성이론에 의한 분석	
			討論：김종완	
3	14:00~14:30	박미영 (부경대)	『「など」「なんか」「なんて」とモダリティ	
			討論：박영숙	
休息				
4	14:40~15:10	이윤호 (神戸大学)	翻訳課題に見る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理解 — 「～込む」を中心に —	座長 최건식
			討論：최건식	김종완 (중앙대)
5	15:10~15:40	이상원 (부경대)	日本語の自動詞における「再帰性」の考察	
			討論：이윤호	
6	15:40~16:10	Mukhammad L.P (푸쉬긴 러시아어 연구소)	한국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러시아어 교수법 구조	천호강 (부산외대)
			討論：천호강	

場所：総合202

第 2 分科		文学 1		座長 김상규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서영교 (중원대)	『삼국유사』安民歌 창작의 시대적 배경	고용환 (경남정보대)
			討論 : 옥상미	
2	13:30~14:00	고용환 (경남정보대)	万葉の「蟬の声」歌一考	
			討論 : 김상규	
3	14:00~14:30	옥상미 (부산외대)	『만요슈(万葉集)』에 나타난 안개의 미적 표현	
			討論 : 고용환	
休息				
4	14:40~15:10	최은경 (부산외대)	『가면의 고백』시론 -에피그래프를 실마리로 하여-	座長 윤 일
			討論 : 김화영	김상규 (부경대)
5	15:10~15:40	조은애 (동국대)	이희성의 텍스트에 나타난 '인양(引揚げ)'과 '귀환(帰還)'	
			討論 : 이인심	
6	15:40~16:10	박전열, 최중락 (중앙대)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에 보이는 여성 이미지	
			討論 : 김상규	
休息				
7	16:20~16:50	황석주 (덕성여대)	노(能)「간단(邯鄲)」과 희곡「간단(邯鄲)」에 관한 일고찰	김상규 (부경대)
			討論 : 박전열	
8	16:50~17:20	김상규 (부경대)	고대 왕조의 강림전승에 관한 일고찰	
			討論 : 옥상미	

場所：総合203

第 3 分科		文学 2		座長 진명순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박설아 (고려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몽골인식	진명순 (영산대)
			討論：진명순	
2	13:30~14:00	진명순 (영산대)	倉田百三の『出家とその弟子』に表われている「聖さ」について	
			討論：박호영	
3	14:00~14:30	권 경 (고려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雪国)』에 나타난 자연관에 대한 고찰	
			討論：양연자	
休息				
4	14:40~15:10	양연자 (유한대학)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아동문학	座長 박영숙
			討論：조정민	조정민 (부경대)
5	15:10~15:40	박호영 (고려대)	하야시후미코(林芙美子)의『방랑기(放浪記)』와『풍금과 물고기의 마을(風琴と魚の町)』에 나타난 공간 고찰 -도쿄(東京)와 오노미치(尾道)를 중심으로-	
			討論：양연자	
6	15:40~16:10	김옥지 (부경대)	역사소설을 통한 자기비판에 관하여 —森鴎外「山椒大夫」와 芥川龍之介「羅生門」을 중심으로 —	
			討論：조정민	
休息				
7	16:20~16:50	서동주 (서울대)	다이쇼기 사상공간의 재편성	서동주 (서울대)
			討論：박상현	
8	16:50~17:20	박상현 (경희대)	호소이 하지메 번역본(閔)『薔花紅蓮伝』연구	
			討論：서동주	

場所：総合204

第 4 分科		文学 3		座長 윤 일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이성혜 (부산대)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과 성격	김계자 (경원대)
			討論 : 김계자	
2	13:30~14:00	김계자 (경원대)	한일문화의 공동권역 -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討論 : 이성혜	
3	14:00~14:30	이인심 (부경대)	蒲団과浮雲 주인공의 理想적인 사랑의 관념	
			討論 : 김영순	
休息				
4	14:40~15:10	오 경 (덕성여대)	형제관계로 읽는 『무정(無情』과 『우미인초(虞美人草)』	座長 오 경
			討論 : 윤 일	이성혜 (부산대)
5	15:10~15:40	노영숙 (부경대)	芥川竜之介의 「人工の翼」	
			討論 : 김옥지	
6	15:40~16:10	이상혁 (고려대)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麦と兵隊』에서 화자의 자기 표상에 대한 연구	
			討論 : 노영숙	
休息				
7	16:20~16:50	김영순 (청주대)	세이토의 문학적 평가에 관한 고찰 - 가토 미도리(加藤みどり)의 작품분석을 축으로	이성혜 (부산대)
			討論 : 이상혁	
8	16:50~17:20	김화영 (동양미래대학)	천공의 성 '라퓨타'론	
			討論 : 최은경	

場所：総合102

第 5 分科		東北亜 歷史		座長 이규배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박현규 (순천향대)	17세기 전반 対明 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이규배 (탐라대)
			討論 : 조세현	
2	13:30~14:00	박정련 (영남대)	순조조『戊子進爵儀軌』에서 '鄕唐交奏'雅名의 문헌적 검토	
			討論 : 박현규	
3	14:00~14:30	이규배 (탐라대)	조선시대 동아시아 三国의 済州島 인식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討論 : 박정련	
休息				
4	14:40~15:10	양수지 (홍익대)	근세 제주와 유구왕국	座長 조세현
			討論 : 이규배	이민원 (원광대)
5	15:10~15:40	이민원 (원광대)	러시아 사행기를 통해본 해양	
			討論 : 양수지	
6	15:40~16:10	조세현 (부경대)	해양에서 바라 본 《만국공법》 -대고구(大沽口)선박사건을 중심으로	
			討論 : 이민원	

場所：総合103

第6分科		日本歴史･文化		座長 金子　哲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亀田　俊和 （京都大学）	清廉潔白な奉行人 ―室町幕府奉行人依田時朝に関する一考察―	合田博子 （兵庫県立大学）
			討論：金子　哲	
2	13:30~14:00	金子　哲 （兵庫大学）	式目42条と日本社会の大転換	
			討論：亀田　俊和	
3	14:00~14:30	合田 博子 （兵庫県立大学）	環境神話学序説－天神系としての少彦名神ー	
			討論：宮本 佳典	
休息				
4	14:40~15:10	宮本 佳典 （加古川市教育委員会）	古代播磨の半島文化 －資料と伝説から概観する－	座長 金子　哲
			討論：岡本　洋之	岡本洋之 （兵庫大学）
5	15:10~15:40	牧田　満知子 （兵庫大学）	日本人の死生観と宗教 －ターミナルケアという視座から見る宗教的「生と死」－	
			討論：湯瀬 晶文	
6	15:40~16:10	湯瀬 晶文 （兵庫大学）	日本人の「死生観」についての一考察 ～尊厳死を中心としたアンケートを通して～	
			討論：牧田　満知子	
休息				
7	16:20~16:50	岡本　洋之 （兵庫大学）	The History of Kirishitan Community at Urakami on the Northern Side of Nagasaki City (1638-1966)	牧田 満知子 （兵庫大学）
			討論：合田 博子	

場所：総合301

第 7 分科		東北亜 社会·文化 I		座長 주봉호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임석원 (부경대)	한국과 일본에서의 재산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임석원 (부경대)
			討論 : 윤 일	
2	13:30~14:00	허 균 (부경대)	아동의 변화에 따른 비행행동의 성별차이 연구	
			討論 : 임석원	
3	14:00~14:30	김창경 (부경대)	창조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문화정책방향	
			討論 : 주봉호	
休息				
4	14:40~15:10	주봉호 (동의대)	한반도 분단의 성격 고찰	座長 김창경
			討論 : 임석원	주봉호 (동의대)
5	15:10~15:40	James Strohmaier (부경대)	From Sea to Shining Sea: The Evolution of China's Pacific Policy	
			討論 : Eduardo Albrecht	
6	15:40~16:10	Eduardo Albrecht (부경대)	A Study in Anthropology: Narratives of Korea Amongst Northern Defectors Living in Seoul	
			討論 : James Strohmaier	
休息				
7	16:20~16:50	장궈량 (상해교통대학)	비자연의 경계 -문화 전파의 인의적 장애-	김창경 (부경대)
			討論 : 진선원	
8	16:50~17:20	진선원 (상해교통대학)	중국 연해 문화의 형성과 특징	
			討論 : 사오메이이	

場所：総合207

第８分科		東北亜 社会･文化Ⅱ		座長 성해준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한국의 두레와 중국 북방 앙가놀이 비교연구 -연희를 중심으로-	성해준 (동의대)
			討論：성해준	
2	13:30~14:00	성해준 (동명대)	퇴계의 성학십도와 일본의 제왕학과의 관계 고찰	
			討論：김용국	
3	14:00~14:30	이선희 (東北大学)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과 동북지방의 결혼이민자 실태	
			討論：세키네 히데유키	
休息				
4	14:40~15:10	세키네 히데유키 (경원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 민족문화 인식 -‘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으로-	座長 채영숙
			討論：이선희	김양숙 (명지대)
5	15:10~15:40	김양숙 (명지대)	「韓流」を通して見た韓日相互理解の乖離についての考察	
			討論：채영숙	
6	15:40~16:10	채영숙 (영산대)	게임 제목의 의미와 게임 요소와의 관계 분석	
			討論：김양숙	

場所：人文317

第 9 分科		東北亜 思想		座長 이근우
順序	時間	発表者	主題	司会
1	13:00~13:30	이근우 (부경대)	율령의 수용과 고대 사회의 변화	윤병남 (서강대)
			討論 : 정효운	
2	13:30~14:00	남기학 (한림대)	承久의 乱의 사상사적 의의	
			討論 : 신종대	
3	14:00~14:30	박수철 (서울대)	중・근세 이행기의 정치사상	
			討論 : 박화진	
休息				
4	14:40~15:10	윤병남 (서강대)	근세 洋学의 발전과 세계인식의 변화	이근우 (부경대)
			討論 : 이근우	
5	15:10~15:40	김용덕 (광주과기대)	明六社	
			討論 : 박 훈	

아시아 지역의 통합 전망

이 성 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초기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고 했다가 미국과 중국·일본의 반발로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로 고친 적이 있다. 이만큼 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요즈음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해 왔으나 1년 남짓 로드맵만 그렸지 주도권을 균형발전위원회에 빼앗겼다. 균형자 역할은 미국과 같이 힘있는 대국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아시아를 제패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전근대대에, 일본은 근대에 패권국가를 경험한 바 있다. 반면에 한국은 두 경우에 다 예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 균형자 역할은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세력에게 제압되어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은 제 2차대전 이후 '중국 없는' 동남아 경영에 나름대로 성공했으나 중국이 복귀한 후 대립각만 세우고 있으며,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에 안주해 왔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경제협력 등에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균형자 역할은 자연 초강대국인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는데 전력투구할 뿐 지역에 대한 기여는 뒷전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경제 역시 자본주의 체제를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발전은 주변국 경제의 공동화(hollowing out)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핵 보유국이며, 거대한 군대는 주변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일본경제는 역내 리더가 되기에는 너무나 폐쇄적이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무역량으로 산출한 무역의존도가 20% 미만으로 중국보다 낮고, 국내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FDI)의 비중도 가장 폐쇄적인 미얀마 수준에 버금가는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벽이 일본의 역내 교역이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농업분야의 자유화에 반대가 심하다. 이러한 상태로는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달랠 수 없다. 거기다가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조어도(釣魚島) 영토분쟁, 등 주변국과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고 있으니 협력은 더욱 어렵다.

동아시아가 단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책임이 크다. 후구사와 유기지(福澤諭吉) 이후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걸어 동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지금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제압하려하고 있다. Japonica, Amerip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일연대는 강화되어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중·일 3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세대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경제발전에 따른 이들의 과거로부터의 자율성, 자신감,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이다. 게다가 국내 정치세력이 정치적 계산에서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 중국에서는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대체할 민족주의를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당내 기반이 취약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민족주의란 내적인 일체감을 고양하는 강점이 있으나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하기 어렵고 주변국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는 일제를 살아 온 기득권세력을 타도하는 무기로도 쓰인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횡행하던 강력한 국시(國是)인 반공(反共)은 폐기되다시피 되고,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친일파의 색출과 정리가 본령으로 되었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계보 중에는 일제 유물사관에 바탕을 둔 좌익계가 있었고, 그 계통이 박헌영의 남로당으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노동당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직 이를 적나라하게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여운형을 내세우고, 김구(金九)와 김규식(金奎植)을 내세운다. 그러나 여운형은 일본과 친했고, 그의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는 박헌영 일파에게 점령당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을 부르짖다가 북한 공산당에게 이용당했다. 요즈음 의식화된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과거 좌익들이 주장하던 통일(統一)·반미(反美)·미군철수(美軍撤收)를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친북좌파(親北左派)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방조한다. 그래서 역사는 자꾸 그쪽으로 흘러간다. 일제를 경험한 기득권층은 6.25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경제를 세계 11위권으로 끌어 올렸으나 친일과 부정부패의 약점 때문에 젊은 민족주의자들에게 밀리고 있다. 신·구의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과거 훈구파와 사림파 싸움에서도 훈구파는 기득권층으로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있었으나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림파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세월도 젊은 사림파의 편이었다. 도학정치(道學政治)를 내세워 훈구파의 비리를 파헤쳐 훈구파를 정권에서 몰아낸 것이다.

다시 국제문제로 돌아가자. 경제력이 아직 취약한 한국은 동북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대의 수혜자가 되지만, 동북아가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경연장이 되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감정적 민족주의의 분출을 억제하며, 성실한 자세로 동북아 통합에 매진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통합을 원한다면 일본과의 FTA를 체결해 자유화에 대한 더욱 확고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안정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긴밀한 인적교류, 국가 간의 협력 등 지역통합의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중국과 표면적 협력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실익이 크고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한·일 FTA를 바탕으로 이를 점차 주변국으로 확대해 나가면 아시아 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유럽 통합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유럽 전역에 확대해 나가지 않았던가? 미국도 처음에 캐나다와 FTA를 맺은 뒤 이를 멕시코(NFTA), 미주 전역(FTAA)으로 확대하지 않았나? 이는 단순히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심도 있는 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서 지역 전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148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HO)는 여러 면에서 무기력함을 들어내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EU(유럽연합)·NAFTA(북미자유무역협정)·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소수국가들이 FTA(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지역경제통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독 아시아에는 ASEAN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역경제연합이 없다. 중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쟁탈전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의 경제위기를 당한 이후로 ASEAN+3가 거론되었으나 한·중·일이 각각 ASEAN과 협력하는 ASEAN+1의 병열구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곧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세계무역 2, 6, 11위를 차지하는 일본·중국·한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교섭력 증대에도 지대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자원, 기술, 자본, 시장 등에서 상호 보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경제 협력체를 형성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3국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한·중·일 3국은 제도나 정치의 통합 없이도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 되었고, 일본은 미국에 이어 3위의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한국이 4위의 무역 대상국이다.

한·중·일 3국간의 무역마찰이 급증하는 것도 경제관계의 급증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과 국가 간의 상이한 법과 제도의 통일은 앞으로 경제통합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유럽통합이 먼저 법적, 제도적 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정치통합을 이루어 내지 않았었던가? 경제통합은 역내의 평화를 가져오고, NATO와 같은 안보공동체도 형성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은 비단 한·중·일 3국의 안보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경제통합,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한반도 평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통합은 발전된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한·중·일 3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다. 일본은 고도로 발전된 선진 공업국이요, 한국은 중상위의 경제개발 국가이며,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가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조화를 초래하고, 경제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더구나 요즈음 3국간에는 영토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민족주의의 대두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필요를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멕시코가 민족주의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내지 않았던가?

이를 위해서는 한자문화권의 단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과거 중국문화권에서 쓰던 한자를 활용함으로써 동아 제국의 문화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1/3이 이곳에 모여 살고, 한·중·일은 그 중에서도 IT 강국이며, 21세기는 동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단결은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경쟁과 협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가 단결되지 않았는데 유럽과 ASEM회의를 먼저 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아시아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근대화시기에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명백히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의 앙금을 씻지 않으면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대국주의 ·중화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자 다시 대국주의가 부활해 ASEAN을 영향권 안에 두려 하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치마폭에 쌓여 중국을 견제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국수주의 부활이 그것이다. 한국도 큰 틀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을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지 미·일을 배척하고 중국과 북한에 밀착하는 친북반미(親北反美)의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중화주의의 굴레 밑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되었지 또다시 과거의 중국중심 세계관으로 회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시대는 바야흐로 해양문화 시대이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의 뒤에 선 나라는 다 잘 살게 되었지만 소련의 뒤에 선 나라는 모두 망했다. 지금은 Pax Americana 시대이다.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족주의는 실리를 외면하면서 명분만 앞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를 알고 객기를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アジア地域の連合とその展望

イ・ソンム(元国史編纂委員会委員長)

盧武鉉政権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中心国家」としての韓国を目指していたが、アメリカや中国、日本の反発により、その目標を「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中心ハーブ国家」と変更した。これらはアジアの連合の難しさを象徴する。

韓国が北東アジア地域問題を調整する役割を自ら担おうとしたため、物議をかもしたことがあった。調整役はアメリカのような大国でなければ、やりにくい。中国と日本はそれぞれアジアを制覇した経験がある。中国は前近代において、そして日本は近代においてアジアを支配した。一方、韓国はひたすら隷属的な存在であった。中国および日本としては北東アジアの主導権を握りたいところであろうが、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欧米の勢力に押し倒され、それもなかなか難しい。中国は未だ社会主義体制を維持している発展途上国であり、 日本は第二次大戦以後「中国不在」の東南アジアにおいて主導権を握ったことはあるが、中国が回復した後は、もっぱら中国と対立しており、さらにアメリカの影で安住してきたため、アジアの調整役も満足にできない。

中国は自国の経済成長に夢中であるためか、アジア地域の連合などの問題についてはあまり関心がなさそうである。政治的には社会主義を固守しており、経済的にも資本主義体制を完全に取り入れた状況ではない。市民社会の意識や、法治主義の理解などにおいても、不安定なところが多く、対外政策における責任を追求することは難しい。そして、中国の成長は周辺国の経済の空洞化(hollowing out)をもたらす危険がある。さらに、中国は核保有国であるため、周辺国を脅かす恐れもある。

日本の場合、経済状況があまりにも閉鎖的である。国内総生産(GDP)に比べて貿易依存度は20%未満であり(これは中国よりも低い) 、海外直接投資(FDI)の比重もミャンマーに等しい(1%)。日本は農業分野のFTAにも抵抗している。最近は歴史教科書問題や総理の靖国神社参拝、尖閣諸島(釣魚島)紛争など、周辺国と対立しているため、アジアの調整者の役目を果すにもさまざまな問題を抱えている。

ところで、最近の韓国や日本、中国においては自国中心的な民族主義が澎湃として起っている。各国内の政治勢力の緻密な計算により、民族主義は意図的に高揚されている傾向がある。自国中心的な民族主義は国内の統合には効果的に働くが、周辺国を刺激する恐れがある。中国と日本の間に挟まれている韓国の場合、各国のナショナリズムが過熱すると、その被害を最も大きく被る。韓国は中国と日本の間で、バランスをとりながら、真摯に北東アジアの連合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

韓国が真の北東アジアの連合を望むなら、日本とのFTA締結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と日本は地理的に近く、比較的に安定した市場を形成している。政治、経済、社会的に相違している中国と協力するよりも、協調の可能性が高い。韓日FTAを土台とし、次第に周辺国との連合を臨むほうが、より効果的であろう。

最近の韓中日の三ヶ国は政治的制度や状況に影響されることなく、経済的な交流を進めている。2004年の場合、中国は韓国の最大貿易対象国であり、日本はアメリカに引き続き第三位の貿易対象国である。日本の場合、アメリカが最大貿易対象国であり、引き続き中国(第2位)、韓国(第4位) 占めている。

経済的な連合は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の土台になり、将来的にはNATOのような安保共同体構築の基盤になる。さらに、経済的な協力を深めることは、北朝鮮の改革、開放を導き出すことと関係する。このように北東アジアの経済協力、安保協力、韓半島の平和は密接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現実的にこの三ヶ国の政治、経済、軍事の状況は齟齬している。最近は領土、歴史認識においても葛藤が起っている。だからといって、いつまでも北東アジアの連合を傍観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時間がかかるとしても、その可能性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は北東アジアの連合のためには漢字文化圏の構築が優先されるべきだと思う。また、歴史認識を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日本は戦争・戦後責任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中国はいわゆる中華主義から逃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ちろん、これらの問題は簡単ではない。中国は経済が成長するにつれ、ASEANを掌握しようとしており、日本は相変らずアメリカの影で中国を牽制しながら、帝国主義の復活を夢見ている。韓国は日本やアメリカを排しながら、中国や北朝鮮との関係を築いてはならない。つまり、韓国はアメリカや日本の協力を得たうえで、中国や北朝鮮との関わりを持つべきである。

今の時代は「Pax Americana時代」だと言える。北東アジアの連合のためにも、アメリカとの協力は必然の道理であると言わざるをえない。

1920~30년대 제주도해녀조합의 활동과 분쟁 양상

강재순(부산대 사학과)

머리말

제주도 해녀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성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야 조선시대 이래 일제시기까지 해녀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룬 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1920년대 제주도해녀조합의 설립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1921년 울산해조 분쟁과정서 제주도해녀조합과 조선해조주식회사간의 갈등과 새로운 관계 형성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Ⅰ. 한말, 일제 초기 제주 해녀의 출가 양상

1) 『한국수산지』 단계의 해녀

해녀는 전복만이 아니라 해삼, 우뭇가사리, 미역, 감태 등을 채집한다. 생 전복어업은 1884년 전후 나가사키현 사람이 제주도에 도항(渡航)하여 포획에 종사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조선 연해에서 일본인 잠수기 어업의 효시라고 한다. 이후 일본 나가사키 및 기타 지방에서 잠수기어업의 제한령이 발포되자 잠수기 어선이 조선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일시에 격증하였다.

조선인이 생복을 채수하는 경우는 오로지 나잠(裸潛)에 의지하는데, 종래 남부 연안 특히 제주도에서 부녀자가 이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총 수는 약 1,500명 가량이 될 것이다. 일본인의 경우는 주로 잠수기를 이용하며, 나잠으로 채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수는 잠수기 137대(臺), 나잠어선[裸潛漁舶] 68척, 485인이며, 잠수기선 출어인들은 나가사키, 도쿠시마, 에히메, 오이타, 히로시마, 야마구찌, 효고, 니가타 등의 여러 현 출신이다. 나잠은 에히메, 나가사키, 미에, 후쿠오카, 효고, 구마모토 현 등의 출신들이 많다.

2) 1920년대 제주 해녀의 出稼상태와 물상객주

1920년 4월 현재 제주도 해녀의 숫자는 만여 명인데, 그중 매년 4월~9월 부산, 울산 등지로 나아가 활동하는 인원은 4,000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전복과 해조(海藻) 등을 채취하는데,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300원 어치를 생산함으로, 4,000명의 총 수입은 120만원으로 실로 조선 수산계의 적지 아니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줄이었다.

해녀들이 부산 등지로 나오면 물상객주(物商客主)에게 의지하여 4~5개월 동안을 유숙도 하고, 돈도 꾸어 쓰는데 물상객주들의 농락으로 인해 해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도로 객주에게 빚을 얻어 쓰고 빈손만 쥐고 돌아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있었다. 물상객주들

은 대부분 제주도 사람이고, 해녀의 남편 노릇을 하던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해녀를 5명만 거느리게 되면, 왜채(倭債)도 보증 없이 얻을 수 있었다.

Ⅱ. 1918년~1920년 제주도해녀조합 설립 추진과 조선해조주식회사

제주도 유지들은 1918년 1월 해녀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조합을 만들어 당국에 신청했다. 그러나 식민지 당국에서는 2년 동안 회답이 없음으로 1919년 10월경 김태호(金泰鎬) 외 제주도 유지들이 발기하여 해녀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해녀조합은 해녀들이 생산한 물건을 공동판매하고, 중개도 해주고, 자금도 대여해주기 위해 제주도사(濟州島司)를 거쳐 전라남도 당국과 교섭했다. 그러자 전라남도 해각(亥角) 도지사는 제주도 해녀들이 진출해있던 경상남도 당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1919년 겨울 진주와 부산방면으로 출장했다.

그런데 당시 부산지역에서는 제주도 해녀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수산계에 막대한 금액이 되며, 이것을 이용하면 이익이 큰 것을 알고 암기신평(岩崎新平) 등의 음모로 부산지역에 해조주식회사(海藻株式會社)를 설립할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해각(亥角) 전남도지사는 제주도해녀조합을 해조주식회사에 부속케 하기로 내정해버렸다.

제주도해녀조합 발기인 김태호(金泰鎬)에 의하면 “그런데 근일 (해녀조합) 허가가 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1920년 봄부터는 저 가련한 해녀들을 구제할 줄로 믿었더니 의외에 부산 해조무역상(海藻貿易商)들이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녀조합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것은 해녀조합에서 공동 판매할 해물(海物) 전부를 조선해조주식회사 이외에는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제주 해녀에게 물에 들어가 일하는 증서를 강제로 팔고, 혹은 무식한 해녀에게 부정한 계약을 받아서 해녀에게 빚을 지우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해녀들은 시위운동까지 하였고, 부산에서는 수백 명의 해녀단체가 구제하여달라고 호소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제주해녀조합의 공동 판매권을 빼앗으려는 조선해조주식회사의 계책이었고, 해녀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조선해조주식회사에서 취하여 무리한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제주도해녀조합 추진측과 조선해조주식회사간에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자 근등(近藤) 제주도사(濟州島司), 제주도 참사 김근기, 해녀조합 관계자 김정혁 등이 전남도청 당국과 교섭하는 한편 해녀들이 직접 활동하는 부산, 진주지방은 관할구역이 다름으로 별도 교섭을 시도하였다. 결국 1920년 4월 28일 제주도해녀조합 설립이 허가되었다.

Ⅲ. 1921년 울산해조 분쟁과 조선해조주식회사

1) 울산해조 분쟁과 물상객주의 유통권 배제

제주도 해녀들 중 매년 경남 울산, 장승포 등에 나와서 해조와 전복 등을 따는 인원이 4,000여명 이상이었고, 이들 해녀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금액은 수 백 만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제주 해녀들과 현지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자 식민지 당국이 나서서 해녀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입어료(入漁料)를 내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이후 해녀들이 채집한 해조는 임시 점포를 설치한 현지 객주들에게 팔게 되었다.

1921년 3월 제주도 해녀와 해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다시 발생했다. 해녀들이 객주나 거

간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해조주식회사에 해조를 팔되 보통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매입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또 한 가지는 해녀들이 조선해조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이익의 배당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해녀들이 작업한 해물(海物) 등은 4할인으로 회사에 팔게 하여 해녀가 요구하는 데로 되었다. 객주문제는 그들이 칠십여 명이나 되므로 그들을 일시에 배척하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른다고 불분명한 대답으로 식민지 당국은 문제 해결을 미루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1925년 이후 제주도해녀조합이 조선해조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배당률도 8~10%로 높여 갔다.

2) 제주도해녀조합의 조선해조주식회사 경영권 참여

朝鮮海藻株式會社는 採藻 해녀의 자금 대부, 海藻의 매매 및 위탁매매, 海藻 채취의 통일, 번식, 보호, 품질 개선, 폐해 교정, 海藻의 가공 제조, 이와 관련된 부속 물품의 공동구매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20년 4월 10일 설립되었다. 본점의 위치는 부산부 본정 1정목 34번지에 두었다.

제주해녀조합을 조선해조주식회사에 부속시키려던 암기신평은 1925년 이후에는 제주도해녀조합이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들이 1921년 이래 주장한 배당율도 받아들여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주주의 면면을 대략 분석해보면 이들이 수산업 또는 해조무역과 관련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金弘祚(1868~1922)는 1890년대 전반기 김옥균, 박영효 등과 교분을 갖고 1906년 일신학교, 1909년 남목 개운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그는 러일전쟁 이후 철도부설사업이 활발해지자 목재사업에 뛰어들어 축재했다. 김홍조는 부산, 울산, 진주, 서울 등지의 많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전국적 차원의 대자본가였다.

金佐性은 울산번영회(1910), 울산금융조합장(1922.12) 등을 역임하면서 김홍조와 함께 경남은행, 조선제과주식회사, 부산삼산자동차주식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김홍조 사망 이후인 1921년 8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김홍조의 뒤를 이어 조선해조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Ⅳ. 1924년 제주도해녀조합과 부산어업조합의 어업권 분규

1924년 4월 부산어업조합과 제주도해녀조합 사이에 분쟁이 재차 발생했다. 제주도해녀조합은 제주도에 본부를 설치하고 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수천명 해녀에게 생활난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부하고 음란방탕을 예방하기 위하여 풍속을 개량시키고, 해상 풍파에 위험을 무릅쓰는 사업임으로 만일 경우 생명을 보존해주기 위하여 환란상구를 도모했다.

해녀조합은 채취한 해초의 공동판매를 경영하는 등 해녀를 위하여 각종의 사업을 실행해 오던 중 1923년도에 설립된 부산어업조합에서 해녀조합에 대해 부산어업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경남 해안지역에서는 입어를 허용치 않겠다고 하면서 강제적 수단으로 어업조합에 가입하기를 강요했다.

그런데 해녀들은 제주도해녀조합이 있는 이상에는 어업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연코 거절하였다. 때문에 부산어업조합이 설립된 1923년부터 분쟁이 일어나 동래군 기장방면의 어업조합에서는 조합에 가입치 않으면 제주 해녀들의 작업을 방해했다.

1924년 4월 16일은 해조류 채취를 시작하는 법령 기일인데, 이 해는 海藻 발육상황이 좋

지 못하여 5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제주도해녀조합원을 합치면 이천여 명이 되고, 기타 종업자 천여 명을 합하면 약 삼천여명의 해녀들이 법정기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부산어업조합에서는 강제적 수단으로 해녀 십여 명을 감언이설로 유인하여 어업조합에 가입케 하고, 가입된 해녀들에게는 법정기일 전에 해조 채취를 허용한 까닭에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해녀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4월 24일에는 제주해녀 20여 명이 영도 동삼동방면에서 현지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배를 육지에 끌어올리고 행선을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욕설과 폭행으로 작업을 못하게 했다. 해녀들은 남빈정 제주도해녀조합 출장소에 모여들어 구제를 호소했다.

해녀조합 창립 이래 5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 1921년도 공동판매고가 9만여 원, 1922년도 19만여 원, 1923년도 22만여 원이고, 1924년도에는 부산 동래, 울산 2개 군 일부의 입어지 관할 내에서만 약 삼십만원 가량이 채취될 전망이었다. 결국 어업조합과 해녀조합의 분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조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었다. 이 분규로 말미암아 부산어업조합측에서는 伊藤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조합 간부 일동도 총사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제주도해녀조합과 釜山漁業組合 사이의 분규사건은 矢島 경남도 내무부장이 총독부와 협의한 결과 1924년 5월 1일 부산부청 부윤실에서 伊藤 지원(地元) 어업조합장과 간부 일동을 회집한 석상에서 6개조의 타협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현지 어업조합의 입장을 경남도 당국과 총독부가 적극 반영해 준 것에 불과했다. 결국 제주도 해녀조합과 부산 현지 어업조합과의 분규는 전남과 경남 당국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해결되었으나 거주지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서 중 <3개년을 그 지방에 거주한 자는 거주하는 주소대로 현지 어업조합에 가입케 한다>는 일개 조항의 문제로 해조조합과 해녀조합의 강경한 반대로 대표자 일동은 6월 10일 부산부윤에게 진정을 제출하였다. 제주도해녀조합과 부산어업조합과의 입어분쟁문제는 이후 조합원의 자격문제가 발생하여 분규가 점차 심해졌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1925년 2월까지 이어졌다.

1925년 2월 28일 부산부윤 관사에서 부산부윤, 동래군수, 양산군수, 7개 어업조합, 조선해조주식회사, 해녀조합 간부 등이 회의를 열었다. 회의 내용은 현지 주민 및 해조문옥상인 등은 해조 매매위탁권 및 매수권이 해조주식회사로 전부 넘어가는 형세이자 각종 주민 잠수업인 해조까지도 지방어업조합 공동판매소에서 매매케 되는 것으로 하자 문옥상인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면서 해조문옥상인연합조합 창립사무소에서 선후책을 논의하고 있다.

Ⅴ. 1928년 이후 식민지 도 당국의 해녀 쟁탈전과 입어료문제

1928년 5월 3일 제주도 구좌면 연평리 해녀 출가단 대표 양창호 외 5명과 제주해녀어업조합 부산출장소 서기 문태빈(文泰彬)은 경남도 수산과장을 방문하고 1927년 1월 총독부 수산국과 경남도 수산과에 해녀 채취 입어료문제에 관해 진정하였으나 일년 이상의 세월을 경과하여도 아무 조치가 없어 재차 진정하였다. 이들은 1896년 통영군 동부면 저구리에 내왕하면서 통영군 각 해안방면에 천초(天草), 은행초(銀杏草)를 채취하다가, 1898년~1902년 사이 해녀 100여 명을 입어케 하던 중 해당 지역이 영친왕 궁소 속지임으로 영친왕궁에서 위원을 보내어 매년 구역별로 50원을 수세하다가 1907년 거제도에만 한하여 모곽전조합(毛藿田組合)을 설립하고, 현지 주민과 해녀가 전부 조합원이 되어 피차간 채취하는 동시에 구

역을 나누고 구역의 대소(大小)와 호부(好否)를 전형한 후 매 구역당 5원에서 70~80원까지 모곽전조합에 수입케 하였다. 1909년 통영군 서정우가 주장하기를 통영은 금후부터 기항지가 되었으니 생산 발전책으로 해녀 채취물은 전부 서정우(徐廷遇)에게 위탁 판매케 하고 대신 서정우는 입어료를 전부 부담하여 1925년까지 이행하여 오던 바 1926년도부터 현지 주민은 지방 권리를 주장하고 입어료를 이전 보다 2배 내지 10배를 징수함에 대하여 이는 해녀에게 중대한 문제라고 진정한 것이다.

1932년 4월 해녀쟁탈전은 식민지 도 당국간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경상남도로 옮아가 사는 제주해녀를 각기 자기 도의 어업조합에 가입시키고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일어난 해녀 쟁탈전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전남지사 산업부장까지 상경하여 총독부 수산과장 등과 협의한 결과 1932년만은 이전과 같이 전남어업조합에 소속하게 하고, 1933년부터 다른 방침을 세우기로 되어 결정되었다. 해녀를 자기도 어업조합에 소속시키려는 것은 제주도 해녀 500여명이 경남 동해안에 가서 사는데, 전남에서는 다른 도지역에서 산다 하더라도 제주도를 근거로 하고 일시 돈을 벌려 나간 것이니 전남어업조합에 소속하고 조합비(대개 3~5원)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제주도 해녀라도 경남에 이주하여 사는 동안에는 경남어업조합에 들어야 된다고 서로 주장하여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3천여 명의 제주도 해녀가 경남 해안에 출어할 적마다 경남에서는 타 도 사람이라 하여 4~5중으로 착취하는 것이 문제되어 매년 세인의 이목을 시끄럽게 하던 중 1932년 4월 20일 전라남도 鄭 산업부장과 경남 산업부장이 총독부에서 회견, 쌍방이 협정안에 조인했다.

협정사항은 1. 제주도 출신의 해녀로서 경남에 호적을 옮겨오거나 또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자는 순경남현지어업조합원으로 할 것, 2. 제주도 해녀로서 2개년 이상 경남에 거주하였음을 공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는 경남 현지어업조합원인 동시에 제주해녀조합원으로 해조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주해녀조합원의 자격으로 조업케 할 것, 3. 전기 2항에 해당한 자가 금후 증가되는 때에도 이를 현지어업조합에 하게 아니할 것, 4. 해조 판매에는 해녀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일체를 해녀조합에서 취급할 것, 5. 해조의 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있던 종래 경남 현지 어업조합 소속의 買收入은 폐지할 것. 단 어업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함, 6. 이상 각 항 이외의 사항은 종전의 협정에 의할 것, 7. 본 협정은 금후 총독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함 등이다.

맺음말

『韓國水産誌』의 통계자료와 문제점

이예지(부경대 사학과)

Ⅰ. 머리말

올해(2010년)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한국의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상태였다. 일본은 조선의 수산업을 식민지 수탈체계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수산관계법령을 제정하고 각종 수산관계 기관 등을 설치하는 한편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에 힘입어 편찬된 결과물이 바로 『韓國水産誌』[1]였다.

『수산지』는 비록 일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당시 조선의 바다와 지형, 어류 등에 관해서 구한말 어떤 자료보다도 그 내용이 자세하고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지』는 한국 근대 수산업사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거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실제로 『수산지』에는 물고기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번역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오탈자도 상당하며 통계수치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2]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수산업사 연구에 있어 구한말 일본인들에 의해 작성된 수산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인구와 어획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도표화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통계자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호수와 인구 관련 통계

『수산지』는 1900년대 조선 전체의 바다, 연안, 어촌, 어업현황 등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특히 어구, 어살, 어선 및 어로상황, 제염, 해산물의 유통구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서에 접할 수 없는 독자적인 내용이 많다. 그런 점에서 『수산지』는 분명히 한국 수산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보고이다. 그래서 『수산지』의 방대한 기록과 압도적인 분량에 감탄하곤 하지만, 사실은 『수산지』의 서문에서는 그 조사가 세밀하지 못하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생각건대 연해 수천리에 이르는 광대한 구역에서 더구나 소수의 인원으로 단시일 내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을 섭렵하며 이러한 조사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지방에는 비적이 출몰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신변에 위험이 닥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일을 뜻하는 바대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자세한 것도 있고 성근 것도 있으며, 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어서, 그 내용이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정 당국자와 어업에 뜻이 있는 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1) 이하 『수산지』라고 함

2) 『수산지』의 물고기 이름이나 어업과 관련된 용어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나 미번역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산물의 한자어와 명칭의 범주, 방언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논문으로 이근우, 「『한국수산지』의 수산물 명칭과 번역의 문제」,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 2009가 있다. 그 외에 『수산지』와 관련된 논문으로 김학태,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1910년경 충남 서해안 지역 수산업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집, 2005가 있다.

본서를 간행하는 목적이므로, 어업 장려를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3)]

『수산지』 내에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고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 중 하나는 호수와 인구이다. 호수와 인구는 제1집에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기록한 것이 있고, 제2집에서 4집까지 각 지역별로 府·郡 단위의 개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내 전체 府·郡의 호수와 인구와 각 府·郡에 속하는 마을별 호수와 인구를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다.

<표1> 함경북도 府·郡 호수와 인구

	호수(戶數)	인구
慶興府	-	-
鍾城郡	4,356	23,982
會寧郡	4,554	22,491
富寧郡	3,377	19,733
鏡城郡	15,374	87,451
明川郡	11,497	57,356
吉州郡	11,771	57,669
城津府	9,602	47,509

<표2> 함경남도 府·郡 호수와 인구

	호수(戶數)	인구
端川郡	-	-
利原郡	-	-
北靑郡	-	-
洪原郡	-	-
咸興郡	2,837	12,493
定平郡	-	-
永興郡	700	3,000
文川郡	-	-
德源府	-	-
安邊郡	-	-

『수산지』 서문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 중 호수와 인구에 관한 자료는 內部 警務局에서 편찬한 『韓國戶口表』와 政府財政顧問 本部에서 편찬한 『韓國戶口表』[4)]가 있다. 그 중 경무국에서 간행한 『한국호구표』는 구하지 못하였으나, 일본국회도서관에서 정부재정고문 본부에서 간행한 『한국호구표』를 찾아 <표1>의 통계수치를 대조해 본 결과 그 수치가 모두 같았다. 즉 수산지는 전국 각지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연해 있거나 강가에 있는 마을을 주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道나 府·郡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통계는 통감부 내 타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2>를 보면 함흥군(咸興郡)과 영흥군(永興郡)의 호수와 인구 수치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는 『한국호구표』와도 다르고,[5)]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 마을 호수와 인구를 합산한 수치와도 맞지 않다.[6)]

<표3> 함경남도 함흥군 호수, 인구, 어호, 어선

			戶數	人口	漁戶	漁船
咸興郡	東溟面	馬口味	40	-	-	-
		鵲島	-	-	-	-
		西湖津	750	-	-	-
		內湖里	197	-	-	-
	東雲田面	倉里	380	-	100	-

3) 농상공부수산국, 2010, p.18
4) 政府財政顧問 本部, 『韓國戶口表』, 1907
5) 앞의 책, p.33에서 함경남도 함흥군의 호수는 20,779호, 인구는 93,518명이다.
6) 조사자가 서로 달라서 보고서 양식이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여 모든 마을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계자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西雲田面	沙乙洞	30	-	-	-
	連浦面	-	-	-	-	-
	東朱地面 西朱地面	-	-	-	-	-
합계			1,357	-	-	-

이렇듯 조사내용이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은 『수산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록되어 있는 통계수치 역시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업 및 수산 상황은 주로 출장원의 보고서[7]에 의거했지만, 각지의 작은 마을에 있어서는 출장원이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두 관찰도 또는 부군의 보고 또는 당업자의 통신담화 등에 의거해서 기재"[8]한 경우도 있었다.

Ⅲ. 어획량 통계

당시 일본어부들의 조선 연해에서의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당시 조선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수산지』 제1집에서는 조선에 생산되는 유용수산물로 해수류 6종류, 어류 60종류, 패류 19종류, 조류(藻類) 9종류 기타 10종류 등 모두 104종류를 열거하고 있다.[9]

함경도 지역에서 어획고가 표기된 주요 어족을 살펴보면, 함경북도는 명태・연어・방어・미역・대구・가자미・멸치・게르치 등이고, 함경남도는 명태・연어・대구・가자미・멸치・청어・삼치 등이며, 해삼, 게, 전복, 아구, 도미 등도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획고를 나타내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리(里)의 주요 수산물 1년간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
② 리(里)의 1어선의 1년간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
③ 리(里)의 1년간 총 생산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
④ 군(郡)의 주요 수산물 1년간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

그러나 위와 같이 어획고를 보고하고 있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경도 부분에서 비교적 통계자료가 풍부한 명태의 어획량과 어획산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7) 구역별 실제적인 조사는 각 연해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통감부 기수와 조산해수산조합 기수와 농상공부 기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함경도 지역 수산조사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담당업무(조사지구)	소속	직책	성명	비고
함경북도 및 부속도서	조선해수산조합	기수(技手)	左藤周次郎	
	농상공부		許斐兵治	
	농상공부		小島省吾	
함경남도 및 부속도서	조선해수산조합	기수(技手)	大坪興一	
함경남북도 하천	통감부	기수(技手)	中西楠吉	원산이사청 근무
	농상공부		小島才一	

(출처 : 한임선,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편찬주체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사학회・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사학과 주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p.13)

8)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第2輯, 1910, p.2

9) 농상공부 수산국, 2010, p.195

<표4> 함경북도 경성군 명태와 미역 어획고

어종별 / 지역별			명태		미역	
			어획량	가액	어획량	가액
鏡城郡	梧村面	長淵	30駄	480圓	-	-
		獨津	600駄	9600圓[10]	-	-
		南夕津	40駄	640圓	-	-
	朱乙溫面	溫大津	200駄	3,200圓	-	-
		執三	17駄[11]	280圓	-	-
		鹽盆津	-	-	-	-
	漁郎面	方魚津	-	-	-	-
		漁大津	100駄	1,600圓	-	-
		泗津	30駄	480圓	-	-
		梨津	30駄	480圓	20駄	60圓
		五常津	20駄	320圓	30駄	90圓
	東面	茶津	60駄	960圓	30駄	90圓
		呼禮	70駄	1,120圓	-	-
		稷田	-	-	10駄[12]	30圓
		麻津	40駄	640圓	40駄	120圓

함경북도 경성군의 명태, 미역의 어획고를 보면, 어획량과 가액이 일정한 시세에 따라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에 근거하면 명태는 1駄당 16圓(1駄는 2,000尾)으로 추산할 수 있고, 미역은 1駄 3圓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경도 명태의 평균 가격을 대략적으로 구하면, 함경북도는 명태 1駄 16圓, 함경남도는 명태 1駄 7圓 정도였다. 같은 도내에서도 한 어종의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같은 함경도 지방이지만 어업의 풍흉 및 구매력의 강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수산지에 보고되어 있는 어획고를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유추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산지의 통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한계로 인해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표5> 함경북도 군별 산액

어종별 / 지역별	명태		연어	미역	
	수량	가액	수량	수량	가액
慶興府	-	-	500,000尾	-	-
鍾城郡	-	-	-	-	-
會寧郡	-	-	-	-	-
富寧郡	14駄	224圓	3,750尾	68駄	204圓
鏡城郡	1467駄	23472圓	-	160駄	480圓
明川郡	80駄	67貫200文[13]	-	80駄	240圓
吉州郡	-	-	-	-	-
城津郡	-	-	-	363駄	1089圓
합계	1,561駄	24,976圓	-	-	-

10) 명태 1駄 16圓으로 잡고 추산.
11) 명태 1駄 16圓으로 잡고 추산.
12) 미역 1駄 3圓으로 잡고 추산.
13) 함경북도 명태를 1駄 16圓으로 잡고 추산하면 1280圓이다.

통계자료에서 발견되는 불규칙한 기술이나 누락된 내용들은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나 정보의 응용에 있어서 상당한 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표성의 문제이다. 『수산지』는 어촌 마을 단위로 면밀하고도 자세하게 조사되었지만 수량 혹은 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수치가 매우 불규칙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수치만 가지고 합산해서 도내 어종별 어획량이나 도내 총 생산 어획량에 적용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산지』 속의 여러 통계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함경남도의 경우 리(里) 단위의 통계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각 군(郡) 별로 주요 수산물의 1년간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을 표기하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성의 문제이다. 이는 누락된 수치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수치들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서 나타난다. 각각의 어획량 혹은 어획산액의 합산을 위해서는 어획량(駄/尾) 혹은 어획산액(圓)의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획량과 어획산액 중 하나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세와 각각의 어획량과 어획산액을 추산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함경도 명태나 미역의 경우 어획량과 어획산액을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풍부하므로 어획량만 기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균 시세를 구해서 어획산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함경남도 방어의 경우 경성군 오촌면 독진에 10駄, 어랑면 어대진에 300圓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을 뿐 다른 통계자료가 부족하므로 합산해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日貨와 韓貨의 단위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화폐단위인 圓과 조선의 화폐단위인 貫文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의 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추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정확성(신뢰성)의 문제이다. 통계 자료의 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수치를 유추해서 기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추산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자료에서 조사자들 역시 통계조사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숫자로 추산하고 있다는 바를 밝히고 있다. 또한 어획량과 어획산액은 그 특성상 어획의 풍흉이나 구매력의 강약에 따라 변동이 크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유성강(楡城江)의 경우, 제 1집에서는 평균 어획고는 23,000마리, 1마리당 60전~1원 50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제 2집에서는 평균 어획고는 3,000~4,000마리, 1마리당 3,40전~6,70전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치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Ⅳ. 맺음말

이상의 문제점들은 『수산지』에 나타난 수치가 전체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많고, 대략적으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정리가 함경도로 제한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협소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향후 각 도별 통계의 정밀한 조사 분석과 여러 수산자료와 통계자료와의 상호비교 연구를 통하여 제약적인 조건과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수산지』의 航路와 조선후기의 海路 >

신명호(부경대 사학과)

1. 머리말
2.『한국수산지』의 航路
3. 조선후기의 海路
4. 맺음말

1. 머리말

1876년 2월 27일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을 일본에 개항함.

개항 직후인 1876년 5월 郵便汽船 三菱會社 소속의 선박 黃龍丸으로 하여금 조선수신사 일행을 부산항으로부터 일본으로 운송하게 하였음, 곧 이어 일본 정부는 우편기선 삼릉회사에 운항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 1회 長崎를 출발 五島, 對馬를 경유 부산에 이르는 부산-장기 간 정기 항로를 개설하도록 명령하여 11월 20일 기선 浪花丸이 첫 취항함으로써 한일 간의 근대기선 항로가 개설됨. 이후 부산을 포함하여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을 연결하는 기선 항로가 개설됨으로써 조선의 남해, 서해, 동해를 잇는 근대항로는 일본의 기선회사에 의해 장악됨.[1)]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의 남해, 서해, 동해에 일본어선을 적극 진출시킴으로써 조선해의 어업과 함께 어업 항로도 장악하고자 함.

1909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는 기선을 위한 항로는 물론 어선을 위한 항로가 자세히 수록되었음. 이는 『한국수산지』가 조선의 남해, 서해, 동해의 근대 항로 및 어업 항로를 장악하려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 편찬된 결과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8월 1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9조에 달하는 '선박항행조약'이 체결(韓日約定書)됨으로써[2)] 일제는 조선의 남해, 동해, 서해에 대한 자유로운

---

1) 노정호, 「근대 한일항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61-84.

2) "韓日約定書 成 約定書 韓日兩國政府ᄂᆞᆫ 韓國産業이 發達ᄒᆞ고 貿易이 增進케 ᄒᆞᆷ을 爲ᄒᆞ야 韓國沿海及內河에 日本國船舶이 航行케 ᄒᆞᄂᆞᆫ 必要를 認ᄒᆞ야 大韓帝國外部大臣李夏榮及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 各相當ᄒᆞᆫ 委任을 承有ᄒᆞ야 左開條項을 約定홈
第一條 日本國船舶은 本約定의 規定에 從ᄒᆞ야 貿易의 目的으로 韓國沿海及內河를 航行ᄒᆞᆷ을 得홈 但 開港場間 航行은 本約定의 依ᄒᆞᄂᆞᆫ 限에 在치 아니ᄒᆞᆯ 事
第二條 沿海及內河航行에 從事코자 ᄒᆞᄂᆞᆫ 日本國 船舶은 日本國 領事官을 經ᄒᆞ야 船舶所有者의 氏名及住所船舶의 名稱種類及載量併其船行區域을 韓國海關에 告ᄒᆞ야 准單을 受ᄒᆞᆯ 事 准單을 受ᄒᆞᄂᆞᆫ 日로붓터 一箇年間을 限ᄒᆞ야 效力을 有ᄒᆞᆯ 事
第三條 日本國船舶은 准單을 受ᄒᆞᄂᆞᆫ 其時에 左開金額을 韓國海關에 納入ᄒᆞᆯ 事 百噸以下 西洋式船舶 十五圓 日本式 船舶 十五圓 百噸以上 五百噸以下 西洋式船舶 五十圓 五百噸以上 千噸以下 西洋式船舶 一百圓 千噸以上 西洋式船舶 一百五十圓
第四條 日本國 船舶은 自由로 其航行區域內를 航行ᄒᆞᆷ을 得홈 但 天災와 事變에 由ᄒᆞᆫ 境遇及韓國海關의 特許를 受ᄒᆞᄂᆞᆫ 境遇 外에ᄂᆞᆫ 韓國領土外에 前往ᄒᆞᆷ을 得치못ᄒᆞᆯ 事
第五條 日本國 船舶은 航行中은 准單을 必帶ᄒᆞ야 韓國海關地方官 或地方官이 委任ᄒᆞᆫ 洞長或村長의 要求가 有ᄒᆞᄂᆞᆫ 時에ᄂᆞᆫ 何時라도 提示ᄒᆞᆯ 事
第六條 日本國船舶 所有者ᄂᆞᆫ 船著處所에셔 倉庫만 建築ᄒᆞ기 爲ᄒᆞ야 土地借用ᄒᆞᆷ을 得ᄒᆞᆯ 事 又該所有者ᄂᆞᆫ 韓國

항해를 법적으로 확보함.

〈약정서(約定書)〉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연해 및 내하(內河)에 일본 선박이 항행(航行)하게 할 필요를 인정하여 대한제국 외부 대신(大韓帝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국제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 [林權助] 는 각기 해당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래에 열거한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 선박은 본 약정의 규정에 따라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하를 항행할 수 있다. 단 개항장(開港場) 사이의 항행은 본 약정에 의한 제한에 속하지 않는다.

제2조

연해 및 내하 항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본국 선박은 일본국 영사관을 거쳐 선박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의 명칭, 종류 및 적재량과 함께 그 항행 구역을 한국의 해관(海關)에 보고하여 허가 증명서 [准單] 를 받아야 한다. 허가 증명서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본 선박은 허가 증명서를 받은 그 때에 아래에 열거한 금액을 한국 해관에 바쳐야 한다. 100톤 이하의 서양식 선박 15원(圓), 일본식 선박 15원, 100톤 이상 5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50원,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100원, 1,000톤 이상 서양식 선박 150원이다.

제4조

일본 선박은 그 항행 구역 내를 자유로 항행할 수 있다. 단, 자연재해나 사변을 당했을 경우와 한국 해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한국 영토 밖에 나갈 수 없다.

제5조

일본국 선박은 항행 중에 반드시 허가 증명서를 휴대하여 한국 해관 지방관 또는 지방관이 위임한 동장(洞長) 또는 촌장(村長)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일본국 선박 소유자는 선착하는 곳에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만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다. 또 당해 선박소유자는 한국 해관의 인가를 받아 연안에서 부두를 건설할 수 있다.

제7조

일본국 선박으로서 본 약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한국 해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정상이 엄

海關의 認可를 受ᄒᆞ야 沿岸에셔 埠頭를 築造ᄒᆞᆷ을 得ᄒᆞᆯ 事
第七條 日本國 船舶으로 本約定에 違反ᄒᆞᄂᆞᆫ 時에ᄂᆞᆫ 韓國海關은 事實을 調査ᄒᆞ야 其情이 重ᄒᆞᆫ 者에 對ᄒᆞ야 准單을 還納케ᄒᆞ며 又 其交附를 拒止ᄒᆞᆷ을 得ᄒᆞᆯ 事
第八條 日本國船舶 若其船員이 本約定과 其他條約의 規定에 違反ᄒᆞ며 又罪를 犯ᄒᆞᄂᆞᆫ 時에ᄂᆞᆫ 日本國領事官은 條約及日本國法으로 處辦ᄒᆞᆯ 事
第九條 本約定의 有效期限은 調印日로 起算ᄒᆞ야 滿十五箇年으로 定ᄒᆞ되 期限滿了後에ᄂᆞᆫ 商議協定ᄒᆞᆷ을 得ᄒᆞᆯ 事 但 將來韓國의 航海業이 發達ᄒᆞᆫ 時에ᄂᆞᆫ 兩國政府ᄂᆞᆫ 右期限內라도 協議後 更히 約定ᄒᆞᆷ이 有ᄒᆞᆯ 事
光武 九年 八月 十三日 外部大臣 李夏榮
明治 三十八 年 八月 十三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고종실록』 권46, 42년(1905) 8월 12일).

중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 증명서를 도로 바치게 하며 또 그 교부를 거절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일본국 선박으로서 만약 그 선원이 본 약정과 기타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는 때에는 일본국 영사관은 조약 및 일본 국법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본 약정의 유효기한은 조인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5년으로 정하되 기한이 만료된 뒤에는 상의협정(商議協定)할 수 있다. 단 앞으로 한국의 항해업이 발달할 때에는 양국 정부는 위의 기한 안에도 협의한 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광무9년 8월 13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명치(明治) 38년 8월 13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 〔林權助〕

2.『한국수산지』의 航路

-해운업을 위한 기선 항로

『한국수산지』1권의 '제14장 해운' 항목은 조선 바다에서의 해운업에 관련된 기초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조선 바다에서 일본의 해운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 잘 드러남.

"조선의 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의 교통이 불편하여, 해운업이 옛날부터 비교적 발달하였다. 그렇지만 삼림 남발의 결과 船材가 결핍되면서 해운업은 점점 퇴보하여 지금은 작은 배조차도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선박의 형상은 중국의 정크선(戎克)과 비슷하며 그 용적은 그 중에서도 크다고 해도 300石을 넘지 않고 그 구조는 불완전하며 또한 취약하다. 유일한 특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돛인데, 그 재료가 조잡하지만<골풀 또는 목면을 사용한다. 십중팔구는 골풀이다.> 촘촘하게 펼치고 또한 돛대가 2개여서 조종하기에 편리하여 역풍에도 질주하는 것이 도저히 일본 범선이 미치지 못하는 바다. 그렇지만 선체가 작고 그 구조가 취약하므로, 물론 원양 항해에 견디지 못한다. 문명적인 항운법은 일본인에 의해서 계발되어 지금은 조선의 연안 도처에서 일본 기선이 기항할 수 있다. 근래 정부는 항운업 장려를 위해서 상당한 시설을 갖추는 사람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현재 그 교부가 결정된 것은 2건이지만, 명령에 근거한 항해를 개시한 것은 현재 1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연안 항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형세이므로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금후 4-5년이 지나지 않아 현저하게 발달을 보일 것이다. 아래에 일본 및 조선 사이 아울러 조선 연안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선항로 및 그 기항지를 개략적으로 보였다."[3)]

3) 『한국수산지』1권, 제14장 海運.

『한국수산지』에 수록된 해운 관련 내용을 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장 해운
概要
汽船航路及寄港地
제1 日本及本邦南岸竝西岸諸港間
제2 本邦西岸各港間
제3 日本及本邦東岸諸港間
제4 東岸各港間

-어업을 위한 어선 항로
『한국수산지』1권의 '제 7장 沿岸' 항목은 조선의 남해연안, 서해연안, 동해연안의 항로상 특징과 항만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조선 바다에서 일본의 어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잘 드러남.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서쪽 연안은 매우 굴곡이 많고 섬들이 많아서 그 해안선의 길이가 매우 길어서, 대략 6,000마일에 달하며<도서를 포함한다.> 이것을 육지의 총면적 84,088 제곱마일<도서를 포함한다.>에 비교하면 14제곱 마일 당 1해리의 해안선을 가진다. 각 도 중에서 동해에 면한 것은 함경, 강원 2도 및 경상도 일부로, 이를 동연안이라고 한다. 조선해협에 면한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각 일부로, 이를 남연안이라고 하며, 황해에 면한 것은 전라도 일부와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로 이것을 서연안이라고 부른다. 즉 이와 같이 나라의 8도가 모두 바다에 연해 있다."[4]

"남연안[5]
남쪽 연안은 경상도의 부산에서 전라도의 남단인 진도까지로 그 구역이 가장 협소하다. 그렇지만 연안의 굴곡이 심하고 또한 전면에는 도서가 별처럼 흩어져 있으므로 해안선을 연장하면 비교적 깊다. 본 연안은 높은 봉우리와 산이 해안에 가까이 이어져 있지만 평지가 적지 않고 경사는 동해안처럼 급하지 않다. 그러나 서연안처럼 경사가 완만한 것도 아니므로, 절벽을 이루는 해안도 조금 있고 얕은 간석지도 조금 있고 간석지도 조금 있다.
항만
연안의 만입이 현저한 곳은 부산의 서쪽인 마산만, 그 서쪽인 고성반도와 거제도를 끼고 이루어진 진해만, 그 서쪽의 남해도에 가려진 진주만<일명 곤양만>, 여수반도의 동쪽인 광양만<일면 섬진만>, 여수반도의 서쪽 홍양반도를 끼고 있는 순천만<일명 여자만>, 여수반도의 서북측 서쪽에서 동으로 깊게 만입한 보성만<일명 등략만>, 해남반도의 동쪽에서 깊숙이 북쪽으로 만입한 강진만<그 앞에 완도와 고금도가 떠 있어서 가려진 내해를 馬島海라고 한다.> 등이다.
또한 해남반도의 서족 진도와 서로 마주보고 이루어진 내해에 마로해<일명 華聖頓灣>가 있다. 그 밖에 위에서 열거한 다음으로 다소 큰 것을 들면 마산만 입구에서 동북으로 만입된

4) 『한국수산지』1권, 제7장 沿岸.
5) 『한국수산지』1권, 제7장 沿岸 南沿岸.

행암만이 있다. 고성반도의 서측 북으로 향해 만입한 자교만, 동으로 향해서 만입한 동도만이 있다. 또한 남해도에 요입한 것으로 남에서 북으로 요입한 목도만, 이것과 반대쪽에 북에서 남쪽으로 만입한 미조만<진주만에 연속함>, 여수 반도의 남단으로 요입된 가막진<돌산도가 그 앞에 떠있다.> 홍양반도의 동남쪽에 요입된 해창오<그 앞에 나로도가 떠있다.> 등이 있다.

또한 정박지로 유명한 곳은 앞에서 기술한 마산, 진해, 보성의 세 만 외에 부산을 위시하여 진해만의 서쪽 입구를 감싼 통영<우수영이라고 함>, 여수반도와 여수<통영에 대하여 좌수영이라고 함>의 6항만으로 이 지역에서 주요한 곳이라고 한다. 도서의 경우, 거제도의 서측인 죽림포, 욕지도의 북측인 동항과 사량도, 남해도의 삼천포와 나로도 정박지<일명 소산도>, 신지도, 고금도, 조약도의 3도 사이에 있는 장직로, 거문도의 해밀턴항<거문도는 혹은 삼도라고 칭한다. 해밀턴항은 혹은 內海라고도 부른다.>, 소안도, 노아도, 보길도의 세 섬으로 둘러싸인 소안항, 제주도의 부속섬인 우도 및 비양도 정박지 등 모두 10항이 주요한 곳이라고 한다. 이 16항만 중 통영, 죽림포, 동항, 사량도, 여수, 삼천포, 나로도, 비양도의 8항을 제외하면 모두 정박지가 넓고 수심이 깊으며 대함과 큰 선박을 정박시키기에 적당하다. 특히 진해 및 거문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최상의 가치가 있는 듯하다. 또 부산, 마산이 上航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보성은 전라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만안이 넓으며, 수심이 깊어 개방할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목포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통영은 이 나라 상선이 모여드는 곳으로 경상도 연안 중 최고이다 여수 역시 전라도 남해안의 이름난 좋은 항으로 상업이 융성한 곳인데 통영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모두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래 현저한 발달을 이루는 배경이 될 것이다. 기타 삼천포, 나로도, 장직로, 소안항, 우도와 같은 곳은 모두 島港 으로서 정박지가 좋기는 하지만, 上航으로서의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순천만 내에 있는 순천읍은 전라도에서 경성으로 통하는 가도의 기점에 위치한다. 그와 관련하여 부산이 경상도에서 경성으로 통하는 가도의 관문이라는 점이 유사하다. 상업이 매우 번성한 지역이지만 만 안쪽이 얕아서 큰 배를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나로도에 기항하는 선박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섬이 만 입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항해 險灘 및 目標[6)]

조선 연안의 대략적인 형세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동연안이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적은 점은, 비단 항만이 풍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해 중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부족한 요인이 된다. 또한 가을, 겨울에는 해상 풍파가 격렬해짐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남서연안이 굴곡이 심하고 연해의 도서가 많으므로, 따라서 암초와 사퇴가 많다. 또한 水路가 좁아서 조류가 급한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서연안의 경사는 완만해서 간석이 풍부하고 연해 수심이 얕아 갯벌이 많은데, 조석의 간만이 매우 심하고 이 때문에 조류가 아주 거세다. 뿐만 아니라 여울이 많아서 운항할 수 있는 수로가 좁고 굴곡이 심하여 우회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연해의 형상이 이와 같으므로 항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게다가 봄부터 초가을에 이르러서는 각 海面에 모두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어둡고 흐릿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날도 자주 있다. 또한 서쪽 및 남서연안에서는 해수가 혼탁해서 바다 밑에 있는 위험물을 살피기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항로 표시가 아직 전체 해안에 보급되지 않았으니 오죽하겠는가? 그러므로 연해 전체를 항행하는 어려움은 다시 말할 필요도

6) 『한국수산지』 1권, 제7장 沿岸 航海險灘及目標.

없으므로, 항해자에게 충분하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아래에 위험물 중 주요한 것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중요 항로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지』에 수록된 연안 관련 내용을 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장 沿岸
동연안 : 概勢-港灣-岬角-島嶼
남연안 : 概勢-港灣-岬角-島嶼
서연안 : 概勢-港灣-岬角-島嶼
航海險灘及目標
동연안
1. 원산항로 : 공단갑-이덕암-동외곶-달만갑 부근-강원도 동안일대-월이대-코드리카각-여도-호도반도-갈마반도
2. 북관항로 : 마양도-봉수반도-송도갑-성진부근-길주각-계관암-무수단-웅원단-기타
남서연안
1. 연안항로 : 부산항구-가덕수로-홍도부근-용단부근-거금수도-금당수도-화도수도-섭도부근-횡간수도 및 그 부근-목포로 가는 빠른 항로-목포의 평상시의 항로-시하해-목포의 서쪽 입구-소안도 부근-거치수도-맹골수도
2. 외해항로
서연안 : 신굴수도-군산항로-인천항로-황해도 남연안 항로-장산곶-대동강 항로-진남포수도-청천강 항로-선천만 항로-압록강 항로
航路標識
水路告示

3. 조선후기의 海路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중 ‘沿邊海路’의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이 4개로 구성됨
京都沿忠淸全羅慶尙<至于東萊>
京都沿黃海平安<至于義州>
沿咸慶江原慶尙<始于慶興 至于東萊>
濟州海路
이 중에서 통영에서 부산 왜관까지의 연변해로를 보면
統營船廠所<右夾>-쇄도-연대도-용쇄도-한산도<좌협>-송도-우도-가쇄도-돈암도-구산진<우협>-방어도-영등진-견내량-대아이도-소아이도-온내도<좌협>-마산포-증도-풍덕포-고리도<우협>-장목포-칠천도-이물도-옥포진-조라진<좌협>-제포지-안골진-신문진-송도<우협>-천성보-가덕진<좌협>-서도-전모도-녹도-명지도<우협>-나무<일은 木>도-동우도-절영도<좌협>-몰운대-다대포-서평진-압남포-왜관

『한국수산지』의 연안항로‘는
부산항-가덕수로-홍도로 이루어짐

『한국수산지』를 통해 본 경남지역의 어업 현황
-『경상남도도세요람』과 비교하여 -

신보배(부경대 사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어업 종사자와 어획물
 1. 어업 종사자
 2. 어획물
Ⅲ. 어업
 1. 어구와 어장
  1) 어구
  2) 어장
 2. 어선
Ⅳ. 결론

Ⅰ. 서론

1900년대 초반의 조선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침략을 목적으로 조선 상황의 전반을 조사하였다. 1889년에는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통어 장정을 체결하였으며[1], 1908년에는 어업법을 반포[2]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출어자들이 조선으로 상당히 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그들의 조선 통치 목적으로, 또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 조선에 대한 지리・어류・어구・어기・어업・양식・판매・저장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된 시점은 1909년인데, 그 대표적인 자료로서 『한국수산지』와 『경상남도도세요람』을 들 수 있다. 『한국수산지』는 1908년에 1차적으로 1집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4집까지 만들어진다. 1집에는 조선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4집은 각 지방별로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그 중 2집에 경상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본고에서는 1집과 2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도세요람』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1913년에 만들어졌으며, 경상남도의 지리・기상・호구・농업・광업・수산업・임업・교육・위생・교통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수산지』가 만들어진 1908~1910년을 기점으로 이때 경상남도의 어업 현황에 대해서 『한국수산지』와 『경상남도도세요람』을 통해 알아보고,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봄으로써 『한국수산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어업 종사자와 어획물

1. 어업 종사자

1) 고종 26권,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0월 20일(임진).
2)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11월 7일(양력).

백성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구 조사일 것이며, 다음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지리 부분을 가장 먼저 파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호구조사였다. 호구조사가 일차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융희 3년이며, 『한국수산지』2집과 『경상남도도세요람』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국수산지』2집의 자료를 통해 당시 어업종사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경상남도도세요람』과 비교도 해보았다.

『한국수산지』2집에서는 경상남도의 호수는 217,198호, 인구수는 972,547인[3]이라고 하였으며, 각 군별로 호구수에 대해서는 '부록 漁事 일람표'에 표로 정리해 두었다. 그런데 부록의 표는 경남 연해에 위치한 동래부와 창원부, 울산군, 기장군, 양산군, 김해군, 거제군, 고성군, 곤양군, 남해군, 사천군, 진주군, 울도군, 하동군에 대해서만 수치를 적어두었다. 이것만으로는 경남지역의 전체 인구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총 인구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어업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한국수산지』2집과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경상남도도세요람』에 따르면 경남지역 총호수는 293,525호이며, 총인구수는 1,399,746명이고, 같은 융희 3년에 조사했다고 하는 『한국수산지』2집의 총호수・총인구수와 비교하면 약간 많은 수치이다. 반면 『한국수산지』1집에는 경남지역 총호수가 294,783호, 총인구수가 1,268,100명[4]으로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도세요람』과 비슷하므로, 『한국수산지』2집보다는 『한국수산지』1집의 통계가 더 정확한 듯하다.

또한 『한국수산지』2집의 '부록 漁事 일람표'에 있는 2부 12군의 호수와 인구수에 따라 『경상남도도세요람』도 같은 지역만 별도로 산출해보았다. 『한국수산지』2집에는 울산・기장・양산・동래・김해・창원・거제・고성・사천・진주・곤양・하동・남해・울도의 2부 12군에 대해 통계를 내놓았는데, 총호구수는 26,392호, 총인구수는 97,013명[5]이었다. 그런데, 『경상남도도세요람』의 통계 중 『한국수산지』2집과 같은 지역을 계산해보았을 때, 거제군은 빠졌기 때문에 제외하고 2부 11군을 산출하면 총호수 146,668호, 총인구수 719,702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즉 『경상남도도세요람』 쪽이 훨씬 큰 호구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남지역 총호구수에서는 두 자료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각 지방의 호구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산지』2집의 본문에 있는 총호구수에 비례해서 '부록 漁事 일람표'에 있는 2부 12군의 호수가 12%, 인구수가 10%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한국수산지』2집의 부록에서 산출하고 있는 호구수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어업 종사자의 수는 『한국수산지』와 『경상남도도세요람』 모두 연해지역만 어업종사자의 통계를 내고 있다. 이는 내륙에서는 거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1] 어업종사자수

단위: 호, 인

부군	『한국수산지』2집	부군	『경상남도도세요람』

3)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2집, 1908. p. 425.
4) 광무 11년(1907) 5월에 조사한 것이다.
5) 거제군은 인구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인구수에서 제외되었다.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울산군	487	1,941	울산군	255	802
기장군	424	1,911	기장군	424	1,911
양산군	33	133	양산군	35	237
동래부	588	1,855	부산부	306	1,833
김해군	43	136	김해군	33	182
창원부	622	1,901	마산부	302	1,244
거제군	216		거제군	299	1,266
고성군	193	795	고성군	218	1,090
사천군	160	320	사천군	308	478
진주군	5	23	진주군	3	6
곤양군	318	892	곤양군	48	77
하동군	86		하동군	40	107
남해군	405	1,216	남해군	461	1,457
울도군	480	2,095	울도군	62	183
			용남군	679	1,328
			밀양군	40	85
합계	4,060	13,218	합계	3,513	12,286

[표1]은 경남지역 어업자수이다. 『한국수산지』2집에서는 2부 12군의 어업자 호구조사를 하였으며, 『경상남도도세요람』은 2부 12군에 용남군과 밀양군을 더하여 2부 14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수산지』2집에서는 4,060호, 13,218명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상남도도세요람』에서는 3,513호, 12,286명인 것을 볼 수 있다. 『경상남도도세요람』은 용남군과 밀양군이 더해졌으며, 『한국수산지』2집에는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은 거제군과 하동군의 인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수치가 더 작게 나왔는데, 이는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특히 계별 부군별로 보면, 울산군・동래부・창원부・곤양군・울도군이 『경상남도도세요람』에 비해서 『한국수산지』2집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위의 [표1]로는 융희 3년 조사할 당시 2부 14군에 대략 어업자 호수가 5천호, 인구수가 15,00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전국 어업자수의 22%[6]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수치로,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어획물

본장에서는 『한국수산지』 단계에서 어떠한 어채류가 어획되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흔히 말하는 동해・남해・서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한반도 해양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첫째,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있다. 둘째, 조석간만의 차를 들 수 있다. 동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작지만, 남해안은 크다. 세 번째로 수온문제이다. 동해안은 계절에 따라 2.2~25.1도, 남해안은 6~26.6도, 서해안은 3.3~24.9도로, 여름과 겨울에 수온의 차가 많이 난다. 이 외에도 각 연안마다 그 특징이 다르며 또

6) 『한국수산지』2~4집 전국 어업자수를 헤아린 결과 알 수 있었던 지역 총 합계는 38,827이었으며, 기타 호수만 적혀 있고 인구수는 적혀있지 않았던 지역은 '호수×4'로 추산하였다. 그 결과 65,467명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65,467명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빠져있다.

한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어류가 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경상남도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어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잡히는 어채류들이 어획·채집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고래·멸치·대구·청어·도미·고등어·숭어·삼치·갯장어·감성돔·갈치·조기·광어·가자미·전어·꽁치·방어·붕장어[海鰻]·가오리·상어·복어·게·낙지·오징어·굴·홍합[貽貝]·피조개[赤貝]·해삼·개불·미역[若布]·풀가사리[海蘿]·우뭇가사리[天草]·청각채[鹿角菜] 등이다.[7]

어채물이 각 지방에서 얼마나 잡혔으며 그 가격은 얼마였을까?『한국수산지』에는 2집 '부록 漁事 일람표'에 1년 어채 개산고가 있으며, 이 외에는 1집 어채류 설명에 1년 산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적혀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각 어채류 별로는 얼마나 어획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표2]에서『경상남도도세요람』의 표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2] 경상남도 어채물 어획량[8]

어획물	조선인		일본인		계	
	수량(貫)	가격(円)	수량(貫)	가격(円)	수량(貫)	가격(円)
고래			238	444,000	238	444,000
멸치	73,319	220,950	39,550	46,600	111,869	267,550
도미	17,931	42,600	18,564	36,700	36,495	79,300
갯장어			11,806	20,880	11,806	20,880
고등어	180	360	13,870	7,300	14,050	7,660
삼치			13,500	13,500	13,500	13,500
숭어			12,600	8,000	12,600	8,000
조기	25,574	37,620	5,500	2,200	31,074	39,820
청어	12,557	89,510			12,557	89,510
전어	4,268	21,700			4,268	21,700
갈치		11,380	11,699	1,500	11,699	12,880
가자미, 넙치	34,652	113,800	70,314	49,555	104,966	163,355
대구	1,093,520	310,590	7,000	1,400	1100,520	311,990
복어	723	2,800			723	2,800
상어	1,275	2,550	1,330	1,200	2,605	3,750
뱀장어			3,000	2,700	3,000	2,700
은어	466	700	1,500	1,000	1,966	1,700
잉어	600	600	900	900	1,500	1,500
뱅어			6	60	6	60
잡어	21,903	51,351	10,910	23,290	32,813	74,641
자라			240	240	240	240
게	300	1,200			300	1,200
대합	8,640	8,640			8,640	8,640
굴	990	1,980			990	1,980
피조개	25	75			25	75
홍합	630	1,260	2,100	32,200	2,730	33,460

7) 농상공부수산국,『한국수산지』2집, 1910. p.449.
『조선통어사정』에는 경상도에서 많이 나는 것을 고래·상어·가오리·도미·고등어·양태·달강어·숭어·납자루·대구·가자미·전어·붕장어·청어·멸치·오징어·전복·조개·자개·해삼 등이라고 하고 있다.

8) 경상남도청,『경상남도도세요람』, 1913.
조선인의 멸치 가격은 819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가자미·넙치의 수량은 128,669관, 가격은 54,748원으로 되어 있으나, 34,652관, 113,800원으로 고쳤다. 이는『경상남도도세요람』의 각 지역 합계에 따른 것이다. 또한 표의 계는 간혹 오타가 있었는데, 이 역시 총합계 계산에 따라 고쳤다.

전복	960	4,200	190	1,500	1,150	5,700
雜貝	30	60			30	60
오징어	90114	120,057			90,114	120,057
갑오징어	1600	8,000			1,600	8,000
문어	3208	15,888			3,208	15,888
해삼	4676	14,060	6,800	3,450	11,476	17,510
미역[9]	53762	21,850			53,762	21,850
청각채, てぐさ	2657	7,800	7,000	7,000	9,657	14,800
김	7488	16,000			7,488	16,000
계	1,462,048	1,127,581	238,617	705,175	1,699,665	1,832,756

위의 표는 경남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의 어채물 어획량・어획 가격과 함께 그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어채물의 어획량과 어획 가격은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어채물이 조선 전체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지』1집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10] 본고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한국수산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등 전체의 통계를 대략적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표의 순서에 따라 조선 1년간 어획고가 고래는 450,000원으로 경남지역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멸치는 27%, 도미 16%, 갯장어 45%, 고등어 7%, 삼치 5%, 숭어 2%, 조기 6%, 청어 36%, 갈치 8%, 대구 147%, 상어 4%, 뱀장어 8%, 뱅어 1%, 굴 2%, 홍합 105%, 전복 5%, 오징어 480%[11], 해삼 6%, 미역 35%, 김 10%가 잡히고 있다.[12] 비율로 보았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남지방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는 고래, 멸치, 도미, 갯장어, 청어, 대구, 홍합, 오징어, 미역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에 있는 경남지역에서 잡히는 어채류 중 10위권 안에 드는 것은 고래, 대구, 멸치, 가자미・넙치, 오징어, 청어, 도미, 잡어, 조기, 홍합의 순서여서 다른 지방에 비해 많이 잡히는 어채류와 경남지방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중에서 비교한 경우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앞에서는 조선인・일본인 등이 어획한 양에 대해서 전체 어획 가격으로 비교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인이 많이 잡은 어채류를 보자. 앞에서는 어획 가격으로 비교하였는데, 이는 『한국수산지』1집에서 가격을 표기해두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서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격은 어채류마다 혹은 각 지방마다 같은 어채류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이 잡은 어채류의 양에 대해서는 수량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랬을 때 많이 잡히는 순서로 10개는 대구, 오징어, 가자미・넙치, 멸치, 미역, 조기, 잡어, 도미, 청어, 대합이며, 경남지역 전체 어획 가격으로 비교한 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어업

1. 어구와 어장

9) 미역은 용남군, 거제군의 수량을 알 수 없음에 따라서 위와 같다.

10) 『한국수산지』2집은 경남지역의 각 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부록자료로 인구수와 어채물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어채물에 대한 전체 어획량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전국에 대해 개관하고 있는 『한국수산지』1집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1) 『한국수산지』1집에는 1년 어획고가 25,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12) 전어, 가자미・넙치, 복어, 은어, 잉어, 잡어, 자라, 게, 대합, 피조개, 잡패, 갑오징어, 문어, 청각채・てぐさ는 한국수산지에는 그 수치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1) 어구

종래 조선인이 사용하던 어구는 그 종류가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은 어장(漁帳)·어전(漁箭)에 속하는 여러 종류와 주목(駐木)·설망(設網)·중선(中船)·궁선(弓船)·망선(網船)·지예망(地曳網)·자망(刺網) 등이며, 강원도에서 지예망, 경상도에서 어장, 전라이서북 각도에서 어전, 주목, 설망, 중선, 궁선과 같은 것이 발달하였다. 또한 수조망·연승과 같은 것은 일본통어자가 사용하는 어구를 모방한 것으로 최근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인이 사용하는 어구의 주요한 것은 잠수기(潛水器)·연승(延繩)·지예망(地曳網)·수조망(手繰網)·타뢰망(打瀨網)·유망(流網)·호망(壺網) 및 입량(魞簗)같은 종류이다.[13)]

위의 내용으로 보아 경남지방에서는 어장이 발달하였을 것이며, 그 외 어망으로서 어획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어장에 대해서는 '②주요 어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각종 어망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어망은 자망류·예망류·부망류·선망류·건망류·조구·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경남 각 지방에서는 어떠한 어망으로 어떤 어채류가 어획·채취되었는지에 대해서 [표3]로 정리하였다.

[표3] 어망에 따른 경남지역 어종

		울산군	양산군	기장군	동래부	김해군	창원부	거제군	용남군
자망류	유망 자망	게, 작은 상어, 청어, 삼치	청어	청어	상어, 청어		대구, 청어 전어	대구, 삼치	전어, 대구, 삼치
예망류	지예망 수조망 예망	멸치, 가자미	멸치	멸치	멸치	○	○	멸치	멸치
부망류	분기망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
선망류	망								
건망류	호망	청어, 방어						○	
조구	연승 외줄낚시 낚시	상어, 삼치 잡어, 도미 대구, 가오리, 청어, 조기, 복어, 갈치, 가자미	복어, 잡어	잡어, 갈치	도미, 붕장어, 광어, 갈치, 조기, 잡어		대구, 도미, 갈치, 낙지	조기, 도미, 방어, 상어, 갈치, 낙지	조기, 도미, 갯장어, 갈치, 낙지
기타	기타				해삼 桁網 魚箭		도미와 청어 魚帳 및 魚箭, 해삼 항망, 유망, 건저망, 洋中網	해삼 항망, 멸치 양조망, 四張網, 魚帳, 權現網	해삼 항망, 鹽竈, 蝦掻, 대구 掛釣
		고성군	사천군	진주군	곤양군	남해군	하동군	울도군	
자망류	유망 자망	전어, 대구							
예망류	지예망 수조망 예망	전어							
부망류	분기망								
선망류	망								
건망류	호망								
조구	연승 외줄낚시 낚시	도미, 대구, 갈치, 조기, 낙지				조기			

13)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1집, 1908.

기타	기타	염통, 해삼 항망, 오징어 통발				낙지 통발			

[표3]로 보아 대체적으로 자망류・예망류・조구로 어획되고 있으며, 울산・양산・기장・동래・창원・거제・용남・고성에서 다양한 어구로 어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각 지방에서 어떤 어구로 어떤 어채류를 어획・채취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 그 양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각 망으로 어획된 양은 알 수 없지만, 각 지방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망수로 어획 규모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산지』2집 부록 표에 있는 어망수와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어망수를 비교해보면, 우선 『한국수산지』2집의 경우, 울산군 212, 양산군 27, 기장군 206, 동래부 871, 김해군 16, 창원부 211, 고성군 114, 진주군 0, 사천군 32, 곤양군 16, 하동군 0, 남해군 186, 거제군 225[14], 울도군 0으로, 총 1,904개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도세요람』은 울산 280, 양산 33, 기장 278, 부산 450, 김해 38, 마산, 472, 고성 131, 진주 0, 사천 57, 곤양 39, 하동 0, 남해 173, 거제 262, 울도 30, 용남 383, 밀양 20으로 총 2,646개이다.[15]

『한국수산지』2집에서 산출한 어망수는 1,904개이며, 『경상남도도세요람』에서 산출한 어망수는 2,646개이다. 또한 각 지방에서 어망수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총계에서 700개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수산지』2집에 포함되지 않은 용남383개와 밀양 20개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세요람』에서 이 400여 개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차이나는 것은 300여 개정도 된다.

2) 주요 어장

앞에서는 운용어구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어장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함께 정치어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어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어장의 개념에는 넓은 의미의 어장과 좁은 의미의 어장이 있다. 넓은 의미의 어장은 어업의 목적 대상물이 서식하는 광범한 수역으로서의 바다를 비롯하여 육지 속에 존재하는 호소, 강하천, 못 등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광범하며 어구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어장은 그 광범한 수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구가 사용되어 어업행위가 영위되는 장소를 지칭한다.[16] 그 중 본장에서는 좁은 의미의 어장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어장에서는 정치어구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어구에는 어장(魚帳), 어전(魚箭), 방렴(防簾)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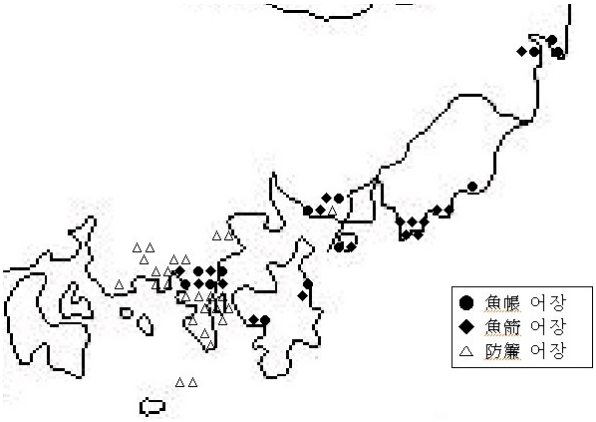
[그림1] 어장 분포도[17]

14) 『한국수산지』2집에는 세망 139, 대부망 93이라고 되어 있다.

15) 『도세요람』에서는 정치어구・운용어구・잡어구로 구분하여 정리한 다음 이들 총 합계를 표기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그중 운용어구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이는 『한국수산지』2집에서 순수하게 운용어구에 해당되는 것만을 어망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16) 장수호, 『어장관리』, 태화출판사, 1994. p.16.

17) 동래부의 평림포, 용남군에 대청동, 고성군의 중장동은 위치를 표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경남지역에 설치된 곳들을 보면, 어장(魚帳) 어장은 울산군에 상화잠동・염포・구정동, 동래부에 덕민동・두중, 창원부에 웅등면・가덕도・웅중면, 거제군에 옥포만, 용남군에 황리・안정동・적덕동・창포・죽림포・평리가 있다. 어전(魚箭) 어장은 울산군에 구정동, 동래부에 용당・감만・부민동・암남동・구서평포・다태포・평림포・하단포, 창원부에 웅등면・가덕도・웅중면, 거제군에 옥포만, 용남군에 황리・안정동・적덕동・창포・죽림포・평리가 있다. 방렴(防簾) 어장은 창원부에 창포, 용남군에 선동・신리・연화・노전포・송계포・장문동・풍화동・대청동・연명동・마동・봉전동・신봉동・여차동・이포동・하포동・창동・봉암동, 고성군에 당항동・전포동・신부동・거운동・오산동・중장동・상서면・장지동・두모동・용호동・미곡동이 있다. 이중에서 어장・어전・방렴이 설치된 곳은 위와 같은데 경남지역에 어장과 어전이 설치된 수를 보면, 울산 59곳, 기장 14곳, 동래 92곳, 창원 135곳, 고성 47곳, 진주 5곳, 사천 7곳, 곤양 80곳, 하동 5곳, 남해 67곳, 거제 94곳으로 총 605곳이다. 반면『경상남도도세요람』에는 어장・방렴・건방렴 등 정치어구의 세부적인 개수를 별도로 헤아리고 있으며, 합쳐서 울산 72, 부산 89, 마산 134, 고성 124, 용남 254, 사천 28, 진주 5, 곤양 77, 하동 13, 남해 67, 거제 185곳으로 총 1,048곳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호구수나 어획물, 어망에서처럼 두 서적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어장의 범위 문제일 것이다. 특히『한국수산지』는 어장과 어전의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어전에 방렴이 포함되고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상당히 많은 수의 어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어선

조선에서 기존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는 보통어선, 떼배, 하천어선 정도가 있다. 보통어선은 연해에 적합한 어선이며, 떼배는 여러 도서 사이를 다닐 때 사용하고, 하천어선은 이름처럼 강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양어선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람들이 연해나 하천에서 어획하는 것만으로 수요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어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선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후로 조선인 사이에서도 일본어선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조선의 어선들, 즉 보통어선과 떼배 그리고 하천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였을 것이며, 일본출어자들이 남해안지역에 어업을 하러 많이 왔었기 때문

에, 일본형 어선도 다른 도(道)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는 경남지역에 조선인이 사용한 어선의 수를 조선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수도 같이 표기하였다.

[표5] 경남지역 어선수

단위: 척

『한국수산지』2집		『경상남도도세요람』						
부군	선수	부군현	조선인소유			일본인소유		
			조선형	일본형	계	서양형	일본형	계
울산군	159	울산	217	8	225	10	76	86
양산군		양산	38	2	40	0	24	24
기장군	132	기장	107	0	107	0	30	30
동래부	240	부산	105	53	158	2	361	363
김해군	27	김해	27	0	27	0	0	0
창원부	412	마산	118	239	357	1	36	37
고성군	146	고성	129	32	161	0	13	13
진주군		용남	383	117	500	0	33	33
사천군	102	사천	70	44	114	0	14	14
곤양군		곤양	39	3	42	0	0	0
하동군	21	하동	27	21	48	0	0	0
남해군	167	남해	126	32	158	0	10	10
거제군	180	거제	179	99	278	0	141	141
울도군	230	울도	230	0	230	0	0	0
		밀양	0	0	0	0	0	0
총계	1,816[18]	총계	1,795	650	2,445	13	738	751

『한국수산지』2집에서 산출한 어선의 수는 1,816척이며 『경상남도도세요람』에서 조선인이 소유한 조선형・일본형어선 총 합계는 2,445척이다. 『한국수산지』의 경우는 조선형・일본형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조선인이 소유한 총 어선이기 때문에, 일본형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총계의 수치를 보면 『한국수산지』측이 629척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도세요람』에 『한국수산지』에는 없는 용남 500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외에는 지역에 따라 약간 많거나 적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위의 표에서 『경상남도도세요람』의 구분에 따라 조선인은 2,445척 정도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어선으로 각종 어류를 어획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도세요람』에 따르면 조선인이 소유한 총 어선수가 2,445척이라고 하였는데, 이 규모는 조선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였을까.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19] 1911년 조선에 조선형어선이 9,170척, 일본형어선이 3,015척이고, 기타가 839척으로 합계는 13,024척이다. 위의 자료로 비율을 산출하면 경남지역 어선수는 전체 어선수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본형어선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13도 중 한 도에서 19~22% 비율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남지역이 상당히 어업이 발달한 것임을 나타낸다.

---

18) 『한국수산지』2집에는 1,897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체 합계에 따랐다.

19) 김수희, "조선식민지어업과 일본인어업이민", 동경경제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의 자료 인용.

Ⅳ. 결론

1908~1910년은 한일합병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함에 따라 일본인이 조선의 세부적인 상황을 조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통치를 위해 조선의 세부 상황을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해양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게 된 책이 『조선통어사정』, 『한국수산지』, 『경상남도도세요람』과 같은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한국수산지』에 근거해서 서술하였으며,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수산지』는 전국을 개관하고 각 지방의 특색을 잘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집에서는 조선에서 잡히는 어채류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2~4집까지는 각 도별·마을 단위로 인구가 얼마인지, 그 마을 주민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어떤 어채물이 어획·채취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서적은 해양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아쉬운 점들이 몇몇 보인다. 우선 경남지역 어업자수를 헤아리는데 있어서 거제의 인구수가 빠져 있기도 하고, 수치의 오타가 보이는 등 정밀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도세요람』과 같이 조선인·일본인·기타 외국인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헤아리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어구와 어선 등을 알아보는 데에서도 나타났다. 각 마을의 어망수와 어선수를 기재하고 있지만,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없었으며, 정치어구에서는 어장·어전·방렴 등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어업현황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다.

다음으로 어채물에 대한 설명 문제이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각 어채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각 마을 단위로 잡히는 어채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어채물이 어획·채취되는지, 또한 그 어채물이 어획되는 시기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어획량 산출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각 어채물 별로 조선인·일본인이 어획한 양에 대해서 산출하였다. 이는 『한국수산지』의 자료로만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상남도도세요람』에 비해 미흡한 듯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수산지』는 각 지역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나, 해양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한국수산지』와 부수적인 자료로 사용한 『경상남도도세요람』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는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있으면서 다양한 어채물을 어획·채취하였으며, 특히 정치어구 및 각종 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장도 상당히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획물을 정리할 때 어획량의 문제이다. 『한국수산지』와 『경상남도도세요람』의 어획량 비교에서 '원'이라는 단위가 같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괄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어채물 별로 1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를 것이지만, 이 역시 크게 염두에 두고 서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근대 부산 지역 일본인 해양수산사업

심민정(부경대 사학과)

1. 서론

한일합병 시기를 즈음하여 편찬된 『한국수산지』는 1~4집 전체가 발간되는 시점이 1908~1910년 사이로, 그 조사기간은 물론 그 이전이 될 것이다. 조사가 완료된 시점은 책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1907~1909년 무렵이다. 즉 각 지역별 조사는 늦은 것은 1909년까지도 조사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개관에 대한 조사 완료 시점을 말한다면 아마도 1907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1907년이라는 시점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감행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조선 정부의 조사기록을 일부 발췌하여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구 국가의 자료가 혼재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 기록과 1907년 기록들과는 일부 충돌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본 글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대체로 1908년 이후, 즉 『한국수산지』2집 이후의 자료들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당시 부산지역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의 활동 양상을 수산해양관련 사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자 한다.

2. 재부산 일본인 거류 현황

경상도 지역 일본인 거주자는 같은 해(1909) 말 현재 약 4만 3,300여인[1]인데, 이를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일본인 거주지 및 그 호구(2) 경상남도[2]

부산이사청	호수	인구			마산이사청	호수	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울산군 田下浦	16	-	-	-	창원부 昌原	40	83	49	132
동 日山浦	2	-	-	22	동 熊川	49	128	84	212
동 蔚崎	1	-	-	2	동 德山	7	19	11	30
동 方魚津	50	60	70	130	동 大山面	36	62	46	108
동 鹽浦	2	-	-	6	동 馬山	1,132	2,360	1,961	4,321
동 兵營	7	-	-	17	동 栗九味	15	-	-	45
동 蔚山	69	-	-	210	동 釜島	-	-	-	-
동 新場基	5	-	-	14	동 鎭海	22	28	20	48
동 長承浦	23	-	-	65	동 기타	-	-	-	-
동 內海	25	-	-	155	거제군 巨濟	8	11	9	20
동 城外洞	-	-	-	-	동 松津浦	21	65	39	104

1) 『한국수산지』2, 경상도, 개세, 426쪽.
2) 『한국수산지』2, 경상도, 개세, 430~437쪽.

동 細竹浦	10	-	-	69	동 長承浦	57	-	-	226
동 達浦	-	-	-	-	동 外叱浦	15	40	25	65
동 下花岑洞	-	-	-	-	동 知世浦	8	-	-	29
동 기타	-	-	-	-	동 榮浦	-	-	-	-
기장군 機張	7	-	-	18	동 舊助羅	4	-	-	10
동 羅土	-	-	-	-	동 竹林浦	-	-	-	-
동 雲岩	-	-	-	-	동 河淸	1	2	2	4
동 月浦	3	-	-	-	동 長串	1	1	1	2
동 太邊浦	16	-	-	-	동 大谷洞	8	27	14	41
동 기타	-	-	-	-	동 塔浦洞	1	3	1	4
동래군 東萊	**64**	**-**	**-**	**130**	동 菱浦	1	8	-	8
동 龍湖	**7**	**-**	**-**	**23**	동 漆川島	3	-	-	-
동 龍塘	**4**	**-**	**-**	**14**	고성군 固城	42	70	54	124
동 釜山鎭	**235**	**289**	**249**	**538**	동 華陽面	6	9	5	14
동 草梁	**500**	**1,276**	**972**	**2,248**	동 葡萄面	15	41	36	77
동 古館	**197**	**437**	**323**	**760**	동 기타	-	-	-	-
동 瀛州	**29**	**-**	**-**	**145**	龍南郡 統營	272	264	505	769
동 釜山	**3,054**	**9,355**	**7,207**	**16,562**	동 水浦	3	18	2	20
동 絶影島	**451**	**-**	**-**	**1,801**	동 南浦	8	16	14	30
동 多太浦	**32**	**-**	**-**	**114**	동 自富浪津 (欲知島)	3	-	-	9
동 下端浦	**13**	**-**	**-**	**44**	동 邑洞 (欲知島)	1	-	-	3
동 平林浦	**3**	**-**	**-**	**9**	동 기타	-	-	-	-
동 龜浦	**63**	**-**	**-**	**217**	사천군 泗川	15	22	16	38
동 기타	**-**	**-**	**-**	**-**	동 船津	6	8	4	12
梁山郡	70	138	77	215	동 三千浦	50	105	86	191
欝島郡[3]	224	410	358	768	동 기타	-	-	-	-
金海郡	7	19	11	30	昆陽郡 昆陽	8	14	7	21
밀양군 密陽	211	-	-	563	동 辰橋浦	7	13	8	21
동 三浪津	132	-	-	430	동 기타	-	-	-	-
동 舊三浪津	36	-	-	120	南海郡	10	13	11	24
동 기타	-	-	-	-	河東郡 河東	28	-	-	70
					동 기타	19	-	-	55
					진주군 晋州	221	426	336	762
					居昌郡	35	57	32	89
					安義郡	7	7	3	10
					咸陽郡	7	10	4	14
					山淸郡	9	10	4	14
					陜川郡	15	22	17	39
					草溪郡	3	4	2	6
					三嘉郡	7	15	5	20
					丹城郡	8	8	6	14
					咸安郡 咸安	18	24	16	40
					宜寧郡	11	16	17	33

<비고> 표 중 수를 기입하지 않은 곳은 일본인 거주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수가 아직 상세하지 않은 것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경상도 내 일본인 거주자 중 33,367명 정도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약 77%에 해당한다. 게다가 경상남도 거주자 중에서도 약 22,605명이 부산<동래

3) 울릉도를 말함.

부>에 거주하는데, 이는 경상도 전체에 대해서는 약 52%를,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약 68%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당시 전국적으로, 혹은 경상도 지역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부산지역이 조선시대 倭館 설치 지역으로 이전부터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일본인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다가 위치상으로도 일본과 가까워 왕래하기 편하다는 이점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이주해 온 거류민들은 일정한 인구수가 정해지면, 民團과 같은 일본인 단체・모임을 조직하였다. 아래의 표는 앞의 인구 조사 시기보다는 앞서는데, 통감부 제3차 연보에 의해 명치 41년(1908) 말 현재 일본인이 조직한 각 자치단체 및 기타 지구・호구를 표시한 것이다.

<표 3> 1908년 부산이사청 관할 일본인 단체[4]

위치 및 명칭		민단 지구 및 거류지 구역	戶數	인구		
				남	여	계
부산이사청관할	**釜山居留民團**	**부산전관거류지, 절영도, 초량, 부산진, 고관**	5,083	10,231	9,435	19,666
	密陽日本人會	駕谷村城內, 龍城, 永林, 堤大洞	140	290	240	530
	三浪津日本人會	밀양군 내, 삼랑진, 구삼랑진	160	320	230	550
	東萊日本人會	**동래군 내, 동래, 金山里, 大堤里**	60	110	115	225
	洛東日本人會	金海郡 내, 大上面, 大下面, 德道面	70	140	100	240
	蔚山日本人會	蔚山郡 내, 울산본부, 兵營	76	129	98	227
	龜浦日本人會	**東萊郡 내, 龜浦**	65	120	100	220
	金海日本人會	김해군 내, 駕洛面, 活川面, 左部面, 右部面, 七山面	50	95	80	175
	蔚山灣日本人會	울산군 내, 울산항 및 그 부근 10리 이내	87	225	165	390
	鬱島日本人會	鬱島 전부	193	335	280	615
	下端日本人會	**동래부 沙下面의 일부**	45	65	45	110

위의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부산지역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釜山, 즉 부산항 부근의 옛 일본인전관거류지 일대이다. 이를 통해서도 일본인들은 기존의 생활권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부산항 부근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지』에 그 통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본인구의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연간 부산항 거주 일본인구 통계[5]

연도	인구(인)	연도	인구(인)

4) 『한국수산지』2, 경상도, 개세, 437~438쪽.
5)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38쪽.

명치 34년(1901)	6,916	**명치 39년(1906)**	**15,905**
명치 35년(1902)	10,355	**명치 40년(1907)**	**19,948**
명치 36년(1903)	9,116	명치 41년(1908)	15,106
명치 37년(1904)	9,939	명치 42년(1909)	16,562
명치 38년(1905)	**13,364**		

위의 표를 통해서 보건대, 부산항 내 거주 일본인이 증가하는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5년부터이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이주를 장려한 결과인데, 민단법(民團法)의 시행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일본은 러일전쟁 후 1905년 3월 민단법을 공포하면서 민단을 법적인 자치단체로 인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같은 해 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의 거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게 되었다. 이듬해 7월에 일본은 통령 제21호로 일본거류민단법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실시 요강을 공포하여, 통감부 부령으로 실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거류일본인의 수는 격증하게 되었고, 그 시기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민단법이 완비된 1907년 무렵에는 거류인구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6]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08년에 들어서면서 부산항 부근의 거류일본인은 다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수산지』의 내용을 빌리자면, 그 후에 감소하는 것은 부근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종관철도(縱貫鐵道)의 改修로 일본과의 연락이 이루어져 여객(旅客)이 이곳에 체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7]이라고 한다. 물론 위의 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거류일본인을 통계한 표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조선 전역으로의 유입, 혹은 부산지역 전체로의 유입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이나마 일본의 이주정책과 거류인구의 변화를 살피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산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한 일본인들은 어떤 산업 활동으로 생활을 영위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부산에 본사를 설치한 여러 회사는 모두 18개인데, 그 중 株式會社가 13, 合資會社가 3, 合名會社가 2개이다. 그 명칭, 소재지, 자본, 기타는 다음과 같다.

회사	소재지	창업시기	자본총액	불입액
韓國倉庫株式會社	佐藤町	명치 40년(1907) 4월	2,000,000	500,000
釜山倉庫株式會社	常盤町	동 29년(1896) 11월	25,000	13,000
釜山水産株式會社	**南濱町**	**동 36년(1903) 1월**	**600,000**	**180,000**
釜山電燈株式會社	本町	동 34년 9월	100,000	100,000
釜山煙草株式會社	寶水町	동 40년 4월	100,000	31,850
釜山食糧品株式會社	南濱町	동 년 4월	100,000	35,000
滿韓運輸株式會社	本町	동 년 9월	50,000	12,500
山西酒造株式會社	富平町	동 41년 12월	75,000	45,000

6) 부산항부근 민단에 대해서는 수산지에, "민단(民團) 지역은 거류지를 중심으로 사방 20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목도(牧島, 절영도), 초량, 고관, 부산진 등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역시 이 곳(부산항)의 민단에 가입했다. 때문에 그 구역은 매우 넓다. 이 곳 민단이 스스로 기록한 연혁을 보면, 명치 6년(1873) 보장(保長)을 둔 것을 시작으로 하였다. 동 14년(1881) 거류지제도가 발포됨과 동시에 거류지 회의를 열고, 보장을 고쳐서 거류민총대(居留民總代)라고 하고, 총대역소(總代役所)를 설치하였다. 명치 35년(1902) 거류민총대역소를 거류지역소(居留地役所)로, 총대를 민장(民長)으로 고쳤는데, 통감정치(1906~1910)가 되면서 민단법(民團法)[1]이 발포되자마자 바로 이 법에 따라 명치 39년(1906) 8월 현재의 민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39쪽)"라고 잘 정리되어 있다.

7)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38~539쪽.

*釜山棧橋株式會社	佐藤町	동 37년 11월	150,000	150,000
釜山製粉株式會社	入江町	동 41년 3월	100,000	30,000
韓國産業株式會社	埋立新町	동 40년 2월	100,000	25,000
*釜山汽船株式會社	本町	동 41년 12월	600,000	150,000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	**入江町**	**동 37년 11월**	**60,000**	**60,000**
大池回漕合資會社	本町	동 40년 9월	20,000	20,000
合資會社韓國時報社	西山下町	동 25년 7월	24,000	24,000
五島合資會社	本町	동 41년 5월	40,000	40,000
釜山演劇合名會社	西町	동 40년 4월	30,000	20,000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63~564쪽)

위의 표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산업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산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수산 및 해양활동과 관련한 사업이다. 어업과 관련한 산업은 "부산수산주식회사"와 그 아래에 딸린 어시장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염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대염판매합자회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어염업 외에 해양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부산잔교주식회사"와 "부산기선주식회사"로 사람과 물품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체도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인 수산사업

수산사업이라고 한다면, 물에서 나는 각종 자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염업 및 그 활동으로 인해 하는 상행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수산사업을 하는 일본인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체는 부산·경남 지역 일대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산 지역을 부산항이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일찍부터 수산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1) 부산수산주식회사

① 위치 및 자본

부산수산주식회사는 부산항 남빈정(南濱町) 3번지에 있다. 회사 설립은 명치(明治) 40년 5월 1일이지만, 그 전신은 명치 22년 8월에 창설되었고, 현 회사는 그 사업을 계승한 것이다. 회사 자본금은 60만원이고, 그것을 1만 2천주로 나누어 1주 당 금액은 50원이다. 현재 불입금액은 18만원으로 1주 당 15원 비율이다. 회사 중역은 다음과 같다.

전무취체역 사장　矢橋寬一郎
취체역　迫間房太郎,　大池忠助
　　河村茂八郎,　香椎源太郎
지배인　河面道三郎
감사역　板田文吉, 保家貞八, 豊田福太郎

② 연혁

명치 40년 5월 현 회사의 조직이 만들어지자 회사 사업경고서(事業敬告書)에 밝혀진 내용

이 있어 아래에 그것을 게재한다.

명치 16년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이 윤준(允准)되고, 그 41조[款]에 기반하여 우리 어업자가 속속 도한(渡韓)하는 경우가 많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 어장 상황에 어두워 어구(漁具)의 적부(適否)를 알기위해 헛되이 동서로 떠돌아 다니거나 시험에 시일을 낭비하거나 또는 다소의 어획물이 있어도 판로를 몰라 예측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여 겨우 준비한 자금을 잃는다. 따라서 어기(漁期)를 모르는 등 당시 어업자의 상태가 실로 슬프고 애통함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치 22년 일한통상규칙의정이 발포되면서 공변(公邊)[8]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어부들이 일한 관아의 여러 가지 신고 등의 법에 어두워 불식간에 범칙자를 낳게 되는 경우 등을 우려하여 명치 22년 8월 부산 유지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자본금 5만원으로 부산수산회사를 설립하여 오로지 대중들보다 먼저 어장의 탐험, 어기의 시험, 어구의 사용, 미끼 채취 장소 등 적어도 당국(朝鮮) 연안 어업에 관한 만반의 사항을 탐구하고, 사방으로 나가서 주야로 쉴 새 없이 노력하고 풍파를 견디어 얻은 바는 새로 오는 어업자에게 소개, 지도, 장려하는 한편 부산 본사 앞 해변에 어시장을 개설하여 어획한 생선류는 곧바로 일한인(日韓人)에게 경매하여 판로를 자유롭게 하는 한편 신래 어업자가 행정절차에 어두운 것은 특별히 사원을 배치하여 영사관의 여러 서류, 조선 정부의 어업 감찰원(鑑札願) 등의 업무를 대서, 대변하고, 우편 중개, 위체저금 등의 대리에 이르기까지 주선하고, 또 자금 대부의 법을 만들어 신래 어부 중 자본이 결핍한 자에게 전대(前貸)를 행한다(현재까지 계속된다).

이와 같이 본사는 무한한 요구에 대해 유한한 자력(資力)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자본의 대부를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고, 주주에게 이익의 배당을 행하고 여러 기(期)가 되고도 각 주주는 아직 흔들리는 이 사업에 매진하는 한편, 혹은 세키자와아키키요(關澤明淸)[9]씨를 초빙해서 미국식 발포 포경을 시험하거나 혹은 새로 수 척의 어선을 임대해서 죽변만에서 약·사망(鰯·鰤網-정어리·방어그물)을 시험하거나 경보신호표를 설치하여 풍우의 경계(警戒)를 어부에게 예고하는 등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어업을 위해 공헌하였다. 결국 본사는 자금의 결핍을 느끼게 되어 명치 35년 10만원으로 증자하고, 이보다 앞서 명치 31년 부산 유지자와 논의하여 일본인 출어자의 보호·단속 기관으로 따로 어업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종래 부산수산주식회사가 취급해오던 공공사업을 모두 이 단체로 이관하였다. 본사는 또한 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몇천원을 지출해서 더욱 이 사업의 개선 발달에 투자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전신(前身) 회사의 창립 이래 회사 시장에서의 수양고(水揚高)를 언급함으로서 회사 발전의 일반을 살피는 한편 남해에서 일본 출어자 어업 추세의 일단을 미루어 알기에 충분하다.

연도	양륙(揚陸) 금액/원	연도	양륙금액
명치 22년	11,323	명치 32년	103,831

8) 官邊과 같은 말로 행정적인 절차 등을 말한다.

9) 일본 근대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1842~1897). 加賀藩士의 아들로 태어나 막말명치기에 관리로 구미제국으로 건너가 만국박람회 등을 견학하면서 선진적인 구미의 수산기술을 흡수하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연어와 송어의 인공부화, 건착망어업, 포경술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식 포경술이라는 300~400톤 정되는 범선을 모선으로 하고 몇 대의 포경용 보트를 싣고, 총이나 대포를 쏘아 고래를 잡아 모선에서 기름을 짜는 포경법이다. 명치 13년에 千葉縣에서 시작하였으며 21년에는 일본수산회사를 설립하였다. 후에 駒場農學校(現東京大學農學部)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23년	19,989	33년	93,673
24년	34,410	34년	101,142
25년	30,700	35년	95,475
26년	27,931	36년	104,637
27년	41,637	37년	157,541
28년	72,772	38년	334,494
29년	112,617	39년	402,131
30년	111,896	40년	547,339
31년	104,449		

2) 부산어시장

부산수산주식회사는 동업조합으로는 朝鮮海水産組合, 곡물상조합, 곡물수출상조합, 牛皮輸出商組合, 海産商組合, 活牛賣買同業組合, 기타 각종 영업조합 등[10]을 두고 있어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했고, 유통 단계에서의 편의 도모를 위해 어시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11] 그 영업의 상황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어시장소재지	어시장명칭	경영자명	자본금액(원)	불입금액	설립년월일
경상남도 울산	울기어시장	울기수산주식회사	10,000		설립중
동 부산	**부산어시장**	**부산수산주식회사**	**600,000**		**명치36년 1월1일**
〃 마산	마산수산주식회사어시장	마산수산주식회사	20,000	5,000	동39년 4월8일
〃 장승포	장승포어시장	장승포어시장	10,000		동40년 2월20일
〃 통영	통영어시장	통영어시장조합	5,000		동40년 4월1일

어시장은 회사의 전면 해안을 따라서 건설되어 어선이 바로 접안하여 하역이 가능하다. 특히 이 지방은 조석간만의 차가 적으므로 어선이 폭주하는 경우가 늘 끊이지 않는다. 집산의 대부분이 조선 각 어시장 중 첫째를 차지하는 것은 단지 부산이 일한(日韓) 교통의 관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선박이 끊이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① 영업의 개황

업무의 범위는 정관(제2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물 매매, 포어(捕魚) 수송, 제조, 위탁판매, 어업자금 융자 등이지만, 주된 사업은 어시장에서의 위탁판매이다.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 및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위탁판매

회사의 주된 업무로서 부속 어시장에서 영업하는 어시장은 매일 오전 8시에 개시해서 오후 5시에 종료한다(단 5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1회, 오후 2시부터 1회로

10)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65쪽.
11) 한국수산지』2, 경상남도, 東萊府, 砂中面, 釜山港, 567쪽.

한다). 판매는 조매(糶賣)[12], 산당매(算當賣), 입찰매(入札賣) 3가지 방식이 있으며, 회사가 승인한 중매인을 통해서 매수된다. 단 어류가 대단히 많이 쌓였거나 부적당한 염가 혹은 다른 곳에서 주문이 있을 때는 회사 스스로 조시(糶市)에 입회해서 매수한다. 판매 수수료는 선어(鮮魚), 염건어(鹽乾魚)를 가리지 않고 조매일 때는 1할, 산당매 또는 입찰매일 때는 5푼[步]으로 한다. 청어와 정어리 2종류는 통과수수료로 매취주(買取主)로부터 매취 가격의 5/100를 수수한다. 단 이들 어류는 시장에서 조매를 위한 별도의 전문 중매인이 있고, 하주(荷主)와 직접 거래를 위해 오직 시장 구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회사 수입의 조매 수수료는 26,041여원이고, 통과수수료는 2,580여원이다. 위탁자 즉 하주에 대한 위탁판매[仕切] 정산은 바로 위탁판매 전표(切符)를 교부하고, 위탁판매금을 청구할 때는 위탁판매전표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정산서를 첨부하여 지불한다. 회사는 본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포어 수송, 하주인 어업자 장려, 어업대금 융자, 어업자의 이재(罹災) 구조, 중매인 장려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시행하는데, 다음과 같이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포어 수송

이 사업은 작년(명치 40년) 현 회사를 조직한 이래 개시한 것으로, 아직 성적 보고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사는 어업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 시장에 생선어(生鮮魚)[13]를 수집하기 위해 소유선을 부근 어장에 파견해서 수송에 종사한다. 수송료는 어장의 원근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회사 시장 매상가액의 1할 내지 1할 5푼으로 한다. 즉 거제도 부근부터는 1할, 남해도 부근부터는 1할 5푼으로 하고, 기타 어장도 또한 이것에 준한다. 회사는 포어 수송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각 어장 부근에 활주(活洲)를 설비해서 어선 또는 그 모선의 의뢰에 따라서 사용토록 한다. 활주 설비는 작년 9월부터 개시하였다. 금년 봄에는 나로도(羅老島, 召山島 혹은 國島라고 말한다), 삼천포, 여수항구, 남해도, 욕지도, 사량도, 구성라(九城羅), 장승도(長承島), 부근 기타 지역 9개소에 설비하고, 가을 이후에는 장승포, 순천만구 부근, 울산 등대 부근, 영일만 내 기타 지역에 6개소를 설비하였다. 어류는 주로 봄, 가을 모두 도미(鯛), 갯장어(鱧), 삼치(鰆), 광어, 가자미(鰈) 등으로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어선 혹은 모선의 의뢰에 응해 고기를 저장(貯魚)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종별	수량	가격/원	목적지[仕向地]
도미	-	4,000	일본 5할 내국 5할
갯장어	6,400	22,330	동 10할 동 -
삼치	-	7,000	동 5할 동 5할

-시장에서 어류 집산 상황

1년 중 시장의 가장 한산한 때는 여름이며, 늦가을부터 점차 바빠져 겨울부터 늦봄까지 가장 분망하다. 이에 따라 양륙금액[水揚價額][14]도 7~9월 3개월은 적고, 10월부터 점차 많아져 12월에 가장 많다. 1~3월 3개월은 아직은 많고, 4월에 들어서서 조금 감소하고 이후 점

12) 조매는 현재의 경매를 뜻한다.
13) 生魚와 鮮魚라는 뜻이다.
14) 水揚은 현재 揚陸이라는 말로 쓰이며, 배에서 물고기를 육지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륙금액의 다과(多寡)는 어가(魚價)의 고저와 관계되어 그 다과에 따라 시장의 번한(繁閑)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두드러지게 과소한 것은 분명히 한산함을 나타내는데, 그 요인이 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가가 저렴하고 근해에서 나는 어류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여름에 어가가 저렴한 것은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건염(乾鹽) 저장을 해도 여전히 곤란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15]. 근해에서의 어류 감소는 조석간만의 차가 이 계절(여름)에 특히 심하고 바닷물이 차고 깨끗하지 않아 어류의 대부분이 앞바다[沖合]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반해 겨울 양륙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남해 연안 특유의 현상이다. 대개 겨울에는 남해 연안만이 각종 어류의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시장은 내국 일원에 대한 선어의 공급뿐만 아니라 일본 및 기타 원로 수송에 있어서도 이 기간이 유리하다. 게다가 어가는 1년 중 최고를 나타낸다. 시장에 나오는 어류 중 주요한 것을 열기하면 도미, 삼치, 전복, 방어, 숭어, 광어, 상어, 농어, 바다장어, 갯장어, 청어로서 이것들은 대개 4계절을 통해서 어획된다. 그러나 도미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많고, 특히 많이 집산되는 것은 12월이고, 삼치는 봄·가을 2계절에 많고, 방어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는 기간에 많다. 숭어는 겨울, 전복은 봄, 가자미는 가을부터 겨울에 많다. 상어는 4계절 내내 많지만 취급가액이 큰 시기는 삼복[暑中] 때이다. 농어, 바다장어, 갯장어는 초가을에 많고, 청어는 삼복 때 많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일본 어부들의 어획물이다. 어장은 계절에 따라 광협(廣狹)이 있으나, 대체로 동북쪽으로는 영일만 근해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 서쪽은 해남(海南)[16]에 이르는 일대의 해면이다. 선어의 판로는 경부, 경의철도 선로에 연하는 각 역에서부터 청나라 안동현에 이른다. 또 일본에는 모지(門司), 시모노세키(馬關),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고베(神戶),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등으로 때로는 도쿄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각지로의 수송과 판매는 중매인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수송은 부속 운송부에서 취급한다. 이 운송부는 지난 명치 40년 12월 창업과 관련하여, 어시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부는 명목은 회사 부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운영을 달리한다. 그런데 영업형태는 어하(魚荷) 운송 도매상으로서 내국은 철도편으로, 일본으로는 연락 기선에 위탁하여 수송하고 있다. 내국 중 선어가 가장 많은 수송되는 곳은 경성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 용산이다. 단 염건어(鹽乾魚)는 대구 부근의 각 역이 많고, 그 중 가장 많은 곳은 대구이다. 일본으로 수송하는 것은 모두 선어와 활어(鮮生, 운송부의 손을 경유한 것에 한함)로, 수량은 정확한 통계를 보면 1개월에 1,000개(箇) 내지 3,000개로 보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 내역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만 오사카가 가장 많고, 다음은 교토,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이다. 선어수송에 사용되는 빙괴(氷塊)는 회사가 공급하는데 회사는 그것을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각지에서 구입한다.

그리고 이들 저장된 고기 중 삼치는 활주에서 꺼내어 전부를 선송(鮮送)하고 도미도 대부분 선송하고 활어[生魚]로 수송하는 것은 적은 것에 반해, 붕장어는 전부를 활어 상태 그대로 수송된다.

3) 한국대염판매주식회사

한국대염판매주식회사는 1904년 절영도에 설립되어 소금 판매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

15) 어류의 선도가 떨어져서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6) 본문에는 海南島로 되어 있으나 이는 海南의 잘못으로 보인다.

다. 일본은 수산 사업 중에서 어업 외에 염업에도 관심을 가져, 부산 용호동 일대에 염업시험장을 설치하여 소금 생산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는 1907년 경 일본에서 조사한 유망 상품(한국으로 수출) 목록에 "제염, 간장제조"[17]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회사의 필요성은 절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 아래에는 부산수산주식회사와 부산어시장의 관계와 일맥상통하게 소속 "식염제조장"도 갖추고 있었다. 즉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행아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대염판매주식회사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며 연구 성과도 극히 미약하다. 수산지내에서도 회사 창립일 및 회사의 위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수산지를 기본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보충하여 일본인 소금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3. 일본인의 해양사업

1) 부산기선주식회사

일본은 조선 내에 철도 등의 도로 시설이 미비한 곳에는 다른 교통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불편에서 설립한 것이 기선회사이다. 특히 부산은 일본인 거류의 시작점이므로 이 곳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기선회사는 처음에 "한남기선회사"라는 명칭을 일본의 허가와 보조를 받고 출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융희 2년부터 3년간 매년 3만원씩 합계 9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령서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기한 기선회사는 뒤이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운항의 편의와 이익을 영위하였다.

부산기선회사처럼 국가의 공식적인 보조를 받는 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운ㅇㅇ하는 회사들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부산 재주 나카가미요사쿠(中上與作)가 경영하는 것으로 부산을 기점으로 마산·통영을 경유해 삼천포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본 항로는 근래 여수까지 연장하였는데,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한 달에 대략 3회 각 항에 기항한다."고 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남기선회사가 발기하고 난 후 "또 그밖에도 일본인으로서 남서연안 항로를 개시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여 회사 설립의 여부도 집작할 수 있다.

2) 부산잔교주식회사

일본선박의 정박 중심지는 왜관선창이었던 지금의 중앙동의 부산데파트 동쪽 중앙로에서 얼마간 바다쪽으로 내려간 자리가 바다였던 당시의 그 위치였다. 그러나 중앙동의 1기매축인 북빈매축(北濱埋築)으로 바다가 매축되자 종전의 잔교(棧橋)를 허물고 새로운 잔교를 놓아야 했다. 잔교란 부두에서 바다로 쑥 내밀려 배가 닿을 수 있게 구름다리 같은 장치의 선창으로 짐을 배에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거나 사람이 배로 오르내리기 편하게 부설한 바다위의 구조물이었다.

---

17) 木村健二, 「在日本人ジヤーナリズムの活動-『朝鮮(滿漢)之實業』を中心に-」, 『在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181쪽.

이 북빈잔교(부산잔교라고도 했음)는 1기북빈매축이 끝난 1906년 부산잔교회사가 설립되어 북빈매축지 남단에서 돌출하도록 폭 5.5간(間), 길이 100간의 철도잔교를 가설하였다. 이 잔교는 그 당시는 부산항에 있어서는 해륙(海陸)을 연계하는 설비로서 세관잔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잔교로 초기 관부연락선과 외항선이 정박했다. 수산지에서는 잔교회사의 설립 사항도 기재하고 있어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잔교회사가 구축한 잔교는 지금의 연안부두쯤의 자리였는데 잔교가 구축된 뒤 2기 북빈매축공사와 영선산착평공사로 메워진 바다의 호안(護岸)을 위한 안벽(岸壁)이 형성되고 그 안벽이 선착장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안벽이 선착장 노릇을 하자 잔교의 이용도가 낮아지다가 오늘날의 국제부두 자리에 규모가 큰 제2잔교가 1912년에 구축됨으로써 1918년 제1잔교는 철거되었다.

3) 기타

일본인의 회사 외에도 각종 공장이 많이 설립·운영되었는데, 공장은 특히 절영도(絶影島)에 많이 설립되었다. 즉 영선동(瀛仙洞)의 해안에는 일본 해군의 시탄저장장이 있다. 대풍포(待風浦) 해안에는 일본인이 잡거하는 곳이 많다. 또 부산거류민이 경영하는 각종공장이 있다. 그 주요한 것은 大池第二精米所, **臺鹽合資會社 소속 식염제조장**, 桐岡煉瓦工場, **中村造船所** 등이 있다.

4. 결론

근대 조선의 수산조직 정비와 어업제도에 대한 고찰

-1908년『한국수산지』의 편찬과 어업법의 반포를 중심으로-

한임선(부경대 사학과)

Ⅰ. 머리말
Ⅱ. 근대 수산조직의 정비
1. 1905-1908년 수산조직의 정비과정
2. 수산국의 조직과 체계
Ⅲ.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한국어업법의 제정
1.『韓國水産誌』의 편찬
2. 한국어업법의 제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 수산업사에서 1876년 개항부터 1908년까지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강화도조약의 체결에서 러일전쟁까지(1876-1904) 한반도 바다를 둘러싼 청·일 양국의 각축전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 이후(1905)부터 1908년까지 일본이 한국의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수산업을 법제적으로 정비해 가던 시기이다.

통어시기로 통칭되는 첫 번째 시기에는 동해·남해에서 일본어민과, 황해에서 청어민과 끊임없는 어업분쟁이 발생했다. 통어초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일·한청 사이의 어업분쟁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본어민이 전라·충청·경기 등 황해의 바다로 진출하면서 청일 양국 어민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두 번째는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부터 1908년까지 어업이권을 둘러싼 쟁탈전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일본에 의해 조선의 수산업이 제도적·법제적으로 정비되어간 시기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가 가능해지자 어업문제 역시 일본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고, 1907년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 관료가 직접 한국정부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의 수산제도는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본고는 이 두 시기 중에서 두 번째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항이후 통어시기에 대해서는 한일간의 어업분쟁[1]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어업분쟁[2]까지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있다.

---

1) 개항이후 통어시기 한일간의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구병,「한일근대어업관계연구」,『부산수대연보』7, 1967 ; 한우근,「개항후 일본어민의 침투」,『동양학』1,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71 ; 이현희,「일제침략하 한국어민의 어권수호운동」,『성신여자대사범대학 연구논문집』38집, 1975 ; 구양근,「근대일본의 대한통어정책과 조선어촌과의 관계」,『인문과학연구』2집, 조선대, 1980 ; 김옥경,「개항후 어업에 관한 일연구」,『대한제국연구』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1986. ; 이영학,「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침투와 조선어민의 대응」,『역사와 현실』18, 한국역사연구회, 2001 ; 이영학,「개항이후 조선의 어업근대화 시도와 그 좌절」,『성곡논총』34, 2003. ; 박찬식,「개항이후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역사와경계』68. 2008.등이 있다.

2) 근대 한중간의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 -1882년『朝淸貿易章程』체결 이전까지-」,『19세기 동북아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

그러나 한국의 수산업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1905년 이후에 대한 연구는 1908년 시행된 어업법에 대한 연구 몇몇 연구만이 있을 뿐[3], 이 시기 수산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1905-1908년은 한국수산업의 근대체계가 형성된 매우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 한국의 수산업사에 있어서 1908년이라는 시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국의 전 바다와 연안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물인『한국수산지』가 간행된 것도 1908년이며, 최초의 근대어업제도인 한국어업법이 제정, 시행된 해도 1908년이었다.

『한국수산지』의 편찬은 조선의 수산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각 도의 수산상황을 조사한 결과보고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산업 정비의 기초자료라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 11월 11일 반포된 한국어업법은 근대법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어업법이자, 현대문장으로 체결된 한일간의 최초의 어업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한국 수산사에서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모두 1908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야 할까?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한국수산지』의 편찬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수산조사와 어업법의 시행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수산업사에서 1908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수산조사와 한국어업법은 한국수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법제적 정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1908년의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근대 한국의 수산업정비에 대한 과정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근대수산조직의 정비

1. 1905-1908년 수산조직의 정비과정

1) 을사조약의 체결과 통감부 설치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일본은 한국의 대외관계와 대내 모든 분야에 그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26일 칙령 제267호로 반포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에 의거하여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 영사에게 속했던 업무는 이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4] 이듬해 2월 1일자로 통감부와 이사청은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개청 당시 통감부는 본청에 총무・농상공무・경무의 3부와 부속시설인 통신관리국・철도관리국・법무원・권업모범장・이사청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조선의 수산업 및 염업에 관한 사항과 수산조합에 관한 업무는 농상공무부 수산과에서 담당했다.[5]

1906년 통감부 농상공무부는 수산과 외에도 상공과・농무과・광무과・산림과를 포함하는 5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일본 문관보통시험위원인 木內重四郎이 農商工務總長으로 임명되어

문기, 「기후, 바다, 어업분쟁-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중국사연구』제63집, 중국사학회, 2009.

3)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08년 어업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구병, 「19세기 한일간의 어업에 적용된 영해 3해리 원칙에 관하여」,『한일연구』제1집, 1972 ; 박구병, 「어업권제도와 연안어장소유이용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부산수대논문집』30, 1983.) 그러나 조선의 수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법제화되어간 시기가 바로 1905-1908년이므로, 이 때 이루어진 수산업 정비의 과정들을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韓國事情要覽』1책, 統監府 總務部 편, 1906년, 4-8쪽.

5)『統監府公報』上卷, 「공보」7책(1907.05.21), 아세아문화사, 1964, 55-56쪽. 통감부사무분장규정(1907.05.21)

農・商・工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하부의 각 과는 課長들에 의해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6] 산업분야의 성격상 과장들은 技師들로 충용되었다. 명치『職員錄』에 의하면 1906년 당시 통감부의 기사로는 中原貞三郎, 黑岩休太郎, 中村彦, 小山善 등 4명이 있었다.[7] 이들은 토목・농업・광업 분야의 기사로 임명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산 분야만은 1906년 단계에 담당기사가 임명되지 않고 서기관인 俵孫一에 의해 관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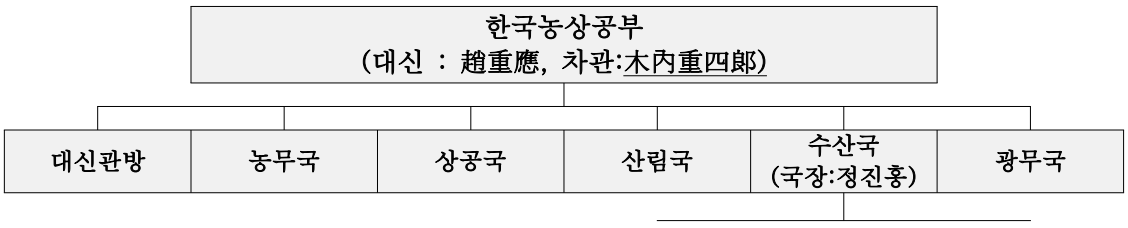
이후 통감부의 조직과 영향력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1907년 4월 1일자로 다시 관제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통감부의 기사도 그 수가 늘어났다. 庵原文一, 林駒生, 失田下次 등 3명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농상공부 기사의 수는 총 7명으로 증가했다.[8]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새롭게 임명된 자들이 모두 수산전문기사라는 점이다. 1906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산과는 俵孫一이 과장을 맡은 채 수산전문기사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바로 이듬해 무려 3명의 기사가 추가배치된 것이다. 이는 그 사이 통감부에서 조선의 수산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해당업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2) 한일신협약(1907)의 체결과 차관정치의 실시

헤이그 밀사파견을 계기로 일본인이 한국의 요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1907년 9월, 통감부관제는 또 다시 변화를 맞이했다.[9] 일본인이 한국정부에 차관으로 직접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통감부에 더 이상 동일부서를 중복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사라지자, 외무부・농상공무부・경무부 등의 본청을 다 폐관시키고 기사와 통역관도 한국정부로 이관시켰던 것이다.[10]

그 결과 개청 이후 농상공무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했던 中原貞三郎, 黑岩休太郎, 中村彦, 庵原文一 등의 과장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한국농상공부의 각 국으로 이동배치되었다. 마찬가지로 통감부 수산국에서 담당했던 사무 역시 1907년 8월 이후에는 한국농상공부 수산국으로 이관되었고, 동시에 통감부 기사로 재직하던 庵原文一 또한 한국농상공부 수산과장으로 재임용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실무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본은 보다 용이하게 對조선어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산국의 조직과 체계



6) 명치39년(甲),『職員錄』, 인쇄국, 1906, 687쪽.
7) 위의 책, 688쪽.
8) 명치40년(甲)『職員錄』, 736쪽.
9)『統監府公報』上卷,「공보」25책(1907.10.02), 140-141쪽.
10) 1908년 통감부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 소속의 기관은 모두 폐관되고, 이사청・법무원・영림창・임시간도파출소・통신관리국・철도관리국・임시건설부 등의 부속시설만 남아있다.(명치『직원록』,1908, 8-9쪽.)

수산과	염무과	조사과
庵原文一(기사)	**塚本道遠(기사)**	
*嚴台永(서기관)	*嚴台永(서기관)	邊永鎭(서기관)
米花芳太郎(주사)	山口德(주사)	高準植(주사)
高橋重見(주사)	秋尾淸見(주사)	*李濟鵬(주사)
*吉崎建太郎(技手)	*李濟鵬(주사)	*吉崎建太郎(技手)
沈寅燮(技手)	張聖和(技手)	
遠山龜三郎(技手)	內川辰雄(技手)	
池內猪三郎(技手)	多羅尾周助(技手)	
	村重竹次郎(技手)	
	山田直次郎(技手)	
	岸元納次郎(技手)	

<표 19> 1908년 한국농상공부 수산국 직원현황>

이 시기 일본의 농상무성, 조선통감부, 한국농상무성의 관료체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일본의 실무관료진이 일본정부에서 통감부를 거쳐 한국정부로 배치되는 연결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08년 한국의 수산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수산지』가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06년 통감부에 수산과가 설치되고, 바로 이듬해 한국농상공부 수산국이 일개의 독립 부서로 조직・정비되면서, 일본과 한국에서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여기에 충용되는 등의 사전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Ⅲ.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한국어업법의 제정

1. 한국수산지의 편찬

1907년 한국농상공부에 수산국이 정비된 이후 수산업을 개발하고 권장할 목적으로 통감부는 조선해수산조합과 더불어 수산조사법을 시행하고, 조사지를 만들고 인쇄하여 한국수산지를 편찬하였다. 즉, 『한국수산지』는 한국농상공부 수산국과 통감부, 조선해수산조합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한국 농상공부에 수산국이 신설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했던 작업은 바로 “수산조사”였다. 한국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국의 수산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상공부와 탁지부의 재정 뒷받침을 바탕으로 1908년 3월부터 조선해수산조합과 통감부 및 이사청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행해졌다. 1908년 3월 6일자로 조선해수산조합과 통감부 기수들에게 각 연해의 수산조사를 촉탁하였고,[11] 곧이어 4월에는 당시 수산국장인 정진홍과 수산과의 주사인 高橋重見이 어업과 수산물 판매기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군산・강경・법성포・삼천리・통영・마산・부산 등지를 출장하였다.[12] 구역별 실제적인 조사는 주로 통감부 기수와 조선해수산조합 기수가 담당했고, 편집 및 총괄업무는 한국농상공부 기수들이 담당했다.

조사지역은 각 도를 14구로 나누고, 지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별도로

11) 『統監府公報』上卷, 「공보」45호(1908.03.14), 259쪽.
12) 『大韓每日申報』, 1908.04.02, 수산조사.

포함시켰다. 조사지역의 편재는 어느 정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기수가 배치되어있는 통감부 이사청 지역에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으로 조선해수산조합 지부와 출장소의 기수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사청이나 수산조합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특정 지역에는 농상공부의 기수를 파견하였다.

당시 기수가 배치된 이사청은 인천・목포・마산・부산・원산이었는데, 『직원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 이사청의 소재지와 수산조사에 파견된 기수의 성명 및 조사지구는 정확하게 일치한다.[13] 조선해수산조합 역시 본부는 부산에 두고, 원산・마산・목포・인천에 지부를 두었으며 군산과 진남포에는 출장소가 있었다.[14] 때문에 이사청 기수에게 배정된 지구를 제외하고, 각 지부나 출장소 소재지 근처의 조사는 해당수산조합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농상공부-통감부-이사청-조선해수산조합으로 연결되는 조직체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조사지역의 배치는 어쩌면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수산조사는 이렇듯 긴밀한 체계 속에서 각 도별로 분담되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2. 한국어업법의 제정

한국어업법은 1908년 11월 7일 순종의 재가를 얻어 동월 11일 관포를 통해 공포되었다. 전문 14조의 한국어업법은 한국에서 근대법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어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법의 제정에 앞서 수산세규칙과 포경어업관리법이 제정된 바 있다. 수산세규칙은 1906년 12월에 칙령 제83호로 제정・시행되었는데 어업자체의 규율보다는 어업을 통한 재정확보에만 그 초점이 있었다.[15] 이듬해인 1907년 9월 30일 법률 제7호로 포경어업관리법도 시행되었다. 이 또한 일본의 무질서한 포경어업의 조절을 목적으로 포경어업의 질서와 자원의 보호에 초점에 맞춘 것이었으며 어업전반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 어업을 관리・규정한 것은 바로 한국어업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업법의 제정은 구한국정부의 자율적 의지에 단행된 것이 아닌, 당시 농상공부 수산국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 수산행정의 담당기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상공부 수산국이었다. 한국농상공부 수산국에는 정진홍이 국장으로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각 과를 맡은 과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수산업과 어업에 관한 업무는 수산과장인 암원문일(庵原文一)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한국어업법은 당시 수산과의 주사였던 미화방태랑(米花芳太郎)이 법안의 기초를 담당하였다. 그는 1904년 일본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고등시험에 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구두시험에 낙방하게 된다. 결국 문과시험을 포기하고, 1906년에 1월 통감부속에 임명되어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근무하다가, 1907년 9월에는 구한국정부에 고빙되어 당시 과장인 암원문일 밑에서 주임으로 재직했다. 재직 중 한국에서 어업법을 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대자, 1901년 일본에서 제정된 구어업법을 모체로 한국어업법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Ⅳ. 맺음말

13) 명치『職員錄』,1908, 778쪽.
14)『韓國事情要覽』2권, 38쪽.
15) 한규설,『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2001. 87쪽.

『한국수산지』를 통해서 본 조선의 근대적 수산물

전지혜(부경대 사학과)

Ⅰ.『한국수산지』에 나오는 물고기

『한국수산지』 제1권「제2편 수산일반」에 따르면 조선에서 생산되는 유용수산물은 해수류 6종류, 어류 60종류, 패류 19종류, 藻類 9종류, 기타 10종으로 모두 104종류이다. 그 중에서도 어류는 명태어(明太魚), 대구[鱈], 조기[石首魚], 멸치[鰯], 청어[鯖], 방어[鰤], 전갱이[鰺], 삼치[鰆], 고등어[鯖], 청새치[羽魚], 다랑어[鮪], 가다랑어[鰹], 상어[鱶], 가오리[鱝], 병어[鮊.マナカツオ], 도미[鯛], 농어[鱸], 민어[鮸], 성대[鮊鯡], 준치[鰣], 달강어[火魚], 붉바리[赤魚], 가자미[鰈], 넙치[鮃][1], 서대기[牛舌魚], 다금바리[鰗], 매퉁이[鰡], 꼬치고기[鮜], 갈치[大刀魚], 도로묵[鰰], 전어[鰶], 은어[鱚魚], 학꽁치[鱵], 복어[河豚], 놀래기[ベラ], 쥐치[カワハギ][2], 쑤기미[オコゼ], 아구[鮟鱇], 볼락[目張魚], 감성돔[黑鯛][3], 벤자리[黑魚], 빙어[公魚], 까나리[玉節魚], 뱅어[白魚], 바다뱀장어[海鰻], 붕장어[鱧], 칠성뱀장어[八ツ目鰻], 보리멸[鱚], 망둥이[鯊], 연어[鮭], 송어[鱒], 황어[イダ], 숭어[鯔], 은어[鮎], 곤들메기[鮭], 잉어[鯉], 붕어[鮒], 뱀장어[鰻], 피라미[鮠], 미꾸라지[鰌]가 나온다.

그밖에 패류(貝類)로는 전복, 참고동, 떡조개, 소라고동, 홍합, 가리비, 대합, 바지락, 물통조개, 모시조개, 안라미조개, 키조개, 왕우럭조개, 굴, 긴맛과 구신만, 새조개, 말조개가 있고, 조류(藻類)는 다시마, 감태, 대황, 미역, 톳, 가사리, 김, 우뭇가사리, 파래를 들고 있다. 끝으로 기타에는 해삼, 멍게, 성게, 새우, 가시왕게, 장다리게, 꽃게, 낙지, 오징어, 해파리가 있다.

이 중 물고기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두드러진 것을 들면, 동북해 연해에는 명태[明太魚], 청어[鯖], 대구[鱈], 도로묵[鰰], 방어[鰤], 삼치[鰆], 연어[鮭], 송어[鱒], 빙어[公魚] 등이 있고, 서남부 연해에서는 주로 조기[石首魚], 민어[鮸], 준치[鰣], 농어[鱸], 바다뱀장어[海鰻], 갈치[大刀魚], 병어[鮊], 붉바리[赤魚], 달강어[火魚], 전어[鰶], 뱅어[白魚] 등이 많이 잡힌다. 특히 명태[明太魚], 조기[石首魚], 멸치[鰯], 청어[鯖], 대구[鱈]를 조선 사람의 포획물 중 주요한 물고기로 언급하고 있다.[4] 아래 <표1>은『한국수산지』에 나오는 물고기 중 기호도의 차이가 확연한 것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명칭을 비교한 표이다.

<표1> 기호도에 따른 물고기 명칭표

---

1)「수산물일한명칭대조표」에서는 넙치[鰈], 가자미[鮃]로 반대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곳의 구분이 옳다.
2)「수산물일한명칭대조표」에서는 한자로 鮸魚라고 표기하였다.
3)「수산물일한명칭대조표」에서는 黑鯛를 먹도미라고 하였다. 먹도미는 감성돔과 같은 말로도 쓰이고 비슷한 물고기를 지칭한다고도 한다.
4)『한국수산지』 제1권. pp.199-200.
5) 일본에서 '이와시(鰯)'는 정어리, 멸치 등을 총칭하는 용어인데, 이곳에서는 멸치라고 하였으므로 본문 번역에

기호도 높음			기호도 낮음		
현재	일본명칭	한국명칭	현재	일본명칭	한국명칭
명태	明太魚 / 北魚	明太魚 / 北魚	도미	鯛	道味 / 刀味
조기	石首魚	石魚	삼치 (망어)	鰆	亡魚 / 一名麻魚
가오리	鱚	鮉魚	멸치	鰯[5]	幾魚 / 鰯魚
갈치	大刀魚	刀魚 / 葛治魚	방어	鰤	
대구	鱈	大口魚	갯장어[6]	鱧	
청어	鰊	靑魚	붕장어[7]	海鰻	海長魚
민어	鮸	民魚	뱀장어	鰻	長魚
고등어	鯖	古道魚			
준치	鰣	俊魚			
숭어	鯔	崇魚 / 秀魚			
달강어	火魚	火魚			
학꽁치	鱵	工魚 / 公魚			

Ⅱ. 주요한 물고기

1994년 이후 환경의 변화, 어업협정 체결,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따른 결과로 수산물 생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양식어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 부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다획성 연안물고기로는 갈치, 고등어, 멸치, 원양어획물로는 황다랑어, 꽁치, 명태를 들 수 있다. 단 현재의 소비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멸치,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삼치, 다랑어, 광어, 아귀, 쥐치 등이 우위를 점한다.[8]

우선『한국수산지』에 언급되어 있는 주요한 물고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한국인에게 대표적인 물고기를 꼽으라면 동해의 명태, 서해의 조기, 남해의 대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한국수산지』에서도 이 삼대 어류에 대한 기호도는 상당히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는 이에 따랐다.

6) 원문에는 '붕장어'로 되어 있으나, '하모'를 붕장어로 번역한 것을 잘못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하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갯장어를 말한다.

7) 실제로는 바다뱀장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이 붕장어를 나타내고 있어, 갯장어로 표기하였음.

8)「수산물의 표준 규격화를 위한 기호도 조사 및 기술개발 연구」, 해양수산부, 2004, pp.27-28.

제일 첫 번째로 조선의 중요어업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함경도의 토산물인 명태 어업을 들고 있다. 그 판로 역시 광대함이 조선의 수산물 중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거래가 매우 번성했다고 한다.[9)]

명태 다음가는 어업으로는 조선인이 가장 즐기고 좋아하는 물고기로 조기가 나온다. 조기는 일찍부터『貢膳定例』,『萬機要覽』등에 나오는 진상품으로서 명태가 서민적 물고기라면 조기는 귀족적인 물고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전라도의 명태라고 칭해질 만큼 전라도 일대에 그 생산량이 가장 많다.『한국수산지』에서는 어업의 왕성함이 명태 다음가는 물고기이며, 몇 해를 지나면 명태 어업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 역시 상당하여 풍어일 때는 한 그물에 4~5만 마리, 흉어일 때라고 하더라도 5~6천 마리를 어획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제수용품에 빠지지 않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날생선 보다는 염장품이 더 가격이 높아서, 어기 이외에는 가끔 그 가격이 10배 이상을 넘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10)]

명태와 조기 다음가는 조선인의 기호품으로는 가오리를 들고 있는데, 조선에서 널리 생산되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인이 항시 먹는 물고기로 장래에 유망이 어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11)] 갈치 역시 조선에서 널리 생산되는 것으로 조기와 함께 수요가 많아서 아무리 많이 잡히더라도 판매에 곤란함이 없다고 한다.[12)]

대구와 청어는 조선시대 진상품 중의 하나로 당시도 중요한 어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장은 경상도가 중심인데, 당시에 이르러 그 어획량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어업의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었다.[13)] 경사스러운 의식 특히 정월의 신찬(神饌) 제수용으로 빠지지 않는 청어는 날생선 중에서도 조선인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물고기였다. 그래서 주로 조선인의 식용으로 공급되지만, 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단, 청어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는 2월부터 4월사이 이고, 4월이 지나면 조기 등의 어류가 풍부해 지기 때문에 거의 청어를 소비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한다.[14)]

민어는 조선인이 조기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물고기로, 음력 7월 관월제(觀月祭) 및 8월 우란분절[盂蘭盆] 때에 조기와 함께 민어를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며, 판로도 넓고 가격 역시 싸지 않다고 한다.[15)] 고등어 역시 조선인이 좋아하는 물고기로 예부터 어획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명치 33,34년 무렵 점차 왕성한 단계에 이르렀고, 한 두해 흉어가 이어져서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근년에 다시 그 위세가 확장될 기세에 있다고 한다.[16)] 또한 준치[17)]와 달강어는 어획량도 많고 기호도도 높으며, 숭어[18)]와 학꽁치는 어기가 주로 한겨울로 다른 물고기가 부족한 계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가 많다고 한다. 특히 학꽁치는 조선이이 좋아하지만 본래부터 산액이 적어서 도시 이외의 지방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19)]

앞서 나온 물고기에 비하여 기호도가 높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요한 물고기로는 멸치

9)『한국수산지』제1권. pp.217-225.
10)『한국수산지』제1권. pp.225-230.
11)『한국수산지』제1권. pp.272-274.
12)『한국수산지』제1권. pp.266-269.
13)『한국수산지』제1권. pp.252-256.
14)『한국수산지』제1권. pp.256-259
15)『한국수산지』제1권. pp.259-261.
16)『한국수산지』제1권. pp.263-266.
17)『한국수산지』제1권. pp.285-286.
18)『한국수산지』제1권. pp.279-280.
19)『한국수산지』제1권. pp.286-287.

가 있다. 멸치어업은 예부터 행해졌지만 그 방법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서 연안에 군래하는 물고기 중 소량을 어획하는데 불과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대개 날생선인 채로 혹은 햇볕에 말려 오로지 알상요리의 용도로만 사용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인이 비료용 건멸치로 가공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매입하는 일이 속출하자 조선인 또한 이익에 착안에서 멸치 어업에 크게 힘을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일본인의 어법을 전승받아서 현재와 같이 조선의 중요한 어업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판로는 상당히 넓어서 한촌벽지에 이르서도 멸치를 볼 수 없는 곳이 없으며, 가격은 날것 보다 말린 멸치가 훨씬 높았다.[20] 즉, 당시 일본인에게 비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에 따라 중요어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기호도가 높았던 물고기는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소개한 것은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조선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고기로 기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생산량과 비교를 통한 작업이 병행되었다면 더 좋은 분석이 가능할 할 것이지만, 생산량과 기호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이『한국수산지』내에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호도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된다.

Ⅲ. 명칭과 유래

『한국수산지』에서 언급된 물고기 중, 앞서 나온 <표1>의 기호도에 따라 당시 명칭을 살펴보겠다. 우선 기호도가 높은 물고기를 들자면, 명태가 당연 으뜸이다. 명태는『한국수산지』에 한일 명칭이 동일하게 明太魚, 北魚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기원 및 연혁에 관해서는 일설로 '황조(皇祖) 이성계 시대에 함경도(咸鏡道) 명천군(明川君)의 한 어부인 태(太) 아무개라는 자가 있어 하루는 연승(延繩)으로 진귀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군수에게 바치고 그 명칭을 물었더니 군수는 즉시 지명과 어부의 성의 각 1자를 취하여 이렇게 명명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 설은『林下筆記』[21]에 나오는 내용을 다소 윤색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어업의 기원을 약 500년 전으로 추정하였다.[22] 하지만 문헌상으로 명태를 즐겨먹게 된 시기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승정원일기』효종3년 기사에 처음으로 명태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조선 중기 무렵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서민적인 명태에 비해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이었던 조기, 대구, 청어는 비교적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조기는 명태와 함께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가장 비싼 물고기 중 하나이다. 사람의 氣를 돕는다는 뜻에서 助氣,『동의보감』에 따르면 대가리에 바둑돌 같은 작은 돌이 있어서 '石首魚'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개의 기록에 '石首魚' 혹은 '石魚'로 되어 있다. 영광굴비로 더 잘 알려진 굴비(屈非)는『만기요람』에서 '유생들에게 대접하는 鹽石漁의 값'이라고 되어 있다.[23] 굴비로 유명한 영광군과 관련된『세종실록지리지』영광군 기사에는 '석수어는 군 서쪽의 파시평(波市坪, 지금의 법성포 일대)에서 난다.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때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두 모여 그물로 잡는다. 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국용으로 쓴다.'라고 쓰여 있다.[24]

---

20)『한국수산지』제1권. pp.240-247.
21)『林下筆記』권27「春明逸史」明太.
22)『한국수산지』제1권. pp.217-225.
23)『萬機要覽』財用編三, 給代. '館學。儒生役只鹽石魚價錢一千二百六十八兩五錢六分。成均館九百七十一兩八錢八分。四學二百九十六兩六錢八分'

출처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정주(지금의 영광)에 유배를 당한 이자겸이 사위인 인종에게 굴비를 선물하면서 '靜州屈非'라고 써 올렸다는 것에서 굴비라는 것이 유래되었는 설이 있다.[25] 반면 정문기는 '仇非'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조기를 짚으로 엮어 매달면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 모양새를 따서 구비(仇非)조기라고 하던 것이 굴비로 변한 것이다. '구비(仇非)'는 우리말의 산굽이, 강굽이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양새를 일컫는 '굽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26] 대구는 남해를 대표하는 물고기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다. 흔히 입과 머리가 크다고 해서 大口 혹은 大豆魚라고 불린다. 대구를 나타내는 한자어 '鱈'자는 겨울철이 대구의 성어기이고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雪자를 붙인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27]

청어는『牛海異魚譜』에 '眞鯖', '炙魚'라고 하며, 한나라 때 5명의 제후들이 매우 사치스러워 청어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귀한 물건을 '五侯鯖'이라고 했다고 한다.『玆山魚譜』에는 '靑魚', '鯖魚', 『佃漁志』에는 '비웃', 몸이 푸른색이라서 '靑魚', 그리고 두 눈이 투명해서 노끈을 낄 수 있기 때문에 '貫目'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名物紀略』에는 값이 싸고 맛이 좋아서 서울에 가난한 선비들이 잘 사먹는 물고기라고 해서 한자어로 '肥儒魚'라고 기록되어있다.[28] 또한 정월 제수용으로 올렸기 때문인지『星湖僿說』에는『징비록』의 내용을 인용하여 요동사람들이 청어를 신어(新魚)로 부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29] 현재 포항의 특산물로 유명한 과메기는『五洲衍文長箋散稿』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연기에 그을린 청어를 '煙貫目'이라고 하는데,[30] 과메기는 여기에 어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물고기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물고기이다. 다음으로는 조선인들에게 있어 기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고기에 대한 명칭과 그 유래를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멸치, 망어, 도미,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인에게 비료로 판매하기 위해 중요한 어업이 된 멸치는『한국수산지』에'幾魚', '鰯魚'라고 되어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제주도 토산 물 중 '行魚'[31]를 정문기는 멸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멸치를 부르던 명칭이라고 하였는데,『세종실록지리지』함길도 영흥대호부 예원군 토산에도 '行魚'가 나온다. 멸치는 蔑魚, 멸치어라고도 기록한다. 또한 멸치라는 명칭은 주산지인 경남, 전남북 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멸치가 물 밖으로 나오면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서울 경기도 여주 및 함경도 일부 지방에서는 메르치, 혹은 메레치라고도 부르고 황해도 몽금포 지방에서는 돗자래기라고 부른다. 전남과 제주도에서는 멸, 또는 행어라고 부르며, 거문도에서는 멋이라고 부른다.[32]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외양 때문인지 업신여긴다는 '蔑'자와『玆山魚譜』에 나오는 '鰯魚'에도 보잘 것 없다는 '鰯'자가 붙여져 있다.

도미는 보통 단일 어종의 명칭이 되기도 하고 각종 도미를 합쳐 부르기도 하며, 종류에는 참돔, 먹돔, 붉돔, 흑돔, 자리돔 등이 있다.『한국수산지』에서 일본인 대부분이 조선에서 이

24)『세종실록지리지』全羅道 羅州牧 靈光郡. '土産, 篠簜、石首魚, 産郡西波市坪【春夏之交, 諸處漁船, 皆會于此, 網取之, 官收其稅, 以資國用】'
25) 국립수산과학원,『수변정담』,2006, p.106.
26) 정문기,『어류박물지』, 일지사, 1974, p,135.
27)『속담 속 바다 이야기』,국립수산과학원,2007, p.38.
28) 정문기, 앞의 글, p,126.
29)『星湖僿說』제6권 만물문.
30)『五洲衍文長箋散稿』'薰於煙窓以免餒。名以煙貫目.【貫目。卽乾靑魚之俗名也】'
31)『신증동국여지승람』제38권 전라도 제주목.
32) 정문기, 앞의 글, p.160.

어업에 종사할 만큼 실로 이 어업이 일본인 통어(通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33] 그래서 인지 도미는 현재도 일본인이 바닷물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여기는 물고기 중 하나이다.『日東記游』에도 일본인이 애용하였던 도미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도미어(道味魚)는 속칭(俗稱) 주(鯛)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없는 곳이 없으며, 또 없는 시기도 없었다.'라는 한다.[34] 그 명칭은『佃漁志』에서는 붉돔을 '赤豆道尾'라 하고 흑돔을 '墨道尾'로 기록하였고,『玆山魚譜』』에는 참돔을 '强項魚', 흑돔을 '甘相魚', 혹돔을 '瘤伊魚' 붉돔을 '剛性魚'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치(망어)는『세종실록지리지』에 '亡魚'로,『동국여지승람』에는 '痲魚'로 기록되어있고,『난호어목지』에는 '북인은 痲魚라 하고, 남인은 亡魚라 하는데, 어민은 이를 즐겨 먹으나 사대부는 그 이름을 싫어하여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玆山魚譜』'蟒魚',『佃漁志』에는'痲魚,', '魧魚',『牛海異魚譜』'參差'라고 되어있다. 멸치와 같이 '亡'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

방어는『佃漁志』에 동해에 길이가 1장이 넘는 큰 魴魚가 사는데 그것을 '無泰魴魚'라고 부른다고 하였다.『성소부부고』에는 '동해에서 많이 나지만 독이 있어 임금께는 올리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였다.[35] 방어라는 이름은 '살찐 물고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반면 일본에서 '鰤'라고 표기하는 것은 '물고기의 왕자'를 뜻한다. 또한 방어는 지방마다 많은 방언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어미가 될 때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이름이 다른 이른바 출세어이다. 경북 영덕에서는 10cm 내외를 떡메레미, 30cm내외를 메레미 혹은 피미, 60cm이상을 방어라고 부른다.[36]

마지막으로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는 고서에 그 모양이 뱀과 닮아서 인지 다른 물고기에 비해 많은 기록이 없다.『佃漁志』에 뱀장어를 '鰻', '鰻鱺魚',『玆山魚譜』붕장어를 '海大鱺', 갯장어를 '犬牙鱺'로 기록하였다.

33)『한국수산지』제1권. pp.230-235.
34)『日東記游』제3권 物産 26칙. '道味魚, 其俗所謂鯛者, 無處無之, 無時無之'
35)『성소부부고』 제26권 설부(說部) 5. 魴魚。東海多產。而以有醉毒。不供上
36) 유재명,『한국의 釣魚百科 1』, 월간낚시, 1988.5월 특별부록, pp.115-116.

한중일 의뢰행동의 발화패턴 분석

-인터뷰조사의 무브사용실태 분석를 중심으로-

김 종완(중앙대학교)

1.들어가며

한중일 3국의 모어상황에서의 의뢰행동의 설명부와 의뢰부의 무브 사용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의뢰행동의 발화패턴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앙케이트 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 상이점을 파악한다.

2.선행연구

한중일 의뢰행동을 일련적 기능적 발화단위들의 조합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담화구조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구마이 (熊井浩子, 1992), 엄정미(1999), 유혜정(2007), 샤인(謝恩, 2001), 서(徐孟鈴, 2007)의 연구 등이 있다. 김종완(2010)은 한중일 대학생의 의뢰행동의 발화패턴에 대해서 앙케이드 조사를 실시하여, 한중일 모국어 화자는 의뢰행동시에 서로 다른 발화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3.조사개요

본고에서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의뢰행동에서의 발화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의서와 추천서를 지도교수에게 의뢰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시기와 장소는 <표1>과 같다.

<표1> 인터뷰조사 시기와 대상자

	조사시기	조사지역 및 조사대학	조사대상자
한국	2009년 5월	서울/중앙대학교	31명
중국	2009년 4월	베이징/북경외국어대학	31명
일본	2009년 10월	도쿄/도쿄대학	31명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 모어화자(KK, 10명), 한국의 중국유학생(KC, 11명), 한국의 일본유학생(KJ, 10명), 중국 모어화자(CC, 11명), 중국의 한국유학생(CK, 10명), 중국의 일본유학생(CJ, 10명), 일본 모어화자(JJ, 10명), 일본의 한국유학생(JK, 10명), 일본의 중국유학생(JC, 11명)으로 총 93명이다. 인터뷰 조사는 언어행동의 구체적인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련의 언어행동상황을 설정하였다. 자세한 상황설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조사상황설정

(1)학생의 상황 어느 대학생이 A항공사가 실시하는 미국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제출할 서류 제출할 서류에는 지원서(학생이 작성), 신원보증을 위한 학과장 **교수님의동의서**가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와는 별도로 학과장님의 **추천서**가있으면심사에반영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
(3)학생과의 관계 학과장님은 30~40대 교수님으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4)연구실 방문 동의서 기입과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학과장님을 찾아 뵙기로 며칠 전에 약속을 해 둔 상태이나, 구체적인 용건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5)학생의 부탁 학생은 노크를 하고 학과장님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인사 및 자기소개를 드리고 찾아온 용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동의서 작성 및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의 동의서에는 학과장님의 개인정보(나이, 수입 등)를 기재해야 하고 신원 보증인을 수락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6)학생의 해명 교수님께서는 추천서 작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시간이 촉박하게 부탁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십니다. 학생은 이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7)학생의 거절 교수님께서 유학생환영회 행사에 안내를 좀 해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만, 학생은 이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거절합니다.

*중앙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4.조사결과 및 분석

4.1. 분석데이터

본 조사는 <표2>와 같이 설정된 상황 중에서 지도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서 추천서와 동의서를 부탁하는 의뢰행동을 비디오 녹화와 음성녹음을 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대상자에게 의뢰행동의 상황설명		15분간 인터뷰대상자가 인턉 상황을 시뮬레이션		인터뷰상황을 숙지하고 있는지 체크 리스트를 통해 확인		인터뷰실시

위와 같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얻어진 음성자료를 모국어화자에게 문자화를 의뢰하고. 중국어 데이터와 일본어 데이터는 한국어 번역도 의뢰하였다. 본고의 분석범위는 모어상황(KK, CC, JJ)과 접촉상황(KC, KJ, CK, CJ, JK, JC)으로 나눌 수 있는 때,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모어상황의 의뢰행동의 발화패턴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중국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번역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2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의뢰행동의 의뢰담화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어의 표현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발화의 구조 및 패턴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담화분석에서는 발화의 기능적 단위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무브(move)[2]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미공식, 무브, 화단(話段) 등 다양한 용어의 분석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상의 차이 및 화제의 구분을 제외하면 모두 발화기능에 초점을 맞춘 단위들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아래와 같은 무브단위를 설정하여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기소개],[화제예고], [상황설명], [동의서필요성], [추천서필요성], [프로그램내용설명], [동의서내용], [추천서내용], [지원동기], [기한임박], [피해행동삼가], [직접적인 의뢰표현]

<표3> 무브 단위와 발화예문

무브의 분류기준		발화예문
상황설명	항공사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미국 대학탐방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我参加了**活動 /今天来主要是想拜托您一件事 アメリカの大学を訪問する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いのですが
프로그램내용설명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학 어느 지역에나,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고, 방학 동안 10일 동안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20명을 뽑는다는 프로그램이에요. 選拔咱們中国的20个大学生或是研究生，去申…去探訪你所希望的美国的…大学。 その航空券と滞在費を、この会社が全て持ってくれるというプログラムで、
동의서필요성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지원서랑 그리고 이제 교수님 동의서가 필요하구요 一个是教授的同意書， あの、同意書などを提出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
동의서내용	동의서 내용에 보증인과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동의서는 교수님이 저를 보증 서 주는 比如説我在美国発生什么事，您就有一些就是担保責任，对 あの、保証人といいますか、まぁその主任教授に責任を負わせてしまうことになるんですよ。

2) 구마가이(熊谷智子,1997)에 따르면 무브(move)는 "「move」は相手に対するはたらきかけ、すなわち質問、依頼、断りなどの行為的機能を担う最小の単位"로 정의된다.

4.3 분석범위

본 조사에서 설정한 일련의 의뢰행동 상황의 인터뷰 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언어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입부]-[설명부]-[의뢰부]-[동의서작성부]-[해명부]-[재의뢰부]-[거절부]-[종결부]

위의 일련의 언어행동 중에서 의뢰행동과 관련된 것은 [도입부], [설명부], [의뢰부], [재의뢰부], [종결부]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언어행동 중에서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의 [설명부]와 [의뢰부]부분을 분석범위로 삼으며, 특히 동의서와 추천서를 의뢰하는 의뢰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트라테지로서 사용되는 [설명부]의 무브의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의뢰행동의 발화패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4.4 분석결과

4.4.1. 동의서 작성행동 전까지의 의뢰행동의 무브의 사용실태

본조사의 분석자료에 나타난 동의서 작성 전까지의 무브단위 사용실태를 인터뷰대상자의 속성별로 나타내면 <표4>와 같다.

<표4> 동의서 작성행동 전까지의 무브의 사용실태

	화제예고	상황설명	프로그램내용설명	동의서필요성	추천서필요성	동의서내용	추천서내용	지원동기	의지표명	피해행동	동의서의뢰	추천서의뢰	의뢰	합계	지/프로그램내용	지/동의서필요성	지/추천서필요성	지/동의서내용	지/추천서내용	지/지원동기	지/피해행동	합계
KK	7	9	6	9	5	5	4	5	6	1	4	3	4	68	3	0	1	0	0	6	2	12
CC	5	11	10	8	8	9	2	7	9	5	9	1	6	90	6	0	0	5	0	0	3	14
JJ	3	9	5	5	3	10	0	7	3	4	8	1	5	63	5	0	0	1	0	3	1	10
합계	15	29	21	22	16	24	6	19	18	10	21	5	15	221	14	0	1	6	0	9	6	36

<표4>에서 [지/지원동기], [지/피해행동], [지/프로그램내용설명], [지/동의서 필요성], [지/추천서 필요성], [지/추천서 내용]은 지도교수의 정보제공 요구에 인터뷰 대상자가 응답하여 사용한 무브단위를 나타낸다. 위의 무브단위들이 인터뷰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 지도교수가 질문을 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4>를 살펴보면 무브단위 중에서 상황설명(29)>동의서내용(24)>동의서필요성(22)>프로그램내용설명(21)>지원동기(19)>의지표명(18)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대상자 속성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인터뷰대상자(CC, 90)가 설명부 무브 단위를 한국인 인터뷰대상자(KK, 68)와 일본인 인터뷰대상자(JJ, 63)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부의 무브단위 사용실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화제예고], [상황설명],[동의서필요성]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프로그램내용설명], [추천서필요성], [동의서내용], [추천서내용], [지원동기]], [의지표명] 등은 큰 차이 없이 두 명중 한 명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전체적인 [설명부] 무브의 사용빈도가 높고, 특히 [상황설명], [프로그램내용설명], [동의서필요성], [추천서필요성], [동의서내용], [의지표명], [동의서의뢰]의 사용이 많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상황설명], [동의서내용], [지원동기], [동의서의뢰]의 사용빈도가 높고, [프로그램내용설명], [동의서 필요성]은 두 명중 한 명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도교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의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추천서 필요성]과 [추천서내용]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 분석자료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경우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브단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동의서 필요성]과 [추천서필요성]의 사용빈도가 적은 것과 한국의 [동의서내용]의 사용빈도가 적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브단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지도교수와의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설명을 하는 경향보다는 인터뷰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CC02)

학생07: 현재 몇 학년 학생이지?
학생08: 대학원 1학년입니다. 저는 사회경제학과의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네, 그러니까 어..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한 항공회사에서
대학생에게 왕복비행기표 그리고 탐방기간의 여러 활동의 비용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상황설명)**
여름방학때 최장 10일동안 미국에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거나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내용설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동의서를 한 부 써 주셨으면합니다. **(동의서의뢰)**
교수님의 동의서 그리고 추천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저는 사회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지원동기)**
경제방면에서 미국이 비교적 선진국이다보니 10일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거기서 그들의 경제나 사회에 관한 여러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요
동시에 영어실력도 실천해 볼 겸 그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싶어요.
(중략)
이 동의서는 제가 교수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만일 제가 미국에서 **(동의서내용)**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일정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법을 지킬 것이고 안전 또한 지킬 것입니다. **(피해행동삼가)**
절차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수님께서 보증서 한 장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서의뢰)**

일본의 [동의서 필요성]의 사용빈도가 적은 것은 [동의서필요성]을 사용하는 대신에 직접적으로 [동의서의뢰]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정보제공 없이 바로 의뢰행동을 하는 발화패턴이 보였다.

(JJ08)

교수12: すいません。お名前？
학생13 :あ、○○と申します。 **(자기소개)**
교수14: ごめん、何年生でしたっけ。
학생15: あ、4年、はい4年です。
교수16: あ、はい。えーと･･･
학생17: すいません。先生にこのプログラムに申請する時の保証人に、 **(동의서내용)**
となんだか教授の方になっていただかなくてはいけなくて、
先生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お願いにうかがったんですけど **(동의서의뢰)**
교수18: どんなプログラムなんですか。

또한, [추천서 필요성]과 [추천서 의뢰]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선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동의서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동의서를 부탁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추천서에 관한 필요성과 그 이유를 설명하여 추천서를 의뢰하는 발화패턴이 보였다.

(JJ06)

학생23: え、えっとーこれには條件として、ま、主任教授の同意書というのが必要とな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동의서필요성)**
そちらのほうお願いできますでしょうか。 **(동의서의뢰)**
교수24: うーん、ええと、そのプログラムって少ないわけ？それ。行ける人數が。
학생25: そうですね。結構限られているんですよ。20人でして、
しかもこれ大學生と大學院生まで合わしてなので、 **(프로그램내용설명)**
학생55: あ、ちょ･･･そとらのほうでお願いがあるんですけども、あの、同意書というのが、こう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
교수56: ふうん。

학생57: あの、先生の個人情報という形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 **(동의서내용)**

<동의서작성>

학생174: はい、分かりました。えと、最後なんですけれども、あ、最後ではないですね。えーそうですね。
あの、こちらの同意書と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の推薦状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よ。**(추천서필요성)**

교수175: うん。

학생176: 同意書は必ず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けども、推薦状のほうは一方で、

교수177: うん。

학생178: 出したい人は出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 **(추천서내용)**
ただこちらのほう、やっぱり選考に出す、選考の方がありますので、推薦状を書いている、
ま、いただいた生徒さんの方が、あのまあー、え、あの選抜には受かりやすくなる、
20人の枠に入りやすくなる、という形なんですけども、

5.나오며

의뢰행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뢰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모어상황(KK)은, [화제예고], [상황설명], [동의서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내용설명], [추천서필요성], [동의서내용], [추천서내용], [지원동기], [의지표명] 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CC)는 전체적인 [설명부] 무브의 사용빈도가 높아서, 의뢰를 하기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향성이 보였다.

일본의 경우(JJ)는 의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도교수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 최적성이론에 의한 분석

이병훈(전남대학교)

1. 서론

가고시마방언은 일본어의 제 방언 중, 혼슈(本州)방언과 다른 특징이 많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아왔다. 그 중, 어말 고모음 [i]와 [u]가 규칙적으로 탈락해 폐음절화한다는 점은, 성조에 있어 단어나 어구의 끝이 하강하는 A형과 상승하는 B형의 2종류의 단어성조(2형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고시마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시마방언에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말모음 탈락에 의한 폐음절화 현상을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의 틀 속에서 분석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어말모음 탈락 양상

어말의 キ·ク·ギ·グ·チ·ツ·ヂ·ヅ·ビ·ブ 및 동사어미 ル는 모음탈락에 의해 내파음 [t]나 성문폐쇄음 [ʔ]으로 발음된다(九州方言学会編 1991: 266, 後藤和彦 1983: 306).

(1) a. /kuti/ → [kut], [kuʔ] (口) b. /katu/ → [kat], [kaʔ] (勝つ)
c. /tuki/ → [tsut], [tsuʔ] (月) d. /niku/ → [nit], [niʔ] (肉)
e. /miɡi/ → [mit], [miʔ] (右) f. /nuɡu/ → [nut], [nuʔ] (脱ぐ)
g. /adi/ → [at], [aʔ] (味) h. /midu/ → [mit], [miʔ] (水)
i. /kubi/ → [kut] [kuʔ] (首) j. /tubu/ → [tsut], [tsuʔ] (粒)
k. /suru/ → [sut], [suʔ] (為る)

(1)은 모두 어말음절의 자음이 구강음인 경우로 어말모음의 탈락에 의해 促音化하고 있으나, 같은 구강음인 경우이라도 어말자음이 마찰음인 シ·ス·ジ·ズ는 어말모음이 탈락되어도 促音化하지 않고 [ʃ] 또는 [s]로 발음된다(九州方言学会編 1991: 266).

(2) a. /tosi/ → [toʃi]→ [toʃ] (年) b. /usu/ → [us] (臼)
c. /kozi/ → [koʒi] → [koʃ] (麹) d. /kizu/ → [kis] (傷)

어말음절의 자음이 비음(nasal)인 경우 즉, 어말 음절이 ニ·ヌ·ミ·ム인 경우는 모음탈락에 의해 撥音化한다(九州方言学会編 1991: 266, 後藤和彦 1983: 306). 그런데, 도쿄방언의 어말 撥音은 구개수비음 [N]인데 반해, 가고시마방언의 어말 撥音은 치조음 [n]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日本放送協会篇 1981: 439, 505). 즉, 가고시마방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가고시마시 방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말 撥音은 [n] 또는 [N]으로 나타난다.

(3) a. /tani/ → [tan], [taN] (谷) b. /inu/ → [in], [iN] (犬)
c. /mimi/ → [min], [miN] (耳) d. /sumu/ → [sun], [suN] (住む)

3. 최적성이론에 의한 분석

3.1 어말자음의 중화와 위치적 충실성

Kaneko & Kawahara(2002)는 가고시마방언의 어말모음 탈락에 의한 폐음절화에서, 어말자음의 중화(neutralization)를 Beckman(1998)의 위치적 충실성(positional faithfulness)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어말의 고모음 [i]와 [u]가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과 관련해 (4)-(6)의 제약을 설정하고, 이들 제약은 (7)과 같은 위계를 이룬다고 하고 있다.

(4) 어말모음 금지제약(Final-C): 운율단어는 모음적 요소로 끝날 수 없다. (McCarthy 1993)

(5) MaxNonHigh: 비고모음의 삭제를 금한다.
(6) MaxHigh: 고모음의 삭제를 금한다.
(7) MaxNonHigh ≫ Final-C ≫ MaxHigh

예를 들어, 가고시마방언에서 /tani/(谷)는 어말 고모음 /i/의 탈락에 의해 폐음절 [taN](혹은 [tan])이 되지만, 어말모음이 저모음인 /tana/(棚)에서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를 Kaneko & Kawahara(2002)는 (7)의 제약순에 의해 각각 (8), (9)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8)

/CVCV/ [+high]	MaxNon High	Final-C	MaxHigh
a. CVCV		*!	
b.☞ CVC			*

(9)

/CVCV/ [-high]	MaxNon High	Final-C	MaxHigh
a.☞ CVCV		*	
b. CVC	*!		

모음탈락 후 남은 어말자음이 원래의 조음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표면형에서 [ʔ], [N]로 나타나는 현상은 음절말 자음이 독립된 조음위치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음절말 자음조건(Coda Condition)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10) 음절말 자음조건(Coda-Cond) (Itô 1989)

*C]σ
|
[PLACE]

Kaneko & Kawahara(2002)는 이를 위치적 충실성과 조음위치에 관한 유표성(markedness)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Prince & Smolensky(1993)에서 제안된 (11)의 조음위치에 따른 유표성의 위계를 받아들인 뒤, 음절두음에 대한 충실성제약과 일반적인 충실성제약을 (12), (13)과 같이 설정하고, (14)와 같이 이들 제약 사이에 조음위치에 따른 유표성제약을 넣어, 음절말 자음조건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11) *Lab, *Dor ≫ *Cor
(12) Ident-Onset(place): 표면형에서 음절두음으로 나타나는 분절음 s_1은,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동일한 조음위치를 가져야한다.
(13) Ident(place):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s_2의 조음위치는 동일해야한다.
(14) Ident-Onset(place) ≫ *Lab, *Dor ≫ *Cor ≫ Ident(place)

예를 들어, '감' 을 뜻하는 일본어 'かき'가 가고시마시방언에서 促音化해 [kaʔ]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고 있다.

(15)

/kaki/	Final-C	Max	IdOns(pl)	*Lab	*Dor	*Cor	Ident(pl)
a. kaki	*!				**		
b. kak		*			**!		
c. ☞kaʔ		*			*		*
d. ʔaʔ		*	*!				**

기저형으로부터 변화가 없는 (15a)는 어말모음 금지제약을 위반해 탈락하고, (15d)는 음절두음에서의 조음위치의 변화를 금하는 위치적 충실성제약 Ident-Onset(place)를 위반해 탈락한다. 남은 (15b)와 (15c)를 비교해 보면, (15b)는 *Dor을 두 번 위반해 탈락하고, (15c)는 *Dor을 1번 위반하고 추가로 Ident(place)를 위반하고 있는데, Ident(place)는 *Dor보다 하위의 제약이라 *Dor을 1번만 위반한 (15c)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Kaneko & Kawahara(2002)의 분석은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에 관한 종래의

연구가 주로 필드워크를 바탕으로 한 記述的 연구였던 점에 비해, 이론적 분석을 통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aneko & Kawahara(2002)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성문폐쇄음 [ʔ]이나 구개수비음 [N]의 출현에 관해서는 아무런 유표성 제약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Kaneko & Kawahara(2002)은 [ʔ]이나 [N]이 조음위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음절말음 [ʔ]나 [N]가 나타날 때, 이와 관련된 아무런 유표성제약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여우'를 뜻하는 'きつね'가 가고시마방언에서는 [kiʔne]로 발음되는데, 성문폐쇄음 [ʔ]이 표면형에 나타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6)

/kiʔne/	*Lab	*Dor	*Cor	Ident(place)
a. ☞ kiʔne		*	*	
b. kinne		*	*	*!

(16a)의 [kiʔne]와 (16b)의 [kinne]는 조음위치에 따른 유표성제약에서는 동일한 벌점을 받고 있는데, (16b)의 [kinne]는 이에 더해 조음위치에 대한 동일성제약 Ident(place)를 위반해 탈락하고 (16a)의 [kiʔne]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16)에서 대해서는 올바른 출력형을 선택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Ident(place) 제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비음성(nasal) 자질에 대한 동일성제약 Ident(nasal)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도쿄방언의 '今に', 'そのうち'에 해당하는 가고시마방언 [imma]를 (16)의 틀에 대입한 다음 예를 보자.

(17)

/iNma/	*Lab	*Dor	*Cor	Ident(place)
a. ☜ iNma	*			
b. imma	*			*!

(17a)와 (17b)는 조음위치에 관한 유표성제약에서 동일한 벌점을 받고, (17b)가 추가로 Ident(place)를 위반해 탈락, (17a)가 최적형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imma]가 출력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8)의 HavePlace 제약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조음위치에 관한 동일성제약 Ident(place)의 상위에 두어야 한다.

(18) HavePlace: 모든 분절음은 어떠한 조음위치를 가져야 한다. (Padgett 1995=2003: 384)

(19) HavePlace ≫ Ident(place)

즉, /iNma/가 출력형에서 [imma]로 나타나는 것을 평가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

/iNma/	*Lab	*Dor	*Cor	HavePlace	Ident(pl)
a. iNma	*			*!	
b. ☞ imma	*				*

Kaneko & Kawahara(2002)에 남겨진 또 다른 문제는 가고시마방언에 나타나는 어말자음의 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3.2**에서 상론한다.

3.2 복수의 표면형과 가변순위

앞선 (1),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고시마방언의 어말 促音이나 撥音이 항상 [ʔ] 혹은 [N]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t]나 [n]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면형이 복수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최적성이론에서 하나의 기저형에 대해 복수의 표면형이 나타날 때, 이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제약 순위교체(constraint re-ranking)이다. 예를 들어, /kaki/(柿)가 [kaʔ]과 [kat]으로 나타나는 것은 *Cor

과 HavePlace의 제약순위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21) *Lab, *Dor ≫ *Cor ≫ HavePlace ≫ Ident(place)

/kaki/	*Lab	*Dor	*Cor	HavePlace	Ident(pl)
a. kak		**!			
b. ☞ka?		*		*	*
c. kat		*	*!		*

(22) *Lab, *Dor ≫ HavePlace ≫ *Cor ≫ Ident(place)

/kaki/	*Lab	*Dor	HavePlace	*Cor	Ident(pl)
a. kak		**!			
b. ka?		*	*!		*
c. ☞kat		*		*	*

이러한 제약 순위교체의 경우, 복수의 표면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로 다른 평가과정을 가진 복수의 평가표가 필요하며, 하나의 평가표에서 표면형을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하나의 기저형으로부터 서로 다른 표면형이 나타나는 언어 혹은 방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나, 동일한 화자에게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표면형이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Lee 2001)이 있다. Lee(2001)은 동일한 화자에게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표면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어(혹은 방언)의 차이에 의한 변이와는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구분을 위해 언어에 따른 변이를 설명하데 필요한 제약순위 교체와는 구분되는 '가변순위(reversible ranking)'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3) 가변적 제약 B와 C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수의 출력형(Lee 2001: 31)

	A	*B, C*		*D*
✓ X			*	*
✓ Y		*		
Z	*!			

Lee(2001: 31)은 동일한 화자의 발화에서, 인접한 제약 B와 C의 상호작용에 의해, X와 Y라는 2가지 출력형이 나타날 때, 순위의 변경이 가능한 제약 B와 C를 (B, C)와 같이 가변순위로 묶어 (23)과 같이 하나의 평가표에 나타내고 있다. 가변순위로 묶인 제약 (B, C)에서 B가 상위에 위치할 때 후보 X가, C가 상위에 위치할 때 후보 Y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어 동일한 화자에서 X와 Y라는 2가지 출력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변순위도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순위변경이라 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평가과정을 가진 복수의 평가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표에서 복수의 최적형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방언에서 공시태로서 두 가지 표면형이 공존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순위변경보다 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Lee(2001)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변순위를 이용해 가고시마방언 어말 促音과 撥音에 나타나는 [t]와 [?], [n]과 [N]의 변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kaki/(柿)가 2가지 표면형 [ka?]과 [kat]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변순위의 개념을 이용해 평가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Lab, *Dor ≫ (*Cor, HavePlace) ≫ Ident(place)

/kaki/	*Lab	*Dor	*Cor, HavePlace		Ident(pl)
a. kak		**!			
b. ☞kat		*	*		*
c. ☞ka?		*		*	*

(24a), (24b), (24c)는 모두 평가표상의 최상위 제약 중 하나인 *Dor을 위반하고 있는데, (24a)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Dor을 1회 위반하고 있는데 반해, (24a)는 *Dor을 2회 위반해 탈락한다. 남은 (24b)와 (24c)는 *Dor과 Ident(place)를 공통적으로 1회씩 위반하고 있으며, 추가로 각각 *Cor과 HavePlace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 두 제약은 제약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가변순위로 묶인 가변적 제약으로 *Cor이 상위를 차지할 때는 (24b)가 탈락해 (24c)의 [ka?]이 최적형으로 선택되고, HavePlace가 상위를 차지할 때는 (24c)가 탈락하고 (24b)의 [kat]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결론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에서 어말자음이 [?]나 [N]로 나타나는 조음위치상실 현상에 관해서는 위치적 충실성이론을 이용, 음절두음에 대한 충실성제약과 일반적인 충실성제약을 설정하고, 이들 제약 사이에 조음위치에 따른 유표성의 순위를 넣어 Ident-Onset(place) ≫ *Dor, *Lab ≫ *Cor ≫ Ident(place)와 같은 제약순위를 부여한 Kaneko & Kawahara(2002)의 분석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조음위치상실 현상에 관해서는 효과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에 나타나는 또 다른 표면형, 즉 설정음 [t], [n]이 어말자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t], [N]~[n]과 같이 하나의 기저형이 어말모음 탈락에 의해 표면형에서 2가지로 나타나는 2형의 공존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절음이 조음위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HavePlace 제약을 설정하고, 2개의 연접한 제약 *Cor과 HavePlace를 가변순위로 묶어, 동일방언의 공시태에서 복수의 표면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다. 즉, 가고시마방언의 폐음절화에 나타나는 2가지 표면형의 공존현상과 관련해, Ident-Onset(place) ≫ *Dor, *Lab ≫ (*Cor, HavePlace) ≫ Ident(place)와 같은 제약순위를 부여했다. *Cor과 HavePlace는 상호간의 제약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변적 제약들로, 이들 제약간의 상호작용에서 *Cor이 HavePlace 보다 상위에 위치할 경우, 어말 促音이나 撥音이 조음위치를 가지지 않는 [?]나 [N]로 나타나고, *Cor이 HavePlace 보다 하위에 위치할 경우, 어말 促音이나 撥音이 설정음 [t] 혹은 [n]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九州方言学会編(1991)『九州方言の基礎的研究 改訂版』, 風間書房.

後藤和彦(1983)「鹿児島県の方言」『講座方言学 9 -九州地方の方言-』国書刊行会, pp.295-326.

日本放送協会篇(1981)『全国方言資料 第六巻九州編』, 日本放送出版協会.

Beckman, J. (1998) *Positional Faithfuln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Itô, J. (1989) "A Prosodic Theory of Epenthesi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s Theory 7*, pp.217-260.

Kaneko, I. & Kawahara, S. (2002) "Positional faithfulness theory and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The case of Kagoshima Japanese", In Akira Nakayama ed. *ICU English Studies 11*, pp.18-36.

Lee, Minkyung (2001) *Optionality and variation in optimality theory : focus on Korean phonology*,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cCarthy, J. & Prince, A. (1994)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Optimality in Prosodic Morphology", In M. Gonzalez, ed.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s Society 24*, GLSA, Amherst, MA. pp.333-379.

McCarthy, J. (1993) "A case of surface constraint violation", *Constraint-Based Theories in Multilinear Phonology, special issue of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8*, pp.169-195.

Padgett, J (1995) "Partial class behavior and nasal place assimilation", *Proceedings of the Arizona. Phonology Conference: Workshop on Features in Optimality Theory, Coyote Working Papers*,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ROA-113]

Prince, A. & Smolensky, P.(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Technical report RuCC-TR-2. New Brunswick, NJ: Ruters University Center for Cognitive Science.(2002 ROA Version, [ROA-537])

「なんか」「なんて」「など」とモダリティ

朴 美 瑩* ・孫 東 周**

【 目 次 】

1. はじめに
2. 先行研究
3. 「なんか」「なんて」「など」の特徴
4. 「など」「なんか」「なんて」とモダリティ
5. まとめ

1. はじめに

「ある事物をそれが取るに足らない、あるいは推薦すべきではないと言った気持ちを込めて提示する」1)という意味を持つ取立て助詞には「なんか」「なんて」「など」がある。

(1) 考えてる時間なんかないでしょう。［喰］
(2) 人間には乗り越えられない過去なんてない。［サ］
(3) アリバイ工作など簡単だ。［七］

(1)～(3)の「なんか」「なんて」「など」は、お互いに置き換えられるが、次の(4)～(6)のようにずれが見られる場合もある。

(4) 酒や煙草{など/なんか/*なんて}手軽に充足感を得られるものに人間は手を出すんだ。［サ］
(5)おなじ年齢の子どもをもつ母親が、こんなことをする{など/なんて/*なんか}、ありえないことだ。［喰］
(6) 二十にもなって背がのびる{なんて/*など/*なんか}。 ［国］

上の(1)～(3)のように置き換えられる場合もあるし、(4)～(6)ように置き換えられない場合もある。今までの研究では、「など」の口語的表現として「なんか」「なんて」を扱っているので、「など」「なんか」「なんて」の差が表われなかった。

従って、本稿では、「など」及び、「など」の口語的表現として扱われてきた「なんか」「なんて」をより深く検討してお互いの異同について統語・意味・文体の面から、さらに「など」「なんか」「なんて」とモダリティとの関連性について調べてみたい。

2. 先行研究

先行研究では「など」の項目を取り上げて分析しているだけである。

<表 1>

沼田(1986)	寺村(1991)	森田(1980) (2007)	市川(1991)
従来副助詞とされて来た	① 接尾詞 ② 取り立て助詞	・森田(2007)では、複数の中なら一つを例として取り上げる場合に用	例示を表す働きをもつが、文脈

* 釜慶大学校 大学院
** 釜慶大学校 日語日文学部 教授

1)) 仁田義雄(1982)『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など」を並列詞ととりたて詞の2種類に分け、更にとりたて詞の「など」を①和らげ② 否定的強調に分けている。		いる。①例示 ②婉曲 ③軽視 ·森田(1980)では、 ①取立て ②例示 ③強調④軽視 · 謙遜	によって2つに分けている。 (1)これなどいかかですか。 (和らげ-など1) (2)僕はあなたによく思ってもらおうと努力などしなかった。 (否定強調-など2)

沼田(1986)は「など(なぞ · なんか)」を同じように扱っている。「など」「なんか」については、例文を挙げて意味の分類をしているが、「なぞ」については、言及してない。なお、寺村(1991)も取り立て助詞と見られる「ナド」はくだけた会話では「ナンカ」「ナンゾ」となることがあり、「ナンカ」とよく似た形に「ナンテ」があると述べている。しかしながら森田(2007)では「など」は、話し言葉では「なぞ」「なんぞ」と音変化を来すことがあると述べ、「なんか」「なんて」については言及してない。モダリティの関わりについての研究は、市川(1991)しか見られない。しかしながら、市川(1991)の研究は、全ての取り立て助詞とモダリティの関わりであり、「など」だけを取り上げて分析しているので「なんか」「なんて」については扱っていない。先行研究の説明だけでは、上の(4)～(6)のように「など」「なんか」「なんて」が置き換えられない場合の違いを明確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3.「など」「なんか」「なんて」の特徴

3.1 「など」「なんか」「なんて」の統語的特徴

3.1.1 助詞の後に付く場合

(7) そこに癌細胞が侵入し、肝臓{など/なんか/*なんて}に運ばれて転移する確率が高くなります。

(8) 身分証明書{など/なんか/*なんて}は持ってなかったんですが。〔サ〕

3.1.2 助詞の前に付く場合

(9) 地方の営業所に{など/なんか}行きたくないですよ。〔冗〕

(10) 決して馬鹿になんてしていません。

3.1.3 述語に付く「なんか」「なんて」「など」

(11) こんな時間に休んで {など/なんか/なんて} いられませんよ。〔サ〕

(12) 料理一緒に作ったり {など/なんか/なんて} して、新婚夫婦みたいじゃない？〔喰〕

(13) だって、私のことでそんなに自分を責めてた{なんて/など/*なんか}知らなかった。〔サ〕

(14) タバコが体に悪い{なんて/などと/*なんか}誰が決めたんだ？〔国〕

3.2 「なんか」「なんて」「など」の意味的特徴

意味を分析する前に、「など」「なんか」「なんて」の辞書での意味を調べてみたい。

<表 2>

	など	なんか	なんて
日本国語大辞典	① 例示 ② やわらげ	① 例示 ② 低い評価	① 評価 ② 引用
学研国語大辞典	① 例示 ② やわらげ	① 例示 ② やわらげ	① 叙述の内容をそれと示すのに用いる。 ② 評価
日本語	① 例示 ② 引用	① 例示 ② 評価	① 例示

文法 大辞典	③ やわらげ		②無視・軽視、意外 ③終助詞に用いられる。

日本国語大辞典、学研国語大事典、日本語文法大事典には、「例示」「和らげ」「引用」「評価」「意外」に意味分けされている。「など」「なんか」「なんて」の例文を調べた結果、少し差は見られるが、本稿での「など」「なんか」「なんて」は次のように意味分けする。

辞典の意味との相違点は、「など」の場合は、「評価」「意外・驚き」が、「なんて」の場合は、「和らげ」が追加される。その反面、「なんて」の場合は、日本語文法大辞典によると「例示」が表われたが、本稿では除外される。

3.2.1「など」の意味分析

(15) マダイのかわりにヒラメ、タラ、イワシなど好きな魚を使ってもよい。（例示）[気]
(16) 彼らのところには法廷などなく、裁判が何を意味するかも知らないでいる。（和らげ）[1上]
(17) 壁には、“金返せ!”“泥棒!”などと言った張り紙やサラ金の督促状が山のように貼ってある。(引用) [喰]
(18) 行動が伴わない勉強会など、意味ないじゃないか。(評価) [国]
(19) おなじ年齢の子どもをもつ母親が、こんなことをするなど、ありえないことだ。(意外) [国]

3.2.2「なんか」の意味分析

(20) 妻や母親なんかになりたくない、女として生きたい、そういって母は家を出ていったんです。(例示) [サ]
(21) 久保なんかどうするんですか、子供生まれたばかりでリストラされたら……（和らげ） [冗]
(22) 私なんか生きてる資格ない。(評価) [サ]

3.2.3「なんて」の意味分析

(23) 青豆は夜店で誰かに何かを買ってもらったことなんて、ただの一度もない。(和らげ) [1下]
(24) ウソばっかり。さっきまで楷先生も男だから、なんて言ってたじゃない。(引用) [サ]
(25) 信じられないような悩みごとを抱えて生きている人がたくさんいる。その人たちと比べたら、
私の悩みなんて、悩みのうちに入らない。(評価) [完]
(26) まさか現実に存在するなんて思いもしなかった。(意外) [女]

3.3「など」「なんか」「なんて」の文体的特徴

(27) a 科学者{なんて/*など/なんか}俺たち実験材料としか見てない。 [七]
b 科学者{なんて/など/なんか}私たち実験材料としか見てない。

4.「など」「なんか」「なんて」とモダリティ

上の３で「など」「なんか」「なんて」の統語・意味・文体の特徴を調べてみた。しかしながら、同じ意味を持ち、統語的制約がないのにも関わらず、お互いに置換えられない場合がある。そのため「など」「なんか」「なんて」が文末のモダリティと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のか分析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取り立て助詞とモダリティに関する研究は、市川(1991)がある。市川(1991)には、仁田(1989)の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と取り立て助詞である「ダケ」「バカリ」「コソ」「ナド1」「ナド2」「マデ」「サエ」「シカ」「デモ」の関わりについて研究されている。

市川(1991)は、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がどのように成立するか、次の①～④のようにテストを行っている。その中で、「など」について<表3>のように述べている。

① 働き掛け　1）命令　　（本を読め）
　　2）誘いかけ　　（本を読もう）
② 表出　　1）意志・希望　　（本を読みたい）
　　2）願望　　（手紙を書いてほしい）
③ 述べ立て 1）現象描写文　　（子供が本を読んでいる）
　　2）判断文　　（本を読んだ）
④ 問いかけ 1）判断の問いかけ　　（本を読んだのか）
　　2）情意・意向の問いかけ　（本を読みたいのか）

<表 3>

		働き掛け		表出		述べ立て		問いかけ	
		命令	誘いかけ	意志・希望	願望	現象描写文	判断文	判断の問いかけ	情意・意向の問いかけ
など1	肯	?				?			
	否		?	x		x	?		
など2	肯	x	x	x	x	x	x	x	x
	否		x			x		?	?

「など１」「など２」は文末表現によって同じような自然な文になる場合もあり、ずれが見られる場合もある。特に和らげの意味では肯定の場合も自然な文になるが、否定強調の場合は、当前の結果であるが、肯定の意味は非文になる。

市川(1991)では、「など」については言及されているが、「なんか」「なんて」については言及されていない。そのため、本稿では、市川(1991)の研究に基づき「など」「なんか」「なんて」の文末表現がお互いに同じであるか調査を行ってみたい。ただし、市川(1991)では、「など1」「など2」に分けているが、本稿の調査と意味の分類が違うので分けないことにする。

調査方法：上の①～④の８つのタイプに「など」「なんか」「なんて」の置換可否
調査対象：日本人５人（外国人に日本語を教えている日本語の先生4人、大学院生1人）
表記方法：自然な文: O、不自然な文: X、やや不自然: ?、応答なし: 無、()の数字は応答者数

<表 4>

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		肯否	テストの内容	など	なんか	なんて
働きかけ	命令	肯定	本を読め	O(1) X(4)	X(5)	X(5)
		否定	本を読むな	O(5)	O(5)	O(5)
	誘いかけ	肯定	本を読もう	O(1) X(3) ?(1)	X(5)	X(5)

		否定	本を読まなかろう	O(1) X(2) ?(2) 無(1)	O(3) X(1) 無(1)	O(4) 無(1)
表出	意志・希望	肯定	本を読みたい	O(3) X(1) ?(1)	O(1) X(4)	X(5)
		否定	本を読みたくない	O(5)	O(5)	O(5)
	願望	肯定	手紙を書いてほしい	O(4) ?(1)	X(5)	X(5)
		否定	手紙を書いてほしくない	O(5)	O(5)	O(5)
述べ立て	現象描写文	肯定	子どもが本を読んでいる	O(5)	O(1)X(3) ?(1)	O(1) X(4)
		否定	子どもが本を読んでいない	O(4) X(1)	O(4) ?(1)	O(4) X(1)
	判断文	肯定	本を読んだ	O(5)	O(1) X(4)	X(5)
		否定	本を読まないんだ	O(5)	O(4) X(1)	O(4) X(1)
問いかけ	判断の問いかけ	肯定	本を読んだのか	O(5)	O(2) X(3)	O(2) X(3)
		否定	本を読まなかったのか	O(5)	O(4) X(1)	O(4) X(1)
	情意・意向の問いかけ	肯定	本を読みたいのか	O(2) ?(3)	O(2) X(3)	O(1) X(4)
		否定	本を読みたくないのか	O(4) ?(1)	O(5)	O(5)

調査の結果、応答者によって少しずれが見られた。否定の場合、あまり差が見られなかったが、働きかけの命令、表出の意志・希望と願望は、「など」「なんか」「なんて」にすべて置換えられるし、応答者の全員の答えも一致した。なお、述べ立てと問いかけの場合も、置換えられると答えた人数が多かった。誘いかけの否定表現では、勧誘表現の否定は使用しないので答えなかった人も1人いた。

肯定の場合は、差が多く見られたので、多数の答えをまとめる。置換えられる場合は、表出の意志・希望と述べ立ての現象描写文・判断文と問いかけの判断の問いかけ・情意・意向の問いかけの「など」は「を」に置換えられるが、「なんか」「なんて」の場合は、置換えられないと答えた人が多かった。

このテストの結果から、「など」「なんか」「なんて」は文末の表現によって同じように使われる場合もあり、使えない場合もあることが分かる。また、応答者により、違う結果も出ていたので、もう少し詳しく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28)酒や煙草{など/なんか/*なんて}手軽に充足感を得られるものに人間は手を出すんだ。 [サ]

(29)自然公園のなかの国民休暇村とか国民宿舎{なんて/など/なんか}、いつ申し込んだって満員じゃないか。 [国]

(28)は、述べ立ての判断文の肯定に属する。テストの結果から見ると、「など」は自然な文になり、「なんか」「なんて」は不自然な文になるが、「なんか」の場合も自然な文になる。(29)は、判断の問いかけの否定に属する。「など」は全員が自然な文になり、「なんか」「なんて」は4人が自然な文になると答えている。(28)(29)とも、例示の意味と見られるかもしれないが、(28)は「例示」(29)は「評価」の意味になり、スコープによって意味の差が見られると思われる。(28)の場合は、スコープが「酒や煙草」にあり、「なんて」は、「例示」の意味がないので不自然な文になるが、述べ立ての判断文の肯定には表われない「なんか」は文末のモダリティに影響を及ぼさないので自然な文になる。その反面、(29)は、スコープが文末の「いつ申し込んだって満員じゃないか」にあり、「など」「なんか」「なんて」は、判断の問いかけの否定に表われるので自然な文になる。しかしながら、「なんて」の意味には「例示」がないので、並立助詞である「とか」と一緒に使われても「例示」の意味が持てなくなり、「評価」の意味になると思われる。

5. まとめ

取り立て助詞にはほぼ同じく扱われている「など」「なんか」「なんて」がある。本稿では、「など」「なんか」「なんて」を統語・意味・文体の面、そのうえモダリティとの関わり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

統語的特徴は、名詞に付く「など」「なんか」「なんて」が自然であり、「など」「なんか」は格助詞と取り立て助詞に後続できるが、「なんて」はできない。「など」「なんか」「なんて」が述語に付く場合は、「など」「なんて」は名詞化して接続できたが、「なんか」には接続できない。

意味の特徴は、「など」は「例示・和らげ・引用・評価・意外(驚き）」に、「なんか」は「例示・和らげ・評価」に、「なんて」は「和らげ・引用・評価・意外(驚き）」に意味分けする。辞典の意味との相違点は、「など」の場合は、「評価」「意外・驚き」が、「なんて」の場合は「和らげ」が追加される。その反面、「なんて」の場合は、「例示」が除外される。

文体的特徴は、かたい文体の場合は「など」が、くだけた表現の場合は「なんか」「なんて」が見られた。

モダリティは、市川(1991)の研究に基づき、調査した結果、否定の場合は、ほとんど見られた。肯定の場合は、応答者によって差が大きかったこと、また、本稿では、仁田の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しか扱ってないことは、今後の課題にする。

【参考文献】

日本大事典刊行会(1980)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第八巻』　小学館　pp.273-274, p.371, p.386
森田良行(1980)『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pp.854-856
_____(2007)　『助詞・助動詞の辞典』　東京堂出版　pp.195-196
仁田義雄(1982)『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p.407
沼田善子(1986)『いわゆる日本語助詞の研究』　凡人社　pp.215-216
金田一春彦(1988)　『学研国語大辞典第二版』学習研究社　pp.1464-1466
寺村秀夫(1991)『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くろしお出版　p.181
市川保子(19991)「取り立て助詞と発話・伝達のモダリティに関する一考察」筑波大学
山口明穂(2001)　『日本語文法大事典』明治書院　p.562, pp.582-583
仁田義雄(2009)『日本語文法5』くろしお出版 p.126

【参考文献】

［喰］　食いタン（ドラマ）
［サ］　サイコドクター（ドラマ）
［七］　七瀬ふたたび（ドラマ）
［冗］　冗談じゃない（ドラマ）
［気］　嵐山光三郎　『気分の構造』
［1上］　村上春樹　『1Q84上』
［1下］　村上春樹　『1Q84下』
［完］　小池真理子　『完全犯罪はお静かに』
［女］　自然談話資料　『女性のことば・職場編』
［国］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翻訳課題に見る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理解

― 「～込む」を中心に ―

李允昊(神戸大学大学院　博士後期課程)

Ⅰ．はじめに

1.1 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習の状況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約95万人→海外日本語学習者の45％

・2004年度日本語能力試験受験者数302,198人のうち57,736人が韓国人→国地域別受験者数3位（中国30％＞日本20％＞韓国19％）

1.2 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理解

・外国語教育における傾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実用性重視によるレセプションからプロダクションへの転換（船山，2004）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最低限成立する程度の「おおざっぱな理解」で良いとする意識

・日本語能力試験（選択式テスト）の影響

・日本語の正確な理解力が充分に獲得できていない危険性も

1.3　日本語理解能力の測定

・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理解度の評価方法

①日→日の多肢選択：日本語の表現・文章の意味を別の日本語の選択枝から選ばせる

②日→韓の多肢選択：日本語の表現・文章の意味を韓国語の選択枝から選ばせる

③日→日作文：日本語の表現・文章の意味を日本語で書かせる

④日→韓作文：日本語の表現・文章の意味を韓国語で書かせる

・多肢選択テストは正解であっても本当は理解し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

・日→日作文は誤答であっても本当は理解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

・日→韓作文のように，理解した日本語を韓国語で言い表すことが日本語の理解度を見るにはより正しく判定する測定方法ではないか

Ⅱ．日本語の複合動詞

2．1　複合動詞の問題点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とって理解の難しい日本語の表現は多様であるが，特に動詞の中では複合動詞が問題

・複合動詞の意味は前項と後項の意味の単純な合成ではなく，複雑

・パラフレーズが可能で，表現として必須のものではないため，学習者は回避ストラテジーを取りがちで，結果として理解の定着が進まない危険性

2．2　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複合動詞の理解

・李・石川(2010a）：コーパス頻度調査に基づいて主要な「～込む」型複合動詞100語を選定

・李（投稿中a）：「～込む」型複合動詞50語を基に新しい意味分類を提案

・李（投稿中b）：「～込む」の上位24語を使った日本語自由作文課題を分析

・日→韓翻訳課題による厳密な韓国人学習者の「～込む」の理解度調査はいまだ行われてない

→本研究では，「～込む」型複合動詞上位50個を含む日本語文について韓国語翻訳テストを実施することにより，韓国人学習者の「～込む」の理解度調査を行う

Ⅲ．リサーチ・デザイン

3．1　本研究の目的

RQ1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主要な「～込む」型複合動詞についてどの程度正確に翻訳できるか。

RQ2　意味タイプ（基本的意味・比喩的意味）ごとに正解率に差はあるか。

RQ3　単語ごとに正解率に差はあるか。

RQ4　日本語学習期間は正解率にどう影響しているか。

RQ5　日本語能力は正解率にどう影響しているか。

3.2　調査対象者：韓国の某大学の大学生・大学院生合計160名

3.3　調査対象語：李・石川（2010）で選定された100語のうち高頻度で使われる上位50語

打ち込む，押し込む，落ち込む，思い込む，考え込む，差し込む，忍び込む，信じ込む，滑り込む，倒れ込む，頼み込む，使い込む，突っ込む，連れ込む，飛び込む，取り込む，流し込む，流れ込む，煮込む，飲み込む，走り込む，話し込む，冷え込む，引き込む，吹き込む，踏み込む，巻き込む，申し込む，持ち込む，呼び込む，読み込む，割り込む，売り込む，追い込む，抱え込む，書き込む，駆け込む，絞り込む，吸い込む，住み込む，座り込む，攻め込む，黙り込む，包み込む，詰め込む，乗り込む，入り込む，振り

込む，放り込む，見込む

3.4　調査の方法

調査対象語「～込む」50語（異なり語数）の理解度を調査するにあたり，「～込む」の直喩的な意味と比喩的な意味に対する理解度を調べるために，50語のうち15語を選び，直喩的な意味と比喩的な意味の例文を１文ずつ，合計2文を提示して翻訳してもらった。よって調査対象語は50語であるが，例文は65文になる。65文を33文と32文の２つのタイプに分けてそれぞれ異なる調査対象者グループに提示し，「～込む」部分のみを韓国語に訳してもらった。

3.5　分析方法

・学習者の回答シートを回収し，翻訳された韓国語表現を正誤判定（4段階）

・採点方法：ほぼ問題ない自然な韓国語の訳の場合は３点，言えないことはないがやや不自然な場合は２点，元の日本語の韓国語訳としてきわめて不自然で不適当な場合は１点，全く書いてない場合は０点

Ⅳ．結果と考察

データ全体の分析は現在実施中である。以下では，試行として，全体のデータの中でランダムに選んだ18サンプル（33文のAタイプ９名，32文のBタイプ９名）について分析を行った結果を報告しておく。全体の分析結果は発表当日報告する。

4.1　RQ1　（韓国語訳の正確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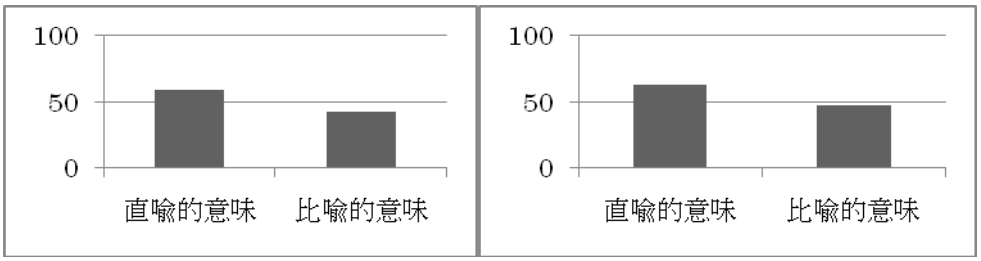
合計65文の「～込む」型複合動詞の翻訳に対する４段階正誤判定の結果，タイプA（33文）の平均は51点であり，合計点数99点満点で51.5％であった。タイプB（32文）の平均は47.2点であり，合計点数96点満点で49.2％であった。このことから，韓国人学習者は「～込む」型複合動詞の上位50語であっても，およそその半分ぐらいしか意味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4.2　RQ2　（意味タイプにおける正解率の差）

タイプA（33文）においては，直喩的意味18語に対し，サンプル人数9人の合計は288点，平均32.0点で正解率59.3％，比喩的意味15語に対しては，合計は171点，平均19点で正解率42.2％であった。タイプB（32文）においては，直喩的意味17語に対し，サンプル人数9人

の合計は233点，平均25.8点で正解率63.1%，比喩的意味15語に対しては，合計は192点，平均21.3点で正解率47.3%であった。以上のことからタイプA,Bともに比喩的意味の方が半分以下の低い正解率を示しており，比喩的な意味の場合に理解度が低下するという全般的傾向が明らかになった。

図1. 「～込む」上位20語の意味別正解率　図2. 「～込む」上位20語の意味別正解率



4.3 RQ3 （単語ごとの正解率の差）

①タイプA

・上位3語：飛び込む1＞忍び込む＞流れ込む→韓国語に類似した前項＋後項関係がある対応語があり，なじみがある語，直喩的意味（内部への移動）の語，韓国語に対応語がある場合

・下位3位：吹き込む2＞使い込む＞滑り込む2→比喩化されており，対応語がない語

②タイプB

・上位3語：落ち込む2＞飛び込む2＞書き込む→比喩的意味・移動の意味が希薄化された意味であっても韓国語に対応語があったり，移動の意味が残っていたりする語，一つの語として習得しやすい語

・下位3位：読み込む＞滑り込む1＞取り込む→韓国語に対応語がなく，前項＋後項の単純な合計では意味が推測できない語

図3. タイプAの「～込む」（33語）の正解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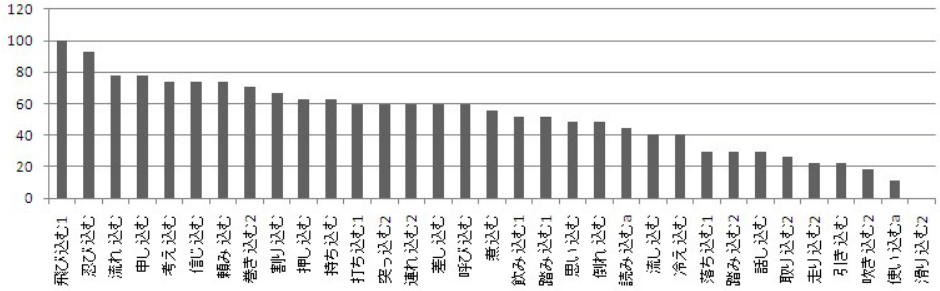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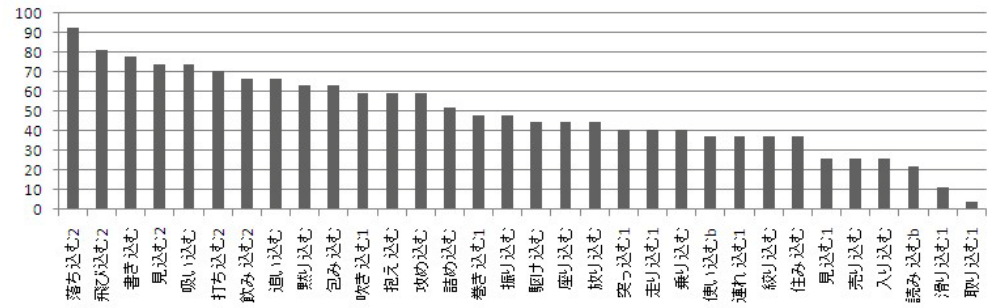


図4. タイプBの「～込む」（32語）の正解率



4.4 RQ4 （日本語学習期間と正解率の関係）

学習期間の長さと「～込む」型複合動詞の理解度の関係を示す

4.5 RQ5 （日本語能力と正解率の関係）

分析者の日本語能力測定試験の習得点と正解率の関係を示す

Ⅴ．教育的示唆・今後の展望

・日本語→韓国語への翻訳テスト：より詳しい学習者の理解度が把握可能

・母語への翻訳による学習法を外国語教育現場では一律に否定す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

・学習者の対象言語の理解力を測定する場合，母語への翻訳課題は有効に使用可能

参考文献

船山久美(2004)「海外中等教育段階日本語教育の理念と目標について―シラバス・ガイドラインの考察より―」『小出記念日本語教育研究会論文集』12，小出記念日本語教育研究会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石井正彦(1987)『複合動詞資料集』国立国語研究所

李允昊・石川慎一郎（2010)，「日本語学習者を対象にした「～込む」型複合動詞の主要語の選定」『統計数理研究所研究レポート：言語コーパス分析における数理データの統計的処理手法の検討』統計数理研究所

李允昊（投稿中 a)「複合動詞「～込む」の意味分類の試み―コーパスによる重要 50 語を中心に―」

李允昊（投稿中 b)「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複合動詞「～込む」の理解度について― 日本語作文調査に基づく分析と考察 ―」

松本曜(2008)「複合動詞「～込む」「～去る」「～出す」と語彙的複合動詞のタイプ」由本陽子・岸本秀樹編『語彙の意味と文法』くろしお出版 175-194

森田良行(1978)「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講座日本語教育』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69-86

日本語の自動詞における「再帰性」の考察

李尙原*・孫東周**

1. はじめに

日本語動詞の「再帰性」は仁田(1982)、天野(1987)などによって先行研究がなされており、これらの研究では、主に<再帰動詞>構文と、再帰的意味をもつ<再帰用法>構文という2つの視点から行われてきた。

(1) 太郎は紺の背広を着ていた。　(仁田：1982)　(太郎 → 太郎)：再帰動詞
(2) 太郎は手袋を自分の手にはめた。(天野：1987)　(太郎 → 太郎)：再帰用法

(1)(2)は動作主体である<太郎>が自ら動作を行い、自分の身体に衣服などを着ける意味をもつ一般的な「再帰構文」であるといえる。

これまでの先行研究[1]において、<再帰>とは、動作主体による働きかけが対象を通して主体自身に向けられることであり、その結果自らの状態変化が引き起こされるものと考えられてきた。このように、「再帰性」を帯びた構文が示す働きかけは、他の存在に向かうものではないので、ヴォイスの観点から見ると、影響を受けた対象の立場から表現する直接受動文は成立しないことについても既に先行研究でなされてきた。

* 釜慶大学校 大学院
** 釜慶大学校 日語日文学部 教授

1) 先行研究における日本語動詞の<再帰>に関する定義は以下の通りである。

研究者	<再帰>に関する用語	定義
高橋太郎 (1975)	再帰構文	「実際に自分の所属物にはたらきかける」
鈴木康之 (1982)	再帰動詞	「一般に、自身に対してのはたらきかけを意味する動詞」
仁田義雄 (1982)	再帰	「動作主から出た働きかけが結局は動作主自身に戻って来ることによって、動作が完結するといった現象」
益岡隆志・田窪行則 (1989)	再帰表現	「他動詞の表現の中には、主体から出た働きかけが主体に戻って来るという事態を表すものがある」
村木新太郎 (1989)	再帰動詞	「動詞の意味する運動・作用がおよぶのは動作主自身である」

また、このことから、「再帰性」を持つ動詞は、他動詞でありながら自動詞と同類の側面を持っていると言える。たとえば、「手をあげる」「あたまをたれる」は結局、動作主体の自分自身に働きかけることで動作主体の姿勢が変わるという変化の意味を表す。これは「挙手する」「うなだれる」のような同じ意味関係を持つ自動詞が存在するからである。つまり、日本語動詞の「再帰性」という意味特徴をとりたてる際に強調されてきたことは、「再帰構文」が他の他動詞構文と違って統語的に自動詞構文に近づいていることである。以上の事から、本稿では日本語の自動詞における「再帰性」について考察を行う。

2．先行研究

高橋(1975)は、「これらの文のなかの対格名詞と他動詞の関係を連語論的にみれば、ものに対する働きかけをあらわしている。しかし、構文のレベルで主語との関係をみると、他に対する働きかけをあらわしているのではなく、主体である自分の状態をかえることをあらわしている。」とし、連語論的な側面と構文論的な側面というレベルの違いとして説明しながら自動詞も「再帰性」を有することを裏付けている。その他、自動詞の「再帰性」についての先行研究をまとめられる。

―　先行研究　―

研究者	自動詞の「再帰性」
荒井文雄(1988) 浅山佳郎(1991)	動作の行為だけではなく、「風船が空に上がる」のような、物事態の変化についても、再帰的な作用がある。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1989)	「走る」「泳ぐ」など、対応する他動詞形を持たない動詞も同様であり、「意図的な行為を表す自動詞すべてにおいて、動作主が行為をなすと同時に、その結果ある変化(例えば、空間が変わる)を被るという再帰的意味が働いている。
高橋太郎(1975)	再帰構文は「述語が補語といっしょになって、動作主体の動作を表わしている。いわば、両方がくみあわさって自動詞相当になっている。」と述べ、<手をあげる＝挙手する、あたまをたれる＝うなだれる、ぼうしをぬぐ＝脱帽する>というような、自動詞との対応が多いことがその裏付けであるとする。
須賀一好(1981)	「命を助ける」「命を助かる」の差異について、「助ケルのとる目的語はだれの命でもよく、助カルのとる目的語は動作の主体の命で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助ケルは、一般的な意味での他動詞であり、助カルは、特殊な意味での他動詞である。後者を再帰的他動詞と呼ぶ」と説明している。

このように、先行研究からみると、動作主体が非情物の場合、「風船が空にあがる」のようにある空間のなかでの移動や変化をあらわし、有情物の場合は「走る」「泳ぐ」など、動作主体の意図的な行為を表わす。さらに、「命を助かる」のように、動作主体の所属物を「ヲ各名詞」にとらえ、自動詞を使うことで「再帰性」を表わす場合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

3．研究方向

3.1　有情物主体の自動詞構文がもつ「再帰性」

荒井(1988)、浅山(1991)は、「風船が空にあがる」のような無情物主体の自動詞構文においても再帰的作用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が、本稿では、有情物主体の自動詞構文に限って「再帰性」の考察を行う。

3.2　動作主体の意図性や意思性と「再帰性」の関わり

ウェスリー(1989)は「走る」「泳ぐ」など意図的な行為を表わす自動詞すべてにおいても再帰的意味が働いていると指摘した。本稿では、動作主体の意図性や意思性との関わりで考察を行う。

3.3　ヲ各名詞が動作主体の所属物である場合に対応する自動詞

高橋(1975)が指摘した「あたまをたれる＝うなだれる」「帽子をぬぐ＝脱帽する」のように、ヲ各名詞が動作主体の所属物の場合に対応する自動詞を分析し、意図性や意思性との関わりで考察を行う。

3.4　「ヲ各名詞＋自動詞」構文と動作主体との関係」

須賀(1981)は「目をあく」の場合、ヲ各名詞である「「目」は動作主体に所属するものに限定される」と指摘した。また、「一郎が宿題をおわって野球をしに行った」のような場合、「「宿題」は動作主体に所属するものである」と説明しているが、「宿題」を動作主体の「所有物」と見なすべきであるか、それとも「事態の所有」と見なすべきかという点について分析を行う。

以上の4点を中心に自動詞における「再帰性」について考察を行いたい。自動詞の「再帰性」について否定する先行研究もあるが、筆者は再帰動詞を他動詞と自動詞をつなぐものとしてとらえており、自動詞の中でも「再帰性」の強い動詞から弱い動詞までの段階性をつ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本研究を行いたいと考えている。

参考文献

天野みどり（1987）「日本語における＜再帰性＞について―構文論的概念としての有効性の再検討―」『日本語と日本文学』7 筑波大学国語国文学会, pp.4-6.

荒井文雄 （1988） 「日本語動詞の概念構造と自・他動詞の派生規則」Sophia Linguistica26 上知大学

浅山佳郎 （1991） 「対応する他動詞を持つ自動詞の使役について」『秋草学園短期大学紀要8』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1989)「他動性とプロトタイプ論」『日本語学の新展開』くろしお出版, pp.214 -221.

須賀一好（1977）「自他違い―自動詞と目的語、そして自他の分類―」『馬淵和夫博士退官記念 国語学論集』大修館書店，pp.126-127

高橋太郎（1975）「文中にあらわれる所属関係の種々相」『国文学』103, pp.4-5.

仁田義雄（1982）「再帰動詞、再帰用法 ―Lexico-Syntaxの姿勢から―」『日本語教育』47 日本語教育学会, pp.84-90.

益岡新次郎・田窪行則（1989）『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pp.122-124.

村木新次郎（1989）「ヴォイス」『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第4券(上) 明治書院, pp.181-182.

Л.П. Мухаммад. Гос. ИРЯ им. А.С. Пушкина, Москва,
Пуса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Пусан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в самом начале моего доклада необходимо объяснить, зачем при описани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учебной аудитории (т.е. при обучени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в условиях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мне понадобилось поняти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и нельзя ли был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модель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учебного общения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более простым способом? Наверно, можно, однако для этого мне пришлось бы рассматривать множе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б их плюсах и минусах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условиях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Это долго и, на мой взгляд, далеко не оптимально. Я же, определив понятия, воспользуюсь феномен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в его оппозиции к феномену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ъясню моё понимание оптимизаци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учебного общения более простым способом.

По мнению культурологов и лингвистов, дискурс - эт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текст, в другом - речь, в третьем - речь, погружённая в жизнь, в четвёртом - жизнь,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речи, в пятом+ (Т.А. ван Дейк, Н.Д. Арутюнова, Ю.Е. Прохоров и т.д.). Я, вслед за Х.И.Мухаммадом, определяю дискурс как "жизнь, представленную теми или иными эксплицитными (вербальными и невербальными) и имплици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коммуникации. Дискурс может быть жёсткой структуры (здесь по жёсткости он приближен к тексту, т.е. "организован" и гибкой структуры (вплоть до образований со слаб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труктурой). В условиях аудитории можно различать: а)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 это хорош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чебной ситуации дискурс, дискурс жёсткой структуры, программирующий учебное общение на успе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анн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б)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и гибок, и жесток - существует во множестве вариантов. Ниже я буду описывать,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иногд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хотя и не весьм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иногда не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 другой -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Для начала попытаюсь дать кратк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участников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выделяя при этом самые существенные,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изнаки:

1. Участники нашего анализа - 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мотивирован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в тех или иных целях изучающие русский язык; б) иностранные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 российск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профессора, преподающие данный язык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Описыв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ситуацию,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я не случайно в качестве её участника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двинула именно студента. Каков же о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как же он мне, русскому человеку, преподавателю,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первых, я уже отмеч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мотивирован. Можно добавить: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мотивирован!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жёсткими условиями конкуренции, которая имеет мес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обенно сейчас, в услов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Сильная сторона этого фактора: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готов много трудиться, чтобы достичь успехов и иметь шанс получить работу в одной из известных больших компаний. Слабая сторона этого фактора: при неудачах (реальных, или мнимых) впадает в уныние, ввергает себя в стрессы, зачастую весьма пагубные для здоровь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ля д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есьма пагубным является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есьма укоренившейся "констатирующей" модели обучения, т.е. модели в которую заложена схема: студент учит, 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оценивает, констатирует результаты его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усилий. Весьма опасным при этом является начётнический стиль со стороны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наоборот, весьма плодотворным для данных учащихся являетс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едагогике успеха", когда студет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успех, каждый успешный его шаг отмечается и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со стороны преподавателя/профессора, а на неудачи нейтрализуются, вытесняются успехом, благоприятным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микроклиматом при данном, межкультурном, общении.

По культуре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хорошо воспитан (скажем так: гораздо лучше, чем наш русский школьник, или студент), уважает старших,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о касается родителей и учителя/преподавателя. Скромный, внимательный, сдержанный+ Такая его природная сторона,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качества характера, позволяют

избежать многих ошибок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в прошлом ребёнок и школьник) привык, согласно Конфуцию, серьёзно заниматься, подолгу работать с книг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учить наизусть многие учебные тексты. Книга для него - источник мудрости, поэтому, по его мнению (которое передаётся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письменные формы речи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устных. Устная речь - это привилегия старших, а младший в присутствии старшего должен показать свою воспитанность - молчанием. Правда, современная жизнь, особенно в больших городах с и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ой и "диалогом цивилизаций" несколько меняет эту схему, однако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слишком глубоко вкоренились в характере корейского учащегося, студента. В условиях не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аудиторного дискурса (ил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традиционно) отмеч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рансформирую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общении корейский студент редко вступает в устное общение, а если вступает, то его реактивные реплики (ответы-реакции на вопросы) более успешны, чем инициальные, когда самому приходится начинать диалог.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а) опору на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та (отмеченные выше). Преподавателю, организатору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опираться на проактивность учащегося: на ег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умение работать с книгой, с текстом, умение подготовить монолог и воспроизвести его на своем рабочем месте, а уж затем у доски, в своей публичной речи.

По природе корейский учащийся больше интроверт, чем экстраверт, т.е. он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направлен на свой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чем на улицу. Если он дружит - то это один, или несколько верных друзей, с которыми мо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душам". Отсюда таки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качества, как внимательность, глубина чувств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ая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в умении и желании оставаться "наедине с собой".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такое важное личностное каче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тудента, как его гибкость. Благодаря гибкости,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и чутк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в условиях настояще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а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ин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в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доминирует над ними) легко вступают в диалог и приобретают стратегии экстравертированной личности (о чё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поездки учащихся за рубеж,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Россию). Подчеркнём, традицион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у студента спонтанной устной речи и инициативности,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учащийся не наделён ролью старшего. В условиях же, когда он получает роль старшего, хорошо развиваются проактивность данного учащегося, умение доминировать и диктовать свою волю, а такж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формы реч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же дискурс в работе с данными учащимис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аралл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иалогических форм реч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 паре со своими однокурсниками, а затем и с учителем/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 природным свойствам личности следует также отнести и её когнитивный стиль. Когнитивный стиль корейского учащегося определяется умением и желанием глобально мыслить: видеть картину, ситуацию в целом, а не её отдельные части. Поэтому не случайно традиционный аудиторный дискур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боту с текстами - глобольными верб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Однако заучивание наизусть данных текстов весьма тормозит мысл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ащихся. Настоящ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шаговую интериоризацию текста и дальнейшую его трансформацию в монологической и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Первый шаг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учивание и репродукция микротекста. Второй - совместная 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опытка ег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третий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силами учащегося попытка видоизменить текст, сделать его "ближе к жизни", "своим". Третья - рассказать видоизменённый текст (в качестве монолога).

Я попыталась очень кратко выделить самые основные признаки построения профессором/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Как видим, при обуч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ащихся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центр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стоит личность учащегося, которая видится как субъект своей жизни и обучения; лучшая модел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 это открытая модель, в которой учащемуся на выбор даются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обучающей модели с учётом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личности в динамике её развития. Основу же базовой (инвариантной) модели составляют учебные стратегии, опирающиеся на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да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ащихся)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вающие слабые стороны данной лич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таких стратегий мне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а) опора на проактивность личности при дальнейшей "диалогизации" её

устной речи (развитие по лин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ости); б) опора на синтетический тип мышления с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е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от синтеза - к анализу". А также (в более поздний период): развитие компенсаторной стратегии: от анализа - к синтезу.

『삼국유사』 <안민가> 창작의 시대적 배경

-安史의 亂과 渤海 · 日本의 新羅침공계획 -

徐榮敎(중원대학교 박물관장)

1. 머리말

<안민가>는 8세기 중반 신라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충담사의 향가 작품이다. 최초 연구는 완전한 어학적 해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자에도 계속되고 있다.[1]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노래의 성격이 어느 정도 윤각을 들어내고 있다.

박노준은 이 노래가 경덕왕대 구국의 대방을 제시한 노래로 이해했다.[2] 김승찬은 유교의 왕도사상과 불교의 왕론법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전제왕권 시대의 교도시가로 보았다[3]

한편 창작자인 충담사 인물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그를 낭승으로 보았던 박노준의 평은 이렇다. “왕권이나 신권은 물론 민중 편에 치우치는 것조차 거부한, 이를테면 초연한 자세를 견지한 인물”로 본다. 여기에 대한 양면적인 비평이 최근에 있었다.

신영명은 이러한 견해는 사태를 지나치게 비정치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재고가 요청되는 사안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충담사가 권력투쟁을 피하고자 하는 중도좌파의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보면 일정한 의의를 가진 주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영명은 신라 중대의 정치 구조는 전제왕권 대 귀족연합 사이의 조화와 갈등으로 요약되며, 경덕왕대는 이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기로 보았다. 8세기 중반 경덕왕대에는 왕당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반왕당파가 존재했다는 그것이다.[4] 충담사는 중도좌파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5] **신라를 둘러싼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 없이, 경덕왕대 인물들의 왕당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반왕파 등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한다.[6]**

『삼국유사』(권2 경덕왕 충담사 조)는 경덕왕 즉위 24년(765) 3월 3일에 歸正門 樓에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담사를 영접하고 「안민가」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民을 편안하게 하기위한 노래가 지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시 신라백성들이 ‘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65년 이전 10년 동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안민가가 만들어진 시대적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나라의 근간의 뿌리

---

1) 양주동, 『신증 고가 연구』(일조각, 1965), 273~281면
서재극, 『증보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형설출판사, 1995), 21~24면
김완진, 『향가 해독법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73~75면.
황선엽, 「안민가 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2) 박노준, 『신라 가요의 연구』(열화당, 1982), 234면 참조.

3) 김승찬, 『신라 향가론』(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254면 참조.

4)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105~113면 여기서 그는 왕당파는 좌편향, 반왕당파는 우편향, 중도좌파는 중도 좌편향, 중도우파는 중도 우편향이란 용어로써 당대 정치사의 구도를 논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논고(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 『우리문학회 발표요지』 2010. 9.11 한림대)에서 그것을 수정해 왕당파, 반왕당파, 중도좌파, 중도우파로 바꿔 논의를 전개했다.

5)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114~116면 참조.

6) 이시기 친왕파 반왕파의 용어는 이기백,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68; 『新羅政治社會史 硏究』 일조각 1974.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김수태는 이를 신라 중대(신문왕-혜공왕-선덕왕) 전시기로 확대시켰다(김수태, 『新羅 中代 政治史硏究』 일조각, 1996).

를 흔들어 놓은 安思의 亂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었다.

2. 안사의 반란과 신라

「안민가」가 만들어진 10년 전인 755년부터, 중원(中原)에는 병란의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었다.『삼국사기』권9, 경덕왕 14년(755) 조를 보면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다(亡德寺塔動)"라고 하여 망덕사의 탑이 움직였다고 한다. 이것은 안사의 반란이 일어났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안록산은 천보 14년(755) 11월 9일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해 12월 12일 낙양을 점령했으며, 이듬해 정월 낙양에서 스스로 연국(燕國)황제라 칭했다. 756년 6월 8일 관중의 입구인 동관(東關)이 함락되면서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촉(사천)으로 달아났다.

이에 경덕왕은 현종이 피신해 있던 사천지방까지 사신을 파견한다.[7] 2년 후 당의 정세는 호전되기 시작했다. 757년 안록산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 안경서가 아버지 안록산을 죽이고 황제를 칭하자, 이 틈을 이용하여 당 숙종이 반격 태세를 가다듬어서 그 해 9월에 장안을, 10월에 낙양을 탈환했기 때문이다. 12월에는 맹장 사사명까지 당 조정에 투항했고, 이 시기의 당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다. 758년 6월에 사사명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정월 그는 위주(魏州)에서 연왕(燕王)을 칭했다. 759년 3월에 사사명은 무슨 암시를 받았는지 안록산의 아들 안경서를 자신의 군영으로 불러들여 죽이고 세력을 강화했다.

게다가 759년 말과 760년 초 한수(漢水)계곡과 양자강 중류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760년 말 양자강 하류지역으로 옮아갔다. 이러한 혼란은 그야말로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했으며, 적군과 아군의 구별조차 어려워졌다. 당시 당의 무정부상태는 끝이 보이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당의 총체적인 부도는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록산의 반란은 발해에 다녀온 오노노다모리(小野田守)에 의해 일본에 상세히 보고되었다. 그때가 758년 12월이었다(『속일본기』천평천황 2년 12월 조). 오노노다모리와 함께 일본에 온 발해사신 양승경(楊承慶) 일행은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저택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하여, 당이 신라를 지원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라 정벌을 모의했다고 여겨진다.[8]

3. 일본·발해의 신라협공계획

일본은 이후 발해와의 교섭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유지하면서 759년부터 구체적인 신라정토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파병규정(행군식)을 만들고, 여러 도(道)에 명령을 내려 3년 내에 500척의 병선을 건조하도록 하는 등 신라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761년에는 미농과 무장 2국의 소년 40명에게 신라어를 배우게 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도에 절도사(節度使) 체제를 강요하고 전투에 대비하도록 했다.[9]

---

7)『삼국사기』권9, 경덕왕 15년(756) 조[1]를 보면 경덕왕이 당현종이 사천으로 피난간 소식을 듣고, 사신을 파견하였다. 신라사신은 바다를 건너 중국 절강지역에 도착해서 다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천의 성도에 가서 조공했던 것이다.

8) 岸 俊男,『藤原仲麻呂』, 吉川弘文館, 1969. [이성시,『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김창석 옮김), 청년사, 1999, 106쪽에서 재인용]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일본이 신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신라조정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했다.『삼국사기』권9, 경덕왕 21년 5월 조를 보면 "오곡, 휴암, 한성, 장새, 지성, 덕곡의 6성을 쌓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라고 하여 신라는 북방을 요새화하여 발해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 경덕왕은 759년 백성들을 동원하여 가혹한 부역을 시켰던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 경계도 지속되었다.『속일본기』권25, 순인천황 8년(764) 7월 갑인(甲寅) 조를 보자. 일본측은 신라사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근래에 너희 나라(신라)에서 투화해온 백성들이 '본국(신라)에서는 군대를 내어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국이 쳐들어와 죄를 물을까 해서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의 허실이 어떠한가?"

신라가 해안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화한 신라 사람들을 통해 일본에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년의 평화기를 누렸던 백성들은 군대로 징발되었을 것이고, 요새를 구축하는데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중세와 역역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투화하는 자들도 속출했다.『속일본기』권22, 순인천황 3년(759) 9월 정묘(丁卯) 조를 보면 "근년에 신라에서 귀화하는 배들이 끊이지 않는데 부역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멀리 무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와……"라고 한다.

신영명이 해석한 <안민가> 구절 가운데 하나는 위의 사실과 정확히 부합된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10]

4. 신라 주변의 환경변화-중국동해안의 반독립 정권들, 藩鎭

762년 5월에 가서 다시 상황은 급 반전되어, 안사의 난은 고비를 지나 종결로 치달았다. 9월에 회흘(回紇)과 복고회은(僕孤懷恩)의 유목군대가 당군에 참여하자, 사조의의 반란군은 결정적으로 전투에서 밀리게 되고, 낙양을 포기했다.[11] 11월에 사조의는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763년 1월 이후에는 모든 군사를 잃고 해(奚)·거란으로 도망가다가 추격군에 몰리자 자살하고 만다.

사조의의 몰락으로 안사의 난은 근본적인 문제를 남긴 그대로 봉합되었다. 그렇다고 당에서 전란의 불길이 완전히 잦아든 것은 아니었다. 얼마 후 복고회은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복고회은은 북서부 삭방(朔方)의 사령관으로 안록산의 반란을 진압한 뒤 가장 강력한

---

9)"大宰府로 하여금 行軍式을 만들게 하였는데 장차 신라를 치려는 것이다."(『속일본기』 권22, 淳仁天皇 3년(759) 6월 壬子 조)
"大宰師 三品 船親王을 香椎廟에 보내어 신라를 치려는 상황을 아뢰었다."(『속일본기』 권22, 淳仁天皇 3년(759) 8월 己亥 조)
"배 500척을 만들게 했는데……3년 안에 마치도록 했으며,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속일본기』 권22, 淳仁天皇 3년(759) 9월 壬午 조)
"美濃 武藏 두 나라의 소년들에게 명하여 나라마다 20명씩 신라어를 배우게 하였다.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였다."(『속일본기』 권23, 淳仁天皇 5년(761) 정월 乙未 조)
"參議 종3위 武部卿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散位 外從 5位下 土師宿禰犬養을 香椎廟에 제물을 바쳤다.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켰다"라고 하였다.(『속일본기』 권22, 淳仁天皇 6년(762) 11월 庚寅 조)

10) 신영명은 여러가지 논의를 고려해 <안민가>를 다음과 같은 현대역으로 바꾸었다(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우리문학회 발표요지』2010. 9.11 한림대).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애라고 하실 때, 백성이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탄식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뭇 백성,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다울 수 있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11) 사사명은 761년 3월 자신의 아들 사조의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후 반란군은 사조의가 이끈다.

군사적 역량을 보유한 인물로 남아 있었다. 이 점을 우려한 당 조정은 보안예방책을 구실삼아 복고회은을 하동절도사로 임명하지 않았다.

763년 11월 토번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장안으로 진격했을 때 복고회은은 하동에 있는 삭방부대를 투입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토번은 장안을 점령해버렸고 황제는 동쪽의 선주(鄯州)쪽으로 달아났다. 이 사건은 이제 막 극심한 내란을 봉합하려던 당제국의 위신을 거침없이 추락시켰다.

복고회은은 삭방절도사에서 해임되었고, 영무(靈武)로 달아났다. 이듬해인 764년 가을에 토번군이 다시 당을 침략할 때 복고회은은 토번군의 안내역을 맡았다. 이때 토번군은 중국의 영토 깊숙이 들어왔으나 크게 선전하지는 못했다. 765년에도 복고회은은 토번과 여러 유목부족들을 모아 동맹을 맺고 중국 침공을 단행했다. 그 후 10년 동안 토번은 매년 가을 당제국의 변방을 공격했다. 토번의 위협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려던 당 조정의 노력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부하들은 완전히 토벌되지 않았고, 건재해 있었다. 당은 서쪽의 토번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동지나해 연안에 있던 안사의 부하들을 완전히 절멸할 수 없었다. 당조정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들도 당조정에 형식적으로 복종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이 기간 동안 신라와 인접한 중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반독립적 藩鎭들(안사의 부하 잔당들)은 자리를 잡아갔다. 신라에게 그것은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였다. 예전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지 못한 경덕왕은 어린 후계자 혜공왕을 염려하며 세상을 하직했다.

5. 맺음말

당나라가 끝이 보이지 않은 내란상태에 빠지자 일본과 발해는 신라를 협공하려 했다. 신라조정도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경덕왕은 759년 백성들을 동원하여 발해와의 접경지대를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삼국사기』를 보면 "오곡, 휴암, 한성, 장새, 지성, 덕곡의 6성을 쌓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 경계도 지속되었다.

『속일본기』를 보면 "근래에 신라에서 투화해온 백성들이 '신라가 군대를 내어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국이 침공할까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가 해안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화한 사람들을 통해 일본 당국에 보고되고 있었다.

100년의 평화기를 누렸던 백성들은 군대로 징발되었을 것이고, 요새를 구축하는데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중세와 역역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투화하는 자들도 속출했다. 『속일본기』를 보면 "근년에 신라에서 귀화하는 배들이 끊이지 않는데 부역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멀리 무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온다"라고 하고 있다. 경덕왕이 사망할 당시 신라백성들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다. 경덕왕은 세상을 하직하기 직전에 「안민가」를 짓게 했다(765년 6월 경덕왕 사망)

万葉の「蟬の声」歌一考

高龍煥(慶南情報大学)

1　万葉の「蟬」の歌

A)〔ヒグラシ〕

大伴家持晩**蟬**歌一首

隠耳　居者欝悒　奈具左武登　出立聞者　来鳴**日晩**　(8・1479)

詠**蟬**

黙然毛将有　時母鳴奈武　**日晩**乃　物念時爾　鳴管本名　(10・1964)

寄**蟬**

日倉足者　時常雖鳴　我恋　手弱女我者　不定哭　(10・1982)

詠蟬

暮影　来鳴**日晩之**　幾許　毎日聞跡　不足音可聞　(10・2157)

芽子花　咲有野邊　**日晩之**乃　鳴奈流共　秋風吹　(10・2231)

挽歌

挂纏毛　文恐　藤原　王都志弥美爾　人下　満雖有　君下　大座常　往向　年緒長　仕来君之御門乎　如天　仰而見乍　雖畏　思憑而　何時可聞　日足座而　十五月之　多田波思家武登　吾思　皇子命者　春避者　殖槻於上　遠人　待之下道湯　登之而　国見所遊　九月之　四具礼乃秋者　大殿之　砌志美弥爾　露負而　靡芽乎　珠手次　懸而所偲　三雪零冬朝者　刺楊　根張梓矣　御手二　所取賜而　所遊　我王矣　烟立　春**日暮**　喚犬追馬鏡雖見不飽者　万歳　如是霜欲得常　大船之　憑有時爾　涙言　目鴨迷　大殿矣　振放見者白細布　飾奉而　内日刺　宮舎人方　一云　者　雪穂　麻衣服者　夢鴨　現前鴨跡　雲入夜之　迷間　朝裳吉　城於道従　角障経　石村乎見乍　神葬　〃奉者　往道之　田付を不知　雖思　印乎無見　雖歎　奥香乎無見　御袖　往触之松矣　言不問　木雖在　荒玉之立月毎　天原　振放見管　珠手次　懸而思名　雖恐有　(13・3324)

由布佐礼婆　**比具良之**伎奈久　伊故麻山　古延弖曾安我久流　伊毛我目乎保里(15・3589)

右一首秦間満

故悲思気美　奈具左米可祢弖　**比具良之**能　奈久之麻可気爾　伊保利須流可母(15・3620)

伊麻欲理波　安伎豆吉奴良之　安思比奇能　夜麻末都可気爾　**日具良之**奈伎奴(15・3655)

日晩之乃　奈吉奴流登吉波　乎美奈敝之　佐伎多流野邊乎　遊吉追都見倍之(17・3951)

右一首大目秦忌寸八千嶋

B)〔せみ（蟬）〕安芸国長門嶋舶泊礒邊作歌五首

伊波婆之流　多伎毛登杼呂爾　鳴**蟬**乃　許恵乎之伎気婆　京師之於毛保由(15・3617)

右一首大石蓑麻呂

夏が来ると柿の木の濃い木蔭が庭をすべて覆う。こまかく砕いた金粉を篩にかけたような陽光の下、誰か一声命令したのか、紅い屋根と緑の木々のあいだで無数の透明な蟬の羽が突然陽気に動き出す。琴瑟（キンシツ）のような蟬の声が光と影のなかに流れ込み、まるで陽光の透明な手が万物の合奏を演奏しているようだ……。雨の後の蟬の声はさらに美しくて捨ておけない。

2　漢詩文における「蟬」

杜甫の詩に曰く：晨鐘雲外湿（朝の鐘声が雲の外側に湿っぽく響いている）。対照詩圣杜甫的五言律句《船下夔州郭宿雨湿不得上岸別王二十判官》一詩，描写相似的景色：

依沙宿舸船，石瀬月娟娟．
風起春灯乱，江鳴夜雨懸．
晨鐘云外湿，胜地石堂烟．
柔櫓軽鴎外，含凄覚汝賢．

只用了短短「晨鐘云外湿」五字，不但描写簡練，而且全詩観察物態事理更為丰富且深入．雨の後の蟬の声も、緑の潤いをゆっくりと散る白雲のあいだに揉み込んで酷暑の中に一片の清涼をもたらし、白居易[1]の『井底引銀瓶』（井底銀瓶を引く）のなかのすがすがしい詩句を思い起こさせる。

井底引銀瓶，銀瓶欲上糸縄絶。石上磨玉簪，玉簪欲成中央折。
瓶沉簪折知奈何？似妾今朝与君別。憶昔在家為女時，人言挙動有殊姿。
嬋娟両鬢秋蟬翼，宛転双蛾遠山色。笑随戯伴后園中，此時与君未相識。
妾弄青梅凭短墻，君騎白馬傍垂楊。墻頭馬上遥相顧，一見知君即断腸。
知君断腸共君語，君指南山松柏樹。感君松柏化為心，暗合双鬢逐君去。
到君家舎五六年，君家大人頻有言。聘則為妻奔是妾，不堪主祀奉苹蘩。
終知君家不可住，其奈出門无去処。豈无父母在高堂？亦有親情満故郷。
潜来更不通消息，今日悲羞帰不得。為君一日恩，誤妾百年身。
寄言痴小人家女，慎勿将身軽許人！井底引銀瓶来自：全唐詩

嬋娟両鬢秋蟬翼、宛転双蛾遠山色（美しい両鬢はセミのはねのようで、きれいな両の眉は遠山の色のようだ）。どうして中国詩人のおおくが蟬の声を悲しく痛切に描くのか。たとえば洛賓王[2]の『獄中詠蟬』（獄中に蟬を詠ず）のように、

西陸蟬声唱、南冠客思沈　不堪玄鬢影　来対白頭吟

太陽が西陸を行くといわれる秋が来て蟬が唄い始めると、異国で捕われの身となっている私の心に旅の憂いが侵み込んで来る。高潔だといわれる黒い美しい翅を持った蟬がやって来て、自分の潔白を訴えて歌

1）白居易（772－846）字楽天，号香山居士，今陕西渭南人。早年熱心済世，強調詩歌的政治功能，并力求通俗，所作《新楽府》、《秦中吟》共六十首，確実做到了“唯歌生民病”、“句句必尽規”，与杜甫的“三吏
http://www.cidianwang.com/shici/j/jingdiyinyinping3973.htm

2）獄中咏蟬西陸蟬声唱，南冠客思侵。
那堪玄鬢影，来対白頭吟。
露重飛難進，風多響易沉。
无人信高洁，誰為表予心.
西陸：指秋天。南冠：指囚犯。
玄鬢：即蟬鬢。古代婦女的鬢発梳得薄如蟬翼，看上去像蟬翼的影子，故玄鬢即指蟬。
高洁：指蟬，其実是自喩。
駱賓王，姓駱,字観光,名賓王，婺州義烏人（今中国浙江義烏）人。他幼年就才華出衆，高宗永徽年間（650－655年）為道王李元慶府属，后以奉礼郎従軍西域，久戍邊疆。儀鳳中（676－679年），由長安主簿入朝為侍御史，因上書議論政事，触忤武則天下獄，貶臨海県丞，悒悒不得志，乃弃官而去。這首咏物詩，名為咏蟬，実為自表心迹。詩人抒写了因无罪被誣，无人相信自己的高洁而為之弁白的憂憤。但憂憤之中又有着超然的心態，不愿与俗流為伍。http://cul.zhishi.sohu.com/question/67519679.html

う私の白頭吟の歌を聞いてくれるのを見ると、とてもたまらない気持ちだ。

李商隠の『韓弘舎人即事』では　鳥応悲蜀帝、蟬是怨斉王（鳥は蜀帝を悲しんでいると思い、蟬は斉王を怨んでいるだろう)

李商隠の詩は韓弘と柳氏との悲歓離合の故事を詠っている。ついでに「斉后化蟬」の典故を引用する。晋の崔豹の『問答釈意』のなかに書かれていることによると：牛享問うて曰く「蟬の名、斉女なる者は何ぞや？」

答えて曰く「斉王后怒して死す。屍変りて蟬と為り、庭樹に登り、彗涙して鳴く。王悔恨す。故に世名して曰く斉女なり」まさに蟬の声を、恨みを抱いて死んだ女の哀しい声にたとえているのだから、その蟬の声も悲しいものだ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

ある日の夕方、長い林の道を歩いていた。突然、露にしみこまれたようなかすれた蟬の声が幾層にもなった厚い葉の中から重々しく漏れ出て来た。そして風に吹かれてとぎれとぎれに鳴き続けた。私の心はさっと震え、洛賓王の詩句がわけも無く口から出てきた。

露重くして飛ぶも進み難く、風多くして響き沈み易し。

これと対比される『万葉集』のなかに三首、蟬を詠った詩がある。

巻第十に　夕影に来鳴くひぐらしここだくも日ごとに聞けど飽かぬ声かも

夕方のかすかな光の中に来て鳴いているひぐらし、このひぐらしはこんなにも毎日毎日聞いても決して飽きることのない声だ

ひぐらしは時と鳴けども片恋にたわや女我れは時わかず泣く

ひぐらしは今こそ我が時とばかり鳴いているけれども、片思い故にか弱い女であるこの私は、一日中泣き濡れている。

とある。巻第十五では 石走る滝もとどろに鳴く蟬の声をし聞けば都し思ほゆ

岩に激する滝の轟くばかりに鳴きしきる蟬、その蟬の声を聞くと都が思い出されるがある。日本の詩人が蟬を詠うとき、また非常に面白いことに出会うことが出来る。それはつまり、日本の詩人がよく言う"ヒグラシ"蟬で、日本人も中国人と同じく蟬を詠う時は常に悲しみを帯びる。日本語の中で、“ひぐらし蟬”と夕方を意味する“日暮”の発音が同じなのである。

3　蟬声が喚び起こすイマジネーション

昔から今まで、文明の古い国の中国、少なからずの文士墨客は蟬を賛美することを惜しまなかった。晋代詩人の郭璞はすぐ《蟬賛》が作詩すれば：“虫の清潔さ、貴ぶきはこれ蟬、潜の蛻は穢を捨てて、露の恒鮮を飲む。”と、書き出した蟬の汚れから出してそれで染まらないこと、それで吸入する露の潔さからの美を古人は常に蟬をもって喩え、上品な人格の化身であると表現したのである。

夏の大自然の激しい日光の下で蟬の鳴き声が織り成す合唱は疲れ飽きることを知らない。林の梢で夏の前奏曲を奏ではじめ、それが終わると夏季も終わる。歩行者専用道路を介して植えた街路樹のあちこちにはこの隠居者の清い唄に倦怠感までもふるい落とされる。それは恰も希望の暑い季節に燃えるような自信のある高い声をもって力強く歌える。

蟬の黒の体躯に与えて、それはかえって光明を歌唱するために用いる！それはまだ飛ぶ鳥種類の薄翼を擁して、光明が飛んで走ることに向かっている。蟬（手）音は起きて私の心はいっそう／の歌声が会の君とぼくの愛を交わすとわかる”はよい慧の歌声は同様に舞台に出ることの見栄の風の彩を賛美している。

長い林の道を歩いていた時に、突然、露にしみこまれたようなかすれた蟬の声が幾層にもなった厚い葉の中から重々しく漏れ出て来た。そして風に吹かれてとぎれとぎれに鳴き続けた。私の心はさっと震え、洛賓王

の詩句がわけも無く口から出てきた。露重くして飛ぶも進み難く、風多くして響き沈み易し。これはつまり日本の詩人がよく言う"ヒグラシ"蝉で、日本人も中国人と同じく蝉を詠う時は常に悲しみを帯びていることが知られる。

4　結びに代えて

古今以来、蝉の声は多くの詩人達をして感傷的な優美の詩歌を書かせたのだ。蝉の鳴き声が様々な異なる種類の生の感慨を喚び起こさせる。白居易のように郷愁をにわかに想起させる詩もあるが、元々蝉の鳴き声は「愁」とは無関係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しかしながらも多くの詩人たちは却って蝉の声に「愁」を感じて詩作するのである。これはただ詩人自らの悩みの反映かも知れないが、詩心の中に「愁」を詠み取ることができようと思う。

このように、詩文における「蝉」の心象と対比される『万葉集』の三首の「蝉の歌」を提示してみた。巻第十に、夕影に来鳴くひぐらしここだくも日ごとに聞けど飽かぬ声かも「暮影　来鳴**日晩之**　幾許　毎日聞跡　　不足音可聞(10・2157)」（夕方のかすかな光の中に来て鳴いているひぐらし、このひぐらしはこんなにも毎日毎日聞いても決して飽きることのない声だ。）「**日倉足**者　時常雖鳴　我恋　手弱女我者不定哭(10・1982)」ひぐらしは時と鳴けども片恋にたわや女我れは時わかず泣く（ひぐらしは今こそ我が時とばかり鳴いているけれども、片思い故にか弱い女であるこの私は、一日中泣き濡れている。）

巻第十五では　石走る滝もとどろに鳴く蝉の声をし聞けば都し思ほゆ「伊波婆之流　多伎毛登杼呂爾鳴**蟬**乃　　許恵乎之伎気婆　　京師之於毛保由(15・3617)」（岩に激する滝の轟くばかりに鳴きしきる蝉、その蝉の声を聞くと都が思い出される）がある。日本の詩人が蝉を詠うとき、またもや非常に面白いことに出会うことが出来る。

『만요슈(万葉集)』에 나타난 안개의 미적 표현

옥상미(부산외국어대학교)

서론

안개는 날씨가 좋은 날 자주 끼게 마련이다. 가을에 안개가 끼는 날은 날씨가 쾌청하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 벼가 잘 익고 풍년이 든다. 흔히 '가을 안개에는 곡식이 늘고, 봄 안개에는 곡식이 준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을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따뜻하여 곡식이 잘 영글어 수확량이 늘게 되고, 봄 안개에는 심한 기온차로 자라는 보리에 병을 발생시켜 수확량이 감소된다는 뜻이다. 고대 농경중심 사회에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제와 농작물의 풍요가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1]에 안개가 고대부터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학자들이 말하는 안개의 아름다움이란 우수(憂愁)를 머금은 섬세하고 낭만적인 미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천 수백년 전의 만요시대에도 거의 같은 정서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해석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륙문화의 모방에서 온 이해였는지는 확실히 단언할 수 없지만 반투명한 시각에서 대상을 확실히 감지하지 못한 채 느끼는 우수(憂愁)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안개는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봄은 하(霞), 가을은 무(霧)로 오늘날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상대(上代) 때는 계절의 확실한 구분 없이 쓰이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만요슈(万葉集)』를 살펴보면 「霧」가 가을의 풍물로 명시된 것은 78수 중 23수, 봄을 명시한 것은 6수가 있고 「霞」가 봄의 풍물로 명시된 것은 79수중 61수나 있고 가을을 읊은 것은 단 1수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보면 만요인은 「霞」를 봄의 풍물로 「霧」를 가을의 풍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대세였다. 「雲」과 「霞」와 「霧」는 그 실체는 같지만 「雲」은 거리를 두고 취급한 것이고, 「霧」는 자신까지도 휩싸여 버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雲」과 「霞」는「棚引く[2]」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霧」는 적었으며「立ち籠める[3]」하는 것으로 결합을 이루며 사용되었다.

『만요슈(万葉集)』에는 안개는 총 146회의 빈도로 읊어졌다. 「霧」의 경우는 「霧(36회)」,「朝霧(12회)」,「天つ霧(6회)」,「夕霧(9회)」,「夜霧(4회)」등으로 나타났다. 단 1회의 용례로 나타난 경우는「山霧」,「川霧」,「水霧」,「雨霧」,「翼霧」,「雲霧」,「海霧」,「谷霧」등 다양한 용례를 보이며 발생한 장소에 따라 「山霧」,「海霧」,「谷霧」,「川霧」등으로, 발생한 시각에 따라 「朝霧」,「夕霧」,「夜霧」등으로 나타났다. 「霞」의 경우는 「霞(45회)」,「春霞(19회)」,「朝霞(5회)」,「煙霞(2회)」등으로 나타났다.

『만요슈(万葉集)』에서 안개와 관련을 맺고 많은 자연소재가 함께 취합되어 읊어졌다. 이렇듯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이 스며든 안개를 통하여 당대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생업의 애환을 구가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본 발표의 의의로 삼고자 하며, 따라서 『만요슈(万葉集)』에 나타난 안개 소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

1) 김양희(2004), 「『신코킨와카슈』연구-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p.121.
2) (구름・안개 등이) 가로로 기다랗게 끼다.
3) (연기・안개 등이) 자욱이 끼다.

본론

1. 안개와 자연관(自然観)

1) 안개와 봄의 도래

봄안개 낀 신춘을 오늘처럼 매년 본다면 즐겁다고 생각한다.
可須美多都　春初乎　家布能其等　見牟登於毛倍波　多努之等曾毛布
霞立つ春の初めを今日のごと見むと思へば楽しとそ思ふ
(大伴宿祢池, 巻二十, 4300)

봄은 것 같다 가스가산에는 봄안개 끼였다 어두운 밤에 봐도.
鶯之　春成良思　春日山　霞棚引　夜目見侶
うぐひすの春になるらし春日山霞たなびく夜目に見れども
(巻十, 1845)

봄안개 끼어있는 들녘의 위쪽에 가 보았더니 휘파람새 울었다 봄이 된 것 같구나.
霞立　野上乃方爾　行之可波　鶯鳴都　春爾成良思
霞立つ野の上の方に行きしかばうぐひす鳴きつ春になるらし
(丹比真人乙麻呂, 巻八, 1443)

2) 안개와 가을의 도래

봄이 오면 봄안개에 숨어서 보이지 않던 가을 싸리 피었다 꺾어 머리에 꽂자.
春去者　霞隠　不所見有師　秋芽子咲　折而将挿頭
春されば霞隠りて見えざりし秋萩咲きぬ折りてかざさむ
(巻十, 2105)

2. 안개와 인생관(人生観)

1) 안개와 연정

저 소녀의 이름 관련짓고 싶다 아사즈마의 산의 경사진 곳에 봄안개 끼여 있다.
子等名丹　関之宜　朝妻之　片山木之爾　霞多奈引
児らが名にかけの宜しき朝妻の片山に霞たなびく
(柿本人麻呂, 巻十, 1818)

2) 안개와 비애

봄안개가 자욱한 날로부터 오늘까지도 내 사랑 안멈춘다 마음이 어지러워.
春霞　立爾之日従　至今日　吾恋不止　本之繁家波　〈一云、片念爾指天〉
春霞立ちに日より今日までに我が恋止まず本の繁けば〈一に云ふ、「片思にして」〉
(巻十, 1910)

3) 안개와 그리움

단지 몇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움은 요시노의 강의 안개되어 나타난다.
茜刺　日不並二　吾恋　吉野之河乃　霧丹立乍
あかねさす日並べなくに我が恋は吉野の川の霧に立ちつつ
(巻六, 916)

4) 안개와 방황

봄산 자욱한 안개에 망설인다 휘파람새도 나보다도 그 이상 갈피를 못 잡을까.
春山　霧惑在　鷯　我益　物念哉
春山の霧に迷へるうぐひすも我れにまさりても物思はめやも
(巻十, 1892)

5) 안개와 여수

큰 바다에 봄안개가 자욱하고 학 울음소리 애절한 밤은 더욱 고향이 생각난다.
宇奈波良爾　霞多奈妣伎　多頭我祢乃　可奈之伎与比波　久爾弊之於毛保由
海原に霞たなびき鶴がねの悲しき夕は国辺し思ほゆ
(巻二十, 4399)

3. 안개와 사생관(死生観)

1) 안개와 죽음

저녁안개 속 많은 새 울고 있다 사호의 길은 황폐해갈 것이다 볼 기회도 없기에.
由布義理爾　知杼里乃奈吉志　佐保治乎婆　安良之也之弖牟　美流与之乎奈美
夕霧に千鳥の鳴きし佐保道をば荒しやしてむ見るよしをなみ
(円方女王, 巻二十, 4477)

2) 안개와 연기

이즈모 소녀 안개인 것인가 요시노산 봉우리 길다랗게 끼여져 있는 안개.
山際従　出雲児等者　霧有哉　吉野山　嶺霏微
山のまゆ出雲の児らは霧なれや吉野の山の嶺にたなびく
(柿本人麻呂, 巻三, 429)

결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서를 가진다. 본 발표는 『만요슈(万葉集)』의 기상소재 중 「霞」와 「霧」에 대해 고대 만요인은 어떠한 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현대인들이 우수에 찬 런던 다리를 떠 올리는 '안개(霞, 霧)'라는 소재를 분석해 본 결과, 안개와 자연관에는 안개와 봄의 도래에서 산과 휘파람새와의 배합을 나타내었고 특히 「霞」는 봄의 징조로서 즐거움의

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가을의 풍물인 싸리꽃과 기러기의 배합을 통해 가을의 도래를 노래하였다. 안개와 인생관에는 연정, 비애, 그리움, 방황, 여수 등으로 나타났다. 안개와 사생관에는 죽음, 연기 등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임성철(2005) 『만요슈와 고시조의 화조풍월』, 제이앤씨.

_____(2002) 『일본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제이앤씨.

김양희(2004)「『신코킨와카슈』연구-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수(1990) 『죽음이란 무엇인가-윤회와 불사의 길-』, 도서출판 窓.

西村亨(1989) 『王朝びとの四季』, 講談社(学術文庫392).

川村幸次郎(1981) 『万葉の美意識』、 笠間選書.

大久保正(1980) 『万葉集の諸相』、 明治書院.

小島憲之(外)校主(1971) 『万葉集』(1~4)(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가면의 고백(仮面の告白)』시론(試論)
-에피그래프를 실마리로 하여-

최은경(부산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1926-1970:이하 미시마로 표기)의『가면의 고백』은 그의 문학적 출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중의 에피소드가 실제 작가와 중복되는 사실로 확인되면서 반자전적 소설로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미시마의 생애와 그의 문학의 전반을 이해하고 예견하는 텍스트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장문의 에피그래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본문과 연결시켜서 고찰하는 논문도 발견되지 않는다. 본 발표에서는 이제껏 간과되어 왔던 에피그래프의 역할에 주목하여 작품을 다시 읽어가려고 한다. 즉, 권두의 에피그래프를 실마리로 하여 '가면의 고백'이라는 난해하고 모순된 제목의 소설을 해석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고백'의 유효성보다는 '나'의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나'의 유소년 시절의 특별한 기억들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로 접근해가려고 한다.

2. 본론

1) 확장되는 에피그래프(epigraph)

아름다움(美)—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섬뜩하고도 끔찍한 것이야! 즉, 뭐라고 딱히 정의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 왜냐면 신은 인간에게 수수께끼만 내놓고 있어. 아름다움 속에서는 양쪽의 언덕이 하나로 만나 모든 모순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야.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이 일은 충분히 생각했던 것이야. 실로 신비는 무한해! 이 지구 위에서는 꽤나 많은 수수께끼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 이 수수께끼가 풀린다면 그것은 젖지 않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아 아름다움이란! 게다가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과 뛰어난 이상을 가진 훌륭한 인간마저도 자주 성모(마돈나)의 이상을 품고 나아가면서 결국 악행(소돔)의 이상을 갖고 끝난다는 것이다. 아니 아직 더 끔찍한 것이 있어. 즉 소돔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인간이 동시에 마돈나의 이상을 부정하지 않고 마치 순결한 청년시절과 같이 진실로 아름다운 이상의 동경을 마음에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아니 실로 인간의 마음은 넓어. 너무 넓을 정도다. 나는 가능하다면 조금 줄여보고 싶어. 젠장,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로! 이성의 눈으로 오욕으로 보이는 것이 감정의 눈에는 훌륭한 아름다움으로 보이니까. 도대체 소돔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일까?……그러나, 인간이란 자신의 아픈 곳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니까.(p.162)—도스토예프스키「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제3편의 제3, 열렬한 마음의 참회—시(詩)

(본문은『三島由紀夫全集第三巻』(新潮社, 1973) 에서 인용했으며 괄호 안은 페이지 수를 표시한다. 한국어번역은 논자에 의함. 이하 동일)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권두의 문장은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의『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부분으로 내용을 훑어보면 아름다움이 두려운 것은 마돈나와 소돔의 모순이 공존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미주의적인 예술론의 언설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소돔(Sodom)은 성적 문란 및 도덕적 퇴폐가 만연하여 멸망한 도시로, 도덕적 부패와 성적 착란 등의 비유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와 소년애 등 자연을 거스르는 성적 背理행위로 표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소돔 사람들'이라는 소도마이트(sodomite)가 남색자(동성애)의 뜻인 것만 봐도 소돔이란 동성애적 성향의 '나'란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시마는「『가면의 고백』노트」에서 “살까지 파고든 가면, 살에 붙은 가면만이 고백할 수 있”으며, 고백의 본질은 “불가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목을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이고 있다.

나는 무익하고 정교한 하나의 역설이다. (중략) 나는 자신이 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는 시 자체일지도 모른다. 시 그것은 인류의 치부(恥部)(섹스)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위에서 보듯이 ‘나’란 존재를 “역설” “시” 혹은 “인류의 치부(섹스)”라고 서술하고 있다. 작가가 굳이 “치부”를 “섹스”라고 표기한 것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시마는『가면의 고백』을 발표한 뒤에 “나는 겨우 詩의 실체를 안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며, “소년시대에 그렇게 나를 설레게 하고 뒤에 그만큼 나를 괴롭혀 온 시는 실은 가짜의 시이고 서정의 악취였던 것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에피그래프의 제목이 “열렬한 마음의 참회—시(詩)” 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시마가 말하고자 하는 “시”라는 것은 결국 에피그래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아닐까. 詩는 미시마 혹은 ‘나’의 일종의 대체어로서 본문 안팎에서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듯 에피그래프는『가면의 고백』의 권두에 자리하면서 작품의 한 부분으로, 혹은 작품과는 별개로 본문의 안팎으로 확장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나”를 지배하는 “기억”들

『가면의 고백』은 주인공 ‘나’가 기억하고 있는 출생할 때의 묘사로 시작되고 있다.

오랫동안 나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광경을 본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중략)웃는 어른들은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설득하려는 것이 보통이었다.(중략)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또 아무리 웃음을 사도 나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광경을 봤다고 하는 체험이 믿어질 뿐이었다.(p p .163-164)

이러한 서술은 보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강렬한 현실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타인에게서는 더욱 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결국 ‘나’를 이해받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비극”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나’는 조모의 유별난 편애를 받으며, 2층의 부모와는 떨어져 조모와 하녀, 그리고 사촌여자애들 속에서 성장한다. 여자들만의 양육환경은 특이하다고 할 만하며, 이것은 ‘나’의 성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는 ‘나’는 “반생(半生)을 힘들게 위협해 왔던” 유소년기의 몇몇 기억의 影像을 고백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묘사로 표현되어 있다.

최초의 기억, 이상한 확실한 영상으로 나를 고민하게 하는 기억이 그쯤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한 사람의 젊은이였다. 오물통을 앞뒤로 지고 더러워진 수건으로 머리띠를 하고 혈색 좋은 아름다운 뺨과 빛나는 눈을 가진, 발로 무게를 밟으며 지탱해가면서 언덕을 내려왔다. 그것은 오물수거인-분뇨수거인-이었다. 그는 작업화를 신고 감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중략) 그것이 오물수거인의 모습에 처음으로 현현한 것은 우유적(寓喩的)(알레고리컬)이다. 왜냐면 분뇨는 대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린 것은 뿌리의 어머니의 악의 있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pp.167-168)

‘나’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분뇨수거인의 “아름다운 뺨과 빛나는 눈”을 찾아낸다. 특히 작업복 바지(股引)를 입은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은 다섯 살 난 아이의 시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진지하고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있어서 생경스런 분뇨수거인의 모습은 ‘나’의 세계와는 철저히 구획되어 범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상되어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업의 “비극성”은 젊은 육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나’는 그를 보고 처음으로 ‘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첫 기억이 있다. (중략) 그 그림이라는 것은 백마에 올라타고 칼을 쳐들고 있는 잔 다르크였다. (중략) 그는 아름다운 얼굴을 투구에서 엿보이며 늠름하게 빼든 칼을 푸른 하늘에 휘두르며 ‘죽음’으로인지 어찌됐든 불길한 힘을 가진 날아가는 대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p.170)

—또한 하나의 기억 (중략) 병사들의 땀 냄새, 그 바닷바람과 같은 황금에 익은 바다 기슭의 공기와 같은 냄새, 그 냄새가 나의 콧구멍에 전해져 나의 첫 냄새의 기억은 이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냄새는 물론 바로 성적인 쾌감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병사들의 운명, 그들의 직업의 비극성, 그들의 죽음, 그들이 봤던 먼 나라들, 그러한 것으로의 관능적인 욕구를 그것이 내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뿌리 깊게 눈뜨게 했다.(p.173)

잔 다르크에서 ‘나’가 발견한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비극성”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성”은 두말할 것 없이 아름다운 육체를 소유한 남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는 “병사들의 땀 냄새”에서도 “관능적인 욕구”를 인식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년시절 ‘나’의 정교하고도 선명한 기억들은 소년시절의 동성애적 성향의 ‘나’로 인도하며, 훗날 청년시절에 있어서 이성애의 불가능성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병약한 아이로서의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젊은이들의 운명과 직업의 비극성으로 인해 관능적인 욕구에 눈떠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욕망”은 다음의 “성 세바스찬의 순교”라는 그림을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3) “성 세바스찬의 순교”—미완의 “산문시(散文詩)”

어느 날 ‘나’는 감기로 학교를 쉬게 되어 우연히 아버지가 소장한 명화집을 보게 된다. 그 속에서 ‘나’는 전율이 느낄 만큼 강렬한 그림 한 점과 대면하게 된다. 그것은 귀도 레니의 “성 세바스찬의 순교”라는 명화이다.

나온 가슴에도 단단한 복부에도 조금 몸을 비튼 허리쯤에도 떠도는 것은 고통은 아니고 뭔가 음악과 같은 우울한 일락의 동요였다. (중략) 화살은 그의 단단한 향기 높은 청춘의 육체로 파고들어 그의 육체를 무상의 고통과 환희의 불로 내부에서 불태우려고 하고 있었다.(pp.190-191)

성자의 얼굴은 마치 소년처럼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이 모호할 정도로 중성적인 이미지가 감돌고 있다. 그런 희고 고운 얼굴에 비해 상반신은 너무나도 건장한 남자의 육체이다. 또한 그림 속 세바스찬은 화살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 벌어진 입과 하늘을 응시하는 눈매는 마치 성적 희열을 느끼고 있는 모습에 가깝게 보인다. 한편,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이는 화살은 男根의 도상학적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유명한 베르니니의 “성 테레지아의 법열”이라는 조각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조르쥬 바타유는 “성 테레지아의 법열”에서 “性의 聖스런 성격과 신비적인 삶의 性

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단순히 성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않고 신비한 내적체험에까지 이르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 세바스찬의 순교"에서도 聖스런 모습에 교차되는 性적인 이미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그림을 본 순간, 나의 전존재는 혹은 이교적인 환희에 흔들렸다. 나의 혈액은 치솟고 나의 기관은 분노의 색을 띄었다. 이 거대한 부풀어 터질 듯이 되었던 나의 일부는 지금까지 없이 심하게 나의 행위를 기다려 나의 무지를 힐난하고 화내며 숨 쉬고 있었다. 나의 손은 모르는 새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던 동작을 시작했다. (중략) 이것이 나의 첫ejaclatio(논자 주:사정)이고, 또 첫 서툴고 돌발적인 '악습'이었다. (p.191)

한 장의 그림은 '나'의 성장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사춘기 시절 동급생 近江라는 인물에게서 세바스찬의 육체와 동질성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그는 나의 첫 사랑의 대상으로 부상해 오는 것이다. 다음은 '나'가 명명한 "산문시"이다.

「젊은 성자가 뒷손이 묶여져 그 줄기에 비 온 뒤의 물방울 같이 성스런 심하게 피를 흘린 나무는. 말기의 고통에 격동하는 그 젊은 몸을, (그것은 아마도 지상의 온갖 쾌락과 고민의 마지막 증거,) 그가 험하게 부딪히며 몸부림쳤던 로마의 나무는?」 (중략) 세바스찬-젊은 근위병의 대장—이 나타낸 아름다움은 죽임을 당할 아름다움은 아니었을까. 로마의 피가 떨어지는 멋진 몸과 뼈를 움직이는 미주(美酒)의 맛에 오감을 키운 건강한 여자들은 그자신이 아직 모르는 흉흉한 운명을 일찍 깨닫고 그래서 그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을까. (pp.193-194)

'나'에게 있어서 그림 속의 세바스찬은 사춘기 소년의 '나'와 함께 성장하며 항상적으로 동경과 관능의 대상으로 위치하게 된다. 귀도 레니의 "성 세바스찬의 순교"의 도상이야말로 '나'가 생각하는 궁극적 美의 구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나오는 말

미시마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다도 어떻게 감출까 하는 방법에 의해 문학생활을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작품 속 '나'는 본문 제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가 한명의 남자아이라는 것은 말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사이에 요구받고 있었다. 마음에 없는 연기가 시작되었다. 남의 눈에 나의 연기라고 비춰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본질로 돌아가려는 요구의 표현이고 남의 눈에 자연스런 나로 비춰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연기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때부터 어렴풋이 나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p.182)

만약 '나'는 태생적 남자이나 본질적 문화적 여자로 규정한다면 양성구유(兩性具有)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피그래프가 '나'의 본질에 관한 고백의 전제로서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마돈나의 모순이 공존하는 美의 정의도 양성구유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나'의 궁극적 동경의 대상으로 구현된 '성 세바스찬의 순교'의 성별이 모호한 성자의 모습과 聖과 性이 교차하는 도상 역시도 일종의 양성구유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선상에서 '가면의 고백'이라는 모순된 제목 역시도 양성구유적 존재인 '나'를 은유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가면의 고백』은 '나'의 "관능적인 격심한 환희"를 표현한 긴 산문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안팎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詩라는 단어는 마돈나의 이상에만 아름다움을

한정하는 세상을 향한, 소돔의 아름다움을 환기하는 '나'의 고백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성의 텍스트에 나타난 '인양(引揚げ)'과 '귀환(歸還)'

조은애(동국대학교)

1. 시작하며

이 글은 제국 일본의 해체와 사할린으로부터의 '인양(引揚げ)' 체험에 바탕을 둔 이회성의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이하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에 있어 '인양'과 '귀환'이라는 역사적 용어가 갖는 중요성과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양'과 '귀환'은 각각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해체와 함께 대규모로 일어난 '이동'의 특정한 형태들을 일컫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표현이다. 이 두 개념이 결코 등가의 범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 용어들 속에 담긴 정치적 무의식은 그것이 제국의 해체 후 국민국가로의 지정학적 재편과 필연적으로 연동하는 지리적·심상적 '복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제국의 해체 이후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체제를 노정한 "새로운 동시대사의 출발"[1]에 있어, '인양'과 '귀환'이라는 이동은 그 필수조건 혹은 전사(前史)쯤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패전/해방 이후 일본의 '인양' 서사와 한국의 '귀환' 서사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총체성의 붕괴와 근대적 영웅의 모험·수난, 그리고 국민국가의 발견과 귀속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갔다. 그것은 비단 패전/해방 직후의 텍스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그러한 서사들의 '축적' 속에서, 한 재일조선인 작가는 '인양'이라는 표면적 사실과 '귀환'이라는 당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년기의 체험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3]

---

1)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창비, 2009.

2) 1949년 藤原てい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1950년대 "치유로서의 글쓰기"의 일환으로서의 인양 서사가 출간되었으며(오미정, 「일본전후문학에 나타난 '귀환' 체험」,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7, 253면), 1950년대 말의 '전후' 논쟁 이후 10여년이 지난 1970-80년대에 출판된 증언·사진집 등의 인양에 관한 기록물들은 '포스트 전후' 담론 안에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재생과 결부되어 읽혔다(박광현, 「인양 서사란 무엇인가」, 『플랫폼』 통권20호, 인천문화재단, 2010. 3, 31-32면).
한편, 한국에서의 '귀환 서사'에 관한 연구 경향은 해방기의 출판물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국민국가의 국민, 혹은 '조선인-되기'에 있어서의 '제의'나 '통과 의례', '정화 의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각각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 제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6;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귀환 의례'의 메커니즘과 귀환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집, 우리어문학회, 2009. 1).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당위와의 관련(물론 그 안에서도 국민국가로의 귀속과 국가권력에 의한 새로운 난민·디아스포라의 탄생의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후자에 대해서는 정재석의 논문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으며, 이 점에 좀더 주목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29집, 상허학회, 2010. 참조) 아래 해방기 '귀환' 담론의 자장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회성의 텍스트가 '인양'에 관한 체험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은 成田龍一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이회성의 「またふたたびの道」(『群像』, 1968)를 통해 기존의 고향관을 전복시키는 '고향'과 국가, '고향'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정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成田龍一, 「'고향'이라는 이야기·再說」, 『한국문학연구』 3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6).

3) 그의 일본문단 등단작인 「またふたたびの道」에서부터 그 체험은 작품의 중요한 '원점'이 되었으며, 이후 에세이풍의 「私のサハリン」(『群像』, 1972)과 『サハリンへの旅』(『群像』, 1982-1983), 그리고 장편소설 『百年の旅人たち』(『新潮』, 1994)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경계를 횡단하여 그의 '인양' 체험에 대한 반복/고쳐쓰기가 시도

패전/해방 직후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생산된 '인양'/'귀환'에 관한 서사 속에서, 지난한 이동의 여정을 거친 끝에 새롭게 시작될 삶은 물론 수많은 차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각기 다른 흐름들은 패전/해방과 함께 선험적인 것으로 인식된 국민국가 내부에서의 삶을 표상한다. 또한 각각의 역사적 삶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형성된 '식민지적 관계'를 망각하는 과정을 수반한 것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국민국가의 건설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은 양국의 정치주체들, 그리고 전쟁책임 문제보다 냉전구도로의 세계적 재편 속에서 일본과 조선에 대한 군사점령의 효율성을 더욱 고려했던 연합국군 특히 미군의 묵인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회성의 텍스트를 포함한 전후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의 형상에 관한 서사는 패전/해방 이후 여전히 개인의 정체성을 구속하고 있는 '식민지적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회성은 이동에 관한 서사를 통해 패전/해방과 '국민국가' 담론의 변방으로부터 '식민지적 관계'를 부상시킨다. 이회성의 소설『백년 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1994)에서 이동으로 서사화되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삶은 1945='해방'을 소실점으로 하여 '귀환'과 '건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중심 서사에서 '탈락'함으로써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편으로 1945='패전'을 소실점으로 한 제국의 철수와 구식민지·전지(戰地) 재류일본인의 '인양', 그리고 천황제의 존속 및 신헌법과 함께 재편되는 '일본국'=단일민족국가의 신화로부터 배제된 삶이기도 하다. 그런데『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한 무리의 일행[4]이 밟게 되는 '사할린→미군점령하의 일본영토→해외강제송환=조선행', 그리고 일본 잔류로 귀결되는 이동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들의 이동 행위가 기본적으로 '인양'/'귀환'과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기 주체와 목적지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양'과 '귀환'이라는 구별조차 이들에게는 허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양'과 '귀환'이라는 개념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회성의 텍스트들을 읽으려 할 때 주의할 점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회성 개인의 역사적 체험과 그것이 서사화되었을 때 지니는 담론적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회성의 생애와 문학을 통시적으로 개괄·정리한 송하춘은 이회성의 '자필연보'(「李恢成自筆年譜」, 室蘭李恢成과 말하는 모임, 1997. 11. 5)와 그의 작품들을 토대로 사할린→규슈→홋카이도→도쿄로 이동하는 특정 유형의 "재일동포 사회의 형성과 위상"을 재구성하고,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그의 민족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회성의 생애와 문학, 그것은 재일동포 사회의 삶과 민족의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전제"가 그 연구의 출발점이다.[5] 제국의 해체와 '인양'에서 비롯된 일본 열도상의 이동이 그 자체로 재일 조선인 사회 형성사의 한 측면을 말해준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회성이 단편소설, 편지와 기행의 형식을 빌린 에세이, 장편소설 등 다양한 장르간의 횡단을 통해 산출한 '복수(複數)'의 텍스트는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사의 재구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작가의 언어와 작품의 언어의 혼효, 그리고 둘 사이의 경합과 대화를 통한 정체성의 자기 교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특히『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와서는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인양'과 '귀환'의 담론적 허구성, 그리고 이 두 용어 모두에

된다.

4) 이 특정한 집단을 조선인 귀환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다섯 가구와 한 명의 탄광노동자로 이루어진 일행 속에는 세 명의 일본인 여성과 한 명의 혼혈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의 목표지였던 조선으로의 귀환은 일행 대부분에게 있어서 강제적인 것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 宋河春,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 (1)-」,『한국학연구』제1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12, 114-115면.

주박(呪縛)된 모순적 주체의 형상이 폭로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소설의 장르적 특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2. '인양'/'귀환'의 서사와 복수(複數)의 텍스트

2-1. 「또 다시 길을(またふたたびの道)」(1969)

이회성은 1935년 2월 26일, 가라후토(樺太, 제국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어 있던 사할린 남반부의 지명) 마오카초(眞岡町)에서 태어났다. 마오카 제1국민학교 초등과에 입학한 해인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패전한 해인 1945년 겨울 조선인 민족학급으로 학교를 옮긴다. 1947년 봄에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하코다테(函館) 인양자수용소를 거쳐, 여름에 강제 송환되어 규슈(九州) 하리오지마(針尾島)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을에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시(札幌市)에 정착한다.[6]

조선이 아닌 또 다른 '외지'에서의 종전과 '인양', 그리고 강제 송환이라는 유년기의 트라우마는 그의 등단작인 「또 다시 길을」에서부터 서사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또 다시 길을」의 주인공인 30대 재일조선인 청년 조철우에 의해 회고되는 20여 년 전 사할린 탈출의 여정은 조선="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염원과 그 좌절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은 1960년대 후반의 '전후' 일본에서 살아가며 한반도의 동시대적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재일조선인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선인이란, 일본인이란 무엇인가"[7]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조철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자신의 '귀국'에 대한 고민이 역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국=조선'의 해방이 곧 '고국=조선'으로의 귀환을 의미했던 조부(祖父)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를 통해 가능했다. 그는 "하지만,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귀국선은 본토에 인양되는 일본인만이 탔다. 그리고 조선인은 고국이 해방되었다 해도 언제 돌아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47)고 회고한다.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조선인의 '귀환'은 일본인의 '인양'을 대립 개념으로 하여 상상되고 있었으며, 두 행위 모두 자국민의 자국 영토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이때의 자국민과 자국 영토란, 양국의 헌법 제정과 '국민' 및 '영토'의 정의를 통해 정비된 '현재'의 단일민족국가 체제 속에서 소급적으로 적용된 개념들이다.

2-2. 『사할린으로의 여행(サハリンへの旅)』(1982-83)

> 나는 가라후토 서해안의 타타르해에 면한 마오카초에서 태어났다. 이 태어난 고향에서 내가 '인양(引揚げ)'한 것은 1947년 7월의 일이었다. 우리 일가는 이 땅에 많은 연척(緣戚)을 남겨놓고 단독으로 어느 날 아침 고지대에 있는 인양자수용소로 향했다. 우리 일가는 다른 일본인 인양자와 마찬가지로 등떠밀리듯 마오카 항을 뒤에 남겨두었지만, 우리들만이 '인양'하여 가는 것에 대한 가책의 심경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조부모나 혈연·혼족과 우리 일가는 그날 이래 계속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이별은, 내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 「李恢成自筆年譜」, 室蘭李恢成과 말하는 모임, 1997. 11. 5(송하춘, 앞의 글, 116, 118면에서 참조함).
7) 李恢成, 『またふたたびの道』, 講談社, 1972, 76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속안에 면수만을 표기함.

'인양'했다고 해도, 우리 일가는 일본인처럼 당당하게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8)]

아버지가 법을 어겨서까지 일본인의 패스포트를 얻은 것은, 망향의 일념의 소산이었다. 아버지는 이대로 '가라후토'에 남겨지는 것은 정말 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이대로 자신들 조선인은 영구히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다. 불행히도 그 직감은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들어맞고 있다. 지금, 사할린에는 사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와 있다. 이 조선인의 거의 전부가-해방된 당시에는-망향의 일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조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과가 있었든, 해방 당시의 조선인의 대부분은 지금 여전히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 일가는 다른 일본인 인양자들에 섞여 마오카 항으로 향했다.(11-12. 밑줄-인용자)

역시 '인양'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기행문『사할린으로의 여행』의 서두에서, 이회성은 '고향' 사할린을 떠나온 후 이제는 소련 영토에 편입된 사할린 방문의 계기를 위와 같이 서술한다. 이 서두 부분에는 아버지의 망향에의 일념으로 인해 자신의 일가 외의 인척들을 버리다시피 사할린을 떠나왔을 때의 심경과, 언제 올지 모르는 인양선을 기다리다 결국 '일본인의 패스포트'를 얻어 일본인 인양자의 외피를 입고 그 안에 은신해야 했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후 그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아버지가 일가만 데리고 황급히 섬을 떠난 사건으로 인해 그곳에 남겨진 일족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술회하며, 일본인 인양자와 섞인 속에서 "일본인들은 귀국하는데 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가"를 묻는다. 즉, '인양'이라는 사건 속에서 친척들에 대한 방기(放棄)와 일본인으로의 위장이라는 아버지의 선택은 두 가지의 불가해함을 남겼던 것이다.

특히 후자의 사건에서 이회성이 느낀 것은 '뒤섞임'의 공포였다. 구(舊) 종주국이었던 '내지'로 향하며 그는 '패전국민'의 자유와 '해방국민'의 부자유라는 모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귀향을 염원하는 아버지의 망향 의식을 공유한다. 이는「또 다시 길을」에서 조철우가 조부의 '고국'의 자신의 심정적 '고향'을 동일화시킨 방식과 유사한 메커니즘이었다.[9)]

2-3.『백년 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1994)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아라이 센타(新井鳳石)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조선인 박봉석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천황의 '종전의 조칙'을 들었을 때, 그는 사할린의 남반부인 가라후토(樺太)에 거주하고 있었다. 작중에는 박봉석이 천황의 항복 선언을 들은 뒤에도 여전히 감실(龕室)에 모셔둔 신주에 절을 하고 '황국 신민의 맹세'를 암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협화회 마오카(眞岡) 지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박봉석, 그리고 회장을 맡고 있어서 종전 직후 진

8) 李恢成,『サハリンへの旅』, 講談社, 1989, 7면(밑줄-인용자).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속안에 면수만을 표기함.

9) 기행문의 서두에서는 아버지의 귀환 욕망을 '망향에의 일념'으로 확신하고, 거기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할린 동포의 의식을 동일화시키지만, 작품의 중반에서 아버지의 귀환 욕망이 '망향'만은 아니었으며, 사실 전시체제기의 친일조직인 협화회 마오카지부 간부였던 이유로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결정한 '탈출'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이처럼『사할린으로의 여행』에 와서는 '인양'이라는 표층의 사건과 '귀환'이라는 당위성, 그리고 '탈출'이라는 심층 사이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한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로 끌려간 난바라 쇼겐(南原昌源) 등, “막다른 곳”[10] 가라후토에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전시체제의 삶을 강요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할린 남반부가 소련 영토가 되면서 그곳에 있던 30만 명의 ‘패전국민’들이 미군 점령하의 일본 본토로 ‘인양’되었을 때, 4만여 명의 조선인은 ‘제3국인’으로 분류되어 ‘인양’ 대상에서 제외된다.[11] 조선인의 일본국적이 공식적으로 박탈된 것은 재조일본인을 포함한 구식민지·전지(戰地) 재류일본인의 귀국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인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부터였다. 하지만 종전 직후부터 이미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조선인이란 피차간에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12] 그리하여 박봉석 일가를 비롯하여 가라후토에 있던 한 무리의 일행은 일본인을 위해 준비된 귀환선을 타고 밀항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지배하의 사할린을 탈출하여 일본 본토로 진입하는 것은 소련 측에서 보면 도주 행위고, GHQ 측에서 보면 밀입국 행위였다. 『백년 동안의 나그네』는 이후 사할린을 탈출하여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수용소에서 대기하던 중 밀항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 명령을 받고, 일본 열도를 거쳐 한반도로 향하다가 결국 ‘고가네마루’를 타고 ‘귀환’하는 무리와, ‘귀환’을 포기하고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무리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끝을 맺는다.

이 소설에서, 사할린을 탈출한 이후 일행의 여정은 처음부터 미군에 의한 ‘강제송환’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나가사키의 오오무라 수용소까지 일행을 압송하도록 미군정청의 지시를 받은 일본인 경찰관에게 “우리는 걱정마슈.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작정이니까. 도망칠 리가 있소?”(상 11)라고 다짐을 주듯이, 강제성이 부과된 조선행은 적극적이고 당위적인 선택이 아닌 체념이었거나, 혹은 공권력의 감시에 대해 경계를 늦추기 위한 명분에 가까웠던 것이다. 또한 ‘귀환’이라는 당위성 속에 억압된 다양한 차이들이 돌출되고 있다. 조선이 아닌 일본 본토에 정착하기 위해 일본인 여성과 강제로 혼인한 인물, 협화회 활동이나 ‘성전(聖戰)’ 찬양 설교와 같은 부일(扶日) 경력을 짊어지고 조국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에 꺼림칙해하는 인물, 그리고 같은 가라후토에서 왔더라도 자신은 정주민이 아닌 징용 노동자이므로 조선으로의 귀환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는 인물 등. 저마다 다른 내막과 고민을 가지고 열차 한 칸을 배정받아 동행하는 이 일행의 모습은, 아우성치며 열차에 올라타는 일본인 인양자들의 단순명료함이나 해방된 조국으로 “한 발 먼저”(상 43) 향하는 이들 일행을 환송하는 ‘조선인 연맹’ 동맹원들의 확신에 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수상쩍고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다.

「또 다시 길을」에서는 의식되지 않았던 ‘인양’/‘귀환’이라는 이동의 허구성이 더욱 분명하

---

10) 이회성, 김석희 옮김, 『백년 동안의 나그네』 상, 프레스빌, 1995, 72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권호와 면수만을 표기함.

11) 당시 조선인의 일본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GHQ/SCAP(연합국군총사령관최고사령부)였다. 미국정부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기본정책인 ‘재일난민’(JCS 1550, 1945. 12. 7.)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재일조선인은 ‘해방민족’으로 취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본국민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방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제적으로 ‘해방민족’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법적 규정 또한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SCAP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범위는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김태기, 「GHQ/SCAP의 對재일한국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8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2, 249-250면).
‘해방국민’의 이러한 허구성은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서, “해방된 민족이라면 강제 송환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상 66)라는 유근재의 독백, 그리고 조선인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허구에 도취해 있는 것 같”(하 295)다는 주두홍의 담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2) 1952년 이후에는 재일조선인이 일본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법무대신의 선별적인 재량에 의한 ‘귀화’뿐이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에게 조선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인다운’ 삶을 다시금 요청하는 것이었다(文京洙, 「戦後60年と在日朝鮮人—“国民”の呪縛を超えて」, 『思想』 2005년 12호, 18면).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등록령’에서 국적박탈로 이어지는 1946년-52년 사이의 점진적인 ‘분리’ 정책은, 전후 일본의 새로운(동시에 전전과의 연속성을 환기시키는) ‘동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이들 일행의 복잡한 가족구성에 있다. 일행 중 세 가족은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그들 중 한 쌍의 부부에게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는 혼혈 자녀들이 있으며, 한 쌍의 부부가 혼혈아를 잉태 중인 것으로 나온다. 이 일본인 여성들은 사할린에서 미·소간의 협정으로 진행된 전재민의 '인양'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조선인과 함께 일본 영토로부터 추방당했다. 비록 이들 중 한 명의 일본인 여성만이 조선인 남편을 따라 현해탄을 건너고 나머지 일본인 여성들은 일본에 남게 되지만, 이들이 경험한 이동은 외견상 '인양'/'귀환'의 형태에 동시에 속하면서도 그 범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 게다가 우리 자식들은 혼혈이야. 고향에 가면 또 무슨 꼴을 당할지… 우리 자식들이 '튀기'라고 놀림받고 차별받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 …(중략)…
> 나는 두려워. 일본에서 내가 맛본 고통을 이번에는 당신과 아이들이 맛보는 게… (-일본인 아내 마쓰코를 향한 유근재의 담화. 하 272.)

이는 비단 민족적 구분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이향=사할린'을 버리고 '고향=조선'으로 향하는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박봉석의 아들 준호에게는 서사 속에서의 이동이 '고향=사할린'을 상실하는 체험이었던 것이다.

> 공허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둘도 없는 친구와도 재회하지 못한 채, 일본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로? 나는 가라후토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란 가라후토 토박이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 본 적도 없는 조선으로 가려 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나에게 조선이란 무엇인가?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는 듯한 그 나라는 아버지한테는 조국이나 고향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낯선 외지에 불과하다.
> '나는 실향민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는데, 아버지와 계모와 세상물정 모르는 동생들을 데리고 낯선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에트랑제야.'(상 294-295. 밑줄-인용자)

이 소설에서 국민국가 수립과 직결되는 '인양'/'귀환'의 범주 자체가 허구적이며 임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이라는 형식이다. 가령,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로의 이동은 지배권이 박탈된 일본 영토 외부에서 내부로의 무사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된 탈출 행위를 의미한다. 또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 열차를 타고 종단하는 일본 열도는 패전의 상흔을 간직한 채 복구되고 있는 '신생 일본'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수십여 년 전 한반도를 떠나 '막다른 곳' 가라후토에 흘러들기까지의 기억 전체를 소생시키는 기적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파노라마이다. 이동을 통해 펼쳐지는 그러한 기억은 차창 밖에 나타난 '고쿄(皇居)'에서 정점을 이룬다. 열차가 도쿄역에 멈추자 일행은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천황의 거처"(상 211)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고쿄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들의 기억 행위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과거의 이동이 식민주의의 역사적 결과에 다름아니라는 것, 그리고 식민주의의 과거는 고쿄가 표상하는 천황제·천황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전후 일본사회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3. 마치며

1981년 이회성이 34년 만에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친족들을 잔류하게 만든 아버지의 영원한 부(負)의 공간이자 일가족의 이동에 대한 기억의 원점이었던 사할린에서 그는 “해외조선인의 공통된 고뇌인 조국과의 문제, 그중에서도 귀국의 문제”[13]로 논점을 확장시키고 “조선인 사만 명의 생활방식을 역사적으로 전면화해 그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낸 장편소설”[14]을 쓰기로 결심한다. 그 후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출판된 르포르타주 형식의 장편소설 『유역(流域へ)』(1992)에서 그는 사할린을 ‘유역’으로 표상되는 월경(越境)의 거점으로 삼고, 국민과 민족, 그리고 인종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크레올의 한 점에 ‘재일조선인’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했다. 여기로부터, 국민국가 담론의 취약점이자 그림자라는 위치에 서서 그 모순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재현하는 주체가 형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회성의 텍스트들은 공통적으로 ‘이동’이라는 내러티브를 통해 국민국가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인양’/‘귀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의 서사는 한편으로 ‘해방’과 ‘귀환’, 그리고 건국 주체로의 ‘재생’으로 귀결되는 동시대의 압도적이고 통일된 서사적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서사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사할린을 원점으로 하는 이동에 대한 반복적인 고쳐쓰기는 그 이동 자체를 통일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패’나 ‘중단’이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서사화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백년 동안의 나그네』에 이르면, 이 텍스트는 바흐친이 장편소설의 특징적인 면으로 지적했듯이 “‘서술하는’ 작가의 언어를 ‘서술되는’ 주인공의 언어와 동일한 차원에 놓으며”, 이 둘 사이에 “대화적 관계와 혼종적인 결합”[15]이 이루어지는 장편소설의 특성을 얻게 된다. 서로 다른 차원의 언어들의 혼효 속에서 과거는 절대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교환과 교체, 교정이 가능한 불안정한 것으로 자리잡게 된다. 작가의 언어와 작중인물의 언어가 중첩되고 경합하면서, 이는 작가 내부의 의식의 경합을 추동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년 동안의 나그네』는, 작가가 스스로 재현한 과거의 세계-패망한 제국 일본으로의 ‘인양’, 미국에 의한 강제송환으로서의 ‘귀환’, 그리고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착’-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기교정의 텍스트였다고 할 수 있다.

13) 李恢成, 『サハリンへの旅』, 346면.
14) 李恢成, 앞의 책, 378-379면.
15)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98, 46면.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

박전열*
최중락**

서론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는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1]고 하면서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의미작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물론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것”들 속에 나타나는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가장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었고, 이 자명하고 자연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는 오늘날의 신화[2]를 읽어 내려는 노력이었다.

세계 영화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영화 「남자는 괴로워」시리즈는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7년간 총 48편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단순히 제작된 편수만이 아니라, 쇼치쿠 영화사의 희극적 캐릭터를 구축하여 그러한 전통[3]을 계속 이어온 것에 의의가 있다. 쇼치쿠 영화 속의 희극적 캐릭터들은 겉보기에는 거칠고 천하지만 인정이 많고 선한 하층민으로[4] 이러한 캐릭터가 일본적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3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의 네 편의 영화[5]에는 공통적으로 기하치(喜八)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온다. 기하치물 영화들을 통해 관객들은 가정과 지역 사회의 붕괴로 고향을 잃게 되고, 유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6] 이러한 위기감과 유랑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강한 가족 간의 애정과 지

---

*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1) 롤랑 바르트 정현 역(1995) 『신화론』 현대미학사 p. 7

2) 롤랑 바르트의 신화는 전설이나 성인전이 아니라 신화적인 어떤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신화는 곧 빠롤이다.”라고 하고 있다.

3) 쇼치쿠 영화사의 희극적 전통은 소시민 영화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도 시로가 쇼치쿠 영화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풍에 세련된 영화를 지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로 그의 초기 작품들은 기하치(喜八)라는 캐릭터를 통해 시작되어 이나가키 히로시의 「무호마쓰의 일생」의 무호마쓰를 통해 「남자는 괴로워」의 구루마 도라지로(車寅次郎)로 이어졌고, 다시 「釣りバカ日誌」의 하마짱(ハマちゃん)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요모타 이누히코 박전열 역(2001) 『일본 영화의 이해』 p.192

5) 네 편의 영화는 <지나가는 마음 出来ごころ 1933>, <부초이야기(浮草物語) 1934>, <규중처녀(箱入り娘)1935>, <동경여관(東京の宿) 1935>로 항상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기하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6) 佐藤忠男(2000) 『完本　小津安次郎の芸術』朝日新聞社 pp. 314-315

역사회의 인정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기하치를 닮은 구루마 도라지(車寅次郎) 역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어지는 영화 속에는 분명히 제작하는 측의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작용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신화를 해체하는 것이 본고의 가장 큰 목적이다.

우선, 「남자는 괴로워」와 영화감독 야마다 요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영화를 통해 세상사의 변화와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접근[7], 사회학적 관점[8]에서의 접근,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9]를 통해 일본인에게 영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려는 연구가 많다. 위의 연구들 외에도 영화의 테마 분석[10]과 함께 개별 작품들에 대한 분석[11] 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구루마 도라지로라는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성 캐릭터에 대해 모든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라지로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혹은 중심이 아닌 주변 인물로서 기술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영화에 나타나는 여성 캐릭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도라지로의 여동생인 사쿠라(さくら), 둘 째 도라지로가 혼자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대상인 마돈나로 통칭되는 여성들,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는 두 번 등장하고 있는 실제 어머니와 영화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도라지로를 길러 준 사쿠라의 실제 어머니[12] 그리고 항상 사쿠라와 함께 도라지로의 귀향을 맞아주는 숙모라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크게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각 여성 이미지들이 영화가 상영 되었던 동시대의 일본 여성의 삶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이런 비교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영화 이미지와 실제 여성 이미지 사이에는 단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단절되는 부분을 통해 여성 이미지를 어떻게 고정화 시키고, 또 어떻게 당연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일본 여성상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론

---

7) 新谷尚紀(1996) 『寅さんの民俗学』海鳴社
赤坂憲雄(2007)『排除の現象学』筑摩書房

8) 竹原弘(1999) 『寅さんの社会学』ミネルヴァ書房
유경(2004) 「야마다 요지(山田洋次)영화의 특성 연구 -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 속에 나타난 사회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9) 濱口惠俊 金児暁嗣(2005)『寅さんと日本人-映画「男はつらいよ」の社会心理』知泉書舘

10) 이동일(2007)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의 테마분석」『일어일문학연구』62-1호

11) 吉村英夫 (2007)『完全版「男はつらいよ」の世界』集英社

12) 도라지로와 사쿠라는 아버지는 같지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도라지로(寅次郎)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는 구루마(車) 집안의 차남이다.

1. 사쿠라의 이중적 이미지

사쿠라는 도라지로와는 반대로 시골에서 가출을 하여 도쿄로 와서 인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히로시와 결혼을 하여 미쓰오라는 아들 한 명을 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쿠라에게 도라지로는 항상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다. 사쿠라는 도라야(とらや)라는 과자(団子) 가게의 정신적인 기둥이고, 동시에 방랑의 인생을 사는 도라지로를 항상 기다렸다가 맞아주는 정착자이다. 도라지로와는 반대 개념의 비일상에 대한 일상의 개념이 되는 인물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성보다도 한 층 더 모성적인 존재이다.[13)]

사쿠라라는 이름은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 도라지로가 영화 속에서 "벚꽃이 필 때 쯤이면 꼭 생각나는 것이 고향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은 야나기타 구니오의 『여동생의 힘(妹の力)』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야나기타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봄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 아주 오랜 만에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 젊은 사람들에게 풍경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본의 노래와 문장에는 「고향은 예전과 같은데」라며 바라보는 듯한 하나의 양식이 하지만, 적어도 나의 경우 30여 년 전의 고향의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다."[14)] 라고 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인에게 있어서 벚꽃이 피는 계절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은 변화하지 않고 그래도 있었으면 하는 그리움의 장소 이다. 이렇 듯 향수의 감각인 벚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라지로의 여동생 사쿠라는 그 자체로 고향의 이미지를 쉽게 드러내고 있다.

덧붙여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존재 했다. 또 신타니 다카노리(新谷尚紀)는 야나기타 구니오의 후일담을 소개하면서 「妹」는 여성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라는 특정한 의미로 야나기타가 사용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여동생이 가진 영적인 힘, 오빠와 여동생의 정을 이야기하는 편이 더 독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5)] 사쿠라는 도라지로에게 있어 고향인 동시에, 오나리 신(をなり神)[16)]의 역할을 하는 여동생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쿠라가 도쿄의 **시바마타(柴又) 다이샤쿠덴(柴又帝釋天)이라는 절의 주지 스님인 고젠사마(御前様)를 찾아가 방랑 생활을 하는 도라지로의 무사귀환과 안부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라지로의 성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쿠라는 남편 히로시와 아들 미쓰오의 부인이자 어머니로서의 물질이고 현실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자신의 가족보다는 어리석은 오빠의 일로 신경을 쓰기 일쑤다. 그 속에서도 미쓰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피아노를 가르치려고도 하고[17)], 또 자기 집을 가지려는 세속적인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핵가족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행복보다는 도라야라는 대가족의 틀 속에서 가정 일과 함께 생활비를 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13) 吉村英夫. p. 36
14) 柳田国男(1973) 『妹の力』角川文庫 p. 11
15) 新谷尚紀 pp. 115-116
16) 자매(오나리-をなり神)가 형제(에나리-ゑなり)의 수호신이라는 류큐의 전통 신앙로 야나기타 구니오의 연구로 확실해 졌다.
高良勉(2009) 『沖縄生活誌』岩波書店 p. 11
17) 11편 「남자는 괴로워 도라지로의 물망초(男はつらいよ 寅次郎忘れな草)」 1973

이러한 모습을 롤랑 바르트의 신화 개념에 대입해서 어떤 의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사쿠라의 여성 역할 신화

<table>
<tr><td>1. 시니피앙
사쿠라의
도라에 대한
걱정과 희생</td><td>2.시니피에
도라야 가족의
행복</td></tr>
<tr><td colspan="2">3. 기호(의미)
도라야와 자신의 가족의 행복</td></tr>
<tr><td>Ⅰ. 시니피앙(형식)
오래 전처럼
넓은 의미의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td><td>Ⅱ. 시니피에 (개념)
사쿠라의 양의적 욕망의 억제
(핵가족과 대가족 사이의 행복의
양의적 추구)</td></tr>
<tr><td colspan="2">Ⅲ. 기호(의미작용)
오래되고 좋았던 시절과 넓은 의미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여동생인
사쿠라의 희생은 불가피하다.</td></tr>
</table>

<표-1>에서 1.시니피앙은 도라지로가 도라야에 있을 때 혹은 도라지로가 방랑지에 있을 때 보여지는 사쿠라의 모습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라의 걱정이나 배려를 넘어서 타인의 질서와 피해를 주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희생하는 모습이다. 도라야의 구성은 직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관계이다.

특히 가족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는 뒤 편에 있는 아사히 인쇄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다코 사장의 개입과 숙부 부부의 희망 - 도라지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착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처럼 두 그룹의 개입과 바램은 유사 가족이라는 충만함을 통해 왜곡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형식 - 도라야와 자신의 가족의 행복과 넓은 의미의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 은 서로 유사관계를 통해 작용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동기화된 형식을 지니지 않는 신화란 없는 것이다.[18] 그리고 숙부 부부는 도라지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결혼을 해서 자신들의 뒤를 이어 가게를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숙부 부부 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사쿠라는 집안 일과 도라야에서의 일도 완벽히 해 내려고 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쿠라가 희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

2. 마돈나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이 영화를 직접적인 주장이나 주의를 내놓는 경향 영화는 아니지만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바르트는 이것을 알리바이라고 부른다. 알리바이 안에는 부정적인 동일시(“나는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의 관계에 의해 서로 결부된 충만한 공간과 텅빈 공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알리바이가 순환하는 것을 어떤 지점에서 멈추도

18) 롤랑 바르트 p.43

록 한다고 한다.[19] 이러한 알리바이라는 것은 사회 비판을 「남자는 괴로워」라는 텍스트가 하고 있다는 동일시에 의해 텅빈 공간을 보지 못 하고 알리바이의 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설명하자면 유경은 “야마다 요지는 여성들을 통해 사회를 보여주고,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려 함과 동시에 그녀들이 강인함과 의지력을 통해 사회에 맞서 나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페미니즘적인 경향을 가진다고 서술하고 있다.[20]

하지만 마돈나들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들이 도라지로와 헤어진 후에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아래에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은 결핍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초기와는 달리 상류 계급의 인물들이 아니라 중류 혹은 하류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물론 상류 계급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모두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지면서 등장을 한다. 주체적인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탁해서 불려지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는 지점은 자립이라기 보다는 자의에 의해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뿐이지 남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 속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은 여전하다.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던 마돈나들은 도라지로라는 비일상적인 인물에 의해 화합을 하게 되고, 소식이 끊겼던 남동생과 연락이 닿게 된다. 그녀들의 가족 내부의 결핍 - 이혼, 부모의 부재, 별거 등- 과 외부적 결핍 장애나 신분적 차별에 의해서 결핍 혹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 위 책 p. 39
20) 유경 p. 71

노(能)「간단(邯鄲)」과 희곡「간단(邯鄲)」에 관한 일고찰

황석주(덕성여대)

노(能)「간단(邯鄲)」[1]은 욘반메모노(四番目物), 가라모노(唐物), 다이코(太鼓物)로, 일단극노(一段劇能)에 속한다. 출전은 당(唐) 이필(李泌)의『침중기(枕中記)』,『다이헤이키(太平記)』卷25「고료유메노코토(黃梁夢事)」라고 전해진다. 작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아미(世阿弥)라는 설[2]도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촉(蜀)나라 청년 로세이(蘆生)는 간단의 베개를 베고 잠시 잠을 청하는 동안 인간사의 모든 영화와 환락을 경험하고 그 어떤 인간의 부귀영화도 덧없음을 깨닫는다.

인생에 의문을 품고 초(楚)나라의 요히잔(羊飛山)에 살고 있다는 이름 높은 고승에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길을 나섰던 로세이는 여행 도중에 간단 지방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여주인(女主)의 권유로 조밥이 준비되는 동안 그 유명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베개를 빌려 베고 잠을 청한다. 그런데 꿈 속에 갑자기 높은 신분의 사령이 나타나 로세이가 왕위를 물려 받았음을 알려준다. 로세이는 놀랐지만 호화로운 가마에 올라 하늘이라도 날듯한 기분이 된다. 궁정에 다다르자 정원에는 금, 은의 모래가 깔려있고, 옥으로 된 문이 있으며 드나드는 사람들도 모두 훌륭한 옷차림에, 왕좌에는 많은 보석이 헌상되어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신하가 올린, 마시면 수명이 천세에 이른다는 선향(仙鄕)의 술을 받으며, 귀여운 무동(舞童)의 춤을 보고 있는 동안에 로세이 자신도 흥에 겨워 춤을 춘다. 이러한 다시 없는 영화를 다하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한때에 모아둔 듯 万木은 한꺼번에 꽃을 피운다. 그 때 조밥이 다 되었다는 여주인의 소리가 들린다. 이에 잠에서 깬 로세이는 늘어서 있던 궁녀(女宮)들의 소리는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松風)이며, 궁궐이라 여겼던 곳은 초라한 여관이며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망연해 하지만. 인생이 한순간의 꿈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베개에 감사하며 요히잔행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어서 미시마유키오(三島由起夫)의 희곡「간단」은 노에서 힌트를 얻은 희곡 작품들 중의 최초의 것으로 1950(昭和25) 10월『人間』지에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10일 교토에 있는 교토노동회관에서 이노우에 준(井上 淳)의 연출로 초연되었다.

미시마의 「간단」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8세의 소년 지로(次郎)는 「이런 곳까지 찾아 올 생각을 한 것은 모두 끝이 났다는 증거라니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こんなところへやつて来る気になるのは、何もかもおしまひになつちゃつた証拠なんだから。僕の人生はもう終つちゃつたんだからね)[3]」라며 베고 잠을 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다는 전설의 베개을 시험해보고자 10년 만에 자신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기쿠(菊)의 집을 방문한다. 기쿠는 지금은 남편에게도 배신당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처지이다. 기쿠의 집에 있던 중국의 간단이

---

1) 지명, 현 중국 河北省 大名道 邯鄲

2)『自家伝書』『二百拾番謡目録』에는 世阿弥작으로 되어 있다.

3) 三島由起夫, 三島由起夫全集20, 新潮社, 1975, p.304

라는 지방에서 가져왔다는 가보인 베개로 잠이 든 지로는 꿈 속에서 영화로운 그의 일생을 체험한다.

부친의 회사를 이어받아 사장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원수(元首)가 되지만, 꿈 속에서까지 살아가려는 생각조차 없이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는 지로에게 화가 나서 안달하는 간단의 정령들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내고, 지로를 독살하려고 한다. 이에 지로는「꿈 속이라해도 우리들은 자유입니다. 살려고 하건 살지 않으려고 하건 당신들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夢のなかでだつて僕たちは自由です。生きようとしたつて生きまいとしたつて、あなたの知つたことぢゃないぢゃないか。」[4]라고 하며 독약 마시기를 거부하고, 꿈에서 깬다. 지로는 이대로 이 풀이 우거진 마을에 머무르려고 결심한다. 그러자 기쿠의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피지 않았던 정원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만발한다.

이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노에서의 선향의 불로장생주와 희곡의 독약이라는 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인생의 허무에 대한 깨달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서로 달라 보이는 소재의 채택때문에 두 작품은 인생에 허무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달리 한다고 생각된다.

노에서의 영화로운 50년과 더불어 그 끝이 없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불로 장생주는 조밥이 되는 짧은 시간의 꿈이었다는 사실과 대비를 이루며 인생의 허무를 보다 선명히 보여준다.

반면 희곡의 독약은 꿈속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므로 그 때문에 불로 장생의 술이 아닌 독약을 받아 들게 된 것라 할 수 있는데, 꿈을 꾸는 사이에는 누구나 순수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꿈에서 깨면 그 일생의 허무를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원곡의 내용을 희곡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이미 현세의 허무를 알아버린 청년이므로 이미 알아버린 허무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려한다고 하는 설정으로 변경시켰고, 때문에 청년 지로는 꿈 속에서 독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노(能)의 시테(シテ)의 깨달음의 장면이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체험 한 후에 그것이 단지 아주 짧은 동안의 꿈 속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인생은 이와 같은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인생의 허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설정이다.

지우타이(로세이) 꿈 속에서 영화가 계속된 것은
시테(로세이) 오십년
지우타이(로세이) 그런데 이 몽중의 영화는 조밥이 뜸이 드는,
시테(로세이) 한순간의 일이다,
지우타이(로세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무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시테(로세이) 심사숙고해서 인간이라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지우타이(로세이) 인간사 백년의 환락이라고 해도, 목숨이 다하면 꿈과 같은 것. 조금전까지의 오십년의 영화야말로 내게는 이제 지나간 일이다. 영화의 바램도, 장수의 희망도, 오십년의 환락을 다하는 것도, 왕위에까지 오른 이상 이것으로 족하다. 아니 진정으로 어떤 일도, 한순간 졸고 있는 동안의 꿈과 같이 허무 한 일이다.

---

4) 三島由起夫, 三島由起夫全集20, 新潮社, 1975, p.335

시테(로세이) 나무삼보 나무삼보.
지우타이(로세이)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미혹함을 벗어나려고 내가 찾아 헤맸던 스승은 이 베개였다. 이 간단의 베개는 정말로 고마운 물건이다. 아니 정말로 고마운 것은 이 간단의 베개를 베고 꾼 꿈처럼 이 세상은 꿈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어, 소원을 이루고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地謡(盧生) 榮花のほどは、
シテ(盧生) 五十年、
地謡(盧生) さて夢の間は栗飯の、
シテ(盧生) 一炊の間なり、
地謡(盧生) ふしぎなりや計りがたしや。
シテ(盧生) つらつら人間の、有様を案ずるに、
地謡(盧生) 百年の歡樂も、命終れば夢ぞかし、五十年の榮花こそ、身のためにはこれまでなり、榮花の望みも齢の長さも、五十年の歡樂も、王位になれば、これまでなり、げに何事も一睡の夢 、
シテ(盧生) 南無三寶南無三寶。
地謡(盧生) よくよく思へば出離を求むる、知識はこの枕なりげにありかたや邯鄲の、げにあ りかたや邯鄲の、夢の世ぞと悟り得て 、望みかなへて歸りけり。[5)]

노에서 시테 로세이는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현실적인 관심을 버리고 귀향하는 것으로 진정한 삶을 찾는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으로 극은 깨달음이라는 정념(情念)의 승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꿈을 매개로 하여 현세의 삶(生)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설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미시마의 희곡에서는 꿈을 매개로 하여 깨달아야 하는 인생의 허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현실의 허무를 드러낸다. 꿈을 꾼 후에 현실의 허무를 알게 된다고 하는 노의 설정을 역전시켜 보여 준 것이다.

때문에 지로는 18세의 나이에 이미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라는 회의에 가득차서 유모였던 기쿠(菊)의 집으로 귀향한다. 그리고 예의 베개(枕)을 베고 잠이 든다.

그러나 지로는 꿈 속에서도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해 줄 모든 부귀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을 부정한다.

즉, 미시마는 역설이라는 수법을 쓰고 있다. 무언가 안정되고 고정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기존의 가치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 기존의 가치란 꿈 속에 인생의 부귀영화를 조밥이 뜸이 드는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체험하고 꿈에서 깨면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시마의 역설은 노의 기존 가치를 역전시켜 꿈 속에서 인생의 부귀 영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허무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극의 마지막에 지로는 꿈속에서 부정했던 영화로운 인생을 재발견하고 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희곡의 인용문에서처럼 지로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기존의 가치를 이미 채득한 채로 베개를 베고 잠이든다. 그리고 오히려 꿈속에서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부

5) 校注小山弘志外校註, 『謡曲集』, 小學館, 1989. p.133-134.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기존 가치관념인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진실은 그 진실이 부정되었을 때, 즉 진실의 부정인 허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진실 일 가능성을 획득한다는 역설적인 구도에서 나온 설정인 것이다.

노명의 그런데도 당신은 뭐요. 처음부터 당신은 살려고 하지 않았던게 아닌가. 당신은 솔직함이 결여되어 있어. 당신은 꿈속에서도, 인생에 전부 퇴짜 놓고 있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

지로 그런데 아저씨, 꿈 속이라해도 우리들은 자유입니다. 살려고 하건 살지 않으려고 하건, 당신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노명의 그건 예절에 어긋나는 태도 아닌가.

지로 예절에 맞지 않는다고해도, 난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노명의 그렇지만 이쪽은 난처하지. 당신같은 무법자는 이세상의 덧없음을 깨 우칠 수가 없어.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이제 이렇게 된 바에야, 당신을 살려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살려서 돌려보낸다면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
지로 그렇지만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노명의 모순! 모순! 당신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듯 하군.

지로 무엇때문에요.

노명의 그렇지만 당신은 한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 적이 없지. 즉 살고 있었지만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 당신은. 그런데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지로 그렇더라도, 나는 살고 싶어!

老國手 それのなに、あんたは何だ。はじめからあんたは生きようとしないぢやないか。あんたは素直さを缺いてをる。あんたは夢のなかででも、人生に全部肱鐵をくらはした。わしは一部始終を見てをつたよ。

次郎 だつて、おぢいさん、夢のなかでだつて僕たちは自由です。生きようとしたつて生きまいとしたつて、あなたの知つたことぢやないぢやないか 。

老國手 そりやあ禮にならはぬ仕打ぢやないか。

次郎 禮にあらはなくたつて、こちらはちつとも困らねえや。

老國手 ところがこつちは困るんだ。おまへみたいな無法者にはこの世のはかなさを悟らせやうがない。わしの任務は遂げられません。もうかうなつたら、おまへは生かしてかへすわけには行かんのだ。生かしてかへしては 、わしの本分にもどる次第さ。

次郎 でも僕は死にたくないんだもの。

老國手 矛盾! 矛盾! あんたの主張には論理的一貫性が缺けてゐるやうに見受けられる。

次郎 なぜさ。

老國手 だつてあんたは一度だつてこの世で生きようとしたこのがないんだ。つまり生きながら死んでゐる身なんだ、あんたは。それが死にたくないとは何だらうね。

次郎 それでも僕は生きたいんだ！[6)]

6) 三島由起夫, 三島由紀夫全集20, 新潮社, 1975. p.335 - 336.

꿈속에서 조차도 노에서의 불로장생주로 대변되는 영생의 획득을 희곡은 노명의(老國手)에게 독약을 받고 독살당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살고싶다!」라고 독약 마시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바꾸어 결말에 다가간다. 미녀와의 결혼에 의한 가정의 행복, 아버지(父)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얻어지는 경제적 안정, 게다가 정치적 달성의 최고가치인 국가원수에 오르는 것 등, 이 모두가 결국은 꿈 속의 사건이므로 허무하다고하는 깨달음으로의 귀결이 아닌, 꿈속에서조차도 오히려 극히 현실적인 그 모든 것의 거부라고 하는 체험으로부터, 지로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걸맞는 진정한 삶(生)을 살아가고자 꿈에서 깨어난다. 때문에 그가 돌아온 기쿠의 정원에는 시들어 한동안 핀 적 없던 꽃도 지로가 삶을 재발견한 것처럼 다시 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왕조의 강림전승에 관한 일고찰

김상규(부경대학교)

서론

특정한 씨족의 조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강림(降臨)신화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始祖起源傳承의 틀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王朝가 탄생한 경우, 왕조의 성립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논리를 시조 出自의 신성성(神聖性)에서 찾고, 그 유래를 하늘세계에 둠으로써 왕권통치의 정당성 확보에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고대 야마토(大和)조정의 유래담으로써, 歷代天皇의 조상신이라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명을 받은 천손(天孫)이 여러 씨족들의 조상신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소위 天孫降臨神話이다. 記紀—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있어서, 천상(天上)세계에서 펼쳐지는 신들의 시대를 서술한 神代이야기의 중심축으로써 엮어진 천황족의 시조 유래 신화인 天孫降臨神話의 골격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조의 降臨신화는 天皇族 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記紀에 따르면 5, 6세기경 야마토(大和)의 유력한 豪族이었던 모노노베(物部)씨의 조상신이라는 니기하야히노미코토(饒速日命)가 천상세계에서 신보(神寶)를 가지고 지상의 야마토로 내려왔다는 降臨신화도 구조적으로는 천황족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神代에 있어서 出雲系로 분류된 스사노오(素戔嗚)의 강림신화 등, 고대의 여타 전승들에 있어서도 天上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는 유래담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림전승의 골격이 다른 전승들과 같다면, 과연 유일하지도 않은 天孫의 降臨신화가 천황의 神聖을 담보하는 유래담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통치의 正當性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제반 의문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고대 일본에 있어서 降臨신화의 본질까지도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의문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고대일본에 있어서 天皇의 통치권을 보증하는 논리의 하나로써, 王朝의 始祖神을 중심으로 짜여진 神代의 이야기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강림의 주체인 天孫과 降臨地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론

1. 문헌 속의 강림전승

(1) 神代記紀

◎爾天照大御神、高木神之命以、詔太子正勝吾勝勝速日天忍穗耳命、今平-訖葦原中国之白。故、随言依賜降坐而知者。爾其太子正勝吾勝勝速日天忍穗耳命答白、僕者将降装束之間、子生出。名天迩岐志国迩岐志【分註略】天津日高日子番能迩迩芸命。此子応降也。此御子者、御-合高木神之女、万幡豊秋津師比売命、生子、天火明命。次日子番能迩迩芸命【二柱】也。(中略) 爾天児屋命、布刀玉命、天宇受売命、伊斯許理度売命、玉祖命、并五伴緒矣支加而天降也。於是副-賜其遠岐斯【分註略】八尺勾璁、鏡、及草那芸劔、(中略) 故爾詔天津日子番能迩迩芸命而、離天之石位、押-分天之八重多那【分註略】雲而、伊都能知和岐知和岐弖、【分註略】於天浮橋、宇岐士摩理、蘇理多多斯弖、【分註略】天-降-坐于竺紫日向之高千穗之久士布流多気。(中略) 故、其天忍日命、【此者大伴連等之祖。】天津久米命、【此者久米直等之祖也。】於是詔之、此地者、向韓国、真-来-通笠沙之御前而、朝日之直刺国、夕日之日照国也。故、此地甚吉地詔而、於底津石根宮柱布斗斯理、於高天原氷椽多迦斯理而坐也。 ……『古事記、上巻』

◎高皇産霊尊、以真床追衾、覆於皇孫天津彦彦火瓊瓊杵尊使降之。皇孫乃離天磐座、【分註略】且排分天八重雲、稜威之道別道別而、天降於日向襲之高千穗峯矣。既而皇孫遊行之状也者、則自槵日二上天浮橋、立於浮渚在平処、【分註略】而膂宍之空国、自頓丘覓国行去、……『日本書紀、神代下、第九段』

○降出雲国之肥河上在鳥髪地。此時箸従其河流下。於是須佐之男命……『古事記、上巻』
△是時、素戔嗚尊、自天而降到於出雲国簸之川上。……『神代紀、第八段、本文』
△一書曰、是時、素戔嗚尊、下到於安芸国可愛之川上也。……『神代紀、第八段、一書第二』
△一書曰(中略) 素戔嗚尊、帥其子五十猛神、降到於新羅国、居曾尸茂梨之処。……『同, 一書第四』

(2) 神武記紀 및 其他

◎故爾迩芸速日命参赴。白於天神御子。聞天神御子天降坐故。追参降来。即献天津瑞以仕奉也。
……『古事記、中巻』

◎聞於塩土老翁。曰、東有美地。青山四周。其中亦有乗天磐船而飛降者。(中略) 厥飛降者、謂是饒速日歟。(中略) 天皇曰、天神子亦多耳。汝所為君、是実天神之子者、必有表物。可相示之。長髄彦、即取饒速日命之天羽々矢一隻及歩靫、以奉示天皇。々々覧之曰、事不虚也、還以所御天羽々矢一隻及歩靫、賜示於長髄彦。長髄彦見其天表、益懐蹙踖、(中略) 天皇素聞饒速日命、是自天降者。而今果立忠效。則褒而寵之。此物部氏之遠祖也。(中略) 及至饒速日命、乗天磐船、而翔行太虚也、睨是郷而降之、故因目之、曰虚空見日本国矣。 ……『日本書紀、巻第三、神武紀；即位前紀＆三十一年紀』

△饒速日尊稟天神御祖詔、乗天磐船而、天降坐於河内国河上哮峯。則遷坐大倭国鳥見白庭山。
……『先代旧事本紀、天神本紀』

2. 천손(天孫)과 강림지(降臨地)의 해석

(1) 신명(神名)에 관하여

☆(マサカツアカツカチハヤヒ)「アメノオシホミミ」のミコト

☞「忍」は威力あるモノ、「穂」は稲の義。「耳」は尊称。記紀で神名に「正勝(正哉)吾勝勝速日」(まさしく私は勝った)を冠するのは、スサノヲの勝さびと關わる。あるいは國神に勝つこと(葦原中國平定)とも關わりをもつと考えられる。 ……(飯泉健司、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アメニキシクニニキシアマツヒコ)「ヒコ**ホノニニギ**」のミコト

☞神の名義については、ホノニニギのホは穂であり、ニニギは、ニギニギの意で、ニギヤカ、ニギハフのニギとみる説があり、それによれば、稲穂の豊穣の意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意は、父のオシホミミのホ(穂)を受け、子のホホデミのホ(穂)へと引き継がれている。……(毛利正守、日本神話事典)

☞ニニギは、稲穂の様子がにぎにぎしい狀態を意味し、稲穂が豊穣で威力盛んな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ホは穂と解され、アマツヒコは天上界から降臨する尊貴に對してのたたえ名といえる。
……(瀧口泰行、上代文學研究事典、おうふう)

☆「アメノホアカリ」(ホノニニギの兄神)

☞神名は、「穂赤熟(ほあかり)」(稲穂の赤らみ)の意とする記伝などの説と火に因んだ名とすべきであろうという全註釋の説がある。……(大脇由紀子、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スサノヲ」のミコト

☞(1)「荒ぶ(進む)」の語と關連させて「荒れすさぶ男」。(2)出雲國飯石郡須佐郷の地名の起源。
(3)人物や巫覡(seu-sung)の語音との關わり～「韓土の次次雄に系統を引く神称」…(日本神話事典)

★「ニギハヤヒ」のミコト

☞名義に關しては饒速の太陽の意や、にぎにぎしく疾(はや)く烈しい意とする解釈などがある。
……(瀧口泰行、日本神話事典)

※天孫과 관련된 신들은 곡령(穀靈) 그 자체이거나, 곡령과 관련이 깊은 존재로 보인다. 하지만, 스사노오 등 그 밖의 신들은 대체로 다른 神格을 가지고 있다.

(2) 강림(降臨)장소에 관하여

☆天孫：(筑紫)「**ヒムカのタカチホ**」のクシフルタケ
⇒「向韓国～朝日～夕日～甚吉地」『記』、「膂宍之空国」『紀』

★饒速日命：(河内国)カハカミのタケ、(大倭国)トリミのシロニハヤマ。『旧事紀』

⇒「ソラミツヤマト(大和)のクニ」『紀』～命名伝承（地名起源）

★素戔嗚尊：(出雲國)ヒのカハカミ。(安芸国)エのカハカミ。(新羅國)ソシモリ。『記紀』

3. 곡령(穀靈)과 고대 전승

◎天津彦々火瓊々杵尊、離天磐座、排天八重雲、稜威之道々別々而、天-降於日向之高千穗二上峯時、天暗冥昼夜不別、人物失道、物色離別。於茲、有土蜘蛛名曰大鉗小鉗二人。奏言「皇孫尊、以尊御手、抜稲千穗為籾、投-散四方、必得開晴」。于時、如大鉗等所奏。搓千稲穗、為籾投散。即天開晴、日月照光。因曰高千穗二上峰。後人改号智鋪。 ……『逸文日向国風土記、臼杵郡内、智鋪郷』

○于時、日晩僑宿。明日昧爽、忽有白鳥、従北飛来、翔集此村。菟名手、即勒僕者、遣看其鳥、鳥化為餅。片時之間、更化芋草数千許株。花葉尽栄。菟名手、見之為異、歓喜云、「化生之芋、未曾有見。実、至徳之盛、乾坤之瑞」、既而参上朝廷、挙状奏聞。天皇、於茲、歓喜之有、即勅菟名手云、「天之瑞物、地之豊草。汝之治国、可謂豊国」。重賜姓、曰豊国直。因曰豊国。後、分両国、以豊後国為名。

……『豊後国風土記、総記』(国名由来、起源)

○昔者、郡内百姓、居此野、多開水田、余糧宿畝、大奢已富、作餅為的。于時、餅化白鳥、発而南飛。当年之間、百姓死絶、水田不造、遂以荒廃。自時以降、不宜水田。今謂田野、其縁也。

……『豊後国風土記、速見郡、田野』(地名由来、起源)

○其後少彦名命、行至熊野之御碕。遂適於常世郷矣。亦曰、至淡嶋、而縁粟茎者、則弾渡而至常世郷矣。

……『神代紀、第八段、一書第六』

○風土記云。称伊奈利者。秦中家忌寸等遠祖、伊侶具秦公、積稲粱有富裕。乃用餅為的者。化成白鳥飛翔居山峰生子。〔子化成稲〕。遂為社。其苗裔悔、先過。而抜社之木、殖家。祷祭也。

……『逸文山背国風土記、伊奈利社』

※강림하는 천손(天孫)이 곡령(穀靈)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風土記에 보이는 穀靈傳承을 통해 天孫의 성격(神格)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穀靈이란 곡물을 生長시키는 영혼으로, 벼(稻)가 여무는 것은 이 신의 힘에 의거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곡령은 저쪽 세상인 異鄕에서 찾아오며, 白鳥처럼 창공과 지상을 오가는 조류에 그 연원을 두기도 한다. 오오쿠니누시(大國主神)와 함께 지상왕국(葦原中國)을 건설한 스쿠나비코나(少彦名命)가 돌아간 곳이 도코요노쿠니(常陸國)라거나, 새(鳥類)를 곡령의 化身이라고 하는 傳承 등, 결국 곡식을 영글게 하는 존재가 다른 세계(異界)로부터 도래한다는 사상에서 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일본왕실의 시조 신화는 원래 곡령이 異界에서 건너와 發顯한다는 것이었으나, 대륙(한반도)으로부터 도래한 天孫思想에 영향을 받아 천상세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구도로 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수평적인 이동은 수직적인 降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신화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해가 뜨는 동쪽에서 산봉우리로 옮겨갔다. 또한, 천손의 降臨地도 야마토(大和)가 아닌 규슈(九州)의 그것도 남쪽의 험준한 다카치호(高千穗) 봉우리로 설정되었던 것은, 여기가 쯔치구모(土蜘蛛)족의 곡령신화의 성지(聖地)였던 곳으로 왕조의 시조전승에 흡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松村武雄、日本神話の研究(4)、培風館、1958

岡田精司、古代王権の祭祀と神話、塙書房、1970

三品彰英、建国神話の諸問題(論文集2)、平凡社、1971

三谷栄一、日本神話の基盤、塙書房、1974

柳田国男、食物と心臓(1940.2)、講談社学術文庫、1977

横田健一、日本古代神話と氏族伝承、塙書房、1982

福島秋穂、記紀神話伝説の研究、六興出版、1988
神野志隆光、古事記の世界観、吉川弘文館、1986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몽골인식

박설아(고려대학교)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는 총 57편의 장 · 단편 소설을 창작했으며 이외에 다수의 에세이와 대담집, 기행문을 남겼다. 1996년 작가로서의 생을 마감하였지만, '국민작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현재에 와서도 꾸준히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시바 료타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1962년 6월부터 1966년 5월까지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연재된 『료우마가 간다』(竜馬がゆく)를 통해서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관료와 기업의 관리직 사원을 중심으로 광범한 독자층을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영상화 되면서 국민적인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장치로서 기능했다. 일요일 황금 시간대에 방영된 NHK의 대하 드라마 등을 통해 계속 반복·재생산됨으로써 그것은 20년 이상에 걸쳐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은 물론 국민의 평균적인 역사인식의 틀까지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수많은 대담을 통해 지식인과 문화인이 시바의 견해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역사인식에서 시바의 권위는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 수준에서부터 탄탄한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이다(윤대석 2006:32-34)

이와 같이 국민적으로 침투된 시바 료타로적 역사인식은 동아시아 인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대륙의 관심은 북부 몽골지역에서 출발하였고, 그가 몽골어과를 선택한 이유에서도 그 사실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인이 몽골어를 배우는 것은 프랑스인이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방언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중요한 단어는 생활용어 이외는 공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용법이 다르고, 감정의 표현이 다르나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소년은 전혀 언어의 구조가 다른 영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하고 있다. 그것은 매일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같은 구조의 몽골어를 하는 것이 낫다'(芝山豊 2000:298) 이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양 국가의 언어 관계에서 보면 비교언어학적인 정확함은 제외하고 시바는 일본어와 몽골어의 차이는 프랑스어에 있어서의 게르만어 정도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몽골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절대로 이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친족 언어간의 언어차이나 방언 차이에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몽골어와 같은 우랄알타이어를 구사하는 동아시아의 언어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히 한반도에도 관심이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바 료타로가 작품 속에서 그려냈던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본다면 그의 역사관의 기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과 서구세력의 대립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고찰된다. 동아시아의 동단에 위치해 있던 봉건제 국가 일본이 동진해온 서구세력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해 서구의 열강과 대결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대국으로 부상해갔던 시기였다. 그 기간의 일본은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먹히지 않고 살아남아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 갈 수 있는 국가로 전환했던 것

이다(김채수 2009:11) 시바의 역사관은 바로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일본인들의 삶과 사상을 기술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시바의 역사인식의 바탕에는 동아시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봐야 하며, 그 가운데에는 몽골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시바에게 있어서 동아시아는 몽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며, 그의 내셔널리즘 또한 몽골 지역 중심의 동아시아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어 나왔다.

시바 료타로가 국민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서 또 그의 역사인식이 일본국민의 역사인식을 확립시킴으로서, 그 동안 학교에서 배워 온 교과서적 공식성을 무너뜨린 역사와는 다른 근대 국민국가를 둘러싼 이야기를 흥미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의 지식인의 역할은 어떠한 국가적 차원의 평화 유지나 국민적 차원의 삶의 의미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의 평화로운 공존 방식을 추구해 가고 또 이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향유해 갈 수 있는 논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채수 2009:30) 이러한 시점에서 시바의 역사인식, 즉 동아시아의 인식에서부터 그 근원의 중심에 서 있는 몽골, 유목민족으로의 관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쓴 문학작품은 글로벌 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셔널리즘 시대의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전쟁의 승리와 패망, 원폭 세례, 식민지 지배와 그에 따른 결과 등 세계 어떤 나라의 지식인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였다. 근대 일본 지식인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입장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바도 일본근대 지식인들 중에 하나였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리즘에 의거한 새로운 동아시아 인식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동아시아지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몽골을 소재로 저술한 작품들은 연구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2010년, 몽골의 작가동맹(Mongolian Union of Artists)은 창립 81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랜 시간과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동안 해외작품을 중심으로 한 번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일본문학작품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바야마 유타카(芝山豊)의 보고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80년까지 몽골에서 일본문학을 번역할 때 97%는 러시아어를 통해서 번역된 것으로 일본어로 직접 번역된 것은 약 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일본문학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일본어전문가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그 러시아어를 다시 몽골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당시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문학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번역을 다루는 전문가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일본어로 직접 번역된 일본문학작품이 58%가 되고 반대로 러시아로 번역된 것이 42%가 된다(芝山豊 2008:8) 민주화 운동에 의하여 7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활발하게 번역활동이 이루어져 시바의 작품들도 하나씩 몽골어로 번역이 된다.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몽골에서의 일본문학은 빠른 속도로 그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몽골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고, 그 속에서 일본문학자들은 몽골에 대한 하나의 중심적인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시바야마 유타카(2008:3-4)의 논문에 의하면, 일본문학에 있어

서 몽골관의 유형을 일본문학자를 통해서 3개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2008:3)

<표1>

타입Ⅰ 아무도 살지 않은 황야로서의 「만몽」(몽골) 대표적문학자 : 与謝野昌子 (존재·생존의 무시, 보편주의)
타입Ⅱ 자신들과 같은 몽골인 대표적문학자 : 尾崎土郎、井上 靖、森村誠一 (환경·문화적 콘텍스트의 무시, 보편주의)
타입Ⅲ 「절대의 타자」로서의 몽골인 대표적문학자 : 村上春樹 (절대적인 본질주의)

타입Ⅰ은 말하자면 통계학적인 접근이다. 일본인만이 이용하는 언어 「만몽」(滿蒙)이 의미하는 범위는 중국 청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여진족이 이전에 살았던 토지로 중국의 동북 3성지역과 내몽골지역을 가리킨다. 정확이 말해서「만몽」지역은 몽골이나 현재의 내몽골자치구를 가리키는데 많은 일본인은 몽골과 「만몽」의 다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몽골의 이미지를 「만몽」에 국한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타입Ⅰ은 일본문학자의 몽골관은「만몽」이라는 역사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곳은 만주인이나 몽골인의 토지이고 그 땅의 본래의 주인이 아니었던 한인이나 러시아인의 입식(入植)이 금지되어 온 인구가 희박한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무인의 토지」(無人の地)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타입Ⅱ도 보편주의적인 몽골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자신들의 민족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논리로 존재론적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타입Ⅱ의 보편주의적인 몽골관은 몽골의 독자적인 환경, 문화적인 문맥을 무시한 채 보편적인 가치로 환원하려고 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몽골을 인구가 희박한 토지로 혹은「무인의 토지」(無人の地)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개발주의적 접근을 행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입Ⅱ가 보편주의적인 몽골관을 나타냈다면, 타입Ⅲ은 본질주의에 의한 타자로서의 몽골관이다. 서양인이든 한인이든 일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타자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이항대립에 서있는 존재이다. 타입Ⅲ은 몽골도 다른 인종과 마찬가지인 타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시바 료타로는 타입Ⅱ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자신의 민족과 몽골과의 관계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몽골의 독자적인 환경, 문화적인 측면을 무시한 행위와는 조금 다른, 오히려 몽골인과 몽골의 모습을 전달하려는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倉田百三의『出家와 그 弟子』에 나타나있는 「성결함(聖さ)」에 관하여

陳 明 順(영산대학교)

1

쿠라타 햐쿠조(倉田百三 : 1891(明治 24)~1943(昭和 18))는 21세가 되던 해 폐결핵에 걸려 제일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23세에 병 요양을 하게 된다. 요양하기 위해 산과 바다 그리고 시골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인생에 대한 충만한 감정과 사색(思索)으로 세월을 보내고 난 뒤 1917년(大正 7년) 27세가 되었을 때 『출가와 그 제자(出家とその弟子)』를 쓰게 된다. 이 작품은 불교(佛敎) 서적 탄니쇼(歎異抄)[1]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가마쿠라(鎌倉時代)에 정토진종(淨土眞宗)을 창시한 신란(親鸞)과 그 제자 유이엔(唯円)과의 일화를 그린 희곡(戱曲)이다. 햐쿠조 자신이 「이 희곡은 나의 청춘시대의 기념탑이다. 여러 의미에서 많은 추억을 담고 있다. 나의 청춘은 분명 순수(純粹)하고 열정적이었다. 나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인생에 대해서, 진리(眞理)에 대해서, 연애(戀愛)에 대해서, 내가 부여받은 생명과,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나의 청춘의 번민(煩悶)과 동경(憧憬)과 종교적(宗敎的) 정서(情緖)가 가득 그 속에 담겨 있다. 정감(情感)과 감상(感想)이 풍부한 점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드문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작품에 청춘의 순수함과 종교적 정서 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햐쿠조가 그린 사랑의 모습에 대해, 특히 그가 말하고 있는 성결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2

순수한 마음으로 승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생과 사랑을 하는 유이엔(唯円)은 기생이니까 경멸(輕蔑) 한다는 것은 스승 신란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하고 4막 1장에서 어린 기생 가에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 설령 기생이라도 순수(純粹)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무구(無垢)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하고 불결한 사랑을 하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기생으로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를 손님으로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전에 말했습니다. 실제 당신은 순결(純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료 승려들은 이와 같이 유이엔이 사랑하고 있는 가에데에 대하여 근본도 모르는 천한 기생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생에게 빠져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도 소홀히 하고 기생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유이엔을 두고 절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추방당해야 한다고 핍박한다. 승려들은 불만과 빈정거림으로 기생과의 사랑을 천박하다고 비난하면서 연애를 당장 중

---

1) 탄니쇼(『歎異抄』)는, 카마쿠라 시대 후기에 쓰여진 불교서(佛敎書). 작자는 신란에게 사사받은 유이엔으로 전해짐. 『歎異鈔』라고도 함.

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유이엔은 직업의 귀천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나쁘게 단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하고는 자신을 처음부터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자신의 사랑마저도 냉담하게 비판한다고 슬퍼한다. 그리고 제 5막 1장에서 가에데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주장한다.

> 당신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냉정한 느낌이었고 마음이 경직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다) 그 여자가 자기는 더럽혀져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빌었을 때에는 성결한(聖い) 느낌이 내비치었습니다. 요즈음 그 여자는 참으로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여자로부터 순수한(純な) 종교적인 섬광을 보곤 하여 고마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말해도 오히려 승려들은 유이엔에게 부처님 대신에 기생을 섬기라고 냉혹하게 나무라기만 한다. 유이엔은 비록 기생이지만 어린 소녀의 마음을 너무 짓밟고 있다는 것과, 승려니까 훌륭하고 기생이라고 해서 천하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관념적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승려의 마음에도 더러움은 있고 기생의 마음에도 성결함(聖さ)이 있습니다. 순수한(純な)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에는 인간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 당신들이 여자에 대해서 진실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여자를 나쁘게 본 것은 아니겠습니까.[2)]

승속(僧俗)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승려(僧侶)라도 세속적인 때가 있을 수 있으며 속인(俗人)이라도 그 마음은 승려보다 더 깨끗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몸을 더럽힌 기생이기 때문에 마음마저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념적인 생각은 너무나 통속적임을 표현하고 있다. 유이엔은 「기생이지만 마음은 순결(純潔)한 여자」라고 말하고는 결혼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육체적인 것보다 순수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거듭하여 다른 승려들에게 설득과 항변도 해보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유이엔의 모습을 보고 승려들은 유이엔과 기생 가에데의 연애에 대해 수행하는 승려로서 부당하다고 하며 스승인 신란(親鸞)에게 유이엔을 처벌하라는 항의를 하지만 신란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해시킨다. 그리고 유이엔에게 종교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도 좋은 소원을 어떠한 현실적 장애에 부딪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절실한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일러준다. 즉 스승인 신란도 육체를 떠난 마음의 사랑을 인정함과 동시에 승려 역시 한 인간임을 주지하고 있다. 제 5막 2장에서는 신란(親鸞)과 유이엔의 대화 속에서 인간의 운명과 함께 성결한(聖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 한다.

> 신란: 기도 속에는 깊은 실천적인 마음가짐이 있다. 아니, 실행이 가장 깊은 것이 기도라네. 사랑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사랑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자네는 지금

---

2) p.211

무엇보다도 너의 기도를 성결한(聖い)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네의 사랑을 부처님만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浄めなくては) 안 되는 것이라네.

유이엔; 아아, 나는 부처님에게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성결한(聖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어떠한 사랑이 성결한(聖い) 사랑입니까?

신란; 소원과 정해진 운명(運命)을 내면적으로 잇게 하는 건 기도일세. 성결한(聖い) 사랑이란 부처님의 제자에게 허락된 사랑을 말한다네. 일체의 모든 것에 저주를 보내지 않는 사랑을 일컫지. 부처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외의 사람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여기서 성결한(聖い)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있다. 또한 신란은 기도는 운명을 부르기도 하고 운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말한다. 부처님에게 두 사람을 맺어달라고 기도하면 부처님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을 움직이면 바로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야 말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에게 맡길 것, 사랑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저주를 보내지 말 것을 주지하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타인에게 저주를 보내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결한(聖い)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결한(聖い) 사랑에 이어 제 5막 2장에서는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

유이엔;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가슴이 벅차서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신란; 그 점에 사랑의 잘못이 있는 거네. 사랑의 작용에는 무한성이 있다네.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은 타인을 사랑함에 따라 깊어지게 되어야 하네. 만나 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다. 자신도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만나고 싶다. 하지만 동료가 병으로 누워 있어 자신이 간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만나러 가는 것이 보통 사랑이다. 그 때 동료를 간호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음을 참고, 또 만나자던 애인도 그러면 오늘은 오지 말고 간호해 드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인내와 희생에 의해서 자기들의 사랑이 보다 존귀한 것이 되었다고 여기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외로움을 참고, 울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 때 만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사랑이 강하고 확실해 지는 거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라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은 성결한(聖い) 사랑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햐쿠조는 어떠한 의도로 구분하고 있을까. 작품의 내용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은 인내와 희생으로서 타인을 배려함으로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랑으로 이해된다.

유이엔; 제가 해온 것은 성결한(聖い) 사랑의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보내지 않는 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흩트리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영혼의 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이 아니라네.

이와 같이 신란은 제자 유이엔에게 영혼의 품위를 지키는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에 대해서도 그 참뜻을 말하고, 또 죽이고 죽음을 강요하고 상대의 운명을 홍미로 삼는 사랑과 연애는 결코 상대의 운명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한다.

신란; 사랑이 서로의 운명에 상처 입히지 않는 일은 드문 일이라네. 사랑이 죄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은 연인을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네. 자비로 감싸야 한다네. 부처님이 중생을 보살피듯 연인을 대해야 하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완전한 타인으로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햐쿠조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함께 부처님이 중생을 보살피듯 베푸는 사랑, 불자로서의 사랑을 성스러운(聖なる) 사랑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또한 제 6막 2장에서 신란의 대사로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일대사를 가능한 한 수치스러움을 적게 하여 지내기 위해서 말이네. 나는 그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네. 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처럼 맑은(清らかな) 마음으로 주고 싶네.(중략) 성중(聖衆)의 무리는 그 음악에 맞추어 부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셨어. 그러자 하늘에서 꽃이 내려오고 주위는 맑고 깨끗한(淨い)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사용하고 있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제 6막 4장에서는 스승 신란의 임종 앞에 「스승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제(師弟)의 인연만큼 깊고도 순수한(純い)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제자의 말을 통해 동음이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로서가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결함(聖い)과 더불어 같은 음으로 깨끗한(淨い), 순수한(純い)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이와 같이 햐쿠조는 작품을 통하여 제1막에서 순수한(純な) 사람을 제시하고 제 5막까지 그 순수한 사람의 성결한(聖い) 사랑을 전개하고는 성스러운(聖なる) 사랑과 성결한(聖い) 사랑에 대해 그 의미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 6막에서는 이와 함께 깨끗한(淨い) 향기, 순수한(純い) 사제의 인연을 동음이자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사랑을 그리기 위한 것이겠지만 키요이(きよい)의 음을 빌어 성결한(聖い) 사랑뿐만 아니라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깨끗한(淨い), 순수한(純い)의 의미를 한자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의하여 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雪国)』에 나타난 자연관에 대한 고찰

권 경(고려대학교)

서론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는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써, 그는 일본의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미의 표현을 작품 창작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작가이다. 그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정서적 의미를 중시하고 일본인의 감성을 미려히 표현하고자 하였다. 가와바타(川端) 문학의 특징으로써는 자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자연에 있어서의 미의 응시, 그리고 허무적인 세계와 연관시켜 나가는 것이 작품의 일관적인 모티브이다.[1)]

본고에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이하 가와바타)의 대표작인『설국(雪国)』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로서의 자연묘사와 작중 인물들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가와바타의 자연관이 본 작품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자연관의 본질과 미의식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설국』의 완결판이 나온 1948년부터 지금까지『설국』의 주제고찰, 문체연구, 『설국』에 나타나는 자연, 여성상, 생사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져 왔다. 그중 『설국』의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하토리 데쓰야(羽鳥徹哉) 의「설국에 있어서의 자연(雪国における自然)」이 있다. 하토리 데쓰야(羽鳥徹哉) 는 설국의 자연경물의 묘사를 통하여 그 자연경물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2)]

김채수는「『설국』과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자연관」에서 작품세계의 구성과 자연, 시점인물의 관심과 자연, 사건과 자연 이 세 방면을 통하여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에서 자연을 어떠한 식으로 기술하였는지 그 자연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雪国)』에 나타난 자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자연관의 성립경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설국』의 구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설국에 나타난 자연묘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장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자연관의 성립

1.일본문학의 자연관의 영향

가와바타는 소년시대 때부터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마쿠라소시(枕草子)』등 일본의 고전문학에 친밀감을 느꼈다. 왕조(王朝)문학의 미적 관념인「모노노아와레(物の哀

1) 西村真一・深沢恒男他 「川端康成の文学における「雪国」と「山の音」を通じて」『信州大学教養部紀要』１p.17

2) 羽鳥徹哉(1993)『作家川端の展開』、 教育出版センター p.580

れ) 」의 정서는 고아인 가와바타의 고독한 심정을 위로하고 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와바타는 일본의 고전들을 일관하는 모노노 아와레(物の哀れ) 야말로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미의식이라는 시살을 깨닫게 되었다. 가와바타는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物の哀れ) 라는 미의식을 자연에 대한 정감의 일종으로 의해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계기로 일본 전통미에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허무를 초월하여 고통스럽고 추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답고 순수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서정성이 짙은 참신한 작품을 써서 시대적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일본사회를 순수화 시켜 나갔다.

가와바타는『설국』에서 작품의 주인공인 시마무라(島村)로 하여금 모노노 아와레를 의식하게 해서 본 작품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모노노 아와레의 의식을 느껴가게 한다.[3)]

2. 신감각파 문학

가와바타가 문학적 도정에서 자연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하기 시작한 것은 신감각파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던 시기부터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을 경계로 문학계의 동향은 일변하여 새로운 문학형태가 취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신감각파의 문학 운동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문학자에게도 이전의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신감각파 문학은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내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닌 외적 요구에 의해 생겨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4)]

가와바타는 신감각파운동을 일으켜 갔던 문인들의 기관지인『분게이 지다이(文芸時代)』(1924.10～1927.5)의 제4호(1925.1)에서「신진작가의 신경향 해설(新進作家の新傾向解説)」을 통해「신감각적 표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 안에 천지만물이 있다는 느낌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주관의 절대성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기쁨이 있다. 또, 천지만물 안에 자신의 주관이 있다는 느낌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주관의 확대이고, 주관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면 자타일여, 만물일여가 되고, 천지만물은 모두 경계를 잃고 하나의 정신으로 융화한 일원의 세계가 된다. 또 한편, 만물 안에 주관을 유입하는 것은, 만물이 정령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로, 즉 다원적인 만유정령설이 된다. 여기에 새로운 구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양의 오랜 주관주의가 되고, 객관주의가 된다. 이러한 느낌으로 사물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진작가의 표현의 태도이다. [5)] (『文藝時代』1925.01 필자 역)

---

3) 김채수 (2004)『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 연구 』보고사 pp.34

4) 김천미(2008)『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설국(雪国)』연구-등장인물 분석과 헛수고의 의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5) 原文：自分があるので天地万物が存在する、自分の主観の内に天地万物がある、と云ふ気持で物を見るのは、主観の方を強調することであり、主観の絶対性を信仰することである。ここに新しい喜びがある。また、天地万物の内に主観がある、と云ふ気持で物を見るのは、主観の拡大であり、主観を自由に流動させることである。そして、この考へ方を進展させると、自他一如となり、万物一如となって、天地万物は、全ての境界を失って一つの精神に融和した一元の世界となる。また一方、万物の内に主観を流入することは、万物が精霊を持っていると云う考へ、云ひ換えると多元的な万有精霊説になる。ここに新しい救ひがある。この二つは、東洋の古い主観主義となり、客観主義となる。かう云ふ気持で物を書現さうとするのが、今日の新人作家の表現の態度である。 (川端康成『文藝時代』1925.01)

가와바타는 자신의 신감각적 표현수법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존재한다 自分があるので天地万物が存在する)」는 서구의 의식중심 사상(즉 자기가 주체이고 자연이 객체라는 사상)과 「천지만물 안에 자기의 주관이 있다.(天地万物の内に主観がある)」는 동양의 만물중심사상 (자연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 이 융합한 형태를 불경의 만물일여(萬物一如), 윤화전생(輪廻転生)사상으로 이해해 그것을 자신의 신감각적 표현수법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6)

가와바타는 사실(写実)의 재현을 도모하는 리얼리즘을 배척하고 새로운 의미에서의 문어(文語)의 부활, 의식적인 구성, 신감각파가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을 창조하였다. 그는 인간의 심리나 의식의 흐름을 다원적인 표현으로 구사함으로써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려냈다.

『설국(雪国)』에서 가와바타는 만물일여(萬物一如)의 사상에 입각해 성립된 자연관을 가진 주인공을 설정해서 그 주인공의 의식을 통해 자연을 묘사했고, 소설의 미적세계를 나타냈던 것이다.

제2장 설국의 구성과 자연

『설국(雪国)』은 1935년 1월에 집필하여 1947년 10월에 완성된 작품이다. 『설국』 이라는 작품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작품에서의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국』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설국 이었다. (國境(こっきょう)の長(なが)いトンネルを抜(ぬ)けると雪國(ゆきぐに)であった。」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된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무대는 긴 터널에 의해 일상적·현실적인 세계와 떨어진 설국이라는 지방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는 무대로서의 설국은 크게 두 개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일본의 근대화 역사 속에서 아직 산업화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현상으로서의 설국이라는 공간이다. 또 하나는 그 토지 특유의 풍토 · 풍습 · 민속이 자연의 생명에 깊게 뿌리를 내린 채, 자연과 동화하며 일본인 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며 영위해 가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설국이라는 풍취는 시점인물인 시마무라(島村)의 오감을 통해 수용되어 농밀한 교감이 이루어 진다. 즉 설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주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7)

『설국』은 시점인물인 시마무라(島村)가 초여름, 가을 그리고 초겨울 세 차례에 걸쳐 설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마코(駒子)와 요코(葉子)를 만나게 된다. 그가 설국을 찾아와 그녀들을 만나가는 이유는 신록의 산을 등산함으로써 자연을 만나게 되고,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고마코(駒子)와 요코(葉子)를 통해 인간의 오감을 거쳐 수용된 「자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설국』에 있어서 「자연」이란 배경 요소가 내포

6) 김채수 (2004)『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 연구 』보고사 pp.149

7) 양연자(2004)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학연구-주제고찰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3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일상의 사고를 훌쩍 뛰어넘는 저편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일상적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고마코(駒子), 요코(葉子)와의 삼각관계를 통해 아름다움을 감수하는 시마무라(島村)는 결국은 그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이다. 시마무라(島村)는 고마코(駒子)와 요코(葉子)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순순한 미의 추구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가와바타는 시마무라(島村)의 눈과 감정을 통하여 야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고마코(駒子)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변모를 거듭하는 동안 죽음을 향해 치닫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헛수고(徒労)」라는 자신의 관념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그런 사고방식을 특히 설국의 자연을 통해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변해 가는 자연을 통하여 인간 세상의 풍물과 인간을 인식해 가는 인물을 시점인물로 하여 그를 통해서 인간은 변화를 거듭해 가는 자연과 맞물려 항상 변화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시마무라(島村)의 여자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현실의 세계와 비현실의 세계 사이에서 일으키는 관심의 대립이 작품의 구조가 되어 있다.[8)]

제3장 설국에서의 자연묘사

『설국』의 자연은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자연과 인간이 일체화되는 과정을 작가의 미의식으로 표현하였다. 『설국』작품에 있어서 자연묘사는 작품구성과 세부묘사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완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설국에 나타난 자연묘사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자연묘사와 작중인물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미의식과 자연관의 본질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론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자연관은 일본문학의 모노노 아와레(物の哀れ) 의 미의식과 신감각파 문학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그는『설국』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등장시킴으로서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려고 하였고 자연을 통하여 인간을 생각하고 말하려 하였다. 인간은 자연 속의 한 존재로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존재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한히 변화를 거듭하는 자연 속에서는 한 순간의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특성인 자연의 변화를 강조하여 그 이미지를 묘사해냄으로써 인간의 생의 허무함을 일깨우려 했던 것이다.

『설국』에서는 자연에 대한 묘사를 인간의 심리와 융합시켜 작품의 미적 표현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가와바타는 인간과 자연의 허무한 세계의 최고의 미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

8) 최종훈(2007)「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설국(雪国)』론-색채표현과 주제와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23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p.350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１６세의 일기」론 (A Study of Kawabata Yasunari's Zyuroksainoniki)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양연자(유한대학)

목 차

서론
제１장 작가와 나레이터
제２장 중심사건과 중심인물
제３장 진행사건
제４장 전환점과 전환의식
결론

서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아동문학은 1）작자가 분명히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소년소녀잡지 등에 실기 위해 창작한 소년소녀소설 2）일반문학（순문학）작품 중에서 아동들에게도 수용되고 있는 작품군 등의 2가지 계통으로 분류된다. 가와바타가 소년소녀잡지에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은 「장미의 유령（薔薇の幽霊)」[1] 이고, 「꽃과 작은방울（花と小鈴）」[2]를 마지막으로 ２６년간 약 ３０여편의 소년소녀소설을 집필하였다. 또한 앞의 1）군과 2）군의 작품가운데서도 2）군에 속하는 가와바타의 자전적 작품「１６세의 일기（十六歳の日記）」와 손바닥소설（掌の小説）에서 아동문학적 요소가 가장 많이 고찰되어진다. [3]

본고에서는 「16세의 일기」에서의 어떠한 점을 아동문학으로서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문학적 특질이 「16세의 일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은 아동문학의 특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고찰범위를 텍스트에 한정시켜「16세의 일기」의 작품세계를 구성하는 언어들의 유기적 관계를 면밀하고 충실하게 검토 분석.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행한다. 첫째 작품과 서술 형식과의 관련 양상 파악을 통해 작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둘째 사건의 레벨에 따른 작품 분석을 통해 누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단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갔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사건의 전환점과 전환양상을 통해 시점인물의 의식이 어떻게 전환되어 갔는지를 파악,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을 추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작품을 분석, 작품 전체의 본질과 아동문학과의 관련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가와바타는 순수한 창작활동 외에 아동문학으로의 접근을 계속해서 모색했던 것으로 보

1) 川端康成「薔薇の幽霊」, 『少女世界』, 博文館, １９２７. １０
2) 川端康成「花と小鈴」, 『ひまわり』, ひまわり社, １９５３. ７
3) 小林芳仁「川端康成」, 『国文学解釈と鑑賞, 第14券14号』, 至文堂, １９８３, １１, p.161

인다. 그것은 그의 나이 40세인 1939년경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5월 그는 오야 소이치(大宅壮一), 츠보타 조지 들과 함께 「소년문학간담회」를 결성한다. 그리고 중앙공론사를 통해서 「모범작문전집 (模範綴方全集) 」을 간행하고, １９３９년 ５월에서 ６월에 걸쳐「모범작문전집 선정의 말 (模範綴方全集選の言葉) 」을 게재한다. [4] 「소녀의 친구 (少女の友)」의 「선정의 말 (選者の言葉)」를 썼다. [5] 오사라기 지로 (大仏次郎) , 기시다 구니오 (岸田国士), 도요시마 요시오 (豊島与志雄) , 노가미 야에코 (野上弥生子) 들과 함께 「아카톤보 (赤とんぼ)」회를 만들어 잡지「아카톤보 (赤とんぼ)」를 출범시킨다. 물론 작품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다. [6] 「소년소녀 (少年少女) 」의 작문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１９６３년 １１월 제１회 노마아동문예상선평 (野間児童文芸賞選評) 을 맡아한다. １９３９년 7월에는 일본여자대학교에서 「작문이야기 (綴方の話) 」로 강연 등을 하는 등 「작문운동」을 전개해 갔다.

이처럼 가와바타는 아동문학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며 참여해 갔다. 그렇다면 가와바타로 하여금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게 했던 근본요소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밝힌 목적 외에 가와바타 안에 내재된 그 요소를 앞에서 말한 방법론을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

「16세의 일기」는 가와바타가 １６권본전집 제２권의 아토가키 (あとがき) 에서 밝히고 있듯이 １９１４년 １６세 되던 해 ５월의 일기에 약간의 보충주만을 달아서 １９２５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임종에 가까운 조부의 곁을 지키며 스케치한 기록이다. 이 작품에 관해서는 打木村治가 “소년소설의 소년상 (少年像) 으로 가득찬”[8]으로 평하고 있다. 마츠자카 도시오 (松阪俊夫) 는 작품의 제작과정에서의 제작시기와 가와바타의 또 다른 작품 「뼈줍기 (骨拾ひ) 」와의 관련성, 그리고 작자의 의도에 대해 논한 바있다. 이소가이 히데오 (磯貝英夫) 는 자신의 논문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정신사 (精神史) 를 다루었는데. 특히 조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했다. 하라 젠 (原善) 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의 원근법 (川端康成その遠近法) 』에서 결여된 소년기와 그 상흔에 대해 논하였다.

제１장. 작가와 나레이터

가와바타의 조부 가와바타 산파치로 (川端三八郎)는 아들이 남긴 혈육 두 명중 하나는 친

---

4) 소학교 １학년에서부터 ６학년까지 선정된 작품 하나하나에 선정의 말을 쓰고 있다. (『川端康成全集第２４巻』pp.482-501

5) 선정의 평을 １９４１년에서 １９４３년까지 계속해서 썼다. (１９４１년 １월호부터 １１월호까지 １１개, １９４２년 １월호부터 １９４２년 １２월호까지 １２개, １９４３년 １월호부터 １９４３년 １２월호까지 １２개)

6) １９４６년 ６월호, １９４６년 ７월호, １９４６년 ８월호, １９４６년 ９월호, １９４６년 １０월호, １９４６년 １１월호, １９４６년 １２월호, １９４７년 １월호, １９４７년 ２월호, １９４７년 ３월호, １９４７년 ４월호, １９４７년 ５월호, １９４７년 ７월호, １９４７년k ８월호, １９４７년 ９월호, １９４７년 １０월호, １９４７년 １１월호, １９４７년 １２월호, １９４８년 １월호, １９４８년 ２월호, １９４８년 ３월호, １９４８년 ４월호, １９４８년 ５월호, １９４８년 ６월호, １９４８년 ７월호, １９４８년 ８월호, １９４８년 ９월호, １９４８년 １０월호. (『川端康成全集第２４巻』pp.５３５－５６５)

7) １９５０년 １월호, ３월호, ４월호, ５월호, ６월호, ８월호, ９월호, １０월호, １１월호, １２월호, １９５１년 １월호, ２월호, ３월호, ４월호, ５월호, ６월호, ８월호, ９월호, １０월호, １２월호,

척집에 맡기고 야스나리만 데리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옮겨가 살게 된다. 이때의 나이가 63세였다. 이미 5명의 자식을 앞세웠던 조부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혈육 야스나리는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이 일기를 썼던 1914년 5월까지 조부는 손자인 가와바타와 남은여생 10여년을 고향에서 살다가 그의 나이 75세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16세의 일기」는 １９２５년 ９월호 「문예춘추」에 처음으로 발표 되었다. 작자의 나이 16세 때의 일기로 제일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이고 있다. “작자는 말한다. 괄호 안은 27세 때 덧붙인 설명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16세 때의 소년의 일기 그대로를 원본으로 괄호 안에 약간의 설명만 보충해서 발표된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작자는 이 작품의 ‘아토가키’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경위를 밝히고 있다. “1925년 26세였던 나는 조부가 죽은 후, 친척집과 기숙사, 하숙집 등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 떠돌고 있던 중, 몰락한 백부 집 창고에 있던 아버지의 진찰가방 속에서 이 일기를 발견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이 일기를 썼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조부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조부의 모습보다도 훨씬 추하게 그려져 있다.” 이와 관련지어 가와지마는 가와바타 자신이 “자작을 해설하는 것은 결국 자작의 생명을 국한시키는 것” 이라고「문학적자서전」에서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굽히면서까지 거듭해서 해설을 붙이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즉 1) 1925년 발표당시의 아토가키, 2) 1938년 신초샤 간행 『가와바타야스나리전집 제6권』의 아토가키에서 「16세의 일기」에 관해 언급한 부분, 3) 1948년 신초샤 간행 『가와바타야스나리전집 제2권』에서 「16세의 일기」의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 등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16세의 일기」의 창작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작자의 나이 27세 때 발표했던 이 작품을 이미 발표해 버린 작품보다 선행하는 처녀작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9)]

하지만 이처럼 이 작품은 제작연도와 발표연도에 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나, 가와바타가 발표했던 작품들 중에서는 그 집필시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와바타 자신에게는 소중한 기록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가는 철이 들기도 전에 양친을 모두 잃는다. 소학교 1학년에 조모를 잃기 전까지는 조부와 조모 밑에서 성장, 그 이후 중학교 3학년까지 조부와 단 둘이 산다. 조부를 잃은 다음부터는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집을 전전한다. 거의 10여년을 조부모와 함께 생활했고 그 때까지의 가와바타의 정신형성 과정에서 부모와 조모 누이동생 순으로 잇달아 계속되는 죽음과 대면해 왔다. 16세인 지금 마지막 혈육인 조부의 숨이 잦아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생활에서의 소년의 조부로 향한 애절함과 애통함, 애착의 정, 그리고 의지가지없는 고독함과 쓸쓸함 속에서도,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수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감정을 억제한 소년다운 감각으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난 가와바타의 내부에 내재된 아동성은 그 이후의 그의 소년소녀소설의 기조를 이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바야시 이치로(小林一浪) 도 가와바타의 아동문학 내지는 소년소녀소설의 원형(原型)은 「손바닥소설」「16세의 일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제2장. 중심사건과 중심인물

이 이야기는 1914년 5월 4일에서부터 1914년 5월 16일까지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중심

9) 小林一浪「川端康成と児童文学ー少年少女小説をふくむー」,『鑑賞日本現代文学 川端康成』,角川書店, 1982, pp. 337-338

사건은 조부의 임종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 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그 중심에는 '나' 가 있고, 그 '나' 는 죽어가는 75세의 할아버지를 사생하는 16세 소년이다. 병석의 조부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뒤척이지도 못하는데다가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다. 신경이 마비된 까닭에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폭식하기 일 수 이다. 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배변도 못보고, 소변을 볼 때도 고통스러워 한 밤중에도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가 한 달이나 지속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아버지의 의식은 뚜렷하다. 물론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언제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끝없이 말한다. 외견상 말라서 뼈가 앙상한 얼굴에 거의 머리가 다 빠져 성글성글한 백발, 부들부들 떨리는 손,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꿀꺽꿀꺽 움직이는 학모가지의 울대, 다리도 머리도 다 쭈글쭈글 주름투성이라 피부를 잡아 늘이면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외 등장인물로서 인근에 살면서 할아버지를 간병 해주러 오는 오미요(おみよ) 가 있다. 오미요가 손자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 의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가끔 오미요에게 자신에게 불친절한 손자에 대한 섭섭함을 호소하는 적도 있지만, 소변 시중이 싫어서 불만에 가득 찬 손자에게 늘 미안하다고 한다. 본래 호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오미요에게는 마음놓고 의지하지만, 그 외 오바상에게는 안쓰러울 정도로 조심한다.
'나' 는 만나이로 1 4 살, 중학생이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은 쓸쓸함과 적막함이다. 이와 같은 나의 감정 상태는 할아버지의 노망과 맞닥뜨릴때마다 격한 감정으로 변한다. 하나 남은 육친인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쇠약해가는 모습을 애절하게 지켜보는 나는 할아버지의 끝없이 계속되는 잔소리와 요구에 사납게 소리치며 화를 내기도 하고,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다가도 다시 후회하며 반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과 서러움에 겨워 울음보를 터트리기도 한다. 세상에서 이처럼 하기 싫은 일은 없을 거라며 투덜거리면서도 할아버지의 대소변 시중을 들어준다. 그런 '나' 에게는 할아버지의 소변시중을 들 때, 소변 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계곡으로 떨어지는 맑은 물소리' 로 표현하는 소년다운 천진함도 있다. 때로는 할아버지를 향해 격하게 소리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소년의 마음은 측은할 정도도 할아버지 곁에 바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제 3 장. 진행사건

제 4 장. 전환점과 전환의식

결론

아동문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린이는 정서, 지능이 모두 미숙하여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유기체이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은 첫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걸 맞는 내용이어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점을 아동 문학의 독자성이라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16세의 일기」는 어느 정도의 아동문학으로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그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했던 목적에 따라 「16세의 일기」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 작품에 내

재된 아동 내지는 소년소녀소설의 요소를 도출해보았다. 더불어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내재된 아동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 는 「가와바타 문학에 드러난 아동상」에서 「아름다운 여행」에 대한 감상을 '농아를 주인공으로 했던 것은 교육소설에서 보이는 천편일률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아를 통해 인생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달하고자 했던 시도' 라 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직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불행, 병자, 신체적장애자,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타자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디어는 사회로의 시각을 확대시켜서, 꿈의 세계로부터 현실적인 생활에로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다.

「16세의 일기」에서의 소년은 매일매일 추한 모습으로 쇠약해지는 불행한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수용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생의 본질을 끝까지 응시함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빠져 나와 살아남은 마지막 혈통으로서의 생존에의 자각과 내성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소년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부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접촉함으로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수용,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사랑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진실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川端康成『川端康成全集第二巻』新潮社, 1980
川端文学研究会編『傷魂の青春』教育出版センター, 1976
田村充正外編『川端康成の世界その思想』勉誠出版, 1999
小林芳仁 「川端康成」『国文学解釈と鑑賞第４８巻１４号』至文堂, 1983
小林一郎 「川端康成と児童文学ー少年少女小説をふくむー」『文学論藻』
東洋大學文學部紀要 第32集 1978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방랑기(放浪記)』와『풍금과 물고기의 마을(風琴と魚の町)』에 나타난 공간 고찰
-도쿄(東京)와 오노미치(尾道)를 중심으로-

박호영(고려대학교)

1. 들어가며

『방랑기』는 작가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1903-1951)의 초기 대표작으로 1928년 8월부터 1929년 10월까지 잡지 뇨닝게이쥬츠(女人芸術)에 연재되었고, 1930년 출판사 가이죠샤(改造社)에서 간행[1]된 작품이다. 주인공 소녀가 행상인의 부모를 따라 각지를 전전하며 생활하다 도쿄(東京)에 상경하여 식모, 여공, 급사 등을 하면서 가난에 대처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자전풍의 소설이며, 작자의 파란만장한 체험을 일기풍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간행되자마자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2]

『방랑기』는 작가가 발표할 의사를 갖고 쓰인 글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허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일기체 소설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그녀가 경험했던 단순한 '가난' 만이 아닌, 그녀가 체험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심상풍경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3]

후미코의 생애를 찾는 것은, 후미코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생애를 살

---

1) 斎藤富一(1997) 『私の林芙美子』, 崙書房出版株式会社, p.32
2) 김석자(1999) 『현대 일본문학 100선』, 단국대학교, pp.117-119
3) 발표의 의사를 갖고 쓰여진「작품」이 문자 그대로「사실」일 리가 없다. 그것에는「창작」이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 그「창작」을 사람들은 허구라고 부른다. (중략) 후미코는 스스로를 이야기를 가난한 히로인으로 하여,「노래 일기(歌日記)」속에 만들어내었던 것이다.「창작」의 태도는, 당연한 것으로「노래 일기」중에서 일기를 띄엄띄엄 추출하여『방랑기』를 정리하는 중에 있었는데 (중략) 독자는 이「허와 실」(虚実) 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의 밖에 두고『방랑기』를 즐기며 (이것이)후미코가 경험한「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녀의 심상풍경**으로서는, 그것은 모두「진실」(真実)인 것이다.「허실등분」(虚実等分)이 없었다면『방랑기』는 단순한 「가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전게서,『私の林芙美子』, p.49, 밑줄은 논자에 의함)

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문학의 이해를 위해서는 후미코의 생애와 그것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병행해서 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이 그녀의 문학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녀가 그렇게 표현한, 그 마음(心根)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4)]

사이토 도미이치(斎藤富一)도 지적한 바 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일기체 소설인 작품과 작가의 실제 생애를 비교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 허구적인 부분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밝히기 보다는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그렇게 문학작품에 표현한 작가의 마음, 그녀가 경험한 장소들에 대한 의미 즉, 심상풍경(이미지)은 어떠했는지를 밝혀보는 것에 있다.

2. 장소의 경험

1) 하야시 후미코의 생애

하야시 후미코는 1903년 12월 31일 출생.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山口県 下関市 田中町)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으나 최근 모지(門司)출생설도[5)] 있다. 실명은 후미코(フミコ). 행상인인 아버지 미야타 아사타로(宮田麻太郎)와 어머니 하야시 기쿠(林キク)의 장녀로, 소학교는 각지를 전전 하다가 겨우 오노미치에 정착하여, 오노미치 고등 여학교를 졸업하기에 이른다. 소학교 시절의 은사 고바야시 마사오(小林正雄)와 오노미치 고등여학교 시절의 은사 이마이 도쿠사부로(今井篤三郎)에 의해 문학에 눈을 뜨게 된다. 여학교 졸업 후, 메이지대학(明治大学専門部 商科)에 입학한 첫사랑인 오카노 군이치(岡野軍一)를 따라 상경하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은 성사되지 못하고 남자는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 취직해 버린다.

하야시 후미코의 양친은 후미코를 따라 1922년경에 상경하여 1923년 대지진시에는 정수장 서쪽의 주니소(十二社)에서 살았다.

---

4) 상게서, p.74

5) 하야시후미코 자신이 『방랑기』『한사람의 일생』에서 시모노세키에서 태어났다고 써있었기 때문에 종래는 下関 출신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쇼와48년이 되어, 모지에 사는 의사, 井上貞邦의 조사에 의해, 모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출생지」의 비석이 2개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본인도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川本三朗(1997) 「林芙美子と昭和 プロローグ」、『大航海』、No.16, 新書館, p.26)

이후, 후미코는 하녀, 여공, 사무원, 카페의 여급 등을 하면서 다나베 와카오(田辺若男(詩人,俳優))와 동거하다가 혼고(本郷) 난텐도(南天堂)를 기점으로하는 아나키스트 시인 등과 알게 되고, 1925년경에는 노무라 기치야(野村吉哉)와 결혼하여 세타(瀬田)에 살았다가 세타가야(世田谷)의 고마자와(駒沢)로 집을 옮긴다. 그러나, 노무라와의 결혼생활도 2년도 채 못 되어 헤어지게 된다. 후미코는 한때,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가 살고 있던 혼고(本郷)의 술집 2층에서 동거도 하였다.

1926년에는 데즈카 료쿠빈(手塚縁敏)과 결혼하여 혼고 호라이초(本郷 蓬莱町 大和館)에서 살다가, 1927년에는 스기나미구 세이부 전차 차고(杉並区高円寺 西武電車車庫) 뒤편 2층에 방을 빌린다. 이후 와다보리(和田堀의 안의 妙法寺의 浅加園)에 집을 얻어 살다가, 1930년에는 요도바시구 가미오치아이(淀橋区 上落合町三輪)의 2층 집으로 옮겨 살게 된다. 이 해는 방랑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중국과 파리 등을 여행 하였으며, 귀국한 1932년경에는 오치아이가와(落合川)의 맞은편 언덕 위의 서양식(和洋式) 집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6)]

2)『방랑기』와『풍금의 물고기의 마을』에 나타난 장소의 경험

『방랑기』에 등장하는 주요지명으로는 그녀가 『방랑기』속에서는 과거회상 부분으로 처리했으며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같이 행상을 하면 지냈던 규슈지역과『풍금의 물고기의 마을(風琴と魚の町)』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유년기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오노미치, 그리고 첫사랑의 연인이 살았던 인노시마(因島), 그녀가 고향으로 가겠다며 여행을 떠나곤 했던 다카마쓰(高松)와 도쿠시마(徳島), 돈벌이를 위해서 모포가게 여사무원으로 일하던 오사카(大阪)와 카페 여급으로 일했던 요코하마(横浜), 어머니와 행상을 다니던 오미야 등이 있으며, 바쁜 생활 중에도 그리운 여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러 휴가를 얻어 교토(京都)에도 다녀오곤 했다.

그밖에도 힘들고 어려운 도쿄 생활 중에 '지금 이대로 로는 폭발해 버릴 것'

---

6) 海野 弘(1982)「日本の1920年代(八) 林芙美子『放浪記』- 都市と文学」,『海』, 8月号, 中央公論社(東京)、pp.172-183 와 浅井 清 他7人 編(1979) 『研究資料現代日本文学 第1巻 小説·戯曲 』, 明治書院, pp.400-401 참조

같다며 떠나곤 했던 고베(神戸), 나루토(鳴門), 미카도(三門), 이치부리, 나오에쓰(直江津) 등 기분전환, 생활의 충전을 위해서 떠났던 여행지로서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방랑기』에 나타난 장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부에서는 엄마와 동거하고 있던 요도바시(淀橋)의 주니소(十二社), 배우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다바타(田端).『두 사람(二人)』간행 때 쯤의 다바타(田端)역 부근, 부부로 연립(長屋) 생활의 다이코도(太子堂), 도끼와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고마고메의 센다기초(駒込千駄木町), 제2부 속편에서는, 증권회사(株屋) 근무시절의 주니소(十二社), 지진 직후의 네즈곤겐(根津権現) 옆, 여학생 베니와 친하게 된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画塾)가 내려다보는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고이시가와(小岩川 富坂町),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하숙에 동거했던 혼고(本郷追分), 자살을 도모했던 가야초(下谷茅町), 살면서 일했던 카페나 식당 등은 히가시나카노(東中野)에서 간다(神田), 신주쿠(新宿), 요코하마(横浜), 오사카(大阪)까지 이르고, 근무처가 되는 곳은 도겐자카(道玄坂), 니혼바시(日本橋), 아오야마(青山), 혼고(本郷), 긴자(銀座)와 도쿄시내 전역에 이른다. 그리고 '나'의 잠깐 동안의 피난소로써의 아사쿠사 등이 나온다.[7)]

그 중 도쿄에서의 근무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간다(神田)의 직업소개소에 간다. 월급 30엔 희망이라고 하자 여학교 졸업생이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라며 접수받는 여자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소개장은 '먹물회사와 주유소 여자와 이태리 대사관의 하녀'였으나 이태리 대사관에서는 일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알지 못한 채 문을 나오게 된다.

오오쿠보 하쿠닌초의 파출부회의 소개로 아자부(麻布本村町)의 약방의 조수로 약 견본을 정리한다. 1개월 30엔이라고 하는 조건은 좋은 편.

야나카(谷中) 근처의 셀룰로이드 완구를 만드는 공장[8)].....일급 75전...

간다(神田)근처의 우유 배달원이 된다. 한번은 가야바초(茅場町)[9)]의 증권회사

---

7) 渡邊一民(1990)「もうひとつの都市小説ー林芙美子『放浪記』をめぐってー」,『昭和文学論考 ーマチとムラとー』, 八木書店, pp.9-16

8) 谷中 (やなか) は、東京都台東區の一地區. (일본 Wikipedia 참고)
「...하층계급 상대의 粗製品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손에서 홍수와 같이 시장에 흘러간다.」....셀룰로이드는 그 원료인 樟脳가 일본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셀룰로이드제 완구는 지진 후, 일본의 수출품의 하나로 되어 간다. (川本三朗(1997)「(連載 林芙美子と昭和 第3回) 女給という都市生活者」,『大航海』, No.18, 新書館(東京), p.172)

(株屋)의 사무원이 되려고 한다.

센다기(千駄木)의 산파 보조 견습생이 되려고 한 적도 있으며,

아오야마(青山)의 무역점에서 일한다. 2주간 해서 11엔.

혼고(本郷)의 여성신문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롯폰기(六本木) 부근의 쇼가쿠신포사(小学新報社)라고 하는 학교 상대의 업계 신문사에서 봉투쓰기를 한다. 일급은 80전. ...

긴자(銀座)에서 광고접수계를 모집에서 응모하여 채용되기도 한다.

도쿄의 밑바닥을, 프리타(フリタ)와 같이 직업을 전전하였으며, 젊고 가난한 하야시 후미코는 밑바닥 생활자로서, 도시화 해가는 도쿄의 모습(諸相)을 몸과 눈으로 체험해 간다.[10]

> (하야시 후미코는) 문학비를 비롯하여, 인연이 있는 곳이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련지가 각지에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이 작가가 방랑에 따르고 방랑을 반복한 일소부재(一所不在)의 방랑자(旅人)였음을 일깨워준다.
>
> 하야시 후미코의 출생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그녀가 지나온 많은 도시가 나타난다. 하야시 후미코 라고 하는 작가는 지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이른바, 「장소의 사람」(場の人)이다. 「시간」(時)이라고 하기보다도 「장소」(場), 또는 「역사」라기 보다도 「지리」(地理)적인 사람(人) 이다.[11]

이와 같이,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朗)도 언급한 바 있듯이 그녀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소와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녀의 소설인『방랑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3.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방랑기』와『풍금과 물고기의 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 주인공 '나'의 삶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도쿄'와 '오노미치'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녀에게 그곳은 어떠한 이미지와 의미

---

9) 東京都 中央区에 있음. 가부토초(兜町:도쿄 중앙구의 니혼바시의 도시명 도쿄 증권거래소의 소재지. 통칭 株屋町)의 동쪽에 인접하여, 증권업을 하는 곳이 많음. (広辞苑 참조)

10) 앞의 논문,「(連載 林芙美子と昭和 第3回) 女給という都市生活者」, pp.171-172 참조

11) 앞의 논문,「林芙美子と昭和 プロローグ」, p.27

를 갖고 있는 곳이었으며, 상경과 귀향을 반복하며 떠돌아 다녔던 그녀에게 있어 고향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방랑기』는 도쿄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보내던 중에 남자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고향이라며 오노미치와 다카마쓰 등으로 상경과 귀향을 반복하며 지내던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있어, 도쿄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는 남자들로 부터 느끼게 되는 배신감과 금전적인 문제로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했던 어려운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는 관동대지진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상급 여학교를 나온 그녀가 손쉽게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식모나 여급, 카페 같은 곳이었던 것이다. 또한, 후미코가 거주했던 지역은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교적 값싼 도쿄의 외곽 또는 슬럼화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느끼는 아웃사이더적 감각이 그녀에게 있어 도쿄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쿄의 이미지 중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어머니로부터의 송금이나 그녀가 쓴 작품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았을 경우 등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또는 친한 친구로부터의 편지, 여급 생활 중에 동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뜻한 마음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정(情) 등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야시 후미코가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던 오노미치의 장소의 이미지와 관련하여『풍금과 물고기의 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긍정적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요인으로는 아름답고 한적한 오노미치의 풍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차에서 처음 내려 오노미치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 '뭔가 힘이 있는 곳',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장사가 잘 되면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는 부모님의 대사를 통하여 오노미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의 생활 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살찐 것처럼 내 눈에 보였다'고 하는 '나'의 말을 통해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곳에서 하야시 후미코는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한 후 고등여학교 때까지 약 7년간 생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

연과 그녀에게 있어 문학적 자질을 일깨워준 선생님과의 만남, 비교적 안정된 생활 등이 오노미치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오이치니 장사를 한다고 하여 급우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벌이가 좋지 않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혼자서 음악실에서 풍금을 타곤 했던 기억, 경찰에 아버지가 도박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던 일 등 아버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오노미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루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미코는 『방랑기』 첫머리에서 '나는 숙명적으로 방랑자이다. 나는 고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자신이 방랑자임을 밝힌다. 이와 같이 자신은 고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상경과 귀향[12]을 반복하며 고향과 안주할 곳을 찾곤 하였다. 그녀에게 있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기 보다는 그녀의 마음속의 고향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본 작품은 후미코라는 인물이 도쿄라는 장소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이다. 주인공 '나'가 부모님이 계시는 오노미치 등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안주(安住)가 아닌 새로운 것, 도쿄라고 하는 곳에 대한 막연한 도전과 희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어렵고 가난한 생활 중에서도 책읽기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끝없은 자기 상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었던 알 수 있었다.[13]

---

12)1부에서는 엄마가 살고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3번 나오는데, 2번은 다카마쓰(高松)이고, 나중 1번은 도쿠시마(徳島)로 되어있다. 게다가 도쿠시마에서는 '처음 정착한 곳이 이 도쿠시마(徳島)였다' 라며, '그곳에서 부모님이 시작했던 여인숙이 지금은 낡아져버렸다' 라고 쓰고 있다고 와타나베 가스미타(渡邊一民)가 지적한 바 있다. (앞의 책, 『昭和文学論考 ーマチとムラとー』, p.11)

13) 박호영(2005)「『방랑기』(放浪記) 연구: 주인공의 방랑과 글쓰기의 의미 고찰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제1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역사소설을 통한 자기비판에 관하여

—森鷗外「山椒大夫」와 芥川龍之介「羅生門」을 중심으로 —

김옥지(부경대학교)

Ⅰ. 서론

歷史소설이란 본디 역사상의 사건・ 인물 ・풍속 등, 史実을 소재로 구성한 소설[1]을 의미하는데, 森鷗外는 史料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나 역사의 因果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성을 묘사한 역사소설「山椒大夫」[2]를 발표한다. 鷗外는 근대이후 역사소설을 독특한 한 장르로 확립시켰고, 이후 大正期의 芥川龍之介와 菊池寛등에 영향을 미쳤다.[3] 그리고 芥川가 상당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발표한 「羅生門」은 발표 당시 문단에서 묵살당하는 등, 평가는 좋지 않았으나, 작가의 역사소설을 논할 때는 빠뜨릴 수 없는 작품으로 인정받는다.[4] 「羅生門」[5]은 芥川가 당시 자신이 처한 침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유쾌한 소설을 의도하고서, 작품의 소재 또한 『今昔物語集』[6]에서 발췌한다. 鷗外의 「山椒大夫」또한 설화집 『説経節』을 각색한 내용으로, 집필에 앞서 자신의 수필 「歷史其侭と歷史離れ」에서, <역사벗어나기(歷史離れ)>를 의도하고서 시도한 작품이지만 <역사벗어나기(歷史離れ)>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7] 요컨대「山椒大夫」는 <역사벗어나기(歷史離れ)>를 시도하였지만, 현실에서의 모순과 실태를 비판하고, 거기에 자신의 <무력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芥川의 「羅生門」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芥川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묘사하고자 시도한 작품이지만,「羅生門」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

1)日本大辞典刊行会(1994)『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p.1196

2)森林太郎(1915)「山椒大夫」『中央公論』1月第三十巻一号,学灯社

3)下中邦彦(1968)『世界大百科辞典23』,平凡社,p.330

(森鷗外は、自己の切実な関心を歴史的素材の客観的追求のなかに描き出した《阿部一族》など一連のすぐれた歴史小説を書き、さらに<歴史そのまま>きびしい実証的追求による《渋江抽斎》などの<史伝物>を示すにいたった。幸田露伴にもその傾向の傑作多い。しかし大正の新世代としての芥川竜之介、菊池寛らは、歴史の衣装をまとった近代的心理小説を偶像破壊的なまたは実験的な立場から創意し、知的・観念的な物語化をおこなった。)

4)三好行雄(2000)「羅生門〔鑑賞〕」『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p.7

(「羅生門」は作者が二十四歳の時の作で、その資質と可能性が自己の方向を初めて発見した記念の小説でもある。発表当時は、一、二の具眼の読者を除いて、文壇からまったく黙殺された。当時の批評はどうであろうと、芥川の歴史小説を語る場合に「羅生門」を無視することは許されぬ。構成・文体とも洗練された完成品で、いわゆる新技巧派をもって呼ばれたこの作家の特質をすでに明らかにしている。後代の芥川論がきまって、この小説から始められるのも決して故なしとしないし、作者自信もみずから第一短編にその名を冠するほどの愛惜と自負を示した。)

5)芥川龍之介(1915)「羅生門」『帝国文学』11月号,阿蘭陀書房

6)相賀昌宏(1992)『日本古典文学24 今昔物語 四』,小学館

7)森鷗外(1977)「歴史其侭と歴史離れ」『森鷗外全集七巻』,筑摩書房,pp.107～337

(兎に角わたくしは歴史離れがしたさに山椒大夫を書いたのだが、さて書き上げた所をみれば、なんだか歴史離れがし足りないようである。これはわたくしの正直な告白である。)

두 작가의 역사소설에 대한 인식은 역사의 因果관계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森鷗外는 인간의 <잔혹성>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잔혹성>을, 芥川는 <에고이즘>을 묘사한다. 인간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역사소설 「山椒大夫」와 「羅生門」을 통해, 두 작가는 자신의 문제제기와 지적을 하고 있다.

Ⅱ. 본론

1.「山椒大夫」

森鷗外의 역사소설의 집필 계기는 명치천황의 崩御 소식을 들은 노기장군의 殉死 사건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8] 일찍이 독일 유학시절에 만나 25년 동안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鷗外는 첫 역사소설 「興津弥五衛門の遺書」를 통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9] 鷗外의 역사소설에 대한 인식은 '인간'은 자의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 모순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0] 그러한 모순된 현실에서는 제도권 외의 제도가 있어, 그 또한 제도권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1]

1-1.「山椒大夫」에서 리얼리티의 의미

「山椒大夫」[12]는 森鷗外의 후기문학의 역사소설로서, 『説経節』의 설화를 각색

---

8)斎藤茂吉(1977)「鷗外の歴史小説」『森鷗外全集 別巻』,筑摩書房,p.109
(この小説は、突嗟の間に書か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大正元年九月十八日、即ち乃木大将の夫婦の葬儀の日に脱稿してゐることである。これは、中央公論に載ったこの小説の附記は十月十八日となっているが、其は誤植で、先生の日記には、九月十八日の条に、この小説を草し畢って中央公論に渡した旨が明記されてゐる。それだから、大将殉死の十三日夜から、諸学者の批評を読んで、それから資料の整理と構想に一日二日を費やしたとして、せいぜい二晩ぐらゐの間に書き上げられている。)

9)斎藤茂吉(1977)「鷗外の歴史小説」『森鷗外全集 別巻』,筑摩書房,p.105
(大正元年九月十三一日明治天皇大葬の日に当って、乃木大将夫妻は午後八時靈輔出門の発砲を聞くとともに殉死した。そして夫妻の葬儀は九月十八日であったが、その間、乃木大将夫妻の自刃について哲学者・倫理学者・教育学者の批判が新聞に載り、当時の思想界を支配しつつあった其等有力学者の言説のうちには、これらを旧時代遺残の行為と做し、寧ろ非難しようとする傾向が見えた。乃木大将の行為を理解し肯定することを以て過去世紀の古い考えとしたのであるから、況んや思い切って其を賛美しようというものなどは一人も無かった。 (略) 然るに鷗外先生は突如として、中央公論の十月号に、「興津弥五衛門の遺書」という小説を発表した。)

10)柄谷行人(1968)「鷗外における歴史と自然」『国文学』8月号,学灯社
(彼が〝歴史〟におもむいたのは、現実からはなれることでもなく、現在的主観を〝歴史〟から切りとることでもなく、より現実という〝自然〟に向こうとする意思によってである。 (略) 〝自然〟とは、ひとが恣意的に区切ったり整理できないもの、矛盾していようがその矛盾自体が「ありの侭」の現実であるようなものをさしている。)

11)柄谷行人(1968)「鷗外における歴史と自然」『国文学』8月号,学灯社
(つまり、それは制度外の制度であって、一見主観的にみえるけれども制度以上の拘束力をもつ。 (略) 私はむしろ鷗外に矛盾の側面は、彼が現実のなかで生きている人間なら誰でももたざるを得ないような矛盾を「ありの侭」に受け入れられようとしたところからくるのだと考えている。)

12)森鷗外(1977)「山椒大夫」『森鷗外全集三巻』,筑摩書房
(젊은 부인이 두 아이(14살 딸과 12살 아들)와 유모를 데리고, 유배지로 떠난 지 십년이 넘게 연락이 없는 남편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여행 도중에 인신매매를 만나 두 아이는 팔려가고 하녀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젊은 부인도 자살을 시도하지만 인신매매범에게 저지를 당해 죽지 못한다. 山椒大夫에게 팔려간 남매는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겪는다. 어느 날 누나는 機智를 발휘하여 동생을 탈출시키지만 자신은 자살을 택한다. 겨우 도망친 동생은 사찰의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公卿의 양자가 되어, 훗날 어엿한 관료가 되어 엄마를 만난다는 내용이다.)

한 작품이다. 「山椒大夫」는 『説経節』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 실존하는 대상을 묘사하고 있어서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山椒大夫」와 『説経節』을 비교 분석하여 리얼리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작품이 전개되는 시점이 다르다. 『説経節』에는 5월인데 비해, 「山椒大夫」에서는 가을 어느 해질 무렵이다.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장소나 인물에 대해, 『説経節』에서는 '未詳'으로 표현하는 요소 많지만,「山椒大夫」에서는 실존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13)

이것은 작가가 口伝으로 전해지는 설화의 내용에 의도적으로 리얼리티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는 요소에 리얼리티를 부여한 것은 鷗外의 역사소설에서 보편적인 인간성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山椒大夫」에서는 인간의 <잔혹성>과 <이기주의>가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시점이 스산한 가을 저녁 무렵으로 묘사한 것도 이와 같은 부분을 염두한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잔혹성>과 <이기주의>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작중의 '山椒大夫'이다. '山椒大夫'의 一家에 대해서도, 『説経節』에서는 '山椒大夫'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지만,「山椒大夫」의 아들은 세 명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잔혹함을 부각시킨다.

이와 같이 「山椒大夫」에서 묘사된 인간의 <잔혹성>은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의 <잔혹성>과 <이기주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説経節』의 전설에 리얼리티를 부여하였고, 사건의 전개 시점 또한 스산한 가을 저녁 무렵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작가자신의 <무력함>도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작중에서 가장 무능한 존재 正氏는 『説経節』에서는 평민무사이지만, 「山椒大夫」에서는 귀족이다.

이것은 鷗外의 군의관이라는 신분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관료성의 모순과 실태를 지적14), 권위에 대한 비판15)을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의 억압과 제도

13)《『説経節』과 鷗外의 「山椒大夫」의 비교》

	『説経節』	鴎外의 「山椒大夫」
사건의 전개시점	5월경	어느 가을 저녁
남매가 노예생활을 하던 곳	あすみか小浜(不詳)	石浦
남동생을 양자로 입양한 양부	고귀한 公卿	藤原師実
훗날 남동생이 벼슬아치(国守)가 되어 엄마를 만나는 곳	畑—未調査	雑太
山椒大夫의 아들	5명	3명
남편 正氏	평민	귀족
山椒大夫의 一家	모두 참수당한다	부귀영화

14)平岡敏夫(1968)「鷗外における官僚の問題」『森鷗外必携』p.43
(もともと鷗外における官僚の問題は、芸術と実生活、あるいは政治と文学の問題にほかならないが、官僚の問題、あるいはその相似形としての家の問題と文学を、鷗外が自然主義者流にとらえなかってことは認められるとしても、とらえなかったことの意義を過多に評価することは、官僚と文学の二元的矛盾にその生涯を生きた鷗外をつかみ落とすおそれがある。(略) 官僚という実生活における屈辱・苦痛・後悔等を文学をとおして復讐して来た鷗外の、最後にあらわしたものが遺言状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が、戦争中に書かれたこの文章では、戦後における官僚性の指摘批判とは逆に、官僚的なるものへの復讐という面が強調されている。)

권 외의 제도의 구속력에 의한 실생활의 자신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山椒大夫」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이기주의>은 작중에서 悪人에게만 한하지 않고 상대적인 약자(하녀, 엄마, 두 남매)에게도 나타나 있다.[16] 이것은 인간의 <이기주의>의 보편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기주의>과 <잔혹성>의 정점에 있는 '山椒大夫의 一家'는『説経節』에서는 훗날 관료가 된 つし王(남동생)에 의해 거의 참수당하지만, 「山椒大夫」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17]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의 억압과 제도권 외의 제도의 구속력, 「山椒大夫」의 리얼리티의 의미로서, 鷗外의 <역사벗어나기(歴史離れ)>를 시도하였지만, <역사벗어나기(歴史離れ)>하지 못한 자기비판을 지적하는 요소이다.

2.「羅生門」

『帝国文学』에「羅生門」[18]을 발표함으로서 芥川龍之介는 단편작가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작가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작품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진다. 발표 당시 문단에서 묵살당하는 등, 평가는 좋지 않았으나 芥川의 歴史小説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는다.[19]
역사소설 「羅生門」의 집필 동기는 芥川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芥川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어머니의 발광으로 외가의 양자로 자란다. 芥川집안과의 갈등, 실연의 상처 등으로 침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유쾌한 소설을 의도하고서 집필한 작품이「羅生門」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羅生門」은 시간적 거리만 두었을 뿐, 작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芥川는 현실과 동떨어진 유쾌한 소설을 의도하였지만, 「羅生門」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에 시간적인 거리만 두었을 뿐,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芥川는 「羅生門」을 통해 인간의 관계에서 불가피한 <에고이즘>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에고이즘>을 감추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

15)柳眞雨(2003)「모리 오오가이(森鷗外)와 권위 ― 권위에 대한 대처방식과 권력 비판의 양상」『일본근대문학 - 연구와 비평 -』,한국일본근대문학회
(鷗外가 관직의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비판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16)森鷗外(1977)「山椒大夫」『森鷗外全集三巻』,筑摩書房,p.235
(潮汲み女の言った通りに、新しい高札が立っている。書いてある国守の掟も、女の詞にたがわない。人買いが立ち廻るなら、その人買いの詮議をしたらよさそうなものである。旅人に足を留めさせまいとして、行き暮れたものを路頭に迷わせるような掟を、国守はなぜ定めたものか。)
17)森鷗外(1977)「山椒大夫」『森鷗外全集三巻』,筑摩書房,p.235
(そこで山椒大夫もことごとく奴婢を解放して、給料を払うことにした。大夫が家では一時それを大きい損失のように思ったが、このときから農作も工匠の業も前に増して盛んになって、一族はいよいよ富み栄えた。)
18)芥川龍之介(1915)「羅生門」『帝国文学』11月号
19)三好行雄(2000)「羅生門［鑑賞］」『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p.8

2-1.「羅生門」의 구조

「羅生門」의 구조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노파와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하인의 묘사로 전개된다. 羅生門에서 시체의 머리카락을 팔며 살아가는 노파는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今昔物語』에서의 노파는 가난한 주인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진 善한 존재이다.[20] 노파의 인물 설정 뿐 만 아니라, 하인의설정에 대해서도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芥川는 처음부터 '下人'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고, 草稿에는 '交野平六', '一人の男', '一人の侍'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몇 번의 수정을 거쳐, '下人'으로 결정한다.[21] 그리고 「羅生門」의 소재를 발췌한 『今昔物語』의 내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今昔物語』에서의 '하인'은 '교토에 도둑질을 하러 온 남자'로 묘사된다.[22]

이러한 관점에서 関口安義의 하인을 정의감에 넘치는 순수한 청년이라는 표현은 본고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23]

그리고 平岡敏夫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어야 할 하인이 있는 '羅生門'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며, 교토의 공동체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이다.[24]

이 같은 논리에 의하면, 하인은 京都에서 추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京都에 있다. 즉, 정체성을 잃은 하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羅生門'에 오기까지는 4,5일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그의 향방도 짐작할 수 있다. '어차피 보통 사람은 아닌' 하인의 논리 또한 모순된 요소가 있다. 노파의 <悪>의 논리는 불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悪>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여긴다. 즉 노파의 <悪>의 논리는 살기위해 행한 <悪>은 <悪>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논리로 합리화시킨다.

이 같은 노파의 논리에 대해, 関口安義는 세간의 허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하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25]

이러한 関口安義의 설명은 노파의 칼을 빼앗아 그를 제압하고 있는 하인의 행동을

---

20)相賀昌宏(1992)『日本古典文学24 今昔物語 四』,小学館,pp.385
(盗人が「婆あ、おまえはいったい何者だ。何をしているのだ」ときくと、老婆は「この方はわたしの主人でいらっしゃいますが、お亡くなりになって、ともらいをしてくれる人もおりませんので、こういうここにお置きにしているのです。そのおぐしが背丈にあまるほど長いので、それを抜き取りかつらにしようと思って抜いているのです。どうぞお助けぐだされ」と言う。)

21)庄司 達也, 蓁崎美生子(編)(2005)『日本文学コレクション芥川龍之介』,翰林書房,p.13
(例えば、「交野平六」や「交野五郎」などは、固有の呼称を持つ一つの人格を所有する者として認められるが、普通の名詞の「一人の男」「一人の侍」、そして「下人」など呼称には、とくの固有性が意識されることはないだろう。また、「下人」と言う身分は時代によって変化するが、貴族や社寺などに隷属し、相続や譲渡、売買などの対象ともされてきた存在である。その点に注目すれば、構想段階にあった「一人の侍」とは、決定的に異なる位相に在る者である。)

22)相賀昌宏(1992)『日本古典文学24 今昔物語 四』,小学館,pp.384
(今は、昔、国のあたりから、盗みを働こうと京に上って来た男が、まだ日が暮れないので、羅城門の下に立ち隠れていたが、朱雀大路の方はまだ人の行き来が激しい。)

23)関口安義(1992)「『羅生門』一反逆の論理獲得の物語」国文学2月第37巻2号,学灯社
(当初老婆の行為そのものを「許す可からざる悪」と見るほど正義感にあふれた態度を示す。それは純粋な若者の姿である。)

24)平岡敏夫(1991)「」『国文学』2月第31巻2号,学灯社
(京都という町の共同体から放逐されたものであり、京の町の入口·出口である羅生門から出て行くべき者であった。)

25)関口安義(1992)「『羅生門』一反逆の論理獲得の物語」『国文学』2月第37巻2号,学灯社
(老婆の弁明は、世間的虚偽の典型とも言えるものであった。下人がそれを受け入れられないの当然である。)

통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하인은 노파의 논리가 세간의 변명이긴 하지만 자신의 <悪>의 논리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파를 제압한 하인은 자신도 살기 위해 <悪>을 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인은 餓死 직전일까 의구심이 든다. 하인의 위협적이고 민첩한 행동을 통해, 하인은 분명 餓死직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首藤基澄는 餓死할 것인지의 절박감은 없으며,[26] 高橋博史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27]

따라서 노파의 살기위해 행한 <悪>은 <悪>이 아니다는 <悪>의 논리를 자신의 노니로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하인의 상황에서는 살기위한 절박감은 없기 때문에 모순된 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묘사는 芥川가 의도한 설정으로,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 특유의 작풍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2-2.「羅生門」의 <에고이즘>에 대한 지적

「羅生門」은 인간의 관계에서 불가피한 <에고이즘>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笹淵友一의 설명은, 芥川는 하인을 자신의 분신으로 하여, 타자의 에고이즘과 싸워 승리를 거둔 의미에서, 「羅生門」은 芥川의 좌절을 예술적으로 해소, 카타르시스를 실현한 것이라고 한다.[28] 말하자면 인간의 에고이즘을 노파에게 부여하고서 노파와 싸워 승리하는 하인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소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은 인간의 <에고이즘>의 실체를 하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작가가 처한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노파는 하인의 <에고이즘>을 가리기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浅野 羊는, 芥川는 인간의 에고이즘을 추악한 본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29]

---

26)首藤基澄(2000)「『羅生門』論―下人の行動を中心に―」『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p.49
(飢餓の極限における人間の餓死か盗人かではなく、その一歩手前の、ともかくも飢餓を感じない状態で、明日を思いわずらって低徊しているのである。極限状況というような切迫感はまだない。)

27)高橋博史(1999)「羅生門」『国文学-解釈と鑑賞(特集 芥川龍之介作品の世界)』第64巻11号
(<朱雀大路にふる雨の音を、聞くともなく聞きながら<明日の暮らし>を思う下人の考えは、<帰るべき>家がないという事実の前に堂々巡りを繰り返す。だから下人は餓死か盗人かの二者択一に逡巡しているのではない。下人にとって死はまだ差し迫った問題ではない。)

28)笹淵友一(2000)「芥川龍之介『羅生門』新釈 (抄) 」『芥川龍之介 今昔物語の世界』,洋々社,p.27
(「羅生門」は、彼の挫折した自我、エゴイズムの欲求を芸術の世界における彼の分身たる下人を実現しせめる作品であり、そういう意味で、彼の現状、現実と懸け離れた、したがって愉快な小説となりえたといってもいい。即ち芥川は「羅生門」においてはその分身をして他者のエゴと格闘し、勝利を収めた。そういう意味で「羅生門」は芥川の挫折のしこりを芸術的方法によって解消し、カタルシスを実現しえたのである。)

29)浅野 羊(2000)「芥川龍之介―羅生門をめぐって―(抄)」『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p.12
(人間の本性としてのエゴイズムを目あたりに見、生存苦の寂莫にほぞを噛みしめた失恋体験そのものが、時間の流れと本能的な擬態のふるいとにかけられて、《気が沈んだ》という平板な表現の回想に定着された事情は右に見た通りである。(略)醜悪なエゴイズムの絡み合いで織りなされて現実が、一刻も早く忘れたい精神の痛手の記憶とともに、彼の胸中を襲ってやまないからである。)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芥川는 끊임없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에고이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이즘>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인간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芥川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노파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하인의 에고이즘에 대해 강한 상실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요컨대, 「羅生門」은 작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보통사람은 아닌' 하인이 향하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 뿐' 이라는 것은 하인의 실체를 비판하고 있으며, 다소 해학적인 요소도 나타나 있다. 과연 하인의 향방은 아무도 모를까, 그의 향방에 대해 「羅生門」의 초고와 수정과정을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는 분명해진다.[30]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한 인간의 <에고이즘>을 감추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해학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1915년에 발표된 森鷗外 「山椒大夫」(1월)와 芥川龍之介 「羅生門」(11월)를 작품을 통해, 두 작가의 역사소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山椒大夫」와 「羅生門」은 작품의 소재를 설화에서 발췌하였지만 작가가 처한 현실의 요소가 작품에 투영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성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森鷗外는 사회 규범에 개의치 않고 자기변명으로 합리화 시키며 살아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하였고, 芥川는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한 <에고이즘>을 감추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성을 「山椒大夫」와 「羅生門」에서 표현한 鷗外와 芥川는 작가 자신의 문제제기와 자기비판을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30)<1915년 11월 『帝国文学』 초고>
(下人は、既に、雨を冒して、京都の町へ強盗を働きに急ぎつつあった。)
<1917년 5월 단행본 『羅生門』에 수록된 본문>
(下人は、既に、雨を冒して、京都の町へ強盗を働きに急いでゐた。)
<1918년 7월 단행본 『鼻』에 수록된 본문>
下人の行方は、誰も知らない。

<텍스트>

森鷗外(1977)『森鷗外全集三巻』,筑摩書房
———(1977)『森鷗外全集七巻』,筑摩書房
芥川龍之介(1996)『芥川龍之介全集 第一巻』,岩波書店

<단행본>

下中邦彦(1968)『世界大百科辞典』,平凡社
日本大辞典刊行会(1994)『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庄司 達也, 篠崎美生子(編)(2005)『日本文学コレクション芥川龍之介』,翰林書房
荒木 繁·山本吉左右 編注(2009)『説経節』,平凡社
相賀昌宏(1992)『日本古典文学24 今昔物語 四』,小学館
池内健次著(2001)『森 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編〕一松村明(1993)『大辞典』,三省堂

<간행물>

三好行雄(2000)「羅生門〔鑑賞〕」『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
柄谷行人(1968)「鷗外における歴史と自然」『国文学』8月号,学灯社
首藤基澄(2000)「『羅生門』論—下人の行動を中心に—」『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
浅野 羊(2000)「芥川龍之介—羅生門をめぐって—(抄)」『羅生門 今昔物語の世界』,翰林書房
芥川龍之介(1915)「羅生門」『帝国文学』11月号,阿蘭陀書房
森林太郎(1915)「山椒大夫」『中央公論』1月第三十巻一号,学灯社
森林太郎(1915)「歴史其侭と歴史離れ」『心の花』1月第十九巻一号,学灯社
前田久徳(1997)「鷗外・歴史小説への軌道」『金沢大・教育学部紀要(人文科学・社会科学編)』四十号
関口安義(1992)「『羅生門』一反逆の論理獲得の物語」国文学2月第37巻2号,学灯社
斎藤茂吉(1977)「鷗外の歴史小説」『森鴎外全集 別巻』,筑摩書房,p.109

<한국간행물>

柳眞雨(2003)「모리 오오가이(森鷗外)와 권위 — 권위에 대한 대처방식과 권력 비판의 양상」『일본근대문학 - 연구와 비평 -』2권,한국일본근대문학회
송현순(2003)「아쿠타가와와 류노스케의 역사인식—모리오가이의 역사소설과 비교하여—」『日本語文学 第18輯』

다이쇼 사상 공간의 재편

—천황을 둘러싼 표상의 정치학—

서동주(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 들어가며: 기록을 거부당한 텍스트

1) 문제의 소재(所在)

- 일본근대문학의 역사=천황의 묘사(description)에 관한 금기와 회피의 역사

> ▸ 사상표현을 규율하는 권력(천황의 가시화可視化=신성모독)
> ▸ 문학자의 자기검열(권력의 시선을 내면화)
> ▸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천황을 묘사의 대상으로 했던 이른바 '불경(不敬)문학'은 출현

2) 텍스트 소개

- 복자(伏字)의 텍스트

> ▸それは敬礼で買ふとは云はねえ。やれ×××××とか、やれ×××××だとか、…だがそんな事は嘘つ八だ。→ 陛下のため、国家のため 【「将軍」(『改造』1922·1)】
> ▸君らは雨に濡れて君らをヽヽヽヽヽヽヽを思ひ出す → 君らを追ふ天皇
> 君らは雨に濡れて ヽヽヽヽヽ ヽヽヽヽヽ ヽヽヽヽ ヽヽヽ ヽヽヽヽヽヽヽを思ひ出す→ 彼の髪の毛 彼の狭い額 彼の眼鏡 彼の髭 彼の醜い猫背 【「雨の降る品川駅」(『改造』1929·2)】

- 두 텍스트의 공통점(선정의 배경)

· 쇼와 천황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촉발되어 쓰여 졌다.

> ▸ 천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부분이 모두 검열에 의해 복자로 처리되었다.
> ▸ 쇼와천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집필의 중요한 계기
> →「장군」: 황태자(후일의 쇼와천황)의 섭정취임(21년11월),
>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 쇼와 천황의 즉위식(28년11월)
> ▸ 두 작자 모두 문학(예술)과 정치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문학의 정치성 혹은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정치를 다루는 문학의 독자적인 방식을 탐색한 문학자.

3) 발표의 목적

- 다이쇼 시기에 천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기록의 일부를 거부당했던 텍스트를 통해 이른바 '불경'한 문학이 천황 그리고 천황과 관련한 역사를 어떻게 묘사했으며,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이쇼 시기 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 ▸ 천황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표상의 분석)
> ▸ 천황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적 입장 (작자의 역사인식)
> ▸ 다이쇼 시기 천황으로 상징되는 '권위'를 둘러싼 인식의 기본 구조

2. 전환의 기록: 「장군」과 일본의 내셔널리즘

1) 소설「장군」이 기록하는 러일전쟁

> ▸ 천황의 명령 아래 사지로 내몰린 병사의 비극: 전쟁은 괴물이며 죄악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하는 에기(江木)상등병의 전사, 돌격 때 두부총상으로 발광해 버리는 호리오(堀尾)일등병
> ▸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살육을 즐기는(殺戮を喜ぶ)' 전장의 인간이

환기시키는 광기와 공포
▸ 러일전쟁 승리 이후 확산된 열강의식만 아니라, 승전의 담론이 형성한 '위대한' 메이지에 대한 일본인의 자기표상에 대한 명백한 거부(메이지 내셔널리즘의 효력 상실)

2) '장군'의 의미
- 천황을 환기시키는 요소: ①검열의 기록, ②N장군(노기 마레스케의 순사殉死) 그리고 ③쇼와유신의 시작을 의미했던 아사히 헤이고(朝日平吾)의 야스다 젠지(安田善次郎)로 암살사건(1921·9)과 ④황태자의 섭정취임(1921·11)이라는 역사적 배경
→ 이 텍스트에는 '천황'을 연상시키는 기호가 안팎으로 넘쳐나고 있다.
- '매개'로서의 '장군': N장군을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로 동일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N장군을 노기 마레스케라는 역사적 인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4장 '아버지와 아들'에서 거론되는 N장군의 자살과 자살 직전에 찍은 사진에 관한 일화는 이러한 양자의 강한 연상관계를 뒷받침한다. 노기의 역사적 의미가 메이지 천황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N장군의 '자살'을 통해 노기의 '순사'를 소환하면서 결국은 텍스트의 의미망 속에 '천황'을 불러들이는 해석의 코드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은유'로서의 '장군': 아시하라제(葦原帝)

▸ 아시하라(葦原)장군: 본명은 아시하라 긴지로(藍原金次郎). 당시 스가모(巣鴨)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 1881년 메이지 천황의 동북순행 당시 천황에게 '형님 좀 기다려 줘(兄貴、一寸待って呉れ)'라고 말을 건넨 일화로 유명. 이듬해부터 병원에 수감되지만 이후로도 언론에 의해 그의 언동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1914년에 열린 도쿄다이쇼박람회에서 그의 석고상은 노기의 석고상과 함께 인기를 양분했다. 그는 자신을 천황에 준하는 자로 간주하여 자신이 직접 '아시하라제(葦原帝)'란 명칭을 붙여 스스로 황제라 칭하기도 했다. 당시의 미디어는 불경을 우려하여 그를 '아시하라장군'이라 불렀다.【武田信明『<個室>とくまなざし>』講談社, 1995, pp.154-156 참조】
▸ '장군'과 '천황'의 호환관계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매개로서의 '광기' (당시 다이쇼 천황의 질환은 뇌와 관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때로 기억상실 혹은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소문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 천황과 광기의 기호적 친화성)

3) 소설「장군」의 동시대 표상: 전환하는 내셔널리즘
- N장군을 둘러싼 부자 간 대립(4장)

▸ 子: (렘브란트에 대해) N将軍などよりも、僕等に近い気もちのある人です。(자살직전의 사진촬영에 대해) 無論俗人じゃなかったでしょう。至誠の人だつた事も想像出来ます。ただその至誠が僕等には、どうもはっきりのみこめないのです。僕等より後の人間には、なおさら通じるとは思われません。→ 과시를 위한 권위의 상징 조작에 대한 반발(다이쇼적 청년의 감수성)
▸ 父: それは偉い軍人だがね、閣下はまた実に長者らしい、人懐こい性格も持つていられた。中学生でも、閣下と云いさえすれば、**叔父さんのように懐いていたものだ**。→ 인간적 친근함으로 기억(표상)되는 N장군

- 부자 간 대립의 본질: [메이지/다이쇼]이 아니라 [다이쇼A/다이쇼B]의 구도

▸ 아버지(나카무라 소장)는 N장군 밑에서 러일전쟁을 경험한 메이지적 인간. 하지만 그가 아들 앞에서 기억하고 있는 N장군은 더 이상 '전쟁의 영웅'도 '영원한 충신'도 아닌 다만 인간적 친근함이 강조되는 인물. → N장군이 연상시키는 노기의 다이쇼적 변용을 반영
▸ 아버지가 이미 다이쇼적 공간 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①서양풍의 응접실, 쿠바산 시가, 안락의자의 일상공간
大正七年十月のある夜、中村少将、当時の軍参謀中村少佐は、西洋風の応接室に、火のついたハ

ヴァナを喞えながら、ぼんやり安楽椅子によりかかっていた。
②N장군의 초상화를 사전의 상의도 없이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바꿔 버린 아들의 결정을 되돌리지 못하는 아버지
「肖像画はあすこにもあるようじゃないか？」
　少将は炉の上の壁を指した。その壁には額縁の中に、五十何歳かのレムブラントが、悠々と少将を見下していた。
「あれは別です。N将軍と一しょにはなりません。」
「そうか？　じゃ仕方がない。」
③N장군에 관한 아들의 오해(?)를 결국 풀지 못하는 아버지
　父と子とはしばらくの間、気まずい沈黙を続けていた。
「時代の違いだね。」
　少将はやっとつけ加えた。
「ええ、まあ、──」
　青年はこう云いかけたなり、ちょいと窓の外のけはいに、耳を傾けるような眼つきになった。

- N장군의 의미 변화와 천황: **<군림하는 카리스마>→<친근한 보호자>**

▸ 다이쇼시기에 장군과 천황이 기호의 수준에서 교환 가능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보면, 나카무라 소장(아버지)이 기억하는 N장군, 즉 인간적 친근함이 강조된 장군상이 쇼와의 초국가주의자들이 이상으로 했던 천황의 모습과 대단히 닮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쇼와 천황에 비해) 다이쇼천황은 아시하라 황제가 보여주듯 뭔가 정신적인 숭고함 같은 것을 박탈당한, 멍한(ボケた) 분위기의 천황이었다.…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타 잇키는 천황에 대해 '해파리 연구자(クラゲの研究者)'라고 말했다. 즉, 약간은 바로 취급하는 듯한 호칭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초국가주의가 주장하는) 천황의 적자관의 핵심에는 기타의 사상이 있는데, 그는 천황을 약간 바보 취급하듯이 혹은 친근함을 담아서 부르고 있다. … 천황의 적자관이 보여주듯 파시스트들이 천황을 숭배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천황은 어쩌면 다이쇼 천황과 같이 혹은 아시하라 황제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의 숭고함을 잃어버린 천황이었는지도 모른다. 천황을 따르는 이유가 숭고하고 훌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천황이 해파리 연구자에 지나지 않더라도 천황을 따른다는 점에서 파시즘은 불가사의하다. 즉, 여기에는 아주 <u>친근한 아저씨(叔父さん)와 같은 사람에게 일부러 종속된다</u>는 구조가 있다. … 천황은 동떨어진 장소에 숭고하게 군림하기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친밀함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大沢真幸『戦後の思想空間』ちくま親書, 1997, pp.114-115】
▸「장군」을 초국가주의의 담론과 연결시키는 문맥: 야스다 젠지로 암살사건(1921·9)
'吾人は人間であるとともに真正の日本人たるを望む。真正の日本人は陛下の赤子たり、　分身たるの栄誉と幸福とを保有しうる権利あり'라 적힌 아사히 헤이고의 유서(「죽음의 외침(死の叫び)」)에 대해 하시카와 분조는 『근대일본정치사상의 제상(近代日本政治思想の諸相)』(196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국가와 국민생활의 일체성에서 소외된 불우하고 무력한 한 일본인이 자기생활의 의미를 궁극적인 통치심벌인 천황과의 일체화에서 추구한 급진적 행동'이며 그의 천황관은 '<u>종래와 같이 전통적인 제(諸)권위를 천상에서 총괄하는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평등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변혁의 원리</u>로서 제시되고 있다' → <군림하는 천황>에서 <보호하는 천황>으로의 의미 변화
▸ 4장의 나카무라 소장이 기억하는 N장군의 표상은 「장군」이라는 텍스트의 생성과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천황상의 전환, 즉 '군림하는 천황'에서 '친근한 천황'으로의 전환에 관한 징후적으로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환이 다이쇼를 살아가는 메이지의 인간을 통해 암시되고 있는 소설 상의 설정이다. 이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천황상이 단순한 메이지의 부활(반복)이 아니라 메이지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유신의 측면) 다이쇼가 형성한 토양에 의존하

고 있는(친근함) 전환의 역사적 구조의 알레고리(allegory)로서도 읽히기 때문이다. 결국 4장 속의 부자 간 대립은 메이지의 인간과 다이쇼적 청년의 대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체의 권위를 거부하는 담론과 그러한 토양 위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친근한 권위' 사이의 대립이라는 다이쇼 시대가 낳은 권위를 둘러싼 두 가지 이해방식 간의 갈등을 본질적인 구도로 삼고 있다.

3. 종언의 기록:「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다이쇼의 종언

1) '천황 없는 국민'의 반란

- 근대 일본내셔널리즘의 역사적 변화

▸ 근대 일본의 천황과 국민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변천
'**천황의 국민**'='신민'으로서의 국민(대일본제국헌법)→'**천황 없는 국민**'='신민'의 의미상실(민본주의=천황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민주주의)'시민'으로서의 국민(1920년대 도시의 아이덴티티)→'**국민의 천황**'(쇼와유신의 주창자=우익)

- '안경 낀 곱사등'의 천황: 신체 표상의 세속화

▸「君らは雨にぬれて　彼の髪の毛　彼の狭い額　彼の眼鏡　彼の髭　彼の醜い猫背を思ひ出す」
▸ 천황에 관한 신체표상의 이화(異化): 일본인의 눈에 비친 것이 '용안의 신성함(竜眼の神々しさ)' 또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정형화된 것 밖에 천황의 신체를 표상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인이라면, (시인인) 일본인이 의탁했던 피식민국인들의 눈에 비친 천황은 구체적인 신체이며…(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천황에 대한 일본어의 신체표상에 균열을 새긴 시인 것이다.【林淑美『昭和:イデオロギー思想としての文学』平凡社, 2005, pp.81-82】

- 암살되는 천황: 천황제 내셔널리즘에의 저항

▸ 천황암살을 연상시키는 장면
彼の身辺に近づき
彼の面前にあらわれ
彼を捕え
彼の顎を突き上げて保ち
彼の胸元に刃物を突き刺し
返り血を浴びて
温りある復讐の歓喜のなかに泣き笑え
▸ 기존의 공식적 천황상에 대한 나카노의 불만: 수염, 안경, 곱사등과 같은 단어는 시적 표현으로서는 다소 차원이 낮다는 느낌이 있지만, 당시의 증오, 거의 생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관계되어 있다.…옛날에는-패전까지-천황이 관병식에 등장할 때, 천황 혼자만 흰말을 타고 등장하고 다른 장군들은 누구도 흰말을 타지 않았다. 천황기를 나부끼며 오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천황을 비스듬히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심하게 굽은 등을 감출 수 있는 각도에서 천황을 찍은 것이다. 그것을 볼 때의 느낌은 매우 불쾌한 것이었다.
【中野重治「「雨の降る品川駅」のこと」『季刊三千里』1975년5월호, p.77】
→ 연출된 권위에 대한 거부=다이쇼적 감수성
▸ 1920년대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대중적 재건의 절정으로서의 어대전(御大典):
-'메이지절(明治節)' 제정-27년 메이지절에 10만 인파가 메이지신궁에 집결
-대중잡지의 메이지 특집-『킹(キング)』의 메이지대제 기념부록(140만부 팔림)
-쇼와천황의 '어진영' 배포(1928)
-대중적 이벤트로서의 즉위식: 11월 6일 오전 천황의 도쿄역 출발시의 참배자 20만, 26　일 오후 교토역 출발시의 참배자 총58만.

-그해 8월 국체의 변혁자에 대한 최고형을 사형으로 변경하는 치안유지법의 개정이 있었고, 경찰은 즉위식을 앞두고 대례경비체제를 구축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검문을 실시
▸ 천황암살의 상상력='천황 없는 국민'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시인의 천황의 부활에 대한 '생리적인' 불쾌감의 문학적 표출

- 천황 표상의 다이쇼적 성격

▸ 시인의 '보기 흉한(醜い)' 감정에 이끌려 시 속에 나타난 세속적인 천황표상은 아시하라 장군이 상징하듯 바보 같으며 동시에 경멸(무시)의 대상이었던 다이쇼 시기의 천황상의 연장에 위치한다.
▸ 초국가주의자들이 '천황 없는 국민'의 시대를 풍미했던 바보스런 경멸의 이미지에서 '친근함'이라는 의미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천황암살의 장면은 천황의 부재에 익숙한 시인이 천황의 부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음을 의미
▸ 한편 암살이라는 극단적 제거 방식의 도입은 거꾸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천황의 존재감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천황암살의 상상력은 종말을 향해 치닫는 다이쇼적 감각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이 시는 '천황 없는 국민'으로 살아온 시인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민의 천황'을 향한 상상적(그런 의미에서 공허한) 반역의 기록이기도 하다.

2) '열도의 왕권'에서 '제국의 왕권'으로
- 추방과 복수(암살)의 상관 관계(?)

▸ 추방은 암살을 상기시키는 복수의 진정한 원인인가?
▸ 열도에서 쫓겨나는 조선인들의 추방지: 낯선 이국이 아니라 고향인 조선(父母の国)
→ 시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방이 천황제국가에 의한 지극히 정치적인 탄압의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추방되어 갈 곳이 고향인 조선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방을 시의 후반을 장식하는 적나라한 복수의 동기로 보는 것은 무리.
▸ 1920년대 피식민자에게 천황은 어떤 존재였는가?

- 제국 속 천황의 모순적 양면성

▸ 차별과 배제의 정치적 탄압자: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 사건(천황에 관한공식적 지식을 기준으로 비일본인을 색출하여 학살), 1928년 어대전 당시의 치안체제(조선인을 부락민, 정신병자 등과 함께 경비상 주의가 필요한 자로 분류하여 도쿄로의 접근을 제한)
▸ 차별을 부정하는 근거로서의 천황='일시동인(一視同仁)'의 초월적 시점의 소유자로서의 천황: 1922년 12월 자유도항제의 실시(조선인도 신민인 이상 도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 시 속에서 추방당하는 조선인(이북만, 김호영)은 자유도항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재일조선인노동운동의 리더.
▸ 복수의 동기: 천황의 양면성이 상기시키는 지배의 기만성+심화되는 디아스포라성

- '열도'를 넘는 천황

▸ 피식민자인 조선인의 '(도항)→추방→귀환'이라는 이동의 모티브와 천황제비판의 주제: 열도를 넘어 제국의 판도에서 군림했던 왕권으로서의 천황의 기록
▸ 이후의 역사적 전개에서 보면, 「장군」이 쇼와의 초국가주의의 천황표상의 등장을 징후적으로 예견하고 있다면,「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천황이 대동아공영권의 보편적인 통합이념으로 제기되었던 1940년대 확산하는 천황의 전조(前兆)를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

호소이 하지메의 일본어 번역본『薔花紅蓮傳』연구

박상현(경희사이버대학교)

1. 들어가면서

어용언론인이면서 출판인인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는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직후인 1910년 10월에 조선 강제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 기쿠치 켄죠(菊地謙讓)와 함께 조선연구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호소이는 이 단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11년에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일단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조선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호소이는 그 원인을 수천 년의 특수한 역사와 습속 및 심성(心性)을 가진 조선인을 이해하지 못한 식민정책에서 찾았고, 내선(內鮮)융합을 위해서는 조선문화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 1920년 봄에 호소이는 오바 카코(大庭柯公)의 협력으로 조선관계서적 출판사인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를 설립하여 자신이 편집자 겸 발행인이 되었다.

호소이 하지메는 자유토구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통속조선문고』와『선만(鮮滿)총서』와 같은 기획물을 출판했다. 여기에는 저서와 편저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조선의 고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사씨남정기』,『구운몽』,『광한루기(춘향전)』,『장화홍련전』등이 그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을 통해 호소이가『장화홍련전』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그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서 어떤 번역전략을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그리고 그 번역전략이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2. 호소이 하지메의『장화홍련전』비평

발표자가 살펴본 바로는 명치유신(明治維新)부터 일제의 패망 곧 1945년 8월까지 조선의 고소설인『장화홍련전』은 '일본어(日本語)'로 세 번 소개되었다. 즉『장화홍련전』의 개요만 소개된 것이 두 번이었고, 그 완역이 시도된 것이 한 번이었다. 그 상황을 시대 순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호소이 하지메는 1911년에 조선연구회에서『조선문화사론』을 발간했다. 이 책은 총 제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편인 '반도(半島)의 비사(裨史)소설'에는『추풍감별곡』,『남훈태평가』,『심청전』,『구운몽』,『조웅전』,『홍길동전』,『춘향전』,『재생전』과 함께,『장화홍련전』이 실려 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르다고 추정된다. 호소이는『조선문화사론』에서 다른 조선의 고전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장화홍련전』도 그 개요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장화홍련전』의 중요한 모티프의 하나인 장화홍련의 '재생(再生)'은 보이지 않는다. 분량은 A4로 약 2페이지 반 정도이다.

두 번째로『장화홍련전』이 일본어로 소개된 것은 첫 번째 소개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1921년이다. 호소이 하지메가 사장으로 있었던 자유토구사는『통속조선문고』를 전12권 발간했는데, 제10집에『장화홍련전』이 수록되어 있다. 그 속표지에는 '趙鏡夏訳 細井肇閲'로 적혀 있다. 곧 조경하가『장화홍련전』을 일단 언문일치체의 일본어로 완역하고, 나중에 호소이 하지메가 그것을 수정·윤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장화홍련전』의 중요한 모티프인

장화홍련의 '재생'이 나와 있다.

1937년에 조선독서연맹이 발행하는 기관지인『독서』제1권제4호에서『장화홍련전』은 다시 소개된다. 소개자는 오쿠다(奥田生)이다. 그는 여기서『장화홍련전』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데, 그 내용에는 장화홍련의 '재생'도 포함되어 있다. 분량은 A4로 약 3페이지 정도다.

그런데 호소이 하지메는『통속조선문고』제10집에 수록된 「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장화홍련전』을 사열(査閲)하고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①(조선인은) **효심이 깊다는 것**, ②(조선인은) **미신을 믿는 뿌리가 깊다는 것**, ③(조선인은) **꿈에 지배당한다는 것**, ④(조선인은) **공리적(=타산적)이라는 것**, ⑤(조선인은) **집요하고 악착같다는 것**, ⑥(『장화홍련전』은) **권선징악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장화홍련전』은 단지 간악무도한 계모 허씨와 애절하고 비창한 장화홍련을 다룬 가정 이야기(物語)가 아니라 조선인의 민족심성(民族心性)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장화홍련전』을 비평한 호소이 하지메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서 어떤 번역전략을 시도했을까?

3.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전략

『장화홍련전』은 조선시대 작품으로 그 이본(異本)이 적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초기 이본인 박인수본(한문본), 허구적 윤색을 가미한 신암본(국문필사본), 허구적 윤색과 함께 장화홍련의 재생을 포함한 자암본(국문판각본)으로 나눌 수 있다. 서신혜는「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호소이 하지메의 활동-고소설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이 자암본이었다고 확정짓는다.

> 자유토구사가 간행한『장화홍련전』은 그(박인수본과 신암본 및 자암본, 인용자주) 중에서 재생담과 허구적 윤색이 함께 드러나는 자암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암본과 일일이 대조해 보더라도 내용과 표현이 거의 일치한다.[1)]

그런데 자암본『장화홍련전』과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보면, 서신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곳이 있다. 예를 들어『장화홍련전』의 주요 등장인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인고소설판각전집』수록 자암본『장화홍련전』	『통속조선문고』수록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
배좌수의 첫 번째 부인	강(姜)씨[2)]	장(張)부인[3)]
철산군 신임 부사	전동호(田東虎)[4)]	정동호(鄭東浩)[5)]

1) 서신혜는「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호소이 하지메의 활동-고소설 분야를 중심으로-」『온지논총』제16집, 온지학회, 2007, p.409

2) 김동욱 편, 「장화홍련전」『영인고소설판각전집』(2권),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73년 6월, p. 579. 본문에는 한글과 함께 '姜氏'라는 한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3) 細井肇「薔花紅蓮伝」『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2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은 자암본이다'는 서신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을 확정짓기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이 그 번역대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정 및 윤색 과정에서 호소이 하지메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호소이는 조경하가 일단 일본어로 번역한『장화홍련전』을 사열(査閲)하면서 권두와 권말에서 나온 권선징악에 관한 내용을 상당 부분 생략했다고 밝힌다.[6] 또한『장화홍련전』의 저자가 권선징악의 감개를 말하며 독자를 풍계(諷戒)하는 곳도 생략(省略)했다고 한다.[7]

결국 현 단계에서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이 그 번역대본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호소이 하지메 본인이 서술한「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 십 수 년 전에 나(호소이 하지메, 인용자주)는 졸저『조선문화사론』에서 장화홍련전의 개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조경하군의 달필로 **<u>전부 언문으로 쓰여 있는 원서</u>**가 유창한 일본어(邦語)로 번역되었다.[8]

요컨대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은 '전부 언문으로 쓰여 있는 원서' 곧 국문필사본 혹은 국문판각본이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으로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번역대본과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만 그것에 어떠한 번역전략이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를 살펴보면, 우리는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전략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을 사열(査閲)하면서 권두와 권말에 나와 있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생략했다(省く)고 말한다. 또한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의 군데군데에서『장화홍련전』의 저자가 권선징악의 감개를 말하며 독자를 풍계하는 곳도 생략했다고 밝힌다.[9]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의 '최종적인 번역자'라고 할 수 있는 호소이 하지메는 조경하가 일단 일본어로 번역한『장화홍련전』의 내용 가운데서『장화홍련전』의 주요 모티브인 권선징악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윤색' 곧 '생략'함으로서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생략'에 의한 번역텍스트에의 개입은 호소이의 다른 일본어 번역본에서도 보이는 번역전략이다. 예를 들어『제비다리』가 있다. 이것은 정재민이 일단 일본어로 직역한 것을 후에 호소이 하지메가 윤색한 것이다.[10] 이때 '윤색'이라 함은 '생략(省き)'과 '고쳐 쓰기(書き直し)'를 의미했다.

---

4) 김동욱 편, 「장화홍련전」『영인고소설판각전집』(2권),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73년 6월, p. 584. 본문에는 한글과 함께 '田東虎'라는 한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5) 細井肇「薔花紅蓮伝」『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38
6) 細井肇「薔花紅蓮伝」『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79-81
7) 細井肇「薔花紅蓮伝」『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81
8) 細井肇「薔花紅蓮伝を閲了して」『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61
9) 細井肇「薔花紅蓮伝」『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1921. p81
10) 細井肇「『燕の脚』を閲了して」『朝鮮文学傑作集』収録, 奉公会, p.87

그렇다면 호소이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의 내용 가운데서 권선징악에 관한 부분을 '수정 및 윤색' 곧 '생략'한 것은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일까? 이것은 결국 제국일본의 독자에게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작품이 아니라 ①~⑤와 같은 모티브를 다룬 작품으로 수용되릴 바랐던 것이 아닐까.[11]

4. 오쿠다의『장화홍련전』

오코다는 1937년 1월에 창간된 조선독서연맹이 발행하는『독서』제1권제1호에서는 '사씨남정기'를, 제1권2호(1937년 3월)에서는 '구운몽'을, 제1권3호(같은 해 5월)에서는 '추풍감별곡'을, 제1권4호(같은 해 8월)에서는 '장화홍련전'을 소개하는 글을 싣는다.

> (이 소설은) 평안북도 철산군 부사였던 정동호(鄭東浩)의 전기(傳記) 중에도 그 일부가 전해지고 있고, 게다가 기념비까지도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는 사건이다. 혹은 사실소설(事實小說)인지 모른다. 한번 읽어 보면 **조선인이 효심이 깊다는 것, 미신을 믿는 뿌리가 깊다는 것, 집요하다는 것, 복수심이 강하다는 것, 공리적(=타산적) 관념이 발달했다는 것** 등을 차례차례 알 수 있는 것이다.[12]

위의 인용문을 보면 1921년 호소이 하지메가「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 비평한『장화홍련전』에 관한 여섯 가지 중요 모티브 가운데 핵심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권선징악'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선징악'이라는 핵심 모티브가 생략된 형태로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이 오쿠다로 대표되는 제국일본의 독자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수용 양태는 바로 호소이 하지메가 희망했던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의 수용 양상이었다.

5. 나오면서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는 조선의 고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제국일본의 독자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번역대본『장화홍련전』에는 없는 자세한 목차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目次

(一)薔花と紅蓮傳　裵坐首……不思議な夢……気高い香り……薔花……紅蓮

(二)死んでいく身は　日増に重るばかり……前世に犯した罪……死にきれません……墓場の影から

둘째, 페이지의 상단에는 裵坐首, 不思議な夢, 気高い香り, 薔花, 紅蓮 등과 같은 키워드를 두주(頭註)로써 제시하고 있다.

셋째,『장화홍련전』에 나타난 회화문을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

---

11) '권선징악'이라는 대한 언급은 조선의 전근대성 곧 조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또한 인간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훈적인 의미도 있다. 결국 '권선징악'은 양의성(ambivalence)이 있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호소이가 보기에 '권선징악'이라는 모티브는『장화홍련전』의 핵심 모티브는 다른 모티브와 달리 생략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12) 奥田生「薔花紅蓮傳」『読書』, 朝鮮読書連盟, 1937, p.34

히 제시한다. 『折角のこと、男の子だったら、どうやうにか宜かったに』

넷째,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이 출간된 1921년의 시점에서 볼 때, 이 고소설이 언제 있었던 이야기였던가를 비교적 정확히 전달하려 했다. 즉 호소이 하지메는『장화홍련전』을 소개할 때『조선문화사론』(1911년)에서는「**昔**平安道鐵山に‥‥‥」로 시작했는데, 일본어판『장화홍련전』(1921년)에서는「**今から三百余年前**、平安道鐵山郡に‥‥‥」라고 시작한다.

다섯 째,『장화홍련전』의 주요 등장인물의 하나인 장화홍련의 아버지는 '坐首'라는 신분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에는 없는 용어였다. 따라서 일본 독자를 위해 "坐首(村長)"이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外家'와 '陵遲處斬[13]'에서도 보인다. 전자는 "外家(張夫人の実家の意味)"라고, 후자는 "陵遲處斬(頭、手、足、を断つ刑)"라고 주(注)가 달려 있다.

그런데 호소이가 조선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본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장화홍련전』에서 시도한 이러한 노력보다는 그의 '생략'과 같은 번역자의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와 후자는 그 레벨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런 번역 전략에 의해 의도적인 변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소이의 번역전략을 통해 당시 제국일본의 신민에게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이 어떻게 수용되길 바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장화홍련전』을 사열하고는 조선인은 효심이 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효심이란 유교의 폐습에 의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는 덕목이었다. 또한 조선인은 미신을 믿는 뿌리가 깊고, 꿈에 지배당하고 공리적(=타산적)이고, 집요하고 악착같다고 말한다. 그리고『장화홍련전』은 권선징악을 위해 쓰였다고 지적한다. 호소이의『장화홍련전』이해란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 관한 그의 이해가 그대로 제국일본의 신민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처럼『장화홍련전』의 핵심 모티브인 '권선징악'이란 조선의 전근대성 곧 조선의 정체성을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훈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런 양의성이 있는 '권선징악'의 모티브가 소거된『장화홍련전』이 제국일본의 신민에게 수용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호소이는 일본어판『장화홍련전』에 '생략'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권선징악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누락시킨다.

결국 호소이는 권선징악이라는 핵심적인 모티브를 생략해 버림으로써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장화홍련전』아니라, 미신을 잘 믿고, 타산적이고 집요하고 악착같은 조선인이 부각된 일본어판『장화홍련전』이 제국일본의 신민에게 수용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쿠다의 『장화홍련전』이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13) 본문에는 '陵遲處斷'으로 나와 있으나 이것은 '陵遲處斬'의 '斬'을 '斷'으로 오해한 것이 아닐까.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과 성격

이성혜(부산대학교)

1. 머리말

한국의 書畵界는 근대[1]초기[2]에 형성된다. '서화계'는 서화가들이 주체가 된 자발적 畵壇을 의미한다. 그 이전, 곧 조선시대 서화가들은 圖畵署나 지방 관청에 소속된 職業畵家[3]였거나 餘技로 그림을 그렸던 文人畵家였다. 주지하다시피, 도화서나 지방 관청에 소속된 畵員들은 官의 요청에 의해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홍도나 정선처럼 화가로서 자의식을 갖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주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인화가들은 서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지만, 자신을 서화가로 인식하기를 꺼렸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주된 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대체로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되는 '餘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대부 서화가들은 비록 동류들끼리 모여 詩·書·畵를 감상하고 즐겼지만 글씨나 그림의 창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화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서화가에게서 전문 서화가로서의 자의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개개의 존재로 존재하며, 그들만의 집단을 만들지는 않았다. 또한 서화가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만을 그리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화 시장이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아서 전문적으로 서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서화의 유통과 매매는 17세기 이후 꾸준히 활성화 되었고, 이러한 서화 시장의 경제적 토대로 인해 전문서화가들이 비록 미약하지만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화계가 형성된 것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이다. 국가와 사대부사회의 지원을 상실한 서화가들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서화계를 형성한다. 이 서화계에는 전문서화가 외에 서화에 관심과 취미 그리고 실력을 갖춘 친일관료와 일본인 관료도 참여한다. 즉, 근대에 서화가들이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된, 서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 서화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서화를 전문예술화하고, 서화가를 전문예술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한국 최초의 서화계의 구성과 성격을 고찰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전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 서화계의 핵심 고리로 이후 한국 서화계의 성격과 흐름을 가늠하고 이해하는 모체가 될 것이다.

2. 서화계의 형성

근대이전 두 형태의 서화가 -화원과 문인화가- 는 국가기관과 사대부 사회를 배경으로

---

1) 이 글에서 말하는 근대와 전근대는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한다. 갑오개혁은 전근대적 제도개혁을 명문화하였다. 신분제가 폐기되었으며, 사대부사회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2) 이 논문에서 다루는 근대초기는 1894년부터 1920년대이다.
3) 이들은 畵員과 寫字官이었다.

한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어 근대적 국가 체제가 성립되자 사대부 사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동시에 조선 왕실의 권위와 권력이 축소되었으며, 서화가들을 관리했던 도화서와 사자청의 기능 역시 축소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된다. 국가기관에 의해 존재했던 화원이 그 근거지를 잃고, 사대부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문인화가가 일시에 증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에 대한 수요와 창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 서화가들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근대초기 이들 서화가들은 스스로 서화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주로 서화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개관하였다. 최초의 기관은 1907년 7월 20일에 개관한 敎育書畵館이다. 교육서화관은 西友學會 부설로 설치된 것이며, 그 목적과 설립 취지를 보면 근대 이전의 국가기관인 도화서와 사자청을 잇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911년 3월 22일에 書畵美術會가 개원하였다. 서화미술회는 '한국 최초의 서화학교'로 일컬어지며 1920년 6월 30일자로 폐회될 때까지 공적이고 권위 있는 서화가 양성기관으로 존재했다. 이 학교 출신으로 대표적인 서화가가 以堂 金殷鎬이다.

사적인 기관으로는 1914년에 서화가 윤영기의 주도로 평양에서 箕城書畵會가 조직되었다. 이는 평양의 서화애호가들이 모인 동호회 형식을 띠면서 동시에 회비를 받고 서화를 가르친 사설연구회이다. 1915년 7월에는 서화가 金圭鎭이 운영하는 海岡書畵硏究會가 문을 열었다. 이 역시 사설학원의 성격을 띠지만 당시 김규진의 명성으로 신진 서화가와 서화에 관심을 가진 서화인이 모인 중요한 그룹이었다. 서화가 安中植이 운영한 耕墨會는 1917년 6월 1일 조직되었다. 敎育書畵館의 설립을 주도했던 서화가 金有鐸이 조직한 사설기관인 書畵指南所는 1921년에 설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화가를 양성하는 사설교육기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인 시미즈 토운(淸水東雲)은 1908년에 그림 및 사진 강습소를 정동에 차려 놓고, 수십 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하였다. 야마모토 바이가이(山本梅涯)는 1911년 1월 初音町에 조선인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양화속습회를 개설하였다.

이들 공적·사적 기관들은 모두 서화가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대 이전에 이런 단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과 이들 기관을 이끄는 서화가들이 당시 한국 서화계의 중심인물이었으며, 교유와 함께 서로의 조직에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와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18년 5월 19일 마침내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간미술단체인 書畵協會가 창립되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석한 13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화가이다.[4] 서화협회의 창립은 기본적으로 서화가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것은 과거 국가나 관, 혹은 사대부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존재했던 서화가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마침내 서화가들 스스로 서화예술의 성격과 가치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서화가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의 성격으로 서화전람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천명하였다. 1913년 金應元의 전람회,[5] 1919년 金禹範의 전람회,[6] 1920년 김유탁

---

4) 13인은 강진희·강필주·고희동·김규진·김돈희·김응원·정대유·정학수·이도영·안중식·오세창·조석진·현채이다.
5)『매일신보』1913년 8월 3일 1면.
6)『매일신보』1919년 7월 17일 4면.

의 전람회,[7] 1919년과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개최된 김규진의 전람회, 1920년 金彰桓이 이끄는 心畝畵會의 전람회, 1922년 황성하·황용하·김유탁 3인의 「개성서화회전」[8] 등은 당시 서화계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서화가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며, 서로를 인식하게 되고, 상호 교유를 통해 서화계를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3. 서화계의 성격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서화계는 근대에 형성된다. 근대이전 국가나 관, 혹은 사대부 사회를 기반으로 하던 서화가들은 이러한 사회가 해체된 근대초기에 여러 공적 사적기구의 개관과 조직을 통해 스스로 서화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개설된 조직의 형성에는 전문서화가뿐만 아니라 친일 관료와 일본인 관료가 포함되었다. 이는 서화계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한국의 전문서화가들이 형성 주체가 되어 조직을 이끌었지만 친일 관료와 일본인 관료가 조직의 재정에 관계되면서 조직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었다.

근대초기 가장 먼저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圖寫학교'는 조선황실의 의지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9] 이는 황실의 서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圖畵와 寫字로 나누어 10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학교의 존재에 대한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곧이어 1907년에 개관한 교육서화관은 西友學會라는 설립 주체의 성격으로 볼 때,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기관은 그리 오래 존재했던 것 같지 않다.

한국 근대 서화계에 큰 영향을 미친 '서화미술회'는 尹永基와 方漢德 등의 발기로 1911년 3월 22일 두석동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서화가들이 최초로 관여한 미술단체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을 주도한 윤영기의 처음 생각은 비영리 미술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과 운영자금이 문제가 되자 이토우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지원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만주에서 저격을 당하여 그 약속은 무산되었고, 대신 이완용이 자금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물론 미술회의 운영은 조석진과 안중식 두 사람이 하였다고 하고, 李王職에서는 매월 300원씩 지급했으며, 교수진들에게는 따로 100원씩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지만,[10] 이왕직의 재정 자체도 日帝의 관리 하에 있던 당시에 친일파로 지목된 이완용이 교장의 역할을 맡았으니 서화미술회는 日帝와 무관한 성격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설 기구로 대표적인 海岡書畵硏究會 역시 회장은 子爵 金允植이고, 부회장은 子爵 趙重應이며, 고문은 이왕직 차관 코미야(小宮)였다.

당시 한국 화단의 중심 단체였던 두 기관, 곧 공적인 성격의 서화미술회나 사적인 성격의 해강서화연구회는 韓日倂合 혹은 乙巳勒約이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抗日的 성격이 없다. 두 기관은 출발부터 親日이거나 抗日에 무관심한 듯 보인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함, 즉 개인의 존재와 서화의 존재를 위한 소극적 선택이었는지, 예술가의 志士的 삶에 대한 무심함이었는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적극적 선택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

7) 『매일신보』 1920년 3월 5일 3면.
8) 송희경, 「우청 황성하의 회화 연구」, 『미술사학보』 31, 미술사연구회, 2008, 201쪽.
9)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0일 2면.
10) 이구열, 「한국 근대 회화와 창덕궁 이왕가」, 『공간』, 1977 5, 35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18년 5월에 설립된 서화협회의 구성원은 서화미술회와 서화연구회의 교수들이었다.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3종으로 나누었는데, 정회원은 서화가로 규정하였으며, 당시 한국 서화계에 이름 있는 서화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다. 초대 회장에는 안중식, 총무는 고희동, 간사는 김균정이 선출되었으나, 부총재에 김윤식, 고문에 이완용, 민병석, 김가진, 박기양 등 친일 인사들이 선정되었다.

한일문학의 공동권역-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김계자(경원대학교)

1. 1930년대의 문학상황

1920년대 중반 이후 1930년대에 조선과 일본에서는 소위 '붐'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대중문학이 유행했다.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대중매체의 탄생을 계기로 문학은 광범위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락과 소비상품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근대적 교육이 확산되고 출판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근대 대중독자층이 형성되었다. '신문학'이 독자를 확보해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창간(1920), 『개벽』(1920)과 『조선문단』(1924) 등의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대중의 독서행위는 일상화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 일본에서도 1920년대 후반에 출판미디어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쇼와(昭和) 초기 소위 '엔본 붐'이 일어 대중독자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이에 발맞춰 출판미디어는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에 대중문학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일제의 전시체제 하에서 '사상'의 결락이 가져온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대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조선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갔다. 1935년 카프가 끝내 해체되고 대중소설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전향(轉向)의 시대 도래 이후 소위 '문예부흥'이라는 미명 하에 전개되었던 1930년대의 대중문학의 융성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과 일본에서는 신문연재소설을 비롯한 대중적인 장편소설이 유행한다.

이와 같이 1930년대에 이전 시대부터 형성된 대중 독자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중문학이 발흥하게 되는 문학상황은 조선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특히 193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조선의 경우 1930년대 문학은 '고쿠고(國語)'로서의 일본어 교육이 공고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공적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교양으로, 그리고 문학 언어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1922년에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전의 '조선어 및 한문'(1911년 조선교육령)이 '조선어' 과목으로 독립하지만, "조선어를 가르칠 때는 항상 국어(일본어-인용자주)와 연락을 유지하고 때로는 국어로 이야기하게 할 것"이라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일제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획책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국어를 상용하는 자"가 '내지인'이고 이에 비해 '조선인'은 "국어를 상용시켜야할 자"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인의 독자적 민족성은 완전히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민족국가의 주체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강제된 현실의 문제였으며, 특히 문단에 나아가 문학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조선의 문학자들에게 있어서 일본어의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조선의 문학자들이 어떠한 일본어를 구사해 글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어떠한 의미내용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즉 표현의 비평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주체는 결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

1) 천정환『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2008. pp.28-31.
2) イ・ヨンスク『「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2001. p.252.

만은 아니다. 문학자들이 시대 풍조와 연동하거나 혹은 몰교섭(沒交涉)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을 획득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표현 속에서 '차이'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1930년대의 조선의 문학자들은 일본어로 글을 써서 일본문단으로 적극 나아갔다. '일본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 동일한 자장 안에 이들의 문학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행한 일본어문학은 결코 일본문학과도 그리고 조선문학과도 다른 '차이'로서의 문학공간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경계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아직 1940년대의 국민문학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제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문학행태로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의 조선 문학자들이 행해간 일본어문학에 주목한다.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근대적 지(知)를 모색해간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가 일제 치하의 문학대중화시대에 제기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조선의 문학자들이 왜 일본어로 글을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종종 논의된 바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언문일치 이전의 조선어가 문학언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일 것이다. 김동인은 근대 일본어에 자극 받아 조선의 근대문학을 개척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어와 메이지문학에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어로 글을 쓰는 어려움에 일본어가 편의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3] 이러한 경향은 이광수, 이인직, 주요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직 근대 문학언어로서 조선어가 정착되지 않은 1910년대에 일본어로 글을 쓰는 편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학자들의 반응에 비해 어려서부터 일본어교육을 받고 19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해가는 장혁주와 김사량은 일본어 글쓰기에 대해 조금 다르게 반응한다. 장혁주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나는 일본문으로 문장을 쓰는 데에 어떠한 신기함도 없다. 나는 일본어로 생각하고 공상한다. 이것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국어를 가벼이 여겨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중략) 일본의 현대문학을 알게 된 이후 일본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4]

유년시절부터 일본어교육을 받은 장혁주에게 일본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문학언어의 모델이었던 것이다. 도쿄에서 춘향전을 일본어로 각색해 상연한 장혁주는 "조선민족의 미적 정신을 내지어로 옮기고 싶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인에게 '조선물(朝鮮もの)'을 알리게 된 기쁨을 술회하고 있다.[5] 장혁주의 말 속에 조선의 문학자가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의미가 표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조선의 것을 널리 알린다는 목적인데, 이러한 생각은 김사량에게도 공유되고 있다.

> 내지어로 써야 할 것인가. 물론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부러 갖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내지어로 글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매우 적극적인 동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문화나 생활, 인간을 더욱 넓은 내지의 독자층에 나아가 호소하려는 동기. 또한 겸손한 뜻에서 말하면 나아가 조선 문화를 동양이나 세계에 넓혀가기 위해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동기.[6]

---

3) 김동인「문단30년사」『김동인전집』제8권, 홍자출판사, 1967.
4) 張赫宙「我が抱負」, 『文藝』1934.4.
5) 張赫宙「朝鮮の知識人に訴ふ」, 『文藝』1939.2.

김사량은 조선의 문학자가 일본어로 글을 써 일본문단에 진출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인 동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어 글쓰기는 조선의 문학자들에게 근대 문학언어의 전형으로, 그리고 조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남부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다.

> 그러나 조선어의 위기적 상황은 이러한 미지근한 논의보다 훨씬 빨리 몰아닥쳐 장혁주가 예견한 대로 시대는 점점 일본어 일변도로 치달았다. 그 속에서 일본어로 어떻게든 창작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은 일본어창작을 시도하고,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작가들은 서서히 창작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편에서 장혁주가 예견했듯이 옛 작가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일본어세대의 작가들이 『녹기(綠旗)』나 『국민문학(國民文學)』등의 일본어잡지를 통해 등장한다.[7]

위의 인용은 장혁주와 김사량을 비롯한 본격적인 일본어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다름을 보여주며 점차 확대되어 가는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는 일견 당연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문학 논의가 활발히 행해졌던 1940년대에 이르면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라는 것은 개개인의 일본어 능력의 차이, 즉 리터러시(literacy)의 차원으로 소환된다. 1922년에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고쿠고’로서 조선 사회에 군림해온 일본어가 1930년대를 지나면서 ‘제도’로서라기보다 개별 사용자의 ‘차이’로서 현출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고쿠고’ 상용을 통해 조선의 황국신민화를 꾀하려 한 일제의 당초 의도와는 별도로 1930년대의 문학공간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조선의 문학자가 식민 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글을 쓴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문학 주체는 오히려 이를 적극 이용해가기도 한다. 이러한 문학행위가 때로는 시대에 연동하고 혹은 거스르면서 전개되어가는 과정은 단일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텍스트 외부의 제도적 측면과 내부의 표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텍스트는 작자의 의도와도 별도로 움직이는 공간인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를 구조화시키려는 제요소를 견제하면서 끊임없이 상대화되어가는 의미기제인 것이다.

3. 번역되는 ‘일본어’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어 해독 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어 서적 유통량은 급격히 증가한다.

표1) 1920년대 외국 서적 수입액 증가 추이(단위:원)[8]

구 분	1921	1926	1927	1928	1929	1930
일본서	-	1,524,185	1,679,643	1,981,314	2,410,321	2,214,762
그 외 외국서	-	78,476	41,577	24,580	38,463	23,444
계	700,058	1,602,661	1,721,220	2,005,894	2,448,784	2,238,206

6) 金史良「朝鮮文學風月錄」, 『文藝首都』1939.6.
7) 南富鎭「植民地の言語空間」『文學の植民地主義』世界思想史, 2006. p.92.
8) 천정환, 전게서에서 인용. p.489. 원 출처는 이여성·김세용『숫자조선연구』제4집, 1932. p.118.

앞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조선에서는 근대교육의 확산과 출판산업 발달로 근대 대중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위의 표에 나타난 일본서 유통량의 추이를 참조하면 이들 조선의 독자층이 일본어 해독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어 해독 가능자가 증가하면서 직접 일본어로 글을 써 일본 문단에 적극 진출해간 작가들이 생겨났다. 장혁주, 김사량이 바로 대표적인 문학자인데, 이들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문단에 데뷔해 본격적으로 일본어문학 활동을 해나간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로서 일본 문단에 처음 널리 알려지게 된 사람은 바로 장혁주(張赫宙, 1905~1997)이다. 1932년 4월에 『아귀도(餓鬼道)』를 『개조』에 투고해 입선, 조선 출신자에 의한 본격적인 일본어작품으로 주목받게 된다. 잡지『개조』는 1919년 4월에 창간하여 태평양전쟁 말기에 잠시 휴간한 후 1955년 2월에 종간된 종합잡지로, 당시 상업자본의 중심에 있었던 개조사(改造社)의 출판전략 하에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문학자들의 글을 의식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다.[9)]

김사량(金史良, 1914～50?)은 장혁주의 소개로 잡지『문예수도』에 글을 싣게 되면서 일본 문단에 알려지게 된다. 『문예수도』의 편집자 야스타카 도쿠조(保高德藏, 1889~1971)의 연보에 의하면, 1939년 5월에 “장혁주의 소개장을 들고 도쿄대학 학생 김사량 오다”라는 기록이 있다.[10)] 『문예수도』는 1933년 1월에 창간하여 1944년 12월에 종간(전후 1946년에 복간하여 1970년까지 간행)된 월간지로, 문예동인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진작가를 규합해서 신흥문학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자 한 잡지 『문학쿼터리(文學クオタリイ)』(1932년2월 창간)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잡지『문예수도』는 ‘식민지 문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위 중앙 문단에 발표무대를 제공받기 어려운 신인들을 주로 배출시키려 한 취지야말로 일본문단에 데뷔하려는 조선 문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문예수도』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만주 등의 식민지로부터도 투고를 받고 있었다. 김사량은 1939년 10월호의 『문예수도』에 일본어소설 『빛 속으로』를 발표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김사량은 이후 『문예수도』뿐만 아니라 『문예춘추(文藝春秋)』나 『문예(文藝)』 등에도 작품을 발표하며 폭넓은 활동을 해나간다.

1930년대 초 일본 문단에 데뷔한 장혁주가 상업출판의 대표적인 잡지라 할 수 있는 『개조』를 통해 등단하고, 1930년대 말 김사량이 문학동인지 『문예수도』를 통해 일본문단에 알려지게 된 사실은 1930년대 조선 문학자의 일본어 글쓰기의 성격과 일본 미디어와의 관련성을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사량이 등단한 잡지『문예수도』는 장혁주의 소개를 통해서였고, 작품 게재수를 비교해 봐도 장혁주가 김사량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그리고 장혁주는 『개조』나 『문예수도』에 글을 싣는 외에도 유진오, 무라야마 도모요시, 아키타 우자크(秋田雨雀)와 공편으로 『조선문학선집』(赤塚書房, 1940)을 펴내고, 창작도 1940년에 장편 3편과 단편 4편을, 1941년에는 장편 5편과 단편 3편을 발표하는 등 대활약을 하고 있었다. 가히 문학대중화시대의 작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

9) 高榮蘭「出版帝國の「戰爭」―一九三〇年前後の改造社と山本実彦『滿·鮮』から―」(『文学』2010.3-4.) 참조. 잡지 『改造』는 1920년대의 쇼와(昭和)문학 출발기에 출판미디어와 문학자들과의 관련성, 정부의 언론통제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큰 잡지라 할 수 있다.

10) 保高德藏『保高德藏選集 第1卷』(新潮社, 1972.5)에 수록된 「保高德藏年譜」(pp.352-9)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 연보는 구리쓰보 요시키(栗坪良樹)가 작성하고, 야스타카 도쿠조의 부인 야스타카 미사코(保高みさ子)가 교열(校閲)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p.356.

이에 비해 김사량이 행하는 일본어문학은 '번역'의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역은 조선어를 일본어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언어로부터 상대화된 '차이'로서의 언어행위를 지칭한다. 『빛 속으로』에서 경계적 인간으로 설정된 작중인물의 서사구조, 『풀속 깊이』(『문예』1940.7)에서 규범으로서의 일본어를 끊임없이 상대화시키는 언어표현 등은 동일한 '일본어'를 매개로 하면서도 당시의 조선문학과 일본문학의 어느 한편에 수렴되지 않는 '경계', 혹은 '차이'로서의 문학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식민지기『문예수도』에 투고된 조선인 작가 및 작품 일람

	발표년월	작자	작품	장르	비고
1	1932.6	장혁주	迫田農場	창작	『文學クオタリイ』제2집
2	1933.1	장혁주	僕の文學	에세이	『文藝首都』창간호
3	1933.2	장혁주	特殊の立場	에세이	
4	1933.5	장혁주	兄の足を截る男	창작	
5	1933.9	장혁주	奮ひ立つ者	창작	
6	1933.9	장혁주	優秀より巨大へ	문예시평	
7	1933.10	장혁주	飜譯の問題・其の他	문예시평	
8	1933.12	장혁주	秋日抄(作家の一日)	에세이	
9	1934.1	장혁주	女房	창작	
10	1934.10	장혁주	素朴と非素朴	평론	
11	1935.5	장혁주	あらそひ	창작	
12	1935.8	장혁주	ある感覺	에세이	
13	1936.3	장혁주	狂女點描	창작	
14	1936.11	장혁주	或る時期の女性	창작	
15	1936.11	장혁주 등 11명	明治・大正の文學運動座談會	좌담회	
16	1936.12	장혁주	北条民雄氏のこと	에세이	
17	1937.1	장혁주	本郷附近の散歩	新春随信	
18	1937.2	장혁주	お正月	에세이	
19	1937.11	장혁주	滿洲移民に就いて	에세이	
20	1938.3	장혁주	春香傳について	수필	
21	1938.6	青木洪	東京の片隅で	창작	(洪鍾羽)
22	1939.2	장혁주	ブック・レヴュー	평론	
23	1939.6	김사량	朝鮮文學風月錄	평론	
24	1939.9	김사량	エナメル靴の捕虜	수필	
25	1939.10	김사량	光の中に	창작	아쿠타가와상 후보
26	1939.11	이석훈	交通事故	수필	
27	1940.2	김사량	土城廊	창작	미발견
28	1940.3,4	김사량	母への手紙	수필	3, 4월 합병호
29	1940.6	김사량	箕子林	창작	
30	1940.8	김사량	玄海密航	수필	金時昌(본명)『密航』(『朝光』1939.6)을 일본어로 번역.
31	1940.10,11	김사량	平壤より	평론	10, 11월 합병호
32	1941.3	김사량	ミンドレミの花	보고	<火田地帶を行く>3회시리즈①
33	1941.4	김사량	部落民と薪の城	보고	<火田地帶を行く>3회시리즈②
34	1941.5	김사량	村の酌婦たち	보고	<火田地帶を行く>3회시리즈③
35	1941.7	김사량	山の神々	수필	
36	1942.3	金光 淳	塵	창작	(金達壽)
37	1942.3	장혁주	その頃の思ひ出	평론	

『蒲團』과『浮雲』주인공의 理想的인 사랑의 관념

이인심(부경대학교)

1. 들어가기

메이지 신정권이 부국강병책. 서구화주의를 추진함에 따라 서유럽의 기술과 지식이 소개되어 문명개화 풍조가 팽배하고 사회각계에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메이지 초기의 계몽사상은 개량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문학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소설신수(小說神髓)』(1885~86)에 의한 소설 개량이다.

공리주의 문학관과 유희적 문학관을 배격하고 사실주의 방법을 주장한 쇼요의 제창은 근대문학으로의 성장에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다. 그의 이론 실천이 『當世書生氣質』(1885~86)이다. 쇼요의 사실주의를 계승하여 보다 높은 문학성을 획득함으로써 근대소설의 여명을 고한 작품은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문학론 『소설총론(小說總論)』의 구체화인 『浮雲』(1887~89)이다. 그는 독창적인 구어체를 채용하여 언문일치 소설의 효시가 되었다. 우선, 묘사의 수법이 당시 소설의 수준을 넘어 일본 근대소설 전체를 비추어봐도 걸출하다. 인물형상이 선명하고 심리묘사도 생생하다 게다가 주인공의 고뇌를 통해서 관리의 부패, 신구사상의 대립, 근대 지식인의 생이별등의 보편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자연주의 문학은 쇼요의 사실주의 이론, 명치 20년대 말의 사회 소설을 거쳐 전기 자연주의 작품이나 졸라이즘을 제창하였는데, 서구 19세기 국가주의의 영향하에 명치 30년 말에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破戒』(명치 39)와 다야마가타이(田山花袋)의『蒲團』(명치 40)에 이르러 확립된다. 이중 『蒲團』은 작자 자신을 모델로 중년의 한 소설가의 여제자에 대한 애정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그려 전례 없는 자기폭로의 태도 속에 새로운 작가로서의 방향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응시하고, 자기조차 객관화하려는 냉정한 관조태도를 취한 점에서 일본 자연주의 방향을 결정지은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조적인 것에 머물게 되고, 실행적 방향으로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문예의 범위, 개인적인 범위에 머물게 된다.

이 논고에서는 『浮雲』과『蒲團』속의 두 주인공 文三과 時雄의 理想的인 사랑의 관념에 대한 유사점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浮雲』과『蒲團』 주인공의 理想的인 사랑의 관념

1) 『蒲團』의 다케나카 도키오(竹中時雄)

『寂しき人々』のヨハンネスと共に、家妻といふものの無意味を感ぜずには居られなかった。これが一この孤独が芳子に由って破られた。ハイカラな新式な美しい女門下生が、先生!先生！と世にも豪いひとのやうに渇仰して来るのに胸を動かずに誰が居られやうか。

最初の一月ほどは時雄の家に仮寓して居た。華やかな声、派手やかな姿、今迄の孤独な淋しい彼の生活に、何等の対照！(略) 時雄は新婚当座に再び帰ったような気がして、家門近く来るとそそるように胸が

動いた。門を開けると、玄関には其美しい笑顔、色彩に富んだ姿、夜も今迄は子供とともに妻君がいぎたなく眠って了って、六畳の室に徒に明らかな洋灯も、却って侘しさを増すの種であったが、今は如何に夜更けて帰って来ても、洋灯の下には白い手が巧に編物の針を動かして、膝の上に色ある毛糸の丸い玉！賑かな笑声が牛込の奥の小柴垣の中に充ちた。

이렇듯 時雄은 따분하고 지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발견하고 자신만의 사랑의 관념 속으로 도취되어 간다. 이곳에서 봉건적 잔재의 가부장적 일부다처제의 꿈의 迷妄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時雄의 사랑의 관념이 깨져버린 사건, 요시코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알고

時雄は悶えざるを得なかった。わが愛するものを奪われたということは甚だしく其心を暗くした。元より進んで其女弟子を自分の恋人にする考えは無い、(略)　けれど其の愛する女弟子、淋しい生活に美しい色彩を添え、限りなき力を添えてくれた芳子を突然人の奪い去るに任すに忍びようか(略) 時雄は悶えた。思い乱れた。妬みと惜しみと悔根との念が一緒になって旋風のように頭脳の中を転がした。師としての道義の念もこれに交って、益々炎を盛んにした。わが愛する女の幸福の為めという犠牲の念も加わった。で、夕暮の膳の上の酒は夥しく量を加えて、泥鴨の如く酔って寝った。

時雄의 갈등을 보여주는 묘사에서 계몽된 메이지 시기의 지식인의 양심이 도덕과 욕망사이를 오가며 갈등하는 격렬한 신중함과 용기 없음이 교차하는 사랑의 관념을 볼 수 있다.

요시코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녀의 방으로 돌아온

時雄は机の抽手を明けて見た。古い油の染みたリボンが其中に捨ててあった。時雄はそれを取って匂を嗅いだ。(略)　芳子が常に用いて居た、蒲団、萌黄唐草の敷蒲団と、綿の厚く入った同じ模様の夜着とが重ねられてあった。時雄はそれを引き出した。女のなつかしい油の匂と汗の匂とが言いも知らず時雄の胸をときめかした。夜着の襟の天鵞絨の際立って汚れているのに顔を押し付けて、心のゆくばかりなつかしい女の匂を嗅いだ。性慾と悲哀と絶望とが忽ち時雄の胸を襲った。時雄は其蒲団を敷き、夜着をかけ、冷たい汚れた天鵞絨の襟に顔を埋めて泣いた。

時雄은 꿈꾸던 사랑의 迷妄이 깨져 버리자, 요시코가 기거하던 방으로 올라가 요시코의 채취를 맡으며, 그 자신만이 생각하고 꿈꾸던 理想的인 사랑의 관념의 끝자락을 붙잡고 어두컴컴한 방, 집 밖에 거칠게 부는 바람처럼 그 사랑에 종말을 고하고 있다.

2)『浮雲』의 우쓰미 분조(内海文三)

お勢が帰宅した時而已、十日ばかりも朝夕顔を見合はしてゐたなれど、小供の時とは違ひ、年頃が年頃だけに、文三もよろづに遠慮勝よそよそ敷待遇して、更に打ち解けて物など言った事なし。　其癖お勢が帰塾した当坐三日は、百年の相識に別れた如く、何となく心淋しかった、、、それの日数を経る随に忘れて仕舞ったのに、今また思ひ懸けなく一つ家に起臥して、折節は狎れ狎れ敷物など言ひかけられて見れば、嬉敷もないが一月が復た来たやうで、何にとなく賑やかな心地がした。人一人殖えた事ゆえ、是れは左もあるべき事ながら、唯怪しむべきはお勢と席を同した時の文三の感情で、何時も可笑しく気が改ま

り、円めていた脊を引伸して頸を据える、異う済まして変に片付ける。魂が裳抜ければ一心に主とする所なく、居廻りに在る程のもの悉く薄烟包れて、虚有縹渺の中に漂ひ、有る歟と思へばあり、無い歟と想へばない中に、唯一物ばかりは見ないでも見えるが、此感情は未だ何も些しく打解け出して、折節は日本婦人の有様、束髪の利害、さては男女交際の得失などを論ずるやうに成ると、不思議や今まで文三を男臭いとも思はず太平楽を並べ大風呂敷を拡げていたお勢が、文三の前では何時からともなく口数を聞かなく成って、何所ともなく落着で、優しく女性らしく成ったやうに見えた。或一日、お勢の何時になく眼鏡を外して頸巾を取っているを怪しむで文三が尋ぬれば、「それでも貴君が、健康な者には却て害になると仰ったものを」といふ。文三は覚えずも莞然、「それは至好い事だ」と言ってまた莞然。

お勢の落着たに引替へ、文三は何かそはそはし出して、出勤して事務を執りながらも、お勢の事を思ひ続けに思ひ、退省の時刻を待託びる。帰宅したとてもお勢の顔を見ればよし、さも無ければ落脱力抜けがする。「彼女に何したのぢやアないのか知らぬ」と或時我を疑って、覚えずも顔を赤らめた。

文三가 오세이에게 반하여 그녀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에도 자기만의 사랑의 관념으로 해석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오세이와의 사랑을 꿈꾸기 시작한다.

실직을 하고 숙모에게 구박당하고 있는 文三는 회사동료 노보루의 오세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더욱 괴롭고, 현실에 낙오당한 것 같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오세이에게 사랑의 고백조차 못하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

文三は拓落失路の人、仲々以て観菊などいふ空は無い。それに昇は花で言へば今を春辺と唉誇る桜の身此方は日蔭の枯尾花、至頭楯突く事が出来ぬ位なら打たせられに行くでも無いと、境界に随れて僻みを起し、一昨日昇に誘引た時既にキツバリ辞って行かぬと決心したからは、人が騒がうが騒ぐまいが隣家の疝気で関繋のない噺、ズット澄して居られさうなものの扨居られぬ。嬉しさうに人のそれはつくを見るに付け聞くに付け、またしても昨日の我が憶出されて、五月雨頃の空と湿める、嘆息もする面白くも無い。

ヤ面白からぬ。文三には昨日お勢が「貴君もお出なさるか。」と尋ねた時、行かぬと答えたら、「へー然うですか。」と平気で澄まして落着拂っていたのが面白からぬ。文三の心持では、成らう事なら、行けと進めて貰ひ度かった。それでも尚ほ強情を張って行かなければ、「貴君と御一所でなきやア私も罷しませう。」とか何とか言て貰ひ度かった。。。。。。（略）凡そ相愛する二つの心は、一体分身で孤立する者でもなく、又仕ようとて出来るものでもない故に、一方の心が歓ぶ時には他方の心も共に歓び、一方の心が悲しむ時には他方の心も共に悲しみ、一方の心が楽しむ時には他方の心も共に楽しみ、一方の心が苦しむ時には他方の心も共に苦しみ、嬉笑にも相感じ怒罵にも相感じ、愉快適悦、不平煩悶にも相感じ、気が気に通じ心が心を喚起し決して齟齬し扞格する者で無いと今日が日まで文三は思っていたに、今文三の痛痒をお勢の感ぜぬは如何したものだらう。

하지만, 처세술 능한 노보루에게 어느새 넘어가 버린 듯한 오세이를 보면서도

文三は内心では尚ほまだお勢に於て心変りするなどと云ふ其様な水臭い事は無いと信じていった。尚ほまだ相談を懸ければ文三の思ふ通りな事を云って、文三を励ますに合い相違ないと信じていた。斯う信ずる理由が有るから斯う信じていたのでは無くて、斯う信じたいから斯う信じていたので。

이 작품은 잘 알려져 있듯이 미완성인 채로 끝을 맺고 있다. 갓 20세를 조금 넘은 二葉亭가 이 글을 쓴 것은 조금 무리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 근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뛰어난 작품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3. 맺음말

자연과학일수록 논쟁에 있어서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문학이라는 것이 자연과학과 같이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 있어서 문제는 작품을 중핵으로 해서 제작과 수용, 즉 작가와 작품과 독자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성립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세 개의 계기를 각각의 원점에서 확장해가는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종의 유기적인 불안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 문학에 대한 수용자, 향수자의 각각의 해석이나 생각이 여러 각도로 허용이 되어 같은 의견에 도달하는 것에 시간이 지체되거나, 혹은 서로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이 문학이 가지는 운명이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浮雲』과『蒲團』은 명치 20년과 4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발표된 작품이다. 『蒲團』의 田山는 二葉亭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그를 추종하여 『浮雲』과 닮은『蒲團』을 썼다고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사뭇 다른 것이다. 田山가 『蒲團』을 발표하여 일약 자연주의의 선도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세월이 흐른 후 이 작품에 관심을 두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蒲團』의 주인공 時雄는 순진 유치한 구시대 인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삼분의 이 정도가 이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했다면, 그 후는 삼분의 일 정도가 재밌어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의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일 뿐이지, 이 작품이 주는 재미가 완전히 무용이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二葉亭의 『浮雲』은 미완성의 작품인 채로 일본의 근대문학의 문을 연 작품으로 손꼽히며, 24세의 二葉亭가 집필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일본의 가정을 묘사하고자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

작품이 출판되고 100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도 이들 작품에서 인간의 공통된 에고이즘과 사랑과 미움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선대인이나 후대인이나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감정의 공통된 공감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吉田精一, 『蒲団の意義』, 桜楓社,1980
*國文學 解釋과敎材의 硏究 第9卷第12号, 學燈社, 昭和39.10
*國文學 解釋과敎材의 硏究 第34卷第4号 臨時增刊号, 學燈社, 平成1.3
*平野謙, 現代日本文學論爭史(上,中,下), 未來社, 1969.6
*明治文學全集67, 田山花袋集, 筑摩書房, 1968
*日本近代文學大系 全60卷 第4卷, 二葉亭四迷集, 1971

형제관계로 읽는『무정(無情)』과 『우미인초(虞美人草)』

吳 敬 (덕성여대)

서 론

본 발표에서는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1892~1950)의 『무정(無情)』(「每日申報」1917, 1, 1~6, 14)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 이하 소세키로 칭함)의 『우미인초(虞美人草)』(「朝日新聞」1907, 6, 23~10, 29)에서 보여지는 형제관계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광수는 두 번에 걸친 일본 유학기간에 소세키의 많은 작품을 애독하여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두 작가의 생애와 문필활동, 자국의 근대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등의 유사성 때문에 한일비교문학에서 자주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무정』은 등장인물, 사건 전개, 문장 표현, 문체 등이『우미인초』와 유사하여 비교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종전의 연구들은 주로 등장인물의 성격과 스토리의 구도, 인물관계의 유사점, 사건 전개, 여성상, 사생관 등[1]을 다루고 있어, 두 작품의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발표자는 근년, 두 작품의 가족관계가 작품의 배후에서 작품의 구도, 등장인물의 조형, 사건 전개, 작가의도의 구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작품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임에 착목하여 두 작품의 가족관계를 비교 고찰한 바 있다. 연구는 등장인물의 가족관계를 구성원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부모자식관계'[2], 두 번째로 '부부관계'[3]가 두 작품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이들이 등장인물의 성격형성, 작품의 구도, 등장인물의 조형, 사건 전개, 작가 의도 등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마지막 연구인 본 발표에서는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인 '형제관계'를 선행(先行) 연구들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등장인물의 형제관계의 양상을 추출한 후,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비교 검토하여 두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시키고자 한다.

제1장 형제관계의 양상

1.『무정』의 경우

『무정』에 등장하는 주요인물 중에서 형제가 있는 사람은 박영채(朴英采)와 김병욱(金炳郁) 두 사람 뿐이므로 이들의 형제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박영채에게는 열 살 이상 연령차가 나며 기혼인 두 명의 오빠가 있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교육가였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는 학교 교육은 물론 신문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반면, 영채에게는 학

---

1) 예를 들면, 孫順玉(1976)「韓日比較文學の一考察—『無情』と『虞美人草』を中心に—」, 吳 敬(1985)「韓日の近代文學における死生觀の比較研究—夏目漱石の『虞美人草』・『こゝろ』と李光洙の『無情』・『再生』を中心に—」, 崔明姬(1987)「漱石『虞美人草』と春園『無情』の比較研究」, 柳相熙(1992)「『傲慢과 偏見』과 『虞美人草』와『無情』」, 李智淑(2000)「夏目漱石と李光洙」, 尹惠映(2000)「李光洙と漱石(上)—『無情』と『虞美人草』とを中心に—」, 尹惠映(2001)「李光洙と漱石(下) —『無情』と『虞美人草』とを中心に—」, 朴順伊(2002) 「夏目漱石『虞美人草』と李光洙『無情』—主に女性像を中心に—」 등이 있다.

2) 吳 敬(2009, 1)「親子關係で讀む『無情』と『虞美人草』」『日本文化研究』第29輯, 동아시아일본학회.

3) 오 경(2010, 4)「부부관계로 읽는『무정(無情)』과『우미인초(虞美人草』)」『日本文化研究』第3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교에서 돌아오면 “소학, 열녀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열두 살 되던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치는 등, 자녀교육을 남녀에 따라 이원적(二元的)으로 행하였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두 오빠와 영채는 그 가르침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형제(남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두 오빠는, 이미 성인이지만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한 탓에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따르고 있고, 교육 사업에 전 재산을 바친 결과 집안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제자가 일으킨 강도사건에 연루되어 아버지와 함께 투옥된다. 그 후 아버지가 감옥에서 굶어죽자 큰 오빠가 아버지를 따라 굶어죽고, 같은 날 작은 오빠는 목을 매어 자살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볼 때 박영채의 오빠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이나 사상을 확립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생각하며 그 슬하에서 수동적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아버지와 오빠들의 자살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들 삼부자(三父子)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영채의 아버지가 ‘절식 자살’을 한 것은 영채가 아버지와 오빠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행실이 부정하여 기생이 된 줄로 알”고 자신의 “빛난 가문을 더렵”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가문(家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박진사로서는, 자신은 물론 두 아들까지 함께 투옥되어 가문을 이어갈 희망이 없는 데다, 딸이 기생이 되어 가명(家名)마저 더렵혀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켰다고 생각하여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했고,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박진사의 자살을 통해, 그가 외형적인 변화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내면적인 사고방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물이고,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들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전통적인 인물의 전형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채 또한,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오빠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데, 그녀가 기꺼이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판단의 근거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르침에 있었다. 영채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옛날 처녀의 본을 받아”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와 오빠를 구하는 일이 효도하는 길로서, 아버지는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생으로 지내면서도 생전의 아버지가 정해준 장래의 남편인 이형식을 위해 칠 년 동안이나 지켜온 정조를 배명식에게 유린당하자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조가 여자의 생명이니 정조가 깨어지면 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영채의 생각과 행동도 모두 어릴 적부터 받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박영채와 두 오빠는, 아버지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남매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찰할 수 있다. 텍스트에는 박영채와 두 오빠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없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묘사도 없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채는 어리고 나이 차가 많은 두 오빠는 결혼한 성인이어서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윤리관의 소유자인 아버지의 슬하에서 유교적인 사상에 따라 여자아이는 아버지나 연장자인 오빠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도록 교육받았고, 또 남녀가 유별하여 남매간이라 하더라도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박영채와 두 오빠가 친밀한 남매관계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리라고 보여진다. 한마디로 박영채와 오빠들과의 남매관계는, 연령차가 많아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의 슬하에서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장해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김병욱의 형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경유학생인 김병욱은, 전통적이고 완고한 사

고방식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그녀의 삶에 관여하여 매사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때마다 오빠가 곁에서 이를 막아주며 지원해주는 덕에 하고 싶은 공부는 물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한마디로,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여성으로 살아가는 김병욱에게 있어서 먼저 동경유학을 한 오빠는, 그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정신적 동지라고 하겠다. 한편, 내외간에 애정이 없는 오빠 김병국(金炳國)은, 아내 대신 누이에게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있다. 병욱도 오빠 내면의 깊은 고뇌를 알아채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오빠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상술(詳述)하면, 병욱이 귀향 하는 기차 안에서 자살하러 가는 박영채를 우연히 만나 그녀를 설득하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아내에게 애정이 없는 오빠가 영채에게 끌리게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영채 또한 병국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오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빠가 "괴로울 것이요, 또 미상불 위험도 없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병욱은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영채를 데리고 동경에 가겠다고 제안함으로써, 둘 중 한사람이 여행을 가든지 어디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끄는 힘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빠가 결단하여 고뇌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 즉, 오빠는 아내가 있는 몸이니 영채를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동생으로 알고 늘 사랑해 주"라고, 이성적인 판단과 당부로 병국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요컨대, 김병욱과 김병국남매는, 서로 "어린애 싸움같이 농담을 하"거나 놀려주기도 하지만, 오빠는 누이가 신여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런 누이에게서 정신적 위안을 얻기도 하고, 누이는 오빠의 고민을 알아채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위기를 넘기게 하는 등, 그 관계의 친밀함이 연인이나 부부사이를 방불케 한다. 이는, 나이 차가 많지 않아 세대차가 없는데다, 두 사람 모두 신문명을 수용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 정신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병국이 아내에게서 찾을 수 없는 '정신적인 위안'을 누이에게서 찾으려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우미인초』의 경우

『우미인초』에서는 코노 킹고(甲野欽吾)・후지오(藤尾)남매, 무네치카 하지메(宗近一)・이토코(糸子) 남매가 고찰의 대상이다.

먼저, 스토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후지오와 그 오빠 킹고와의 관계부터 살펴보면, 이들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한 이복 남매인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독(家督)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그 관계가 더욱 복잡 미묘해진다.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으로 성립된 가부장제에서의 가독 상속은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노가(甲野家)의 장남인 킹고는 법률상의 상속인이다. 그런데, 상속받은 유산을 잘 관리운영・유지해서 다음 대의 가장에게 양도할 책임과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킹고는, "집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후지오에게 줄 테니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하라며,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병약해서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출가(出家)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킹고는, 자신은 "아무 것도 필요없"으니 집도 재산도 후지오에게 주겠다는 말을 누이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우리들(후지오 모녀;인용자)이 곤란할 뿐이야",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며 집안을 이어가라고 만류한다. 그러나 킹고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나가라는 의미"이고, "재산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넘기라는 의미"이며, 자기에게 "신세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신세지는 것이 싫다는 의미"라고 이

해하고 있다. 즉,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전실 자식인 자신과 함께 살기보다는 데릴사위를 얻어서 친딸인 후지오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간파한 킹고는, 자신이 집에 "있으면 양쪽이 타락"하므로 "표면상 어머니의 뜻을 거스려, 실제는 어머니의 희망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킹고의 뜻을 알 리 없는 후지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을 언제 주겠느냐고 묻고, "오늘부터" 주겠다는 킹고의 대답에 "고맙다"며 어머니 쪽을 보고 웃고 있다. 후지오의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생모와 함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던 킹고의 재산을 드디어 차지하게 된 데에 대한 기쁨을 어머니와 함께 교감하는 것이라 하겠다. 킹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촌인 무네치카를 사윗감으로 생각[4]했기 때문에 후지오가 그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오노를 좋아하는 후지오는 아버지의 유지(遺志)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장인 오빠의 의견을 "아주 경멸"하며 "오빠는 오빠, 나는 나"라고 무시해버린다.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금시계는, 아버지의 유물인 만큼 법률상의 상속인인 킹고가 가져야 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무네치카에게 준다 하더라도 킹고가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후지오는, 시계를 오빠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줄 때도 자신이 주겠다, 즉 시계의 소유권을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계에 대한 오빠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무네치카에게 시집보내겠다는 아버지의 뜻도 묵살하고 자신의 결혼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갖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吳 敬; 2009 참조). 이처럼 후지오는, 아버지의 유지마저 쉽게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고집 센 여자인데다 유산문제로 킹고와 대립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를 오빠로 인정하여 대우하기는커녕 "얄밉다"거나 "상당히 남자답지 못한 성격"이라고 경멸하며 무시하고, 때로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킹고 역시 이런 후지오를 항상 무시하고 깔보며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 이들 사이에는 긴장감과 반발심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남매관계는, 유산을 은밀히 후지오에게 넘겨주려는 어머니가 딸과 함께 끊임없이 킹고를 비난하고 있어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무네치카 하지메와 이토코의 경우를 보면, 하지메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가정적인 여자"인 이토코를 마음속으로 아끼며 보살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을 지망하고 있는 하지메와, "학문은 없어도 진실에서 나온 자신이 있"으며 확실한 자기 의견을 가진 이토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좋은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 이토코는, 후지오가 자신의 오빠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하지메에게 귀띔해 준다. 그러나 숙부가 생전에 자신에게 금시계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그는, 이토코의 조언을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지오씨를 아내로 얻으려고 생각 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이토코는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얻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다른 여자가 얼마든지 있는데"라며 만류한다. 드디어 외교관시험에 합격하여 곧 양행(洋行)하게 된 무네치카가, 떠나기 전에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재촉을 받고 "어차피 결혼해야 한다면 후지오씨와 하겠어요. 외교관의 아내로는 그런 멋쟁이가 아니면 장차 곤란하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하자 이토코는, "그 정도로 마음에 든다면 후지오씨로 하세요.— 여자를 보는 것은 역시 여자 쪽이 잘 해요"라고 정색을 하며 핀잔을 준다. 그러나 무네치카가 후지오의 확답을 듣기 위해 담판을 짓고 오겠다고 하자 "물으려면 킹고씨에게 물으세요. 창피를 당하면 안 되니까"라며 오빠의 자존심과 명예가 상처입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다. 한편, 무네치카는, 이토코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킹고가, 여자는 "결혼하면 변하"므로 이토코가 "결혼하는 것은 아깝다"며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토코를 위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꼭 킹고가 이토코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처럼 이들 남매는, 킹고·후지오와는 달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

4) 어린 시절의 후지오는, 아버지가 런던에서 사가지고 와 자랑하던 금시계를 좋아해서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기 때문에 금시계와 인연이 깊다. 아버지는, 이러한 소중한 금시계를 무네치카에게 주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함으로써, 그에게 후지오를 주겠다, 즉 시집보내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다.

두 사람이 친 남매이면서도 어머니가 안 계신 탓에 이토코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와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 더욱 끈끈한 가족애가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2장 형제관계의 기능

1.『무정』의 경우

『무정』에서 보여지는 남매관계는,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영채와 김병욱의 경우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상반된 양상의 남매관계가 작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박영채는 기생으로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며 만날 날을 기다리던 이형식과 칠 년 만에 재회하지만, 그 다음 날 그를 위해 지켜온 정조를 배명식에게 유린당하여 삶의 목적을 잃게 된다. 영채가 대동강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평양으로 가면서 이형식에게 써놓은 유서를 보면, 지금까지 그녀가 기생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이 생전의 아버지가 정해준 남편감인 이형식을 만나 결혼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지켜온 정조를 더럽힌 영채는, "성인과 선친의 가르침"대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 버리는 것이 의리"라는 신념하에 자살을 결심하고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비록 영채가 '성인과 선친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결 열렬(純潔熱烈)한 구식여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곁에서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자살까지 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살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태어나 두 달이 못되어 돌아가신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와 두 오빠도 자살로 세상을 하직하여 가족이 아무도 없는 영채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평양행 기차를 타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토리의 진행상 영채가 반드시 평양행 기차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여성 박영채와 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신여성 김병욱과의 遭遇(조우)가 가능해지고, 기차 안에서 김병욱의 설득으로 영채가 자살을 단념하고 구여성에서 신여성으로 변모하는 일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맞은 영채의 곁에 가족이 아무도 없게 조형하여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서 자살을 택하게 한 것은, 작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영채와 오빠들과의 관계가, 현재의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고, 그것도 연령차가 많아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할뿐더러,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면서 친밀하게 지낼 기회를 갖지 못해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영채가 어떤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여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여성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박영채의 남매관계는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도 철저하게 유교적 윤리를 따르는 전통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반면, 김병욱과 김병국남매의 경우는 매우 친밀한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두 여성의 남매관계가 상반되게, 그것도 병욱보다 어린 영채의 남매관계가 구시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에 대한 답은, 작가가 밝히고 있는 『무정』의 집필 의도를 보면 쉽게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는, 회고문「다난(多難)한 반생(半生)의 도정(途程)」에서 "내가 <무정>을 쓸 때에 의도로 한 것은 그 시대의 조선청년의 이상과 고민을 그리고 아울러 진로에 한 암시를 주자는 것이었다"(『이광수전집』14:399)고 말하고 있다. 조선청년의 '고민'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종래의 조혼(早婚)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되고 있어 이에서 탈피해야함은 물론, 여성도 낡은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

의 삶을 개척해가고, 나아가 여권(女權)을 존중하여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을 고취하여 '진로에 한 암시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작가 의도를 구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형된 김병욱은, 작가가 이상(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여성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명의 세례를 받은 같은 세대의 오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구시대의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쳐줌으로써 김병욱이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미혼인 김병욱이 새로운 사상과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구시대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었을 테고, 이런 아버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장남(오빠) 밖에는 없었던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는 가부장제하에서 어머니는 아들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김병욱의 어머니는 "다정하고 현숙한 부인"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되 흔히 아들에게 찬성"하여, "완고하고 무식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모"르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면서도 병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여권과 자유연애를 신봉하는 김병욱이 자신의 신념대로 신여성의 삶을 살아감은 물론, 전통적인 윤리관에 사로잡혀 자살하려던 구여성 박영채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바꾸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신여성으로 변모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2. 『우미인초』의 경우

코노 킹고와 후지오는 이복 남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계가 좋을 수 없는 사이인데다, 결혼 적령기의 남매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유산상속에 결혼문제가 결부되어 이들의 관계는 스토리의 진행에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 즉, 후지오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네치카와 결혼했을 것이고, 훗날 아버지의 사후에 출가외인인 그녀가 유산을 넘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법률상으로는 장남인 킹고가 코노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지오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유산을 받을 자격은 없다. 그러나,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노후를 까다로운 전실 자식인 킹고에게 의탁하기보다는, 유산을 친딸인 후지오에게 주고 데릴사위를 얻어 그들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할 의사가 없는 킹고에게 빨리 결혼하여 집안을 이어가라고 재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킹고는 자신은 병약해서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으므로 재산을 후지오에게 넘겨줄 테니 어머니를 모시라고 선언하는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킹고는 후지오 모녀와 재산을 둘러싼 심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체면을 지키는 말을 하면서 모녀끼리는 끊임없이 킹고를 비난하며 은밀히 유산을 후지오에게 독점시키려는 어머니의 책략을 간파한 킹고는, "내 쪽이 어머니보다 높다. 현명하다. 이치를 알고 있지. 그리고 내 쪽이 어머니보다 선인(善人)"이라며 "있으면 있을수록 골칫거리"인 재산을 후지오에게 모두 주고 "본래의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남매관계가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은, 후지오・오노・어머니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을 둘러싸고 킹고와 후지오・어머니는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소설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스토리에 리얼리티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즉, 시(詩)를 이해하는 후지오는,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정해놓은 무네치카가 외교관시험에 떨어지고도 분발하지 않으며 "취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싫어한다. 그리고 그를 "길들이는 것은 후지오라 하더라도 곤

란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그녀는 사랑을 하기 위해 "고상한 시인"이며 "온후한 군자"이고 "정중하고 친절하고 공부 잘하는 훌륭한 사람"인 오노를 선택했다. 그런데 오빠 킹고는, 이러한 자신의 뜻에 반(反)하여 아버지의 유지대로 무네치카와 결혼하기를 권하므로 그에게 더욱 반감을 갖고 무시하는 한편, 어머니와 합심하여 오빠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천애고아이지만 수재로 목하 박사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오노는, 미모에 재산가의 딸인 후지오에게 끌려 그녀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후지오와의 결혼이야말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상승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후지오가 오노와 결혼하려는 것은, 그녀의 사랑은 "고집이 없"는 "오노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고, 오노가 지난 날 자신을 돌보아준 은사의 딸인 사요코와의 결혼약속을 파기하고 후지오와 결혼하려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공리(功利)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여기에 전형적인 공리의 여자인 어머니가 가세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즉, 후처인 어머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후를 친딸인 후지오에게 의탁하여 마음 편히 지내려는 욕심으로, 남편의 유지를 거스르면서까지 후지오와 오노를 맺어주려고 부심하는 것이다. 남편이 사윗감으로 생각했던 무네치카는, "학문도 아무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만 치"는 장래성이 없는 청년인 데다, "무네치카가를 이어가야 할" 장남이어서 데릴사위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에 반해, 후지오가 좋아하는 오노는, 고아이므로 데릴사위로 데려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어서 사윗감으로 최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지오와 오노와의 결혼은, 세 사람의 원망(願望)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 위해 후지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오노를 선택하여 사요코에게서 그를 빼앗으려 하고, 오노는 은사의 '호의(好意)' '마음(心)' '인정(人情)'을 저버리고 사요코와의 결혼약속을 파기하고, 어머니는 킹고의 재산을 후지오에게 주어 오노와 결혼시키려고 각자 나름대로 분투(奮鬪)한다. 『우미인초』의 스토리는, 마지막에 오노가 무네치카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사요코를 선택하고, 무네치카에게도 청혼을 거절당하여 자존심을 유린당한 "아집의 여자" 후지오가 격노하여 분사(憤死)함으로써 작가의 철학, 즉 "하나의 이론(セオリ)"[5]을 설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킹고와 후지오의 남매관계는, 이러한 구성에 의한 사건 전개를 가능케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스토리가 리얼리티를 갖도록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무네치카 하지메와 이토코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놀려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대화상대가 되어 속마음을 털어놓고 충고도 아끼지 않는 등, 그 친밀한 관계가 『무정』에서의 김병국・병욱 남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도 닮았다. 『무정』에서 작가 의도를 직접적으로 구현시키는 인물은 김병욱인데, 『우미인초』에서는 무네치카 하지메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메는, 이토코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배려해주는 사이좋은 남매이자, 평소 아버지와도 자주 대화를 나누며 부자가 서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후지오를 아내로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혼자서 코노와 확실하게 담판하고 오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응,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결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한 번 해보는 게 좋아"라며, 아들을 믿고 용기를 준다. 하지메가 외교관시험에 떨어져도 태연하고, 후지오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외교관의 아내는 저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외교관시험에 합격하자 숙부와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녀의 결혼의사를 타진하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정』에서의 김병욱에게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여 이해해주

---

5) 소세키는, 고미야 토요타카(小宮豊隆)에게 써 보낸 편지(1907년 7월 19일자)에 "마지막에 철학을 적는다. 이 철학은 하나의 이론(theory)이다. 나는 이 이론을 쓰기 위해 전편(全篇)을 쓰고 있다"고 적고 있다.(『漱石全集』28:209)

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누이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지메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기와 이토코의 결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진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오노에게 진지해져라 즉, 도의를 알라고 설득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오노가 사요코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후지오 앞에서 밝힘으로써 도의를 무시한 후지오를 죽음에 이르게 하여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려는 작가 의도를 구현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두 작품에서의 두 형제(남매)관계는 각각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작가 의도를 자연스럽게 구현시키고 소설의 사건 전개를 보다 복잡하게 하며 스토리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정』에서 작가의 집필 의도를 구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김병욱은, 이광수가 이상(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여성(新女性)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열악했던 시대에 미혼 여성이 독자적으로 신여성의 삶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신여성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김병욱에게 신문명의 세례를 받은 같은 세대의 오빠가 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구시대의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쳐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반면, 박영채와 오빠들과의 관계가, 현재의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고, 그것도 연령차가 많아 서로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할뿐더러,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면서 친밀하게 지낼 기회를 갖지 못해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는 김병욱에 의해 신여성으로 바뀌어야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과 자유연애를 신봉하는 김병욱은 자신의 신념대로 신여성의 삶을 살아감은 물론, 전통적인 윤리관에 사로잡혀 자살하려던 구여성 박영채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바꾸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신여성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작가 의도를 구현시키고 있다. 요컨대, ‘그 시대의 조선청년의 (중략) 진로에 한 암시를 주자’ 는 『무정』의 집필 의도는, 선행 논문에서 이미 고찰한 바 있는 박영채와 아버지와의 전통적인 ‘부모자식관계’ 와, 전통적인 윤리관과 여성관, 조혼제도의 폐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부부관계’ 와 함께, 구여성 박영채가 신여성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상반된 ‘형제관계’ 를 통해, 근대적인 결혼관과 여성관, 자유연애를 고취시키는 일로 구현되고 있다.

이복 남매인 코노 킹고와 후지오의 관계는, 스토리의 진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 상술(詳述)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는 후지오・오노・어머니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산을 둘러싸고, 킹고는 그의 재산을 후지오에게 주어 오노와 결혼시키려고 부심하는 어머니와는 물론 후지오와도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후지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오노와 결혼하려 하고, 오노는 야망을 위해 사요코와의 결혼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노가 무네치카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사요코를 선택하고, 무네치카에게도 청혼을 거절당하여 모욕을 당한 후지오가 분에 못 이겨 분사한다. 소세키는, 자신들의 공리(功利)를 추구하기 위해 인생의 제1의(第一義)인 도의를 저버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무리의 대표로 후지오를 죽임으로써 작가의 철학, 즉 ‘하나의 이론(ヒオリ)’을 설명하고 있다. 킹고와 후지오의 남매관계는, 선행 논문에서 고찰한 ‘부모자식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구성에 의한 사건 전개를 가능케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스토리가 리얼리티를 갖도록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무네치카 하지메와 이토코의 친밀한 관계는, 『무정』에서의 김병국・병욱 남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까지도 닮았다. 『무정』에서 작가 의도를 직접적으로 구현시키는 인물은 김병욱인데, 『우미인초』에서는 무네치카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토코와 사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아버지와도 자주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병욱에게 오빠와 어머니가 조력자로 있었던 것처럼 그를 신뢰하여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누이와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역시 김병욱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함은 물론, 도의를 저버리고 야망을 이루려는 오노를 설득하여 결국 후지오를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론' 즉 "인생의 제일의는 도의에 있다는 명제(命題)를 뇌리에 수립"하려는 작가 의도를 구현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제관계는, 장남과 차남으로서의 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가부장제하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장남은, 가독 상속권자로서 어릴 때부터 특별대우를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유산상속 문제에서는 형제간의 대립과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정』과 『우미인초』에는 형제관계가 아닌 남매관계만이 등장한다. 이는 두 작품의 작가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두 작품 모두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의 얽히고설킨 사랑 얘기를 통해서 이광수는 '그 시대의 조선청년의 이상과 고민을 그리고 아울러 진로에 한 암시를 주고자' 했고, 소세키는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의'문제를 다루는 데는 형제관계보다는 남매관계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芥川龍之介의 「人工の翼」

노영숙 *

1. 서론

아쿠타가와를 일반적으로 '技巧'의 작가, '構成'의 작가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표현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虛構'나 '人工'과 같이 참이 아니거나 작위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말해지기도 하였는데, 아쿠타가와가 스스로 말한 「人工の翼(인공의 날개)」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그의 표현에 대한 해석의 양면성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고백적 私小說이 난무하던 당시의 문단의 분위기에서는 그의 탁월한 구성이 오히려 수치를 숨기려는 의도적 장치로 보이거나 그의 知性이 거꾸로 약점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고 하여 비밀스런 私生活까지 숨김없이 드러내었던 당시의 私小說적 시각에서는, 작품 소재를 실생활에서 찾지 않고 역사에서 빌려 재구성하였던 아쿠타가와의 스타일이 자연에 거스르는 인공적인, 작위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쿠타가와가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한 이 말을 제 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그대로 써도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여러 芸術思潮를 경험한 지금에 와서 아쿠타가와의 구성력을 폄하하여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같은 잣대로 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아쿠타가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던 사실에 절망적인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여러 지면을 통해 私生活을 밝히는 그러한 소설을 쓸 수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임을, 또한 자신의 소설도 체험의 고백이며 고백을 피할 이유가 없음을 거듭 토로한 바 있다.[1] 그러나 정작 이 문제는 왜곡된 문단의 일방적인 잘못에만 있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아쿠타가와의 고민의 근원에는 그들이 지적하는 羞恥와는 다른, 보다 더 근본적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표현의 문제가 걸려 있다. 단순히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고백적 私小說의 문제라면「勝手にしろ(멋대로 해라)」라고[2] 이 또한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실제의 창작에 있어서, 객관적 서술로 진실을 추구한다는 자연주의의 이념과 그러한 서술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과의 괴리에 그는 심각히 부딪쳤던 것이다. 이러한 아쿠타가와의 고민은 결코 말년에 와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私小說이 유행하며 자신이 공격을 받던 그 시기에 벌써 시작되었다. 결코 그들이 요구하는 고백적 私小說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理想的으로 생각하였던 시가나오야와 같은 私小說을 쓸 수 없는 자신의 자질을 고민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표현에 대한 아쿠타가와의 근원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1) 「大正九年の文藝界『三　モデルの爲のモデル』」『芥川龍之介全集第7卷』p.106, 「澄江堂雜記『告白』」『芥川龍之介全集第10卷』 岩波書店 1996 p.282, 「「私」小說論小見」『芥川龍之介全集第13卷』 岩波書店 1996 pp.20~26, 「侏儒の言葉『告白』」『芥川龍之介全集第13卷』 岩波書店 1996 p.42.

2) 「文芸的な、余りに文芸的な『三十四　解嘲』」『芥川龍之介全集 第15卷』 岩波書店 1997 p.215.

적 個性의 문제이며, 그가 차후에 말하였던 「人工の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문단의 시선과 자신의 理想과 現実 등, 창작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함축된 이 「人工の翼」라는 말은 아쿠타가와의 예술세계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쿠타가와의 생각과는 다른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그 분석이 간단치 않으며, 더구나 문제는 이 말을 둘러싸고 위와 유사한 오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시대상황에서의 참이냐 허구냐라는 단순한 소재나 내용을 다룬 문제를 떠나서 아쿠타가와의 내면의 심리나 그것이 반영된 문체의 문제로 분석이 깊어지면서도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작품과 작가, 혹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고, 정리되지 않은 용어들 속에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히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크게 분류해 보면, 1) 아쿠타가와의 초・중기의 역사물은 인공적 虛構의 것이고 말기의 현실을 토대로 한 私的 소설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2) 인공적, 허구적으로 보이는 아쿠타가와의 표현을 羞恥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知的 작위성으로 보는 시각이다. 3) 아쿠타가와의 작품의 특징으로서 표현을 강조하면서도 意識的인 기교(작위성)만 보고 그 내면의 無意識的 개성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1)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2)는 작품과 작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과 2)는 결국 당시의 私小說과 같은 시각으로 아쿠타가와가 자연주의에 반대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고 있으나 작품만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아직 작가에 묶여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을 제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人工の翼」란 말을 중심으로 명확히 풀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속에서는 아쿠타가와가 한 이 말이 여과 없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는 늘 의미의 어긋남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먼저 아쿠타가와가 『或阿呆の一生』에서 한 이 말을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人工」이란 말의 참된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 위에서 말한 아쿠타가와의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오용된 사례들을 함께 찾아보고 아쿠타가와 작품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2. 아쿠타가와가 말한 「人工の翼」

「人工の翼」란 말은 아쿠타가와가 生을 정리하듯 자신의 일생을 순서대로 써내려 간『或阿呆の一生』(「改造」1927.10)에 열아홉 번째로 나온 말이다. 이는 초・중기의 역사물에서 시작하여 말기의 私的 소설까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끝에 나온 말로서, 특히 죽음을 앞두고 詩를 쓰듯 정제된 그의 문장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다. 이 글은 짧지만 의미의 3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문단은 '彼はアナトオル (中略) 近づいて行った。', 둘째 문단은 '人生は(中略) 供給した。', 셋째 문단은 '彼はこの人工の翼を(中略)忘れたやうに。……'이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문단으로부터는 芸術思潮에 따른 그의 관심의 향방과 그가 창작에 있어 어떠한 점에 주력하였던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루소보다 볼테르에 기울어진 그의 관심이라는 것은, 체제를 비판하는 계몽정신이라면 두 작가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그러한 思想적 내용에서가 아니라 글로 나타내는 〈表現方法〉의 문제이며, 〈感情的 표현〉보다 〈理智的표현〉에 더 관심을 둔 것임을 의미한다. 이 말의 배후에는 당시 주관

적 입장에서 사생활을 과장되게 밝히던 고백적 私小説에 대한 反感이 들어 있다. 또한 아쿠타가와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의 표현의 문제는 그의 개성과 관련되어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볼테르식 理智的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여기에 루소보다 볼테르에 더 공감하게 되는 아쿠타가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人生は二十九歳の彼にはもう少しも明るくはなかった。(인생은 29세의 그에게는 조금도 밝지 않았다)' 라는 두 번 째 문단에는 그때까지 누적되어온 삶에 대한 피로와 함께 그러한 자신을 표현하는 창작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문단의 様態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 해의 문단에 대하여 '元来近年の文壇程、自叙伝的小説に富んでゐる文壇は滅多にない。(근년만큼 자서전적 소설이 盛況하였던 문단은 좀처럼 없다.)' 고 하며 자연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그것이 이상하게 발전되어 가던 自叙伝的小説의 悪弊를 지적하는 한편,[3] 그런 만큼 자신에게도 즐겨 써오던 역사물의 수법을 리얼리즘의 소설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리얼리즘 小説의 사실적 표현, 즉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는 다른 内面이 많았던 그에게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즉 많은 논문들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이율배반적 어두운 基調가 그의 초기 작품부터 전 작품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그의 삶 속에는 자신의 출생의 문제나 타고난 성격, 사랑을 받았으나 養子로서의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환경, 그래서 결혼사건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전개되어가는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평탄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한 외면 속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단의 상황과 자신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그의 창작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는 이 해에 발표된 『秋』(「中央公論」1920.4)의 투쟁이라 할 만한 집필과정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의 짧은 첫 문장은 평탄한 외면의 삶과는 다른 그의 내면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그 다음 문장 '볼테르는 그런 그에게 인공의 날개를 주었다.' 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그의 인생이 문학으로 반영될 때, 理想과 현실, 흑과 백, 明과 暗등의 이율배반적 형태로 살아나게 되는데, 초・중기의 역사물에서는 스토리의 극적 구성을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 묘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야 했을 때, 볼테르와 같은 아이러니와 알레고리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즉, 볼테르가 29세의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인공의 날개'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징적 표현방법이었다. 이 해 4월 초에 발표한 『秋』는 허구적 삶의 결과를 현실로 깨닫게 되는 주인공 노부코의 탄식을 테마로 한 3인칭 소설이지만, 同時代를 소재로 하여 작가 자신의 내면이 많은 알레고리로 표현된 작품이다. 따라서 〈29세〉와 〈볼테르〉가 강조된 두 번째 문단의 의미는 자신의 내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볼테르와 같은 알레고리적 표현을 통해 소설 형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단, '그는 이 인공의 날개를 펴서, 수이수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理智의 빛을 받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그의 눈 아래 사라져 갔다.' 란 말에서 '理智의 빛을 받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 이란 말은 인공의 날개로 추구한 그의 예술이 세상에서 받은 환대와 비판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의 눈 아래 사라져 갔다.' 라는 말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받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예술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초라한 도시들 위로 反語와 미소를 보내면서,' 에서의 '초라한 도시들' 이란 말은 실제의 도시가 아니라 세속적 인생을 의미하고, 여기에 反語

3) 「大正九年の文藝界『三　モデルの爲のモデル』」『芥川龍之介全集 第7巻』岩波書店 1996 p.106.

와 미소를 보낸다는 말은 세속적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엾게 보는 嘲笑의 시선이 들어있다. 이로써 '거칠 것 없는 공중을 바로 솟구쳐 태양으로 올라갔다.' 라는 표현은 희랍신화에서의 이카로스처럼 그러한 세속적 인생을 멀리하고 참 예술을 향해 끝까지 가겠다는 말이 된다.

3. 「人工」의 의미

아쿠타가와가 말하는 「人工」이라는 것은 시가나오야와 같은 선천적이랄 수 있는 자연성의 근본적 자질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것이 다루는 내용, 다루는 소재가 변하였다고 해서 바뀌게 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다루어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자연스럽지 못함, 즉 대상과 일체화되지 못하는 내면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이 타고난 개성의 문제이며 그것은 결국 그 개성이 글로 나타나는 문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4] 그의 역사물에서와 같이 작품의 내용이나 소재가 옛날의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거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물에 의탁한 작가 자신의 현재의 이야기이며 이 속에 나타나는 찰나적 감동은 이율배반적 자신의 내면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쿠타가와의 말년의 私小說的 작품처럼 허구적이지 않는 내용과 소재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소재와 현재의 시점으로 소설을 써보아도 그 속에는 대상과 일체화 되지 않는 내면이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그런 것들이 결국 많은 상징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蜃気楼』(「婦人公論」, 1927.3.1), 『歯車』(「文芸春秋」1927.10.1)와 같은 말기의 작품들은 암호와도 같은 많은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상징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서 작가의 치밀한 구성에 의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과 구성이 아쿠타가와 자신이 말하는 「人工の翼」이며 이는 존경하는 작가 시가나오야의 천부적 자연성을 닮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서 나온 뼈저린 자신의 확인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쿠타가와가 말하였던 「人工」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빌려온 이야기라거나 꾸며진 이야기와 같은 허구적 내용을 의미하는 「人工」이 아니다. 이에 그로부터의 붕괴라든가 추락이라는 마이너스적 변화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와타나베요시노리(渡辺芳紀)가 「人工の翼」에 의한 '「技巧」の美学'이 붕괴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아쿠타가와의 말[5]이란 것은 볼테르 식의 理智的 표현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에 다름 아니며, 이는 붕괴하고 싶다고 붕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評者들은 고도의 구성과 상징에 의한 그의 문학을 技巧의 美学, 主知主義의 美学, 혹은 人工的 構成, 知的構成, 등과 같은 말로 평해왔지만, 이러한 아쿠타가와의 구성력이 마이너스적 이미지로 사용되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껍질을 깨고 고백하지 못하여 「人工の翼」로 비상하려고 한다는 식의 평면적 해석은, 비평 자체가 작품의 소재나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가의 인생을 작품과 결부시키는 고백적 私小說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자살로 끝난 그의 불행을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벗지 못한 인공적 삶의 결과로 보는 시각은 작가의 작품과 작가의 인생, 그 선후가 뒤바뀐 결과적 해석이라 생각된다. 그의 불행한 죽음은 그렇게 인공적으로 삶을 산 결과라기보다는 그의 출생

4) 井上良雄 「芥川龍之介と志賀直哉」『新装版 文芸讀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 1983 pp.75~76.
5) 'わたしはヴォルテエルを輕蔑してゐる。' '理性の私に教へたものは畢竟理性の無力だった' 「『理性』侏儒の言葉(遺稿)」(『文藝春秋』5-10, 1927.10)

으로부터 시작된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며, 갖은 시도 끝에 도달한 아쿠타가와 자신의 재확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

4. 결론

예술의 표현은 意識, 無意識으로부터의 동시적 반응이다. 「人工」이란 말의 의미에 가리어 아쿠타가와의 상징적 표현에서 意識的 기교만 보고 그 내면의 無意識的 개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표현의 작위성에만 치중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남다른 아쿠타가와의 〈知性〉이 오히려 거꾸로 意識만이 강조되는 오류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역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작가의 밝지 못했던 사생활의 요소가 그러한 아쿠타가와의 표현을 자신의 羞恥를 숨기려는 의도적 행위로 오인하게 되는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작품의 분석에 있어 작가와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작품을 작가로 해석한 결과이며, 아쿠타가와 작품의 분석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 예이다.

無意識, 感性의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아쿠타가와의「人工の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끝을 맺었던 와타나베요시노리의 정리[7]는 아쿠타가와의 無意識, 感性과 같은 내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결론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그의「人工の翼」에 대한 정리의 대부분은 三好行雄의「芥川龍之介の方法—技巧の美学—」[8]에서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三好가 강조한 아쿠타가와의 理智, 技巧에 의한 意識的 표현을 「人工の翼」로 연결시키고 있다. 三好씨의 분석은 아쿠타가와 작품의 특징을 표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백적 私小説 작가들과는 차별되는 발전적인 것이지만, 표현의 意識的 작위성에 치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無意識的 동기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9]

또한 후쿠다츠네아리(福田恒存)는 아쿠타가와의 탁월한 문체의 특징을 '自己の限界を知り守ろうとする羞恥心(자기의 한계를 알고 지키려고 하는 수치심)' 때문이라고 풀이하였고[10], 요시모토타카아키(吉本隆明)는 '中産下層階級という自己の出身に生涯かかずらった作家(중산하층계급이라고 하는 자기의 출신에 일생동안 구애받은 작가)', '芥川の出身階級にたいする嫌悪感と劣等感(아쿠타가와의 출신계급에 대한 혐오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며 '「私」を祭壇に供して安定した表現圏に還ろうとせず「人工」をつなぎとめねばならなかった芥川(「나」를 제단에 바쳐 안정적 표현권에 돌아가려 하지 않고 「人工」을 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아쿠타가와)'라고 하였는데,[11] 이들은 아쿠타가와의 타고난 문체를 의도적인 것으로 풀이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리고 카지키고우(梶木剛)도 「自然」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知識」을 想定하여 '「人工の翼」とは、知識主義の異名(「인공의 날개」란 것은, 知識主義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는데,[12] 현학적이라는 뉘앙스를 다분히 풍기는 '知識主義'라

---

6) 柄谷行人(1990)「芥川における死のイメージ」『新文芸讀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　pp.119~126.
7) 渡辺芳紀「人工の翼」『芥川龍之介事典[增訂版]』菊池弘 久保田芳太郎 關口安義 編(2001)　明治書院 p.276.
8) 三好行雄「芥川龍之介の方法—技巧の美學—」『一冊の講座　芥川龍之介　日本の近代文學』有精堂　1982.4 pp.16~24.
9) 篠崎美生子(1990)'過去の芥川論には、その解釈の上に立って、晩年の芥川に《意識的な創作》の挫折を見ているものが多い。しかし、既に、芥川最晩年の作品である『歯車』などについて、それが如何に意識的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數多くの作品論のなかで立証されてきている。'「『文芸的な、あまりに文芸的な』に現れた芥川晩年の表現意識」『早稻田大學文學研究科榎本』3卷　p.36.
10) 福田恒存(1983)「風景について・文体について」『新装版　文芸讀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 pp.56~57.
11) 吉本隆明(1983)「芥川龍之介の死」『新装版　文芸読本　芥川龍之介』河出書房新社 pp.82~89.
12) 梶木剛(1971)「芥川龍之介の位相をめぐって」『思想的査証』國文社

는 말은 필시 아쿠타가와의 표현이 지식에 의한 작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나온 말로 이해되며, 여기에는 그의 남다른 지식이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작가의 표현에 있어 〈自然〉과 〈人工〉, 서로 반대되는 이 개념 사이에 '知識'의 필연성은 없다. 자연적 표현이라고 해서 知的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인공적 표현이라고 해서 知識에 의한 작위적 행위인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아쿠타가와의 표현을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들은 당시에 아쿠타가와에게 쏟아지던 技巧가 지나치다는 의미에서의 'うますぎる'란 비난[13]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아쿠타가와가 말하였듯이, 재능이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솜씨란 것도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이 비난의 화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아쿠타가와의 표현을 단지 의도적, 意識的 행위로 보고 그것을 작가의 인생과 결부시켜 버리는 해석은 작품精神의 해석에 많은 장애의 요인이 된다. 아쿠타가와가 여러 지면을 통해 거듭 강조하였던 표현의 문제는 참된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로 이러한 자신의 표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아쿠타가와의「人工の翼」는 意識과 無意識의 동시적 반응으로 본능적 자기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갈망하던 시가나오야의 자연성에 상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말로서, 결코 이로써 아쿠타가와의 작품을 작위적, 인공적인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

13) 「或悪傾向を排す」(『中外』2-12, 1918.11)『芥川龍之介全集 第3巻』岩波書店 1996 p.289~291.

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사(麥と兵隊)』에서 나타나는 '자기 표상'

이상혁(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히노 아시헤이의 『보리와 병사』는 중일전쟁 중 서주회전(徐州會戰)[1]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작품은 서주회전에 보도반원으로서 참가한 '내'가 5월4일부터 5월 22일까지 쓴 일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인 히노 아시헤이 스스로가 서문(前書)에서 "서주회전에 종군했던 때의 일기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은 1938년 출간된 후 100만부가 넘게 팔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는 당시 가족을 전쟁터로 보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며 자신의 가족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노 아시헤이 스스로가 '종군일기'라고 말하듯이 『보리와 병사』는 전쟁 속에 일본 병사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작품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체험적 리얼리즘', '문학적 리얼리티', '서민에 대한 애정' 등을 높이 평가한다.[2] 이에 비해 부정하는 측에서는 이 작품이 '일본 병사를 미화·신격화'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긍정하는 측에서 말하는 '서민에 대한 애정'이 자기 모순적 인식이며 이야말로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적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국책문학'[3]에 다름 아니라고 반박한다.

본 발표에서는 보도반원인 '내'가 전쟁에서 무엇을 보는지(시선 혹은 시점),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는지(서술)를 살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종군일기라는 형식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종군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공간적 배경은 서주회전이 한창인 5월 4일부터 전투가 끝난 후 며칠을 포함한 시기에 보도반원인 '나'가 서주회전에 참전하여 보고 느낀 것을 적고 있다. 잠시 작가의 '서문(前書)'를 보자.

"단지, 내가 종군 중 매일 적었던 일기를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소설이 아닙니다." (『보리와 병사』, p. 5)

여기서 히노 아시헤이는 소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어낸 허구의 작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확실히 히노는 보도반원으로서 서주회전에 종군한 것도 사실이고, 이 작품이 아마도 그때 적은 일기가 그 바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히노는 서문에서 계속해서 "직접 경험의 기록", "있는 그대로", "진실의 언어" 등의 표현을 쓰며 이 소설이 보이는 풍경이 '사실'

---

1) 1938년 3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전투.

2) 伊豆利彦 『政治と文学』 (学生社、昭和51年)

3) **전시하에 있어서 쓰여진 작품 가운데에는 정치에 종속된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문학.** 임종석 『일본문학사』 p.264 (제이앤씨, 2004)

을 재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작가 자체가 한 명의 보도반원으로서의 시선 혹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경험을 서술한다는 행위 자체에 취사선택 및 강조의 부분이 쓰는 사람, 즉 작가의 서술행위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허구'는 아닐지라도 '소설'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서술 자체가 '일기'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동양의 만월(滿月)이 비추는 유리창의 수족관 같은 상자 안에서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와 같은 표현은 '일기', 즉 "그날그날 생긴 일이나 감상을 날짜에 따라 적은 기록"과는 배치된다. 하루의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사고하고 느낀 것을 '적는다'는 행위는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라는 인물의 행위를 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속 '일기'임을 강조하는 데에서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히노는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재현한 것으로 객관적 '진실'을 그려 보이고 있음을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표현 기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날의 '일기'에 적었던 내용 혹은 단어가 그 다음날 '일기'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5월 10일의 '일기'에서 나카야마 참모를 가리키며 "호량친왕(護良親王)"을 언급한 후, 5월 11일 일기의 첫 문장을 "호량친왕(護良親王)의 움막에 각사의 신문기자가 발표를 들으러 왔다."로 시작한다. 이 역시 일기 형식이 가진 한계로서 나누어진 하루, 시작과 끝이 24시간 단위로 분절된 시간의 단절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5월 10일과 5월 11일은 일기라는 형식 속에서 '분절'되었고 실제로 화자의 경험 역시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 기법을 통해 전체 작품의 하루하루를 연결시키고 그 연속성을 통해 '작품'으로서 '하나'가 된다. 즉 '서주회전'이라는 전투와 보도반원 '내'가 보고 느낀 경험은 하나의 연속적인 상(像)으로 위치지워진다.

3. 자연에 대한 서술에서 보이는 로맨티스트의 상(像)

전쟁은 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적에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극한상황이다. '반전문학(反戰文學)'에서 전쟁의 참상과 비극, 비참함을 그리는 것도 바로 이런 극한상황 속에 놓인 '인간'이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리와 병사』에서도 전쟁의 비참함 혹은 잔인함이 그려지지만, 그 이상으로 애상감(哀想感)이라고 부를 만한 낭만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나의 사투(死鬪)를 끝냈지만 다음의 사투까지 기다리는"[4] 자가 생사를 넘어 아름답게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안개 낀 하늘에 달무리가 낀 반달이 나와 있다. (생략) 물웅덩이에서 개구리가 계속 울고 있다. 전선에서 듣는 개구리 울음은 어처구니없게도 한적하다." (麦と兵隊 p.55)
"문득 향수 같은 것을 느꼈다." (麦と兵隊 p.95)
"아름다운 달이 나와 있다. 만월이다. 기분이 좋다." (麦と兵隊 p.98)
"아름다운 동양의 만월이 비춰지는 유리 수족관 같은 상자 안에서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 (麦と兵隊 p.99)[5]

---

4) 본문, p.79
5) 특히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으로 두 번 반복된다. "美しい東洋の満月のさしこむ硝子張りの水族館のやうな箱の

낮 동안 병사들은 뜨거운 열기와 적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행군을 하고 찌꺼기만 남은 차(茶)를 마시며 좋아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멀리서 희미하게 총성이 들리고 포성이 울리는 가운데, 만개(滿開)한 살구나무 꽃, 푸르스름한 빛으로 '먼지와 땀에 젖은 병사들'을 감싸안는 월광(月光)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기분 좋은" 무언가를 느낀다.
혹은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와 더위, 이동을 막는 폭우(暴雨)를 묘사한 후 그 다음에 여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장면들도 위와 유사하다. 즉 이 장면들은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美)을 느끼는 '나'와 '병사들'의 강인함을 보여준다.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한 인식 주체 내부의 승화로서 강한 '자기(自己)'의 상(像)을 드러낸다.

4. 서민에 대한 긍정과 휴머니즘, 성실주의

운명에 맞서는 개인으로서 낭만주의적 '나'는 운명과 삶의 억압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자족(自足)'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식상의 것으로 결과적으로 운명과 삶을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여기서 개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운명과 직접 맞설 수 있는 '우리'로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논리는 '근대의 초극',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이다.
화자는 끝없이 계속되는 보리밭을 보며 그 무한(無限) 혹은 '거대함'에, "이 보리밭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다"[6]라고 말한다. 이어

"이 하나하나는 모두 중국 농민의 손에 의해 파종, 길러지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보고 있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땅의 엄청남에 압도되는 것 같이 된다."[7] (麦と兵隊, p.61)
"그것은 대지 그 자체인 인간만이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麦と兵隊, p.61)

라고 표현한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둔중한 불굴의 표정"과 "넓고 큼직한 손"으로 '보리밭'이라는 거대한 힘과 맞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다. 하나의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서민' 혹은 '민중'은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일가의 번영과 보리의 수확 이외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도, 정치도, 국가조차도 무의미한 것이다. 전쟁조차도 그들에게는 단지 농작물을 망치는 메뚜기, 홍수, 가뭄과 같이 하나의 재난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전쟁은 바람처럼 통과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투덜투덜 중얼거리면서 다시 이 땅의 생활을 속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麦と兵隊 p.71)

여기서 작가는 "강인한 대담함(逞しい不適さ)"을 느낀다. 더불어 검열당국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사상도, 정치도, 국가조차도" 이 '서민적인 강인함' 앞에서

中で何時の間にか眠ってしまった。"
6) 본문, p.60
7) "その一本一本はことごとく支那農民の手に依って種蒔かれ、育てられたに違ひないが、見わたして居ると、盛り上がって来るやうな土のすさましさに圧倒されさうになる。"

는 무의미하다는 표현을 쓴다. 이 '서민적 강인함'을 통해 휴머니즘, 즉 중국 인민도 일본 병사도 모두 하나의 인간으로서 긍정된다.
소설 속에서 화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인간 참상에 대해 측은한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잠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나는 악마가 된 것일까?"[8]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나는 눈을 돌렸다. 나는 악마가 되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깊게 안도했다." (p.229)

적군인 중국인이 처형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 '나'는 포로가 된 어린 중국 병사들을 보며 측은한 감정에 "눈을 돌리"며 악마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5. 마무리

작품 속에서 화자 '나'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상(像)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함 —예를 들면 죽음, 운명, 삶— 과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쾌활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인함. 이는 서민 혹은 민중이라는 개념에 깃든 그 잡초같은 강인함의 이미지이다. 더불어 화자는 서민의 쾌활함을 넘어 고대의 시인들이 노래했던 '無常'의 감정을 가지고 '개인'을 강제하는 '시스템(구조)'의 거대함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像(image)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에바 일루즈(Eva Illouz)의 표현을 빌리면 '근대적 자아됨(selfhood) 및 정체성의 구성요소'는 시대적 담론에 의해 형성된다.[9] 이때 이상(理想)적 '자아상'은 그 사회속의 개인들이 은연중에 스스로 바라는 '역할 모델'로서 내재화되어 개인들은 그 이미지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근대문학의 성립에서 '자기(自己)의 像'이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히비 요시타카(日比嘉高)는 '자기를 둘러싼 언설들—이런 언설은 어떤 토대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이 언설이 확산되며 하나의 상(像)이 만들어진다—'이 어떻게 형성·'유통(확산)'되었고, 사소설 형성과 당시 문학에 대한 像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밝힌다.[10] 이렇게 자아상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을 포함한 '미디어'이다.
이상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개개인이 군국주의적 사고를 몸에 익힌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영웅상(英雄像)' 혹은 '군신상(軍神像)'도 중요하지만, 문학 등의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미적 감정으로서의 이상적인 자기상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11]

---

8) "私は眼を反らした。私は悪魔になってはいなかった。私はそれを知り、深く安堵した。" (본문, p.211)
9) 에바 일루즈는 감정과 자본주의 체의 요소들간의 분석을 통해 이상적 자아 모델, 감정, 공적·사적 영역의 분할 및 젠더 구분 등이 시대적 문맥에 의해 만들어짐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특히 치료학(심리학)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가 인간관계 및 자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고찰한다. 『감정 자본주의(Cold Intimacies :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돌배개, 2010년)
10) 日比嘉高 『<自己表象>の文学史』 (翰林書房、2001年)
11) 문화인류학자인 오오누키 에미코는 '벚꽃(桜)'의 상징(의미체계)의 변화를 통해 낭만주의적인 미적 가치를 젊은이들이 내재화하여 죽음이라는 "운명을 선택한"다고 지적한다. 오오누키 에미코(大貫恵美子)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 미의식과 군국주의(ねじ曲げられた桜)』(모멘토, 2004년)

「세이토(青鞜) 」의 문학적 평가에 관한 고찰

ー 가토미도리 (加藤みどり) 의 작품분석을 축으로ー

김영순(청주대학교)

머리말

「세이토」는 1911년(메이지44년)9월에 창간되어 1916년(다이쇼5년) 2월에 영구휴간 되었다. 5년간 2번 결호가 있었지만 거의 매월 발행하여, 전52권이다.

「세이토」가 창간되기 전년도인 1910년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정부가 식민지로 조선을 획득하고, 국내적으로는 대역사건이 있었던 해였다. 현대에 이르러 대역사건은 가쓰라내각이 천황제국가건설을 위해 그에 반하는 사회운동을 일소하려고한 음모였다는 것이 병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다. 당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 되었다. 세이토는 이러한 「후유노시대」를 배경으로 창간되었다.

「세이토」가 창간된 1910년대의 일본문단은 자연주의 문학에 속한 작가들과 반자연파 작가를 합쳐, 메이지의 대작가가 원숙한 작품을 발표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의 작가들이 나타나 메이지문학을 계승하면서 대작가들과 대결하며 다양하게 분기했다. 그들은 「스바루」「시라카바」「미타문학」「신사조」「기적」등의 동인잡지를 창간하고, 실로 동인잡지시대의 성황을 보였다. 이처럼 1910년대에 문학은 〈다양〉했다.

이와같은 시대에 「세이토」는 창간호의 사이토사 개측1조에 「본사는 여류문학의 발달을 도모하고, 각자 천부의 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훗날 여류의 천재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내걸고, 문예지로 출발했다. 그 후 천황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배질서인 「이에제도」 (가부장제 가족주의) 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상인 「현모양처」규범 등의 사회적 통념에 의해, 사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잡지의 성격이 「부인문예잡지」에서 「부인계몽잡지」 (혹은 「부인사상잡지」) 로 바뀌었다.

5권부터 사상 잡지로 성격이 바뀌었지만, 영구휴간이 되기까지 성격전환이전과 다름없이 다양한 문학작품이 실렸다(주4).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간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이토」가 문학적으로 평가되기는커녕, 문학연구의 대상이 된 일 조차도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주5)

이와 같은 사실은 「세이토」의 작품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세이토」는 당시 대정문학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가지각색의 작품을 쓰는 결과가 되었고, 「세이토」는 문학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으로서는 경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잡지 「세이토」의 이와 같은 「혼돈」스러운 문학적 특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의 문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입각하여 작자를 시야에 넣어가면서 작품을 분석해서 재검토한 다음이어야 할 것이다.

문학이념을 가지지 않고, 가지각색의 경향의 작품을 실었다는 이유로 「세이토」의 문학적 평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시대배경을 고려하여 작품분석을 하여 지금까지의 문학적 평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토미도리가 세이토에 발표한 소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작품을 축으로 그녀의 생애도 시야에 넣어가면서, 세이토의 문학적 평가에 관하여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1、加藤みどりの 생애

가토미도리는 「세이토」가 창간된 1911년 9월부터 영구휴간이 된 1916년2월까지 사원으로 활약했다. 「세이토」가 발간된 5년 동안 그녀는 평론2편과 단편소설 9편 그리고 감상4편을 발표했다.(주1)그녀는 세이토가 기른 작가로서, 「세이토」의 문학을 논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토가 「세이토」의 창간을 안 것은 오사카에서 였다. 그녀는 남편인 가토아사도리가 오사카신보의 기자였기 때문에 1911년5월에 동경에서 오사카로 이사했다. 거기에서 남편 아사도리와 함께 오사카신보에 근무하고 있던 아와노호메이 부부와 알게 되었다. 동7월 히라쓰카라이초가 이와노키요코 앞으로 세이토 입사 권유장을 보내, 그녀는 이와노키요코가 입사 권유장을 보여주어 세이토의 사원이 된 것이다.

가토미도리(본명 다카나카기쿠요)는 1888년 8월31일 나가노현에서 아버지 다카나카, 어머니 히사요 의장녀로서 태어났다. 다카나카가는 증조부 조부 아버지가 의사였다. 대대로 의사인 집에서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는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1899년 어머니 히사요가 32세로 돌아가셔서, 11세의 미도리가 4형제를 돌보고 가사일을 해야만 했다. 이때의 슬픔과 쓸쓸함이 미도리를 문학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가토미도리가 문학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은 13세경으로, 집의 책장에 있는 책을 열심히 탐독했다. 또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숙부가 귀향할 때, 신소설 와세다문학 명성 등을 가지고 와 주었던 것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07년 동경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 형제를 돌보기 위해 19세로 상경했다. 이때 여자문단에 투고한 사랑의 꽃이 일등으로 입선했다. 요사노아키코의 소개로, 1907년부터 1909년 까지는 시인과 평행해서 신성에도 5작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주3)

여류작가로서, 문단의 일부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1908년 20세경 시인에 의해 알게 된 와세다대학 영문학과 학생인 가토아사도리가 긴 연문을 써보내고, 구혼했다. 둘은 오랫동안 동거했다. 1909년7월10일부의 요미우리신문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 l사가 실리고 문단의 친구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결혼신고를 한것은 1910년 7월5일 동 9월1일에는 장남이 태어났다. 세이토의 사원이 된 것은 장남을 출한 한 다음해였다. 그래서 결혼생활에 있어서 갈등과 모순이 그녀작품의 주테마가 된다.

가토미도리는 세이토가 기른 작가이고, 세이토 이외에도 작품을 발표하지만, 나중에 여류작가로서 성공하는 일은 없었다. 이것에 주목해 가토미도리라고 하는 세이토가 기른 작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토가 기른 작가는 없다고 해온 것은 왜 일까 고찰해 보고 싶다.

2. 加藤みどりの 작품

2.1)『집착』

집착은 작자인 가토미도리가 가토아사도리와의 연에에서 결혼에 이르기가지의 경위와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그대로 작품한 것 것이라고 한다. 작품과 실제가 다른 것은 가토미도리가 히사코, 가토아사도리가 사와노라고하는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과 두 사람이 알게된 잡지인「시인」이 「아케보노」라고 쓰여진 것이다.

남편인 아사도리는 와세다대학의 영문과출신으로 문학을 동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집착」에서과 같이 「시인」을 통해 알게되었고, 그녀는 청혼받아 결혼했다. 일찍이 동거를 했으나, 호적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1910년 7월5일이다. 동년 9월1일에는 장남이 태어

났다. 문학을 동경한 아사도리는 정규직을 가진 적이 거의 없고, 예술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사도리는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음해 1911년 5월 相馬御風의 소개로 오사카신보사의 기자가 된다.

기자가 되고나서, 그는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쓸수 없는 것을 괴로워했다. 예술만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에게 생활 때문에 예술을 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할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그가 이러한 것으로 괴로워 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매일을 즐겁게 보내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커져갔다. 그래서 그는 미도리에게 자립을 강요했다. 미도리는 아이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째서 아이를 내버려두고 자립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남편과 충돌하게 되었다. 1913년 차남이 태어나지만, 둘은 함께 이야기하여 예술을 위해 차남을 양자로 보내고, 1914년에는 별거한다.

부부의 사이가 나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자아와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미도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미도리의 자아와 현실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아픔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착의 힘이 두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자아에 눈뜨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도리는 자립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도 중요했을 것이다. 그런 아내에게 아이를 내버려두고 자립하라고 하는 남편이 미도리에게는 이혼을 결심하게 할 만큼 잔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이다.

이데후미코는 작품은 그대로 자기의 탄식과 호소이고, 자의식을 가진 여자가 가기 어려운 시대상을 그리고 있다 (「『세이토』 해설 · 총 목차 색인」 1983년 6월 후지출판)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작품은 예술을 목표로, 자유연애로 결혼한 부부의 문제가 그려져 있다.

이와다 나나쓰 는 집착을 미도리의 자전적소설(이와다나나쓰 『青鞜の女 加藤みどり』 1993년4월, 청궁사)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녀의 생활을 그대로 작품화했다고 하는 의미로 자전적소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아 와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착의 힘이 둘을 떠나지 않는다 와 같은 자포자기의 기분이 되었다는 의미, 히라노켄의 말을 밀리면, 「파멸형 현세방기자의 문학」 (〈사소설〉 「해석과감상」 5월 임시증간호, 증보개정판,1979년5월) 의 의미에 있어서는 사소설로 간주해도 좋지 않을까?

2.2)『회의 (懐疑) 』

이 작품은 전년의 집착과 달리, 가토미도리의 자전적 내용은 아니다. 야에코라고하는 여성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야에코는 동경에서 형제와 함께 살고있었다. 아에코가 형제들을 남기고 외출하는 것은 애인인 료사쿠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였다. 형제들은 료사쿠에게 언니를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를 싫어했다. 그리고 시골아버지에게 야에코가 료사쿠라는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야에코는 아버지에게 엄중하게 야단을 맞고, 외출을 금지 당했다. 이렇게 되자 야에코는 대담하게도 료사쿠를 집으로 불러, 형제와 함께 놀았다. 야에코는 아버지에게 료사쿠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자유결혼이라는 이유로 승낙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에코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료사쿠와 결혼생활를 시작해, 몸이 무거워졌다. 야에코의 여동생 시마코는 벌써18세, 집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마다머리를 했다. 손에는 結納로 받은 비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러나 왠지 이번 결혼이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가족과 세상에 발목을 잡히는 결혼인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와같은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이번 결혼의 중맺 였던 숙모가 들어와 준비를 서둘렀다. 그 때 그녀는 기고 있던 반지를 빼어 숙모에게 던졌다. 왜 나 그 사람과 결혼해야만 해요. 특별히 그 사람하고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다시 한번 동경으로 가고 싶어. 언니 있는 곳으로.(중략) 그렇지만 모르겠는 걸요. 이번 결혼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타인을 위해서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아아, 기분 나빠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모습은 사라져 간다.

자유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반대에도 포기하지 앟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언니를 보면서, 집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시마코는 자신의 결혼에 관해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가부장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집에서 정한 상대와의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결혼식 당일 그 자리를 떠난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사랑없는 결혼에 관한 회의이고, 반사회적행위이며, 개인개방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예술과 봄』

에쓰코(悅子)는 4월8일부터 3일간, 신온천 안에있는 파라다이스에서 환의 바다를 공연하게 되어 있었다. 남편 고이치와는 함께 공연을 했지만, 어린 아들 하루오는 맡길 수가 없어 데리고 온 것이다.

에쓰코가 결혼한 후 남편은 「에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라」 고 강권했다. 그래서 자신도 공연전에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외쳐 보았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쫑파티를 한 동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향한다. 돌아가는 전차에서 내려 에쓰코는 함께 공연한 남편 아들과 함께 걸었다.

그때 문득 에쓰코는 아아 오늘 밤 같은 활기찬기분에 잠겨 언제까지라도 있고 싶어. 아이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유일의 예술만 있는 나라에 살고싶어 라고 말했다. 이에 맞장구를 치듯 남편 고이치(公一) 는 정말그래, 우리의 생명은 예술에 있어 예술이 있어 가정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말이야 하고 응수해 준다.

이 작프ㅁ은 실제 가토부부가 오사카에 있을 때 환의 바다를 공연했을 때의 일을 그린 것이다. 그녀는 이때 아이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예술 만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예술만의 생활을 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명은 예술에 있어 예술이 있어 가정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말이야 하고 응수해주는 남편의 기분과는 전혀 다른 여자의 바램은 아니었을까? 이와같이 이 작품은 실제 있었던 일을 쓴 것으로서, 여자의 어찌할 수 없는 반포기의 절실한 바램이 아프게 표현되어 있는 소위 사소설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4)『바람부는 날』
2.5)『헤어지고 이삼일』
2.6)『점쟁이의 말』
2.7) 『연말』
2.8)『단 한사람 』
2.9)『별의 하늘』

맺음말

『천공의 성 라퓨타』론

김화영(동양미래대학)

1. 서론

『천공의 성 라퓨타』(이하, 『라퓨타』로 한다.)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1986년 작품으로 지브리스튜디오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제목 라퓨타는 영국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의 1726년작 풍자소설 『걸리버여행기』제3장에 나오는 '공중섬 라퓨타제국'의 이야기를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미야자키만의 독자적인 창작으로 만들어진 모험극이다. 작품 테마가 '기계문명'과 '독재체재비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본 내에서 '라퓨타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미야자키의 작품 세계는 유토피아를 추구 하는 작품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토피아의 원래 의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소—nowhere, no-place'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환상의 장소이다. 『라퓨타』에서의 '라퓨타'는 상상의 장소로서 신비한 섬으로 그려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라퓨타』에 있어서의 '라퓨타'의 의미를 유토피아 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야자키의 작품 속에는 여성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녀들은 작품 가운데에 결정적인 역할과, 작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서 그려져 남자주인공 이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의 여성 주인공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2. 본론

(1) 공중에 떠있는 유토피아-'라퓨타'

〈인용1〉
폼아저씨:"너.....그것 비행석의 결정이...내 아저씨가 말했었어...돌들이 술렁거리는 것은 광산 위로 라퓨타가 오기 때문이다."
〈인용2〉
폼아저씨: "나는 돌만을 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 힘이 있는 돌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불행하게도 만든다."
〈인용3〉
무스카: "이건 지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냐. 이 몸체는 금속인가, 점토인가..그것조차도 우리의 과학으로는 알수가 없어."
〈인용4〉
"너는 라퓨타를 보물섬인가 뭔가로 생각하고 있지만...라퓨타는 예로부터 가공할 만한 과학의 힘으로 하늘에 떠올라 전 지상을 지배한 공포의 제국이었어. 그것도 아직도 공주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평화를 지키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너도 잘 알겠지. "
〈인용5〉

무스카: “여기가 바로 라퓨타의 중추다. 저 위에 잇는 성은 잡동사니에 지나지 않아. 라퓨타의 과학은 모두 여기에 모여 있어.”
〈인용6〉
무스카: “구약성서에서나오는 소돈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늘의 불이다. 라미야마에서는 인드라의 화살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지. 전세계는 다시 한번 라퓨타의 발 밑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인용7〉
무스카: “라퓨타는 멸망하지 않아. 몇 번이라도 소생하지. 라퓨타의 힘이야말로 인류의 꿈이니까.”

(2)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와 역할

①시타

〈인용1〉
무스타: “너는 라퓨타를 보물섬인가 뭔가로 생각하고 있지만...라퓨타는 예로부터 가공할 만한 과학의 힘으로 하늘에 떠올라 전 지상을 지배한 공포의 제국이었어. 그것도 아직도 공주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면. 평화를 지키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너도 잘 알겠지. 나를 도와다오, 비행석이 라퓨타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문을 넌 알고 있을 거다.”
〈인용2〉
시타:“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 써선 안 되는 말. 멸망의 주문! 좋은 주문에 힘을 부여하려면 나쁜 주문도 알아야 한다고...하지만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셨어. 배웠을 때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그들을 밖으로 내놔서는 안되는 거였어.”“그래서 언제나 난로 뒤에 숨겨 놓고 결혼식 때 밖에 걸지 않았어. 엄마도,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도 모두 그렇게 해 왔어.”
〈인용3〉
시타: “여기가 왕좌라고? 여기는 무덤이야. 당신과 나의! 나라가 망했는데 왕만이 살아있다니 웃기는군, 당신에게 돌을 건네줄 순 없어. 당신은 여기서 못 나가고 나랑 죽는 거야.”
〈인용4〉
시타: “지금은 라퓨타가 왜 망했는지 난 잘 알아. 곤드아 계곡의 노래에 있는거야.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함께 살아가자. 종자들과 같이 겨울을 견뎌내고 새들과 같이 봄을 노래하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가져도 가엾은 많은 로봇을 조종해서도 땅에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거야.

〈참고문헌1〉 헬렌 매카시/조성기역『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인디북, 2004
“나는 시타라는 상냥한 성격의 인물을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과 결점과 미덕을 갖추고, 이 작품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체계를 구현하려는 인물이 아니라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계의 마지막 계승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

②도라

〈인용1〉
도라: “바보, 위협받고 널 구해내기 위해 그런거야. 눈물나네. 남자를 살리기 위해 매정한 그 한마디.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잖아”
루이: “엄마처럼 되는 거야, 그 애가?”
〈인용2〉
도라: “멸망의 주문을 외운 거야. 그대들은 바보들에게서 라퓨타를 지킨거야.”

〈참고문헌1〉 시미즈 마사시/이은주역 『미야자키하야오세계로의 초대』좋은책만들기,2004
“그러나 도라에게는 이상한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 이 매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good mother terrible mother의 양면을 갖춘 대모적 매력일 것이다. ”

〈참고문헌2〉 황의웅『미야자키하야오의 세계』예솔, 1998
“공중해적의 여두목 ‘도라’는 미야자키가 처음으로 진정하게 그린 어머니상으로 미야자키 캐릭터 중 가장 색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이다.”

3. 결론

17세기 전반 對明 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朴　現　圭(順天鄕大 中文科)

조선과 명나라는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사신들의 왕래가 매우 잦았다. 17세기 전반에 양국 사이에 오가던 전통적인 육로 사행이 후금(훗날 청으로 개명)의 요동 점거로 인하여 막히게 되자, 부득불 여말 선초에 이어 다시 한 번 해로 사행을 열었다. 해로 사행은 1621년(광해군 14)부터 첫 번째 사행이 시작하여 1637년(인조 15)에 마지막 사행이 한반도로 되돌아오면서 막을 내렸다. 해로 사행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육로 사행에 비해 훨씬 불안정하며 가변성이 높았고, 전체 노정이 훨씬 멀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렸다.

지금까지 학계나 학자들이 대중국 사신록(일명 燕行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또한 여기에 관한 성과물도 적지 않게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성과물을 개괄해 보면 절대 다수가 육로 사행을 논한 것이고, 해로 사행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곤한 편이었다. 17세기 전반 해로 사행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면 개별 사행록 분석, 해로 노정 등에 대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의 전체 해로 사행을 대상으로 해로 구간에 일어났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17세기 전반 해로 사행록은 엄밀히 따지자면 선박으로 황해와 발해를 오갔던 해로 구간,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각각 행해진 육로 구간, 명나라 수도 연경(북경)에 체류한 시기로 나뉜다. 필자는 논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로 구간과 연경 체류 시기를 제외시키고, 선박으로 오갔던 해로 구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 작성 당시에는 해로 사행 중 해로 구간에 일어났던 제반 사항을 모두 다루었으나, 다만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논문 편폭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편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로 사행의 명단과 과정, 노선과 일정, 규모와 선박 등 행차 모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제례와 풍속, 운항과 체험, 호송과 국경 등 항해 모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차후에 따로 발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7세기 전반 조선의 對明 해로 사행 중 해로 구간에 이루어졌던 사신 행차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금이 북방 지역에서 흥기하여 요동 지역을 점거하게되자, 조선과 명나라는 그동안 사신들이 오갔던 육로가 막히게 되어 부득불 해로를 통해 왕래할 수밖에 없었다. 1621년(광해군 14)에 조선 진향사 柳澗 일행이 명나라에서 귀국하면서 첫 번째 해로 사행이 시작되었고, 이 이후 사신급 이상의 해로 사행이 20여 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637년(인조 15)에 조선이 후금의 침략으로 인하여 후금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고, 마지막 사행인 동지사 金堉 일행이 귀국하면서 대명 해로 사행은 막을 내렸다.

해로 사행은 해로 구간과 육로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해로 노선을 보면 크게 登州(蓬萊) 노선과 覺華島(菊花島) 노선이 있다. 등주 노선은 유간 일행이 귀국하면서 처음 이루어졌다. 각화도 노선은 1629년(인조 7)에 袁崇煥의 방침에 따라 처음 이루어진 뒤 도중

에 약간의 이탈이 있었지만 해로 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조선 조정은 해로 구간이 가깝고, 항해 안전도가 높은 등주노선을 선호했다. 1630년(인조 8)에 鄭斗源과 高用厚 일행은 등주노선을 따라 들어가 노선 변경을 건의했으나, 명나라 조정의 거듭된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다.

한반도에서 사신 선박의 출항지는 모두 4곳이 있다. 처음에는 安州 淸川江에서 출발했으나, 곧이어 宣沙浦에서 바꾸었다. 정묘호란이 발발한 이후 石多山으로 옮겼다. 이듬해 다시 평양 대동강으로 옮겼다. 그러나 대동강을 내려가는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 사신(삼사급)은 석다산에서 출발하고, 원역들은 대동강에서 출발하여 노선을 이원화시켰다. 선사포에서 등주까지의 항해 기간은 평균 22.4일이 걸렸고, 석다산에서 각화도까지는 평균 31.0일이 걸렸다. 조선 조정은 등주 노선을 선호했다.

사행 선단은 통상적으로 4척~6척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출항 때와 귀국할 때의 선단 규모는 가끔 다를 때도 있었다. 각 선박 당 승선 인원은 대략 40명~80명 정도로 추정된다. 사행 구성원은 크게 사신, 역원, 수부, 砲射手로 나뉘어졌다. 수부(梢工과 격군)의 인원수가 전체 사행의 인원수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사행 인원 가운데 후금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포수·사수를 많이 데리고 갔고, 삼사 가운데에도 무관 출신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사행 선박은 평안도 지역에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각 수역권 별로 할당해서 동원되었다. 수부도 각 수역권의 선박에 따라 그 지역 출신으로 차출했다.

『純祖戊子進爵儀軌』에서 「鄕唐交奏」 雅名의 문헌적 검토

- 慈慶殿 內進爵의 「향당교주」 아명과 중국문헌의 동일한 악곡명을 중심으로 -

박정련(영남대)

Ⅰ. 서론

조선후기 연향과 관련된 의궤들 중에서 '향당교주'라는 명칭이 지배적으로 많이 출현한 곳은 『순조무자진작의궤』(1828)의 자경전(慈慶殿) 내진작(內進爵) 부터다. 이전, '향당교주'의 출현이 한 두어 번 정도[1]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순조무자진작의궤』의 '향당교주' 출현횟수는 무려 39번이나 등장한다. 1809년의 『진찬의궤』[2]와 1827년의 『진작의궤』에서 보이지 않던 '향당교주'가 1828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순조무자진작의궤』에 기록된 '향당교주'가 정재의 반주 악곡명 외에도 의식절차에 따른 여러 악곡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순조무자진작의궤』에서 비롯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순조무자진작의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본래의 악곡명 대신 모두 아명(雅名)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순조무자진작의궤』를 중심으로 '향당교주'의 아명을 검토해보려는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향당교주'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가 산재하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조선후기 정재의 반주곡이면서 여러 의식절차에 사용된 악곡이라는 점, 악기의 편성이 향악기와 당악기의 혼합이라는 외재적 특징 외에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에, 다양한 연구방법의 경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글에서 '향당교주'의 아명을 통하여 '향당교주'의 이면(裏面)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828년 궁중의 연향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향당교주'! 그리고 여기에 붙여진 39개의 다양한 아명은 아무런 이유나 의미 없이 명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명이 아조(我朝)에서 선행적으로 사용된 예(例)가 없다면, 당시 중국과 조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국 궁중에서 이 아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악곡명의 출처나 용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위해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폭발적으로 등장한 '향당교주' 39개의 아명을 모두 검토해보고, 나아가 순조조의 전(全) 연향에서 '향당교주' 아명들의 용례를 검토, 비교분석을 하면서 그 실체를 밝힐 밑그림을 그려보았다. 그 중에서 이 글은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의 아명과 중국문헌에 기록된 동일한 악곡명 10개를 중심으로 그 출처와 용도, 그리고 두 왕실에서 동일한 악곡명이 사용된 연향의 성격과 그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에서 사용된 동일한 악곡명을 통하여 조선조 '향당교주'의 새롭고 다양한 면을 미력하나마 밝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

1) 1719년(숙종 45) 기해년의 '칠작행례'에서 처용무를 출 때 「여민락」(與民樂)과 「향당교주」가 연주되었다는 것이 『진연의궤』에 언급되어 있고, 1795년(정조 19) 을묘년 봉수당에서 '칠작행례' 중 제4작을 올릴 때와 제7작에서 '처용무'를 출 때 「향당교주」가 두 번 언급되었으며, 동년, 낙남헌 '삼작행례' 때 「향당교주」가 한번 언급되었음이 『정리의궤』에 나타난다.

2) 『기사진표리진찬의궤』이기도 한 이 의궤는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그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순조실록』을 살펴본 결과 음악이 연주된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악곡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향당교주의 연주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Ⅱ.『純祖戊子進爵儀軌』에서 자경전 내진작의 성격과 「鄕唐交奏」의 雅名

1828년의 『진작의궤』는 2월 12일 창경궁 자경전(慈慶殿)에서 거행된 내진작과, 같은 날 저녁 야진별반과(夜進別盤果) 곧 야진작(夜進爵), 그리고 13일에 왕세자의 익일회작(翌日會酌), 6월 1일 창덕궁 연경당(演慶堂)에서 조촐하게 거행된 진작례의 기록을 합편하여 간행한 것이다.

『순조무자진작의궤』의 진작례는 순조의 세자인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그는 모후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보령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2월에 국가 차원의 잔치를 베풀었고, 몇 달 뒤에는 탄신일을 경축하기 위해 다시 왕실 차원의 잔치를 베풀었다. 1828년에 치러진 이 잔치들은 준비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예조와 호조가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고, 행사가 치러진 뒤 20년이 되는 1848년에 정리자(整理字)의 활자본으로 정식 간행되었다.[3]

1828년 2월 12일 자경전 내진작례의 참석자는 효명세자·세자빈 조씨·공주·좌우명부·의빈(儀賓)·척신(戚臣) 등이고, 장악원 소속의 세취(細吹) 악관들과 정재를 출 무원들이 연향의 의식절차에 따라 공연을 준비하였다.[4] 의식절차는 왕과 왕비에게 세자·세자빈·공주가 순서대로 1작에서 3작까지 올리고, 왕과 왕비는 답례로 술잔을 내렸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주된 악곡은 전통적으로 연주되어 왔던 10개의 악곡이 51개의 아명(雅名)으로 명명되어 연주되었다.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연주된 본래의 악곡명은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향당교주」(鄕唐交奏)·「여민락만」(與民樂慢)·「정읍만기」(井邑慢機)·「환환곡」(桓桓曲)·「여민락」(與民樂)·「보허자」(步虛子)·「낙양춘」(洛陽春)·「무환지곡」(武桓之曲)·「수룡음」(水龍吟)인데, 이 곡들은 이미 순조 이전에 연주된 악곡들이다. 이 10곡 중에 「향당교주」는 차후 논의될 내용이므로 여기서 잠시 생략하고, 「향당교주」를 제외한 9곡에 명명된 아명은 「매화인」(梅花引)·「만수영무강인」(萬壽永無强引)·「제수창지곡」(帝壽昌之曲)·「전전환지곡」(殿前歡之曲)·「경신년지곡」(慶新年之曲)·「천추세지곡」(千秋歲之曲)·「만방녕지곡」(萬方寧之曲)·「경태평지곡」(慶太平之曲)·「만세성지곡」(萬歲聲之曲)·「성수영지곡」(聖壽永之曲)·「낙매춘곡」(落梅春曲)·「태계평지곡」(泰階平之曲) 이상 12곡이다.

본래의 악곡명 9개가 연향의 절차에 따라 12개의 이름으로 증가한 이유는, 향악(鄕樂)으로 두 번 연주하는 「환환곡」과 「여민락」이 한번은 「전전환지곡」, 또 한번은 「천추세지곡」이라는 아명으로 명명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당악(唐樂)으로 연주하는 「보허자」도 각각 「만방년지곡」과 「경태평지곡」의 아명을 사용하였고, 「여민락만」을 당악으로 연주한 아명은 「성수영지곡」, 「태계평지곡」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의 아명은 「천향봉소지곡」(天香鳳韶之曲)·「오운가육용지곡」(五雲駕六龍之曲)·「성인무우지곡」(聖人無憂之曲)·「만년낙지곡」(萬年樂之曲)·「경풍년지곡」(慶豊年之曲)·「금전만년환지곡」(金殿萬年歡之曲)·「앵천유지곡」(鶯穿柳之曲)·「염외화지곡」(簾外花之曲)·「황상길지곡」(黃裳吉之曲)·「헌천화지곡」(獻天花之曲)·「경선화지곡」(慶宣和之曲)·「풍신년지곡」(豊新年之曲)·「장생락지곡」(長生樂之曲)·「여산지곡」(如山之曲)·「수제천지곡」(壽齊天之曲)·「곤녕지곡」(坤寧之曲)·「경수락지곡」(慶壽樂之曲)·「천선자지곡」(天仙子之曲)·「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

3) 이의강 역(2006)『국역순조무자진작의궤』, 보고사, p.9.
4) 주3의 책, pp.80~81.

서일화지곡」(瑞日和之曲)·「만수장락지곡」(萬壽長樂之曲)·「승평악지곡」(昇平樂之曲)·「경만년지곡」(慶萬年之曲)·「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청평악지곡」(淸平樂之曲)·「감황은지곡」(感皇恩之曲)·「장생보연지악」(長生寶宴之樂)·「수천춘지곡」(壽千春之曲)·「요계락지곡」(堯階樂之曲)·「경방춘지곡」(慶芳春之曲)·「희신춘지곡」(喜新春之曲)·「창운송지곡」(昌運頌之曲)·「하성조지곡」(賀聖朝之曲)·「영남산지곡」(永南山之曲)·「만화신지곡」(萬花新之曲)·「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응화지곡」(凝和之曲)·「봉취지곡」(鳳吹之曲) 이상 39곡이다.

『순조무자진작의궤』에 수록된 2월 12일 자경전 내진작례의 특징은 기존의 곡명과 아명을 병기하였고, 51개의 아명 중 「향당교주」의 아명이 무려 39곡이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자경전 내진작에서 연주된 악곡의 본명과 아명을 알기 쉽게 일람표로 정리해보았다.

(표1) 1828년(순조28) 2월 12일 자경전의 내진작례에서 사용된 악곡의 본명과 아명 일람표

순서	악곡의 본명	악곡의 아명
1	五雲開瑞朝	梅花引
2	鄕唐交奏	天香鳳韶之曲
3	鄕唐交奏	五雲駕六龍之曲
4	與民樂慢	萬壽永無强引
5	鄕唐交奏	聖人無憂之曲
6	鄕唐交奏	萬年樂之曲
7	鄕唐交奏	慶豊年之曲
8	鄕唐交奏	金殿萬年歡之曲
9	鄕唐交奏	鶯穿柳之曲
10	鄕唐交奏	簾外花之曲
11	井邑慢機(鄕)	帝壽昌之曲
12	桓桓曲·與民樂(鄕)	殿前歡之曲
13	鄕唐交奏	黃裳吉之曲
14	井邑慢機(鄕)	慶新年之曲
15	桓桓曲·與民樂(鄕)	千秋歲之曲
16	鄕唐交奏	獻天花之曲
17	鄕唐交奏	慶宣和之曲
18	鄕唐交奏	豊新年之曲
19	鄕唐交奏	長生樂之曲
20	鄕唐交奏	如山之曲
21	步虛子(唐)	萬方寧之曲
22	鄕唐交奏	壽齊天之曲
23	鄕唐交奏	坤寧之曲
24	步虛子(唐)	慶太平之曲
25	鄕唐交奏	慶壽樂之曲
26	鄕唐交奏	天仙子之曲

순서	악곡의 본명	악곡의 아명
27	鄕唐交奏	柳初新之曲
28	鄕唐交奏	太平春之曲
29	鄕唐交奏	瑞日和之曲
30	鄕唐交奏	萬壽長樂止哭
31	鄕唐交奏	昇平樂之曲
32	鄕唐交奏	慶萬年之曲
33	鄕唐交奏	壽延長之曲
34	鄕唐交奏	淸平樂之曲
35	洛陽春(唐)	萬歲聲之曲
36	鄕唐交奏	感皇恩之曲
37	鄕唐交奏	長生寶宴之樂
38	鄕唐交奏	壽千春之曲
39	鄕唐交奏	堯階樂之曲
40	鄕唐交奏	慶芳春之曲
41	鄕唐交奏	喜新春之曲
42	鄕唐交奏	昌運頌之曲
43	鄕唐交奏	賀聖朝之曲
44	鄕唐交奏	永南山之曲
45	鄕唐交奏	萬花新之曲
46	鄕唐交奏	醉太平之曲
47	與民樂慢(唐)	聖壽永之曲
48	武桓之曲(唐)	落梅春曲
49	與民樂慢(唐)	泰階平之曲
50	鄕唐交奏	凝和之曲
51	鄕唐交奏	鳳吹之曲
52	水龍吟 元樂(唐)	

Ⅲ. 1828년 2월, 慈慶殿 內進爵에서 중국문헌과 동일한 「鄕唐交奏」 雅名의 문헌 검토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39개의 아명 중에 중국문헌에 기록된 동일한 악곡명은 「천향봉소지곡」·「경풍년지곡」·「곤녕지곡」·「경만년지곡」·「감황은지곡」·「창운송지곡」·「하성조지곡」·「영남산지곡」·「취태평지곡」·「응화지곡」 이상 10곡이다. 이 10개 악곡의

출처와 용도를 각각 검토하면서, 이 악곡들이 연주된 연향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1.「천향봉소지곡」(天香鳳韶之曲)

1828년 2월 12일, 자경전 내진작에서 연주된「향당교주」의 첫 번째 아명곡「천향봉소지곡」은 왕비가 수식(首飾)을 얹고 적의(翟衣)를 갖추면 좌우에 있는 찬례(贊禮)와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올 때 세취(細吹)가 연주한 악곡이다. 이때 <광수무>(廣袖舞)를 함께 공연한 것으로 보아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천향봉소지곡」은 순조조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순조무자진작의궤』에 처음 보인다. 그리고 중국문헌에서는『어제율려정의후편』(御製律呂正義後編)·『명사』(明史)·『예부지고』(禮部志稿) ·『흠정속문헌통고』(欽定續文獻通考)에 기록되어 있다.

『어제율려정의후편』에 기록된「천향봉소지곡」은 명나라 가정(嘉靖, 1522-1566) 연간에 황후가 몸소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누에를 치는 <친잠연내외명부악장>(親蠶宴內外命婦樂章)에 기록되어 있다.[5]『명사』에는「천향봉소지곡」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393년(홍무26) 설날아침·동지(冬至)·천추절(千秋節)에 중궁전 조하악장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선덕(宣德 1426-1435) 이후에 자궁(慈宮)의 조하악장에 보이며, 세 번째는 앞서 언급된『어제율려정의후편』과 동일하게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명대 유여즙(俞汝楫)의『예부지고』의 기록과도 동일하다.『흠정속문헌통고』에서는 1393년(洪武 26) 중궁의 '조의'(朝儀) 때「중정악장」(重定樂章)과 설날아침과 동지·천추절을 맞이하여 중궁전에 조하할 때「천향봉소지곡」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선덕(宣德 1426-1435) 이후에 자궁의 <조하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530년(가정9)에는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문헌에 기록된「천향봉소지곡」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2) 중국문헌에 기록된「천향봉소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천향봉소지곡」	「천향봉소지곡」	『명사』	卷63	<중궁전 조하악장>, <자궁의 조하악장>,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2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
		『예부지고』	卷21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卷104 卷105 卷111 卷116	중궁에 조의(朝儀)때 <중정악장>, <중궁조하악장>, <자궁조하악장>, 내외명부의 잔치,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

중국문헌의 여러 곳에 보이는「천향봉소지곡」의 용례를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1393년 명나라 태조(26년) 때에 설날과 동짓날, 천추절을 맞이하여 중궁전 조하악장으로, 명나라 선종(宣宗 1426-1435) 이후, 영종(英宗 1436-1449)이 왕세자비의 <조하악장>에「천향봉소지곡」

5) 자세한 출처는 지면상 생략하였고, 표로써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이하동일.

을 사용한 것을 추측할 수 있고, 1530년 명나라 세종때 <황후친잠연내외명부악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문헌에 기록된 「천향봉소지곡」은 내명부 잔치와 중궁전과 자궁의 경축일을 맞아 조하를 올릴 때 사용된 악곡으로 정리된다. 이는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한 용도와 비교해 보아서도 내명부를 위한 악곡이나 악장이라는 점, 경축일을 맞아 사용된 악곡이라는 점은 적소(適所)에 적합한 악곡명을 선정 혹은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경풍년지곡」(慶豊年之曲)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5번째 아명곡인 「경풍년지곡」은 왕과 왕비에게 어찬(御饌)을 올릴 때 명명된 악곡이다. 「경풍년지곡」은 선대의 기록에 보이지 않고, 다만 중국문헌 『오례통고』(五禮通考) · 『어제율려정의후편』(御製律呂正義後編) · 『명사』(明史) · 『예부지고』(禮部志稿) · 『명회전』(明會典) · 『흠정속문헌통고』(欽定續文獻通考) · 『흠정속통전』(欽定續通典) · 『독서기수략』(讀書紀數略) · 『엄산집』(儼山集) 이상 아홉 문헌에 언급 되었다.

우선 『명사』에서의 「경풍년지곡」은 1420년(영락18), 연향의 악무(樂舞)로 제정된 9개의 악곡 가운데 6번째 악곡이다. 그 성격은 "만방(萬方)이 통일을 이룬 성군(聖君)을 우러러보고, 때가 되면 비가 와 오곡(五穀)이 풍성하고, 백성들의 재물은 넉넉하여 '격앙가'(擊壤歌)를 부르며 즐거워하니, 나라의 풍속이 맑고 순박하였다. 황제는 변방의 민족들을 초청하여 그 어짊으로 다스려 나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풍년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궁중의 연향음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명대의 가정(嘉靖, 1522-1566)연간에 영락 때의 악장을 계승하여 <경성연악장>(慶成宴樂章)으로 「경풍년지곡」이 기록되어 있다.

진혜전(秦蕙田, 1702-1764)의 『오례통고』와 『어제율려정의후편』에서의 「경풍년지곡」은 1420년(영락18)에 사용된 9곡의 <조회연향악무>에서 연주된 악곡이다. 명대 유여즙(俞汝楫, ?-?)의 『예부지고』에서는 명대 영락연간에 궁중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여흥(餘興)과 함께 식사하는 <전내유식악>(殿內侑食樂)의 악곡으로 사용되었고, 가정연간에는 영락 때의 악장을 계승하여 <경성연악장>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명사』의 그것과도 동일하다.

『명회전』에서는 대연향(大宴饗)을 위하여 영락연간에 <전내유식악>의 악곡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명사』의 내용과 동일하다. 『흠정속문헌통고』에서는 『명사』「악지」에서 언급된 <경성연악장>의 6번째 악장이라는 점과, 1420년에 제정된 9개의 연향악장 중 6번째 악장이라는 점, 1530년(가정9)에 <대사경성연악장>(大祀慶成宴樂章) 중 6번째 악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영락연간에 <전내 유식악>의 악곡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흠정속통전』에는 역대 음악의 연혁을 기록한 곳에서 1420년에 새롭게 제정된 '연향악무' 9곡 중에서 6번째 악곡이며, 『엄산집』에서는 <경성연악장>의 6번째 악장이다. 청대의 『독서기수략』에서는 <단폐 대악 구주>(丹陛大樂九奏) 중 6번째 악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문헌에 기록된 「경풍년지곡」에 대한 출처와 용도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3) 중국문헌에서 「경풍년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문헌명	출처	연주된 시기	용도
「경풍년	「경풍년	『명사』	卷61, 63	1420년(영락18),	연향악무곡

지곡」	지곡」			1522-1566(가정연간)	경성연악장
		『오례통고』	卷139	1420년	조회연향악무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2	1420년	연향악무
		『예부지고』	卷21	1403-1424(영락연간), 1522-1566(가정연간)	전내유식악 경성연악장
		『명회전』	卷72	1403-1424(영락연간)	전내유식악
		『흠정속문헌통고』	卷105, 116	1522-1566(가정연간) 1420년 1530년 1403-1424(영락연간)	경성연악장 연향악장 대사경성연악장, 전내유식악
		『흠정속통전』	卷86	1420년	연향악무
		『엄산집』	卷23	무술년	경성연악장
		『독서기수략』	卷40		대악(大樂)

중국문헌에 기록된 「경풍년지곡」의 용례를 정리해본다. 첫째, 1420년(영락18)에 연향악을 위해 제정된 9개의 악곡 중의 한 악곡이라는 점, 이는 <전내유식악>으로도 사용되었다. 둘째, 가정(嘉靖, 1522-1566)연간에는 1420년에 사용된 연향악을 계승하여 <경성연악장>의 한 악장으로 「경풍년지곡」을 연주하였다. 또한 단폐에서 대악(大樂)의 한 악곡으로도 사용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경풍년지곡」은 중국의 궁중에서 연향을 목적으로 사용된 악곡이나 악장이었다. 특히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왕과 왕비에게 찬을 올릴 때 향당교주의 아명을 「경풍년지곡」이라 명명한 것은 중국 황실에서 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는 의미인 <전내유식악>의 용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효명세자는 중국문헌에 기록된 「경풍년지곡」의 용도를 고려하여 자경전 내진작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곤녕지곡」(坤寧之曲)

1828년 2월 12일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16번째 아명곡 「곤녕지곡」은 왕세자빈이 제2작을 올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跪] 연주되었다. 선대에 연주된 기록이 없으며, 중국문헌 『오례통고』(五禮通考)·『어제율려정의후편』(御製律呂正義後編)·『금사』(金史)·『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흠정속문헌통고』(欽定續文獻通考)·『흠정속통전』(欽定續通典)·『대금집례』(大金集禮)·『어정전금시증보중주집』(御訂全金詩增補中州集)에 「곤녕지곡」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금사』에서는 토지신인 지기(地祇)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구'(方丘)의식에서 몸을 숙여 절하고 일어날 때[俛伏興] 악공이 '고'(鼓)와 '축'(祝)으로 「곤녕지곡」을 연주하였고, 송나라 개보(開寶, 968-976)연간에 땅과 하늘에 제사지내는 '교사'(郊祀)의식에서 '황지기'(皇地祇)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었다. 또한 1150년 금나라에서 황후의 책립(冊立)의식 중 황후가 칙서를 받을 때[受冊] 연주한 기록이 보인다. 『오례통고』에는 『금사』「예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짓날 '방구'에서 '황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곤녕지곡」을 연주하였다. 『어제율려정의후편』에는 1150년 금나라 왕후의 책봉의식에서 왕후가 칙서를 받을 때와, 송나라 개보(開寶) 연간에 교사(郊祀) 의식에서 '황지기'에게 제를 올릴 때, 방구의식에서 몸을 구부려 절하고 일어날 때[俯伏興] 악공이 '고'와 '축'으로 연주하였다. 『역대명신주의』에는 송대 개보연간에 '교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악곡명 가운데, '황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흠정속문헌통고』에도 금나라 해릉왕(海陵王, 1149-1160) 때에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는 '교사'에서 악곡과 악장으로 사용되었고, 1150년에는 금나라 황태후의 책봉의식에 사용되는 교방악(敎坊樂) 중에 황태후가 좌(座)에 올라 칙서를 받을 때, 그리고 '방구'의 제를 올릴 때 「곤녕지곡」을 연주하였다.『흠정속통전』에서는 1150년 금나라 해릉왕 때에 황후 책봉의식에서 황후가 좌에 올라 칙서를 받을 때 연주되었으며, '황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된 기록이 보인다.『대금집례』에는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구'의식에서 악공이 '고'와 '축'으로 연주하였다.『어정전금시증보중주집』에서도 1150년 금나라 궁중의 책립 의식에서 「곤녕지곡」의 기록이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문헌에 기록된 「곤령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4) 중국문헌에 나타난 「곤령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곤녕지곡」	「곤녕지곡」	『금사』	卷29 卷39 卷40	방구(方丘) 의식악 교사(郊祀)의 악곡명(968-976) 중궁에서 책립의식악(1150년)
		『오례통고』	卷39	방구의식악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0	황후의 책립의식에 사용된 악(1150년), 교사(郊祀)곡, 교사악가(郊祀樂歌)
		『역대명신주의』	卷22	교사의 악곡명
		『흠정속문헌통고』	卷69 卷101 卷113	교사(郊社)의 곡. 교사(郊祀)곡, 금나라 황태후를 위한 교방악(1150년), 방구(方丘)에서 제를 지내는 음악. 금나라의 교사악장(郊祀樂章), 중궁의 책립의식에 사용되는 악장.(1233년)
		『흠정속통전』	卷86	황후의 책립에 사용된 음악.(1150년) 황지기에게 제를 올리는 교방악.
		『대금집례』	卷11	방구에서 황지기에게 제를 올릴 때.
		『어정전금시증보중주집』	卷首下	중궁의 책립의식.(1150년)

「곤녕지곡」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연주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나 '방구'와 같은 제사음악이라는 점이다. 특히 토지신인 '황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사용했다는 점은 악곡명 '곤녕'(坤寧)이 '땅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또한 땅은 모든 생명을 창출하는 원천이자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와도 관련된다. 「곤령지곡」이 연주된 두 번째 유형은 '황후' 또는 '중궁전'의 책립의식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828년 2월 자경전의 내진작연과 비교해보면 내명부의 수장(首長)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축하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명세자가 「곤녕지곡」이라는 악곡명을 사용한 것은 중국문헌에 기록된 두 가지 유형의 형태가 1828년 내진작연의 용도에 모두 적합한 악곡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그러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경만년지곡」(慶萬年之曲)

1828년 2월 12일「향당교주」24번째 아명곡「경만년지곡」은 공주가 제3작을 올리기 위하여 왕비 앞에 나아가 '궤'(跪) 할 때 연주되었다. 선대에「경만년지곡」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중국문헌에서는『어제율려정의후편』에 보인다.『어제율려정의후편』에서「경만년지곡」은 1420년(영락18) 연향악에 연주되었다. 이는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하는 내용의「경만년지곡」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5) 중국문헌에 나타난「경만년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경만년지곡」	「경만년지곡」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2	연향악(宴饗樂)

5. 감황은지곡(感皇恩之曲)

「감황은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향당교주」의 27번째 아명곡이다. 왕세자·왕세자빈·공주·좌우명부·의빈과 척신이 자리로 나아갈 때 연주되었다.「감황은지곡」과 비슷한 악곡명인「감황은령」(感皇恩令)이『고려사』「악지」에 당악(唐樂)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문헌『명회전』·『명사』·『오례통고』·『어제율려정의후편』·『예부지고』·『흠정속문헌통고』·『흠정속통전』·『명집례』·『독서기수략』에「감황은지곡」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국문헌『명회전』(明會典)에는 1369년(홍무2)에 제후(諸侯) 또는 속국(屬國)의 임금이 천자(天子)를 알현하는 '번왕내조'(蕃王來朝) 의식에서 '주배'(酒再)를 행할 때 연주되었고, '대연'을 행할 때 교방사(敎坊司)에서 연주된 바가 있다. 영락연간(1403-1424)에 제정된 '전내유식악'중 5번째 악곡으로도 연주되었고, 교방에서 '조회연향'을 행할 때 전대(前代)에 전승되어온 <교방승응악무>(敎坊承應樂舞)에서 연주된 기록도 보인다.『명사』「악지」에는 1420년(영락18)에 <연향악무>로 제정된 악곡이며, 가정(嘉靖, 1522-1566)연간에도 <경성연악장>(慶成宴樂章)으로 사용되었다.『오례통고』(五禮通考)에는『명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1420년(영락18)에 <조회연향악무>로 연주되었고,『명회전』에서 <속정대연의>에 교방사에서 연주했음을 재인용하였다. 또한 연회의 절차를 기록한 <연회의주>(宴會儀注)에서「감황은지곡」은 '낭창'(郎唱)과 함께 연주되었다.『어제율려정의후편』에서는 1420년(영락18) <연향악무>로 제정된「감황은지곡」은 '천명유덕무'(天命有德舞)와 함께 공연된 기록이 보인다. 명대의『예부지고』(禮部志稿)에서는『명회전』의 기록과 동일하게 1369년(홍무2) <번왕내조의>에 연주되었고, <속정대연의>에 교방사에서 5번째 악곡으로, 영락연간에 제정된 <전내유식악>의 악장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가정연간에 <속정경성연악장>에도 그 흔적이 있으며, <교방사승응악무>(敎坊司承應樂舞)에서 '대연' 때「감황은지곡」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유식'(侑食)을 할 때 시작하고 '진주'(進酒)할 때 음악을 그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흠정속문헌통고』(欽定續文獻通考)에서는 역대의 악제(樂制)중 번왕(蕃王:변방의 왕)의 '내조'(來朝)때와, 가정연간에 <속정경성연악장> 중 5번째 악장으로, 1420년(영락18)에 제정된 연향악장과 1530년(가정9년) <대사경성연악장>(大祀慶成宴樂章)에「감황은지곡」이 보인다. 영락연간에 제정된 <전내유식악악무지제>(殿內侑食樂樂舞之制)에서「감황은지곡」을 연주할 때 <천명유덕지무>가 함께 공연되었다.『흠정속통전』(欽定續通典)에서는 1393년(홍무26)에

제정된 '대조'(大朝)[6], '상조'(常朝)[7] 등 조하의식을 행할 때 황태자와 제왕(諸王)·번왕(蕃王)·문무관(文武官)이 어전(御前)에 술을 따를 때[斟酒] 세악(細樂)으로 「감황은지곡」을 연주하였고 여기에는 '낭창'이 함께 연주되었다. 또한 1420년에 제정된 연향악무에서의 「감황은지곡」은 <천명유덕지무>와 함께 공연되었다. 『명집례』(明集禮)에서는 번왕조공(蕃王朝貢)을 위한 <연회의주>(宴會儀注)에 「감황은지곡」은 '낭창'과 함께 공연되었다. 『독서기수략』(讀書紀數略)에는 홍무(洪武, 1368-1398)초에 <단폐대악구주>(丹陛大樂九奏)에서 「감황은지곡」이 <천명유덕지무>와 함께 공연되었다. 지금까지 중국문헌에 기록된 「감황은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6) 중국문헌에 나타난 「감황은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감황은지곡」	「감황은지곡」	『명회전』	卷55	번왕내조의(蕃王來朝儀)
			卷70	대연의(大宴儀) 교방악
			卷72	전내유식악(殿內侑食樂)
			卷95	조회연향에서 교방악
		『명사』	卷61· 卷 63	연향악무(1420년)
			卷63	경성연악장(慶成宴樂章)
		『오례통고』	卷139	조회연향악무(1420년)
			卷160	대연의 교방악
			卷223	연회의주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2	연향악무곡(1420년)
		『예부지고』	卷17	번왕내조의
			卷21	대연의 교방악· 전내유식악의 악장· 경성연악장(慶成宴樂章)
			卷34	교방사의 대연악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번왕내조례(蕃王來朝禮)
			卷105	경성연악(慶成宴樂)
			卷106	연향악장(1420년) 대사경성연악장(1530년)
			卷117	전내유식악
		『흠정속통전』	卷69	대조(大朝)를 행할 때 (1393년)
			卷86	연향악무곡(1420년)
		『명집례』	卷30	번왕조공을 위한 연회의주
		『독서기수략』	卷40	단폐대악(丹陛大樂)

따라서 「감황은지곡」은 명대 초, 대악(大樂)에서부터 조하의식·전내유식악·연향악 등 궁중연회에 두루 사용된 악곡이다. 이는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6) 대조(大朝)는 왕세자가 섭정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이르던 말. 또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모든 문무백관들이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결재를 받던 큰 조회.

7) 상조(常朝)는 황제가 매일, 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침마다 조정의 주요 관리들을 만나 보고를 듣고 일상적인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생신을 축하 하기위한 악곡명으로 삼기에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에도 어색하지 않는 악곡임을 이해할 수 있다.

6. 「창운송지곡」(昌運頌之曲)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30번째 아명곡인 「창운송지곡」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만두(饅頭)를 올릴 때 연주되었다. 1828년 이전 아조(我朝)에서 악곡명으로 거론된 적이 없기에 2월의 자경전 내진작에서 처음 명명된 아명이다. 그러나 중국문헌에서는 『명사』·『예부지고』·『명회전』·『흠정속문헌통고』·『독서기수략』에 「창운송지곡」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명사』와 『예부지고』·『명회전』·『흠정속문헌통고』·『독서기수략』에는 공통적으로 영락(永樂, 1403-1424)연간에 제정된 <동궁향악장>(東宮饗樂章)에 「창운송지곡」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그 중 『예부지고』·『명회전』·『흠정속문헌통고』에는 1385년(홍무18) 궁중연회에서 연주된 기록도 함께 있다. 따라서 중국문헌과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명명된 「창운송지곡」은 궁중연향에 사용되었다는 점, 동궁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효명세자에게 특별한 의미의 악곡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효명세자는 중국문헌에 기록된 「창운송지곡」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문헌에 기록된 「창운송지곡」에 대한 출처와 용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7) 중국문헌에 나타난 「창운송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창운송지곡」	「창운송지곡」	『명사』	卷63	동궁향악장(東宮饗樂章)
		『예부지고』	卷16	대연례의식(1385년)
			卷21	동궁연악
		『명회전』	卷54	대연칠작례 의식(1385년)
			卷72	동궁연악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제사· 경하 등의 악절
			卷116	동궁연향악장, 연향악장(1385년)
		『독서기수략』	卷40	동궁연악

7. 하성조지곡(賀聖朝之曲)

「하성조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34번째 아명곡이다. 여관이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차를 올릴 때 연주되었다. 조선조에서 「하성조지곡」과 비슷한 악곡명에 대한 기록은 1402년 태종이 사신들과 더불어 연향을 베풀 때 사용된 음악인 <국왕연사신악>(國王宴使臣樂)에 당악 「하성조령」(賀聖朝令)을 연주한 바가 있고, 왕이 종친 형제들과 더불어 연향을 베풀 때 사용한 음악인 <국왕연종친형제악>(國王宴宗親兄弟樂)에 「하성조조」(賀聖朝調)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8] 또한 1428년(세종10) 성택[9]정재(聖澤呈才) 의식에서

8) 太宗 2年(1402) 壬午: <國王宴使臣樂> 王與使臣坐定, 進茶, 唐樂奏「賀聖朝令」; <國王宴宗親兄弟樂> 王坐殿, 奏「賀聖朝調」.

9) 성택(聖澤)은 조선 태종(太宗) 때 창작된 당악무(唐樂舞)로, 조정의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에서 상연하였다.

악관이 「하성조」를 독주했다는 기록이 있다.[10] 따라서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연주된 「하성조지곡」과 비슷한 악곡명인 「하성조령」·「하성조조」·「하성조」는 조선조 궁중의 연향악으로 사용되었다.

중국문헌에서 「하성조지곡」은 『오례통고』·『어제율려정의후편』·『명사』·『예부지고』·『흠정속문헌통고』·『흠정속통전』에 보인다. 『명사』에는 1370년(홍무3)에 <조하악장>으로, 1373년(홍무6)에는 조회연향(朝會宴饗)을 위한 악곡 중 환궁(還宮)할 때 「하성조지곡」이 연주되었다. 이와 동일한 기록은 『오례통고』 권139·『어제율려정의후편』·『흠정속문헌통고』 권116·『흠정속통전』 권8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부지고』에서는 1369년(홍무2)에 제정된 <번왕내조의>(蕃王來朝儀)에서 「하성조지곡」을 세악(細樂)으로 연주하였는데, 이는 『흠정속문헌통고』 권103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오례통고』 권223에서는 <연회의주>에서 세악으로 연주되었다. 『흠정속통전』 권69에서도 1393년(홍무23) 천자를 향하여 각 왕들이 대조(大朝)를 행할 때 세악으로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중국문헌에서의 「하성조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8) 중국문헌에 나타난 「하성조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하성조지곡」	「하성조지곡」	『명사』	卷61	조회연향 악곡(1373년)
			卷63	조하악장(1370년)
		『오례통고』	卷139	조회연향악, 조하악장
			卷223	연회
		『어제율려정의후편』	卷92	조회연향악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번왕 내조 의식악
			卷116	조하악장
		『흠정속통전』	卷69	대조(大朝)를 행할 때(1393년)
			卷86	조회연향악(1373년)
		『예부지고』	卷17	번왕 내조 의식악(1369년)

조선조 태종과 세종조, 그리고 중국문헌에 기록된 「하성조지곡」에 대한 종합적 용도는 연향에 사용된 악곡이라는 점이다. 이는 '하성조'(賀聖朝)라는 의미가 양국의 경사스러운 당대(當代) 왕조의 태평성대를 기리고 이를 경축한다는 점에서 상통(相通)되며, 이는 1828년 2월 효명세자가 자경전 내진작에서 「하성조지곡」이라는 악곡명을 사용함으로서 그 의미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영남산지곡(永南山之曲)

「영남산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35번째 아명곡이다. 상식이 전하와 왕비에게 별행과(別行果)를 올릴 때 <포구락>(抛毬樂)과 함께 공연되었다. 「영남산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처음 명명되었고, 중국문헌에서는 『명사』(明史)·『예부지고』(禮部志稿)·『명회전』(明會典)·『흠정속문헌통고』(欽定續文獻通考)·『독서기수략』(讀書紀數略)에

10) 世宗 10年(1428) 戊申: ○禮曹啓聖澤呈才儀. … 樂官奏獨聲「賀聖朝」.

기록되어 있다.

『명사』에 기록된 「영남산지곡」은 영락연간(1403-1424)에 <동궁향악장>(東宮饗樂章) 중 한 악곡인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예부지고』 권21·『명회전』 권72·『흠정속문헌통고』 권116·『독서기수략』에서 확인된다. 또한 1385년(홍무18)에 '연연'(筵宴) 혹은 '대연'(大宴)에서 「영남산지곡」이 연주된 경우는 『예부지고』 권16·『명회전』 권54·『흠정속문헌통고』이다. 따라서 중국문헌에 기록된 「영남산지곡」은 동궁의 연향악장과 큰 규모의 궁중연회에서 연주된 악곡이므로, 1828년 자경전 내진작의 용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악곡이 된다. 참고로 중국문헌에서의 「영남산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9) 중국문헌에 나타난 「영남산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영남산지곡」	「영남산지곡」	『명사』	卷63	동궁향악장
		『예부지고』	卷16	대연례(大宴禮) 의식(1385년)
			卷21	동궁향악장
		『명회전』	卷54	대연(大宴) 칠작례七爵禮) 의식악(1385년)
			卷72	동궁향악장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연연악(筵宴樂, 1385년)
			卷106	연향악장(1385년)
			卷116	동궁향악장
		『독서기수략』	卷40	동궁연악(東宮宴樂)

9.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

「취태평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의 37번째 아명곡으로, 전선(典膳)과 전인(典引)이 공주 및 좌우명부, 의빈과 척신에게 술을 돌릴 때 연주되었다. 「취태평지곡」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의 아명곡을 시작으로, 1877년(고종14) 통명전의 내진찬에도 「향당교주」 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887년(고종24) 만경전 내진찬에는 「원무곡」(原舞曲)의 아명으로 사용되었다가, 1901년(광무5) 5월 경운당의 내진찬과, 1902년 4월 함녕전의 외진연에서 다시 「향당교주」의 아명으로 불려졌다. 그런데 「향당교주」나 「원무곡」의 아명인 「취태평지곡」이 현재에는 「평조회상」(平調會相)의 아명곡으로 불려지는데, 순조조의 「취태평지곡」이 현재 「평조회상」의 아명곡과 동일한 악곡인지는 차후에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일단 「취태평지곡」이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의 아명으로 처음 사용되어 졌다면, 중국에서의 「취태평지곡」은 『오례통고』·『예부지고』·『명회전』·『흠정속문헌통고』·『흠정속통전』·『명집례』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문헌에서는 1369년(홍무2)에 변방의 왕을 일컫는 번왕(蕃王)이 천자에게 조하하는 연회에서 세악(細樂)으로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참고로 중국문헌에 나타난 「취태평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10) 중국문헌에 나타난 「취태평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취태평지곡」	「취태평지곡」	『오례통고』	卷223	연회
		『예부지고』	卷17	번왕내조의(蕃王來朝儀, 1369년)
		『명회전』	卷55	번왕내조(蕃王來朝, 1369년)
		『흠정속문헌통고』	卷103	번왕내조례(蕃王來朝禮)
		『흠정속통전』	卷69	대조행팔배례(大朝行八拜禮, 1369년)
		『명례집』	卷30	연회

중국에서 천자의 즉위 등 특별한 연회에 주변국의 왕들과 귀족들이 참석한 경축연에서 사용된 「취태평지곡」은 1828년 2월 효명세자에 의해 자경전 내진작에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특별한 연회에서 이 악곡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응화지곡」(凝和之曲)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향당교주」 38번째 아명곡인 「응화지곡」은 전하가 대차(大次)[11]로 들어갈 때 <처용무>(處容舞)와 함께 공연되었다. 1901년(광무5)에 「향당교주」의 아명곡으로 한차례 더 불려진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1828년에 처음 명명된 악곡임을 알 수 있다. 중국문헌에서 「응화지곡」의 기록은 『오례통고』·『어제율려정의후편』·『명사』·『예부지고』·『태상속고』·『흠정속문헌통고』·『흠정속통전』·『명집례』에서 확인된다.

『명사』에서 「응화지곡」이 연주되거나 기록된 경우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68년(홍무원년)에는 <교사의주>(郊祀儀注)에서 '진조'(進俎)[12]할 때, 환구(圜丘)에서 희생(犧牲)을 드릴 때,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조일(朝日)의식, <태사직이단동유악장>(太社稷異壇同壝樂章)에서 '진조'할 때 「응화지곡」이 연주된 기록이 보인다. 1369년(홍무2)에는 <방구악장>(方丘樂章)에서 '진조'할 때, 1370년(홍무3)에는 <조일악장>과 <석월악장>에 기록이 있다. 1371년(홍무4)에는 '별사'(別祀)중에서 '영신'때와, 태묘에서 '진조'할 때, <사주천성진악장>(祀周天星辰樂章)에서 '영신'할 때 연주되었다. 1374년(홍무7)에는 <역대 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악>[祀歷代帝王樂]에서 '철찬'(徹饌) 때 「응화지곡」이 연주되었다. 1530년(가정9년)에는 <환구에 제사를 지내는 악장>[祀圜丘樂章]·<조일악장>·<석월악장>, 1531년(가정10) <기곡악장>(祈穀樂章)·<초입제사직악장>(初立帝社稷樂章), 그리고 1532년(가정11) <우사악장>(雩祀樂章), 1536년(가정15) <맹춘구묘특향악장>(孟春九廟特享樂章), 1538년(가정17) <대향악장>(大饗[13]樂章)에 그 기록이 보인다. 지금까지 『명사』에 기록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1) 『명사』에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

11) 대차(大次): 나라에서 큰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이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던 장막.
12) 진조: 제사에 안주 대신 희생을 올리는 예.
13) 대향(大饗): ①임금이 크게 베풀고 성대하게 먹인다는 뜻으로,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임금이 종묘에서 조선(祖先)에 대한 제사를 합하여 지내는 협제(祫祭)를 의미한다.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사용된 연도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1368년	卷48 卷61 卷62	교사(郊祀), 환구(圜丘), 조일(朝日), 태사직이단동유악장(太社稷異壇同壝樂章)
		1369년	卷62	방구악장(方丘樂章)
		1370년	卷62	조일악장, 석월악장
		1371년	卷61 卷62	별사(別祀), 태묘, 사천주성진악장(祀周天星辰樂章)
		1374년	卷62	사역대제왕악(祀歷代帝王樂)
		1530년	卷62	환구악장(圜丘樂章), 조일악장, 석월악장
		1531년	卷62	기곡악장(祈穀樂章), 사직악장(社稷樂章)
		1532년	卷62	우사악장(雩祀樂章)
		1536년	卷62	맹춘구묘특향악장 (孟春九廟特享樂章)
		1538년	卷62	대향악장(大饗樂章)

한편,『예부지고』에 기록된「응화지곡」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368년(홍무원년) <고군신고제정사>(考羣神古制定祀)에서 '종헌례'(終獻禮)때, 1370(홍무3)년에는 <석월사의>(夕月祀儀)에서 '영신' 때, 1371년(홍무4) <궁사주천성진>(躬祀周天星辰)에서 '영신'때에「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 1377년(홍무10)에는 '합사의'(合祀儀)에서 '진조'때와 '종헌'때에 '문덕지무'(文德之舞)와 함께 공연되었다. 1531년(가정10)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에서 찬(饌)을 거둘 때, 1532년(가정11) '환구'에서 '진조'할 때, '조일단'(朝日壇)에서 '옥백'(玉帛)을 바칠 때, '석월단'(夕月壇)에서 '영신' 때, 그리고 '우사'(雩祀) 의식에서 '철찬' 때 연주하였다. 또한 1538년(가정17)에는 대향(大享)에서 '진조' 때에 연주한 기록이 보인다.『예부지고』에 기록된「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12)『예부지고』에서「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사용된 연도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1368년	卷81	고군신고제정사(考羣神古制定祀)
		1370년	卷81	석월에 제사지내는 의식[夕月祀儀]
		1371	卷81	궁사주천성진(躬祀周天星辰)
		1377년	卷25	합사의식[合祀儀]
		1531년	卷25	기곡(祈穀)
		1532년	卷25	환구, 조일단, 석월단, 우사
		1538년	卷25	대향

『흠정속문헌통고』에 기록된「응화지곡」을 시대별로 검토해보았다. 1368년(홍무원년) <태사태직>·<태사직이단동유악장>과 <태묘에서 합향할 때 사용된 악무>[祫享太廟用樂舞]에

서, ‘환구’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내는 악무·<환구악장>·<종묘악장>에서 모두 ‘진조’할 때에 「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 1369년(홍무2)에는 ‘천신단’에서 재배(再拜)시 ‘종헌례’를 행할 때, <방구악장>에서 ‘진조’할 때 연주하였다. 1370년(홍무3)에는 <조일의식> 또는 <조일동교용악무>(朝日東郊用樂舞)·<조일악장>에서 ‘철두’ 혹은 ‘철찬’ 때와, <석월의식> 또는 <석월서교용악무>(夕月西郊用樂舞)·<석월악장>, 그리고 <주천성진용악무>(周天星辰用樂舞)에서 모두 ‘영신’때에 연주하였다. 1371년(홍무4)에는 ‘성신제’(星辰祭)나, 하늘의 별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악장 중 ‘영신’때 연주하였고, 1373년(홍무6)에는 ‘제신’(諸神)에게 한해의 기원과 그 보답을 지내는 기보(祈報) 의식 중 ‘종헌’에서 연주하였다. 1374년(홍무7)에는 황제가 역대 제왕들의 묘에서 제를 지내는 악장 중 ‘철두’·‘철찬’때 연주하였다. 1530년(가정9)에는 <조일의식>과 <석월의식>, 그리고 환구에서 제사를 지내는 악장에 그 기록이 보이며, 1531년(가정10)에는 <기곡악장>, 1532년(가정11)에는 <우사악장>에서 찬(饌)을 거둘 때 연주되었다. 마지막으로 1538년(가정17)에 <대향악장>에서 ‘진조’때에 「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 지금까지 『흠정속문헌통고』에 언급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3) 『흠정속문헌통고』에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사용된 연도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1368년	卷103, 卷115	태사태직용악무, 협향태묘용악무, 환구에서 호천상제에서 제사 지낼때의 악무, 종묘악장, 태사직이단동유악장
		1369년	卷72, 卷115	천신단(天神壇)에서 제사 지낼 때, 방구악장.
		1370년	卷71, 卷103, 卷115	조일의식, 조일동교용악무(朝日東郊用樂舞), 조일악장, 석월의식, 석월서교용악무(夕月西郊用樂舞), 석월악장, 주천성진용악무(周天星辰用樂舞)
		1371년	卷72, 卷115	성진(星辰)에게 제사지내는 의식, 주천성진(周天星辰)에 제사지내는 악장
		1373년	卷72	기보(祈報)의식
		1374년	卷103, 卷115	역대 제왕에게 제사지내는 악장
		1530년	卷71, 卷115	조일의식, 석월의식, 환구제
		1531년	卷115	기곡악장
		1532년	卷115	우사악장
		1538년	卷115	대향악장

『명집례』에서 「응화지곡」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악무(樂舞)에서, 제사를 지낸 뒤 축문을 불사르는 망료(望燎)의식, 방구에서 지기(地祇)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직에 제사지낼 때, <조일악장>과 <석일악장>, <원구악장>, <태세풍운뇌우악장>(太歲風雲雷雨樂章), <전사지지단제신악장>(專祀地祇壇諸神樂章)에 「응화지곡」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4)『명집례』에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명집례』	卷1	사천악무(祀天樂舞)
			卷2	망료(望燎)의식
			卷3	방구, 방구악장, 방구의주
			卷8	사직의 악무
			卷9	태사태직의주(太社太稷儀注)
			卷11	조일악장, 석월악장, 조일의주, 석월의주
			卷13	풍운뢰우악장
			卷14	지지단제신악장
			卷52	사직악장, 방구악장, 원구악장

『흠정속통전』에서 「응화지곡」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368년(홍무원년)에 환구에서 희생을 바칠 때와 '조일제'(朝日祭)에서 제기를 거둘 때, 그리고 '석월제'에서 신을 맞을 때 「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 또 1371년(홍무4)에 '별사'(別祀)에서 신을 맞을 때, 태묘에서 '진조'할 때 연주하였는데, 이는『어제율려정의후편』의 내용과도 동일하다.『태상속고』(太常續考)에서는 '환구단'에서 '진조'할 때 연주하였다.『흠정속통전』과『어제율려정의후편』, 그리고『태상속고』에 기록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5)『흠정속통전』·『어제율려정의후편』·「태상속고」에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중국문헌명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흠정속통전』	卷86	圜丘에서의 악곡명, 朝日, 夕月,(1368년)
				別祀(1371년), 太廟
		『어제율려 정의후편』	卷92	태사태직의 제사악, 조일의 악곡, 석월제의 악곡, 별사(別祀, 1371), 태묘의 악곡
		『태상속고』	卷1	환구악장

『오례통고』에 기록된 「응화지곡」을 시대별로 검토해보면, 1368년(홍무원년) '환구'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낼 때, 태사직(太社稷)에게 제사할 때 사용된 악무, 그리고 <태사직이단동유악장>과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의주(儀注)에서 모두 '진조' 또는 '봉조'(奉俎) 때에 「응화지곡」을 연주한 기록이 보인다. 1369년(홍무2)에는 <방구악장>과 <방구의주>에 보이고, 1370년(홍무3)에는 일월(日月)에게 제사지낼 때에 「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는『명사』「예지」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또한 <조일악장>과 <석월악장>에도 「응화지곡」을 연주한『명사』「악지」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방구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기단'(地示壇)에서 제신(諸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악장에 기록되어 있다. 1371년(홍무4)에는 <주천성진(周天星辰)에게 제사지내는 악장>에 「응화지곡」이 기록된『명사』「악지」를 재인용하였다. 1530년(가정9)에는 <환구악장>을 다시 제정하였는데, '진조'할 때 「응화지곡」을 연주하였다는『명사』「악지」의 기록을 재인용하였으며, 다시 제정된 <조일악장>과 <석월악장>의 「응화지곡

」에 대한 『명사』「악지」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1531년(가정10)에 『명사』「악지」에서 <기곡악장>을 다시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1532(가정11)년 『명사』「악지」에 <우사악장>(雩祀樂章)으로 「응화지곡」이 있으며, 1538년(가정17)에는 <대향악장>(大饗樂章)에 「응화지곡」이 있었다는 『명사』「악지」의 기록을 재인용하였다. 참고로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6) 『오례통고』에서 「응화지곡」의 출처와 용도

순조조의 악곡명	중국의 악곡명	사용된 연도	출처	용도
「응화지곡」	「응화지곡」	1368년	卷19 卷45	환구, 환구악장, 태사직, 태사직이단동유악장, 태사태직의주
		1369년	卷40	방구악장, 방구의주
		1370년	卷34 卷40 卷48	일월신에게 제사지내는 예[祀日月之禮], 조일악장, 석월악장, 방구에서 지기에게 제사지낼 때[方丘祭地], 지시단(地示壇)
		1371년	卷35	천성진(天星辰)에게 제사지내는 악장
		1530년	卷20 卷34	환구에서 제사지내는 악장[祀圜丘樂章], 조일악장, 석월악장
		1531년	卷21	기곡악장
		1532년	卷23	우사악장
		1538년	卷30	대향악장

중국문헌에 기록된 「응화지곡」은 앞에서 언급된 9개의 악곡들과 그 용도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것은 「응화지곡」이 명나라 황실에서 치르는 모든 종류의 '제사의식'에서 악장이나 악곡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응화지곡」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비와 천둥과 곡식의 신(神) 등 우주를 생성하고, 인류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누군가에게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왕실의 정체성, 그리고 다스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아량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사용된 「향당교주」 9개의 아명곡들은 중국문헌을 검토해본 바와 같이, 용도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악곡들이었다. 그렇다면 「응화지곡」의 사용처를 모를 리가 없는 효명세자가 자경전 내진작에서 전하가 대차(大次)로 들어갈 때 「응화지곡」이라는 아명을 명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어쩌면 당시의 왕조가 명나라 황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취지와, 대차(大次)로 사라져 가는 순조의 왕위를 계승하여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실현하려는 효명세자의 숨은 의지의 표현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향당교주」가 조선후기 정재의 반주곡이면서 여러 의식절차에 사용된 악곡이라는 점, 악기의 편성이 향악기와 당악기의 혼합이라는 외재적 특징 외에, 다양한 연구방법의 경로를 통하여 「향당교주」의 또 다른 이면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1828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향당교주」의 아명을 통하여 중국과 동일한 악곡명 10개를 그 출처와 용도, 그리고 두 왕실에서 동일한 악곡명이 사용된 연향의 성격과 그 관

련성을 검토해 보았다.

중국의 악곡명과 동일한 자경전 내진작에서의 「향당교주」 아명은 「천향봉소지곡」·「경풍년지곡」·「곤녕지곡」·「경만년지곡」·「감황은지곡」·「창운송지곡」·「하성조지곡」·「영남산지곡」·「취태평지곡」·「응화지곡」이었다. 이 10개의 곡명은 황후나 중궁전, 그리고 동궁연과 궁중의 연향에 명명된 악곡이었다.

중국문헌에 기록된 「천향봉소지곡」은 내명부의 잔치와 중궁전과 자궁의 경축일을 맞아 조하(朝賀)를 올릴 때 사용된 악곡이었다. 이는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에서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한 용도와 비교해 보아서도 내명부를 위한 악곡, 악장이라는 점, 그리고 경축일을 맞아 사용된 악곡이라는 점에서 적소(適所)에 적합한 악곡명을 선정 혹은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경풍년지곡」은 중국 황실에서 연향을 목적으로 사용된 악곡, 악장이었다. 특히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왕과 왕비에게 '찬'을 올릴 때 향당교주의 아명을 「경풍년지곡」이라 명명한 것은 중국 황실에서 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는 <전내유식악>의 용도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효명세자는 중국문헌에 기록된 「경풍년지곡」의 용도를 고려하여 자경전 내진작에서 이를 선정한 것으로 보았다.

중국문헌에 기록된 「곤녕지곡」은 토지신인 '황지기'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황후' 또는 '중궁전'의 책립의식에 사용되었다. '곤녕'(坤寧)의 의미가 '땅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것이며, 또한 생명을 창출하는 원천으로서의 땅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실제적으로 「곤녕지곡」이 '황후' 또는 '중궁전'의 책립의식에 연주된 악곡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1828년 2월 자경전의 내진작은 내명부의 수장(首長)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축하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국문헌에 기록된 「곤녕지곡」이라는 악곡명을 효명세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경만년지곡」은 중국과 조선의 궁중에서 연향악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고, 「감황은지곡」도 명대 초, '대악'에서부터 조하의식·전내유식악·연향악 등 궁중연회에 두루 사용된 악곡이었다. 이는 1828년 자경전 내진작에서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위한 악곡으로 삼기에 그 용도면에서 적합한 악곡이었다. 중국문헌에서의 「창운송지곡」은 궁중연향에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궁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효명세자에게 특별한 의미의 악곡이었으므로 이 악곡명을 선정한 것으로 보았다.

「하성조지곡」은 조선조 태종과 세종조, 그리고 중국문헌의 사료를 종합하여 검토해본 결과, 그 용도는 모두 연향에 사용된 악곡이었다. 이는 '하성조'(賀聖朝)라는 의미가 경사스러운 당대(當代) 왕조의 태평성대를 기리고 이를 경축한다는 점에서 효명세자가 자경전 내진작에서 이 악곡명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문헌에 기록된 「영남산지곡」은 동궁의 연향악장과 큰 규모의 궁중연회에서 연주된 악곡이므로, 1828년 자경전 내진작의 용도와도 관련된 악곡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천자의 즉위 등 특별한 연회에 주변국의 왕들과 귀족들이 참석한 경축연에서 사용된 「취태평지곡」은 1828년 2월 효명세자에 의해 자경전 내진작에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특별한 연회에서 이 악곡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문헌에서 「응화지곡」의 용도는 명나라 황실에서 치르는 대부분의 제례의식에서 악장이나 악곡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이했다. 이는 명나라 황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취지와, 왕권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실현하려는 효명세자의 숨은 의지의 표현으로 유추해 보았다. 따라서 1828년 2월 자경전 내진작의 「향당교주」는 향악과 당악의 혼합편성, 조선후기 정재의 반주곡이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외재적 특징 외에, 중국 궁중에서의 연향의 속성과 용도가 동일한 악곡명을 아명으로 사용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濟州島 인식

- 壬辰倭亂을 中心으로 -

이규배(탐라대)

목 차

서론
본론
제1장 임진왜란 초기의 제주인식
제2장 강화회담기의 제주인식
제3장 정유재란기의 제주인식
제4장 종전 이후의 제주도
결론

서 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제주도가 주목받은 것은 13세기에 중국 원나라 세조(世祖. 쿠빌라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제국주의시대에 제주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한 나라로는 러시아와 일본·미국 등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기록으로 미루어, 제주도가 때로는 중국 대륙을 공격하기 거점으로서, 또한 때로는 일본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목받아왔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삼국(朝鮮·明·日本)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당시는 어떠했을까? 이것이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동아 삼국의 제주인식은 임란 초기(1592년 4월~1593년 4월)와 강화회담기(沈惟敬과 小西行長의 용산회담인 1593년 4월부터 정유재란 직전까지), 정유재란기(1597년 1월~1598년 11월의 노량해전) 및 종전 이후에 따라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임란을 전후한 제주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임란과 제주도의 관계사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 이는 종래의 연구사 공백(이와 관련된 연구는 全無)을 메운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시도.

본 론

제1장 임란왜란 초기의 제주인식

1-1. 임진왜란 이전의 제주도

- 태종의 대마도 정벌 교유문(1419.6). 1424년과 1435년에도 왜구를 격퇴시킨 공로로 제주 도안무사(濟州 都安撫使) 김소 등에게 포상. 1439년에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제주도 사위에 방어소를 설치한 것은 왜구의 선착장이 될 수 있는 요해처이기 때문.

- 삼포왜란이 발발하는 1510년(중종 5) 4월에는 체찰사(體察使) 성희안(成希顔)에 의해 '제주는 왜구가 통행하는 곳'임으로 제주목사(牧使)를 교체해서 '제주의 방어에 배 이상의 조치를 더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장계. 1510년 김석철의 제주목사 파견문제를 매개로 하여 4일간이나 지속되었던 제주도와 北道의 경중론 논쟁에서는 제주 중시론.

- 1522년 6월에 '좀도둑'으로 볼 수 없는 왜선 12척이 전라도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비변사에서는 "바다 섬에 머물러 있으며 소굴을 만들고, 또한 진(鎭)을 침범하므로 제주와의 길이 장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 그들이 우리 땅을 소굴로 삼아 제주와의 길이 끊어지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니므로 단지 진만 지키면서 방어할 뿐이어서는 안 되고 수색하여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 촉구.

- 1541년에 올라온 제주목사 조사수(趙士秀)의 상소(上疏). '지리의 험이(險夷)와 군사의 허실 측량 불가함'으로 인해 제주가 침탈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당시의 실상에 대해 적시. 을묘왜변이 발발한 이후인 1555년 5월 18일에는

영경연사(領經筵事) 윤개(尹漑)와 특진관(特進官) 조광원(曺光遠)도 제주가 '지리의 험이(險夷)'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 을묘왜변 이후에도 왜구의 제주침탈은 계속해서 발생.

- 이상의 사실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삼포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제주는 왜구가 통행하는 곳'으로 '제주의 방어에 배 이상의 조치를 더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삼포왜란은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 또한 삼포왜란이 진압된 뒤에 제주목사 파견문제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도 지정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제주 중시론이 주목. 다만 '지리적 험이'로 인해 제주가 왜구의 침탈로부터 보호.

1-2. 임진왜란 초기의 제주인식

- 임란 발발 당시 3군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육지부 공략을 목표로 하여 북상하였고, 수군 주력은 해상경험이 풍부한 수군 대장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를 위시하여 토도 다카도라(藤堂高虎)·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의 부대로 편성. 제주를 공략목표로 하는 부대는 편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임란 초기에는 제주공략에 대한 풍신수길의 전략구상은 없었다.[1)]

- 육로와 달리 수로에서는 일본군의 연전연패.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을 필두로 당포해전(1592.6.2)·율포해전(1592.6.6)·한산해전(1592.7) 대패 이후 풍신수길은 거제도와 요충지에 성채를 공고히 하고 조선 수군과의 해전중지를 명령. 때문에 1592년 7월 중순 이후 일본 수군은 해전회피라는 方略에 준거해서 적극적 수전에서 오로지 海口를 방비하는 수세적 전략으로 선회.

- 일본이 새삼 제주를 주목한 것은 1593년 하반기 이후.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金應瑞)의 치계(1594년 6월 21일). '각추(各酋)가 평양과 전라에서 실패한 것을 깊이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1593년 7월 중으로 1기는 제주로부터 곧바로 전라도로 침범해가고, 1기는 경상도로부터 곧바로 경기도로 들어가 동서에서 분탕질하며 이내 합세하여 서쪽으로 침략한다.'[2)] '각추가 평양과 전라에서 실패'했다는 정보의 실체는 小西의 평양성 퇴각(1593.1)과 옥포해전 이후의 남해안 제해권 상실로 인한 전라도 진입 실패. 이 때문에 일본은 남해안을 경유하는 침범로를 포기하고 제주를 전라도 침범을 위한 우회경로. 이 비보에 의거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제주가 일본의 공략 대상지로 거론.

- 한편 明軍의 임란 참전은 경기 북부지방이 침략당한 1592년 8월 이후. 그러나 왜군의 동정을 정탐하자는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명나라 사신 심유경(沈惟敬)의 조선파견도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 다만 임란 초기에 명나라 수군의 조선 파병은 충분히 구상. 일례로 "중국에서 山東道 수군 10만으로 하여금 수로를 경유하여 곧장 왜적의 소혈(巢穴)을 두들길 모양"[3)]이라는 정황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때까지는 제주에 주목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음.

제2장 강화회담기의 제주인식

- 제주를 경유해서 전라도로 침범한다는 치계와는 달리 1593년 7월에 제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 여기에는 일본 수군의 패퇴를 비롯하여 심유경과 고니시가 용산에서 개시한 강화회담(1593.4.8)이라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전황 상으로도 小西行長·加藤淸正·黑田長政·脇坂安治(脇坂安治는 九鬼嘉隆과 상호 교체) 등 10여 명의 장수와 약 4만 명의 병사만 조선에 주류시키고 1593년 8월~10월 사이에 일본 병력 본국으로 회군. 9월에는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이 일본의 재공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주력부대를 본국으로 철수.

-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인 1593년 10월에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해서 거론. 이조판서 김응남(金應南)이 선조에게 "신이 전에 제주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강 수로를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중국 江南을 가려면 매우 멀지만 전라도에서 요동에 가기는 매우 가깝습니다. 만일 호남으로 해서 바로 요동을 침범한다면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고 보고.[4)] 중국에 대한 공략이 가능한 거점으로서 비록 '매우 멀다'는 전제는 깔려있었지만,

---

1) 임란 초기 일본 수군의 주력부대는 경상도 연안을 장악한 뒤에 이곳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경비를 담당하며 西進을 도모하지 않았고, 반면에 脇坂安治는 수군 장수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龍仁 수비를 담당. 參謀本部 編纂『日本戰史 朝鮮役(本編 附記)』東京: 偕行社, 1924, p.212, p.216.

2) 언양현감(彦陽縣監) 위득화(魏得和)의 비보(飛報). 『宣祖實錄』56卷, 27年(1594) 10月 10日(甲寅). 趙慶男『亂中雜錄』三, 甲午年(1594년), 6월 7일.

3) 의주목사(義州牧使. 黃璡)의 보고. 趙慶男『亂中雜錄』一, 壬辰 上, 선조 25년(1592년) 기사. 『宣祖實錄』27卷, 25年(1592) 6月 11日(己亥).

제주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거론된 것은 이것이 초출기록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해서 명나라 관계자들은 이 거리를 '매우 가깝다'고 인식. 영의정 유성룡은 선조에게 "장 파총(張把總)의 품첩(稟帖)을 보니, 제주에서 절강(浙江)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했습니다. 남송(南宋) 때 양유성(楊惟省)이 예성강(禮成江)에서 배를 띄워 6일 만에 제주도에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절강이 4일 길이라고 합니다. 장 파총이 산동장관(山東將官)에게 이첩(移帖)하기를 '지금 수로의 형세를 보니 만약 크고 작은 병선 5척만 얻으면 왜적의 양도(糧道)를 끊을 수 있고, 대마도도 격파할 수 있다.' 하였으니, 만약 수로로 직접 서생포같은 곳을 치면 적이 웅거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5] 명나라도 제주를 중간거점으로 삼아서 이순신과 협공체계[6]를 구축하고자 했음. 왜선을 협공하기 위해서 이순신 수군과 제주의 명나라 수군이 협력하자는 제안. 한편 실제로도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 수군이 제주를 향해 출병했다는 정보를 1594년 8월 20일에 입수. 명 수군의 출병정보에 대해 선조는 산동반도나 요동반도를 거쳐 황해도를 경유하는 북방의 우회 해로로 인식.[7] 이에 반해서 윤근수는 중국의 강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남방의 직선 해로를 염두.[8]

- 이러한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본의 제주공략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현실감. 1595년 10월 비변사의 보고. "제주가 海中의 絶島에 있으므로 적이 이곳을 엿보면서 연(燕)·제(齊)·계요(薊遼) 등을 침범하고자 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쳐 돌아온 사로잡혔던 사람 및 항복한 왜인이 말한 바도 가끔 이러하였으니 방비에 관한 일이 더욱 긴요합니다. …… 이 한 州 및 진도도 반드시 각별히 경리(經理)한 뒤에야 가합니다."[9]

- 명나라에서도 제주가 일본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듯이, 일본에서도 제주가 산동반도·요동반도 일대를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목.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조선 조정의 경계심은 1596년 새해 벽두부터 유성룡에 의해서 제기. "금년 봄에 방어하고 수비할 계책을 시급히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른 곳은 다 거론할 수 없거니와 제주가 특별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서남쪽으로 바다를 정면하고 있고 또 중국과 서로 가깝습니다. 왜적이 만약 이곳을 점거하게 되면 비록 천하의 힘으로 탈취하려 하여도 탈취하지 못할 것입니다."[10]

- 그로부터 2주가 지나는 1596년 1월 17일의 조강(朝講) 후에 선조도 제주 방어문제 거론. "적이 만일 제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적이 전함 1천척으로 곧장 항구에 침입 상륙하여 영책(營柵)을 설치하고 지구전을 획책한다면 우리나라 병력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11] 이에 유성룡은 "제주는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한산도에만 치중하고 제주는 아예 제쳐놓습니다. 적이 만약 이곳에 웅거하게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원(中原)에도 또한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이 이러한 형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된다."[12] 조정이 이순신을 향해서 "전라도 수군 중에 우도의 수군은 제주와 진도를 성원하라는 명령"[13]을 내린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 이러한 상황은 정유재란 직전까지 지속. 1596년 12월 23일 비변사의 건의에 따르면, "2~3개월 후에 왜적이 재침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온다면 먼저 전라도와 제주도를 침범하고 또한 주사(舟師)를 침범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일에도 신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고 보고.[14]

- 이처럼 제주는 朝·明·日 삼국에게 상대지역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으로 끊임없이 주목. 이순신에게 '제주를 성원'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나 명나라 수군의 제주출병 구상 및 정보, 일본의 재침 시에는 '먼저 제주도를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는 지정학적 제주인식이 반영된 결과.

---

4) 『宣祖實錄』 43卷, 26년(1593) 10월 22일(壬寅).
5) 『宣祖實錄』 54卷, 27년(1594) 8월 12일(丁巳).
6) 『亂中日記』의 1594년 11월 28일 이후의 기사 참조.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 p.193, p.230.
7) 『宣祖實錄』 54卷, 27년(1594) 8월 20일(乙丑). 趙慶男 『亂中雜錄』 三, 甲午年, 선조 27년(1594년) 8월.
8) 『宣祖實錄』 54卷, 27년(1594) 8월 20일(乙丑). 丁若鏞 「海防考敍」 『茶山詩文集』 제15권.
9) 『宣祖實錄』 68卷, 28년(1595) 10월 27일(丙寅).
10) 『宣祖實錄』 71卷, 29년(1596) 1월 3일(庚午).
11) 『宣祖實錄』 71卷, 29년(1596) 1월 17일(甲申).
12) 『宣祖實錄』 71卷, 29년(1596) 1월 17일(甲申).
13)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 p.322. 『宣祖實錄』 71卷, 29년(1596) 1월 22일(己丑).
14) 황신의 서계(書啓). 『宣祖實錄』 83卷, 29년(1596) 12월 23일(乙酉).

제3장 정유재란기의 제주인식

-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7년 이후에도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조선 조정의 우려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제주판관 파견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확인 가능. 제주 판관을 문관으로 임명하자는 대간의 청에 대해 좌의정 김응남은 "적들이 한창 넘겨다보고 있는데, 이 州에 문관을 골라 보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무변(武弁)에서 가려 뽑아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영의정 유성룡 등 조정의 의견도 한결같이 "문관을 뽑아 보내는 것은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무변에서 가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 이유는 병조판서 이항복의 지적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관이 전함에 올라 선봉"에 서야 한다는 데 함축.

- 이처럼 일본의 제주공략 우려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보고가 1597년 6월 14일의 경상우도 병사 김응서(金應瑞)의 비밀장계에 보인다. 여기에 따르면, "관백이 50만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우선 30만의 군사를 먼저 내보내 전라도·제주도 등을 유린하고, 의령·경주의 산성은 기필코 攻破한 뒤에야 그만둘 것인데 6~7월 사이에 발동시킨다."는 것.[15] 구체적으로는 "(1597년) 8월 1일에 곧바로 전라도 등지로 들어가 곡식을 베어 군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할 것이며 보장할 만한 형세가 있거든 두 도에 유둔하면서 이어 제주도를 치라. 만약 불가하거든 군사를 돌려 고성(固城)에서 서생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이어 둔을 치고서 조선에서 강화를 애걸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것.[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풍신수길이 하달했던 '만약 불가하거든'이라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 즉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한 조선 수군이었지만, 이순신은 10여 척의 전선을 토대로 수군재건에 성공. 결국 남원성 점령 이후 서해로 본격 진출하려던 일본 수군은 이순신 수군에 의해 남해안 제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 명나라에서도 제주문제 주목. 1597년 9월 흠차 부도어사(欽差副都御史) 형개(邢玠)가 보낸 자문(咨文). 한 달 전인 1597년 8월에 남원성이 함락된 위중한 사태가 반영. "왜적이 만약 전라도를 점거하게 되면, 멀리는 서해 일대에서부터 가깝게는 진도·제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왜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면 1~2일 정도 순풍만 불어도 압록강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개성과 평양도 족히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17] 전라도의 함락이 제주의 함락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 이런 사태는 유성룡이 지적(1596년 1월 17일의 조강 후)한 바와 같이 '적이 만약 제주에 웅거하게 된다면 중원에도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제주는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 방어를 위한 요지에 해당하는 곳이었던 셈.

- 한편 남원성이 함락된 2개월 뒤인 1597년 10월에 명나라 조정에서는 제독 동일원·유정과 수병제독 진린의 조선출병을 결정. 廣東·江蘇·浙江의 수군이 출병하게 된 것은 임란 당시 일본군의 측면과 배후를 위협하지 못한 전략 검토에 따른 조치. 이 일환으로 동년 12월에는 장수 절강유격(浙江遊擊) 계금(季金)이 거느린 수군 수천 명이 해로를 경유해서 남원에 이르러 시라산(時羅山)에 진을 친다. 수전을 위한 해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육전을 위한 지상으로 이동. 또한 진린이 1598년 7월 16일 수병 5천 여 명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이순신의 거점이었던 고금도(古今島). 결국 명나라 수군의 본격 참전은 일본에 대한 사로병진 작전(四路竝進 作戰)이 개시되는 1598년 초에 들어서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빈번하게 대두되었던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宣祖(修正)實錄』『明史』에는 양국 수군의 제주출진과 관련된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 일본측 관련 자료인 小瀨甫庵『太閤記』(1625)·幕府編修 역사서 林家『本朝通鑑』(1670)·武家 백과전서 山鹿素行『武家事紀』(1673)·전국시대~江戶시대 무사 軍談書 湯川常山『常山紀談』(1739)·참모본부『朝鮮地誌略』(1888)·『日本戰史 朝鮮役(本編 附記)』(1924)·佐藤鐵太郎『帝國國防史論』(1908) 등에도 제주교전 언급없음.

제4장 종전 이후의 제주도

- 일본에 대한 조정의 경계심과 제주공략에 대한 경계심이 연동. 1599년에 제주도에 문관을 파견하는 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변사는 "제주 고을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 은택을 입지 못하니 대간이 문관을 판관으로 차임해

15) 『宣祖實錄』89卷, 30년(1597) 6월 14일(癸酉).
16) 韓致奫「本朝備禦考三 馭倭始末三」『海東繹史』卷第六十三, 1597년 6월.
17) 『宣祖實錄』92卷, 30년(1597) 9월 20일(丁未).

보내고자 한 것이 범연한 뜻은 아닙니다. 다만 큰 적이 물러갔어도 재침할 환난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이때 방어가 긴급한 외딴 섬에 문관을 차견하는 것은 상책이 아닐 것 같습니다."고 의견 피력. 선조도 이에 동의.[18]

- 이러한 경계심이 허구가 아님이 판명. 1601년 5월 선조 비망기. "지난 번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 온 사람의 말을 듣건대 '대마도의 왜적이 장차 제주를 도모하려고 한다.' 하였다. …… 제주에 적변이 있게 되면 그 형세가 지탱하기 어렵다. 혹시 불행하게도 적이 탐라를 점거하여 소굴로 삼는다면 다른 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된다. 제주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긴 하지만 천하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다."[19] 비변사에서도 "제주는 … 만일 적에게 점거되면 우리의 팔꿈치와 겨드랑이의 걱정이 되어 만세의 근심거리"[20]가 된다고 응답.

- 이처럼 제주는 종전 후에도 '천하의 안위'가 달려있고 '조선의 팔꿈치와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지정학적 요지로 인식. 이 때문에 제주에 관료·원병을 파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 조정의 다대한 관심과 주목. 선조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인식은 오히려 더욱 강화. "제주읍은 지형상으로 우리나라의 형세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의 형세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이다.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여 적의 소굴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다시 수복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주를 방어하지 못하게 될 때는 실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때인 것이다."[21] 이 때문에 북방의 정세를 잘 아는 이괄을 이미 제수된 대정현감에서 북방의 변장(邊將)으로 임지 교체하자는 영의정 이덕형의 요망에 대해 선조는 "이괄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제주도 중요한 곳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갈아야 하겠는가."며 제주 중시론을 내세우며 반대.[22] 선조는 1604년에도 제주 판관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최관(崔灌)을 차출하는 인사에 대해 준엄하게 힐책. "제주는 바다 밖의 외딴섬이라서 흉적이 항상 엿보며 침을 흘리고 있는 곳이다. …… 당세의 지혜롭고 용맹한 선비로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없지 않을 텐데 굳이 그러한 사람을 버려두고 이런 자를 취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나랏일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장차 탐라를 적에게 주려는 것이다."[23]

- 그러나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 1607년 이후로 들어서면 조선 조정의 일본 대응에도 변화가 감지. 일례로 1612년에는 광해군(光海君)이 제주목사에게 전교를 내리면서 일본 표류인 대우문제로 인해 사단을 일으키지 말도록 신중한 대처를 하달. 이러한 광해군의 조처는 2년 뒤인 1614년에도 발견.[24] 그러나 동시에 제주는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 거점이라는 인식이 『光海君日記』에 기록. '미천하고 어리석으며 용렬한' 탐관오리였던 제주목사 양호(梁護)를 경질시키는 과정에서 사간원에서는 "제주는 바로 바다의 주진(主鎭)으로 섬 오랑캐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논급하면서, 때문에 "만약 어루만지고 통어하는 도리를 잃게 되면 백성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니, 예로부터 수령을 매우 신중하게 뽑아 보냈던 것은 뜻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25] 1607년부터 양국의 국교재개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는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임란의 기억이 선명한 조정의 관료들에게는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가 망각된 것은 아니었다.

- 다만 인조 즉위년(1623년)에 들어서면 종래와는 판연히 다른 논의가 전개. 일례로 1623년·1626년·1648년 논의에서 이항복의 지적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함에 올라 선봉'에 서야 하는 무관 당위론과는 달리 문관을 차송하는 확연한 변화. 동시에 제주목사·판관 파견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예전과 같은 제주의 지정학적 중시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움. 여기에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변화가 일정 정도 작용.

- 일본의 경우. 1621년 7월에 德川막부가 전국에 해적 금지령을 발령. 1623년 7월에는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가 취임하면서 일본 국내는 안정적인 통치기반이 구축. 즉 중앙의 통제력이 살아나면서 왜구의 한반도 침탈이 사실상 종언을 고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이 해소. 한편 조선 조정에서는 1607년 대일 수호와 임란포로 쇄환을 위한 제1차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된 이래, 1617년 제2차 조선통신사, 1624년 제3차 조선통신사 파견. 내면적으로는 임란의 內傷을 안고 있으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양국의 선린우호관계가 결실을 맺는 단계로 진입. 따라서 일본의 제주공략에 대한 가능성과 경계심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

---

18) 『宣祖實錄』 113卷, 32년(1599) 5월 25일(壬申). 『宣祖實錄』 140卷, 34년(1601) 8월 3일(戊辰).
19) 『宣祖實錄』 137卷, 34년(1601) 5월 11일(戊申).
20) 『宣祖實錄』 137卷, 34년(1601) 5월 12일(己酉).
21) 『宣祖實錄』 158卷, 36년(1603) 1월 14일(辛未).
22) 『宣祖實錄』 165卷, 36년(1603) 8월 30일(癸丑).
23) 『宣祖實錄』 181卷, 37년(1604) 11월 1일(丁丑).
24) 『光海君日記』 80卷, 6년(1614) 7월 2일(壬子).
25) 『光海君日記』 159卷, 12년(1620) 12월 3일(丙午).

- 중국의 경우. 1616년에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 후금은 朝·明 연합을 막기 위해 1627년 정묘호란 도발. 즉 여진족의 발흥으로 인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북방의 사태가 긴박한 중대현안으로 부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온한 남방의 제주는 조정의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

- 1623년 이후의 『조선실록』 기사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 힘든 것도 이를 반증.

결 론

-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1594년 이후인 임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위상으로 인해 전란 당사국들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누가 제주를 점거하는가에 따라서 明·日을 견제하고 공략할 수 있는 선점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주목받는 지역. 다만 조정에서는 제주를 조선을 지키기 위한 전수방어적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었다면,[26] 明·日 양국은 제주를 상호 공략할 수 있는 공격적 거점으로 주목. 근대에 들어 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한 구미열강의 제주에 대한 주목은 이러한 공격적 거점으로서 제주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에 기인. 이로 미루어 본다면 제주를 둘러싼 임란기의 방정식은 근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적용.

주요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李忠武公全書』

金健瑞『增正交隣志』

미상『壬辰錄』

유성룡『징비록』

趙慶男『亂中雜錄』

韓致奫『海東繹史』

小瀨甫庵 著·吉田豊 譯『太閤記』(三), 東京: 敎育社, 1988.

佐藤鐵太郎『帝國國防史論』東京: 水交社, 1908.

竹越與三郎『二千五百年史』下,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1990.

山鹿素行『武家事紀』上卷, 東京: 山鹿素行先生全集刊行會, 1915.

湯川常山『常山紀談·武林名譽錄』東京: 國民文庫刊行會, 1912.

林家『本朝通鑑』卷第77-卷第80, 東京: 博文館, 1897.

參謀本部 編纂『日本戰史 朝鮮役(本編 附記)』東京: 偕行社, 1924.

陸軍參謀本部『朝鮮地誌略』卷 8 (全羅道之部), 東京: 陸軍參謀本部, 1888.

張廷玉 等『明史』

연구논문은 생략.

---

26) 鮮初 이래의 수군 강화노력은 왜구를 상륙하기 전 단계인 해상에서 방어하자는 '해상거부'에 가까운 해양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세조와 중종대에 들어서면 이마저도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 일본의 장기인 수전을 피하고 조선의 장기의 騎兵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적군을 제압한다는 이론)으로 선회하기에 이른다. 李敏雄「壬辰倭亂과 동북아 삼국의 海洋戰略」『島嶼文化』제25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5, pp.108-114.

해양에서 바라 본 《만국공법》

-대고구(大沽口)선박사건을 중심으로

조세현(부경대)

1. 서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전통시대에서 근대시기로 넘어오는 것을 "조공책봉체제에서 만국공법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좁은 의미에서 책이름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1)]

이번 연구는 해양의 관점에서 《만국공법》에 나타난 국제법을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국공법》의 내용 가운데 해양관련 법규가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국공법에는 해적행위를 금지하고 해상범죄를 징벌하는 내용,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규칙, 군함을 만들고 해군을 육성하는 것 등 해양법 관련 조항이 거의 총망라하여 실려 있다. 우선 《만국공법》에 나타난 해양(국제)법의 대강을 살피고, 다음으로 실제 해양사건에 법규가 어떻게 반영되었나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바다에 투영된 근대적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밝힐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런 연구과정의 하나로 청조가 《만국공법》 출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만든 사건, 즉 프로이센 공사와 총리아문 간에 벌어진 이른바 '대고구(大沽口)선박사건'이란 한 분쟁사례만을 제한적으로 다룰 것이다.

2. 본론

《만국공법》의 번역과 출판은 우연한 기회에 총리아문의 지지를 얻으면서 손쉽게 이루어졌다. 그 우연한 기회란 중국 근해를 배경으로 벌어진 프로이센-덴마크 간 해양 분쟁이라 흥미롭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과 《만국공법》의 해양관련 법규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4년 초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O. von Bismarck)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 문제로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덴마크와 전쟁 중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봄, 중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프로이센공사 레프스(M. von Rehfues)가 가젤(Gazelle)호 군함을 타고 천진 경유해서 북경으로 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천진 주변의 대고구에서 마침 바다에 떠있는 덴마크 선박 3척을 발견하고는 이들을 나포하였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청은 프로이센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게 되었다.

---

1) 널리 알려졌듯이, 《萬國公法》(1864)이란 책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W. A. P. Martin, 1827~1916, 중국명 丁韙良)이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휘튼(Henry Wheaton, 1785~1848, 중국명 惠頓)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판)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그 제목을 《만국공법》이라고 붙였던 것이 그 유래이다. 휘튼의 저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던 국제법 개설서였으며, 그 번역서인 《만국공법》은 중국인에게 근대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이었다.

총리아문이 이 사건을 처리할 때 활용한 원칙은 《만국공법》이었는데, 당시 《만국공법》은 갓 번역을 마친 상태여서 총리아문의 고급관리들은 번역원고를 읽은 상태였다. 그런데 총리아문이 프로이센과의 분쟁과정에서 《만국공법》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활용했으며, 겉으로는 기존 조약의 내용에 따라 논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당시 총리아문이 이용했을 법한 《만국공법》의 조항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만국공법》에는 전쟁 중 중립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무릇 自主의 국가에서는 타국이 교전하는데 만약 맹약이 없어 제한을 받으면 신분을 局外(중립)로 놓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局外의 全權이다. 자주의 국가는 본래 이런 권리가 있으니, 의심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부정하는 것은 곧 자주하지 않다는 것이다... 局外者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뜻이 있으면 반드시 준수하고 특히 준수하면서 편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局外의 국가가 양국과 우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은 두텁게 하고 저쪽을 얇게 해서는 안 된다."[2] 이 규정은 바로 청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프로이센의 입장을 반영하는 규정도 엿보인다. "육로의 교전은 그 법이 전에 비해 비교적 너그러워져 비록 적국의 민간물자라도 빼앗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해군(水師)교전에서는 그 예가 엄격해 적국의 민간물자라고 하더라도 大海 상에서나 항구 선상에서는 모두 나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수륙이 같지 않은 한 예이다...만약 해상의 전투에서 적국이 통상으로 이익을 얻으면 錢粮을 양병할 수 있으니, 민간물자를 나포하는 것은 그 이익을 끊어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3]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립국인 중국의 영해 상에 있던 적선(덴마크 상선)을 나포할 권리가 프로이센에게 있는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만국공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현재의 일반적인 예로 적의 화물이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거나 局外의 땅에 있으면 모두 戰權의 밖에 있는 것이니 나포할 수 없다. 局外의 땅에 있으면 나포할 수 없는 까닭은 적국의 權利 안에 있기 않기 때문으로 실로 우방국의 권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4] 이처럼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局外의 땅, 즉 중립국에서 전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전쟁법의 중요한 원칙과 규정의 하나였다. 이런 조항에 따른다면 프로이센 공사가 중국의 영해 내에서 적대국의 선박을 나포한 것은 명백하게 공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아문은 중국 해안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중국 주권의 침해라고 《만국공법》 번역원고를 은근히 인용해 프로이센 공사를 반박하였다.

《만국공법》 제4장 제6절 '연해근처를 관리하는 권리' 항목에는 "(領海에 대해서) 각국이 관할하는 海面과 海口 澳灣 長磯所抱의 바다와, 그밖에 연해 각처와 해안으로부터 10리 거리 떨어진 곳은 관례에 따라 역시 그 관할이다. 대체로 대포의 포탄이 미치는 곳은 국권도 미치는 곳으로, 무릇 전부가 그 관할에 속하며 타국에게 주지 않는다."[5] 여기서 얘기하는 영해주권 원칙은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었다.[6] 이처럼 총리아문은 프로이

2) 《萬國公法》(제4권, 제3장)
3) 《萬國公法》(제4권, 제1장)
4) 《萬國公法》(제4권, 제1장)
5) 《萬國公法》(제2권, 제4장) 제6절 <管沿海近處之權> 조항.
6) 한편 公海에 대해서도 "洋海가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국은 專管을 할 수 없다. 과거에 저명한

센 공사가 나포한 덴마크 상선이 있던 수역은 중국의 "內洋"(領水)이며,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여 프로이센 측을 결정적으로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프로이센 공사 레프스는 "이 선박을 구류한 것은 유럽에서 정한 군법에 따른 것으로, 그 구류하는 곳이 해안으로부터의 원근 역시 萬國律例의 적선을 포획하는 거리에 따랐다."[7]고 반박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선박을 구류한 곳은 공해이지 중국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선박을 규류한 장소인 대고구는 의심할 바 없는 중국 관할의 內洋으로, 《만국공법》에서 규정한 '閉海'[8]에 해당하므로 중국 관할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총리아문의 공친왕 奕訢 등은 프로이센 공사를 비판하며, "중국이 각 바다를 나누는 데 專條가 있고, 각국과의 和約에도 고루 이런 예가 있다. 귀국의 화약 중에도 中國洋面 글자가 실려 있을 것이니 각국의 아는 바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할 것이니 어찌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9] 이처럼 프로이센 공사가 한 일은 체결한 조약조차 위반한 것으로 조약의 준수 역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임에 분명하다.[10] 아울러 "외국이 중국의 洋面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을 구류하는 것은 분명하게 중국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으로 중국과 큰 관계가 있다. 귀 대신은 귀국에서 파견한 것이니 장차 귀국과 중국 간에도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다. 먼저 문제를 매듭짓고 장차 기일을 정해 접대할 것이다."[11] 이처럼 최종적으로 레프스가 덴마크 상선을 석방하지 않으면 청조는 장차 신임공사로서 접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프로이센 공사의 행위는 분명하게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사건을 계속 끌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았다. 결국 청조의 주지아래 구류중인 세 척의 덴마크 선박 가운데 두 척은 교섭 초기에 석방되었고, 세 번째 선박은 프로이센으로부터 1,500元洋銀의 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리고 레프스는 그 해 6월 중국을 떠나 프로이센으로 돌아갔으며, 1865년 말 다시 중국에 와서야 정식공사로서 인정을 받았다. 한편 유럽에서 프로이센과 덴마크의 전쟁은 덴마크 측의 패배로 끝나 전쟁의 계기였던 공국의 통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보통 이 전쟁은 비스마르크가 무력으로 독일을 통일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한다.

1864년 8월 30일 총리아문은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 관련 업무를 보고하면서, "신들이 이 외국율례의 책을 조사하여 보니 중국제도와 모두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역시 채택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프로이센이 천진 해구에서 덴마크 선박을 억류한 사건이 있어서 신들은 이 율례 중의 말을 몰래 채용하여 변론하였더니 프로이센 공사는 곧 착오를 인정하고 말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 한 증거입니다."[12]라고 하였다. 이런 성

학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기에 지금 또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법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진실로 '大海'(지금의 公海)는 본래 만국공용으로 날씨나 태양과 같이 사람이 사사로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단지 만국의 통행과 왕래를 걱정할 뿐이다."라고 언급한다(《萬國公法》(제2권, 제4장) 제10절 <大海不歸專管之例> 조항).

7)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6.

8) 《萬國公法》(제2권, 제4장)

9)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6.

10) 청조는 1861년과 1863년에 프로이센과 덴마크와 각각 통상조약과 해관세칙을 맺었다.

11)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6.

과에 고무된 총리아문은 《만국공법》 300부를 국가비용으로 인쇄해 각성의 독무에게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만국공법》이 청조의 고위관리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이자, 서양의 만국공법이 해양 분쟁의 해결에 처음 활용된 사례였다.[13]

3. 결론

1863년 프로이센-덴마크 간 대고구선박사건의 해결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프로이센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통일과 전쟁에 바쁘고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 단계라 영향력이 많지 않았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둘째, 열강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이센 공사는 열강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다. 열강은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중국에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덴마크와 가까웠다. 셋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친왕은 총리아문의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의욕이 왕성해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14] 비록 교섭의 결과 프로이센이 덴마크와의 분쟁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앞으로도 국제법상의 상호평등의 원칙 아래 중국과 교류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부 청조관리들에게 국제법의 의의를 인식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이 분쟁의 교섭과정은 청조의 국제법 인식의 시작을 보여준다. 청조는 해상에서 외국군함이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해양(국제)법을 이용해 자국의 해상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만국공법》에서 전쟁법 부분은 외교교섭 중에 종종 사용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청조가 《만국공법》을 同治 연간에 중외조약에 활용한 대표사례로는 《中英新修條約》, 《中日修好條規》, 《中日北京專條》(대만사건에 따른 유구문제) 등이 있다. 이 책이 1864년에 공식 출판되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19세기 후반에 서양의 국제법을 보통 '공법' 혹은 '만국공법'이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덧붙여 기억할만한 사실은 총세무사 하트(Robert Hart)나 미국공사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등이 청조에 국제법을 추천한 인물들로, 이번 대고구선박사건을 통해 《만국공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총리아문은 국제법을 이용해 외교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다.[15]

---

12)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6.

13) 대고구선박사건은 1868년 체결된 《中美續增條約》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의 제1조에는 국제법상의 領海主權과 局外中立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14) 참고로, 이 사건 자체가 서방국가의 중국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은 열강의 중국에서의 모순을 보여줄 뿐이며, 일설에는 중국의 항의는 영국이 부추긴 것이라는 견해조차 있다.

15) 청조가 처음 국제법을 받아들일 때, 미국과 영국 간에 벌어진 유명한 해양 분쟁인 '알라바마호'사건의 소개와 전파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공사 벌링게임은 마틴이 《만국공법》을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법을 중국에 소개하는데 공헌한 것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알라바마호의 중국근해 출현가능성을 놓고 청조와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구미열강의 국제법 질서를 빨리 이해하기를 바랐다. 마침 이 교섭이 있은 지 오래지 않아 본 발표에서 소개한 프로이센-덴마크 간 대고구선박사건이 일어났다. 벌링게임은 물론 하트, 마틴이나 프라이어 등도 번역서를 통해 알라바마호 분쟁을 국제중재방식으로 해결한 것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라고 여겨 널리 선전하였다.

清廉潔白な奉行人—室町幕府奉行人依田時朝に関する一考察—

亀田　俊和（兵庫大学）

1

〔史料１〕『東寺　学衆方引付』応安２年（1369）12月18日条

－　奉行依田入道節料事〈十二月廿八日遣之、二貫文、　両種〉、

□□□□□　々雖持向、毎度不領納之、然者節料尤可遣之、料足可為二貫、但杉原・扇等、随其物、多少可相計矣、

「□□□□□□」＝□□□□、□□□□の□□□

2

康永３年（1344）、侍所奉行人「依田左近　将監」※侍所頭人細川　顕氏

延文３年（1358）、幕府評定に　参加、「依田左近大夫」

貞治４年（1365）、二代　将軍足利義詮母登子死去、北朝、登子に従一位を追贈

増官位宣下に際し勅使参向の先例について、北朝に問い合わせる

貞治５年（1366）、斯波高　経失脚に伴い、恩賞方の奉行人を罷免される

〔史料２〕『後愚昧記』貞治５年（1366）8月18日

□□□、（□□）□□□□　　没落以後、奉行□　々有黜捗沙汰、（ 中略）又依田左近大夫・中沢掃部允等被除恩賞奉行云々、（ 後略）

貞治 6年（1367）~応安2（1369）、吉祥院修造段　　銭奉行、「依田左近大夫入道元信」

応安4年（1371）、石 清水八幡宮三所神殿造営奉行

応安5年（1372）、再度吉祥院修造段　　銭奉行

応安6年（1373）、評定衆

永和 4年（1378）、等持寺 を十刹 の第一位 とする御　　教書発給、その奉行

康 暦1年（1379）、幕府評定 に 参加 ※康 暦の政変直後

3

足利直義 ：康永 3年（1344）当時の室町幕府を主導

□□□□□□　顕氏：観応の擾乱(1350）では、当初直義党として尊氏軍と交戦

□□□ 経：観応の擾乱では、顕氏と同様当初直義派

将軍義詮期：引付方を重視し、その活動を基軸に据える政策を推進

※同 じく引付方 の活動 を重視 した直義 の政策 への回　　帰路線

↓

□□□□ :□□□□ の□□ に　　属する奉行人

□□□□：□□を□い、□□も□まなかった□□

□□の□□を□って、□り□を□として□け□らなかった□□な□□

→□□□□の□□は、□い□に□けた□□の　**薫陶の影響？**

A study of *Yoda Tokitomo* – life of a bureaucrat of *Muromachi* shogunate

Kameda Toshitaka

Yoda Tokitomo was a *Bugyonin* (a bureaucrat of *Muromachi* shogunate) of *Muromachi* shogunate in *Nanbokucho* period. He was a man of integrity in his period.

He was the senior member of the staff of *Bugyonin* in early *Muromachi* shogunate, which was under the control of *Ashikaga Tadayoshi*. And in the age of *Ashikaga Yoshiakira* (the second Shogun of *Muromachi* shogunate), he belonged to the faction of *Shiba Takatune*, who inherited the policy of *Ashikaga Tadayoshi*.

It may be inferred from these facts that *Yoda Tokitomo* was a *Bugyonin* who was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Ashikaga Tadayoshi*. It is a famous fact that *Yoda Tokitomo* hated unfairness and also disliked drama. *Ashikaga Tadayoshi* may have influenced such his behavior.

御成敗式目 42 条再検討への東アジア的一視点

―― 産土・墓所の成立する頃 ――

兵庫大学・経済情報学部・金子　哲

【はじめに】

日本社会の「物に対する執着」は東アジア内ではいささか異様なのかもしれない。所謂ゴミ屋敷はこの執着の終着駅であり、アキバ文化もこの執着傾向のヴァリアントであろう。

日本社会に比して韓国社会が物に対するこだわりが少ないことは、多くの論者によって指摘されている。例えば遺品・形見に対する対応の違いなどに、この差は顕著に顕れる、という。

この差異は、転居の頻度にも表れているように感ずる。住み慣れた家に執着し転居を厭う日本社会と、僅かでも好条件を求めてたやすく転居を繰り返す韓国社会の差は大きい。持ち家制度・貸屋制度の違い、特にその蓄財機能の差に一因はあるのだが、それ以上に文化的差異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

日本社会が強く定住思考を有するようになるのは「惣」成立期以後である、との視点に本論は立っている。この仮説から御成敗式目 42 条を検討してみたい。

【１．李氏朝鮮期地方平民層の移動傾向】

李氏朝鮮期の平民身分の地方農民層が顕著な移動傾向を有し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慶尚道丹城県悟洞面の 16 世紀ー19 世紀の戸籍を分析した吉田光男は、同面の平民農民層「戸」は 10ー20 年程度しか定着せず、近在の村落を頻繁に移住していたことを指摘した。さらに、同一村落内においても頻繁に居住家屋を移転する事実も指摘した。これらの良民層農民の移動の中には「逃亡」も含まれていた。（吉田光男「近世韓国における住民の居住地移動」、韓国・朝鮮文化研究会編『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第七巻　移動という視座　空間・場所・地域をめぐって』、風響社、2008 年 10 月 15 日、pp.31ー61）

一方、地域への顕著な定着傾向を有するのは士族層であったことも指摘されている。士族層は所属する地域を有したが、非士族層にとっての地域は一時的に滞在する空間であり、所属する空間ではなかったとされている。

李氏朝鮮期の地方小農民層が土地経営の主体とな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社会構造と、この移動傾向は密接に関連していた。

当該期朝鮮半島南部の農業生産力が「劣悪」であったわけではない。華北系

農業技術が十分に浸透しており、相応の生産力を有していた。小農民層の顕著な移動傾向は、あくまで社会構造・システムの問題として考えるべきであろう。

鎌倉期までの農民の移動傾向の原因を「劣悪な生産力」に安易に求めてはならない。網野善彦氏が指摘するように、日本社会は南北朝期に大断絶を有しており、鎌倉期までの日本社会と李氏朝鮮・韓国社会がより近い、という指摘を踏まえて、考察を進めたい。

【２．式目４２条】

御成敗式目第四十二条

一、百姓逃散時、稱逃毀令損亡事

右諸國住民逃脱之時、其領主等稱逃毀、抑留妻子奪取資財、所行之企甚背仁政、若被召決之處、有年貢所當之未濟者、可致其償、不然者、早可被糺返損物、但於 去留者宜任民意也

安良城盛昭氏の網野善彦批判など豊富な研究史を有する一条である。現在は「去留の自由」を有するの主体は「百姓」であるとの解釈が一般的となっている。厚い研究史の中の、笠松宏至氏による「但於 去留者宜任民意也」を、「片言の」「蛇足」であるが「通常では式目に姿をあらわさない既知の一般原則が、本条本文との若干のかかわりから偶然にもここに露呈された」との古典的示唆（日本思想大系 21『中世政治社会思想　上』、岩波書店、1972 念 12 月 05 日、pp.437 から 38）を、本考察では再考したい。

笠松氏の指摘するとおり、「居留の自由」は在地大法であったと考えたい。だからこそ、妻子を旧地にとどめたままの「緩い逃散」が当たり前であったのだろう。追加法 289 条「土民去留事」はまさにこの大法が前面に出た規定であろう。

六角式目第二十二条

一　年貢諸成物令無沙汰、為不可請譴責使、諸口切塞、不出合在々所々、太以狼藉之条、所行於必定者、或被加御退治、或可被相懸過料、不限一庄一郷之働、名主百姓等閉門戸者、堅可御成敗事、

六角式目第二十三条

一　年貢所当無沙汰之百姓、為不可請譴責使、明己屋他人仁令借屋、田畠立毛刈入輩、雖何方、令隠居屋内江可有譴責、并道路往返之時、見相仁所持之道具雑物年貢相当分、雖為何ヶ度可執之、但、対件百姓召遣主并抱置亭主、一往可有其届事、

六角式目第二十四条

一　年貢所当令無沙汰、下地可上之由申百姓前作職之事、一庄一郷申合、田畠可荒之造意、悪行之至、早可被加御成敗、然而従先々弁出来年貢所当外、或盛増斗代、或相懸新義之課役旨、百姓等致言上者、実否被聞召分、可被停止濫務之事、

六角式目に示されている百姓層の逃散・居逃散の姿は、式目に載せられている逃散とはかなり質が異なっている。近隣の村落に個人単位で逃散しながらも、耕作を手放さない。荘・郷単位で領主家力に対峙し、「居逃散」を完遂する。

いずれも、所有する土地を一瞬たりとも手放そうとしない。土地と人間との強い関係、土地への強い執念がある。

このような土地と所有者との関係が小百姓層にまで成立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惣」の成立、惣請の成立以後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ろう。それ以前の荘園公領制の下では、非名主層である小百姓はよりよい条件を求めて容易に移住する存在であり、式目 42 条はそのような社会の大法を前提としている、と考えたい。現代日本人の感覚を前提に、劣悪な生産力のために愛ある土地を捨てて、やむを得ずに逃散・移住した、と考えてはならない。

産土の神があり、先祖伝来の墓所がある「故郷」が成立したのは、矢張り「惣」成立期以後であろう。そのような故郷を追慕し、物へ強い執着を有する今日の日本社会の価値観が成立したのは、中世後期なのである。

A study of Article 42 of the fundamental low of the KAMAKURA SHOGUNATE

KANEKO Satoshi

“GOSEIBAI-SHIKIMOKU” was the fundamental low of the KAMAKURA SHOGUNATE. Article 42 of it said that a farmer could leave to another manor if he had paid his tribute. In Joseon Dynasty, a small farmer had usually lived in a village only about ten years. He was moving from a village to another. In Kamakura era, Japanese society was like Joseon’s and a small farmer moved a manor to another easily.

環境神話学序説―天神系としての少彦名神―

合田　博子（兵庫県立大学）

１．序論：天満天神以前の天神について

兵庫県の祭りや神社の研究途上で、筆者は菅原道真の御霊が雷神と習合して広く信仰されるようになったいわゆる「天満天神」以前の「天神」に、数多く出会ってきた。それらは実は日本の他の地域にもみられ、物部天神などと呼ばれてきたものも多い。筆者の兵庫県や九州北部の調査経験からみると、その多くは、『記紀』や『風土記』に登場する個別の神名としてはスクナヒコナ神か、地域独自の伝承とともに固有名を冠した天神か、具体的に松の木などの大木を切った後祟りがあるとされて祀られ、ただ天神と呼ばれる路傍の神々であった。例えばスサノオノミコトや牛頭天王を指す祇園天神、武搭天神の省略名としての天神の場合もあるが、いずれも暴れ神で祟る要素が強い。この議論は「天神以前」という題で以前論じたことがある（『姫路工業大学環境人間学部研究報告』5 号,2003）。

今回は雷神、水神、樹木神として括られる天神系の祟り神、そのなかでも幼童神ないし小さい神の代表としてスクナヒコナ神に焦点をあてる。

またこの小論は、日本の代表的神社に祀られる高名な神名に幻惑されることなく、民間信仰として語られる路傍の神々や特に祟りを恐れられてその存在を持続している神を、環境の視点から読み解きなおす試みの一事例でもあって、すでに筆者の試みは始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試みの意義の一つは、日本固有の信仰対象とされる神々の原点を探求し、神話学を再構築することである。それはすなわち、新たな環境の視点をとることによって、アニミズムあるいはアニマティズム（マナイズム）をも包含する環境対応の始原的信仰心を掘り起こす試みであると、筆者は認識するものである。

２．　オオナムチースクナヒコナのセット

『播磨国風土記』においてオオナムチ（出雲神話の大国主）とスクナヒコナがセットで登場し、ともに協力して国土を形成した神話が数多い。しかし両者の関係は時に敵対的なこともあり、伊予（愛媛県）の道後温泉でスクナヒコナの傷をいやしたエピソードの発端も、両者の敵対関係とその後の和解によるとみられる。さらに、両者の出会いと関係性は唐突で、血縁関係も地縁関係ももたない他人の関係と見るのが妥当だろう。

また、この二者のセットを「オオナンジーコナンジ（大汝－小汝）」と称する記載が『風土記』にあること、マタギ資料などの狩猟伝承の中にも「大汝－小汝」の表現が出てくることから、二者を個別の神格ととらえないで、セットとして大・小を冠した包括パーソナリティーとしてとらえる可能性が出てくる。

３．「オオナムチと大物主の出会い」から導かれる神話学上の二仮説

オオナムチとスクナヒコナのセットが国造りを完成させている途上、スクナヒコナは唐突に常世の国に還ってしまう。落胆するオオナムチの前に突然、海を光で照らして現れたのが大物主である。

大物主は自分が「汝の幸魂・奇魂である」と名乗り、オオナムチ自身の分身であるかのように説明するのだが、一方で、あたかも常世の国に去ったスクナヒコナの代わりとも見てとれる。しかも、「あやしき光海を照らし・・・」という表現は、祟り神の出現を示唆している。幸魂（サキミタマ）としての奇魂（クシミタマ）であるというのに、その出現はまるで祟りをなす荒魂（アラタマ）のようである（次田真幸訳注『古事記』上、講談社学術文庫、1977、139 頁。小島憲之ほか校注『日本書記』１、日本古典文学全集２、小学館、1994、105 頁　）。

ここでは「幸魂・奇魂」として穏やかで平和的に自己の存在を示した大物主であったが、実際のところ、崇神天皇を最も悩ませたのは荒々しく「祟る」大物主であった。だからこそ、その子孫である大田田根子を探し出して彼に祀らせる以外、祟りを鎮める方策はなかったのだ。

ここに二つの仮説が成り立つ。一は、大物主＝オオナムチ分身説であり、二は、大物主＝スクナヒコナ代理説である。一については今まで大いに議論があり、神話の語りどおり分身であれば、同一人物の別名となるという意見と、別の神格と考えるべきという意見が分かれている。この議論は、出雲のオオナムチと倭の大物主をどう把握するかという問題をはらむので、簡単には決着できない日本古代史上、日本神話研究上の大問題である。

筆者はこの一の仮説には触れないで、本論では、二の大物主＝スクナヒコナ代理説の方を検討していく。もちろん二の仮説も大きな命題で、簡単にここで結論を出すには至らないが、その検討の過程で新たな探求の道筋をたどれるかもしれない。そして、ここでなんらかの発見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先に述べた一の仮説の解明に資する道筋ともなる可能性がある。これが本論の探求の目的であり、その方法として従来と違う環境の視点で迫ろうというのが、本論の新たな試みである。

４．スクナヒコナが言及される時

スクナヒコナが初めて『記紀』に登場するのは、『古事記』では、大国主との出会いと別れの場面であって、その別れはすぐ彼の代理のような大物主との出会いにつながっている。

一方『日本書紀』では、スクナヒコナへの言及は、スサノオの子孫の系譜として大国主が紹介され、彼の業績の中で共に国造りに努めた後常世の国に行ってしまったと説明的である。唯一、「われらが造った国はうまくできたか」という大国主の問いに「うまくいったものもいかなかったものもある」という深遠な言葉が記されている（前掲書 103 頁）。代わって登場した大物主への言及のあと、追加のようにスクナヒコナとの最初の出会いが語られ、彼の素性も『古事記』のようにカミムスビの子ではなく、タカミムスビの子だが、悪戯すぎて指の間から落ちたと、親のタカミムスビから悪く言われている。

そのほかに『日本書紀』「神功皇后摂政記」に皇太后がわが子応神天皇の立太子を祝った歌にスクナヒコナへの言及がある。それについて、ここに引用をしておこう。

『日本書記』「神功皇后摂政記 13 年 2 月」

角鹿の笥飯大神と名替えを済ませ、立太子の儀式を終えた応神天皇のための宴で、神功皇太后が盃をあげて祝した歌（前掲書、229 頁)。

「此の神酒（みき）は　吾が神酒ならず　神酒（くし）の司（かみ）
常世に坐す　いはたたす　少御神（すくなみかみ）の豊寿（ほ）き　寿き廻（もた）ほし
神寿き　寿き狂ほし　献（まつ）り来し　御酒（みき）そ　あさず　飲（さ）せ　ささ」

武内宿禰が太子のために答歌として次のように歌う。

「此の神酒を　醸みけむ人は　その鼓　臼に立てて　歌ひつつ　醸みけむかも
此の神酒の　あやに　うた楽し　ささ」

５．少彦名と大物主の類似性

さて３節で問題提起した仮説二「大物主＝スクナヒコナ代理説」の根拠となるような類似の歌が『日本書記』「崇神天皇記」にある。それは、前節の「神功皇后摂政記」のスクナヒコナへの讃歌にそっくりであるのに、言及される神は大物主である。

『日本書紀』「崇神天皇記８年 4 月」

大神（おほみわ）の掌酒（さかびと）（神に奉る酒を司る人）に任ぜられた高橋村の活日（いくひ）は、宴会で神酒（みわ）を天皇に捧げて歌を歌う（前掲書、275 頁)。

「此の神酒（みき）は　我が神酒ならず　倭成す　大物主の　醸みし神酒　幾久　幾久」

ここでは、崇神天皇時代の話として、神酒を醸んだのは大物主になっている。どちらがオリジナルなのか。時代から言えば当然崇神天皇時代のほうが古いが、単純にそのように考えていいのだろうか。筆者は時代順に反して、スクナヒコナへの讃歌のほうが古いとみる。理由は、大物主の歌のほうは、歌った人が大神の掌酒という職掌にあり、その職がすでに設立されている大神（おほみわ）神社で神酒を造り、三輪（みわ）山の神である大物主に仕えるがゆえに、この神を祀ることを決定した崇神天皇に神酒を捧げる役にあるとみるからである。この現実性や合理性は、神話時代というより歴史時代の産物である。

また、スクナヒコナ讃歌のほうが、詩歌としては具体的な酒造の所作の表現に芸術性があり、そこに文学的真実性を見てオリジナルと判断する。大物主讃歌のほうは、「倭成す大物主が・・・(神酒を醸んだ）という主体を入れ込むだけが目的の一種の替え歌で、あとは意味のない繋ぎの語句に過ぎないとみる。さらに、スクナヒコナを形容する「いはたたす」や「臼に立てて」の表現は、スクナヒコナが石神でもある属性を語るもので、神の表現の具体性において大物主の属性説明に勝っていると見られるのも根拠になる。

６．石神としてのスクナヒコナ

兵庫県の天満天神以前の天神が、スクナヒコナ神であった事例が多いと先に述べた。その

天神としての属性は、雷神、水神、樹木神と多様性を帯びるが、幼童ないし小人型を取るところがスクナヒコナと呼ばれる所以であろう。ここでは、天から雷として落ちてきて石を砕く存在、また、石に籠り石を中から打ち砕いて出現する存在の二つの場合を想定してみる。

事例１：福岡県那珂川町の「裂田の溝（うなで)」の神功皇后が開いたと伝えられる現存の用水路にまつわる伝説では、水路を塞いでいた岩を、雷山から‘カムトキ’（雷が炸裂すること）して神が落ちてきて裂いたと伝える。そしてその神はニニギノミコトだと雷山の伝説は語る。伝説自体は中世の仏僧によるものとの歴史民俗学者の研究がある。

同様の伝説が大分県の由布院のうなぎ姫神社の由緒にもある。ここでも雷神が岩を砕き農業水利のため池を掘削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うなぎ」の意味には諸説あるが、筆者は由布院の現地調査から、「裂田の溝」と同様に「うなで＝田圃の水路」につながると仮定する。うなぎ姫神社は水源地であり、そこからの水路はうなぎのように曲がり田に水を供給していた。

また、「うなで」という地名が飛鳥や神戸市にあるが、いずれも出雲の大国主の子、事代主の神社がある地名である。出雲の国譲りに大国主以上に大きな役割を担った事代主が、飛鳥の鴨事代主、葛城の賀茂一言主、賀茂アジスキタカヒコネと関係すること、事代主と三島ミゾクイの娘との関係が、大物主との婚姻関係を介して、倭に到着した神武天皇の子や孫の妃となっていく経緯は、先回の本学会での筆者の発表テーマであった。

事例２：兵庫県高砂市に生石（おおしこ）神社があり、ご神体は水中に浮かぶ巨石である。付近には石切り場があり、飛鳥の古墳などの巨石はここから運ばれたといわれる。巨大な墓の建設途中で捨ておかれた巨石との説もあるが、古来より謎の巨石として「石の宝殿」と呼ばれ、石の下に水が湧き涸れたことがないとも言われる。

祭神はオオナムチとスクナヒコナである。生石神社という名称は、オオナムチの別名「アシワラノシコオ」を連想させ、石と湧水はスクナヒコナに関係づけられる。「いはたたす」「鼓を臼に立てて」と形容されるスクナヒコナだが、宮崎県高千穂や椎葉の神楽では、スクナヒコナが大鼓の上で逆立ちをする独特の演技がある。

石に籠り、石を砕いて生まれるスクナヒコナもありうるのである。そして石そのものに生命やエネルギーとしての力の存在を認める信仰を、アニマティズムないしマナイズムという。

７．結論：スクナヒコナの両義性

以上のことから、スクナヒコナは天神系の小型神で、ニニギノミコト同様、天から天降りする幼童神の性格も持ち、四国や九州の神社伝説では天降り神社の祭神ともなっている。一方で、地神であるオオナムチと最初敵対した後に和解したり、天の親であるタカミムスビに疎まれてもいる。天神なのか、地神なのか、両面性を持つ小型神・子神なのである。

出雲神に祟られて話せなかった垂仁天皇の皇子ホムチワケや、泣きわめくスサノオやアジスキタカヒコネのように天神系と地神系をつなぐ役割に運命づけられた「負の性格」をもち、大人になれない幼童性をかねそなえる。祟り神にもなりうる危険な両面を持つ神であり、その探求は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今後は、神功皇后伝説と祟るスクナヒコナとの関

係という新しい主題に焦点を絞って、環境神話学の鉱脈を探って行くつもりである。

A Prologue to Environmental Mythology

--*Sukunahikona* God as One of Little Heaven Gods--

GODA Hiroko(University of Hyogo)

Summary: 1. Heaven gods before *Tenman Tenjin* who is the ghost spirit of Minister *Sugawara Michizane*

In the present author's researches on the shrines and gods in Hyogo prefecture area, she has discovered many *Tenjin*(=heaven gods) . However, this *Tenjin* isn't *Tenman Tenjin* who is said to be the ghost spirit of a famous Minister Sugawara Michizane in the Heian period, but the other heaven gods appeared as the spirits of the nature such as thunders or the rainwater falling down from the heaven, and tall trees connecting the heaven and the earth far before the Heian period.

Among them, the present author tries to focus *Sukunahikona* god as one representative god of several little heaven gods written in the old history books and geographical books on a few of local areas in the Nara period.

The purpose of her research is also an adventurous one, because she decides to use an environmental anthropological approach so that she can rethink the heaven gods not as high-status emperors' side gods, but rather archaic type natives' side gods reflecting the nature itself of the earth viewed from the standpoints of animism and animatism.

Here, she shows the contents of this essay.

2. A set of *Oonamuchi* and *Sukunahikona*
3. Two hypotheses deduced from the meeting of *Oonamuchi (Izumo)* and *Oomononushi(yamato)*
   Hypothesis 1: *Oomononushi=Oonamuchi,*
   Hypothesis 2: *Oomononushi=Sukunahikona*
4. The occasion when *Sukunahikona* is referred to
   Occasion 1: In the song by *Jingu Kogo* for her son, *Oujin Tenno,* the 15th Emperor
   The sacred rice wine maker is *Sukunahikona* related the stone
   Occasion 2: In the song by the chief of the sacred rice winery at *the Miwa Shrine* for *Sujin Tenno*, the 10th Emperor
   The sacred rice wine maker is *Oomononushi* in *Yamato*
5. The similarity of *Sukunahikona* and *Oomononushi*
6. *Sukunahikona* as a stone god
7. Conclusion: The ambiguity of *Sukunahikona*

古代播磨の半島文化

－資料と伝説から概観する－

宮 本 佳 典（加古川市教育委員会）

1 はじめに

播磨国は、現在の兵庫県南西部にあった国で、都のある畿内に隣接しており、古くは、穏やかな瀬戸内海に注ぐ河川の沖積平野を中心に集落が発達してきた。大和、吉備、出雲という文化圏の間に位置し、瀬戸内海から大陸の人や文化を受け容れるなど、多様な文化的な性格を持っている。

古代の播磨を知る史料としては、8世紀初めに成立した『日本書紀』や『古事記』に該当部分のほか、土地のようすを細かく記した『播磨国風土記』があり、他の地域と比べれば、8世紀以前のようすをよく知ることができる。

また、寺社や遺跡も多く、文化財の数は、京都、東京、奈良、大阪、滋賀に次いで多い地域である。その中には、希少な7世紀の仏像や石仏をはじめ、多くの 11 世紀から 16 世紀までの建築や美術工芸品がある。

1960 年頃から、古墳をはじめ古代寺院、窯跡、集落など遺跡の発掘調査が行われることもあり、考古学から古代の播磨のようすも少しずつ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る。

このような中で、播磨地域の古墳からの出土品、そして、寺院に伝わる文化財の中には、当時の朝鮮半島の地域との交流を示す、または、想起させる資料が確認されている。合わせて、この播磨地域には、古代朝鮮の国や人物が登場する寺院縁起や伝説が数多く伝わっており、その主要なものを紹介する。

都ではない地方である播磨について、現存する資料と合わせて伝説を概観することにより、時代や内容によって、古代の半島の文化が色濃く伝わっ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

2 古墳の副葬品

3世紀後半か4世紀はじめ頃、ヤマト(大和)王権の勢力が周辺に拡大し、畿内の西に接する播磨の地もその影響を強く受けるようになる。4世紀から5世紀には、大型の前方後円墳が築かれ、古墳の副葬品の中には、ヤマト政権から贈られたと考えられる中国製の銅鏡が出土することもある。

古墳の史跡整備のため、1995 年に兵庫県加古川市の行者塚古墳の発掘調査を行った。行者塚古墳は、墳長 99 メートルの前方後円墳で、5世紀初めに築造されたと考えられる。今回の調査では多くの重要な発見と調査成果があった。その中で、朝鮮半島との関係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墳頂部の副葬品箱から出土した鉄製品である。3点の鉄製轡は、わが国最古級の鉄製馬具である。鉄鋌は、韓国東南部の皇南大塚墳、金冠塚、福泉洞古墳群などから大量に出土しており、日本では、行者塚古墳の 40 枚は、奈良県の大和6号墳、大阪府の野中古墳に次ぐ数である。『三国志』「魏志東夷伝弁辰条」には、「国、鉄を出す。韓、濊、倭、皆従ってこれを取る。諸市買うに皆鉄を用い、中国の銭を用いるが如し。またもって二郡に供給す。」と現在の韓国東南部である3世紀の弁辰のようすを記している。このことから、行者塚古墳出土の鉄鋌もその付近から伝わったことも考えられる。

なお、行者塚古墳墳頂部の副葬品箱は、3点あるが、調査を行ったのは、「金銅製透彫帯金具5、円環形青銅製品1、筒状青銅製品 10 以上、鋳造鉄斧3、馬具(轡)3、鋏具1、円環形鉄製品1、素環頭状鉄製品1、不明鉄製金具1」が納められていた中央副葬品箱と、「鉄鍑1、鉄鋌 40、鉄刀6、鉄剣8、鉄矛1、鉄鏃9、頬当状鉄製品2、石突状鉄製品4、手鎌 85、鍬・鋤先6、斧7、鎌 15、鑿7、鋸1、錐 15、鉄床1、巴型銅器4」が納められていた西副葬品箱である。

行者塚古墳から西へ約3キロメートルのところに平荘湖古墳群がある。その中にあった池尻2号墳とカンス塚古墳は、竪穴式石室をもった5世紀中頃から後半に築造された古墳で、朝鮮半島の伽耶地域で出土例が多いものとよく似た、陶質土器(須恵器)や鉄器などが出土している。池尻2号墳からは、馬具(轡)、鉄釘、鋲などが出土し、カンス塚古墳からは、鉗子や鉄槌などの鍛冶道具や金製垂飾付耳飾りが出土している。

播磨では、3基の古墳から金製垂飾付耳飾という特徴ある遺物が4例出土している。出土したのは加古川市のカンス塚古墳のほか、姫路市の宮山古墳2例、龍野市の西宮山古墳で、いずれの古墳も加古川、市川、揖保川という河川の流域にあり、5世紀の播磨を語るうえで欠くことのできない重要な古墳である。このような金製垂飾付耳飾は日本では現在約 50 例出土しており、特に奈良県や北部九州に分布が集中している。朝鮮半島では伽耶地域を中心に出土しており、舶載のものと考え

られる。

3　古代播磨の仏教文化

播磨の地は、わが国に仏教が伝来した当時から仏教に関する記録が見られ、また、7・8世紀の寺院跡の多さからも古代において仏教文化が広まっていた土地であることがわかる。

わが国ではじめて、得度が行われた記事すなわち『日本書紀』敏達天皇13年(589)9月の記載によると、排仏派のために寺を焼かれ、安置していた仏像まで難波の堀江に投げ棄てられた蘇我馬子は、百済から帰朝した鹿深臣がもたらした弥勒石像一躯と佐伯連がもっていた仏像一躯をもらい受け、司馬達等の女嶋(善信尼)を得度させるために、司馬達等と池辺直水田のふたりに命じて諸国に修業者を訪ね求めさせた。そのとき、播磨国に住む高麗の還俗僧恵便を迎え、馬子の白宅の東に仏殿を作って弥勒の石造を安置し、三人の尼を招いて法会を営み、石川の邸宅にも仏殿を作ったという。また、「元興寺縁起」にも同様に、播磨の国に住んでいた還俗した高麗の老比丘恵便が、老比丘尼法明とともに迎えられた記載が見られる。 このように、播磨国に住んでいた渡来僧が、わが国における仏法のはじまりに関わっていたという記録からも、この地域に早くから、朝鮮半島から仏教が伝わり、その文化がもたら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それを示すように、加古川市内には他の播磨の地域と同様、西条廃寺、石守廃寺、野口廃寺、中西廃寺、山角廃寺など多くの奈良時代の寺院地がある。その中でも、奈良時代前期の西条廃寺と後期の石守廃寺と野口廃寺が、発掘調査により伽藍も明らかにされており、出土した瓦、九輪片や水煙片からも当時の技術を知ることができる。

この頃の寺院仏教は、国家の保護を受けて発展した国分寺、国分尼寺での護国経典読誦に見られる中央集権的志向が見られる反面、その他の多くの地方寺院は、地域の支配階層をなす地方豪族の私寺としての性格が強かったと考えられ、祖霊追善や造寺・造仏による現世利益を求めるという部分もあった。そして、このような地方寺院は、当時、池溝開発を積極的に行なっていた地方豪族の地域社会における権威を高め、偉容を誇るという機能も果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4　古代及び中世初期の美術工芸品

さて、この地方に残る奈良時代の仏教美術を見ると、刀田山鶴林寺の銅製聖観音立像(加古川市)、法華山一乗寺の銅製聖観音立像、同・十一面観音立像などの金銅仏や古法華三尊石仏、乎疑原神社五尊仏、(以上加内市)などの石仏が現存しており、これらの優れた文化遺産は、この地方に早くから仏教信仰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また、日本には、約 50 口の朝鮮鐘と呼ばれる銅鐘がある。その中の 2 口が加古川市にある。刀田山鶴林寺と尾上神社にある。いずれの鐘も高麗時代の 11 世紀頃に制作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鶴林寺のものは 15 世紀初め以前、尾上神社のものは 16 世紀以前から使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その他、鶴林寺には、朝鮮半島との関わりを考えさせるものとして、高麗仏画の特徴をよく残した 13 世紀の阿弥陀三尊仏画がある。

4　寺院の縁起と伝説

渡来僧にまつわる伝承をもつ寺院は、この地方に多く、鶴林寺の寺伝には前述の高句麗からの環俗僧の恵便、百済王に仕えた日羅、そして新羅系の秦河勝が登場する。また、恵便が居住したという姫路市白国の増位山随願寺や、恵便が禅定した地という加西市の青嶺山奥山寺、高句麗からの渡来僧で後に僧正に任ぜられた恵灌開創の姫路市福崎町の七種山金剛城寺)、聖徳大子の師恵慈が開創し、恵灌と恵是が再興したという姫路市起正寺の前身である乗福寺、そして百済の王子童男行者開創と伝えられる神戸市北区の明要寺や三木市の高男寺など多数見られる。

加西市の法華山一乗寺をはじめとする加古川流域の多くの寺院で法道仙人の開創説話がある。法道仙人は、天竺から紫の雲に乗って、中国、百済を経て日本へ飛来したとされる伝説の仙人とされている。神通力で鉢を飛ばし、米などの供物を得ていたため、「空鉢仙人」と呼ばれていた。この伝説は 13 世紀には成立していた。

その他、姫路市の広峯神社には一説には新羅からの渡来神ともいわれている牛頭天王が祭られている。また、『播磨国風土記』には、新羅の王子と伝えられている天日槍と播磨の神である伊和大神との争いの話も数多く載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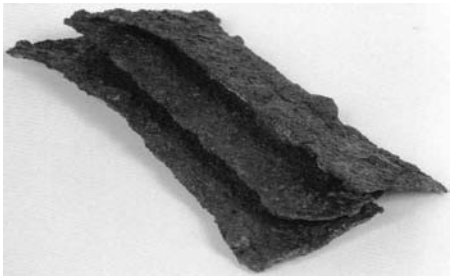
5　おわり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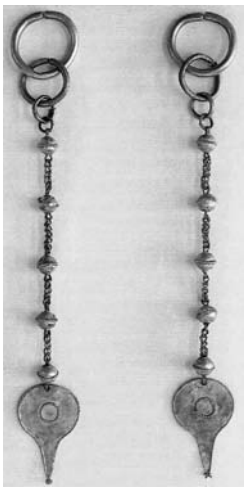
今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播磨には朝鮮半島との交流を示す文物や伝承が多く残っている。これらの多くは、北東アジアの動乱期であった7世紀以前に、鉄の素材

の確保、鉄器や陶器の製造技術、乗馬などの新しい風習、仏教や学問など受容を断続的にもたらした集団の名残りを強くとどめているようである。

今後、新たな史料の研究や、発掘調査成果による考古学の研究が進むことで、当時の交流のようすが、少しずつ明らかになっていくことだろう。

【参考文献】
『兵庫県史第一巻』兵庫県 1974
『加古川市史第七巻』加古川市 1987
『行者塚古墳発掘調査概報』加古川市教育委員会 1997


鉄鋌(行者塚古墳出土、5 世紀初め)


金製垂飾付耳飾り(カンス塚古墳出土、5 世紀中頃)

銅鐘(尾上神社、11 世紀初め)

【Abstract】

Korean culture of ancient Harima

- *A general survey* of articles and legends -

"Harima" is an ancient ordinance name of a country, now equivalent to of West Hyogo in Japan. Many articles and legends to show relations with the ancient Korea culture are transmitted through there in the eastern part of Inland Sea (Seto-nai-kai).

As articles about archeology, there are earthenware-vessels, golden-earrings, iron-plates, and tools of iron-forgings which are the excavated article from the old burial mound in the 4-5th century. And as now-used articles, there are a Buddhism copper bell in the 11th century and the Buddhism painting in the 13th century. Then in the temple of Harima, a lot of legends that an ancient Korean person appears come.

To survey those contents is a clue to know relations of the ancient Korea and Harima in West Japan.

Status Quo and the Problems of the Elderly People in Japan

-Analysis of the Social Security and the End of Life Care for Elderly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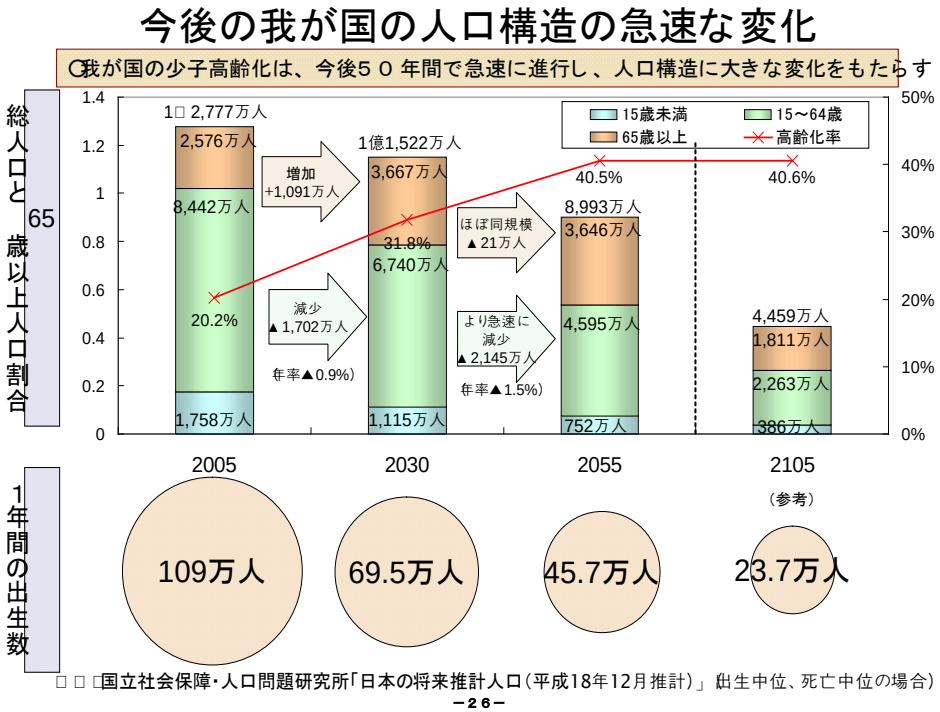
Machiko Makita

Introduction

Almost 30% of Japan's population in 2050 will be over the age of 70. No country in the world has ever experienced such a situation. Even elderly people who live longer healthier lives will still need physical and spiritual care. We need to find the manpower and funding to care for Japan's elderly without raising its population.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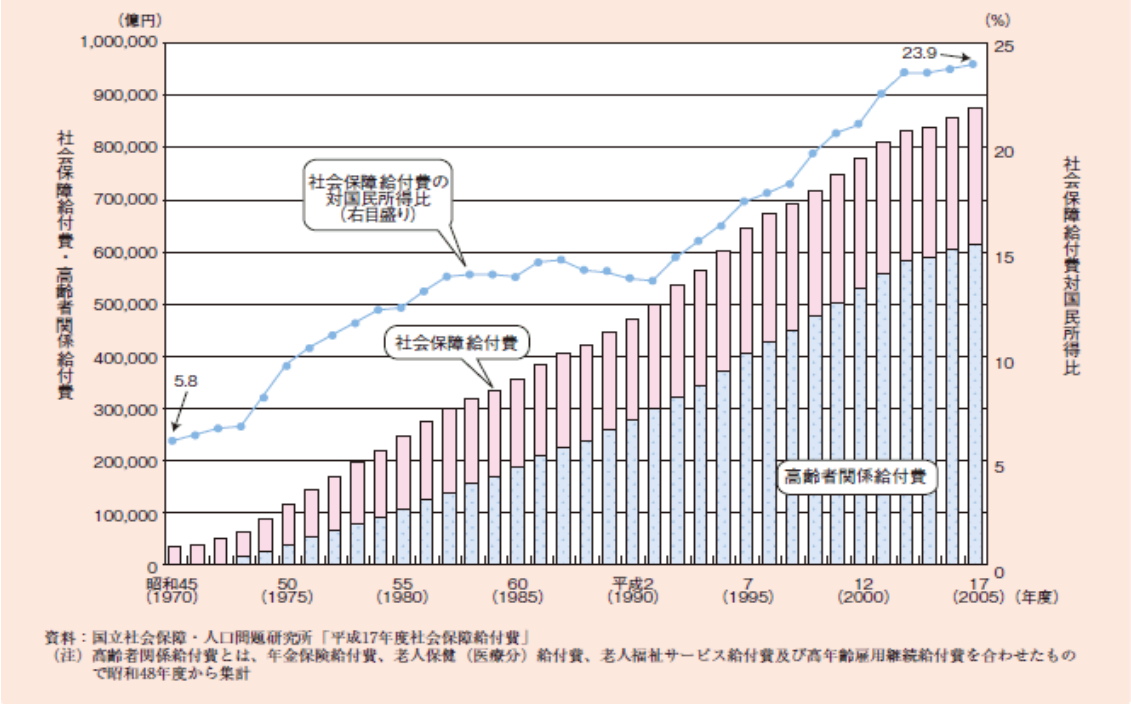
The demography shows the ageing ratio is 22.7% (65-74/ 12.0%, 75+/ 10.8%) and the number of 75+(older old) has been sharply growing in Japan (Diagram below is survey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NIPSS in 2008).



The social security cost is 91 trillion 4305 hundred million yen, which occupies 24.40% of Japan's GDP. And 31.7% of which is spent for medical care, 52.8% for pension, and only 15.5% is spent for the Welfare which deals with elderly, child, family care and the living cost for the poor(2007/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rvey. This data is published in 2009 on the website and is the latest one). As a consequence, more than 80% of its budget is spent for "Elderly people".

See the category table below. Regarding the Medical care cost, every people takes advantage of it, however, more than 80% of its users is elderly. However, the most serious problem is imbalance of the social security. Japan cannot pay for all its public services with tax alone. The government pays out more money than it takes in by taxes.

This situation cannot continue much longer. We must challenge to restructure its tax base so it rewards the kind of activities (provably the consumption tax will be raised to 10% in the near future).



資料：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平成17年度社会保障給付費」
（注）高齢者関係給付費とは、年金保険給付費、老人保健（医療分）給付費、老人福祉サービス給付費及び高年齢雇用継続給付費を合わせたもので昭和48年度から集計

Elderly people`s Life in Japan

A survey of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shows that nearly 60% of elderly people wants to live in their own homes, 40% of which wants and/or thinks of moving to the elderly institutions(private/ public), care homes, group homes and elderly-oriented apartments. There seem to be two main reasons to explain this outcome. One is Japan`s housing problem, such as too small and inconvenient for people to live when they are getting old and need to use the wheelchair and so on. The other reason is that most of them do not want to ask help for their family, relatives because they feel sense of guilty. However, we can find the clue to what we have to discuss. In order to meet their needs, professional cooperation to support them safe and secure home care,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 institutions is necessary.

Brief Descri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tarting in April 2000, we introduc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insurance system covers the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which was previously provided partly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partly by the welfare measures. The background of this system lies the changes in the society such as weakened community ties, increase in small-sized families and increase of working wome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family facing the care for the elderly has become unbearable large.

Long Term Care Insurance is designed to share the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among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lesson the burden of the family. In other word it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financial pressure of ever increasing long-term care cost of an ageing society on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The insured persons are those who are aged 65 and more (Category I)and those between age of 40 to 64 and are subscribes of health insurance (Category II). The services are provided both at home and at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care required by users. Assessment might be the most difficult problem of this system. The users are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such as " Assistance Required level 1 to 2" and " Care Required Level 1 to 5",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care need. The upper limit of services provided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is category.

The cost is financed 50% by premiums (20% by Category I, 30% by Category II) and 50% by government subsidy. Within this framework the municipality can determine the rate of premium for the insured of category I. For the category II insured the rate will be 0.95% of salary in the government-managed health Insurance and 0.88% in the society-managed Health Insurance. Co-payment for the services is 10% of the cost, plus for those in a hospital or an institution and a part of the meal expense.

Conclusion

The latest study shows that 16% of the elderly people is eligible for the LTCI user and make use of it, 22% of which wants to go to the elderly institutions and 78% of which wants to live in their own home by making use of several welfare services. As for the manpower, we have many care workers specially educated for this purpose in Japan but the number is not enough for the increasing elderly people need to care.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import foreign caretakers according the EPA agreement in 2008. It is working now but still has lots of problems.

Another solution might be mutual-care cooperatives system which can serve retired or unemployed elders of both sexes. We had already had these groups consist of 20 to 30 elders still able to care for themselves to in some cities, where they contribute something to their neighbor's care. They help each other with everything from shopping to cooking and housecleaning. Tasks difficult for one person alone become easier and more enjoyable when several participate together. When elder members need more home care, the healthier, younger members provide it; as some members gradually pass on, new members join the care group in their neighborhood. When heavy-duty care or hospitalization is required, youth corps workers may assist.

要約

日本は世界に類をみないほどの超高齢社会となり、今後30～40年の高齢者政策の行く末が危惧されている。本報告では高齢者問題の背景となる高齢者の人口変動および社会保障費の現況について報告し、社会保障費の約80%が高齢者関係諸費として使われている現状と、高齢者の置かれている日常生活に焦点をあてる。そこからは高齢者の孤立化、在宅での自立生活への期待という２つの事実が導き出されるのだが、それをどのように解決していくべきなのか。厚生労働省、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等のデータなどからこの問題を検討し、今後の望ましい高齢者政策の在り方を考える。

日本人の「死生観」についての一考察

～尊厳死を中心としたアンケートを通して～

湯瀬　晶文　（兵庫大学）

１．はじめに

人は死んだらどうなるのか？

今､生きていることを真剣に考えるとき､このようなさまざまな疑問にぶつからざるを得ない。こうした疑問を通して、自身や周囲の人々の死を見つめ、その視を通してまた生を思うこと、こうしたことは充実した生を送るためにこそ必要不可欠である。

一方で、日本人の宗教意識はきわめて多様でとらえどころが無く、無節操ともいえる様相を呈していることは、各種統計資料などにおいても見ることができる。一例として、文部科学省の調査によると、各宗派の信者の合計人数は２億人以上であり、日本の全人口を大きく上回る(1)。このことは、無宗教であると言い切る人もいることを考えると、２種類以上の宗教の信者として暮らしている人が多いことを意味する。

では、こうした環境で人はどのように死について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あるいは、考え方における違いがあるのだろうか。本稿では、こうした点について異なる集団に対する調査状況を見ながら現状をどのよう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述べたい。

２．アンケート

これまでに、いくつかの講演会などにおいて、一般の聴衆に対して死後観などを中心とする死生観についてアンケート調査をする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た。ところが、日常生活において「死」に対して思いを巡らせる機会は少なく、記述式や細かく程度を問うアンケート項目は回答者が記入しにくいと考えられた。そこで、一部の例外を除いて設問ごとに４つの選択肢から選ぶ形にとするとともに、設問数を抑えて回答しやすくなるよう努めた。

なお、回答にあたっては、プライバシーを保護するために回答したくない設問には回答しないこと、途中で回答をやめることも可能とした。

アンケート対象は、３つのグループに分けられる一般の聴衆で、それぞれのグループごとに６０程度の回答を得ることができた。また、３つのグループのうち、２つは特に死生観と関連の無いものであるが、１つは入門向けの仏教講座であった。

３．結果

まず、結果の記述にあたり､「そう思う」と「多少そう思う」を合わせて「肯定的」､「あまりそう思わない」と「そう思わない」を合わせて「否定的」という扱いとした。

アンケートの結果に関して全体的に見ると、現状認識（幸せかどうか、あるいは、人生に意味がある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は、肯定的な意見が非常に高い割合を占めた。人生や生死が人知を超えたものの影響を受ける可能性についても、肯定的な意見が多かった。　また、宗教を信じるかと問われると、全体としての肯定は半数あまりである一方で、死者の肉体は７割以上が大切

だと判断し、葬儀式は全員が参列経験を持っていた。

４．議論

まず、全体の集計結果を見ると、多くの設問で事前の想定以上に肯定的な意見が多いことが見て取れる。

個人個人でそれぞれの選択肢の境界線に違いがあると思われるが、「宗教を信じるか」という問いに対して、わずかとは言え５０％を上回る肯定的回答が得られ、「死後の世界」や「生まれ変わり」に関しても半数程度が肯定している。「死者の肉体が大切だと思うか」の問いについても７０％以上が肯定的な回答を行った。また、葬儀式への参列経験は全員が有していた。

次に、もう少し詳細に見て生きたい。まず、「宗教を信じるか」に対して、５０％を上回る肯定的回答があったことは、大きな数字であるといえる。過去の数字を見ると調査方法に差があるものの、各種の宗教的意識に関する調査や資料では５０％が上限となっているようである。数字を挙げると、４８％程度[(2)]から２３％[(3)]などのようである。これだけの数字であれば、「死後の世界」や「生まれ変わり」に関する肯定的意見の数もうなずける。

一方で、「死者の肉体が大切だと思うか」の問いに対する７０％以上の肯定的意見や葬儀式への参列経験を見ると、「宗教を信じる」者が５０％あまりである事と齟齬があるように見える。なぜなら、肉体に対する感覚や死後の世界（他界）の表象などは、本来宗教的な表象と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宗教を信じない者が７５％もいるのであれば[(3)]、「人間は死んだらゴミになる」のだ[(4)]というもっと唯物的な見方が広まることも十分に考えられる。

この数値の差は、６０％以上の人が行う初詣や墓参り同様に宗教であるという明確な意識ではなく、習俗的な慣習として行われている側面が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儀礼的なものに生じやすいことであるが、形のみを残して、その意味合いが失われてい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であろう。また、柳田国男の見方にあるように「生活第一、信仰第二」とも解釈できるし、日本人が「現世中心的世界観[(5)]」を持っているからだと見ることもできるであろう。

こうした慣習としての行動のために、形式的な宗教的活動は保たれているが、宗教の持つ豊かな他界の表象は急速に失われつつある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たとえば、浄土思想を持つ仏教の経典のひとつである「阿弥陀経」にある極楽の表象として以下のような２つがあげられる。

まず、ある医学者によれば「食べ物が多く、種類も豊富である。十分な衣服や装飾品があり、快適な住居もある。音楽や踊りなどの娯楽があり、健康で病苦にさいなまれることがない。[(6)]」という解釈がなされている。

一方で、「その国の衆生はもろもろの苦なく、ただもろもろの楽を受ける。ゆえに極楽と名づける。（中略）かの仏国土には、常に天の楽をなす。黄金を地とし、昼夜六時に曼荼羅華を雨ふらす。（中略）舎利弗、かの仏国土には微風吹いて、微妙の音を出す。たとえば百千種の楽を同時に倶になすように。この音を聞くもの、みな自然に三宝を念ずる心を生じる。舎利弗、その物国土にはかくのごとき功徳荘厳を成就している。[(7)]」とあり、より積極的に「仏の国には、苦しみも、悲しみも、迷いも無い。人々に教えを勧めるために仮の姿として阿弥陀仏が作り出したものも含めて、自然に三宝を念ずることができる。極楽はこのような功徳が荘厳となって成就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解釈していく方向もある[(8)]。

この２つの解釈は表層だけ見ると同じであるが、実質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どちらの解釈を

用いるかにより、「極楽」の実効性がまったく変わることになる。このとき、「極楽」が実在するかどうかは特に問題ではないといってもよいと思われる。前者の解釈に立てば、特段宗教的な行動を伴うことは無いが、後者の解釈ではそのうち動き出す人が出てくることが期待される。

ここではひとつの例として「阿弥陀経」にある表象を取り上げたが、同様のことはさまざまな宗教のさまざまな聖典に生じていると思われる。こうしたことから、アンケートに出てきた数字の開きは、ある程度以上の人が、前者のような、いわば唯物的な考え方にたっていることがひとつの原因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５．まとめ

いくつかの講演会において、一般の聴衆を対象とした、死生観についてアンケート調査を行う機会を得た。アンケート結果から一般の人々の宗教観や死生観の輪郭を見出すことができた。また、宗教的他界観に対する予想以上に肯定的な意見を見いだすこともできた。

さらに、アンケート結果に対する簡単な分析も行った。この分析において、経典に現れる具体的な表象に対する大きく異なる解釈を比較し、日本人の基底の考え方を念頭に置きつつ、いくつかの設問間の肯定率の差の原因を探った。

（注）

（１）文部科学省の２００８年度宗教統計調査。２００７年１２月３１日現在の数字で。

（２）日本放送文化研究所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２００４

（３）読売新聞による２００５年８月６、７日に行われた宗教に関する全国世論調査結果の公表（２００５年９月２日）。宗教を信じている割合は２３％、信じていない割合は７５％に及ぶ。

（４）人は死ねばゴミになる（伊藤栄樹　１９９８）

（５）寺川幽芳「日本浄土教の画期をめぐって」真宗学　１０９号　２００４年３月

（６）難波紘二「覚悟としての死生学」２００４年５月　文藝春秋

（７）「浄土真宗聖典（注釈版）」

（８）藤場俊基「親鸞の教行信証を読み解く」１９９８年　明石書店

A Study of the Japanese View of Life and Death

Akifumi YUSE
Hyogo University

We studied the modern Japanese view of life and death through a questionnaire. The audiences of some different open lectures filling out a questionnaire, and we analyzed the results. We determined the outline of their religious views and were able to find the views of life and death. We found a positive feedback than expected about religious views of death.

In addition, when we analyzed the results, we compared the two interpretations appear in the Buddhist sutra for the concrete representation. And we suggest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rates in some questions.

Perseverance:
The History of Kirishitan Community at Urakami on the Northern Side of Nagasaki City (1638-1966)

OKAMOTO Hiroyuki (Hyogo University)

Introduction

In Nagasaki Prefecture, Japan, sailor suits as schoolgirls' uniform prevailed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However, ones far from naval style of origin were chosen only in two areas, Nagasaki City and Goto Islands (五島), where lots of *Kirishitan,* latent Catholics had been martyred in 1860s-70s, because of their belief in the religion from the West. I think that the general public in these areas became apt to keep things from the West at a distance, and to refuse to accept them with original style. This tendency made sailor uniform transformed.

As for Nagasaki City, *Kirishitan* people have been regarded as disgusting, impure and causative of disaster, in Japanese word, they have had *kegare* on. This concerns the fact that some of *Kirishitan* used to run slaughterhouses and provide meat for foreigners during the Edo era. Generally in Japan, people who engage in businesses concerning leather or meat, especially *Buraku* people (被差別部落民), have been regarded to be wearing *kegare,* but in this city, Catholics have been regarded so instead. The life and opinion of Dr Nagai Takashi (永井隆, 1908-51), a medical professor and novelist, shows us that this kind of prejudice was strong. Just after the A-bomb blasted the centre of Catholicism in Japan, he had to declare that the massacred believers were perfectly clean in spite of the miserable truth.

I presented these contents above at the 18th (at Dalian Fisheries University on 22/05/2009), the 19th (at Korea University on 17/10/2009) and the 20th (at Ryukoku University on 22/05/2010)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this Association. And these lead to the idea that the Catholics whose ancestors were *Kirishitan* always calmly endured the discrimination by the native population at Nagasaki city centre, with religious patience. Now I shall show you a brief sketch of the history of *Kirishitan* at Urakami (浦上), a major *Kirishitan* group. Urakami is now a part of Nagasaki City, but in the Edo era it was Urakami Yamazato Mura (浦上山里村), a village in the northern suburbs of Nagasaki, also called Urakami Mura Yamazato (浦上村山里).

1. Transformed Religion: From Catholicism to Kirishitanism

A big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feudalism at Shimabara (島原の乱) was put down in 1638. Since this year, all *Kirishitan* were forced to hide away.

"All the missionaries were arrested in the thorough strategy by the Shogunate or died of diseases after the Resistance at Shimabara. Underground religious organisations collapsed, so believers lost their priests who had taught them, had listened to their confession to God, and had read Masses.

"Latent Catholics only imitated the style of their ancestors' religious lives with no instruction. In the early days the imitation must have been complete, but years made their memories vague, the style transformed, and the elements of Buddhism, Shintoism and folk beliefs were mixed into their Catholicism."[1]

The element of Shintoism which Endo Shusaku (遠藤周作) indicates above must include the concept of *kegare,* especially the idea that things concerned about blood or waste matter cause disaster. We can guess this because there exists this kind of idea in the folklore of present *Kakurekirishitan* (カクレキリシタン also called *Kakure,* different from Catholics) in Ikitsuki Island (生月島) today. For example, *ojisama* (オジ様), the male leader of a *Kakure* group, must not do anything connecting with *kegare,* such as making love with his wife, taking care of his oxen and cows, or dealing with organic fertiliser. And "women have been thoroughly thought to wear *kegare* because they have menstruation, so they have been strictly prohibited from entering a room which contains an altar, looking at an icon, let alone touching it. They were forbidden even to learn *orasho,* the phrases of prayer[2]. The above are only some examples.

2. Wearing *Kegare* to Live On

Endo explains more as follows:

"If a village was of *Kirishitan,* the next village was not. It seems that very few people of the next village recognised that there was a *Kirishitan* village just near them. This means that a *Kirishitan* village was kept only by the power of uniting the villagers themselves. It was their identity and the heart of admiring their ancestors that united themselves, under the strict prohibition of Christianity.

"A small village of theirs was the only place where they can have trust in others. If they go outside only a step, there spread the incredible world of *zencho* (ゼンチョ), people of anti-*Kirishitan.* All the *Kirishitan* pretended to be obedient and assimilated, never leaking the secret existence of their own organisation, because leaking immediately meant their death and ruin. Their dual lives of camouflage made their own small village the only world which they should obey. "[3].

Endo indicates that it was "their identity and the heart of admiring their ancestors" that made *Kirishitan* unite strongly, but I add "their shouldering *kegare* of blood".

Kirishitan at Urakami must have had the consciousness that the things concerned blood had some *kegare* on, but some *Kirishitan* ran slaughterhouses and provided meat for Dutch people at Dejima (出島) and Chinese people at Tojin Yashiki (唐人屋敷) during the Edo era[4]. This truly means to shoulder *kegare,* so *Kirishitan* at Urakami must have been detested by others. But it was this that helped them to hide their religion and live on.

---

[1] 遠藤周作『切支丹時代――殉教と棄教の歴史――』, 小学館ライブラリー, 1992 年, 180～181 頁。

[2] 宮崎賢太郎『カクレキリシタンの信仰世界』, 東京大学出版会, 2006 年, 226～229 頁。

[3] 前掲遠藤書, 163, 198 頁。

[4] 重藤威夫『長崎居留地と外国商人』, 風間書房, 1967 年, 179 頁。

3. An Open Secret Existence of Kirishitan at Urakami

As I mentioned above, Endo says, "If a village was of *Kirishitan,* the next village was not. It seems that *very few* people of the next village recognised that there was a *Kirishitan* village just near them." As he uses the words "very few" delicately here, it is unbelievable that *Kirishitan* lived quite secretly. In fact, *Kirishitan* at Urakami were registered as Buddhists only formally and they belonged to the Temple Shotokuji (聖徳寺), as every farmer was forced to belong to a temple of Buddhism by the Shogunate. From the temple now you can view the steep hills and forests where *Kirishitan* used to live. In the Edo era trees must have been cut down for firewood, and before evening meal, plumes of smoke must have risen from the cabins, so it was impossible for people living in hills to hide themselves completely.

In addition to this, *Buraku* people, whose duty was to arrest *Kirishitan* when suppression broke out, lived just near the temple. Actually the First Suppression at Urakami (浦上一番崩れ) occurred in 1790, the Second (浦上二番崩れ) in 1842, the Third (浦上三番崩れ) in 1859, so people at Nagasaki city centre must have known the existence of creepy people named *Kirishitan,* whom they should not approach, as an open secret.

In Nagasaki City, same as many other places in Kyushu, the Allegiance Tests (*Ebumi* 絵踏), where all people were forced to step on copper tablets with a crucifix or other Christian symbol (*fumie* 踏絵) in order to prove that they were not Christians, used to be held at the beginning of every year. It made people in this city feel strongly that Christianity was an evil religion, so they held a party for washing the evil away (yakubarai 厄払い) after every test[5].

4. More Than 600 Were Killed With Little Resistance

After opening Japan, a Missionary Bernard Thadée Petitjean (1829-1884) from France "discovered" Urakami *Kirishitan* in 1865. But 68 *Kirishitan* were arrested there by the Tokugawa Shogunate in 1867. The Meiji Government, established instead the year after, arrested 3,394 *Kirishitan,* who were almost all the villagers, and deported them to many parts of Western Japan. More than 600 died before the end of the prohibition in 1873 (the Fourth Suppression at Urakami浦上四番崩れ)[6]. The *Kirishitan* once started a riot, and attacked a village of *Buraku* people[7], but they did not make the situation escalate any more.

Endo thinks that the reason of it was their consciousness of "ancestors and secret organisation". That is "their emotion that they could never abandon the religion which their ancestors believed in, and their fear that if they had acted a different way from the villagers,

---

[5] 片岡弥吉『踏絵――禁教の歴史――』, NHK ブックス, 1969 年, 10, 107～108 頁。

[6] Kataoka Yakichi (片岡弥吉) says that the number of the dead was 664, and Tsuyama Chie (津山千恵) says 613. 片岡『長崎の殉教者』, 角川選書, 1970 年, 98 頁, 津山『日本キリシタン迫害史』, 三一書房, 1995 年, 198 頁。

[7] 浦川和三郎『浦上切支丹史』, 国書刊行会, 1973 年（1943 年刊本の復刻）, 136～152 頁, および磯本恒信「長崎の部落と被爆」, 長崎県部落史研究所編『ふるさとは一瞬に消えた――長崎・浦上町の被爆といま――』, 解放出版社, 1995 年, 7～8, 10～13 頁参照。

they would have been ostracised". Under the prohibition, they had no way but pretended to be Buddhists. So at every year's Allegiance Test they felt that they were malicious traitors to their ancestors who had been martyred. They begged Mother Mary's forgiveness hating themselves.

"Their religious sin changed into the one almost similar to *goh* (業) of Buddhism.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ity, a person can repent of his/her sin, but no one can flee from *goh* of Buddhism.

"*Kirishitan's* faith was to beg forgiveness for this *goh* of theirs. What a Japanese-styled faith this was!

"This way of transformation was typically Japanese, and it made the true religion for *Kirishitan,* because it fitted general Japanese concept of religion. It was so true that they never abandoned their faith which had been in their families for generations, in spite of the extremely severe suppression by the Shogunate and the Meiji Government."[8]

Among these sentences I can find no reflection of the fact that Father Petitjean secretly entered Urakami and retrained *Kirishitan* from the viewpoint of Catholicism. Especially he likely taught them to deny the concept of *kegare*, so I think that their contact was a very important point of leading western idea into Japan.

Kirishitan endured the suppression praying day after day, and they did not have any strategy, so i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later movement by Mahatma Gandhi of India. But *Kirishitan's* endurance bore fruit, and at last they were released in 1873. The period of 235 years, since 1638, when *Kirishitan* were forced to hide their religion finally ended, in spite of a tacit approval yet.

5. Social Perseverance Under Freedom of Worship

After the end of the suppression of Kirishitanism, the believers returned home, and in 1889 all Japanese subjects including them got the constitutional right of believing in any religions. However the feeling of common people in Nagasaki City about *Kirishitan* did not change easily. In the next year lots of *Kirishitan* from many parts of the prefecture gathered at Nagasaki Port to take part in the service memorising the 25th anniversary of "discovering" Catholics in Japan. They were accommodated at the ships anchored in the port, and it is said that their voices of prayer, perhaps with the joy of being guaranteed their regional rights, were heard around the port. But the fact that no newspapers covered this[9] tells us that the citizens did not welcome the *Kirishitan* but feel wrong with the scene which reminded the citizens of *Kirishitan's* deportation.

It was 1928 when Dr Nagai Takashi from Shimane Prefecture entered Nagasaki Medical University (長崎医科大学)[10]. In 1935 a convent named Junshin Seibo Shudo-Kai (純心聖母修

---

[8] 前掲遠藤書，197，202～203，211 頁。
[9] 以上，前掲浦川書，380～381 頁。
[10] 片岡弥吉『永井隆の生涯』，サンパウロ，2002 年，359 頁。

道会) , the nuns of which were all Japanese, established Junshin Jogakuin (純心女学院)[11]. The pupils' uniform was just like the one of nun's, so "pupils were laughed at calling 'Here comes *Yaso!*'", and even a little girl threw stones to the Principal Sister Esumi Yasu (江角ヤス, 1899-1980) shouting "*Yaso,* amen!" [12]. People in Nagasaki City showed a deep-rooted defiant attitude to a uniform of typical Catholicism.

The World War II broke out after that, and the A-bomb which was dropped over the city centre of Nagasaki, drifted by strong wind, and blasted the centre of Catholicism in Japan on 9 August 1945. People at the city centre rumoured that it was a divine retribution from Japanese gods. In November, under this discrimination, Dr Nagai declared that the massacred believers were perfectly clean, far from *kegare,* in spite of the miserable truth, at the Memorial Mass for the Victims held at Urakami Catholic Church, where *Kirishitan* used to be forced to step on icons at Allegiance Tests in the Edo era.

6. The Weight of Perseverance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In the Background of All the Phenomena in Nagasaki City

This overview of history tells us that *Kirishitan* at Urakami thoroughly endured the suppression, from 1638 when the Resistance at Shimabara was put down, to Dr Nagai of post-war. The number of the victims was too big, more than 600 in the Fourth Suppression, and about 8,500 in the A-bomb. They did not fight with any strategy, but always prayed, endured and showed a strong presence. Because of this attitude, the idea that *Kirishitan* wore *kegare* conceived by the population around Urakami, especially the people at Nagasaki city centre, was made so strong and invisible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ensure the idea from spoken or written words now.

It was Dr Akizuki Tatsuichiro (秋月辰一郎, 1916-2005) that opened up a new stage as a Catholic, who lived at Urakami but was not a descendant of *Kirishitan.* He mentioned, in his book *Nagasaki Gembakuki* published in 1966 (the title of the English version is *Nagasaki 1945*), that he could no more follow his mentor Dr Nagai who insisted that Urakami must thank God for an extremely good trial of being destroyed by the A-bomb[13]. Dr Akizuki became the first major leader of the peace movement from Nagasaki. I think the year of 1966 was the epoch when Urakami finished the history of only perseverance and began to change into a sender of positive message to Japan and World.

As the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the history of Urakami, which is more than two centuries of hiding with patience, and one century of additional patience, in the background of all the phenomena in Nagasaki City, including the shapes of girls' sailor uniform which are at the starting line of this study.

---

[11] This school renamed Junshin Higher Women's School (純心高等女学校) next year.

[12] 『江角ヤス学園長先生追慕の記』, 純心女子学園, 1981 年, 8～9, 121 頁。The word Yaso originally came from "Iesu", Japanese pronunciation of the word Jesus, but this word was often used ridiculously to Christians.

[13] 秋月『長崎原爆記』, 弘文堂新社, 1967 年, 164 頁。

【付記】本研究は，平成 20～22 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深層構造としての教育文化解明のための比較教育文化（「モノ」「コト」）史研究」（研究代表者＝添田晴雄・大阪市立大学大学院准教授）を用いた研究の一環である。

한국과 일본에서의 재산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제한물권과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자의 배제-

임석원(부경대학교)

Ⅰ. 머리말

형법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절도죄라든가 강도죄나 횡령죄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임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재산범죄의 유형이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대중들도 어느정도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제한물권과 채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더군다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한 주체가 물건의 소유권자라고 한다면 더욱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형법은 민법상으로는 최고의 완벽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소유권자라고 할지라도 형법이 정해놓은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유권자를 엄벌하고, 제한물권자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입법상 마련해 놓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형법상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입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국형법에서의 보호규정

한국의 형법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제3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기위한 범죄로 들어가는 관문에 속하게 된다.[1)]

제37장을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상의 구조를 분류하여보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입법상의 위치가 파악된다.

1. 점유권·제한물권 ·채권의 보호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 중에서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만이 점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즉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1) 그 증거로서 제38장부터 바로 절도와 강도의 죄가 입법되어 본격적인 재산범죄형태를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형태는 제42장인 손괴의 죄 까지 연결된다.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행위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절도죄 또는 손괴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제328조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하고, 상기 이외의 친족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절도죄와 마찬가지의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2], 친족상도례 규정을 입법하여 인적처벌조각사유로 하고 있다.

2. 국가의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의 보호

한편 제37장의 범죄형태중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는 채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공무를 면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원래 과거의 형법에서는 국가의 강제집행의 기능을 보호하는 죄로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의 형법개정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규정되어 제37장에 입법되었다.

Ⅲ. 일본형법에서의 보호규정

일본의 형법은 우리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처럼 한 조문에서 직접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러 조문에서 준용형식으로 권리행사방해죄를 입법하고 있다.

1. 제242조(타인의 점유등에 관계된 자기의 재물)

일본형법 제242조는 자기의 재물 즉 자기에서 재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나 공무소의 명령에 의해 타인이 간수하는 재물은 제36장의 죄에 대하여는 타인의 재물과 똑같이 본다고 한다. 이는 점유권을 보호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자기의 재물을 같이 취급한다.

일본형법 제235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행위의 주체로 하여

2) 형법 제344조.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제242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 을 절취하는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근거는 현재 일본에서 “타인의 재물”에 제242조가 준용되는 근거로서 보호법익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진다. 즉 소유권과 그 이외의 본권(질권, 유치권, 임차권등)으로 보는 본권설[3], 점유자체 즉 점유일반으로 보는 점유설[4], 평온한 점유와 적법한 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중간설로 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형태는 절도죄와 재물에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의 부동산침탈죄(제235조의 2), 강도죄(제236조), 강도예비죄(제237조), 사후강도죄(제238조), 혼취강도죄(제239조), 강도치사상죄(제240조), 강도강간 및 동치사죄(제24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제37장에도 제242조가 준용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죄는 사기죄(제246조), 전자계산기사용사기(제246조의 2), 배임죄(제247조), 준사기죄(제248조), 공갈죄(제249조)가 해당된다.

결국 일본형법 제242조는 모든 재산범죄에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권이 있는 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5]

제242조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나, 제243조에서 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제244조)역시 절도죄와 부동산침탈죄 그리고 그 미수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262조(자기의 재물의 손괴등)

이는 일본형법이 손괴행위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처벌하고 있는 조문이다. 이는 제242조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입법한 규정으로 보인다. 행위의 주체는 “자기의 물건이라도, 차압되거나 물권을 부담하거나 임대한 물건을 손괴하거나 상해한 자” 이다.

구체적인 준용규정은 제259조(사용문서등훼손죄)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 제260조(건조물등손괴및동치사상죄)에 의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선박, 제261조(기물손괴등)에 의한 기타물건에 제262조가 준용된다.[6]

---

3) 일본의 학설은 예전에 본권설이 통설이었고, 판례도 예전에는 본권설에 입각하고 있었다; 본권설에 의하면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이 되찾아 오는 경우에 제24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학설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에서는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4) 현재 일본의 판례는 점유설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점유설에 의한다면 피해자가 절도범인으로부터 절취당한 재물을 절취 직후에 다시 되찾아 오는 경우에 절도범의 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제242조에 의해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5) 이상하게도 횡령죄가 누락된 것은 의문이다.

6) 일본형법 제262조가 “전3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제258조의 “공용문서등훼손죄”는 준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용문서는 공무소의 소유이므로 자기의 물건이 될 수 있는 여

3. 제96조의 2(강제집행방해죄)

일본형법 제5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형태중에서 제96조의 2(강제집행방해죄)는 우리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마찬가지로 채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행위의 주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또는 가장양도하거나, 혹은 가장의 채무를 부담한 자”를 행위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형법과는 달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한 형태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입법하고 있다. 행위의 태양은 우리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일한 4가지(은닉, 손괴, 가장양도, 가장의 채무부담)의 행위형태를 행위의 태양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형법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Ⅳ. 비교 및 검토

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소유권자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제한물권과 채권을 보호하는 입법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형법은 법정형을 비롯한 처벌의 범위가 일본의 형법에 비하여 낮고, 또한 범죄의 성립도 모든 재산범죄의 행위형태를 전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단순히 재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취거나 은닉 및 손괴행위만을 처벌한다.[7] 또한 강제집행면탈행위도 국가의 법익을 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로 보아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의 장에 분류해 놓고 있다.

반면에 일본형법은 한국형법과는 달리 모든 재산범죄의 전체 보호법익에 소유권을 제외한 제한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서 입법해 놓고 있고,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소유권자를 처벌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행위도 국가의 적법한 법집행을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하여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재산권 특히 소유권에 대한 양국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은 예로부터 내 것, 자기 것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개념이 강

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 한편 법정형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괴죄의 법정형이 자기의 재물의 손괴죄의 법정형보다 더 낮은 것은 한국형법이 반드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내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일본은 소유권도 형법상으로는 다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국가가 형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아마도 이는 양국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오는 딜레마인지도 모르겠다.

참 고 문 헌

곽윤직, 물권법(제7판), 박영사, 2002.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1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제3판), 삼지원, 2008.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新版 第3版, 成文堂, 2009.
大塚仁, 刑法概說(各論), 第3版增補版, 有斐閣, 2005.
福田平, 全訂刑法各論, 第3版增補, 有斐閣, 2002.
岩波コンパクト六法, 東京: 岩波書店, 2004.
西田典之, 刑法各論(第5版), 弘文堂, 2010.
林幹人, 刑法各論(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2007.

Protections in the criminal law about property of korea and Japan

Seok Won,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tections in the criminal law about property of korea and Japan. An owner will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if he violates another's property (a limited real right, an obligatory right, etc), even though he has perfect right in the civil law.

This paper shows difference of legislation about protections of property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ly, japan's criminal law is more far-reaching than korea in the aspect of criminal completion.

Secondly, korea's criminal law is more narrow than japan in the aspect of punishment.

Thirdly, japan's criminal law punishes an obstructor of execution for violation of a na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아동 성장에 따른 비행 행동의 성별 차이 탐색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Antisocial Behavior for the Change of Child Development

허 균 (부경대학교)

1. 연구 필요성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독립적이고 긍정적 자아관이 형성된다. Bandura(1986)에 따르면 아동들은 관찰 가능한 성인을 모방하거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자신이 접하게 되었던 환경, 성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이 표출되는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행행동의 원인을 여러 연구자들은 환경이나 다양한 관계 사이의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비행 행동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서 비행 행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Parker & Benson, 2004; 허균, 2010; 류소연・박요섭, 2007; 김경식・이현철, 2007, 김은경・유가효, 2002; 이은주, 2000).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은 생리적, 사회학적, 심리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무엇을 범죄로 보느냐에 따라 그 빈도의 상대적 비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이수진, 2004). 하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와 활동의 증가 등의 이유로 통계자료에서는 여성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범무연수원, 2001). 따라서 성장기 아동들의 비행 행동을 성별에 따라 살펴

보는 것은 아동 발달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행 행동의 변화와 성별 차이를 탐색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동북아 문화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비행 행동의 성별 차이 탐색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부가패널인 아동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조사는 3년을 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4차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년도 조사는 2006년도 응답자는 초등 4, 5, 6학년을 대상으로 759명 응답하였고, 4차년도 조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인 612명이 응답하였다.

연구 변인으로는 비행, 자아존중감, 성별 변인을 활용하였다. 비행 척도는 Achenbach의 척도를 국내에 표준화 시킨 K-CBCL 문항(오경자 등, 1997)의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변인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도 차이 검사(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평균 비교 분석 결과 (t-test)

요인	*평균(남)*	*평균(여)*	*유의확률*
자아존중감 1차	2.9770	2.9898	.736
자아존중감 4차	2.9775	2.9652	.767
비행행동 1차	1.1335	1.0922	.000
비행행동 4차	1.1159	1.0757	.000

결과에 따르면 비행행동에 있어 1차와 4차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가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도구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Bootstrap 방식 적용)

Parameter	*Estimate*	*Lower*	*Upper*	*p*
Child_gender->SE1	.013	-.054	.086	.679
SE1->CR1	-.097	-.162	-.054	.000
Child_gender->CR1	-.023	-.043	-.009	.001
SE1->SE4	1.105	.776	1.698	.001
CR1->SE4	1.194	.007	4.126	.048
Child_gender->SE4	.002	-.090	.104	.968
SE1->CR4	.051	-.006	.205	.079
CR1->CR4	.447	.203	1.224	.001
SE4->CR4	-.061	-.143	-.021	.001
Child_gender->CR4	-.010	-.023	.004	.118

3. 결론 및 추후 연구 방안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행 행동의 차이를 평균차이 검사와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방식으로 비교해 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을 조건으로 통제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특성 변인들과의 관련성 탐색, 가부장적인 구조를 갖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허균(2010).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의 변화 연구. 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73-483.

Achenbach, T. M. and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Queen City Printer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FL: Academic Press. 205-246.

* 기타 참고 문헌은 지면 관계로 생략함.

창조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문화정책방향

김창경(부경대)

Ⅰ. 서론

20세기 말 창조도시 “City of blue Ocean”은 마치 마술사의 마법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새로운 상품(New Product),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 새로운 서비스(New Service)로 도시공간이 새롭게 창조되면서 활기가 넘치고, 삶의 질의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누가 마술사의 마법에 흡인되지 않겠는가?

부산시는 2010년 3월말에 “부산 창조도시포럼”을 선포하고 창조도시를 지향함을 공식선언하였다. 부산시의 “강동권”(북구, 사하구, 사상구 3개구)재개발에서 창조도시지향(김형균, 2010), 도시설계, 건축, 토목에서 예술, 디자인, 인문을 조화하려는 새로운 개발방식(강동진, 2010) 등은 기존의 단순한 하드시티(Hard city)에서 새로운 창조적 조합과 재생을 강조하는 소프트시티(Soft city)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소프트시티의 매력은 예술(art), 문화(culture), 테크놀리지(technology)가 도시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부산 팔경”을 전통, 자연, 현대가 함께 숨 쉬고 창조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한 이탈리아의 볼로냐 도시처럼 전통적 건축과 문화가 현대의 예술, 기술과 조화로우면서 “창조경제”를 이끌면서 선진국 최악의 재정적자의 모욕을 벗어나 “지역자치 모범의 힘”을 창조함과 비길 때 한국의 제2의 도시-부산은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부산이 창조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창조도시의 꽃” 이라는 문화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근래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아세아에서 제일 큰 불꽃축제를 통해 부산시가 예술의 도시로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성공적인 창조도시와 비교할 때, 그 거리는 여전히 멀다. 특히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산업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문화 창조산업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부산은 독특한 자연경관, 역사문화, 전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린의 요코하마, 최근에 부상하는 상하이, 베이징과 비교할 때도 전반 문화 창조산업을 기획하는 “정책”이 부재함이 나타난다. 또한 늦었지만 최근 “부산 창조도시포럼”의 출범은 이런 약점을 인식한 첫 발자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이탈리아의 “볼로냐모델”을 부러워하여도 단순히 벤츠마킹함으로써 “부산모델”이 탄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후발국가들의 도시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창조도시”로 발전하여 가는 것을 고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전국의 성공모델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후발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선진국의 창조도시를 벤츠마킹하면서 자신의 도시특징에 맞게 성공한 “창조도시모델”을 만들어가는 가를 고찰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베이징, 2010년 상해 엑스포를 통해 세계를 향해 “경관의 아름다움”과 “생활의 질”을 조화하려는 “전시(展示)모형”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베이징, 상하이의 하드시티(hard city)로는 충분히 긍정하고 있지만, 이 도시들이 바

야흐로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되고 있는 “문화창조산업”의 위력은 잘 보지 못했다.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베이징의 따싼즈(大山子)지역의 공장798예술단지의 특성화, “중관촌 테크노파크”, 상해 국제미술품시장의 활성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외국인 거리의 조성 등에 주목하면서 문화창조산업에 조금씩 연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발전한 연해도시의 지방정부들이 “문화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화정책”이 어떻게 도시공간에 녹아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정책”이 어떻게 "문화창조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면서 기숙, 예술, 문화가 함께 “혼성화” 되면서 새로운 창조적 힘과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Ⅱ. 국내 외 연구동향

서구의 창조도시육성을 고찰하여 보면 문화창조산업의 육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파생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이 집약화 된 부산의 경우를 볼 때, 청년실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창조계층”을 육성함에 있어서 문화창조산업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즉 어떻게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을 활용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는 정책제안자들이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해야 할 원인이기도 하다.

창조산업이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각되면서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창조산업’을 제시하며 그 경제적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창조산업이 도시와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창조산업은 삶의 양식 및 사회, 문화 정체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에 부와 다양성, 사회적 안정성을 불어 넣어주는데 기여하는 한편, 도시는 창조와 혁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실험실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희영, 2008)

그 동안 ‘창조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창조산업의 범위,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타국의 경험 연구에서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연구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창조산업의 육성이 도시경제 성장전략으로 부각되면서 연구자들은 창조산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창조산업에 속하는 업종에 대한 분류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국 DCMS는 창조산업을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양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등 13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주는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광고, 게임, 양방향 오락, 건축 및 연관 활동,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 등 9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관광부는 영화, 음반·비디오·게임,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 광고, 미술품, 공예품 및 기타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을 창조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창조산업의 실제적 이해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통용되는 산업 범위와 통계적 기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 영역에서

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희연·황은정(2008)은 창조산업을 건축, 전문 디자인광고, 영화 및 비디오, 방송 및 뉴스 제공업, 음악 및 음반 출판 공연예술, 문화재 관련 산업 R&D, 소프트웨어 제작 및 게임 등 11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구문모(2005)의 연구에 따르면 창조산업은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 영상물, 문화재, 캐릭터, 산업디자인을 제외한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및 기타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이 있다. 또한 임상오 (2008)는 창조산업을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음반, 영화, TV, 출판, 패션, 완구, 게임 등 문화적, 예술적, 오락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창조산업을 선별하고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이 제시되며 그 경제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은 창조경제와 경제성장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연구와 아울러 정책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국민 경제적 측면과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되었다.

김의준 외 (2009)는 공간계량통계를 이용하여 창조산업이 지역적 분포, 창조산업간 연관관계,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및 창조산업 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힘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창조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으며, 창조산업은 통신 산업에 이어 도시고용 성장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주수현·유영명은 분산과 전국을 구분으로 문화산업 부문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산직역에서 소득유발계수는 문화관광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방송 산업 및 광고 및 정보 제공업 순으로 높으며 서비스업과 비슷하며 제조업보다는 높다. 그러나 부산은 기타 제조 제품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제외하면 전국 단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과 전국단위에서 문화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서비스업, 제조업, 농립어업 및 광업보다 높은데, 이것은 문화산업의 노동집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문모(2007)는 인재확보가 그 어떤 생산요소보다 지역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주요 광역시들의 고용성장 현황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창조산업인력의 고용변화를 입지계수 분석에 의한 업종의 지역 특화 성향, 고용변화의 이면에 내재하는 원인을 상세히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방 주요 광역시와 서울시간 고용 성장의 격차는 최근 들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들의 창조산업 인력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경쟁우위와 전문화에서 각 지역별로 뚜렷한 특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구문모는 부산광역시가 영상관련 업종에 계속 집중하여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창조도시를 도시의 발전전략 내지는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게 되자, 타국의 경험연구는 한국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은 물론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하는 시도가 관련 분야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혜진은 창조산업원구를 중국의 새로운 도시형 산업지구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창조산업의 발전 현황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형 산업 지구의 하나로서 창조산업 집적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초보적으로 클러스터의 행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베이징시를 사례로 중국 창조산업 집적지의 형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모델로서

는 자연형성 모델, 기존 자원 개조모델, 기존 인프라 확대모델, 신규건설 모델 등 네 가지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연구자들은 창조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 영역에 착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각 급 정부가 창조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특성화정책의 미흡, 창조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사업개발 부재 등과 같은 진단을 내리면서 창조적 생태계 제공, 거버넌스 시스템, 인큐베이션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타국 경험연구에서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창조산업이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Ⅲ. 부산 문화 창조 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졌다. 첫째는 부산의 문화 창조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부산시가 창조도시 부산과 문화도시 부산의 내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 부산시가 창조도시란 큰 틀에서 문화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안적 문화정책과 추진양식을 찾고자 한다. 둘째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문화정책 제정과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에 올림픽, 엑스포를 통해 현대국제도시로 급성장한 베이징과 상해가 문화 창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문화정책의 제정과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상황, 그리고 "문화적 요인과 도시 인프라구축"이 비교적 잘 융합되는 창조도시와 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도시개발모델은 부산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셋째는 부산-상하이-베이징 국제문화도시네트워크의 구축과 문화경제 시너지효과 발생에 대한 연구이다. 즉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한류의 "중국화"와 문화산업의 유통경로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는 중요한 연결망 혈(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3개 도시를 연결시켜 부산시가 최근에 "국제영화제"등을 통하여 축적한 "아세아영상허브"의 이미지를 "국제문화창조산업"의 핵심사슬로 위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과 고용의 확대란 경제 문화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1. 부산의 문화 창조 산업 현황과 문화정책의 문제점

부산은 지속적으로 문화 창조 산업을 육성하였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부산시 창조산업 생산성은 1999-2004년 8.3%로 증가하였고, 2004-2006년에 연평균증가율이 9.9%로 증가되면서 문화 창조 산업의 기반을 점차 확보하였다는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등 을 통하여 영상미디어가 문화 창조 산업의 브랜드로 등장하면서 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문화산업관련의 고용효과 등에서 지속적인 안정성, 고용자수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 특히 주목할 정도의 "창조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중관촌 IT타운","공장 798" 등은 기술자, 예술인 집거하는 "창조계층"의 선명한 특성화가 형성되었지만, 부산시는 "창조계층"이 집약된 일자리 공간과 수가 인재가 분산되어 시너지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0 부산의 비전과 목표>>란 중장기 창조산업육성 계획안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산시가 한국 남부권 중추도시를 목표로 경제와 생태의 동반성을 추구하면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로 지역혁신과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기존에 문화부분을 “해양문화”로 좁게 정의하고 “관광”과 연결 짓는 “소 문화”라면 지금은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창의성과 연결 지으면서 “대문화”로 창조산업을 접근하는 선택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7대 프로젝트와 10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창조도시로서의 “문화도시”라 포함되어 있고, 창조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문화도시 구현”이 설정되고, 10대 문화 분야의 목표로 “즐거움과 향유가 있는 문화도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대 비전의 하나인 “영화-영상타운 조성”의 사업만 970억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후속으로 영상후반작업시설에 320억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산문화콘텐츠 콜렉스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제정과 추진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여전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비전에 비해,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0대비전을 포함해 대부분 기반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였는지, 중점육성분야의 선정, 지원기구 구축방안, 인력확보 방안 등 계획의 부재라는 점이다. 즉 “문화”가 핵심으로부터 주변화 되면서 “소프트웨어”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이는 창조도시의 “핵”을 이루는 “창조계층”의 육성에 뒤처지면서 “문화도시”란 미명하에 자칫하면 “부동산 거품”위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문화와 산업을 연결시키는 문화정책과 장기 추진전략의 부족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하여 “하나의 축제”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문화창조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면에서 부족하다.

셋째는 문화와 과학기술의 결합이 부족하다. 부산의 창조산업 육성전략에서 문화와 과학을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10대 비전의 전략이 “분산”되어 있다. 창조는 “혼성화”되고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지만, 그런 “융합전략”이 부재하다.

2. 상하이와 베이징의 문화정책의 시사점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의 산업발전에서 창조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이 도시는 ‘번영과 관리를 동시 진행 ()’ 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점차적으로 오락시장, 공연시장, 음반시장, 영화시장, 인터넷문화시장, 예술품시장 등 항목으로 통합 된 창조산업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중국의 창조산업 시장은 통합성, 개방성, 경쟁성, 질서 등 특징이 있으며, 행정법, 사회감독, 산업자율, 기술 감독 등이 주축을 이룬 ‘문화시장감독관리체계’를 형성하였다.

베이징의 경우, 2008년에 문화창조산업이 북경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서 북경시 기둥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정부투자의 규모로 볼 때, 부산시의 10대 비전사업의 하

나인 영상육성타운 육성전략에 투자한 것도 투자규모면에서 훨씬 많다는 점도 주목 받는다. 2006년에 북경시는 “공장 798”를 “예술의 거리”로 선포하고 자체의 문화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장 798” 이미 문화 산업이 결합되는 단계를 거쳐, 제작, 유통이 일체되면서 “관광”, “이벤트”의 경계를 넘는 산업으로 육성되었다는 점에서 부산시에 주는 시점은 크다. 그리고 이런 육성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도 100억 위엔 이란 거대한 투자를 이루고 있는 면도, 부산시의 분산적, 단절적 투자와 그 효과로 볼 때, 정책의 추진효과에서 차이를 낳는다는 점도 부각된다.

2009년 9월에 중국은 “문화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는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산생하는 문화창조산업이 후발국가인 중국의 도시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국제적인 “모델”로 형성될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아야겠지만, 현재시점에서 볼 때, 성장속도와 규모, 특히 정부조도의 문화정책 제정과 추진에서 주는 시사점은 크다.

3. 부산-상하이-베이징 국제문화도시네트워크의 구축

본 연구에서 국제교류의 활성화, 특히 유교문화권의 국가이며, 거대한 문화시장의 허브인 베이징, 상하이와 어떻게 도시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부산, 상하이, 베이징의 창조도시의 특성, 문화창조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여 파악하고, 연결망구출 가능한 방안을 도모하는 것은 부산의 문화창조산업의 “문화공간”의 무한한 확대와, 창조콘텐츠의 다양성을 최대하며, 문화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효과를 최대함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영상미디어산업의 예로 볼 때, 이미 글로벌제작, 글로벌마켓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문화, 아이디어, 취향을 국가별, 도시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효과와 도시브랜드를 최대화효과를 가질 수 있다. 부산시 자체가 창조도시로서 “문화브랜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통하여 중국시장에서 확실하게 높은 고부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에 있어서 창조도시 문화네트워크 구축은 시너지효과를 확대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Ⅳ. 제안

국제간 비교의 시각에서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부산의 창조도시 조성은 대부분 “동남권 경제”란 일국 내 갇혀 있는 한계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와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창조도시 조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연구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부산-베이징-상하이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아젠다와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의 창조도시 특징과 문화창조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도시의 문제점과 장점을 정확히 짚어 냄으로써 상호보완이 가능한 “협력파트너”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부산시의 문화창조 정책을 국제화**로 이끌어 가는데 공헌 할 수 있다.

부산-상하이, 부산-베이징 국제문화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최근까지 부산시는 “아시아의 독보적 존재적 허브”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문화환경에서 선진

국의 뉴욕, 런던, 동경 등 글로벌 도시 외에 하나의 허브를 지향하는 것은 실천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유교문화권, 중국의 시장과 자본 우위성과 한국의 기술, 콘텐츠 우위성을 융합하여 베이징-상하이-부산 “삼각허브”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다가오는 지역협력에 참신한 협력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石杰, 『文化創意産業概論』, 海軍出版社, 2007.
吳存東, 吳瓊, 『文化創意産業概論』, 中國經濟出版社, 2010.
姜毅然, 張婉茹 等, 『以市場爲導向的日本文化創意産業』, 人民出版社, 2010.
宮承波, 『文化創意産業總論』,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8.
蔣三庚, 『文化創意産業研究』, 首都經貿出版社, 2006.
蔣三庚, 王曉紅, 『創意經濟概論』, 首都經貿出版社, 2009.
呂學武 主編, 『文化創意産業系列叢書』,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07.
詹正茂, 『藝術文化經濟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Richard Caves, 『文化創意産業』, 臺北 典藏藝術家庭股份有限公司, 2004.
勞倫斯 萊斯格, 『免費文化:創意産業的未來』, 中國出版社, 2009.
弗里茨 馬克盧, 『美國的知識生産與分配』,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大衛 赫斯蒙德夫, 『文化産業』,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白遠, 池娟, 『文化創意産業發展比較研究』, 中國金融出版社, 2009.
韓永進, 馬敏 等 主編, 『2006-2007中國文化創新年度報告』, 科學出版社, 2008.
牛維麟 主編, 『國制文化創意産業園區發展研究報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張養志, 『首都文化創意産業發展中的板權貿易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牛維麟 等, 『北京市文化創意産業集聚區發展研究報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劉牧雨 主編, 『北京文化創意産業發展:理論與實踐探索』, 中國經濟出版社, 2007.
『北京CBD文化創意産業發展研究』, 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9.
張京成 等 主編, 『創意爲王-中國創意産業案例典藏』, 科學出版社, 2007.
張京成, 『中國創意産業發展報告』(2007), 中國經濟出版社, 2007.
劉春成, 侯漢坡, 『創意照亮的空間-文化創意産業案例輯』, 知識産權出版社, 2007.
李宇紅, 『文化創意經典案例教程』, 中國經濟出版社, 2008.
안병선, 『21C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출판사, 2000.
金冠軍, 鐘瑾, 『電影創意産業』, 東方出版中心, 2009.
厲無畏, 王慧敏, 『創意産業新論』, 東方出版中心出版社, 2009.
『2010-2015年中國文化創意産業全景調研與投資遠景規劃分析報告』.
蘇拾平, 『文化創意産業的思考技術』, 上海人民出版社, 2008.
『中國廣波電視文化創意産業論文集』, 中國廣波出版社, 2009.
曹文瑞, 『挑戰2008國家文化競爭優勢』, 臺灣, 橘園國際藝術策展, 2005.
《文化蓝皮书：2010年中国文化产业发展报告》
김동진, 박종화, <도시문화산업의 경쟁력 요인>, ≪한국행정논집≫(2006), 제18권 제1호.
구문모, <부산광역시의 문화산업 특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문화경제연구≫(2007),

제10권 제2호.
구문모, <국내 지방광역시의 창조산업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본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2007), 제19권 제2호.
이희연, 황은정,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서울을 사례로>, ≪국토연구≫(2008), 제58권.
임상오, <창조도시, 문화가 살린다: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국토≫(2008), 제322호.
주수현, 유영명, <전국 및 부산 문화산업의 파급효과 비교분석>, ≪관관레저연구≫(2006), 제18권 제1호.
김혜진, <중국의 새로운 도시형 산업지구 연구-창조산업원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2009, 제32권 제4호.
김의준 외,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2009), 제21권 제2호.

한반도 분단의 성격 고찰

주봉호(동의대)

Ⅰ. 서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가장 중요한 학문적 화두요 실천적 과제이다. 거기에는 국가형성, 민족주의, 근대성, 국가(발전)전략, 평화와 전쟁과 통일의 문제, 민주주의 등 한 사회와 국가, 민족의 현실과 미래의 경로와 가능성을 조건 짓는 제약조건과 가능조건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있다. 요컨대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1945년 이후 한국문제(Korean Question)의 핵심요소를 구성하며 그 자체가 국제·남북·국내 수준에서 한국문제의 산물이자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분단사 연구에서 많은 주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분단문제 이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분단의 명시적 출발점이었던 38°선 획정으로 인하여 영토와 체계의 분단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동족상잔의 전쟁이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것이 휴전선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분단체제를 지속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단은 그것이 획정된 시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삶의 조건을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국제형분단과 내쟁형분단의 복합형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방과 동시에 외군에 의한 분할점령이 이루어졌지만, 그 같은 분할점령을 두 개의 국가에 의한 분단으로 진전시키고 그 분단을 전쟁을 통하여 고착화시키기까지 한 것은 민족내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 원인은 크게 민족 내부적 원인(내인)과 외세에 의한 원인(외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외세의 영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외인론자들은 남북 분단이 미·소간의 권력·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외세의 압도적 규정성'이라는 술어로 외인론적 입장을 개념화했다. 이에 반하여 외세보다는 '민족' 입장에 서 있으면서 비교적 근본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해방직후 한국인들을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역사가는 국내정치세력의 좌우대립(본질적으로는 계급대립)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인론을 정식화했다.

이러한 양극단적 평가에 맞서 외인론과 내인론 중 어느 것이 한국분단을 조망할 수 있는 이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두 원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했다는 복합론(한반도 분단이 중첩적이며 다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거의 모든 논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직도 논쟁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한반도분단에 기여한 민족내적 원인에 대한 규명작업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방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요한 시기마다 한민족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현실적·객관적으로 분단 원인을 규명하고자 복합론적 인식과 가변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좀 더 정밀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부기하고자 한다.

Ⅱ. 분단원인과 유형론

한반도분단에 관한 국외학계의 연구동향은 냉전기원에 관한 전통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으로 대립되어 진행되고 왔고, 국내학계에서의 논의는 38선 획정에 관한 제반이론, 분단외인론 그리고 분단내인론으로 나뉘어 전개되어 왔다. 기존연구의 전행과정에서 분단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상의 다양성이 타진되었고, 그를 통해 분단의식의 지평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사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한국분단에 관한 국외, 주로 미국에서의 연구시각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으로 나누어져 왔다. 전통주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소간 대립, 갈등현상, 이른바 냉전의 책임을 소련의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팽창정책에서 찾는 시각이며, 수정주의란 그 반대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 냉전구조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전후 미·소세계정책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있었으며, 한반도 분단문제는 그 과정에 부수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미리 설정한 가설의 입증사례로 다루어지곤 했었다.[1] 그러므로 냉전의 기원에 관한 대립적 인식에서 출발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한반도 분단논쟁은 분단기원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경향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분단구조의 객관적 위상의 정립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접근할 때 미·소 양국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책임있는 국가로 주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매도하기보다는 객관적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후기수정주의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구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책임전가식 대립구조 속에서 미·소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대립을 지양하려고 했다.[3] 후기수정주의는 '소련=제국론'(전통주의), '미국=제국론'(수정주의)의 양분법적 논리구조에 대항하여 '미국·소련=제국론'을 제시한다. 소련이 자기팽창을 위한 욕구를 가진 제국이라면 당시 최강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미국도 역시 세력을 확대하려는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을 추구한 제국(empire)이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후기수정주의의 입장은 국제정치 이론의 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냉전 몰락 이후 후기수정주의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보다 넓게 수용했는데, 그래서 수정주의자들은 후기수정주의자들을 신전통주의라고 부른다. 실제로 후기수정자들은 수정주의자들에 비해 보수적이며 중도우파(right-of-center)의 이데올로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기존의 전통주의-수정주의가 자료로 실증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을 가진 데 비해 후기수정주의는 자료를 섭렵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orthodoxy plus archives'라고 별칭된다.[4]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국가들을 국제적 요인에 의하여 분단된 국제형, 민족

---

1)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은 대체로 한반도의 분단 그 자체보다 냉전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국전쟁에서 출발한다. 전통주의적 예, William W. Stueck Jr.,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수정주의적 예,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eperate Reg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2)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 1944-1945」 (지식산업사, 2001), pp.33-35.

3) John Lewis Gadd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Vol.7, No.3 (Summer 1983).

4) 한편 후기수정주의자들 중 수정주의에 보다 더 경도된 인사들도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후기수정주의를 'revisionism plus archives'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요인에 의하여 분단된 내쟁형 그리고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합형으로 단순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는 국제형이며 중국의 경우는 내쟁형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단 초기의 상황만 본다면 한국은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이다. 즉 한반도는 국제적 요인(미·소의 분할점령)이 압도적인 상태에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분단의 개념정의가 타당해지려면 이들 3가지 분단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5] 분단에 대한 정의를 포괄성과 정밀성이 높아지도록 보완한다면, 분단이란 하나의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의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어 온 정치단위가 내·외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토착민들의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어 영토를 분할 지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의는 분단되기 이전의 통치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토착민의 주권적 통치체가 아닐 수 도 있으며(바꿔 말하자면, 식민지 통치기구일 수도 있으며), 분단의 내인, 외인, 내외인 복합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분단을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분단 현상의 핵심사항은 토착민에 의한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 구성과 그들에 의한 영토의 분할 지배이다.

이러한 분단의 개념정의를 한반도의 분단에 적용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한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던 정치단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게 된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 내부의 요인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설을 내인론으로, 우리 민족 외부의 요인 즉 국제적 요인이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설을 외인론으로, 내인과 외인이 복합작용하여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설을 복합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외인론과 복합론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외인을 두고서 미국책임론과 소련책임론으로, 미국과 소련의 정책 혹은 조치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분단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설을 미·소공동책임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단외인론적 시각은 한반도 분단구조화의 과정에서 미·소의 갈등관계를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분단외인론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해석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분단책임의 소재를 외세에만 전가할 경우 민족주체적 역사의식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6] 이를 일컫어 분단내인론으로 부르는데, 그 논리의 출발점은 분단외인론의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다. 즉, 분단외인론은 1) 분단에 대한 숙명적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2) 한반도분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기 쉽다. 3) 분단을 억제하려는 대내적 통합운동의 의의가 과소평가된다. 4) 분단극복의 자주적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약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초기 분단내인론의 기본논지는 한반도분단은 미·소의 분할점령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한민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분단내인론은 분단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에 대한 '복합적 내인론'으로 부를 수 있는데, 분단원인을 국내외적 측면에서 동시에 구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그러면서도 궁극적 책임은 민족내부에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내인론'이기 때문이다. 복합적 내인론의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문제를 조명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역사인식 및 접근방법에서 몇 가지 공통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첫째, 이들은 민족사의 주체적 정립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이들은 민족해방

---

5)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p.142.
6) 강만길, "분단시대사학의 성격,"「분단시대의 역사인식」(창작과 비평사, 1978), p.15.

운동과정에서의 방법론적 대립과 분열이 국가수립과정에서는 극좌와 극우의 적대관계로 이어짐으로서 분단이 초래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셋째, 이들은 좌·우익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중간파와 합작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중간파의 논리에서 '민족해방'의 규범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7)]

한반도분단의 문제를 주로 국제적 세력갈등의 시각에서 이해해 보려는 연구풍토에서 복합적 내인론의 등장은 분단문제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좌·우익의 양극화된 대결상황을 완충적으로 조정해 주고[8)] 자주적 국가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중간파 논리에 대한 재평가는 복합적 내인론의 출현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였다. 그러나 이 논리의 주창자들은 동시에 몇 가지 한계성도 보여 주고 있는바 첫째, 분단의 대내적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분단구조화에 작용한 외압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 둘째, 국내정치세력의 분열을 독립변수로 보고 미·소의 정책대립을 종속변수로 파악한다는 점, 셋째, 주체적 역사의식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빠져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9)]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학계의 연구동향에 영향을 받은 일단의 소장연구자들로부터 복합적 내인론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내인론이 제기되었다. 수정주의학파의 연구경향으로 지적되었던 국내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결탁, 좌익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구조적 탄압,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지방에서의 민중동요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고무된 일단의 연구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이 한반도에 내재하였던 계급모순적 갈등이 미군정의 정책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게 되었다.[10)]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면에는 냉전의 기원에 관한 수정주의자들의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 다만, 수정주의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데 반하여, 이들을 국내 우익세력의 계급적 모순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점만이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내인론을 일컬어 수정주의적 내인론으로 부를 수 있겠다.

무릇 문제의 원인이 단일적(단선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제 발생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복합론적인 인식은 내인과 외인 어느 한 원인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자는 시각이다. 외인과 내인은 그것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나눈 것이다.

따라서 내인론과 외인론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설명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내인이 우세한 복합형'과 '외인이 우세한 복합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면에는 내인과 외인 중 어느 것이 강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11)]

위와 같은 복합론적이며 유기적인 인식은 외인론과 내인론의 의견 대립에 맞서 중간적 입장에서 이를 지양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외세의 한국 민족주의 양자 모두 분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과 통한다. 또한 냉전의 기원 문제에 있어 미·소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적 양비론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기적·상대적 시각과 함께 분단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각은 가

---

7) 이호재, "해방 3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새로운 한민족외교사」(나남, 1987), pp.143-146.
8) 진덕규, "해방직후 좌우세력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p.100.
9) 안병도, "한국현대사의 연구동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현대사의 재조명: 1845-1980년대의 정치·외교 분석」(대왕사, 1990), pp.22-24.
10) 김광식,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 최장집 편,「한국현대사 1」(열음사, 1985), pp.181-182.
11)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한국전쟁학회 편,「한국현대사의 재조명」(명인문화사, 2007), pp.25-27.

변적・동태적 시각이다. 즉 외인과 내인은 특정 국면에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영향을 미쳐 상승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12] 이러한 가변적인 시각은 결정적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인식이다. 역사는 국면에 따라 외인론적 시각에서 조망해야 할 때도 있고 내인론적 시각에 의해 연구해야 할 시기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한 국가를 유형화하려고 할 때는 어떤 고정적 형태로 정형화할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체제분단의 형성과정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은 카이로(Cairo), 테헤란(Teheran), 얄타(Yalta), 포츠담(Potsdam) 회담을 하면서 전후 세계지도 재작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독일과 일본에 대항한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가도 중요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보상(compensation)의 차원에서 전후 패전국 처리와 패전국이 소유하였던 영토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을 시작하였다. 승전국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세력권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여 수단을 동원하여 전후 정책을 수립해 나갔다.[13] 한국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예상되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소련에 대하여는 아시아 전쟁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쿠릴열도 등의 영토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도 전쟁참전 대가의 보상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은 1942년부터 신탁통치를 고안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주안점은 해방 이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도 한반도에 대하여 일부라도, 아니면 일정한 지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중경 임시정부의 승인을 주저하였고, 군부 일각에서 대일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한국군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국의 전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 배제를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지리적・역사적으로 중국과 소련에 비하여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세의 위치에 놓여 있던 미국은 한반도에 새로운 개입을 하여 양국과의 세력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4]

45년 8월 9일부터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빠른 속도로 남진하여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상응한 군사력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소련의 한반도 전체점령을 봉쇄할 수 없었던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었다. 얄타회담 등 전시 회담을 거치는 동안 미국은 소련과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38°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세력분할을 제의하였다.[15] 미국은 급한 대로 일단 한반도의 분할, 즉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택하게 되었다. 추후 한국전 당시 유엔군이 반격에 성공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미국의 '분할통치' 정책은 고수되었다. '분할통치'

---

12)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유영익, 「수정주의와 현대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p.107.

13) 제2차대전 이후 승전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협력과 갈등에 대하여는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대출판부, 2000), pp.11-51.

14)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1), p.350.

15)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 (동산출판사, 1994), pp.263-327.

정책의 기본 논리에는 한반도가 상대진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기회를 포착하였으나, 당시 소련의 국가이익은 한반도보다는 만주와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미국의 38°선 분할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가 친미화하여 미국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하여 소련도 한반도에서의 방어적 거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상대방이 한반도를 독점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분할통치'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16)]

신탁통치안은 40년간의 일본 지배 후에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 예견되므로 국가통치기술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의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국민성,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감안한 최선의 안이라기보다는 강대국의 세력다툼에서 어느 한 국가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항복한 이후 미국이 한반도 전후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더라도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세력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한반도 전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중국 및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의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와의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던 미국의 영향력은 최대한도로 부상시키기 위한 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통치안은 미국외교정책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이나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을 때 신탁통치안은 더 이상 추구되지도 않고 추구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제의한 신탁통치안을 세력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미국은 전후 한반도 처리 및 통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변강대국들과 한반도에서의 공동 세력권 형성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조건이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민족은 미·소간의 대립양상을 내부적으로 단합해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했다. 탁치논쟁은 국내정치세력의 좌우대립에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이슈였다. 물론 이전에 임정·인공 간의 대립도 있었지만 두 조직이 모두 미군정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립은 곧 해소되었다. 찬·반탁 논쟁은 국제형의 분단에 내쟁적 요소를 가미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에 민족내적인 찬·반탁논쟁이 가세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구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좌우익간의 첨예한 찬·반탁 대립은 이후까지 지속됨으로써 분단의 내적 구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좌우대립에 탁치문제가 매개되면서 좌우대립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끝내 '골육상쟁'의 지경에 이르렀다.

미·소 양측 모두 현 상태(분할점령)의 지속을 원했으므로 모두 분단지향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로의 분단 의도를 정치적으로 파악하면서 각각의 일방적 조치를 상호상승시켰다. 즉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듯하면서 서로의 전략을 상호 증폭시켜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울효과(mirror image effect)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47년 10월 17일 정식으로 한국의 독립문제를 공위에서 유엔으로 이관시키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여 미·소합의안인 탁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모스크바결정 이전

16)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pp.351-352.

부터 '유엔을 이용한 탁치안'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모스크바결정의 실현(미·소공위에 의한 통일 임시수립)으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수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여 분단 지향적 정책을 합리화시켜 줄 수단으로서 '미국의 거수기' 유엔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유엔은 미국 외교의 뒷마당이었다. 미국은 세계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17]에서 한반도 정책을 표결로 밀어붙일 심산이었다.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된 미국안은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안'이었다.

한편 소련은 미국이 남한지역에 세력권을 형성한 것보다 강력한 공산체제를 북한에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는 당분간 당시의 분단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데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고,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유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북한 지역 입국을 거부하였다. 결국 미국은 분단의 고착화를 시도하여 남한만의 총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다시 '분할통치'를 통한 세력균형이 모색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주도한 외세의 정책 및 전략 등을 보면 대개가 자국의 '국가이익' 충족을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강대국의 이익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게 되자 결국 강대국은 한반도 분단을 택하여 세력권을 양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소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반도에 양측 모두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아닌 중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 경우 중립적인 한국 정부가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주변국이 통제할 수 없게 양측 모두에 적대적인 체제가 되거나 또는 주변국들 어느 편의 세력권에서도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봤을 때 한반도분단과 전쟁에 관련된 외세의 정책적 주안점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지하면서, 타국의 한반도 지배를 봉쇄하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Ⅳ. 분단의 고착화 과정

결국 미국과 한민당·이승만 세력의 주도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소련과 김일성 주도로 9월 9일 북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45년의 국토분단은 1948년 체제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미·소는 각각 남북에서 우익과 좌익을 견인해서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서 소기의 점령목적을 달성했다. 국내정치세력은 외세에 의해 주어진 분할점령 구도 하에서 미·소 각각의 우호적 정부 수립 기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에 영합해 분단구조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외인은 내인을 견인했으며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은 한반도에서 구축되었다.[18]

외인인 38°선 획정(미·소의 분할점령, 국토분단)이 강요되었으므로 한국의 분단은 국제형 분단으로 시작했다. 1946년 초 탁치논쟁으로 내쟁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1948년 남·북 각각 외세가 후원한 정부가 수립(체제분단)되어 외인과 내인이 결합되었으나 아직 국제적 성격이 강했다.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이었다. 1950년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

17) A. Green, *The Epic of Korea* (Washington, D.C.: Public Affairs Press, 1950), pp.78-93.
18)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pp.70-72.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민족분단'의 구조는 완성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제적 요인은 희석되었으며 내인의 비중은 높아져 갔다. 미·중간의 해빙무드가 조성된 1972년에는 외인이 약화되어 7.4공동성명을 산출, '내쟁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남북간의 직접대화가 현재까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내인은 상존하고 있으며, 1989년 냉전체제 와해라는 국제정치적 호기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냉전의 상징물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에, 그 분단이 고착화되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민족분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북한으로 분열되어 이념적 대결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남쪽 내부, 북쪽 내부의 분열은 분단의 고착을 더욱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점령한다는 명분하에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하여 세력권을 분할하였을 때, 남북한 인사들이 결합하지는 못하더라도, 남한 내부와 북한 내부에서만이라도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아니면 동족상잔의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당시의 국가이익이 상대국가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령국들은 내부 세력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남한과 북한 내부 한국인들은 여러 정파로 나누어져 반목과 대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다. 점령국가들에게 가장 유리했던 점은 내부분열로 인하여 토착세력으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의 이론과 사례에서 보면 타국을 점령한 국가는 그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모색하는 정책 중에 최우선은 은밀하게 내부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국내정치 개입'과 '분할통치'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19]

그러나 점령국들은 한반도를 무한정 점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착세력을 이념적·정치적으로 동맹세력화하여 냉전의 전초기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 미국인들은 한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의 상징으로 존속하도록 기대하였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미국의 아시아 본토에서의 거점을 잃게 되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토착정치세력을 무력화하고 미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한편 소련은 점령 초기 국내 정치세력을 활용하여 통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지리적 또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미국보다 소련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친소련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반도 분할을 통한 세력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에 개입한 양대 외세는 이렇게 이익 및 세력의 분배와 균형을 도모하였으나, 남북한을 장악한 지도자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않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한반도 독점지배의 시도와 이의 봉쇄가 되풀이되었다.

1950년 북한-소련-중국의 한반도 독점 지배의 의도는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주도한 서방동맹에 의하여 봉쇄되었다. 미국과 유엔군이 다시 한반도의 서방주도 통일을 시도하였고, 이번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중국이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결국 1953년 휴전협정을

19)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pp.354-356.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재분단되었고 1945년의 형태와 같은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20]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분단질서의 출발 지점이었던 1945년 분단의 시작과 1953년 정전(협정)체제=53년 체제의 특징을 말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금의 분단질서의 출발인 정전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적 수준의 미·소타협을 의미했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휴전합의에 따른 정전체제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타협=얄타합의=국제분단의 복원을 의미한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을 통해 쌍방이 공히 타파하려고 했던 얄타체제=타협체제로 회귀한 것이 정전체제였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문제의 시원이 되는 1945년 분단의 남북분단은 단순히 구조적 차원에서 국제 미·소냉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미·소합의에 따른 분단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분단의 시작은 철저하게 국제 분단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은 각각 국제 분할점령의 산물로서, 연장으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1953년 체제의 시작은 이러한 국제분단이 전쟁을 통해 강화되고 내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1]

요컨대 국제성과 지역성은 1953년 체제라는 분단문제가 지닌 현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정전협정에 의한 재분단은 1945년의 경우과 마찬가지로 한국문제에 대한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국제적 타협에 의한 산물이었다. 즉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힘의 균형에 따른 양진영 간의 비긴 전쟁으로의 귀결이었기 때문에 1953년 분단은 철저하게 국제적 분단이었다. 요컨대 국제(global), 지역(regional), 한반도(national) 수준에서 미·소, 중·일, 남·북 대결의 응축으로서의 한반도 휴전선과 정전체제로서 말을 바꾸면 세계 및 지역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이 조응하였던 것이다. 소련-중국-북한 연합체력과 미국-일본-남한 연합세력이 공존을 수용함으로서 등장한 동아시아 냉전체제로서의 1953년 정전체제의 본질은 이곳의 냉전질서를 정초하는 지역적 잠정협정, 즉 세계냉전의 한국화로서 국제-지역-국내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3층 수준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외견상, 38선을 경계로 미·소의 분할점령(1945)에서 기인되어, 남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1948)되면서 확정되었고, 전쟁(1950)을 통하여 고착화된 것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분단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내외적인 요인과 사건들이 관여했었다. 그리고 그 분단의 확정·고착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질서지우려는 외세의 작용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에 의한 근대화 개혁에 실패하고 반식민·민족자주의 방향으로 민족내부의 역량을 귀일시키지 못했던 한말이래 민족운동의 실패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22].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의 운명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점령국가에게 분열상을 보였다. 주변국들이 추진하던 '분할통치' 효과의 극대화에 일조한 것이다. 통일을 너무 빨리 포기하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려 할 때 이에 너무 순응적 자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

20)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 뒤 휴전이 체결된 이후 한민족은 반세기 동안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이념적인 분열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분열, 갈등, 대립을 겪게 되었다.

21) 박명림, "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명인문화사, 2007), pp.438-439.

22) 정영훈, "한반도 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21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p.140.

Ⅴ. 결론

한국의 분단은 구조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세계대립, 냉전대결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개항 이래 식민시대부터 내재하며 대립해온 민족독립과 근대국가건설의 노선이 국제냉전과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봉인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결정적 요인은 세계냉전이었다. 1945년 이후 분단문제는 지금까지 두 한국의 내부와 외양, 국가전략, 상호 관계를 결정지은 핵심요소의 하나였다.

결국 한반도 분단은 그 유형상 국제형(1945)→국제적 성격이 강한 복합형(1948)→명실상부한 복합형(1953)→내쟁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1972 이후)으로 변화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최초에는 민족외적인 외세의 힘(외인)에 의하여 분할점령이 강요되었으나, 민족내부의 근본적인 원인(내인)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분단 구조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인은 외인에 압도당해 분단체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인보다는 내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남북한 간에는 분단의식이 내면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중반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으며 국내 정치세력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지지된 분단이 6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민족내부의 분열과 정치력 빈곤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치세력들이 양보와 타협없이 대결했던 결과물이고, 분열지향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들이 민족통일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수정·지양됨이 없이 관철되었던 산물이며, 사회모순들이 평화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방치돼온 데서 기인된 산물이기도 했다는 생각이다. 분단에까지 이르게 한 그 같은 민족내적 원인들은 해방공간에서 돌출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시기에서부터, 적어도 한말 이전의 시기부터 작용하며 축적되어 온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에 두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발견해내는 데에서 찾는다면, 분단을 결과한 민족내적 원인에 대해서도 반성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일과 통합을 위한 조건과 방안을 찾는 과업은 분단의 과정과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통일을 향한 전망과 모색이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같은 반성작업은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족내부의 단합은 거의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주체는 민족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분할 그 자체는 외세가 가져다 준 것이지만 분단고착화는 우리가 외세에 편승하여 자초한 면이 있다는 견해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Joo, Bong Ho (Dongeui Univ.)

On th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men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o today, to Korean scholars, the issue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academically important issu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The issue is intertwined with all possibilities and limits on future paths of Koreans and reserves the concepts ranged from state building and national strategy to modernity and nationalism. The causes of two Koreas stem from due to both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The exogenous factors can be conceptualized as 'coercive forces' such as strains between ideologies and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the USSR. The endogenous factors, for a source of separation, weight more on the left-right wing conflicts which rested on class conflicts in Korea than coercive force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us, considered as an outcome of exogenous factors relied upon the conflicts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as well as endogenous factors, i.e., the variation of nationalism under the Cold War as a source of conflicts among domestic people. Ideologies and values aiming upon separation rather union and the reckless party conflicts without compromise and understanding expedited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f the Koreas. These inner conflicts as well as external ones rooted in ages ahead the Japanese Dominance in 1910-1945.

From 'China' Sea to Shining Sea:
The Evolution of China's Pacific Policy

James Strohmaier(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recent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involving a Chinese trawler's alleged collision into two Japanese coastal security vessels near the disputed islands known as Diaoyu in China and Senkaku in Japan has drawn the attention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ctors to China's increasingly assertive policy with respect to its interest in the Pacific. While there are differing perspectives on who is to blame for the escalation of the crisis involving the detention and possible criminal indictment of the Chinese ship's captain, many commentators have noted that China's response to the incident was swift, disproportionate, and, ultimately, successful at getting the captain released.[1] In an effort to get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lease the ship's captain, China detained four Japanese citizens in China and accused them of espionage, discontinued a number of high-level contacts and low-level exchanges, and cut off exports of rare-earth minerals to Japan used in the production of hybrid cars and guided missiles.[2] Of particular interest to international observers was China's use of "economic warfare" as a policy response to the crisis.[3]

China's so-called "peaceful rise" has been much discussed among regional and global scholars, businessmen, and political officials, with the debate often centering on whether China as superpower will be a supporter of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egimes that enforce them, or whether it will attempt to redefine the system if it deems that the continuation of those norms and regimes no longer match up with China's national interest.[4] With the recent ascendance of China to the position of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coupled with the handling of the East China Sea collision, the debate has emerged as a focal point for renewed discussions of the "China Threat/Peaceful Rise" theses. This short paper will briefly discuss the recent history of China's ocean policy to determine what salient changes have taken place, and what that might mean to

---

[1] For an analysis of the issue that finds fault with Japan's response to the collision see Peter Lee, "Japan poured oil on troubled waters," *Asia Times Online* (October 2, 2010)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LJ02Ad01.html. For an analysis that places the blame for escalation on China see Francesco Sisci, "Unbowed China wobbles in diplomatic test," Asia Times Online (September 30, 2010)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LI30Ad02.html.

[2] Keith Bradsher, "Amid Tension, China Blocks Vital Exports to Japan,"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2, 2010) at http://www.nytimes.com/2010/09/23/business/global/23rare.html.

[3] Gordon G. Chang, "China's New Economic Warfare," *Forbes* (September 24, 2010) at http://blogs.forbes.com/gordonchang/2010/09/24/chinas-new-economic-warfare/.

[4] See, for example, Robert Sutter, *China's Rise in Asia: Promises and Perils* (Lanham, Md.: Rowan & Littlefield, 2005).

regional and global actors concerned with the future of regional stability and China's potential role as a caretaker or challenger of norms and regimes governing sea relations.

The evolution of China's Pacific policy has been along three interconnected dimensions. The first is China's support for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relations among countrie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most recently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5] The second concerns China's response to disputes over contested territory, primarily island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and the third issue of jurisdiction, or the sea boundarie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All three are linked by the common themes of who controls what and how that control is actualized in the policy responses to disagreements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a general sense, viewing the three issues collectively, China's policy has evolved to being more assertive as the country has developed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s China's economy and military capabilities have grown, the People's Republic (PRC) has shown a willingness to press its agenda with neighboring countries, partly due to its ability to leverage outcomes due to its increasing power, and its need to leverage such outcomes due to its increasing need to gain access to energy resources to fuel its economic growth.

"Freedom of the High Seas"

China has been a signatory to the UNCLOS since 1996, so at least on paper the PRC adheres to the concepts that collectively make up the international norm of freedom of the high seas.[6] Historically, China has interpreted this norm to preclude certain surveillance activities conducted by, among others, the United States in the waters and skies within China's undisputed exclusive economic zone (EEZ).[7] There have been confront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related to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China's EEZ since before China signed UNCLOS.[8] These incidents, however, have only grown more numerous and contentious in recent years.

Recently, the concerns of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grew after Chinese officials told representatives visiting from the United States that the South China Sea was now a "core interest" along the lines of Taiwan and Tibet.[9] The

---

[5] These 'freedoms' include navigation and overflight, as well as a host of others related to seas relatio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87 at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6] *Chronological lists of ratifications of, accessions and successions to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Agreements* as at 5 October 2010 at http://www.un.org/Depts/los/reference_files/chronological_lists_of_ratifications.htm. Interestingly, the United States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UNCLOS.

[7] China has a number of disputes on the full extent of its EEZ with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and several coastal states from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ee John C. K. Daly, "Energy concerns and China's unresolved territorial disputes," *Association for Asia Research* (December 30, 2004) at http://www.asianresearch.org/articles/2437.html.

[8] Yann-Huei Song, "Declarations and Statements with Respect to the 1982 UNCLOS: Potential Legal Disput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fter U.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6 (2005), p. 262.

[9]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The New York Times* (April 23,

announcement caused concern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Vietnam and other countries worried about how China intended to define core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claims of others with contiguous coastal areas. China also has been extending the reach of its navy in an effort to protect vital energy resources traveling by ocean from the Middle East as part of its new "far sea defense."[10] While this policy change and extension of core interests to include the South China Sea do not in themselves constitute a turning away from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they have generated substantial debate about what this might mean for future Chinese support for that principle.

Territorial Disputes and Jurisdiction

China has a number of island and other land disputes that related to ocean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The disputes impact on the other two policy dimensions because ownership affects China's willingness to support freedom of navigation, as these land disputes have caused both accidental and intentional testing of boundaries or jurisdictions, which ar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by that ownership.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along with Vietnam, Malaysia, Brunei, Taiwan and the Philippines have made claims to some or all of the Spratly Islands.[11] In 2002, China signed a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along with other ASEAN countries, committing all parties to the peaceful resolution of land disputes and other issues, though the incidents of confrontation continue.

In the East China Sea, China has a dispute with Japan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This dispute was an undercurrent in the recent conflict between Japan and China in September involving the trawler collision with Japanese coast guard vessels. In 2008, China and Japan reached an agreement on joint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eabed gas and mineral deposits in the East China Sea, one that bypassed the thorny issue of ownership of the Diaoyu/Senkaku Islands.[12] The agreement showed that both China and Japan certainly were capable of compromise on the sensitive issue of sea resources, which is at the heart of these island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e recent conflict has caused a re-examination of China's evolving policy and concern that the PRC is increasingly willing to use threats to leverage favorable outcomes.

Also in the East China Sea, China and South Korea have a land dispute over the Ieodo/Suyan Rock (Socotra Rock), a submerged rock located between Korea's Jeju Island and the Chinese mainland. South Korea has claimed the rock as Korean territory, though this issue has largely been settled since 2009 when China rescinded claims on the islet.[13] Whether this will resurface as a source of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is uncertain.

2010) at http://www.nytimes.com/2010/04/24/world/asia/24navy.html.

[10] Robert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May/June 2010) at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6205/robert-d-kaplan/the-geography-of-chinese-power.

[11] Christopher C. Joyner, "The Spratly Islands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Problems, Policies, and Prospects for Diplomatic Accommodation," at http://community.middlebury.edu/~scs/docs/Joyner,%20Spratly%20Islands%20Dispute.pdf.

[12] Jay Alabaster, "Japan, China reach deal on undersea gas exploration," *USA Today* (June 18, 2008) at http://www.usatoday.com/money/economy/2008-06-18-471432319_x.htm.

[13] "As balance shifts," *JoongAng Daily* (March 25, 2009) at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02661.

There is evidence that China is becoming more assertive in pressing its claims to territory and jurisdiction in the waters surrounding it and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hina is willing to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astal countries. Whether China's assertiveness signals a turn away from "smile diplomacy" and a "peaceful rise" cannot as yet be determined.[14] Still, China's policy is changing, more aggressive sometimes and seemingly conciliatory at others. Perhaps it is revealing that in July, when Chinese and U.S. officials met to discuss the way forward to settle contentious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told an official from Singapore, "China is a big country and other countries are just small countries, and that's just a fact."[15] If Yang's view represents the view of senior leaders 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we might expect less peace during China's continued peaceful rise.

[14] Donald K. Emmerson, "China's 'frown' diplomacy in Southeast Asia," Asia Times Online (October 5, 2010) at http://www.atimes.com/atimes/China/LJ05Ad02.html.
[15] Seth Cropsey, "Keeping the Pacific Pacific," *Foreign Affairs* (September 27, 2010) at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6752/seth-cropsey/keeping-the-pacific-pacific.

A Study in Anthropology:
Narratives of Korea Amongst Northern Defectors Living in Seoul

Eduardo Albrecht(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 If the world is a place where relations among objects and events are crucial… then it will seem important to be able to observe all the important elements in the field, to see relations among objects and to see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s and the whole.
>
> *R. Nisbett – The Geography of Thought*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hom have escaped North Korea and that now find themselves in the dramatically changed environment of South Korea. The *Talbukja*, term used to denote 'escapee from the north', interviewed in this paper have all fled their rural towns along the Tumen river in north-eastern North Korea to find themselves in Seoul, one of the most dynamic megacities in the world. How do they experience these changes? Does their relationship with society change? Do they incur any physical discomfort?

These questions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to the interviews. I have interviewed four North Korean defectors in total, three females and one male. My methodology involved conducting open ended interviews with questions pertaining to the five senses. I asked questions such as: what sights stand out in Seoul, what sounds are new or different, what tastes and what smells do you like or dislike, and so forth. From these cue questions, the interviewee would then take the discussion in different directions, freely making associations to his or her personal life and experiences.

It is my objective to monitor this stream of associations. What connections would the interviewees make between their sensual experiences, the drama and struggle of their lives, and their new social environment? My hypothesis is that by considering how defectors from North Korea adapt to their new surroundings in South Korea, we might be able to collect some insights into the delicate socio-political bal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day.

This hypothesis will be explored in twelve parts. The first is this introduction, in which I have stated my objective. The second will try to specify the context in which we will operate, with some introductory thoughts o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ird part will deal with some previous literature on the subject in anthropology and beyond. This will not be an exhaustive overview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on the Koreas, but a critical appraisal of some of the different viewpoints that have been taken so far. Part four will deal with some theoretical issues and delineate a methodology. Parts five through eight reproduce some of the conversations I had with the interviewees. The purpose is that of giving the reader a sense of the narratives, in addition to having the raw material at hand. Parts nine through eleven will offer some considerations and conclusions by way of mak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Talbukja*

narratives and the larger territory of which they are a part. The last part will try to summarise the major findings in a conclusion.

非自然边界：文化传播的人为障碍

上海交通大学　陈先元 张国良

人类的文化是一种动态社会现象。所谓动态，既指时间上的传承，又指空间上的传播。从保存文化特质来说，时间上的传承具有重要意义；从改善文化特质来说，空间上的传播则具有重要意义。文化的空间传播是文化的天然特性，一种文化仅仅在有限的空间进行时间上的传承，那么这种文化很有可能缺乏一定生命力。而一种文化发展到一定的程度，发展成为强势文化，那它必然会在空间向外扩张。在这种情况下，文化扩张必然会遇到一些传播障碍，其中包括文化的自然边界和非自然边界。边界和文化传播的关系非常密切，边界在一定程度上有效地保护了本国文化，也在一定程度上阻碍了本国文化的向外传播。研究边界和文化传播之间的关系，应是文化传播研究中的课题之一。

（一）

所谓边界，实际上是两种事物之间的区分标志。边界有许多种含义。可以是有形的边界，可以是无形的边界，前者如各国设置的边关哨卡，后者如两种意识形态之间的差别；可以是实在的边界，可以是虚拟的边界，前者如县界、省界、国界，后者如互联网中的虚拟国家及虚拟城市中的地域设定；可以自然的边界，可以是非自然的人为的边界，前者如高山、大海、河流、湖泊、沙漠、草原等等，后者只是一条人为划定的边界，如非洲埃及和苏丹、利比亚和乍得、阿尔及利亚和马里之间当时的殖民者根据政治需要不顾自然环境而划定的那

些笔直的边界线。

自然地理对于一个国家和民族的文化具有决定性的作用，自然地理对于人类社会的划分是自然的划分，自然地理作为人类文化的边界是自然的边界。古代中国人就是因为生活在河谷地区，大量的土地可以开垦为良田，所以就以农业耕种为其主要经济方式，发展成了农业社会；古代突厥人就是因为生活在沙漠草原地区，那里有一望无际的大片草原可以饲养牛羊，所以就以放养牛羊为其主要经济方式，发展成了游牧社会；古代希腊人就是因为生活在爱琴海沿岸地区，各国之间可以通过船舶互相交通，所以就以对外贸易为其主要经济方式，发展成了商业社会；北极的爱斯基摩人就是因为生活在北冰洋地区，那里有许多海洋生物可以作为食用，所以就以捕猎海鱼、海豹、海象、北极熊为其主要经济方式，发展成了渔猎社会；非洲的部分土著居民人就是因为生活在热带雨林地区，那里植被非常丰富，可以用作食用的瓜果很多，所以采集地上的野菜和树上的果子为其主要经济方式，发展成了采集社会。笔者早年在中国西北地区旅游，从青海西宁到青海湖鸟岛，路经日月山和倒淌河。站在日月山上，朝东一望，那是微微起伏的山峦，山峦间布满了片片农田；朝西一望，那是雄浑壮丽的青藏高原，高原上散落着帐房牛羊。原来日月山是黄土高原和青藏高原、农业耕作和游牧牛羊、汉人居住和藏人居住的边界。可见，日月山不仅是自然的边界，而且也是经济、民族和文化的边界。在这里，是自然地理把经济、民族和文化区分开来。

文化的自然边界是符合文化本身发展的边界，具有天然的合理

性。因为文化的本质是人类生产方式和生活方式的一种差异，而不同的生存环境必然会导致人类生产方式和生活方式的差异，这两者是一致的。基于自然环境的因素，一部分人生活在沿海，一部分生活内陆，一部分生活在草原，一部分人生活山区，他们的生活方式不同，他们的文化自然不同，他们之间形成了一道边界，这道边界是顺其自然，顺应自然的产物。文化的自然边界可能会对文化的传播产生一些影响，但是出于几十年乃至几百年来生活惯性，因此一般在不同文化之间的边界不会有较大的争议和矛盾。

（二）

非自然的边界是指和自然因素没有关系的人为设置的边界。这种边界的设置，没有考虑到自然因素，没有考虑到文化因素，而是只考虑经济因素、政治因素以及军事因素。

经济边界是因经济发展的需要而在一定区域内设立的边界。一些国家设有保税区，保税区就有保税区的边界，保税区的边界就是经济边界，因为它的主要作用是便于在经济上实行调控。中国在上世纪70 年代末期设置了深圳经济特区以及珠海、汕头、厦门等其他三个经济特区。深圳特区周边设置有长达数十公里的边界，禁止普通人自由出入。本来深圳是广东省的一个普通小镇而已，只因为毗邻香港，便划为经济特区，而且设置了由围墙和铁丝网组成的边界和几个出入的关卡。这一边界的设立，使原先可以自由来往的地区成为需要证件才能进出的地区。这条经济边界至今仍然存在，成为一国之中不是边界的边界。30 多年以来，深圳特区的发展对于整个中国经济上的巨

大影响毋庸置疑，边界的设立保护了特区的经济秩序，使深圳从一个小小的渔村成为中国最现代化的大都市之一，但是这条边界对于人们的交往及文化的传播来说，不能不说是一道障碍。

政治边界是出于政治目的而划分的地域边界。政治的边界具有重要意义，而且内涵十分丰富。所谓政治，其实是利益的博弈，而利益是和各种社会领域相联系的。因此，世界上没有抽象政治，只有具体政治，也就是说，政治本身不具有实质意义，政治只是思想交锋、经济冲突、文化对抗等等现象在国家政权以及国际关系方面的博弈而已。人们在思想上有不同看法，人们在经济上有不同利益，文化上有不同观点，如果这些因素无法通过社会其他手段进行调和，那么就会借助政治方法来加以解决。政治就是解决这些思想歧见、经济矛盾、文化差异的手段。政治离开了它所要解决的这些社会问题，政治本身就会变得一文不名。例如，印度和巴基斯坦的边界主要是在当年印巴分治时为了解决宗教文化的冲突而划分的，这条边界今天变成了两国之间的国界。再如，1997 年香港回归中国之前的中国大陆和香港之间的边界就是政治博弈的结果，这一政治博弈的背景是 100 多年以前鸦片贸易的巨大经济利益。1984 年笔者第一次去深圳社会考察，那时进出深圳特区边界的需要到公安局去申请一张进入边防地区的通行证。进特区以后到特区内的盐田镇还需要到深圳当地的公安局去申请并办理手续，到盐田镇附近的沙头角的中英街再需要另外的一个证明，总共需要申请三次得到了批准才能进入沙头角中英街。笔者没有最后进入中英街的那个证明，所以只能在沙头角镇外的海边逛逛游

玩。笔者在那里闲得无聊，就走下海岸，想到沙滩上去和海浪来一个亲密接触。不料笔者刚刚走下海滩，和笔者同去深圳考察的一位同事在很远的地方叫着笔者的名字，对笔者大喊大叫：不能下去！不能下去！他在那里使劲地挥动双手，示意笔者必须马上回来。笔者一开始不知道笔者到底做错了什么，过一会儿笔者才猛然醒悟：原来他怕笔者泅水海路偷渡香港呀！一条严防死守的政治边界就在眼前，而笔者却浑然不知。虽然这条边界的两边自然、民族、居民、文化几乎完全一样，但它基于政治原因把一个国家、一个民族、一种文化隔离开来了。

军事边界的实质就是政治边界，不过是以武装形式的实现其目的而已。因为军事本质是政治的延续和发展，政治上的矛盾和冲突发展到了最高阶段，就采用了武装斗争的形式，政治博弈于是就变成了军事对抗。军事边界的功能是最为完整最为严格的，边界对于边界两边的双方来说，均是不可逾越的禁区。特别是一些军事封锁线来说，逾越就意味着危险。二次大战以后，美苏英法四国占领了纳粹德国，不但把德国的全部领土一分为四，而且把德国首都柏林也一分为四，进行军事占领。柏林就是世界著名的军事边界和政治边界。巴勒斯坦和以色列的边界，既是军事边界，又时政治边界。当然，韩国和朝鲜之间沿着北纬 38 度而形成的军事分界线，也是同样如此。军事分界线隔离了人员交往，同时也阻碍了经济合作和文化传播。

（三）

如果我们考察一下自然的边界和非自然的边界对于文化传播的

影响，可以得出一个结论，自然的边界对于文化传播的影响较小，而且一般具有正面意义；非自然的边界对于文化传播的影响大，而且一般具有负面意义。

中国的西部生活着几十个少数民族，这些少数民族不但和汉族居民之间的生活习惯和风土人情迥然不同，而且这些少数民族之间的生活习惯和风土人情也迥然不同。中国西部各个民族少数民族虽然也有文化矛盾，有时候也些小冲突，但就整体而言，民族关系还是比较协调，比较和睦，如同一家，和友好相处，不存在激烈的文化对抗和文化冲突。几十个民族聚居在一起，社会能够如此安定，实属难能可贵。除了国家的政策之外，一个很重要的原因就是目前的民族居住区的边界就是传统的民族居住区的边界，就是文化的自然边界，这里不存在人为的强制性的非自然因素的边界。

政治性军事性的非自然边界对于文化传播的负面影响不可忽视。以中国为例，目前作为一个文化中国的实际国土在政治上被分为四个地区，即大陆地区、台湾地区、香港地区和澳门地区。在中国大陆内部，行政区域的划分除了二十几个省和直辖市之外，还分为五个自治区，即新疆维吾尔自治区、西藏自治区、宁夏回族自治区和广西壮族自治区。当然，这些民族自治地区除了一些宗教文化政策和其他省市有所区别之外，实际上和一般的省市没有太大的不同。因此，我们在讨论边界对于文化影响是几乎可以不予考虑。

原先的大一统的中国在文化上同属一源，但是近代以降，由于人为政治边界的设定，生活在两岸四地的中国人的文化发生了一些变

化。

大陆中国人和港澳中国人之间有着明显的文化差别。由于香港100多年来一直是英国的殖民地，由于澳门受葡萄牙人的统治达几百年，因此当地的中国居民就不能不受英国和葡萄牙的西方文化的影响。诚然，西方殖民者东来的目的主要是为经济利益而来，对于固有文化，并没有采取强硬的行政措施加以压制和毁灭，因此，应该说在香港中国人和澳门中国人的日常生活中，中国文化要素比比皆是。例如求神拜佛，例如算命看相，例如迷信风水，例如仗义重情等等。但是，文化的深层次方面，在一些社会基本价值观方面，也有了一些明显的改变。例如关注经济利益，例如敢于开拓发展，例如提倡个人自由，例如信奉人人平等等等。即是说，就文化而言，大陆人和港澳人在表征文化上几乎一致，但在深层文化上却有了明显的差别。

大陆中国人和台湾中国人之间也有着明显的文化差别。中国大陆的意识形态是马克思主义，政治制度是社会主义，台湾的意识形态是三民主义，社会制度是资本主义。这样的社会政治制度给文化传播以极大的影响。特别中国大陆在几十年间几次调动国家行政力量猛烈地批判了中国传统文化，因此中国的传统文化在现代人的心中缺乏足够的底蕴，中国传统的四维八德的观念得不到有效的传承。虽然这几年国家大力振兴中国传统文化，但是一种文化的深入人心并不能一蹴而就，而是要假以时日。这方面，台湾中国人似乎比大陆要做得稍稍好一些。特别是中国传统文化中的固有概念，可以说基本深入了台湾普通百姓的心中。例如礼义廉耻、忠孝节义等等传统美德，对于台湾

百姓而言不仅是书本上的知识，更是实际生活中为人处事的的准则。仅就中国传统文化的素养方面来说，台湾中国人和大陆中国人的差别还是可以发见的。这是非自然的政治边界给文化传播带来的结果。

世界上民族尚未统一、民族文化尚未统一的国家不多，但是就有两个在东亚。除了中国之外，就是韩国和朝鲜了。对于韩国与朝鲜同一民族的文化同源但现在是否同流的问题，笔者不敢加以揣测，不过有可能和中国的例子有相同的地方。历史的悲剧造成了人为的文化传播障碍，如何消除这些障碍，则是学者们需要进一步思考的问题。

作者介绍：

陈先元　上海交通大学教授。

张国良　上海交通大学教授。

비자연의 경계: 문화전파의 인위적 장벽

상하이 교통대학 천시엔위엔, 장궈량

인류의 문화는 일종의 동태사회현상이다. 소위 동태는 시간상의 전수와 계승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공간상의 전수와 계승을 가리킨다. 문화특징을 보존이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시간상의 전승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문화특징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간상의 전승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화의 공간 전승은 문화의 자연 특성이며, 일종의 문화는 단지 유한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시간상의 전승이다, 그러면 이런 문화는 일정의 생명력이 결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종의 문화발전은 일정한 정도로 발전은 강세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에서 외적 확장으로 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화팽창은 필연적으로 전승의 장벽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문화의 자연 경계와 비자연경계를 포괄한다. 경계와 문화전파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경계는 일정정도 상에서 본국문화를 유효하게 보호하며, 또 일정정도 상에서 본국문화의 외적 전파를 가로 막을 수도 있다. 연구의 범위와 문화 전파간의 관계는 반드시 문화 전파연구중의 과제중 하나다.

(一)

소위 경계는 실제적으로 두 종류의 사물간의 구별표지다. 경계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유형의 경계라고 할 수 있고, 무형의 경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는 각국에 설치된 변경 초소고, 후자는 구 의식형태간의 차이다 ; 즉 실제 경계라고 할 수 있고, 허구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현 경계, 성 경계, 국가 경계며, 후자는 인터넷 중의 허구 국가 및 허구의 성시중의 지역 설정이다. 즉 자연경계라고 할 수 있고, 비자연의 인위적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높은 산, 큰 바다, 하천, 호수, 사막, 초원 등등이며, 후자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경계로 예들 들어 아프리카 이집트와 수단, 리비아와 차드, 알제리와 말리 간의 당시 식민지 통치자가 정치요구에 따라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확정한 경계선이다.
자연지리는 한 국가와 민족문화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데, 자연지리는 인류사회의 구분에 대한 자연의 구분이며, 자연지리 인류문화의 경계로서 자연경계다. 고대 중국인은 하곡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량의 전답을 개간했고, 농업 경작이 주요 경제 방식이었으며, 농업 사회를 발전시켰다. ; 즉 돌궐족은 사막 초원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광활한 대초원은 소양을 사육할 수 있었으며 소양을 방목하는 것이 중요 경제방식으로 유목사회로 발전했다. ; 고대 그리스인은 에게해 연안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각국간에 선박을 통해 상호 교통이 가능했다. 소위 대외무역으로

중요 경제방식을 삼아, 상업 사회로 발전했다. 북극의 에스키모인은 북극해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을 식용으로 사용했다. 소위 물고기, 바다표범, 바다 코끼리, 북극곰을 사냥해서 중요 경제방식으로 삼는 사냥사회로 발전했다. ; 아프리카 부분 토착민은 열대우림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식생이 대단히 풍부해, 식용으로 쓰이는 과일이 매우 많다. 소위 나물과 괴일을 채집하는 것을 중요 경제방식으로 삼아 채집 사회로 발전했다.

필자는 오래전에 중국서북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청하이 시닝에서 칭하이 후니아오따오까지, 일원산과 따오탕허를 경유했다. 일월산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니, 미세한 변화의 우뚝 솟은 산이 보였다. 우뚝 솟은 산 사이 조각조각 농지로 가득차 있다. ; 서쪽을 바라보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칭짱고원이 펼쳐져 있다. 고원 위에 소와 양이 흩어져 있다. 원래 일원산은 황토고원과 칭짱고원, 농업경작지였고, 소·양을 유목하는 한족거주와 장인 거주의 경계였다. 일월산은 그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경계며 경제, 민족 그리고 문화의 경계다. 자연지리는 경제, 민족, 문화를 구분한다. 문화의 자연경계는 문화자체발전의 경계에 부합하며, 자연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의 본질은 인류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일종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존환경은 필연적으로 인류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야기해 왔다. 이 두 개는 일치된 것이다. 자연환경의 요소로 인하여 일부분 생활은 연해에서, 일부분 생활은 내륙에서 일부분 생활은 초원에서, 일부분 사람들의 생활은 산간지역에서 그들의 생활방식은 서로 달랐으며, 그들의 문화 자연도 달랐다. 그들간에는 경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경계는 순리에 따라 자연 산물에 순응하는 것이다. 문화의 자연경계는 문화의 전파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몇십년 심지어 몇백년의 생활 관성을 낳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간의 경계는 큰 쟁이와 모순을 가질 수가 없다.

(二)

비자연의 경계는 자연요소와 관계없는 인위적으로 설치된 경계다. 이러한 경계설치는 자연요소로 고려되지 않으며, 문화요소로도 고려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경제요소, 정치요소 및 군사요소로서 고려된다.

경제경계는 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일정구역내에 설립한 경계다. 이러한 국가에 보세구역은 없다.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세구역의 경계는 경제경계다. 그것의 주요 작용으로 인하여 경제상의 실행조정이 용이하다. 중국은 지난세기 70년대 말기에 선전에 경제 특구 및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기타 3개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선전특구 주변 수십 Km에 걸쳐 경계가 설치되고, 보통사람들의 자유 출입을 금지했다. 본래 선전은 광동성의 일개 보통의 작은 읍에 불과했지만, 홍콩에 인접한 경제특구로서 담과 철조망으로 조성된 경계와 몇 개의 초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경계의 설립으로 이전에 자유왕래 가능한 지역이 증명서가 있어야

비로소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경계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한 국가 중에 경계 아닌 경계가 되었다. 30년 이상 선전특구의 발전은 전체 중국경제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가 충분하다. 경계의 설립은 특구의 경제질서를 보호했고, 선전으로 하여금 일개 작은 어촌에서 중국의 최 현대화된 대도시중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사람들의 왕래 및 문화의 전파라는 점에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지역경계다. 정치의 경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내포가 대단히 풍부하다. 소위 정치는 사실 이익의 게임이다. 그러나 이익은 각종사회영역과 상관관계에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상정치는 없고, 단지 구체정치만 있다. 또 정치 자체는 실질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는 단지 사상논쟁, 경제충돌, 문화대항 등등 국가정권 및 국제관계 방면의 게임 현상이다.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서로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다. 문화상으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사회기타수단으로 조화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면, 정치방법에 힘을 빌려 해결 할 수 있다. 정치는 이러한 사상적으로 다른 견해, 경제모순, 문화차이의 수단을 해결한다.

정치는 해결해야할 여러 사회문제를 떠나 있으며, 정치자체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의 주요한 것은 당시에 인도 파키스탄 간에 종교문화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나누어 관리했지만 이 경계는 오늘날 양국간의 국경으로 변했다. 또 다른 예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 대륙과 홍콩간의 경계는 정치게임의 결과로 정치게임의 배경은 100여전 아편무역의 거대경제 이익이다. 1984년 필자는 사회조사차 선전을 처음 방문했고, 그때 선전특구의 경계를 출입하기 위해서 변방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행증을 공안국에 가서 신청해야 했다. 특구에 들어간 이후에 특구내의 염전진은 선전현지의 공안국에 가서 수속을 밟도록 요구했다. 염전진 부근 沙头角 中英街에서 다른 증명을 요구했다. 모두 3번의 신청 요구를 했고, 비준을 얻어 비로소 沙头角 中英街에 들어갈 수 있다. 필자는 中英街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沙头角镇 외의 해변만 구경하면서 놀았다. 필자는 이 안에서 한가하게 해안을 따라 걸었다. 백사장을 올라가면서 생각에 잠겼고 파도가 친밀하게 다고 왔다. 뜻밖에 필자는 막 해변의 모래사장을 걸어내려왔고, 선전 조사차 필자와 같이 온 동료가 멀리서 나의 이름을 불렀다. 필자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 내려갈 수 없다! 내려갈 수가 없어! 그는 힘껏 두 손을 흔들었고 필자는 즉시 돌아오라고 표시했다. 필자는 필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지 못했다. 잠시 필자는 문뜩 깨달았다. : 원래 그는 필자가 헤엄쳐서 홍콩으로 밀입국할까봐 두려워했다. 사수해야할 정치 경계가 눈앞에 있었는데 필자는 전혀 몰랐다. 비록 이런 경계 양쪽의 자연, 민족, 주민, 문화 모두 완전히 같을지라도,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국가 민족 주민 문화를 단절시킨다.

군사경계의 실질은 정치경계다. 그러나 이러한 무장형식의 실현은 그 목적일 뿐이

다. 군사본질은 정치의 지속과 발전이기 때문에 정치상의 게임은 군사적 대항을 변질시킨다. 군사 경계의 기능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엄격한 것으로, 경계는 경계 양쪽의 쌍방에 모두 뛰어 넘을 수 없는 금지구역이다. 특히 군사 봉쇄선으로 말하면, 초월하는 것은 위험을 의미한다. 2차대전이후 미·소·영·프랑스 4개국은 나치 독일을 점령했다. 그러나 독일의 전 영토를 4분의1로 나누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4분의1로 나누어 군사 점령을 진행했다. 베를린은 세계의 유명한 군사 경계와 정치경계가 되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경계는 군사경계고 동시에 정치경계다. 당연히 한국과 북조선 간의 북위 38도선을 따라 형성된 군사 분계선도 이와 같다. 군사 분계선은 인적교류를 단절시키는 동시에 경제협력과 문화전파를 가로 막는다.

(三)

만약 우리가 자연경계와 비자연경계를 고찰하고 문화전파의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자연경계는 문화전파의 영향이 비교적 작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서부에는 수십개의 소수민족이 생활하고 있고, 이 소수민족은 한족의 생활습관과 풍토인정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간에도 생활습관, 풍토인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중국 서부의 각 소수민족은 비록 문화적 모순이 있고, 종종 작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민족관계는 비교적 조화롭고 화목하다. 예를 들면 가족과 같이 우호적으로 지내며, 격렬한 문화저항과 문화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십개 민족이 함께 집단거주하고 사회가 이렇게 안정 할 수 있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내어 장하다. 국가의 정책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오늘날의 민족거주지역의 경계가 전통 민족주거지역경계라는 것이며, 문화의 자연경계다. 이 안에는 인위적인 강제성의 비자연 요소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성 군사성의 비자연 경계는 문화전파의 측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중국을 예를 들면 오늘날 한 개의 문화로 간주되는 중국의 실제국토는 정치적으로 4개 지역 즉 대륙지역, 대만지역, 홍콩지역과 마카오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국 대륙내부에서 행정구역의 분할은 20여개 성과 직할시 이외에, 또 5개 자치구, 즉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 링샤회족자치구와 광시장족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다. 당연히 이러한 민족자치구는 종교문화정책과 기타 성시를 구별하는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일반 성시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영향에 대하여 경계를 토론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본래 통일 중국은 문화상으로 같은 기원에 속했다. 그러나 근대이후, 인위적인 정치경계의 설정으로 인하여 생활은 양안 사방의 중국인의 문화발생에 일대 변화를 발생시켰다.

대륙중국인과 홍콩 마카오 중국인 간에 명확한 문화차이가 있다. 홍콩은 100년 이상 줄곧 영국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수백년간 포르투갈인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

래서 그 지역의 중국주민은 영국과 포르투갈의 서방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서방에서 동방으로 온 식민 통치자의 주요목적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온 것이며, 고유문화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억압과 파괴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콩 중국인과 마카오 중국인의 일상생활중에서 중국문화 요소는 무척 많다고 말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신불에게 비는것, 점치고 관상보는것, 미신 풍수, 의리와 정을 중시하는 것 등등이다. 그러나 문화의 심층적 측면은 사회기본 가치관 측면에서 명확한 변화가 있다. 예컨대 경제이익을 배려하는 것, 대담하게 개척 발전하는 것, 개인자유를 제창하는 것,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신봉하는 것 등등이다. 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대륙인과 홍콩 마카오인은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에서 문화상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심층적인 문화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대륙중국인과 대만 중국인간에 뚜렷한 문화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대륙의 의식형태는 마르크스주의며, 정치제도는 사회주의다. 대만의 의식형태는 삼민주의며, 사회제도는 자본주의다. 이러한 사회정치제도는 문화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중국대륙은 몇십년간 중국전통문화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문화는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실정으로, 중국 전통의 사유팔덕(四维八德)의 관념은 유효한 전승이 못 되었다. 비록 최근 몇 년 국가가 전통문화를 강력하게 진흥시켰지만,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다. 이러한 방면에서, 대만 중국인들은 대륙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다. 특히 중국전통문화중의 고유개념은 대만 보통 국민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유, 충효절의 등 전통의 미덕, 대만 국민은 책속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생활중 일을 처리하는 준칙으로 삼아 살아간다. 중국 전통문화의 소양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대만의 중국인과 대륙의 중국인의 차이는 또 발견할 수 있다. 비자연의 정치 경계가 문화전파를 야기하는 결과다.

세계적으로 민족이 아직 통일되지 않고 민족문화가 통일되지 않은 국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동아시아에 존재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조선이 그렇다. 한국과 조선은 동일한 민족문화로 기원이 같다. 그러나 현재 다른 류의 문제가 있다. 필자는 감히 추측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예에서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역사적 비극은 인위적인 문화전파장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진일보한 사고의 문제가 요구된다.

作者介绍：
陈先元　上海交通大学教授。
张国良　上海交通大学教授。

中国沿海文化的形成原因及基本特征

——上海交通大学　陈先元

当代中国的沿海地区经济正在快速发展，其中的文化因素不可忽略。中国的沿海文化是中国文化不可或缺的组成部分，分析中国沿海文化和中国主体文化之间的关系，探索中国沿海文化形成的原因，研究中国沿海文化的基本特性，评估中国沿海文化中的各种要素对于中国社会发展的正负效应，在当前的历史条件下无疑具有一定的意义。

中国主体文化和中国沿海文化

中华民族文化是以中原文化为核心，逐渐吸收、融合周边地区蛮、夷、狄、戎等少数民族文化和地方文化而形成的文化形态。中原地区是中华民族的发祥地，中华文化的源头和中心就在黄河中、下游地域。在这片广袤的土地上，中华民族曾经凭着自己的智慧创造出了高度发达的物质文明和精神文明，并且辐射到东亚各地，成为世界文化中的一枝奇葩。中原文化历来是中华文化的核心，而沿海文化则是中华主体文化的一个组成部分。

地理因素在中国主体文化的形成过程中间起着非常重要的作用。和世界上其他的游牧民族及商业民族不同，中华民族在其诞生的一刻起就是一个以土地为生的农耕民族。中华民族在漫长的历史进程中，总有一个沉稳的底盘在支撑着它，那就是人们脚下的黄土地。只要有了土地，就会有耕种；有了耕种，就会有生命的延续。中华民族无求于其他，只求有土地。中国人对土地具有一种十分强烈的依恋情结。土地决定了农耕的生产方式，农耕的生产方式又决定了人们的生活方式，这两者又决定了社会制度及思想观念，中华文化便由此而起。中国主体文化，就其经济基础而言，就是一种农耕文化。正是这一点，可以作为我们解读中华文化的钥匙。

农耕文化有两个显著的特点，其一是地域的固定性，其二是家族的传承性。就生产过程而言，土地是十分宝贵的自然资源，是生产力的要素；就经济关系而言，土地不仅是物质财富的源泉，其本身就是象征物质财富的不动产。农耕社会中的土地，其经济地位等于游牧社会中的牛羊、商业社会中的金钱，但牛羊和金钱可以移动，土地却永远固定在某一方位。正因为土地无法移动，所以从事农业耕作的人们也被固定在某一区域。在古代中国，开垦一片土地以后，一个家族就可以扎下根来、世世代代传承下去。这就使中国社会形成了一家族传承制的稳定结构。中国古代社会自给自足的小农经济生产模式，是中国文化的经济基础；在此基础上形成的小农经济生产意识，是中国文化的基本要素。无庸讳言，农耕文化中的地域固定性和家族的传承性造就了中华民族沉稳凝重、深藏内敛的民族性格。

中国沿海文化是指中国东南沿海地区的文化，主要包括吴越文化、闽台文化、岭南文化。吴越文化发端于江浙一带、闽台产生在福建台湾地区、岭南文化形成于以珠江三角洲为核心的广东南部。其实，作为中华文化的亚文化，从细分的眼光来看，吴越文化、闽台文化、岭南文化等等都各各有别。以音乐为例，吴越文化中的江南丝竹优雅流畅，闽台文化中的采茶小调悠扬清新，岭南文化中的广东音乐热烈激越。但是，在吴越文化、闽台文化及岭南文化之中还是能找到一些共性的因素，所以，完全可以把他们统称为中国沿海文化。中国沿海文化作为中华文化的亚文化，和主体文化相比，既有很大的普同性，又有一定程度的特异性。

中国沿海文化的特异性同样可以从地理环境及经济基础两方面得到解释。中国主体文化

是一种深深地植根于黄土地的农耕文化，而中国沿海文化除了具有黄土地文化的基本内涵以外，还带有渔猎文化和商业文化的明显印记。中国历史上几千年中的社会动乱，使中原的先民们来到沿海地区。由于沿海地区自然环境的不同，先民们在进行农耕的同时，还从事捕鱼和商业活动。在这些生产活动中，逐渐形成了有别于主体文化的中国沿海文化。

中国沿海文化形成的原因分析

中国沿海文化形成的基本原因有两个，一是中国东南地区独特的自然条件及移民的生产活动，二是近代以来西方思想的影响。

文化与自然环境之间存在着既互相对应又互相影响和制约的辩证关系。人类的文化虽然表现为对自然界和人本身的自然属性的超越，但人类总是在一定的自然环境中创造文化。一定的自然环境，包括地形、气候、水文和土壤，影响着人的生理机能，构成了人类生产、生活的基础，从而赋予创造于其中的人类文化以一定的个性。特定的自然环境条件与特定的文化形态之间总是能够寻出某种程度上的对应关系。

东南沿海地区位于沿海平原及丘陵之间，自然环境优越。气候温暖湿润，四季分明，自适于农业生产。而且，东南沿海所处的地理位置优越，海河交汇，交通便利，沿海贸易因而逐渐繁荣，商业文明的因子从而活跃起来。沿海地区的先民除了耕种之外，主要的经济活动是渔猎，因此，东南沿海地区实际上是一种农业加渔业再加商业的经济模式。

自东汉末年以来，由于北方、西北游牧民族的多次入侵，中原的经济生产和文化发展遭到了巨大冲击。因此，大量先民在乱世之中逃离中原，迁移至东南沿海地区。经过西晋的“永嘉之乱”、唐代的“安史之乱”和宋代的“靖康之乱”，东南沿海人口剧增，经过众力开发，我国的经济、文化重心也完成了其南迁的历史使命。所以，宋代以来，除了政治中心尚在北方京畿地区之外，经济和文化重心都转移到了南方，尤其是东南沿海地区。以妈祖女神的兴起为例。妈祖女神是一个女性海神，自南宋时期悄然崛起于中国东南沿海的民间祭坛。传说她能知凶吉，能救助海难，能驱逐海寇，是真正意义上的航海保护神。直到今天，东南沿海的居民们还在朝拜她，对其的崇敬之情决不亚于其他众神。妈祖的崛起可以佐证中国文化重心的一个历史转移。

. 西方文化的影响也是中国沿海文化形成的一个重要原因。1840 年，英国的舰炮轰开了中国紧闭的国门。蓝色文明和黄色文明发生了激烈的碰撞。洋人从海上向中国运输鸦片，派来传教士，用洋货、炮舰轰开了中华帝国的大门。最初，西方文化带着强制的霸气登上沿海城市，随着时间的推移，中国固有的沿海文化也开始逐渐融合西方文化，甚至制造了一个的“东方巴黎”上海。众所周知，西方文化就其经济形态而言，是一种工商业文化，就其社会制度而言，是一种资本主义文化；中国固有文化就其经济形态而言，是一种农耕文化，就其社会制度而言，是一种封建主义文化。从人类社会历史的发展过程来讲，资本主义当然比封建主义先进得多，纵然中国固有文化接受西方文化的影响是以一种屈辱的强制的形式来实现的，但不能改变在当时的情况下西方社会的发展优越于中国社会这样一个事实。正因为西方文化和中国文化存在着社会经济与文化发展水平的落差，西方先进文化对中国主体文化的冲击是强烈的。它带来的新理念、新科学、新知识和新思想打破了中国文化固有的硬壳，逐渐融合到中国文化中，并在一定程度上改变了中国的沿海文化。我们可以说，中国近代沿海文化是中西文化的大融合，是一种“合金文化”。

近代以来，闽粤以及宋明以来就已经成为文化中心的江浙等地，不仅是中国经济的中心，而且也是中国新文化的中心。中国沿海文化的能量不断地向内地辐射，这与两宋以前由西向东、由北向南地文化传播路线恰成相反之势。

中国沿海文化的基本特征

中国沿海文化的基本特征，大致可以归纳为以下几点：勤劳开拓的冒险行为；团结合作的集体精神；重商重利的经济意识；奋斗不止的人生态度和兼容并蓄的开阔胸怀。正是这些沿海文化的特征成了中国东南沿海经济快速发展的无限推动力。

自古以来，东南沿海地区就是一个移民地带。历尽千难万险，漂泊而来的移民，已经失去了太多东西。来到这里，白手起家，就不得不放开胆子，勇敢奋斗。在生产条件极其低下的情况下，凭着简易的舟楫，终年漂泊、搏击在风云多变的大海之中。严酷的海洋环境，造就了沿海民众敢于闯荡、开拓的冒险行为。历史上，沿海民众一直处于官府压迫和自然灾难的双重压力之下。在明代嘉靖年间，沿海许多地方累遭倭寇的骚扰，成为倭患的“重灾区”。清代顺治、康熙年间，政府实行“海禁”，大批沿海民居被强行拆除，许多民众流离失所达 10 年之久。同时，沿海地区往往是台风、海啸首当其冲之地，在抵御自然灾害能力低下的往昔，屋毁人亡的惨状，常常发生。饱尝人祸之苦天灾之祸的沿海民众，造就了他们齐心合力、精诚合作的精神。沿海地区优越的自然环境刺激了人口的聚居繁衍，也促进了城市的繁荣发展。由于有优良的港口条件，海外贸易便在这里活跃起来，商业气息逐渐加重。尤其是近代以来，频繁的海外贸易往来改变了人们自给自足的小农意识，逐渐培养起了重商重利的经济意识。至于奋斗不止的人生态度和兼容并蓄的开阔胸怀，更是沿海文化的题中应有之义。

沿海文化的这些基本特征决定了它在当代经济发展中的重要作用。正是中国沿海文化的这些基本特征，使当代中国的沿海地区的经济获得了长足的发展。特别是在长三角和珠三角一带，经济发展的势头十分强劲。沿海地区交通便捷，人口密集，信息密度大，人口素质高，市场开拓潜力广阔。沿海地区成为了中国经济的增长的亮点成为了中国最现代化的地方，并带动了全国经济的发展和产业的进步。这是中国沿海文化最主要的正面效应。

但是，事物总是一分为二的。中国沿海地区的经济蓬勃发展的时候，沿海文化中的某些深层次的无良因素也逐渐故态复萌。旧中国的某些丑恶现象，也在沿海地区死灰复燃，例如，吸毒贩毒、卖淫嫖娼、聚众赌博，甚至出现了具有黑社会性质的组织。诸如此类的丑恶现象，经常见诸于中国媒体。如何抑止这种负面效应，是当代中国沿海文化研究中亟待解决的主要课题。

目前，中国沿海文化正在不断向全国辐射扩散。这种扩辐射散体现在两方面，一是将先进的生产技术、解放的思维理念扩散至中国广袤的内陆大地，给中国传统的中原文化注入新的生机。二是沿海文化建立了国际间的经济、文化联系，将我们的优秀文化辐射扩散到海外。由此可见，中国沿海文化在中国主体文化中的地位正在稳步提高。在这种情况下，拓展沿海文化中的正面效应，克服沿海文化中的负面效应，就尤其重要。

作者介绍：
陈先元　上海交通大学教授。

.

중국 연해문화의 형성원인 및 기본특징

상하이교통대학 천시엔위엔

현대 중국의 연해지역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중 문화 요인은 등한시 할 수 없다. 중국의 연해문화는 중국문화의 필수적인 조성부분으로, 중국연해문화와 중국주체문화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중국연해문화의 형성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연해문화의 기본 특성을 연구하면, 중국사회발전의 긍정효과와 부정효과에 대한 중국연해문화 중의 각종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역사 조건하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주체문화와 중국연해문화

중화민족문화는 중원문화의 핵심이다. 주변지역의 남만족, 동이족, 적, 융족 등 소수민족문화와 지방문화를 흡입, 융합하여 형성된 문화형태다. 중원지역은 중화민족의 발원지로 중화 문화의 발원지와 중심은 황하 중하류 지역이다. 이러한 광활한 토지위에서 중화민족은 이미 자신의 지혜에 의거하여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창조해 냈고, 아울러 동아시아 각지에 영향을 미쳐 세계문화의 걸작을 만들어 냈다. 중원문화는 항상 중화문화의 핵심이었고 연해문화는 중화주체문화의 조성부분이었다.

지리적 요소는 중국주체문화의 형성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 세계 기타 유목 민족과 상업민족은 서로 다르다. 중화민족은 그 태생이 토지에 의해 생성된 농경민족이다. 중화민족은 유구한 역사과정중에 언제나 듬직한 바닥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 발아래의 황토지다. 땅이 있으면 경작할 수 있다. ; 경작할 수 있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중화민족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만 구한다. 중국인은 토지에 대하여 매우 강렬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농경지의 생산방식을 결정하며, 농경의 생산방식은 또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한다. 이 둘은 사회제도 및 사상관념을 결정하여 중화문화가 이로 인해 일어났다. 중국주체문화는 경제를 기초로 한 농경문화다. 중화문화의 열쇠로 이해될 수 있다.

농경문화는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고정성이고, 두 번째는 가족의 전승성이다. 생산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토지는 매우 진귀한 자연자원이고, 생산력의 요소다. ; 경제관계에서 토지는 물질재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물질재산을 상징하는 부동산이다. 농경사회중의 토지는 그 경제지위가 유목사회중의 소와 양, 상업사회중의 금전과 같다. 그러나 소, 양, 금전은 이동 가능하지만 토지는 항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경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고정해서 살아간다. 고대 중국에서 토지를 개간한

후에 가족은 그곳에 뿌리를 내렸고 대대손손 전수하고 계승했다.

이렇게 중국 사회는 가족 전승제의 안정된 결과를 형성했다. 중국고대사회의 자급자족적인 소농 경제생산 모델은 중국문화의 경제기초며, 이러한 기초위에 형성된 소농경제 생산의식은 중국문화의 기초요소다. 말할 필요 없이 농경문화중의 지역 고정성과 가족의 전승성은 중화민족의 중후하고 내성적인 민족성격을 만들어 냈다.

중국연해문화는 중국동남연해지역의 문화를 가리킨다. 오월문화, 민태 문화, 영남문화를 포괄한다. 오월문화는 절강일대에서 발단했고, 민태 문화는 복건 대만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면 영남문화는 주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광동 남부에서 형성되었다. 중화문화의 아문화는 세분해서 보면 오월문화, 민태 문화, 영남문화 등등 모두 각각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음악은 오월 문화 중에 강남음악이 우화하고 유창하며, 민태 문화 중의 전통 곡조가 조화롭고 참신하며, 영남문화중의 광동음악이 열렬하고 우렁차다. 그러나 오월문화, 민태 문화 및 영남 문화 중에서 공통성 요소를 찾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연해문화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연해문화는 중화문화의 아문화가 되었고, 주체문화와 서로 비교해서 매우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연해문화의 특이성은 지리 환경 및 경제기초 양 방면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중국주체문화는 황토지에 깊이 뿌리내린 농경문화다. 중국연해문화는 황토지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 함의 외에 어류 사냥문화와 상업문화의 뚜렷한 흔적을 가지 있다. 중국역사상 몇 천 년 중에서 사회동란은 중원의 선조들이 연해지역으로 오면서부터다. 연해지역의 자연환경이 달라 선조들은 농경을 진행한 동시에 어류를 잡고 상업 활동에 종사했다. 이러한 생산 활동 중에서 점차 주체문화의 중국연해문화가 형성되었다.

중국연해문화 형성의 원인분석

중국 연해문화 형성의 기본 원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동남지역의 독특한 자연조건과 이민의 생산 활동이다. 둘째, 근대 이후 서방사상의 영향이다.

문화와 자연환경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는 변증법적 관계가 존재한다. 인류의 문화는 비록 자연계와 인간 자체에 대한 자연적 속성의 초월함을 표현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일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를 창조해 낸다. 일정한 자연환경이란 지형, 기후, 수문, 토양을 포함하며, 인간의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생산, 생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그 가운데 창조된 인류문화는 일정한 개성이 부여된다. 특정한 자연환경 조건과 특정한 문화형태 간에는 언제나 일정정도의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다.

동남연해지역은 연해평원 및 구릉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은 우수하다. 기후는 온난다습하고 사계가 분명하고 농업생산에 적당하다. 또한 동남연해의 지리적 위치도 우수하다. 바다와 강이 만나고 교통이 편리하고 연해무역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상업문명의 인자도 이어서 발달하고 있다. 연해지역의 조상들은 농사를 짓는 것 외에 주요 경제활동은 고기잡이이다. 이로 인해 동남연해지역은 사실상 농업에 어업을 더한 경제모델이다.

동한 말 이래 북방, 서북방 유목민족이 여러 차례 침략함에 따라 중원의 경제생산과 문화발전이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량의 선조가 혼란한 세상에 중원을 떠나 동남연해지역까지 이동하였다. 서진의 "영가의 난" 당대의 "안사의 난" 송대의 "정강의 난"을 겪으면서 동남연해 인구는 급증하였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중심도 남쪽이동의 역사적 사명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송대 이후 정치중심이 아직 북방경기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경제와 문화 중심은 모두 남방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동남연해지역이다. 마주(媽祖)여신의 흥기가 그 예이다. 마주여신은 여자 해신으로 남송시대에 조용히 중국동남연해의 민간제단에서 일어났다. 전설 속에서 그녀는 길흉을 알 수 있고 해난을 구조할 수 있고 해적을 몰아낼 수 있어서 진정한 의의상의 항해 보호신이다. 지금에까지 동남연해 주민들은 그녀를 참배하고 그 존경의 정이 결코 기타 신보다 못하지 않다. 마주의 흥기는 중국문화 중심의 역사적 전이라는 증거이다.

서방문화의 영향도 중국연해문화 형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1840년 영국의 함대가 중국의 굳게 닫힌 국문을 폭격하였다. 서방문명과 동양문명은 격렬한 충돌을 발생시켰다. 서양인이 해상으로 중국으로 아편을 운송하고 선교사를 파견하여 서양화폐, 함포를 사용하여 중화제국의 대문을 공격하였다. 최초 서방문화는 강제적인 패기를 가지고 연해도시에 상륙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 고유의 연해문화도 점차 서방문화와 융합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동방의 파리"가 만들어졌다. 주지하듯이 서방문화는 경제 형태로 말하면 일종의 공상업문화이다. 사회제도에서 말하면 일종의 봉건주의문화이다. 인류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말하면 자본주의는 봉건주의보다 훨씬 선진적이다. 설사 중국 고유의 문화가 서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종의 굴욕적 강제적 형식으로써 실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하에 서방사회의 발전이 중국사회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서방문화와 중국문화 사이에 사회경제, 문화발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서방선진문화가 중국주체문화에 준 충격은 강렬하였다. 그것이 가져다준 신이념, 신과학, 신지식, 신사고는 중국문화 고유의 단단한 거죽은 파괴되어 점차 중국문화 속으로 융합되었고 중국의 연해문화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중국 근대연안문화는 중서문화의 대융합이며 일종의"합금문화"이다.

근대 이후 민월 및 송명 이래 이미 문화의 중심이 된 저쟝 등지는 중국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 신문화의 중심이다. 중국연해문화의 능력은 끊임없이 내륙으로 전파되었고 이것과 양송(북송과 남송)이전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의 문화전파 노선이 상반되게 되었다.

중국 연해문화의 기본특징

중국 연해문화의 기본특징은 대체로 아래 몇 가지로 귀납된다. ; 근면 개척의 모험정신 ; 단결 결합의 집단정신 ; 중상중리의 경제의식 ; 분투 포기하지 않는 인생태도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흉금. 이러한 연해문화의 특징이 중국 동남연해 경제의 급속한 발전의 무한한 추진력이 되었다.

예로부터 동남연해지역은 이민지대이다. 수많은 위험을 겪고 유랑하는 이민은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곳에 도착하여 자수성가하기 위해 부득이 용기를 내고 용감히 분투해야 했다. 생산조건이 극히 낮은 상황 하에 간이 배와 노에 의지하여 일 년 동안 표류하면서 풍운이 격변하는 대해와 싸웠다. 가혹한 해양환경은 연해주민을 용감하게 유랑하고 개척적인 모험정신을 조성케 하였다. 역사상 연해주민은 줄곧 관부의 압력과 자연재해의 이중 압박에 처해있었다. 명대 가정 시기 연해에는 수많은 지방에서 왜구의 약탈을 당하여 “이중재해지역”이 되었다. 청대 순치 강희 시기, 정부는 "바다폐쇄“를 시행하여 많은 연해주민 거주지는 철거당했고 많은 주민은 10년이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했다. 동시에 연해지역은 종종 태풍, 해일에 가장 먼저 재난을 당하는 곳이다. 자연재해를 억제하는 능력이 낮았던 옛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참상이 종종 발생되었다. 인재와 천재를 겪은 연해 주민은 마음을 다해 협력하고 성심성의껏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연해지역의 우월적 자연환경은 인구의 집중 및 번성을 조성하였고 도시의 번영을 촉진하였다. 우수한 항구조건으로 인해 해외무역도 더욱 발전하였고 사업의 기운도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근대 이후 해외무역의 번영은 사람들의 자급자족적인 소농의식을 변화시켜 점차 중상중리의 경제의식을 배양시켰다. 끊임없이 분투하는 인생 태도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흉금은 연해문화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미이다.

연해문화의 이러한 기본특징은 현대 경제발전 중의 중요한 작용을 결정하였다. 중국 연해문화의 기본특징은 현대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에 장족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특히 장강삼각주지역과 주강삼각주지역 일대는 경제발전의 기세가 대단히 강력하다. 연해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정보밀도가 크고, 인구소질이 높고, 시장개척의 잠재력이 크다. 연해지역은 중국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었고 중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지역이 되었다. 또한 전국 경제발전과 산업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중국 연해문화의 가장 중요한 긍정효과이다.

그러나 사물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가 왕성히 발전할 때 연해문화 가운데 일부 심층적인 양심 없는 묵은 버릇이 되살아났다. 구 중국의 몇몇 추악한 현상이 연해지역에서 되살아났다. 예를 들면, 마약, 매춘, 도박이다. 심지어 흑사회성질의 조직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추악한 현상은 중국매체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효과를 어떻게 억제하는가는 현재 중국 연해문화 연구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현재 중국 연해문화는 끊임없이 전국으로 확산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 전파는 두 방면에 나타나다. 첫째, 선진적인 생산기술, 사고 이념의 해방을 중국의 넓은

내륙으로 확산시켜서 중국전통의 중원문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둘째 연해문화는 국제간의 경제, 문화 연결시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로 확산 전파시킨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연해문화는 중국 주체문화 중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연해문화의 긍정효과가 확장되고 연해문화의 부정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두레와 중국 북방 앙가놀이 비교연구
- 연희를 중심으로 -

김 용 국(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서론

한국의 두레[1]는 농촌사회의 공동작업을 유지시키는 조직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조직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며 도구로서의 집단이기도 하다. 필자는 두레의 개념을 공동작업을 위한 조직과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농악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놀이로써의 두레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레는 사회학적 시각으로 보면 조직의 명칭이고 민속학적 시각으로 보면 신앙행위, 예능행위를 하는 집단의 명칭이다. 농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으로서의 두레는 사라졌지만 민속으로의 두레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바탕이 신앙적 요소에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추단한다. 신성성이 퇴색되는 대신 예능적 연희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두레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한 민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레의 여러 구성요소 가운데에서 특히 잡색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를 중국의 앙가놀이와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잡색은 놀이적 성격을 강화하였고 중국의 앙가놀이는 연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이어오는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그간 두레와 앙가놀이에 대한 연구는 그 유래와 행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두 나라의 민속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나라의 두레와 앙가놀이의 본격적 연구 제안하고자 하며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시론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두레와 중국의 앙가놀이의 유사성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앙가놀이를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두레에서의 잡색과 앙가놀이에서의 연희종목을 통하여 양국의 차이를 드러냄을 우선하였다.

1. 한국의 두레

---

1) 두레는 지역에 따라 구성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도 다양하여 '농사(農社)', '농계(農契)', '농청(農廳)', '농악(農樂)', '농기(農旗)', '목청(牧廳)', '갹사(醵社)', '동네 논매기', '길쌈', '돌개기음' 등으로 불렸다. 또, 두레는 공동노동조직이기도 하면서 줄다리기, 햇싸움, 편싸움 등의 오락에서도 큰 몫을 하였다. 두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씨족공동사회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 삼한시대에 농사의 시작과 끝에 행하던 음주가문가 두레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398.

우리나라의 두레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조직으로써의 두레와 악기를 연주하고 재주를 보이기도 하면서 마을의 대소사에 주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두레(농악)를 통칭한다.

두레의 범주 가운데 공동노동을 위한 노동조직으로써의 두레는 논외로 하고 농악을 연주하고 재주를 부리는 두레의 범주만으로 살피면 이렇다. 마을의 두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은 마을을 상징하는 두레기인 농기(農旗)[2]를 앞세우고 '영기', '악기', '잡색'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악기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 마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의 경우 '꽹과리', '북', '장고', '소고', '쇠납', '호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두레가 놀이를 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진(陣)을 짜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동시에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지신밟기 등의 민간신앙적 행위를 할 때에는 두레패를 이끄는 상쇠가 덕담을 하는 등 제의에서의 사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놀이(잡색)의 구성

잡색의 기본 배역은 무동을 비롯하여 대포수(총잽이 또는 초랭이)와 각시 · 양반 · 중(조리중) · 花童(영남과 호남지방 일부) 등이 있다. 호남지방에는 많은 잡색들이 잇고, 가면을 쓴 잡색도 많은데, 그곳 농악이 발달하여 가면극과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혹은 농악 편성에 가면극적인 요소를 넣은 것인지 흥미를 갖게 한다.[3]

잡색은 주로 농악 사이사이에 재담과 놀이를 벌이거나 춤을 추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데, 호남지방의 농악에서는 잡색들의 놀이가 판굿 속에 한 科場으로 짜여진 것도 있다. 雜色이 지금은 농악대의 후미에서 허튼춤이나 재담 또는 극적인 놀이를 하는 정도이지만 당초에는 종교극의 연출자였을는지도 모른다.

동물신격의 경우 전남 여천군 일대, 특히 백초농악과 현천마을 농악에서 나온 말·소·곰·호랑이·닭 등 암컷 수컷들의 잡색놀이, 강원도 충청도나 경기도 이천지방의 거북놀이, 양주농악의 소놀이 등이다. 人態神格의 경우 잡색의 일종인 舞童, 특히 전북 남원군 보적면 괴양리농악의 무동놀이(三童놀이)가 해당된다.[4]

2. 중국의 앙가놀이

秧歌[5]와 農樂은 각각 고대 中國과 韓國 농경문화의 산물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

---

2) 김용국, 「수원지역 두레의 민속적 특질」, 『수원두레 원형발굴 조사보고서』 수원문화원, 2009,
농기는 마을마다의 특색을 갖고 있다. 특히 암수의 구별이 설 수도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형의 깃발과 "농자천하지대본야" 형의 깃발로도 구별된다. 이는 「수원두레 원형발굴 조사보고서」에서 다룬 바 있다,

3) 舞童 경기도 평택 : 상무동·중무동·삼무동·칠무동·중애·사미, 충청남도 부여 : 꽃나부, 대전 : 꽃나부·중 꽃나부, 여천 백초, 현천 : 도령·처녀
기타 대전웃다리 : 通令大夫·포수·양반, 부여 : 양반, 임실, 이리 : 양반·조리중·대포수·창부·농구·각시·花童, 화순 : 양반·조리중·포수·창부·할미광대·비리쇠, 영광 : 양반·조리중·대포수·창부·할미·비리쇠·홍적삼·참봉, 청도,대구,고산,부산,진주 : 양반·포수·색시, 제주 : 사대부·중·꿩바치, 김제 : 양반광대·중광대·창부·각시광대·左右執事·九代進士, 통영 : 사대부·총잡이·색시, 밀양 : 하동(가짜양반)·사대부·대포수·각시, 려천 백초 : 사자·호랑이·곰·소·말 등의 동물가장과 1인 2역의 가장, 려천 현천 : 양반·대포수·각시·쫄쫄이 등의 인물가장과 소·말·범·닭·돼지·개 등의 동물가장 그리고 1인 2역의 가장, 이천 : 질라아비와 거북의 가장, 양주 : 소
鄭晞浩, 『農樂』, 열화당, 1994

4) 鄭晞浩, 『農樂』, 열화당, 1994

5) 秧歌는 그 의미에 있어서 광의의 秧歌와 협의의秧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秧歌는실제로는 '鬧秧歌' 를 合稱한 것으로 혹은 '走會' , '出會' , '鬧社會' , '鬧紅火' 라고도부르며 모두 절기나 각종 민간집회의 演藝 중에 나타난 방대한 모든 舞隊를가리킨다.

며 희극의 발전사에 있어서 각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秧歌와 農樂은 비록 국적을 달리 하고 있지만 그 起源과 공연형식 및 성격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6)]

중국의 앙가놀이 가운데 우리의 두레와 비교 가능한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앙가대의 구성을 산동성의 예로 살피면 "산(傘),고(鼓),방(棒),화(花),추(醜)" 등 5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중 "산(傘)" 은 다시 "추산(醜傘)" 과 "화산(花傘)" 으로 나뉘는데 "추산(醜傘)은 "두산(頭傘)" 이라고 한다. "두산(頭傘)" 은 앙가대의 지휘자이다. "고(鼓)" 는 "무생(武生)" 으로서 앙가대에서 춤을 추는 고(鼓)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적으로 제일 많다. "고자앙가(鼓子秧歌)" 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棒)" 은 양손에 나무방망이를 들고 춤을 추는 이들을 말한다. "화(花)" 는 중국 희곡 중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역을 담당하는 "화단(花旦)" 을 말한다. "추(醜)" 는 어리광대역으로서 "멍청한녀석(傻小子)" , "추하게생긴노파(丑婆)" , "현관(縣官)" , "플레이보이(花花公子)" 등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7)]

포앙가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진(陣)을 친다. 전통적인 진으로는 "이룡토수(二龍吐須)" · "권백채심(卷白菜心)" 등이 있다. 때로는 원형으로 때로는 네모나게 진을 친다. 앙가대 성원들은 부채 · 수건 · 우산 · 곤봉을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연주되는 음악의 절주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네 박자를 한 소절로 하여 전 세 박자는 전진하고 마지막 한 박자는 후퇴한다. 앙가놀이는 단순한 음악에 간편한 동작으로 일관되어 있지만 강열한 타악기와 자극적인 관악기 연주와 재치 있게 흔들리는 몸놀림은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남음이 있다. 또 여기에 맞추어 터뜨리는 폭죽 또한 경사스러운 재미를 더 가배 하여 준다.

포앙가 하면서 앙가대는 그 대상자를 위하여 "설희사(說喜事)" 하여 준다. 덕담을 하여 주는 것이다. 대개 앙가대의 수령이 이를 담당한다. 이때면 주인집들에서는 앙가대를 위하여 자라는대로 쌀, 계란 등을 꺼내 상을 차려주거나 돈을 추렴한다. 돈을 추렴하면 앙가대 수령은 추렴한 액수의 2배로 사람들에게 소리 높게 고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여 준다.

그리고 동북의 앙가는 백희(百戲)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동북 앙가에서는 용등(龙灯)놀이, 무사(舞獅), 한선(旱船)놀이,복호접(扑蝴蝶), 이인씨름(二人摔跤), 타화곤(打花棍), 채고교(踩高跷) 등을 망라한다.

또한 우리의 두레싸움과 같은 요소도 보인다. 한 마을이나 혹은 한 집에 두 개 이상의 앙가대가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면 앙가대들끼리 "타대태(打对台)" 를 하게 된다. 앙가싸움인 것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모두 자기들의 묘기를 다 부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도 큰 작용을 하는 것은 쇄납을 부는 악사이다. 쇄납을 부는 악사를 일명 "나팔쟁이(喇叭匠)" 이라고 한다. 쇄납을 앙가대의 영혼이라고 한다. 고(鼓) · 라(鑼) · 발(钹)과 같은 타악기들이 춤을 추는데 절주를 맞추는데 큰 작용을 한다면 쇄납은 진을 치고 진의 모양새가 바뀌는 것을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쇄납이 연주하는 곡에 따라 진을 치고 진의 모양을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앙가대는 멀리서 상대방의 앙가대의 쇄납 연주소리를 듣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동적으로 "언퇴(蔫退)" 즉 물러간다. 쇄납이 중요하기 때문에 쇄납을 부는 이들은 출중한 연기 외에 자기만의 비장의 묘기를

6) 박승권,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10
7) 박승권,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10

가지고 있으며 “타대태(打对台)” 를 할 때면 묘기를 펼쳐 상대를 제압하기도 한다.

결론

두레와 앙가놀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현재까지의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아직 본격적 연구를 위한 준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두레와 앙가놀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음 정도이다.

“중국 산동 3대 앙가(秧歌)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8], “동북앙가(東北秧歌)의 지역적 특징 연구”[9], “秧歌와 農樂 비교연구-그 起源을 중심으로”[10], “傘頭秧歌의 유래와 전승 과정에 관한 논의 검토”[11], “중국광장예술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전개양상”[12], “중국광장예술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전개양상 -앙가를 중심으로”[13], “중국 북방 앙가희(秧歌戱)와 이인전(二人轉) 연구”[14]

이를 통하여 확인하듯 현재까지의 연구는 중국의 앙가가 지역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우리의 두레와 앙가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그 시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농악과 앙가를 비교한 김광영의 연구도 두레와 앙가에 대한 기원을 찾아 비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두레놀이와 중국의 앙가는 그 유래와 연행시기, 악기의 구성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연행의 종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음 인용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 전통 민간문예 활동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秧歌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다양 하게 변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현재도 중국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전승, 공연되고 있다. 앙가의 생성 시점과 전승 과정을 되돌아볼 때, 그 역사가 매우 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본격적 수집, 정리, 연구는 1940년대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 이후 민간문예 형식에 대한 중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5]

이에 본고를 기초로 하여 본격적으로 두레와 앙가놀이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

8) 리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8
9) 박영광 김유화, 「우리춤 연구」, 2009

10) 金光永, 「中國人文科學」Vol.32, 2006
11) 양귀숙, 「中國人文科學」 Vol.41, 2009
12) 閔惠蘭, 「중국어문학논집」Vol. 42, 2007
13) 중간보고서 ,목포대학교,
14) 결과보고서 ,강릉대학교,
15) 양귀숙, 「傘頭秧歌의 유래와전승과정에 관한 논의 검토」,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퇴계의 「성학십도(聖学十図)」와 일본관의 관계

성해준(동명대학교)

Ⅰ. 『성학십도(聖學十圖)』란

만년의 퇴계는 귀향하여 도산서원에서 본격적인 제자 양성에 주력한 결과 정승 10여명과 판서 30여 명을 배출했다. 그의 제자들은 뒷날 영남학파를 형성하여 중앙의 관계를 주름잡았고 향리의 학문풍토를 조성한다. 그러나 그가 성균관의 유생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영남학파를 당쟁에 휘말리게 했다는 비난과, 그가 너무나 큰 학자여서 학파의 흐름이 권위주의적 경향으로 흘러 개혁과 변화를 소홀히 하는 보수성을 띠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근면 성실은 대학자의 명성 외에도 한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의 인격이 당시의 조선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퇴계 만년의 제자 양성 전념 때, 또 다른 하나의 교육서로 퇴계학문의 결정체인 동시에 유학을 좀 더 알기 쉽게 요약한 『성학십도(聖學十圖)』가 있다. 「성학」이란 「聖人을 배우는 학문」 또는 「성왕을 배우는 학문」의 뜻으로 쉽게 말하면 유학을 가리키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학문이 내재되어 있다.

이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작성 배경을 보면 시대적으로 을사사화를 비롯한 많은 정치적 현안문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일찍 승하(昇遐)한 명종(明宗)에 이어 어린 나이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즉위한 선조(宣祖)를 위하여 퇴계가 올린 성왕(聖王)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퇴계가 이『성학십도』를 집필한 동기는 이미 정치적 조언인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疎)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린 선조가 『성학십도』를 통하여 성왕(聖王)의 자질을 함양하고 올바른 학습을 이루어 성군(聖君)에 이르는 수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성학(聖學)의 이념을 체계화하여 퇴계(1501-1570) 만년인 68세(1568년)에 선조에게 진상한 것이다. 그 후 1681년(숙종 7) 오도일(吳道一)이 간행하였으며, 1741년(영조 17) 중간되었다.(退溪年譜)

그 내용에는 우주속의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는 열개의 그림(圖)과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일정한 순서와 원칙에 따라 배열되고 해석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열개의 도설(圖說)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입도지문(入道之門)과 적덕지기(積德支基)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우주만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모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퇴계가 경연(經筵)에 입시하였을 때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학의 대강을 강의하고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설(圖說)에서 골라 책을 엮고, 각 도식 아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왕에게 강론하였다. 퇴계는 이 『성학십도』를 통하여 송대 유학에 관한 퇴계의 총괄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자신의 철학세계를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성학(聖學)의 과제로 천도(天道)를 파악하여 성인(聖人)이 되는 것과 치도(治道)를 파악하여 어린 선조가 성군(聖君)이 될 것을 염원한 것인데 이 『성학십도』는 군왕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식인들의 인격수양의 지침서로서 널리 수용되

었다. 후에는 이 서적이 중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퇴계의 이 『성학십도』의 구성과 관련 사상 및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성학십도』의 구성원리 및 유포양상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구성원리와 관련되는 두 가지 언급을 한 적이 있다. 한 가지는 ①전반부로 「태극도」·「서명도](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적 원리와 그 원리에 의해 질서 지워진 세계를 설명한 것. 즉 천에 이르도록 하는 것)· ②중반부로 「소학도]·「대학도」·「백록동규도」(현실적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해 밝힌 것)를 들었다. 그리고 ③후반부로 「심통성정도」·「인설도」·「심학도」·「경재잠도」·「숙흥야매잠도」 (우주적 원리와 삶의 원리가 마음을 통하여 일치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실천적 조건으로서의 敬을 논한 것)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유포 양상을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선조는 『성학십도』를 경연사를 통해 병풍을 만들게 하고 홍문관 학자들에게 교정을 하게 하여 장첩, 인쇄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선왕조실록』기사에서는 다수의 신하들이 군왕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인본, 병풍, 서첩 등으로 제작하거나 경연에서 강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성학십도』는 제작 될 때 마다 왕들이 주위에 두고 항상 제왕학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병풍과 서첩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제왕학에 관한 완결된 체계를 갖춘 문헌으로서 왕들이 항상 곁에 두고 완미(玩味), 체득(體得)할 필요가 있는 제왕학의 전범이 되는 문헌이다. 또한 성군이 되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서 경(敬)을 중심으로 한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세(經世) 이념의 핵심은 군왕이 천리에 근본하는 도를 얻어 치국의 방책으로 삼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성학십도』는 조선시대에 제왕학(성학)에 관한 완결된 체계를 갖춘 문헌으로서 제작 될 때 마다 왕들이 항상 주위에 두고 제왕학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병풍과 서첩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또 성군이 되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서 경을 중심으로 한 거경궁리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세의 이념의 핵심은 군왕이 천리에 근본하는 도를 얻어 치국의 방책으로 삼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십도의 서술내용은 도표와 함께 앞부분에 경서와 주의 및 여려 성현의 글을 인용한 다음 자신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다. 당시까지의 성리학의 요지를 열 가지로 압축, 체계화한 것인데, 그 당시의 성리학을 자기류로 체계화한다는 자체가 그의 독창성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퇴계가 특히 주희의 입장에서 성리학의 요지를 도설의 형식으로 총정리, 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학십도」만큼 숭상 받은 책도 드물다. 이황 철학의 대표는 「성학십도」는 선조의 명에 의해 병풍에 씌어져 애중되었고, 그 이후의 역대 임금들도 경연 (임금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논하는 일) 에서 자주 강의하게 했다. 임금들이 이러했으니 그 신하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중국에서는 청말의 양계초 같은 성학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고, 일본에서는 일찍이 1655년부터 이 책이 인쇄되어 유학자들의 필독서로 숭상되었다.

(3)『성학십도』의 중국 및 일본 전파

『성학십도』가 중국에 頒傳된 것은 퇴계가 중국에 알려지고 신주국수공정국빈(神州國粹公定國賓) 제 1호로 결정된 이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으로 국내외 학자들은 聖學十圖가 청말에 건너갔고 이 때 중국에서 퇴계를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1920년 경에 尙德여자대학의 기금조성을 위해 十圖를 國責 제1호로 公定하고 간행하였다고 한다. 1922년 辛亥革命 때 혁명군의 수령이었으며 1916년에 제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黎元洪, 또 청말 變法維新파의 대표적 사상가 梁啓超가 十圖와 아울러 頒布한 이후에 퇴계와 성학십도는 중국에 널리 알려졌고 퇴계의 학문적 명성도 고양되었다.

그러나 1569년 10월에서 1570년 4월 사이에 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書狀官으로 聖節上使 淸蓮 正使 李後白과 함께 명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 북경의 王華館에서 명의 대신 오경(吳京)을 만나 학술을 논하고 성학십도를 전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 글씨라 문도(文圖)를 가지고 병풍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림이나 금박지로만 造屛한다. 한국에서도 16세기에는 서병(書屛)은 대중적으로 실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학십도』를 연구한 일본의 토모에다 류타로(友枝柳太郎), 아베 요시오(阿部吉雄), 타카하시 스스무(高橋進) 등의 학자들의 연구는 『성학십도』를 製進한 퇴계의 十圖製作의 목적 규명을 위시하여 譯注文과 敬철학의 체계 및 天人合一과 理學要訣의 구조분석 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아베 요시오 편집에 의해 『일본각판 이퇴계 전집』상 하 2책(퇴계학연구원발행, 1985년)이 영인 출판되었는데, 『성학십도 및 봉사』1권 1책도 이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 또 아베 요시오 家藏의 無刊記本이 기재되어 있는(1655년3월 상순이라는 刊記) 서적도 전해지고 있다. 일본 각본은 <진성학 십도찰자>(6丁)를 기준으로 하여 『성학십도』(30丁)와 『무신봉사』 (30 丁)를 合刻하고 여기에 訓点이 첨가 되었다. 이 전집 수록을 한 아베 요시오의 <해제>에 의하면 일본 각본은 『성학십도』가운데서 제 7 심학도 및 심학도설(원나라 정복심의 작), 제 8 인설도 및 인설(주회암의 작) 의 순서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이퇴계의 초기설을 따른 것으로서 퇴계는 후년에 기대승의 提言에 의해 제 7에 인설도를 제 8에 심학도를 배치하였다. 조선에서 출판된 광해군 13년(1620)의 官版이나 隆慶 6년(1572)의 영천 합각본, 無刊記 합각본 등은 후년의 설에 따른 순서이다. 일본 각본(刻本)은 아마 初刊本에 의해 출판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베 요시오는 말한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동북지방의 결혼이민자 실태

이선희(일본 동북대학)

1.머릿말

작금,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다문화' 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의 의해 한국외 다른 선진국들의 다문화의 실태가 소개되고, 그 내용들은 국내 다문화정책 수립에 참조되고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사회적 배경이 비슷하면서도 시민사회의 다문화 움직임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예는 현재 한국의 다문화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있는 듯하다. 1980 년대 후반부터 지역내 외국인을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외국인 회의를 설립하여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온 가나가와현의 예는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소개되었고 다문화사회 실천 모델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배우자와의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한 농총지역의 예로서는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마을의 사례가 종종 보고되어 왔다.

이렇듯 한국에 소개되어온 다수의 일본의 다문화사례는 몇몇 혁신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외국인 집주지역, 그리고 몇몇 열심한 시민단체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한국인은 일본이 다문화의 선진국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근본적 제도 개선은 기피한채 [내향적 국제화]의 또다른 버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 공생제도는 , 외국인 집주지역과 외국인 과소지역 간의 정책시행에 관한 온도차가 크고, 외국인 점재지역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역사회의 과제로 부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결혼배우자로서의 외국인여성의 비율이 큰 동북지방의 경우, 다문화공생을 실천하는 주체는 지역내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며,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본어 교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다문화공생사업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발표자는 본 발표를 통해, 일본 동북지방의 현 다문화공생의 더딘 움직임에 비해 급격히 다양화하는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알리고 , 현 과제와 향후 대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일본 동부지방의 다문화공생 사업의 실상

일본의 동북지방이라함은 대체적으로 동북 6 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을 말한다. 이들 6 현의 공통점은 대규모의 공업단지가 없고, 주로 농업이나 어업, 임업등과 같은 1 차 산업이 주된 생산업이라는 점이다. 동북지방의 이러한 산업구조는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 농촌지역의 후계자 감소

라는 심각한 과소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소위 한계부락이라고 불리는 마을의 증가도 이 지역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2008 년 현재 동북 6 현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52,044 명으로 동북지방 인구 9,532,518 명에 대비하여 점유율 0.55%이다. 이는 전국의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1.75%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이다. 그러나 동북의 인구수가 매해 줄고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국인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외국인의 인구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전국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편이나, 외국인의 남녀비율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여성외국인의 수가 많은 것이 동북지방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일본 전역의 외국인등로자 수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약간 높은 것이 사실이나(2008 년 현재 남성 외국인 1,031,785 명/ 여성외국인 1,185,641), 동북지방의 경우 여성 외국인 수가 남성외 국인에 비해 2 배이상 높다(2008 년 현재 남성외국인 16,611 명/ 여성외국인 35,433 명). 이러한 사실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것은 결혼이민여성, 이른바 외국인 신부가 이 지역에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마가타현에서는 80 년대부터 행정주도 외국인 신부와의 국제맞선 결혼이 대유행 하였고, 야마가타현 방식의 국제결혼은 순식간에 동북지방 전역으로 퍼졌다. 그러나, 도시부의 일본 언론과 시민들은 이러한 국제맞선을 주도하는 동북의 지자체를 비난하였고, 그 결과 90 년도에 들어서 동북의 각 지자체는 행정주도의 국제맞선을 중지하게 된다. 그 후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민간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었다. 동북지방의 지자체들은 앞에 나서서 국제결혼을 적극 권장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사회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다.

동북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인신부에 대한 지원은 행정주도라기 보다는 지역내 볼란티어 정신에 의해 지탱되어왔다. 예를 들어 미야기현 N 시에서는 외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있는 한 여성에 의해 일본어교실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11 년간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에 살고 있는 10 여명의 볼란티어 여성들이 한국,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여성 20 여명, 그리고 산업연수로 체재하는 2 명의 중국인, 한국 결혼이민여성이 본국에서 데리고 온 중학교 1 학년생의 일본어를 지도하고 있다. 일본어 교실은 주 1 회 오전 10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각 레벨 별 소수인원제의 수업이 진행된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1 대 1 로 지도한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여성들도 많아 수업시간 중에는 탁아도 병행한다. 탁아를 담당하는 이들도 지역의 할머니들이다. 일본어 자원봉사자들은 교재선택부터 지도에 필요한 도구 제작 등 모든 것을 직접한다. 행정적으로 N 시의 국제교류협회로 부터 장소제공과 문방구류 구입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을 받을 뿐이다. 1 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야유회나 파티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강생으로 부터 약간의 참가비를 받기는 하지만 거의 볼런티아들의

주머니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동북지방 내에서도 몇몇 지역은 행정주도로 적극적인 다문화공생 사업을 펼치는 곳도 있다. 동북 6 현 중에서도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3 현의 경우는, 현의 국제교류협회가 직접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내의 의료 통역 서비스와 상담원 배치등 결혼이민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미야기현의 N 시와 같이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정책으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이나 다문화 가족에 관한 배려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2010 년 전국의 262 기초자치단체 중 70%이상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동북지방의 결혼이민자의 실태

그렇다면 동북지방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실생활은 어떠할까. 그들은 어떤 루트로 국제결혼을 하며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발표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로 그 실상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미야기현북부과 이와테현 남부지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결혼이민여성들로서 전반적으로 40 대에서 50 대의 여성들이 주였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중국 출신의 여성들로부터도 다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 온지 20 년이 넘은 여성도 있었고, 1 년이 채 되지 않는 이들도 있어, 연령층과 방일경력, 생활내용 등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다. 이는 나중에 언급할 결혼이민자 실태와 지역사회의 대응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다.

발표자는 현재에도 동북지방의 결혼이민여성들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지면의 관계상 1 명의 여성 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사례 1 의 A 씨는 결혼이민 10 년째이다.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프랑스문학을 전공하였고, 결혼 전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독신이었던 그녀는 IMF 때에 도산,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다. 그 때에 찾아간 곳이 서울에 한 결혼중개업체였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였던 A 씨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모두 자기들의 삶에 바빴고 그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A 씨는 사업관계상 일본을 여러차례 방문 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일본에서 사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한다. 결혼업체에서의 주선을 통해 A 씨가 직접 방일, 맞선을 보았다. 처음부터 일본에 꼭 남으리라는 결심하고 온 것이 아니었던 A 씨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현 남편과는 몇개월 간의 편지 왕래를 계속한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결혼을 결심한 동기로는 남편보다도 친엄마같이 다정했던 일본 시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서울생활을 쭉 해왔던 A 씨에게 농촌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 년이 채 되지않아, 농촌지역의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 우울한

농촌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혼자서 동경으로 센다이로 나다니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그러한 그녀의 불만을 이해해 주는 존재였다. A 씨는 인근지역의 일본어교실을 다니며 일본어를 배웠다. 그러던 중 노시부모가 차례로 병이들고 그들에 대한 간병을 해야만 했다. 3 년 전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남편과 둘 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현 생활에 만족감이 없다. 처음부터 연애감정이 없었던 남편과는 지금까지도 많은 격차를 느끼고 있고, 그 때문에 거의 대화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10 년이 지났어도 맘 터놓고 이야기할 일본인 친구는 거의 없다. 같은 마을의 사람들과도 깊은 친분을 맺기가 어렵다고 한다. 주위의 사람들은 일본 정주 10 년이 넘은 A 씨가 당연히 일본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본 생활 중 대부분을 집에서의 시부모 간병으로 보낸 그녀에게 일본에서의 사회참여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타계한 뒤 고민거리를 터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일본어 교실의 선생님이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일본어 교실은 이미 오래전에 졸업한 상태이다. 현재 그녀는 주중의 거의 매일을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유일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주 1 회 한국어를 가르칠 때이다. 그녀의 꿈은 문화교류가 가능한 까페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 꿈의 실현은 멀게만 보인다.

4. 일본 동북지방의 결혼이민자 실태로 본 향후 과제

A 씨의 사례는 10 년을 정주하고서도 일본생활의 만족도는 극히 낮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정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발표자가 만난 한국의 결혼이민 여성들의 대부분은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라는 사실을 쭉 등에 업고 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다른 국제결혼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넷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실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상대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내의 결혼이민자 지원은 주로 일본어 능력 배양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우치고 있고, 결혼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취/창업 지원이나, 자조적 커뮤니티 결성 등을 지원하는데는 소극적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일본의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일본인 배우자의 비자에서 영주허가자가 되는 순간,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보이지 않는 시민이 되어 버린다. 제도적으로는 일본인과 똑 같은 권리를 갖지만 그들에 대한 케어는 없는 것이 지금의 현 동북지방의 다문화공생의 주소라 하겠다. 결혼이민여성을 받아들인지 20 년이 넘지만, 변변한 자조조직조차 만들지 못한 일본의 동북지방은 앞으로 다양해진 결혼 이민여성들을 어떻게 사회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노령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 민족문화 인식
-'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으로-

세키네 히데유키(경원대)

1. 서론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주도적인 민족학이었으며 특히 그의 '일본문화의 기초구조'는 일본 기층문화 형성에 관한 원안으로서 후속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전전의 그는 '민족연구소'[1] 총무부장으로서 민족학에서의 전쟁협력 중심자로서의 얼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후 일본의 아시아 문화연구가 제국주의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민족문화의 형성과 아시아 여러 민족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1962~)에 의하면 전전과 전후에 걸쳐 일본인의 정체성이 제국의 주민에서 섬나라의 주민으로 이행함에 따라 일본인 형성에 관한 학설도 '혼합민족론'에서 '단일민족론'으로 변했다고 한다.[2] 이러한 변화는 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보다 사회적인 요인이 앞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관되게 일본 민족문화의 형성을 주제로 연구해온 오카의 학설 '일본문화의 기초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의 학설에서 일본 민족문화와 외부 민족문화를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 전파의 계기로서 '전파'와 '민족이동'의 속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카 학설의 발생계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학설에서 외부 민족의 '민족이동'이 어떤 맥락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 전파를 규정하는 '민족이동'과 '전파'

어떤 민족문화의 형성과정에 외래문화가 전파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 그 문화가 외부 민족이 이주함으로써 전파된 것인지, 이주 없이 문화만 전파된 것인지는 논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두고 그 계기가 '전파'인 경우와 '민족이동'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자는 어떤 '문화요소'가 발생모체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지는 것에 비해 후자는 문화요소가 그 담당집단과 함께 이동하여 동일문화 속에 머물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자는 개념상 구분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문화요소의 분포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느 쪽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3] 문화의 확산에 관한 이러한 속성은 하나의 문화 분포현상을 두고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족 간의 계통관계에 대해

---

1) 勅命으로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여 대동아 건설을 완수하는 국책 수행에 관련되는 여러 민족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 조사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1943년에 발족하였다.
2) 小熊英二(1995)『単一民族神話の起源』新曜社.
3) 大林太良「民俗移動」石川栄吉 外(編)『文化人類学事典』弘文堂, 1994, p.751.

서 논의할 경우, 심리적으로 '전파'보다 '민족이동'이 보다 강한 이미지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동'은 집단과 집단 간의 유전적 혼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통관계를 호소한다. 이에 비해 '전파'는 유전적 영향이 배제됨으로 계통관계가 간접적 차원에 머물게 된다.

가령 두 지역의 민족을 결합해야만 하는 정치적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문화적 관련성이 명백할 경우, 민족문화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민족이동을 전제한 문화전파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하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두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해야만 하는 정치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문화적 연속성의 증거가 있을 경우는 일단 '전파'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민족이동'을 부정할 수가 있다. 단일민족성을 표방하고 있는 사회의 연구자는 민족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타 문화를 수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여러 인종이 혼혈했다는 사실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수가 있다.

과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주관적 요인이 학설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4]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물며 민족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의 경우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요건이 연구자의 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자민족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민족의 혈통과 혼합되었다는 인식은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정치적 요건이 작용되지 않을 수 없다.

3. 오카 학설의 형성과 배경

오카 학설의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그의 학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카는 도쿄제국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한 후에 민족학에 관심을 가진 한편 야나기타 구니오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저명한 민속학자 등과 교류를 가졌다. 31세(1929) 때 빈 대학에 유학하여 슈밋(Schmidt, Wilhelm, 1868~1954)의 제자로서 당시 융성했던 '역사민족학([獨]historische Ethnologie)'을 수학하였다. 이 학파는 민족지(民族誌)적 자료에서 '문화요소'의 분포를 실마리로 문화사를 재구성하였으며 '전파'나 '민족이동'을 설명원리로 하기 때문에 '전파주의'(diffusionism)로 불리기도 했다. 1933년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Kultureschichten Alt-Japan(古日本의 文化層)'을 시작으로 1958년에 '일본문화의 기초구조'까지 발표하여 후대의 학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접근법은 슈밋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슈밋은 세계적 규모의 '문화권'의 규명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족의 형성사(形成史)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5] 반면 오카는 민족이나 종족 즉 ethnos의 형성·구조·역사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한정된 특수한 복수의 문화복합을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인류문화사의 재구성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어디까지나 일본민족이란 범주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의 입장은 결코 오카만의 견해라 할 수 없다. 사실 당시의 대부분의 일본 인류학자의 주된 과제는 일본민족의 형성에 있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1870~1953)를 들 수 있는데 실제 오카는 도교대학 학생 시절 전성기에 도리이의 강의를 청강하고 있었으므로(1920) 그의 영향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카는 당시의 일본 연구자의 과제를 민족학이란 연구방법을 도입해서 재해석하였던 감이 있다.

---

4) 토마스 쿤·조형 역『과학혁명의 구주』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4.
5) 岡正雄(1979)『異人その他-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叢文社, p.101.

4. 오카설에서의 ‘민족이동’과 ‘전파’

박사논문 이외의 일본 민족문화에 관한 오카의 저술은 1956년 「일본민족문화의 형성」과 그것을 수정한 1958년에 발표한 그것을 수정하여 「일본문화의 기초구조」 및「일본민족의 종족사적(ethno-historical)형성」뿐이다. 이 모두가 그의 유일한 저서『이인(異人) 기타』에 수록되어 있다.[6] 역사민족학에서는 일련의 문화요소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문화의 총체를 ‘문화복합(Cultural Complex)’이라 하는데 오카의 경우는 종족이란 용어를 넣어 ‘종족 문화복합’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일본민족의 형성에 관여한 여러 개의 ‘종족 문화복합’을 설정하였다.

우선 논문「일본문화의 기초구조」에서 보면, ‘무토기 문화’, ‘조몬식 토기문화’를 토착문화로 삼았다. 그리고 후대에 일본열도에 도래한 문화를 ①모계적· 비밀결사적·토란 재배식-수렵민 문화, ②모계적·육도재배-수렵민 문화, ③남성적 연령계제제적(年齢階梯制的) 수도재배-어로민 문화, ④부계적 ‘하라’ 씨족적 전작-수렵 사축민 문화, ⑤부계적 ‘우지’ 씨족적·지배자문화로 분류하고 있다.[7] 이러한 문화복합의 기술방식에서 문화의 주체로서 종적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수렵문화’나 ‘어로문화’, ‘지배문화’로 하지 않고 굳이 ‘~수렵민 문화’, ‘어로민 문화’, ‘지배자 문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일본민족의 종족사적형성」에서는 ①, ②, ③, ④, ⑤의 문화의 주체 종족을 각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각각 ‘타로 토란 재배민’, ‘오스트로아시아계(Austro-Asia)[8] 도작민’, ‘오스트로네시아계(Austronesian)[9] 도작민’, ‘퉁구스계 농경민’, ‘알타이계 지배자’란 구체적인 문화의 담당 종족을 제시하였다.[10]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

6) 岡正雄(1956)「日本民族文化の形成」『図説日本文化体系』第1巻, 小学館; 岡正雄(1958)「日本文化の基礎構造」『日本民俗学体系 2 -日本民俗学の歴史と課題-』平凡社; 岡正雄(1958)「日本民族の種族史的(ethno-historical)形成」(영문)『日本-その国土·民族及び文化』(岡正雄, 위의 책, pp.3~17, pp. 18~36, pp.37~47.에 수록)

7) 岡正雄, 앞의 책, pp.18~36.

8) 슈밋(P.W.Schmidt)에 의해 명명된 어족. 고대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인도 동북부, 말레이반도에 걸쳐 광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9) Austronesian은 남도란 뜻이며 슈밋(P.W.Schmidt)에 의해 명명된 어족이며 남도. 훈보르트 (W.von.Humboldt)가 말한 말레이폴리네시아어족(Malayo-Polynesian)과 동의어. 서쪽은 마다가스칼도, 동쪽은 이스타도, 북쪽은 대만과 하와이, 남쪽은 뉴질랜드에 둘러싼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어족.

10) 岡正雄, 앞의 책, pp.37~47.

<표 1> 오카 모델에서 종족·문화·문화요소

	종족	문화	문화 요소
선주민	曙期 채집수렵인	무토기문화	구석기 말기 내지 중석기시대적 성격을 가진 석기가 여러 지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벌써 이러한 석기에는 몇 가지의 문화의 흐름이 있다. 어떤 것은 시베리아나 아라스카의 석인이나 세석기와 현저히 유사함 어떤 요소는 동남아시아의 악부(hand ax)와 연관함. 이는 아북극의 수렵인이나 열대 지역의 채집수렵인이 일본으로 이주한 것을 나타낸다.
선주민	신석기시대 채집·수렵민	조몬식 토기문화	고도의 채집·수렵민임으로 추정. 동일본의 토기는 **유라시아나 아라스카**와 유사점. 서일본의 것은 남중국,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련이 있음. 조몬시대에 북동시베리아, 아라스카에 번영된 연 북태평양 어로문화가 동북일본으로 들어 왔음.
①	타로토란 재배민	모계적·비밀결사적·토란 재배식-수렵민문화	**메라네시아**와 유사함. 조령 내지 조상이 멀리에서 마을에 찾아온다는 조선신앙, 가면으로 가장한 사람들을 조령이나 신으로 표상하는 신앙. 민족학에서 원시비밀결사 또는 비밀제사단이라고 함. 일본 고전에 보이는 모계사회. 타로토란 등의 간단한 농경. 일본어의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는 특징은 이 문화의 영향. 기원은 **남중국**이며 하나는 메라네시아로, 다른 하나는 일본열도에로 간 것으로 추정.
②	오스로아시아계 도작민	모계적·육도재배-수렵민문화	조몬시대 말기 또는 야요이시대 초기에 장강 남부에서 도래. 모계적이며 부부는 별거하여 처를 방문하는 결혼 방식. 자녀는 모친 밑에서 성육. 日神이 숨어서 세상이 암흑이 되었는데 신들이 춤을 추거나 닭을 울려서 일신을 유인한다는 日食神話, 홍수로 인류가 절멸했다가 남매가 살아남고 근친혼의 금기를 푸는 주술로 자손이 번영한다는 홍수신화, 농경이나 식물에 관련되는 여신이 살해되고 시체의 여러 부위에서 식물이 생긴 신화. **오스토로아시아 문화**와 관련.
③	오스토로네시아계 도작민	남성적·年齡階梯制的·수도재배-어로민문화	야요이문화의 핵심문화. 동아시아 신석기시대 말기의 문화를 기반으로 동기-청동기-철기문화가 남방이나 북방에게 유입하여 거석문화도 포함하고 있음. 발전된 수리 시설. 수도재배에 관련된 도구·종교적 관념·의례 등은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의 것과 거의 같음. 배나 어업의 높은 기술. **중국**의 고도문화· **북 베트남**의 동선(Dong-Son)문화·인도네시아 문화의 영향. 특히 강남의 오·월지방의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오스토로네시아 문화의 영향.
④	퉁구스계 농경민	부계적· "하라" 씨족적·전작-수렵·사축민문화	야요이문화 속의 북방적 요소. 오스토로네시아계 도작민보다 약간 일찍 북방 즉 **동북중국-한반도**에서 도래. 원래 기장·조와 같은 잡곡을 재배하였으나 나중에 한반도 남부나 서일본에서 벼농사를 배워서 급속히 도작민으로 변함. hara~kala라고 하는 부계적 씨족 단위. 동북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이나 종교관념. 즐문토기나 지석묘. 시베리아 청동기 문화의 간접적 영향. 알타이어계의 퉁구스어에 가까운 언어.
⑤	알타이계 지배자	부계적·"우지"씨족적·지배자문화	A.D. 3세기경 군대로 조직된 침략적인 종족이 도래하여 선주의 정주적인 농경민을 정복하여 왕조를 수립.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종족. 사회기구의 단위는 uji~udi라고 하는 부계적 씨족이며 부장권이 강한 대가족제도. 정치사회적 조직이나 제도, 그것을 보장하는 문화요소. 씨족연합, 씨족장 회의, 씨족 단위의 직능적 분업, 노예제, 기마, 군대, 오조직. 씨족 직계를 뼈(골)를 의미하는 가바네(姓)제도. 천신숭배·영웅숭배, 신이 하늘에서 산정이나 나무에 하강한다는 신앙, 부계적 조상숭배, 직업적 샤먼, 정치적으로는 선주민을 지배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정착농경민 문화에 지배당함.

이러한 사실에서 그가 문화의 전파만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민족이동을 전제로 한 문화전파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민족의 종정사적 형성」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종족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안지역에 많은 종족이 집중해서 거주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로부터 내륙에서 해안지역으로 민족이동의 압력이 작용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이동, 혹은 문화의 흐름은 아마도 구석기 시대 말기 혹은

중석기 시대 이후 동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열도에(서)도 들어 왔을 것이다. …(중략) 여기서 언급하는 일본민족의 종족사(種族史)는 다소의 가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다가 반드시 학계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11]

이와 같이 그가 단순히 문화전파가 아니라 민족이동을 전제로 일본 민족문화의 형성을 전개하고 있다. 오카는 일본민족 문화의 형성에 관해서 석기시대부터 자주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입장과 민족이동이나 전파를 인정하여 여러 종족들이 일본열도로 도래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두 가지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이 후자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12] 이처럼 그는 단일민족론이 정착해 나가고 있는 학계의 사조를 보면 자신의 견해가 학계에서 설 땅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예견하듯이 조심스럽게도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4. 오카설에서의 '민족이동'이 지니는 사회적 요인

그러면 오카는 문화현상을 설명하는데 자주 강조하는 ethnos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1950년에 민족이동을 등한시해서 광범위한 문화권을 구상한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민족학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문화의 해명에 있다 할지라도 연구의 직접적, 현실적 대상은 ethnos에 있으며 이를 민족학에서 문화의 주체로서의 단위로 생각해 왔다. 민족학적으로 ethnos를 매개로 할 때만이 인류문화를 해명할 수 있다. 사실 인류는 인류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ethnos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중략) '문화권'은 민족문화를 인류문화로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문화권 자체는 결코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13]

즉 어떤 특정한 문화의 분포나 확산이 확인될 때, 문화의 매개자로서의 사람을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문화복합'의 명칭을 '~민 문화'처럼 문화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중심으로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족의 이주, 즉 민족이동을 중시하는 그는 종족이나 민족을 등한시하는 슈밋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 세대 민족학자를 비판하였다. 사실 그의 시각은 전전(戰前)의 학자의 공통적인 시각이기도 한다. 도리이 류조를 위시해서 일본문화의 형성에 관하여 민족이동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카가 민족이동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오카는 1944년에 '민족연구소'에서 발간한 『民族硏究所彙報』에 「동아민족학의 하나의 본연의 자세」[14]이란 논문에서 민족학에서는 내부를 향한 '단(單)민족학 내지 자(自)민족학'과 외부를 향한 '다(多)민족학 내지 이(異)민족학'이 있다며 전자는 민족국가 형성에 늦은 동구 등에서, 후자는 구미강대국의 제국주의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일본이 지향해야 할 동아민족학의 하나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동아공영권내 여러 민족간의 '단(單)' 내지 '자(自)' 민족학이 또한 필연적으로 동질동계의 이민

11) 위의 책, p.37.
12) 위의 책, p.3.
13) 위의 책, p.259.
14) 岡正雄(1944) 民族學の一つの在り方」『民族硏究所彙報』1号.

족의 연구, 그것과의 종족적· 문화적 친근 관계의 규명에까지 진전하여 '다(多)' 내지 '단(單)' 민족학을 포섭하는 고차원적인 '자(自)' 민족학 내지 '단(單)' 민족학을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동아공영권의 여러 민족의 민족주의가 각 민족의 일(一)민족주의인 동시에 범아시아민족주의 내지 대동아민족주의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과정이 동구와는 달리 한다. (중략) 따라서 대동아민족학은 대동아 각 민족의 자기인식의 학문임과 동시에 대동아민족으로서의 자기인식, 실증 규명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15]

이와 같이 오카의 학설은 당시의 대동아민족학 구축을 위한 국책 연구소의 부장으로서의 자각 아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에 속하는 각 민족은 민족단위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론적인 민족학을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간의 동질적이고 계통관계를 강조하는 혼합민족론적인 민족학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의 관점과 오카의 ethnos에 관한 관점을 결합시키면, 그의 일본문화의 형성론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족과 일본민족의 인종적 계통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5. 결론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일본의 민족학계를 주도한 오카 마사오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민족이동'을 전제로 일본 민족문화 모델을 제창하였다. 그는 일본 문화는 일본열도 안에서 순수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전파된 문화가 혼합된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전파된 문화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한 종족들에 의해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의 학설의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민족 조사라는 국책 사업이 있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강역 내에 있는 여러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러 민족과 일본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혈통적 계통관계를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다. 어떤 이는 오카의 학설의 독자성은 문화 전파에서 종족의 위상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이러한 시각을 전후까지 견지한 연구자는 오카와 민족연구소의 그의 부하였던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 ~ 2002)정도였음으로 사람들이 전전의 실상을 망각하거나 은닉하고 싶었던 것뿐인 것 같다.

15) 위의 책, p.112.

「韓流」を通して見た韓日相互理解の乖離についての考察

金良俶（明知大講師）

1．はじめに

現代日本社会では「韓流」文化の受容をきっかけとして、韓国文化の他の面へと興味が広がりつつあると言える。そのような一連の行動は、日本における対韓イメージを良い方向に向かわせるばかりでなく、今後の韓日関係が「相互理解」1)を踏まえた、双方向的な関係に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日常的な文化接触を通して芽生えてくる相手国の「生活への関心」が再び「政治への関心」へと移った場合、その政治のありようは既存の韓日関係の硬直したそれとは違って、「相互理解」を踏まえた上での柔軟な「政治」に変わるかもしれない。だが、「相互理解」とはやりとりであって、日本側の片方の思いだけで、両国の関係が友好的に展開するものではない。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ブームの形成と拡大は「韓流」の送信者である韓国側の日本観にどういう影響を及ぼしたのだろうか。

金（2008)では、日本の中高年女性が「『韓流』文化を通して日韓両国の『相互理解』を願うことは、単なる片思いや両国の完全な『一体化』のような幻想ではなく、自分の『ライフスタイル』を変えるなど、現実的な行動をすることに意味がある」2)ことに着目して、「韓流」文化を介しての両国の「相互理解」という現実的な政治的展開の可能性よりは、まずは、日本の女性の個々のライフスタイルに及ぼした影響を取り上げて分析した。本稿では、韓国側の「韓流」文化を通しての「相互理解」への考えを明確に提示できなかった金（2008)の不備を補うために、改めて「韓流」文化を通しての韓日両国の「相互理解」の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論を進めていきたい。

---

1)本稿で取り扱っている「相互理解」は、公的な文化交流を通して促進されるそれというよりも、むしろ、日常の生活の営みから生まれ、その中で育まれ、やがて思いもかけず、韓国と日本の関係を巡る「社会性」へ発展する契機を持つのに注目する。本論では、単なる異文化理解を超えて、相互の歴史を踏まえた上での「相互理解」を念頭において考えたい。

2)金良俶（2008)「日本の女性のライフスタイルに及ぼした『韓流』文化の影響」、p.387、『韓国日語日文学会会』。

2. 「韓流」文化の接触と相互理解

「韓流」ブームが日本社会のイシューとなった最初の頃は、「韓流を楽しむ集団の文化的趣向やレベルを見くだす主流社会、メディアの否定的見方や作為的な統制も、やはり依然として存在した。時にはひそかに、時には露骨に表現されるペ・ヨンジュンのファンへの敵意や揶揄、物神的偶像性に対する批判は、主流社会が韓流を商業的に認めはしても、文化的価値においては認め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3)]。ところが、「韓流」はブームで終わるのではなく、一つのマイノリティ文化として日本社会に定着しつつある。但し、その主体となるのはあくまでも＜韓流＞の主たる消費者としての中高年女性であるから、この集団がどれほど「日本人」を代表しているのかは慎重に判断する必要がある。政治的にも、文化的にもどちらかというと影の薄い集団が「韓流」をきっかけに一躍全面に出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ある。女性の地位は社会的には向上したとはいえ、まだまだ日本は男性中心社会である。しかし、その中で逆に家庭内では、母もしくは妻としての女性が大きな発言を維持していると思う。たとえば、一般的に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の主な消費者として注目されるのは中古年女性であるが、ブームが過ぎたあと一つのマイノリティ文化として定着するうちに、母からの影響で一緒に「韓流」を楽しんで、韓国に親近感を抱く若者（子供）たちが増えつつあるのも事実である。実際、日本の高校もしくは大学で選択科目として外国語を履修する際に韓国語を選び学んでいる学生の数は少なくないが、韓国語を選んだ経緯・理由について尋ねてみると、その答えとして、「韓流」好きな母のために韓国語を学び母に教えたいとか、母の影響で時々「韓流」ドラマを見ていたので韓国に対する違和感があまりなかったとか、少数派でありながらも家庭内での母としての女性の影響が読み取れる。また、「韓流」ファンである妻との話が噛み合わないため、自分も見ているうちについつい「はまって」しまったという男性（夫）たちも増えつつある。こういう男性の登場は、日本社会に「韓流」ブームが形成され始めた2003年から2004年度の社会的雰囲気を考えてみると、意外な展開である。当時、「韓流」の主な消費者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のは中高年女性層に限られて、「韓流」ファンとしての男性の存在感は女性に比べてないに等しかった。

ともあれば、主婦は一見「シャドウ・ワーク」[4)]のみに従事しているように見えて、実は、家庭内での文化を子供もしくは夫に伝播する力も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はこういうルートで、家庭内での家族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として消費され、ひいて

---

3)李香鎮（2006）「韓流、誰のための文化か？―東アジア文化共同体に向けた進歩と抵抗」、p.83、『世界』第764号。

4)シャドウワーク（shadow work）は、イヴァン・イリイチの造語。専業主婦などの家事労働など報酬を受けない仕事で、しかも誰かが賃労働をすることのできる生活の基盤を維持するために不可欠なもの。妊娠出産、子育てなどの再生産労働をこれに含ませる。鶴見和子はこれを「*影法師の仕事*」と訳したことがある。本来は消費社会化を支える隠された労働という意味合いで唱えられた（出典：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は家族全員にとっても韓国を「近い国」にしていると思う。

3．両国における相互理解の乖離

日本における「韓流」は近寄りがたい韓国のイメージを身近な存在に変わらせる媒体となったと言えるが、韓国人にとって「日本韓流」は歴史上の日本イメージを変えるまでには至らない。日本社会での「韓流」文化の広がりを目の当たりにしながらも、韓国人にとって日本は依然として歴史上の加害者というイメージが深く根付いている。韓国と日本の相互の認識の差は、「両国の歴史的清算と独島のような外交問題」のように両国の政治的な摩擦によりさらに悪化する。つまり、両国の政治的な関係にかかわらず、大衆文化の一つとして「韓流」に接している日本人とは違って、韓国人にとって「韓流」は、日本との関係を良い方向に向かわせてくれる契機として考えているとはいえ、[5]真の「相互理解」に至るまでの改善策ではない。重要なのはやはり過去の歴史問題に起因しているシコリを解かすことが優先課題である。「韓流」を通して見た両国の「相互理解」の乖離は、歴史に対する韓国と日本の認識の差から生まれるわけである。さらに、両国民の認識の乖離は、韓日両国の政治家の対応からも伺える。2009年6月5日に韓国を訪問した鳩山由紀夫元首相は韓国政府との会談の際に[6]、『オールイン』に登場するイ・ビョンヒョンのほかソン・スンホン・パク・ヨンハのファンであるという妻や韓流スターの写真を家に飾っているという母親のことを話しながら、韓国との個人的な親密感をアピールした。ちなみに、「韓流」外交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く、有名な「韓流」ファンとして知られている安倍晋三元首相の昭恵夫人が、2006年10月9日の韓国訪問の際に、ソウル市内の初等学校を訪れ、韓国語で自己紹介を行った後、韓国の教科書を朗読したのは、両国の間に大きな話題を呼んだ。過去の歴史問題でともすれば険悪なモードに流れがちな韓日関係を、日本側が「大衆文化を利用して韓日間の複雑な歴史的関係を無化しようとする」とすれば、かたや韓国の李明博大統領は、過去の歴史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決断が、韓日友好関係のカギとなることを再確認した。[7]ところが、「韓流を『国力』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る」韓国側は、「韓流」という「ソフトパワー」[8]を最大限活用して、多くの観光客が韓国に足を運ぶよう

---

5) 朝鮮日報（2005年1月5日）「日本人半分"韓国はパートーナ"、韓国人60％"日本はライバル」を参照。日本のフジテレビと韓国のMBCが共同に行った世論調査では、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ブーム」が両国の関係改善に役立つと期待すると答えた人が両国民の80％を超える。

6)当時は民主党の代表として韓国を訪れたが、次の選挙（2009年8月31日）で民主党の政権交代が既成事実化していた敏感な時期の訪韓ということで、今後の韓日関係において注目される訪問であったといえる。

7)NEWSIS（2009年6月5日）「李大統領"日本、過去を快く謝罪しないと"」を参照。

8)「ソフトパワー」とは、アメリカ合衆国を代表とするリベラル派の国際政治学者のジョセフ・ナイ（Joseph S. Nys Jp.)が彼の著書『不滅の大国アメリカ』（読売新聞社、1990）で初めて使った言葉として、軍事的力を現す「ハードパワー」の代わりに、文化が中心となる「ソフトパワー」の時代の到来を意味することである。当時のアメリカ衰退論を避

に力をいれている。「2004年韓流観光の年」の広報大使として選ばれたイ・ビョンヒョンとチェ・ジウ、2006年から3年間「韓国文化観光」の広報大使を務めたリュ・シウォン、2010年から3年間「韓国訪問の年」の広報大使の任務を任せられるペ・ヨンジュンなどのように、観光地としての韓国の魅力をアピールするために、多くの「韓流」スターをマーケティングに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る。実際、諸外国における「韓流」の拡大は文化的イメージの韓国を流布する良い契機となって、韓国の国家イメージをブランド化するのに相当程度寄与している。

韓国にとって「韓流」は、日本との関係を良い方向に向かわせてくれる契機ではあるものの、それは過去の歴史問題に起因しているシコリを解かすことが前提となっている。しかし、「経済」の面では積極的に「韓流」を取り入れて利益創出に繋げようとする。一方、日本の政治家は「韓流」外交を通して「韓日間の複雑な歴史的関係を無化しようとする」が、「韓流」文化と「政治」の連結性が希薄である一般の「韓流」消費者は大衆文化の一つとして「韓流」に接している。このように「韓流」をめぐっての両国間の思いは様々である。

4．おわりに

文化交流を通しての「相互理解」、特に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が韓日の関係改善に与えた影響は大きな意味を持つとはいえ、完全な「相互理解」を果たすためには、相互の文化が行き来すること、やりとりが必要である。日本社会における「韓流」とともに、韓国社会における「日流」の形成が拡大すれば、両国における「相互理解」がより期待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近年、韓国社会に広がりつつある「日流」は、映画、ドラマ、音楽のみならず、ファッション、ゲーム、食べ物までの多様なジャンルまで含んでいる。韓国放送映像委員会のキム・ヨンドク研究員は、こういう韓国での変化の要因として、少しずつ打ち解けてきた日本文化の影響を取り上げる。9)両国における歴史問題が解決しないかぎり、「韓流」ブームのようなセンセーションを引き起こすことは現実性の乏しい話かもしれないが、しかし、日本文化の広がりはすでに現在進行中である。「日本韓流」のような「片思い」ではなく、「韓国日流」が拡大することによって、「文化双方向主義」がうまくバランスを取れば、韓日の古い関係から想定される＜伝統的な政治＞から日本および日本人への理解を踏まえた上での＜政治＞へと変わる、という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も期待できるだろう。

けようとする政治的意図が隠れているとはいえ、「文化」のパワーと国力の質的な変化という新しい考え方に着目したところは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う。

9)朝鮮日報（2007年12月10日）「日本政府・民間の10年努力が日流として誕生」を参照。

게임 제목의 의미와 게임요소와의 관계 분석

Trend Analysis between Game Title and Game Elements

채영숙(영산대학교)[1)]

1. 들어가기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은 게임을 어떻게 선택할까? 게임제목을 보고, 아니면 화려한 그래픽에 동요되어 시작하는 것일까? 게임 기획자는 게임 제목을 언제, 어떻게 정할까? 게임 기획자가 작성하는 기획 문서의 개요 부분에 포함되는 항목이 게임 대상과 게임 장르, 그리고 게임 제목이다. 제목을 정하고 게임을 기획할까? 기획이 끝나고 게임 제목을 정할까? 게임 제목은 출시되는 게임의 브랜드이다.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비중은 높다. 브랜드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김은정의 보고서[2)]에 따르면 10세 ~ 59세 나이의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지난 5년간(조사 시점: 2008년 6월 ~ 2009년 5월) 한국 콘텐츠(음악(78.7%), 게임(77.1%), 영화(73.9%), 방송콘텐츠(73.2%))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중 게임만 살펴보면 이미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고,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우세 45%, 동등 22%로 평가하면서 콘텐츠 분야 중 가장 우세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력, 그래픽, 기획력 면에 있어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에 현재까지 출시되어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는 게임만 만 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게임이 사회 현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에 이 연구를 시작해 본다. 회사명이나 간판명이 언어의 사회성을 반영해 변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게임 제목은 언어의 사회적 흐름과 동일 선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된 수많은 게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해 보았을 게임이 '테트리스'일 것이다. 네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테트로미노 7종류를 조합하여 즐기는 퍼즐 게임으로서, 1984년 소련의 알렉시 파지노프가 개발했다. 소련, 헝가리, 영국, 미국, 일본 시장을 거쳐 학습 능력과 공간 능력 등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전 세계에 퍼진 게임이다. '테트리스'라는 게임 제목은 그리스의 숫자 접두어 Tetra(의미: 4)와 본인이 즐겨했던 테니스 단어의 일부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소개된 게임을 포함하여 특히 국내 제작 게임 중심으로 게임 제목에 대해 형태적, 의미면에서 게임 제목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들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 게임 요소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게임 제목과 게임 요소들과의 경향 분석

90년대 들어 자체 개발이 시작된 한국의 게임. 그 이전은 일본의 게임이 한국이 소개되어 게임 시장을 문을 열었다. 게임 제목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첫 발걸음이다. '하얀 마음 백구',

---

* 영산대학교 CT대학 게임콘텐츠학과

2) 김은정(2009), 콘텐츠 인식 및 소비형태 분석, 2009 KOCCA FOCUS,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 pp.276~279.

‘짱구는 못말려’처럼 이미 흥행한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한 경우는 애니메이션 제목을 그대로 게임명으로 사용한 것이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요인이 되어 성공한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로 여성이나 어린이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부르기 쉽고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테트리스’, ‘보글보글’, ‘수퍼 마리오’, ‘갤러그’와 아케이드 장르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의 게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처럼 게임 선택에 있어 게임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요즘 동북아의 게임 시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은 대부분 MMORPG 장르이다. 바람의 나라, 리니지를 필두로 개발되기 시작해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던전앤 파이터, 열혈강호, 아발론, C9, 테라 등이다. 최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게임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게임 장르이다. FPS 장르의 게임(예: 카운트 스트라이크, 서든 어택, 스페셜 포스, 워록, 아바, 배틀필드)은 제목만 들어서도 전쟁 용어를 게임 제목으로 사용하여 제목만 들어도 장르를 파악할 수 있다. 제목 자체가 함축성이 있고 내용과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제목들임을 알 수 있다.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게임 기획 단계에서 원칙 몇 가지를 가지고 게임 제목을 정하도록 가르치고 있다[3].

(1) 게임의 내용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2) 부르기 쉽고 기억에 남아야 한다.

(3) 무거운 느낌의 제목은 삼가한다.

(4) 게임 특성에 따라 캐릭터 이름이나 원작의 제목을 사용하여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90년대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한글명을 게임명으로 사용하고, 유명 서적명이나 애니메이션명, 역사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시년도	게임명
92년	세균전, 자유의 투사, 폭스레인지
93년	홍길동전
94년	낚시광, 천하무적
95년	창세기전, 광개토대왕
96년	바람의 나라, 아기공룡 둘리
97년	아트리아 대륙전기, 왕도의 비밀, 임진록
98년	장보고전, 삼국지천명,리니지
99년	퀴즈퀴즈, 포트리스

우리에게 고전 게임으로 소개된 게임을 중심으로 형태 분석을 해 보면,

(1) 마작, 헥사, 버블 슈터, 세임게임, 소코반, 스트리트파이트, 파이널판타지와 같이 게임명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포츠 장르 게임처럼 스매싱, 볼링게임, 야구게임, 카트라이더처럼 경기 종류나 특성을 게임명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틀린그림찾기, 벽돌깨기, 지뢰찾기, 비눗방울놀이, 개구리 줄넘기처럼 게임 내용에 맞추어 게임명을 한글화하여 소개되는 경우

(4) 네모메모로직처럼 한글과 외래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의 제목, 한글의미, 제작사, 제작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명(Cililization, SidMier 개발, 1991년, 현재 시리즈 V까지 출시), 리니지(Lineage, 혈통, NCSOFT 개발, 1998년, 현재 시리즈 II까지 출시), 메이플 스토리(Maple Story, 단풍나무 이야기, 넥슨 개발, 2003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워크래프트의 세계,

3) 김종혁(2002), 게임 시나리오 개론, (주)사이버출판사, pp.215.

Blizzard 개발, 2004년), 서든 어택(Sudden Attack, 급습, 게임하이 개발, 2005년), 던전 앤 파이터(Dungeon and Fighter, 지하감옥과 전사, 네오플 개발, 2005년), 바이오하자드(Biohazard, 생물학적 위험, CAPCOM 개발, 2007년),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 Strike, 역습, Valvesoftware 개발, 2008년).

이들의 게임 제목 중 '문명'만 번역되어 소개되고, 나머지는 국내 생산이던 해외 생산이던 상관없이 모두 영어 제목의 게임임을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한글 형태의 제목을 붙이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게임들도 대부분 영어 제목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제품명에 영어 어휘 사용이 보편화 되는 분위기가 게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목은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게임 요소인 스토리, 캐릭터, 배경에서 제목을 도출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기획자들의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 제목을 기획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

3. 맺음말

게임 제목은 출시되는 게임의 브랜드이고,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비중은 높다. 게임 제목은 다른 문화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사회성을 반영했다. 90년대는 외국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여도 한글로 번역하여 제목으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가능하면 한글로 제목을 붙이려고 노력하였다. 차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국내 제작 게임의 영어 제목 사용은 2000년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제품의 얼굴이기에 대상의 특성인 게임 요소를 반영하여 게임명을 정하는 것이다. 많은 기획자들이 게임 제목을 정하는 시점은 기획이 완료되는 단계에 정하고, 게임 요소를 반영하여 정한다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은정(2009), 콘텐츠 인식 및 소비형태 분석, 2009 KOCCA FOCUS,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 pp.271~310.

김종혁(2002), 게임 시나리오 개론, (주)사이버출판사.

Trend Analysis between Game Title and Game Elements

Chae Young Soog(Youngsan University)

How does game player select a title from many game titles? What does he or she play the game with? Because of the game title, or fantastic game graphics? Words of game title reflect social atmosphere like the titles of other culture contents. We used to translate titles of foreign game into Korean in the late of 1990's. Since the year 2000, we play original title games which entitle in English and don't translate them. The title of domestic games also use English words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game market. Game title is a face of product and brand name. So we determine the titles with words including characteristics of contents. The relation of game title and game elements is connected strongly. Many game designers answered that the time to give a title is the completion step of whole game design.

율령 수용과 일본 고대사회의 변혁

이 근우

일본 고대 사회에 율령이 수용되는 과정은 일본 사회와 중국 사회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자각하는 과정이자 이질적인 사회에서 성립된 율령을 변용시켜 자국에 적용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질성의 확인을 통하여 고유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율령제가 시행된 시기는 일본 고대사회의 또 하나의 변혁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율령 속에 나타난 일본과 중국 사회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율령의 수용이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수·당대에 완성된 율령은 관품에 바탕을 둔 官制와 官人制, 州縣鄕里制와 戶籍·計帳에 의거한 人民支配, 租庸調制·府兵制 등을 통한 조세와 노역의 수취를 특징으로 하는 법적체계이다. 일본의 율령도 외형적으로는 수당의 율령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차이를 들자면, 황제와 천황의 존재양태, 군주와 상급 관인 - 일본의 경우는 중앙호족 - 의 관계, 상급 관인의 지위와 특권, 가족제도, 인민의 존재양태와 생업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의 차이가 율령 속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고유법과 율령법

율령법은 중국대학에서 고도로 발달된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유법은 율령법 수용 이전에 열도사회에서 통용되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고유법 단계와 율령법 단계의 주요 요소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야마토/오오키미 ↔ 쿠니/쿠니노미야쯔코(족장) → 기내/天皇 - 國 ↔郡/郡司
신비적 공동체적질서 →법적 체계
관행법 →법전의 편찬
구두전달(언어) →문서행정(율령법 시대에도 구두전달의 유제는 존재) 文字, 印章, 木簡, 종이
씨족제 부민제 → 관인제, 관위제

율령제의 민중지배는 관행법을 그 내부에 흡수하고 있는 國造法 그 자체의 득실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율령제는 그 토대 위에 서있다. 즉 율령국가는 중국적인 율령제와 야마토왕권에 유래하는 씨족제의 이중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고대의 고유법에 대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율령법 자체도 중국의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특질을 반영하여 특정 내용을 수정한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 고대의 율령 속에서 오히려 고유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수당 율령과 일본 율령의 외형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祠令을 神祇令으로 바꾸고, 승니령을 새로 설정하였으며 노부령은 삭제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호령-학령-선거령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던 것을 해체하고 호령-전령-부역령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이는 호령의 의

미가 전혀 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구품관인법 이래 관인 출신의 기초 집단에 관한 규정이었던 중국의 호령을 민중 지배의 기초 단위에 대한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공지공민제 반전제 조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중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대보령에는 官員令, 選任令, 考仕令 등 달리 보이지 않는 편명이 있는 것 또한 중국 율령법을 계수하면서도 일본사회의 특질을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족의 지위가 높고 관인의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監守盜와 같이 관인에 의한 범죄를 당에서는 일반적인 절도보다 가중처벌하는데 대하여,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절도와 같이 취급되었으며, 감림주수자도 등은 삭제되었다. 그 밖에도 희생을 바치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에 따라 大祀犧牲不如法條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

천황과 태정관

일본 율령 관제 중 그 핵심에 있는 것이 태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태정관제에 대해서는 고유법과 중국 제도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있다. 먼저 천무조에서 천황 직속으로 천황의 명령 출납을 담당하는 納言을 중심으로 태정관이 설치되었으며, 한편으로는 大辨官 아래 六官이 편성되었다. 지통조에 완성된 정어원령에서는 태정관과 대변관이 통합되면서 율령제 하의 태정관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천무조의 태정관에는 議政官의 성격은 없었으나, 지통조 이후 대보령에서는 고유법적인 씨족제적 원리가 반영되기에 이른다. 야마토조정 내에서 大臣 大連을 중심으로 각 우지(氏)의 대표인 마에쯔키미(大夫)가 합의하는 대부회의를 계승한 태정관은 당의 尙書省보다 크고 군주의 대권에 개입할 수 있었던 점에서 권력의 핵심구조가 중국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8省의 경우도 고유법 시대의 大王의 사적인 가신 및 가산조직과 관련된 궁내성과 같은 省을 비롯하여, 주계료 주세료 두 료만 거느린 민부성처럼 국가재정의 성립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省이 있다. 이처럼 일본의 율령법은 고유법과 새로운 율령법이 공존하는 형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東宮

당의 동궁기구가 황제의 신료기구를 축소한 형태의 복잡한 조직인 데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극히 간단한 조직으로 황태자의 교육 및 家政 수행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서, 당과 같이 황태자가 국정에 참여한다는 원리가 채용되지 않았다. 또한 황태자가 춘궁방에 속해있는 관인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갖지 못하였고, 친왕이나 중궁과 같은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다.
이는 황태자에게 정치적인 기반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황태자제 자체의 실질이 일본사회에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위제의 운용

일본 관위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位記가 있다. 위기는 당의 공식령 告身式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告身과 位記는 큰 차이가 있다. 位記가 처음 사용된 것은 持統

3월 6년에 令이 頒布된 시기로 생각된다.[1] 告身은 어떤 관직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의 의미를 가지는데 대하여, 位記는 어떤 관위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전자는 관직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관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영의 규정 자체에도 반영되고 있다. 당에서는 '官品令'이라는 편목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官位令'이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官品은 官職(官)의 품계이고, 官位는 官의 위계라고 할 수 있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편명의 차이가 두 사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의 관품령에는 관품이 속하는 각 관직을 나열하고 있다. 그 속에는 散官·勳官도 포함하고 있으나 職事官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그 용어에도 알 수 있듯이 官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관위령은 品位 별로 그에 상당하는 官을 나열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散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官位가 당의 散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에서는 大將軍 李世勣이라고는 쓰지만 正三品 李世勣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대장군이 정3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관의 등급이지 관인의 등급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正三位 石上朝臣麻呂를 大宰帥로 삼았다"고 한 것처럼,[2] 正三位라는 관위를 관인의 이름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당의 경우와 반대로 정3위란 관인의 등급이며 대재수라는 관직은 정3위의 관인이 임명될 수 있는 자리일 뿐이다. 즉 관직이 우선이 아니라 관인이 우선인 것이다.

나아가서 일본의 경우는 관위만을 가지고 있어도 실직과는 상관없이 位祿과 位封이 지급되는 관인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고대 사회의 관인이 수·당의 관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인의 이러한 지위는 음위제, 대학과 국학의 입학 자격, 고과평정 및 서위제의 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위 이상

일본 율령제 하에서는 5위 이상을 귀족으로 간주하였고, 신분상 겨에상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6위 이하의 관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지라고 불리는 도성과 기내에 본거지를 둔 전통적인 씨족 즉 야마토정권을 구성하였던 기내호족이 5위 이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5위 이상은 천황을 근시하는 마에쯔키미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고 백관과 제사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동시에 태정관의 의정에도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단 내부에서는 위계의 질서가 중요하였다.

이에 대해서 6위 이하는 관직의 질서가 우선하고 있었으며, 고과령 선서령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 역시 6위 이하의 관인이었다. 이들이 5위로 진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외종5위하라는 관위를 부여하여 우회하는 경로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官位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家格으로 격정되던 고유법 시대와는 다른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氏를 大夫의 반열에 올리는 일은 힘들지만, 한 개인을 大夫에 임명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로 등을 바탕으로 원래 대부에 속하지 않은 신분의 관인들이 5위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5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

1) 箴弘道. 『律令國家成立史の硏究』吉川弘文館. 1982. p.369.
2) 『續日本記』 上. p.15.

문과 그렇지 않은 가문은 그 氏姓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표지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대부로 새롭게 승진하는 개인의 경우 氏姓 특히 姓을 새롭게 부여하게 된다.

문서행정과 구두전달

율령 관인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서행정이다. 조칙 이하 각종 공문서의 서식을 비롯하여 관인사회 내부의 질서, 복무규정, 소송수속 등 관인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은 公式令이다. 그러나 관제의 구조, 문서행정의 침투 정도, 행정처리의 수속 등에서 당과 일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문서행정이라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관습적인 명령의 구두전달이라는 방식이 온존하고 있었다. 관인이 일정한 관위에 서위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位記가 작성되지만, 임관 때는 당과 같은 告身을 만들지 않고 대신 임관 대상자들을 세워놓고 직접 구두로 이름을 불러서 그 관직에 임명되었음을 전달하였다. 천황의 명령인 詔書도 宣命이라는 형식으로 백관들을 모아 놓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관사 내에서 사무결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에서는 판관, 통판관, 장관이 차례로 자필로 문서에 判을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주전이 문서를 읽으면, 이를 듣고 판관 이상 복수의 관인이 역시 구두로 결재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문서행정은 중앙조정이 지방을 통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 구두로 명령하거나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 문서의 授受가 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서령 고과령 학령

당의 選擧令이라는 판명은 일본에서는 選敍令이라고 하였다. 당령은 관리의 임관 및 人事에 대한 選과 관리등용을 위한 擧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위계를 부여하는 敍位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령의 任官에 관한 규정이 대폭 敍位와 관련된 규정으로 바뀌었다.
고과령에는 관인들은 內長上, 內分番, 外長上, 外分番의 4종류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 방법, 考文의 처리, 고과의 최종결정, 國學과 大學에서 貢進된 貢擧者에 대한 관리등용시험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근무평정 방법도 하급관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상급관인의 승진 등은 천황의 판단에 맡겨졌다. 또한 대학은 5위 이상의 자손, 東西史部의 子, 8위 이상의 자, 국학은 郡司의 자제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서민은 입학자격이 없었다. 또한 5위 이상은 蔭位로 出身하기 때문에 학문으로 출신하는 것은 하급실무관인에 국한되었다. 음위제 자체도 상급관인이 신분을 세습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관인의 위계	적자	서자	적손	서손
정종1위	종5위하	정6위상	정6위상	정6위하
정종2위	정6위하	종6위상	종6위상	종6위하
정종3위	종6위상	종6위하	종6위하	정7위상
정4위상하	정7위하	종7위상		
종4위상하	종7위상	종7위하		
종5위상하	정8위하	종8위상		
종5위상하	종8위상	종8위하		

표 1 양로령의 음위 규정

	上上第	上中第	甲第	乙第
秀才試	정8위상	정8위하		
明經試	정8위하	종8위상		
進士試			종8위하	대초위상
明法試			대초위상	대초위하

인민 편제의 특성

수당의 호령과 달리 일본에서는 士農工商의 四民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양천제라는 원칙은 있었지만 중국과는 천인의 실질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또한 匠人, 樂人, 등의 특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관인으로 편입한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수공업자들은 의술이나 음양술 등 方伎 관인들과 같이 조직한 것은 고유법 시대의 도래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각종 기술을 존중한 전통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관사에 소속된 品部雜戶 제도 역시 部民制의 원리를 율령제 속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령에서는 관인의 출신 모체로서 호를 파악하였지만, 일본에서는 반전과 과세의 단위를 호로 편성하였다. 촌락의 편성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자연구분인 村-隣가 인위적 구분인 향-리-보라는 2중구조로 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자연적인 구분은 村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보라는 인위적인 행정구획만을 만들었다. 또 한 戶마다 한 명의 兵士를 낼 수 있도록 균등하게 편성하고 있어서 호령이 과세 및 징병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였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50호로 구성된 1리의 경우에도 당과는 달리 1리의 課丁의 수가 균등하도록 하여, 세역의 수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균등한 복수의 里로 구성된 郡은 정량적으로 그 재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은 郡司가 정해진 量의 稅物을 납부하는 단위였다고 할 수 있다. 당에서는 조체 납부의 책임이 里正에게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里가 아니라 郡司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郡司

군은 大郡(20-16리里), 上郡, 中郡, 下郡, 小郡(3-2里)로 등급지워져 있다. 당에서는 현만이 아니라 주까지도 戶數에 의한 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일본령에서는 國에 대하여 호수에 따른 등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國이 수취단위의 성격을 갖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郡을 장악하고 있는 郡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國까지는 중앙에서 관인을 파견하지만, 郡司는 현지의 호족 및 유력자들을 중앙에서 임명하였고, 기본적으로는 종신직이었다. 郡司에 임명된 사람들은 먼저 國에 選考한 다음에 중앙의 式部省으로 보내면 다시 식부에서 試鍊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천황에게 군사 후보자들을 보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郡司는 畿內의 천황에 대하여 畿外의 지배자로 간주하고 천황과 군사가 직접 만나서 그 지배복속 관계를 설정하는 외교의 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郡을 畿內와는 다르게 천황에 복속하는 외부라고 관념하였기 때문에 郡司들은 비록 관위를 가지고 있지만, 國司 등 중앙의 관우 즉 內位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고하를 막론하고 下馬禮를 행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율령제는 중앙집권적인 법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畿內와 畿外, 國과 郡 사이에 단절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지배체제였다.

이처럼 율령은 새롭게 중국의 법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전 시기의 사회제체가 변혁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承久의 亂의 사상사적 의의

남기학(한림대)

머리말

1221(承久3)년 5월 後鳥羽院을 중심으로 한 朝廷과 北條氏를 중심으로 한 幕府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불과 한 달만에 막부 측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이른바 承久의 난이다. 조정 측이 막부 측에게 힘없이 패배하고, 이어서 세 상황이 유배되고 천황이 폐위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한 承久의 난은 정치사적으로도 사상사적으로도 실로 커다란 사건이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계기로 종래의 公家政權과 武士政權과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난 후 조정과 막부의 관계는 무사 측이 황위계승자를 사실상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던 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막부정치면에서는 군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義時의 아들 泰時가 北條氏 주도하의 執權政治를 확립할 수 있었다.

承久의 난이 사상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지금과 같이 비천한 백성과 싸워 군주가 멸망한 예는 이 나라에서 전혀 듣지 못했다."(『增鏡』)라고 남북조시대의 귀족이 토로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그 이전의 兵亂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랐다. 일찍이 保元의 난은 '主上과 上皇의 권력투쟁[國諍]'(『保曆間記』)을 무사의 힘을 빌어 해결했던 점에서 일부 귀족에게 '무사의 세상'(『愚管抄』)이 도래했음을 감지케 한 사건이었다. 平氏의 시대에는 平淸盛이 治承3년(1179)의 쿠데타를 일으켜 後白河院政을 정지시키고 일시 인사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또한 源賴朝가 鎌倉幕府를 창립한 이후 전국의 군사경찰권과 함께, 한정된 범위에서 지방 현지의 지배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막부의 주재자는 征夷大將軍으로서 어디까지나 왕권의 틀 안에 자리매김된 존재였다. 이렇게 볼 때, 군주가 '비천한 백성'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폐위 · 유배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承久의 난은 당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承久의 난은 "神孫[天照大神의 자손]인 天皇이 일본의 통치자이다"는 神孫君臨의 사상, 그 在位는 무궁히 계속된다고 보는 寶祚無窮觀, 皇室을 絶對神聖視하는 관념, 朝敵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관념 등 고대 이래의 전통적인 사상에 적지 않은 동요를 가져왔다. 무사정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막부 초창기 이래의 정치, 종교사상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난을 통하여 동시대인들, 특히 귀족들은 무사정권의 가공할 만한 무력과 그 위세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은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른 독특한 사상적, 정신적 영위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承久의 난은 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 사상,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각각 커다란 문제 내지 의문을 당시 및 후대의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이 가진 사상사적 의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1. 儒敎的 德治思想의 수용

유교적 덕치사상은 有德者爲君論, 治世安民論, 易姓革命說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상이 日本思想史上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承久의 난을 계기로 한다. 물론 유교적 덕치사상은 일본 고대국가에서도 수용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神孫이 일본의 君主가 된다고 하는 神孫君臨說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가세력과 무사세력의 무력 대결에서 무사 측의 승리로 끝난 난의 결과는 神孫으로 여겨지는 천황, 또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공가정권의 신성불가침성이란 신화를 붕괴시켰고, 그로 인해 유교적 덕치사상이 일본 사회에서 神孫君臨說이란 강고한 틀을 넘어 기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1)]

承久의 난의 결과는 공가계층에게 神孫君臨說에 안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었다. 공가정권은 깊은 충격 속에서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직후에 저술된 『六代勝事記』(1223~1224년경 성립)는 德治論에 서서 後鳥羽院의 패배의 원인을 院의 不德으로 돌리고, "寶祚의 長短은 정치의 善惡에 달려 있다"고 하여 군주에게 요구되는 덕으로서 知人과 撫民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후 공가정권은 천하에 善政을 펴는 것을 지향하는 정치를 적극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13세기 후반 공가정권 측에서 後嵯峨院은 막부의 評定制를 본떠 院의 評定을 성립시키고 종종 新制를 발포하여 善政을 주지로 한 정치를 추진하였다. 後嵯峨院의 死後 조정은 두 개의 황통으로 분열 · 대립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양통은 각각 황통을 계승할 자격의 하나를 '올바른 政道'를 시행할 수 있는 점에 구하고 의욕적인 善政을 펴려고 경합하였다. 이 시기의 정치담당자 중에는 유교적 덕치사상에 입각하여 君德의 함양에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다.

鎌倉시대 말기에 이르면, 神孫君臨說에 안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神孫君臨說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된다. "薄德을 가지고 神器를 보지하고자 바라지만, 그것이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는가?"(『花園天皇宸記』), "외국의 왕위 계승을 보면 그에 따른 中興이 매우 많다. 이것은 異姓이 거듭 나오기 때문이다. 본조는 天祚가 한 혈통이므로 쇠퇴가 날로 심하여 중흥을 기대할 수 없다"(『淨修方雜日記』) 등과 같이, 공가 스스로 덕치사상의 입장에서 神孫君臨說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무사정권은 承久의 난 후 새로운 정치의 체제와 그것을 뒷받침할 정치이념을 모색하여야 했다. 비록 조정 측에서 난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막부는 軍事權門으로서 자신이 守護해야 할 국가에 정면으로 대결하여 군주인 천황과 세 상황을 처벌했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상 부담을 떠안았다. 무사정권이 국가의 수호자라는 본래적 역할을 견지하려는 이상 이러한 사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기 정당화의 논리가 필요했다. 여기에서 떠오른 것이 막부 창립 이래 源頼朝가 조정 측으로부터 수용했던 유교적 선정이념=덕치사상이란 보편적인 통치이념이었다. 덕치사상에 의하면, 군주에게는 帝德이 필요하고 無道한 군주는 토벌해도 좋다는 논리가 성립하며, 따라서 막부의 참월 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시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적 덕치사상은 이러한 소극적인 방어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난 후 공가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사정권의 존재의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가능케 하였다. 北條泰時는 합의제에 입각한 집권정치의 이념인 '道理'를 제창하고 그것에 입각한 善政을 실시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을 막부의 존재의의로 삼았다. 北條氏는 源頼朝의 정치

1) 玉懸博之, 「南北朝の公家の政治思想の一側面」, 『日本中世思想史研究』, ぺりかん社, 1998, pp.177~178.

이념의 정통한 계승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자신이 이끄는 무사정권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본래 신분적 한계상 막부의 御家人 지배의 정통성을 결여한 北條氏는 점차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해가면서 유교적 선정이념 즉 덕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 표방하였다.[2] 泰時에 이어 時賴는 '올바른 政道'에 의해 天下萬民을 편안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 撫民論을 표방하면서, 막부의 존립 근거는 撫民을 널리 천하에 실현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유교적 덕치사상은 그 후 北條氏 家督(=得宗)의 專制政治가 심화되면서 정권 차원의 강한 이념적 지향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지만, 덕치사상 그 자체는 鎌倉幕府가 전국적인 정권으로 존립하는 근거로서 무사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사정권은 承久의 난 후 유교적 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수용, 표방함으로써 공가정권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무사정권이 존립하는 의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후 鎌倉幕府의 北條氏(得宗) 정권이 전국적인 정권으로서 존립하는 사상적 근거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神祇信仰의 변질

承久의 난에서 조정 측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吾妻鏡』은 "天照御大神은 豊秋津洲의 本主이고 皇祚의 祖宗이다. 그러나 85代의 지금에 이르러 무슨 연유로 百皇鎭護의 서약을 바꾸어 三帝와 두 親王에게 유배의 치욕을 안기게 하였는가? 무엇보다도 의아한 일이다"[3]라고 기술하고 있다. 日蓮은 "제82대 隱岐法皇(後鳥羽院)의 치세에 (중략) 天照大神 · 正八幡의 百王百代의 서약이 깨지고 王法이 이미 다했다"(建長3년(1251) 6월 25일『賴基陳狀』) 라고 말했다. 承久의 난 이후 宗廟의 두 신 즉 天照大神과 八幡神의 百王 守護의 신앙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源賴朝가 백왕을 수호하라는 八幡神의 託宣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4]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또한 『古今著聞集』(1254년)에 의하면, "황공스럽게도 二十二社의 尊神을 정하여 오로지 百王百代의 鎭護에 임하였다"고 하여, 백왕 수호의 역할이 종묘의 두 신으로부터 二十二社의 신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二十二社란 국가의 중대사, 天變地異가 일어날 때 조정으로부터 奉幣使가 파견되는 22개의 神社로서 伊勢大神宮 · 石清水八幡宮 외에 上 · 下賀茂社, 松尾社 등 20개의 신사를 가리킨다.

承久의 난 이후 국가의 종묘신인 天照大神과 八幡神의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는 한편에서, 石清水八幡과 鶴岡八幡이 확연히 구별되고, 鶴岡八幡이 武神 내지 鎌倉幕府의 守護神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던 것도 주목된다.[5] 『六代勝事記』에 의하면, 막부의 御家人들은 尼將軍 政子의 궐기 호소에 응하여 "八幡大菩薩이 어찌 죄 없는 우리들을 인도해주지 않겠는가? 새벽에 말의 채찍을 들겠다"고 서약했다고 한다. 또한 北條泰時는 一軍의 대장으로 鎌倉을 출발할 때 먼저 八幡大菩薩에 찾아가, "이번의 上洛이 도리에 어긋나면 즉시 泰時의 목숨을 거두고 後生을 도와주시길. 만약 천하의 도움이 되어 인민을 편안히 하고 佛神을 일으킨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길"(『梶尾明恵上人伝記』) 기원하였다. 여기서 八幡神은 鎌倉에

2) 남기학, 「鎌倉幕府 執権 北条氏의 정치사상 -撫民思想의 재음미-」, 『日本歷史硏究』30, p.41 이하.
3) 『吾妻鏡』承久3년 閏10월 10일조.
4) 石毛忠, 「『吾妻鏡』の政治思想ー鎌倉幕府の政治思想序説ー」, 『季刊日本思想史』58, 2001, p.23.
5) 石毛忠, 「北条執権の政治思想」, 石田一良編『日本精神史』, ぺりかん社, 1988, p.151.

있는 鶴岡八幡으로, '神國' 일본을 가호하는 불특정 신들의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무사정권에 대해서 가호를 내리고 있는 신이다.

鶴岡八幡은 源頼朝의 선조인 源頼義에 의해 1063년에 石清水八幡宮의 分靈을 鎌倉에 勸請한 것에서 유래하며, 八幡神은 본래 源氏의 氏神 · 武神임과 동시에 宗廟神 · 鎭護國家神이기도 하였다.[6] 頼朝의 시대에는 石清水八幡과 鶴岡八幡 두 신의 神格이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承久의 난에 즈음하여 무사정권을 지지한 八幡神은 京都의 石清水가 아니라 鎌倉의 鶴岡八幡이었고, 天照大神에 지지받는 조정 측에 대하여 鶴岡八幡이 막부를 지지하였다. 八幡神이 있다는 확신은 막부에게 자신과 용기를 주었다. 承久의 난의 승리는 神祇信仰 면에서는 天照大神과 春日明神 등 조정 측의 종묘신에 대한 막부의 수호신 八幡神의 승리를 의미했다. 八幡神의 뜻을 받들어 막부의 승리를 이끈 北條義時에 대해서는 『古今著聞集』에 八幡神의 神命에 입각한 武內宿禰[八幡宮의 祭神으로 여겨진 應神天皇을 도와 공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설화는 鎌倉 말기에도 이어져 義時는 '武內大神의 환생'(『平政連諫草』)으로 언급되고 있다.

무사 측의 八幡神仰의 변질은 『御成敗式目』(1232년) 말미에 있는 起請文의 神名에서도 그 일단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梵天 · 帝釋 · 四大天王, 통틀어 日本國中 六十餘州의 大小神祇, 특히 伊豆 · 箱根両所権現, 三嶋大明神 · 八幡大菩薩 · 天滿大自在天神의 部類眷屬"이라는 불교의 수호신과 八幡神을 포함한 여러 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선 天照大神과 春日明神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頼朝의 시대에는 八幡神은 이 두 개의 신 또는 그 어느 하나의 신과 병기되는 것이 통례였던 것에 비추어 이 시기 鎌倉幕府의 神祇信仰의 脫公家性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7]

또한 위에서 八幡神이 伊豆 · 箱根権現, 三嶋大明神의 뒤에 기술되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당시의 무사정권에서 八幡神仰은 이제 頼朝 시대와 같이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암시한다는 지적[8]이 있다. 伊豆 · 箱根権現 및 三嶋大明神은 모두 頼朝 이래 鎌倉幕府가 존숭해 온 신들로서 고대 이래 東國의 地域社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래 종묘신의 성격을 가지면서 전국 곳곳에 勸請된 八幡神과는 구별된다.[9] 그렇다면 막부의 北條氏는 『御成敗式目』이라는 武家 최초의 성문법이자 評定衆의 합의제라는 막부 정치의 새로운 이념을 제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關東에 뿌리를 둔 수호신들을 八幡神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아닐까? 즉 關東의 무사정권 최초의 성문법 제정에 담긴 北條泰時의 비장한 결의와 새로운 정치지향이 있었기 때문이야말로, 伊豆 · 箱根権現 · 三嶋大明神을 일본을 가호하는 여러 신들 중에서 제일 앞에 기술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싶다. 起請文에 기술된 八幡神은 일본을 가호하는 여러 신들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北條氏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막부의 將軍이 年初에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은 八幡神을 모신 鶴岡八幡宮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막부가 가장 중시하는

---

6) 石毛忠, 「『吾妻鏡』の政治思想ー鎌倉幕府の政治思想序説ー」, pp.18-21 ; 中野幡能, 『八幡信仰』, 塙新書, p.172 이하 참조.

7) 石毛忠, 「北条執権の政治思想」, p.153.

8) 同上.

9) 伊豆 · 箱根는 고대 이래 山岳信仰의 중심지였으며, 鎌倉시대에 들어서 關東의 守護神으로 존숭되어 왔다. 한편, 三嶋大明神은 伊豆半島의 개발의 祖神, 伊豆諸島의 造成神으로서 鎌倉시대에 들어 '東海道 第一의 名社'로 존숭되었고, '日本總鎭守 三島大明神'(『一遍上人繪傳』)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伊豆의 國府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伊豆國의 一宮가 되었다.

제일의 神格은 伊豆·箱根의 '二所'나 三嶋大明神이 아닌 鶴岡八幡이었던 것이다. 『吾妻鏡』에 의하면, 鶴岡八幡이야말로 頼朝 이래 鎌倉幕府가 가장 존숭하는 최상의 신이었고, 그 지위는 承久의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3. '武威'의 사회적 정착

承久의 난을 목전에 두고서 저술된 『愚管抄』에는 "保元元年 7월 2일 鳥羽院이 사망한 후 日本國의 亂逆이 일어나 그 후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귀족의 '侍'(侍衛)에 불과했던 무사세력은 중앙정계에서의 대립을 武力으로 해결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힘과 역할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慈圓과 같은 예리한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은 保元·平治의 亂(1156, 1159년) 이후 일본은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고 간파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일본의 역사에 대한 통설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12세기 중엽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두루 감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만약 두 사건이 그렇게 큰 역사적 변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시대인들은 종래에 없던 새로운 사상적·정신적 영위를 했겠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진정 동시대인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자각하도록 한 것은 承久의 난이었다. 조정의 귀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서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고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하여 軍記物語라는 문학장르가 전면 개화했던 것이다.

承久의 난은 조정의 권위가 와해되고 '무사의 세상'의 시작을 사람들에게 고하는 사건이었다. 東國의 御家人 15만이라는 大軍의 압도적 군사력 앞에서 조정 측의 '官軍'은 너무나 무력하였고, 파죽지세로 京都에 처들어간 무사들은 점령군으로서 무차별적인 방화·약탈·살상을 서슴치 않았다.[11] 난 직후에는 실로 '武威'를 앞세운 막부의 혹독한 戰後處理가 뒤따랐다. 院 측에 가담한 무사는 물론 공경귀족까지 잇달아 참수되었다. 이것은 平治의 亂 이후 처음으로 귀족 신분이 처형된 것으로서 그야말로 전쟁의 승자가 패자의 생사여탈권을 갖는다는 무사의 논리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천황[仲恭]의 폐위과 세 상황[後鳥羽·順德·土御門]의 유배라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에 이어, 治天의 君[後高倉]과 천황[後堀河]의 즉위가 막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조정의 聖域에 막부가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충돌이라는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후 평상을 되찾은 후에도 천황의 즉위에 대하여 사실상 막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불러왔던 承久의 난에 대하여 鎌倉 말기인 1328년, 後伏見上皇은 "承久 이후 關東이 하늘을 대신하여 重事를 처리하는 것은 冥慮에 의한 것으로 이미 公私의 佳例이다. 末代에 이르러 이것을 바꾸는 것은 天意에 부합하지 않으며 武威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嘉曆3년 後伏見上皇事書案)라고 기술하고 있다.

'武威'란 단순히 물리적인 무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사정권으로서의 막부의 군사적

---

10) 文治1년(1185) 1월 1일 源頼朝가 鶴岡八幡宮에 참배한 이래 매년 정초에는 거의 예외 없이 鎌倉殿(또는 征夷大將軍)이 참배하고 있다. 二所(伊豆·箱根権現)에 대한 참배는 통상 그 후에 행하고 있다. 또한 동3년(1187) 8월 15일 최초로 鶴岡八幡宮의 放生會를 연 이후 막부의 공식 행사로 정례화되고 있다. 이것은 京都의 石清水八幡宮의 예를 따른 것이다.

11) 承久의 난을 통해서 나타난 막부의 武威에 대해서는 남기학, 「'武威'를 통해서 본 鎌倉幕府의 성립과 발전」, 『東洋史學研究』 90, 2005, pp.148-165 참조.

위광이나 위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막부권력 그 자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承久의 난을 계기로 하는 막부의 '武威'의 강화 및 그것을 토대로 한 국정상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武'의 존재의의가 적극 인정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1230, 40년대에 쓰인 『平治物語』에서는, 治政에는 '文武二道'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末代인 현재에는 '武'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사 등용의 주장은 이미 12세기 중엽의 『大槐秘抄』에 보이고 있지만, 承久의 난을 거쳐 새삼 '武'를 중시한 바람직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承久의 난은 武에 역점을 둔 文武併用論이 사회에 널리 정착한 획기라고 할 만하다. 1252년에 성립한 『十訓抄』는 "무릇 무사라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할 때 이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文과 나란히 우열이 없다"라고 했듯이, 문자 그대로 文武二道論이 정착하는 것이다.

承久의 난 후 새로운 체제하에 놓인 조정의 공가귀족들은 그들 앞에 우뚝 선 막부의 존재, 그 '武威'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생생한 '武'의 중압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사는 文과 나란히 우열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조정의 국가통치자로서의 의식을 보이기는 해도 결코 공허한 治政의 표방이 아니라 귀족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현실감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武'에 대한 적극적 평가와 그에 따른 文武二道論의 실질적 정착은 承久의 난 후 막부의 높아진 위상과 그 '무위'를 배경으로 한 담론이었다.

바로 이 무렵에 후세에 '四部合戰書'[庶軒目錄, 文明17년(1485) 2월7일조]라고 병칭되었던 『保元物語』·『平治物語』·『平家物語』·『承久記』 등의 軍記物語가 본격적으로 개화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12] 軍記物語의 선구로서 承平·天慶의 亂(935~41)과 前九年의 役(1051~62)을 다룬 平安 시대의 『將門記』·『陸奧話記』가 있지만, 당시의 궁정귀족에게 東國의 전투는 먼 다른 세상의 사건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13] 하지만 保元·平治의 난, 源平의 쟁란을 거치면서 귀족들은 점차 무사의 등장을 감지하게 되었고, 承久의 난을 계기로 완연한 '무사의 세상'이 되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인식의 심화를 바탕으로, 단순한 전투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넘어 문학작품으로서 구성을 갖춘 『保元物語』·『平治物語』·『平家物語』·『承久記』가 연이어 탄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承久의 난 후의 역사인식의 심화가 있었다. 중세의 대표적 문학장르인 軍記物語의 확립은 承久의 난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武'·'武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承久의 난이 중세 일본인의 사상적·정신적 영위에 미쳤던 영향을 정치사상, 신기신앙, 사회의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이래 일본에 수용되어 있었던 유교적 덕치사상은 承久의 난을 계기로 하여 공가정권과 무사정권 양측에 의해 각각 다른 함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갔다. 조정과 막부는 모두 현실정치를 추진하는 주요한 이념적 지표로서 善政(德政)을 표방, 중시하게 되었다.

둘째, 국가의 종묘신인 天照大神과 八幡神의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는 한편에서, 石淸水八

12) 弓削繁 校注, 『六代勝事記 · 五代帝王物語』「解說」, 三弥井書店, p.20.
13) 北川忠彦 編, 『軍記物語の系譜』, pp.3-4.

幡과 鶴岡八幡이 확연히 구별되고, 鶴岡八幡이 武神 내지 鎌倉幕府의 守護神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鶴岡八幡은 막부 창립 이래 鎌倉의 무사들이 가장 존숭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承久의 난 후에도 그 지위는 東國社會에서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셋째, 保元 · 平治의 난, 源平의 쟁란을 거치면서 귀족을 비롯한 당대 사람들은 무사의 등장을 점차 감지하게 되었고, 承久의 난을 계기로 완연한 '무사의 세상'이 되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인식의 심화를 바탕으로 중세의 대표적 문학장르인 軍記物語가 전면 개화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중세 사회에 '武' · '武威'가 정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